



# 경기도 문화재 총 람

도지정편 — 1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 일러두기

1. 이 책은 2017년 ‘경기도문화재원형기록화사업’의 하나로 경기도지정문화재 총 693건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경기도문화재총람(도지정편)이다.
2. 제1권에는 유형문화재 262건·무형문화재 65건·민속문화재 12건, 제2권에는 기념물 183건·문화재자료 171건 등을 수록하였다.
3. 편집은 지정 종목과 지정 번호순으로 하였으며, 활용의 편의를 돕고자 시·군별 지정문화재 목록을 색인으로 작성하였다.
4. 문화재 개요는 지정명칭, 지정구분, 수량·면적, 지정일, 소재지, 소장자, 시대 순으로 명기하였고, 문화재 지정명칭은 한자를 병기하였다. 명칭과 수량 단위는 지정고시 당시의 명칭과 수량에 따랐다.
5. 문화재 규격은 세로·가로·높이·지름·두께 등의 순으로 표기하되, 그림은 장황을 제외한 화면의 규격, 불상은 전체 높이와 무릎 부분의 폭, 건조물은 정면과 측면의 칸수를 표기하였다.
6. 개별 문화재에 대한 설명은 분야별 전문가 집필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기존 자료를 재정리하였다. 문화재 조영·제작 시기, 용어 등 세부 사항은 기존의 학설과 더불어 집필자의 의견에 따랐다.
7. 문화재 사진은 최근(2016~2017년)의 모습을 수록하되,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과거 촬영 사진도 수록하여 그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게 하였다.
8. 사진 수집과 촬영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제공한 사진과 경기문화재연구원 이 보유한 사진을 검토하여 일부는 문화재사진 전문가에게 의뢰·촬영하였다. 발굴유적 사진은 문화재조사기관이 제공한 유적·유구·유물 사진을 수록하였다.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소재 불명, 보존상태 불량 등)에는 관련자나 관련기관이 제공한 사진을 활용하였다.
9. 문화재의 지정번호 중 겹번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거나 지정해제가 된 경우이다.



1 유형문화재

제1호	수어장대	10	제52호	회암사지 부도탑	62
제2호	승렬전	12	제53호	불암사 경판	64
제3호	청량당	14	제61호	화석정	66
제4호	현절사	16	제62호	궐리사 성적도	68
제5호	침괘정	18	제63호	현등사 삼층석탑	70
제6호	연무관	20	제64호	청성사	72
제8호	덕봉서원	22	제69호	팔달문 동종	74
제9호	충렬서원	24	제70호	용연서원	76
제10호	우저서원	26	제71호	홍계남장군 고루비	78
제11호	금동향로	28	제72호	사나사 원종국사 탑	79
제12호	청동향로	30	제73호	사나사 원종국사 석종비	80
제13호	용주사 상량문	32	제74호	행주대첩비	82
제14호	전적수사본	34	제75호	인평대군 치제문비	84
제15호	용주사 병풍	35	제76호	정조어제 체제공선생 뇌문비	86
제16호	용주사 대웅전 후불탱화	36	제78호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88
제20호	강한사	38	제79호	오명향선생 토적송공비	89
제24호	지지대비	40	제80호	이원익선생 영정	90
제35호	포초골 미륵좌불	42	제81호	효령대군 영정	92
제36호	기술리 석불입상	44	제82호	어사대비	94
제37호	매산리 석불입상	46	제83호	보광사 대웅보전	96
제38호	만안교	48	제84호	대로사비	98
제39호	칠장사 당간	50	제85호	윤계선생 순절비	100
제40호	대동법사행 기념비	52	제87호	북한산성 금위영 이건기비	101
제41호	명성황후 탄강구리비	54	제88호	광주 유정리 석불좌상	102
제46호	명성황후 생가	55	제89호	안성 죽산리 당간지주	103
제49호	지공선사 부도 및 석등	56	제90호	조현선생 유허추모비	104
제50호	나옹선사 부도 및 석등	58	제91호	문수사 품담대사 부도 및 비	105
제51호	무학대사비	60	제92호	석수동 마애중	106

제93호	안양사 귀부	108	제158호	파주 보광사 승정칠년명 동종	204
제94호	삼막사 마애삼존불	110	제160호	여주 도곡리 석불좌상	206
제97호	안성 죽산리 석불입상	112	제161호	오리 이원익 영우	208
제98호	여주 계신리 마애여래입상	114	제162호	보광사 목조여래좌상	209
제100호	온온사	116	제163호	남계 박세채 영정	210
제101호	봉국사 대광명전	117	제164호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212
제102호	망경암 마애여래좌상	118	제166호	신재 한상경 영정	214
제104호	연주암 삼층석탑	120	제167호	송암 이충원 영정	216
제105호	이항로선생 생가	122	제169호	현수제승법수	218
제106호	이천 종리 삼층석탑	124	제170호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219
제107호	이천 어석리 석불입상	126	제171호	양평 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	220
제108호	석남사 대웅전	128	제174호	안성 청원사 대웅전	221
제109호	석남사 마애여래입상	130	제175호	안성 정무공 오정방 고택	222
제110호	김종만장군 공신록 및 교지	132	제176호	의정부 약수선원 목조보살입상	223
제112호	삼막사 삼층석탑	134	제177호	하석 박정 영정	224
제114호	칠장사 대웅전	136	제178호	인재 홍진 영정	226
제115호	칠장사 소조사천왕상	138	제179호	안성 죽림리 삼층석탑	228
제116호	청원사 칠층석탑	140	제180호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	229
제119호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142	제181호	쌍계사 목조여래좌상	230
제120호	문수산 마애보살상	144	제182호	쌍계사 현왕도	232
제121호	이회선생 신도비	146	제183호	현등사 목조아미타좌상	234
제122호	망월사 해거국사 부도	148	제184호	현등사 청동지장보살좌상	236
제124호	청룡사 사적비	149	제185호	현등사 아미타회상도	238
제125호	삼막사 사적비	150	제186호	의정부 회룡사 오층석탑	240
제126호	나만감선생 신도비	152	제187호	계감일록 및 관련문서	241
제127호	한확선생 신도비	154	제188호	고양 봉성암 전성능대사 부도	242
제128호	신륵사 극락보전	156	제189호	고양 홍국사 괘불	244
제130호	신창리 삼층석탑	158	제190호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	246
제131호	오봉사지 부도	159	제191호	이인엽 영정	248
제132호	삼봉집 목판	160	제192호	요지연도	250
제133호	월사집 목판	162	제193호	가평 현등사 신중도	252
제134호	연행일록부·연행별장 외 명현간찰	164	제194호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254
제135호	청계사 소장목판	166	제195호	여주 신륵사 팔각원당형석조부도	256
제136호	서거정선생 묘지석	168	제196호	의정부 원효사 묘법연화경	257
제137호	팽성읍 객사	170	제197호	남양주 내원암 괘불도	258
제138호	연천군 심원사지 부도군	172	제198호	가평 현등사 수월관음도	260
제139호	여산송씨 족보	174	제199호	가평 현등사 함허당 득통탑 및 석등	262
제142호	장만선생 영정 및 공신록권	176	제200호	용인 화운사 목조여래(아미타·약사)좌상	264
제143호	고양 홍국사 극락구품도	178	제201호	광주 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	266
제144호	이호민 영정 외 일괄유물	180	제202호	안성 운수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267
제145호	여주군 경수연도	182	제203호	남양주 홍국사 성임당탑	268
제146호	심연원 신도비	184	제204호	부천 석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270
제147호	심강 신도비	186	제205호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	272
제148호	정대년 신도비	188	제206호	양주 회암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물	273
제149호	유영수양관연명지도	190	제207호	동두천 광주정씨가 소장 고문서	274
제150호	건릉오십구년오월삼일 군호제가문서	191	제208호	임방 초상	276
제151호	수원 봉녕사 석조삼존불	192	제209호	유순정 초상 및 함	278
제152호	수원시 봉녕사 불화(신중탱화·현왕정화)	194	제210호	황성원 초상	280
제153호	한옹인 영정 및 재실유물 일괄	196	제211호	황진 초상	282
제154호	안성객사	198	제212호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	284
제155호	포천 석조여래입상	199	제213호	안성 칠장사 대웅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	285
제156호	파주 마애사면석불	200	제214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삼세불좌상	286
제157호	남양주 수증사 부도	202	제215호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288

제216호	육경합부	290	제270호	의정부 망월사 목조불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374
제217호	조상경	292	제271호	의정부 망월사 목조불삼존상	376
제218호	조상경	293	제272호	의정부 망월사 패불도(매불함 및 복장낭 포함)	378
제219호	현수제승법수	294	제273호	의정부 망월사 건륭오십삼년명 동종	380
제220호	포천 동화사 목조불좌상	295	제274호	의왕 청계사 신중도	382
제221호	수원 청련암 영산회상도	296	제275호	김포 금정사 석조여래좌상	384
제222호	화성 용주사 목조감실	297	제276호	의정부 망월사 간행 진언집 책판 및 관련 목판 4종	386
제223호	화성 용주사 지장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일괄	298	제277호	여주 신륵사 건륭삼십팔년명 동종	388
제224호	광명 이원익 초상화	300	제278호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 삼장보살도	390
제225호	화성 용주사 삼장보살도	302	제279호	남양주시 묘적사 팔각다층석탑	392
제226호	화성 용주사 중종	304	제280호	파주 용상사 석불좌상	394
제227호	안성 칠장사 목조지장삼존상과 시왕상 일괄	306	제281호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395
제228호	계해사괘장연첩	308	제282호	강희 21년명 장경사 동종	396
제229호	이원익 인조묘정배향교서	310	제283호	이상의 영정	398
제230호	이원익 유서	312	제284호	고양 원각사 신중도	400
제231호	이원익 도망시	314	제285호	대방광불화엄경 권62	402
제232호	이원익 계자손서	316	제286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1-1, 1-2, 2-1, 2-2	404
제233호	류상운 초상	318	제287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1	406
제234호	광명 번역 정비록	320	제288호	의왕 청계사 청계사사적기비	408
제235호	광명 이원익 친필유묵	322	제289호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410
제236호	광명 이존도 유서	324	제290호	안성 봉덕사 목조여래좌상	412
제237호	화성 용주사 대성인로왕보살변	326	제291호	김후 영정 및 영정함, 호수·호수함 일괄	414
제238호	안성 칠장사 범종	328	제292호	홍재전서	416
제239호	안성 칠장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330	제293호	김우형 서첩 기오재 회묵	418
제240호	고양 원각사 수륙무차 평등재의 활요	332	제294호	윤증서첩 유봉필첩	419
제241호	고양 원각사 치문경훈	334	제295호	파주 검단사 아미타불회도	420
제242호	고양 원각사 달마대사관심론	336	제296호	고양 흥국사 영산회상도	422
제243호	목우자수심결	337	제297호	조돈 영서	424
제244호	추사 김정희 서신	338	제298호	정조 어필 비망기	426
제245호	고려사절요(갑인자본)	340	제299호	정조사 조심태 어찰첩	428
제246호	덕암사 목조보살좌상(관음보살좌상, 대세지보살좌상)	342	제300호	정조사 박종보 어찰첩	430
제247호	여주 고달사지 석조	343	제301호	고양 원각사 불조삼경	432
제248호	파주 보광사 목조보살입상	344	제302호	고양 원각사 고려시대 다리니 일괄	434
제249호	만력기축 사마방목	345	제303호	고양 대성암 목활자본 묘법연화경	436
제250호	박동량 호성공신교서	346	제304호	고양 대성암 선림보훈	437
제251호	류상운 악재집 초고본	348	제305호	양주 송암사 육경합부	438
제252호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	350	제306호	포천 대구서씨 백자묘지 및 석함	440
제253호	남양주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352	제307호	효명세자 예찰	442
제255호	남양주 봉영사 아미타불도	354	제308호	광주 수도사 목조보살좌상	444
제256호	남양주 봉영사 지장시왕도	356	제309호	성남 봉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446
제257호	남양주 봉영사 신중도	358	제310호	성남 봉국사 아미타불회도	448
제258호	남양주 봉영사 산신도	360	제311호	용인 법륜사 목불좌상	450
제259호	고양시 길상사 육경합부	361	제312호	지장보살본원경 상·중·하	451
제260호	고양시 길상사 묘법연화경	362	제313호	묘법연화경 권3~4	452
제261호	성남시 대광사 영가대사중도가남명천선사계송	364	제314호	연사일록과 한글 연행록	453
제262호	성남시 대광사 선종영가집연해권상	365	제315호	남양주 불암사 패불도	454
제263호	성남시 대광사 경율이상	366	제316호	한천두 위성공신 교서 및 초상	456
제264호	백자청화 정부인 영광정씨 묘지 및 지석함	367			
제265호	고령신씨 북백공파 고문서 85건	368			
제266호	부천 만불선원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제5	370			
제267호	부천 만불선원 십지경론 이구지·난승지2책	371			
제268호	부천 만불선원 화엄경연해38권39책	372			
제269호	화성 용주사 전담양안2건	373			

## 2 무형문화재

제1호	계명주(약계명주 포함)	460	제34호	안성 향당무	511
제8호	승무·살풀이춤	462	제35호	포천 메나리	512
제10호	방자유기장	464	제36-2호	대목장(도편수)	514
제11호	조선장	465	제37호	웅기장	516
제12호	군포 당정 옥로주	466	제38호	풀피리	518
제13호	광주 남한산성 소주	468	제39호	조각장	519
제14호	소목장(가구)	469	제40호	서각장	520
제14-1호	소목장(창호)	470	제41호	사기장(청화백자)	522
제14-2호	소목장(백골)	471	제41-1호	사기장(순백자)	524
제15호	구리시 갈매동 도당굿	472	제41-2호	사기장(분청사기)	526
제16호	지랑	474	제42-1호	석장(조각)	528
제17호	생칠장	475	제42-2호	석장(석구조물)	530
제18호	옥장	476	제43호	금은장	531
제19호	입사장	478	제44호	과천 무동 닭교놀이	532
제20호	광명농악	480	제45호	주물장	534
제21호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482	제46호	양주농악	536
제22호	고양 송포 호미걸이	484	제47호	주성장(불구)	538
제23호	김포 통진 두레놀이	486	제47-1호	주성장(범종)	540
제24-1호	나전칠기장(칠장)	488	제48호	평택민요	542
제24-2호	나전칠기장(나전장)	490	제49호	목조각장	544
제25호	자수장(민수)	492	제50호	이천 거북놀이	546
제25-1호	자수장(궁수)	494	제51호	양태장	548
제26호	벼루장	496	제52호	퇴계원 산대놀이	550
제27-1호	양주 상여·회다지소리	498	제53호	경기검무	552
제27-3호	양평 상여·회다지소리	500	제54호	경기송서(송서·율창)	553
제27-4호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502	제55호	동두천민요	554
제28호	단청장	504	제56호	경기고깔소고춤	555
제29호	화각장	505	제57호	불화장	556
제30-1호	악기장(북메우기)	506	제58호	젓머리 성황제	558
제30-2호	악기장(현악기)	507	제59호	시흥 군자봉 성황제	560
제31-1호	경기소리(휘몰이잡가)	508	제60호	야장	562
제31-2호	경기소리(긴잡가)	509	제61호	자리권이	563
제33호	파주 금산리 민요	510			

## 3 민속문화재

제1호	회암사지 맷돌	566	제8호	일산 밤가시 초가	576
제2호	여주 보통리 해시계	567	제9호	덕릉마을 산신각	577
제3호	삼막사 남·녀근석	568	제10호	용인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578
제5호	김병호 고가	570	제11호	여주 이포리 웅기가마	580
제6호	정원채 고가	572	제12호	김좌근 고택	582
제7호	양평 창대리 고가	574	제13호	전 월산대군 요여	584





— 1 —  
유형문화재  
—



# 수어장대

守禦將臺

조선시대(1624년)  
1동  
하층 5×4칸  
상층 3×2칸  
목재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780번길 107-65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장대는 전쟁이나 군사훈련 때 지휘관이 올라서서 군사들을 지휘하기 위해 자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성곽이나 산성에서는 넓은 대지가 마련되어 군사훈련에 편리한 장소이거나, 지형이 높아 주변 관망에 편리한 장소에 높다랗게 장대를 조성하고 건물을 지어 지휘소로 삼았다. 성곽의 규모가 클 경우 여러 곳에 장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1711년(숙종37)에 축성한 한양의 북한산성에는 장대 세 곳을 두었고, 1796년(정조20)에 축성한 수원 화성華城에는 성곽의 동·서·양쪽 두 곳에 장대를 세웠다.

남한산성南漢山城에는 1624년(인조2) 축성할 때에 동·서·남·북에 4개의 장대를 두었고, 1686년(숙종12) 봉암성을 축성할 때 외동장대外東將臺를 설치하여 총 5개의 장대가 있었다. 수어장대는 이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대로 산성 내 서쪽 주봉인 청량산(해발 482m)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당초에는 단층 누각으로 축조하고 서장대西將臺라 불렀는데, 이후 1751년(영조27)에 유수留守 이기진李箕鎮(1687~1755)이 왕명을 받아 2층 누각으로 다시 짓고 ‘守禦將臺(수어장대)’라는 편액扁額을 내걸었다. 2층 내부에는 ‘無忘樓(무망루)’란 편액이 달려 있는데,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겪은 시련과 8년간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귀국하여 북벌北伐을 이루지 못하고 승하한 효종의 원한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영조가 지은 것이다. 현재 무망루 편액은 수어장대 오른쪽에 보호각을 지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다.

2 3

1

4 5  
6 7

1. 수어장대, 2013. 광주시
2. 수어장대, 1910~1930. 국립중앙박물관
3. 수어장대, 1910~1940. 국립중앙박물관
4. 수어장대, 2012.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5. 수어장대, 2008. 광주시
6. 무망루,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7. 보호각 내 무망루 편액,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현재의 건물은 1836년(헌종2) 유수 박기수朴岐壽(1792~1847)가 재건한 것으로, 하층은 초익공初翼工, 상층은 이익공二翼工의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하층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4칸, 상층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하층의 내진고주가 그대로 올라와 상층의 기둥을 이룬다. 기단은 장대석 외벌대로 기단 바닥과 건물 내부 외진에는 전돌을 깔았다. 내진부분은 외진보다 한단 높게 하여 장마루로 구성하였고, 1층의 변주邊柱에는 팔각의 장초석을 설치하였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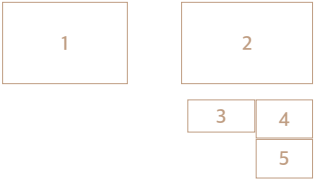
# 승렬전 崇烈殿

조선시대(1625년)  
1동  
사당 3×2칸  
강당 5×2칸  
동·서재 3×2칸  
목재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780번길 41-20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승렬전>은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溫祚王(재위 BC 18~AD 28)과 1624년(인조2) 남한산성 축성 당시 책임자였던 수어사 이서李曙(1580~1637)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사당은 1464년(세조10) 충청남도 천안에 있었으나 임진왜란(1592~1598)때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후 1638년(인조16) 온조왕사溫祚王祠를 남한산성에 건립하였다. 1795년(정조19) 왕이 ‘崇烈(승렬)’이라는 현판을 내려 승렬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제사는 음력 9월 5일에 지내고 있으며, 제례형식은 조선시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규정에 따라 중간 규모의 제례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건물배치는 현재 사당·전사청·내문·강당·외삼문·홍살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전인 승렬전은 백제 시조 온조왕의 신위를 모신 건물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초익공初翼工 형식의 건물로 겹처마의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다. 부전(동재)은 본전 아래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한산성 축성 당시 책임자였던 이서의 신위를 모신 건물이다. 전사청(서재)은 부전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례 및 제사 준비하기 위한 건물이다. 두 건물은 각각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홑처마의 맞배지붕으로 양 측면은 화방벽으로 되어있다. 이외에도 내문, 강당(1998년 복원), 솟을삼문 형식의 외삼문, 승렬전 진입로에 설치된 홍살문이 있다. 현재 승렬전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민속경관의 주요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1. 승렬전 전경, 2002. 광주시
2. 승렬전 사당,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승렬전 전경, 1937. 광주시
4. 승렬전 사당, 1910~1940. 국립중앙박물관
5. 승렬전 추계 제향, 2015. 광주시





# 청량당

清凉堂

조선시대(1624년)  
1동  
사당 3×2칸  
대문 3×1칸  
목재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780번길 10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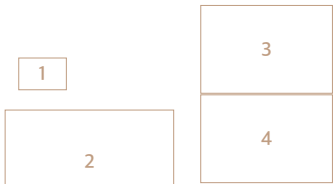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청량당>은 남한산성의 축성과 관련된 민간 신앙처로, 마을의 신을 모시는 신당의 성격을 담고 있는 사당이다. 현재 사당에는 1624년 (인조2) 수어사 이서李曙(1580~1637)와 함께 남한산성을 쌓은 이회李晦(1567~1625), 송씨부인·나씨부인·벽암대사·홍수장군·백마장군·오방신장·매바위·남한산성군웅·별상장군 등 10명의 무속신을 모시고 있다. 사당 내부에는 위패가 아닌 이회장군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그의 처첩妻妾과 벽암대사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매년 청량당에서 열리는 도당굿은 청량당에 대한 원혼을 기리고 살아 있는 백성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정월 2일, 5월 2일에 거행되고 있다.

청량당에는 이회와 그의 처첩에 관한 설화가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이회는 조선 1624년 남한산성 축성 시 경비를 탕진하고 공사에 힘쓰지 않아 기일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모함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된다. 그의 처첩도 남편을 도와 성을 쌓기 위해 축성자금을 마련해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소식을 듣고 강물에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그 후 그의 무고함이 밝혀져 수어장대 옆에 사당을 짓고 그와 처첩의 넋을 위로하게 되었다’고 한다.

청량당은 현재 사당과 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당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홀처마의 팔작지붕으로 되어있다. 중앙에는 사분합 띠살문을 달았고 좌우 칸에는 화방벽 위에 창문을 각각 내었다. 대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로 홀처마의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다. 대문 중앙에는 2쪽 여닫이문을 달았고 문 위에 홍살을 장식하였으며, 문 좌측 칸에는 격자문이 달린 방이 있다. 현재 청량당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민속경관의 주요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1. 청량당 내부, 2016.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 청량당 대문,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4. 청량당 사당,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현절사

顯節祠

조선시대(1688년)  
1동  
사당 3×2칸  
동·서재 3×2칸  
목재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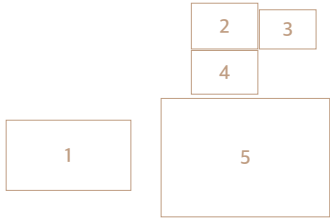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현절사>는 병자호란(1636~1637) 때 청에 항복하기를 거부하다 중국 선양瀋陽으로 끌려가 처형당한 홍익한洪翼漢(1586~1637), 윤집尹集(1606~1637), 오달계吳達濟(1609~1637) 삼학사三學士의 우국충절憂國忠節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다. 후에 김상헌金尙憲(1570~1652), 정온鄭蘊(1569~1641)의 위패도 함께 모셔졌으며, 1693년(숙종19)에 ‘현절사顯節祠’로 사액되었다.

이 사당은 1871년(고종8)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에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국 47개 서원 및 사당 중 하나이다. 1688년(숙종13) 사당이 완공된 이후 매년 음력 9월 10일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조선시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원칙에 따라 작은 규모의 제사 형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건물배치는 현재 사당과 내문, 동재, 서재, 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이익공二翼工 형식의 건물로 홑처마의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다. 정면 각 칸에는 사분합 띠살문을 달았으며, 측면과 후면은 화방벽으로, 전면은 개방된 퇴칸으로 되어있다. 동재와 서재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홑처마의 맞배지붕으로 되어있으며, 내문과 외문은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현절사는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민속경관의 주요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1. 현절사 전경, 2016. 광주시
2. 현절사 전경, 1983. 전국사찰현황실태조사서
3. 현절사 사당, 1938~1939. 국립중앙박물관
4. 현절사 사당,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5. 현절사 전경, 2012.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침괘정

枕戈亭

조선시대(1757년)  
1동  
7×3칸  
목재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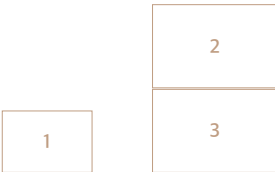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침괘정>의 건립 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1751년(영조27)에 광주 유수 이기진李箕鎭(1687~1755)이 침괘정이라 이름짓고 편액을 붙이면서 건물을 중수하였다고 전해진다. ‘枕戈亭(침괘정)’이라는 이름은 ‘창을 베개로 삼는다’라는 뜻으로 잘 때에도 항상 국방의 일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붙여졌다.

침괘정이 위치한 일대는 백제의 온조 왕궁터로 전해지고 있으며, 조선조에서는 무기제작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괘정 오른쪽에 명나라 사신이었던 정룡程龍이 ‘총융무고總戎武庫’라 이름 붙인 군기고軍器庫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물의 평면을 볼 때 침괘정은 수어사守禦使의 집무실로 활용되었던 건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정면에서 볼 때 좌측 3칸에 8평 규모의 마루방이 형성되어 있으며 우측으로 5칸 12평 규모의 온돌방이 형성되어있다. 각 칸은 벽으로 구분되지 않고 2쪽의 여단이 격자문으로 구분되었는데, 여단이문을 모두 열면 하나의 큰 방이 형성되면서 내부에 위계가 강한 통합공간이 형성된다. 이러한 형식은 전형적인 집무실 공간의 형식이다.

건물의 전체 평면은 정면 7칸, 측면 3칸의 규모인 장방형 평면이다. 정면은 동향하고 있으며, 지붕은 겹처마를 두른 팔작지붕 양식이다. 장대석 기단위에 자연석 초석을 그랭이질 하였으며 방형기둥을 사용하였다. 공포는 이익공二翼工으로 기둥 사이에는 화반을 사용하였는데 화반의 문양이 통일되지 않고 여러 종류로 나누어 치장한 것이 특이하다. 내부 온돌방 상부는 종이반자를 구성하였고, 마루방 상부는 우물반자형식이며, 단청은 모로단청을 하였다. 침괘정 주변에는 적십 위에 초석들이 잔존하고 있어 과거에 다른 건물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침괘정, 1910~1940\_ 국립중앙박물관  
2. 침괘정 정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침괘정 후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연무관

演武館

조선시대(1625년)  
1동  
5×4칸  
목재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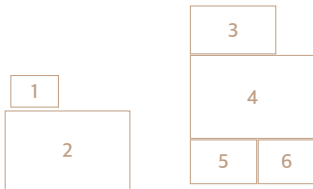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연무관>은 중앙군인 수어영의 군사시설로서 군사훈련이나 행사, 무사 시험 등이 치루어 지던 곳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정조가 직접 거동하여 문무관의 시험을 관장하였고, 새로 개발된 무기의 시연을 지켜보았으며, 음식을 마련하여 장졸들을 치하하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2009년 연무관지 해체보수공사 과정에서 그 연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연무관이 처음 건립된 시기는 1625년(인조3)으로 인조 2년에 시작된 남한산성 수축공역 과정에서 건립되었고, 이후 1702년(숙종28), 1763년(영조39), 1873년(고종10)에 큰 규모의 수리가 있었다. 당초에는 ‘연무당演武堂’이라 부르던 것을 숙종 때에 개수改修하고 ‘鍊兵館(연병관)’이라 편액하였다. 이후 1799년(정조3)에는 ‘수어영守禦營’이라 개칭하였고, 1795년(정조19) 이후 수어청이 혁파되면서 수어영에서 ‘연무관演武館’으로 변경되었다. 그 뒤에는 통칭 ‘연병관’ 또는 ‘연무관’이라 불렀다.

건물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로 2고주5량二高柱五梁 구조에 초익공初翼工 건물이며 연등천장에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양측면과 배면 퇴칸열에는 판벽이 설치되어 있고, 배면 판벽 양끝 부분에는 여닫이 판문을 두었다. 배면 퇴칸열 판벽을 기준으로 전면쪽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고, 후면 퇴칸에는 강희다짐으로 마감하였다. 현재는 연무관 한 동의 전각만 서 있는 모습이지만, 18~19세기 고지도 등을 참고해 보면 연무관 주변에 관련 건물들이 집성된 일단의 공간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1. 연무관, 1938~1939. 국립중앙박물관
2. 연무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연무관, 1910~1930. 국립중앙박물관
4. 연무관지 주변 일대 전경, 2010. 경기문화재연구원
- 5-6. 연무관지 조사 후 전경, 2010. 경기문화재연구원





## 덕봉서원

德峰書院

조선시대(1695년 창건)  
1동  
사당 3×2칸  
강당 5×2칸  
동·서재 3×2칸  
목재  
안성시 양성면 덕봉서원으로 529-8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덕봉서원 송모회

	2	3
	4	5
1		6

1. 외삼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강당,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서재,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사당,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5. 정려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6. 덕봉서원 전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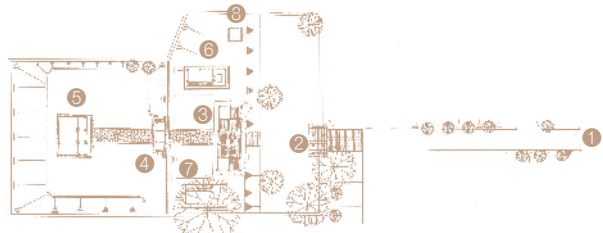


<덕봉서원>은 1695년(숙종21) 오두인吳斗寅(1624~1689)의 충절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신 곳이다. 1697년(숙종 23)에 ‘덕봉德峰’이라 사액되고, 1700년(숙종26) ‘덕봉사당德峰祠堂’라 쓰인 편액을 하사받았다. 1794년(정조18) 강당 중수 이후 1871년(고종8)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았다. 1979년 사당祠堂를 중건하고, 1940년에 훼손되었던 동재와 서재는 1984년 중건하였다.

오두인의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원징元徵, 호는 양곡陽谷이다. 1648년(인조26) 진사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지평, 사간, 경기도관찰사,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689년(숙종15) 형조판서로 재직 중에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실각하자, 지의금부사에 세 번이나 임명되고도 나가지 않아 사직削職되었다. 같은 해 사직司直을 지냈으나, 인현왕후 폐위 후 이세화李世華·박태보朴泰輔와 함께 이에 반대하다가 국문鞫問을 받고, 의주로 유배 도중 파주에서 사망하였다. 1694년(숙종20)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경내의 건물로는 사당·강당·동재·서재·외삼문·내삼문·홍살문·정려각 등이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며 ‘德峰祠堂(덕봉사당)’라 쓰인 편액이 걸려 있다. 내부에는 오두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측면에 영정을 모신 감실이 있으며, 1695년(숙종21)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이 찬한 상량문이 편액으로 걸려 있다.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민도리 팔작지붕이며 ‘正義堂(정의당)’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특이한 것은 동재 바깥쪽에 오두인의 충신정려와 오두인의 아들인 오관주吳觀周의 효자정려가 함께 모셔져 있다는 점이다. 오두인의 충신정려는 1694년 윤 5월, 오관주의 효자정려는 1766년(영조42)에 내려진 것이다. 매년 2월과 8월 중정中丁에 향사鄉祠를 지내고 있으며, 제물祭品은 6변籩 6두豆이다.



① 홍살문 ② 외삼문 ③ 강당 ④ 내삼문  
⑤ 사당 ⑥ 동재 ⑦ 서재 ⑧ 정려각





## 충렬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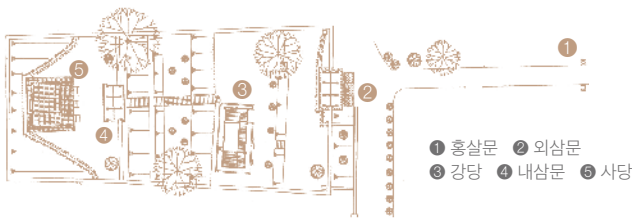
忠烈書院

조선시대(1576년 창건)  
1동  
사당 3×3칸  
강당 4×2칸  
목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충렬로 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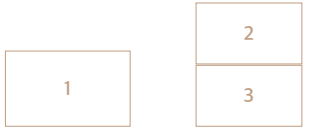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정씨종중(정덕화)

<충렬서원>은 1576년(선조9)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정몽주鄭夢周(1337~1392)와 조광조趙光祖(1482~1520)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정몽주와 조광조의 묘소 중간 지역인 죽전에 ‘충렬사忠烈祠’로 창건하여 위패를 모신 곳이다.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된 후 1605년(선조38) 경기도관찰사 이정구李廷龜, 용인현감 정종선鄭從善 등이 뜻을 모아 정몽주의 묘가 있는 모현면에 옮겨 중건을 시작하였다. 1608년(광해군1) 사당 3칸, 동재와 서재 각 2칸, 문루 3칸 규모로 완성하고 문루 위에는 강당을 지었다. 이 때 조광조의 위패는 새로 창건된 심곡서원으로 이안하였다. 1609년(광해군1)에 ‘忠烈書院(충렬서원)’으로 사액되었고, 1701년(숙종27) 정몽주의 손자 정보鄭保와 병자호란 때의 충신인 이시직李時稷을 추가 배향配享하였다. 1706년(숙종32) 정제두鄭齊斗 등 후손과 유림의 공의公議로 현 위치로 이건하였다. 1871년(고종8)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11년 유림의 공의로 사당을 중건하고, 1956년에 강당을 복원하였으며 1972년 전체를 보완·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8년부터는 홍익한洪翼漢, 윤집尹集과 함께 삼학사三學士의 한 사람으로 병자호란 때 척화斥和를 주장했던 오달제吳達濟(1609~1637)를 추가로 배향하였다.



정내에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사당, 내삼문, 외삼문, 동·서 협문夾門,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이루어진 정면 4칸, 측면 2칸의 강당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를 새긴 비가 건립되었다. 사당 중앙에는 갑실을 마련하여 정몽주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하고, 좌·우 위에 정보와 이시직의 위패를 배향配享하였다. 매년 3월과 9월 중정中丁에 향사鄉祠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祭品은 5변籩 5두豆이다.



1. 충렬서원 사당,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충렬서원 외삼문,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충렬서원 강당,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0호

## 우저서원

牛渚書院

조선시대(1648년 창건)

1동

사당 3×2칸

강당 4×2칸

동·서재 3×2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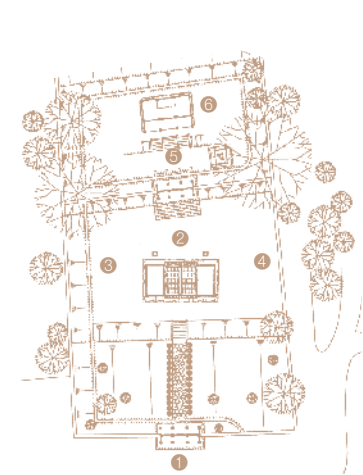
목재

김포시 중봉로25번길 87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우저서원

관리자 : 우저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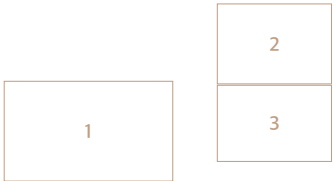


① 외삼문 ② 강당 ③ 서재 ④ 동재 ⑤ 내삼문 ⑥ 사당

<우저서원>은 선조 대의 문신이자 학자이며,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한 조헌(趙憲)(1544~1592)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648년(인조26) 조헌의 옛 집터에 창건하여 위패를 모신 곳이다. 1669년(현종10)경 김포유생 이만춘(李萬春) 등이 청액소(淸額疏)를 올려 사액을 청하였지만 한창 첩설(疊設)에 따른 폐단이 논의되던 때라 실현되지 못하다가, 1675년(숙종1) 송준길(宋浚吉)의 청으로 ‘牛渚(우저)’라고 사액되었다. 1834년(순조34) 중건 이후 1871년(고종8)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1973년부터 3년에 걸쳐 전면 보수가 이루어졌다.

조헌의 본관은 백천(白川)이고,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도원(陶原)·후율(後栗)이다.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문인으로 1567년(명종2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헌부감찰, 통진현감, 전라도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1591년(선조24)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게이테쓰 겐소가 명나라를 칠 것을 전달하자 그를 처형하자는 소를 올렸으나 이러한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직을 버리고 옥천에 은거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문인 이우(李瑀) 등과 의병 1,600여 명을 모아 영규(靈圭)의 승군(僧軍)과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였으나 전라도로 진격하려던 왜군에 맞서 금산에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하였다. 1604년(선조37)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으로 책록(冊錄), 1734년(영조10) 영의정에 추증(追贈)되었으며, ‘문열(文烈)’의 시호를 받고 1883년(고종20) 문묘에 종사(從祀)되었다.

경내의 건물로는 외삼문·동재·서재·강당·내삼문·사당 등이 있고, 사당 앞 우측에는 1617년(광해군9)에 건립된 조헌선생유허추모비(趙憲先生遺墟追慕碑)와 비각이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민도리 맞배지붕이다. 강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중앙의 4칸 대청 좌우에 2칸씩 온돌방이 있으며, ‘麗澤堂(이택당)’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매년 음력 2월 중정(中丁)과 조헌의 기일인 음력 8월 18일에 향사(鄉祠)를 지내고 있다.



1. 여택당과 동·서재, 2014. 김포시
2. 우저서원 전경, 2014. 김포시
3. 사당과 추향제, 2015. 김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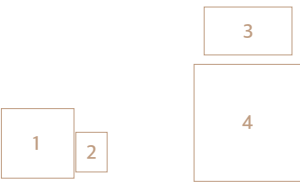


# 금동향로

金銅香爐

조선시대  
2개  
40×29×20cm  
금속(금동)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1. 금동향로,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금동향로 바닥면,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금동향로 뚜껑,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금동향로,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용주사 소장 <금동향로>는 고대 중국 청동기인 방정方鼎을 방제倣製한 것으로 2점이 용주사에 남아있다.

방형의 몸체에 구연口緣 위에 귀가 붙은 수직귀立耳와 납작한 편족扁足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족은 별도로 주조한 후 리벳(rivet, 금속 재료의 결합에 사용되는 막대 모양의 못)으로 몸체와 연결하였으며, 다리의 상부는 도금을 하였다. 몸체는 4개의 판, 비륜扉慄(기물 위에 돌기된 형태로 나와 있는 선), 바닥판을 별도로 주조한 후 뿔뿔로 접합하고, 수직귀는 리벳으로 고정하였다. 뚜껑은 투조透彫된 연기 구멍을 별도로 주조한 후 뿔뿔로 접합하고, 연기구멍 중앙의 손잡이는 리벳으로 연결하였다. 뚜껑의 측면에는 덩굴문양을 새기고, 여백은 어자문魚子文으로 메웠다. 이 향로의 몸체에 새겨진 문양은 상단과 하단 모두 보조문양으로 뇌문雷文을 사용하였고, 주문양인 도철문饗饗文은 보조문양으로부터 돌출시키고 있다. 이처럼 보조문양으로부터 주문양을 돌출시키는 구조는 중국 상대후기商代後期 고동기古銅器의 문양표현 방법으로 ‘이층화二層花’라 부르고 있으며, 북송대 이후 청대까지 제작된 방고동기倣古銅器에서도 지속되는 표현방법이다.

향로의 바닥면 중앙에는 방형의 문양틀 안에 전서篆書로 ‘魯公乍文王尊彝(노공사문왕존이)’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북송 휘종徽宗 대에 편찬된 『선화박고도宣和博古圖』 권2에 수록된 주문왕정周文王鼎이라는 명문과 같은 것으로 노공魯公은 주공周公을 의미하고, 문왕文王은 주나라의 문왕을 말하며, 존이尊彝는 제기祭器라는 의미이다. 『선화박고도』에는 주공周公이 아버지인 주의 문왕을 제사지내기 위해 만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용주사 소장 금동향로는 『선화박고도』의 ‘주문왕정’을 방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조가 쓴 『홍재전서弘濟全書』권4 「춘저록春邱錄」4記 ‘태호석기太湖石記’(1774)에는 정조가 갑오년 봄에 태호석을 구해 창문 앞에 약관藥罐·향구香甌·문왕정文王鼎·선덕로宣德爐를 배열하였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정조가 1774년(영조50) 이전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팔각향로와 함께 용주사의 창건과 함께 하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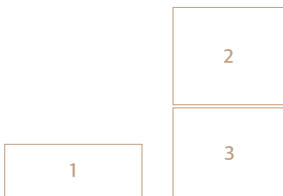


## 청동향로

靑銅香爐

조선시대  
1개  
20×27cm  
금속(청동)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1. 청동향로의 소장팔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청동향로,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청동향로,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용주사 소장 <청동향로>는 중국 고대 청동기인 정鼎(솥)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정형향로鼎形香爐로, 4개의 다리와 2개의 귀가 달린 팔각의 향로이다. 정鼎의 형태가 삼쪽에 양 귀가 달린 원정圓鼎과 사쪽에 양 귀가 달린 방정方鼎으로 나뉘는 것을 고려하면, 이 팔각의 정형향로는 특수한 예에 속한다.

이 향로는 구연口緣을 팔각으로 주조한 후 몸체와 땀으로 접합하여 제작되었다. 구연 아래의 목 부분은 안으로 들어간 형태로 팔각의 각 면에는 가로로 긴 방형의 명문곽을 만들어 ‘萬歲樂(만세락)’을 새겼고, 주변으로 연화당초문을 표현하였다. 8각의 몸체는 비룡扉櫨(기물 위에 돌기된 형태로나와 있는 선)으로 구획을 하고 각 면에는 능형菱形(마름모꼴의 형태)의 문양틀 안에 소상팔경瀟湘八景(중국의 소주蘇州와 삼강三江 지방 여덟 곳의 아름다운 경치)을 새겼다. 비룡은 별주 후 땀으로 접합하였다. 목에 붙은 양 귀는 옆귀附耳로 한 마리의 용을 별주 후 땀으로 접합하였다. 몸체의 저부는 별도의 판을 주조 후 몸체와 땀으로 연결하였고, 외저 중앙에는 이중원을 만들고 안쪽에 전서篆書로 ‘大明宣德年製(대명선덕년제)’를 새겼다. ‘대명선덕년제’라는 명문은 ‘선덕로宣德爐’라고 부르는 향로에 새겨지는 관식款識으로 청동향로의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청동향로는 『선덕정이보宣德鼎彝譜』[중국 명나라 선종善宗 선덕시기(1426~1435)]에는 수록되지 않은 기형이므로 명대 또는 청대에 방제倣製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대에 방제한 선덕로는 선덕 3년과 4년에 제작한 원래의 기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용주사 소장 청동향로는 청대에 방제한 선덕로로 추정된다. 정조가 쓴 『홍재전서弘濟全書』권4 「춘저록春邱錄」4記 「태호석기太湖石記」(1774)에 정조가 갑오년 봄에 태호석을 구해 창문 앞에 약관藥罐·향구香甌·문왕정文王鼎·선덕로宣德爐를 배열하였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정조가 1774년(영조50) 이전부터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용주사의 창건과 함께 하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3호

용주사 상량문

龍珠寺 上樑文

조선시대(1790년)  
1축  
1,500×77cm  
비단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용주사 상량문>은 조선 정조의 부친 사도세자思悼世子的 묘를 현릉원顯隆園으로 이장하고 그 원찰로 용주사를 창건한 내력을 기록한 문서로, 원 제목은 ‘花山龍珠寺上樑文(화산용주사상량문)’이다. 정조는 1789년(정조13)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 배봉산(지금의 서울 청량리 일대)에서 화성의 화산花山으로 옮겨 현릉원을 조성하고 사도세자의 위호를 장헌세자莊獻世子로 바꾸어 추송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용주사를 건립하여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도록 하였다. 상량문은 비단 전면에 먹으로 작성되었는데, 비단에 ‘蘇州織造臣舒文(소주직조신서문)’이라는 문구가 직조되어 있어 중국 소주蘇州지방에서 생산된 공단貢緞(운기가 도는 고급 비단)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퇴색되지 않고 직물의 한 폭을 그대로 사용하여 양쪽에 식서飾緒가 남아 있다. 직물에는 구름무늬를 사용하였는데 여의무늬가 네 덩어리로 뭉쳐진 사합여의형四合如意形 구름머리에 卍자형 꼬리가 연결되어 있다.



정조는 당시 용주사의 건립을 주도했던 좌의정 체제공蔡濟蒸에게 명하여 용주사 상량문을 짓고 쓰도록 하였다. 용주사 상량문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서술되어 있다. 첫 부분에서는 부처님의 위덕을 기리고 용주사의 지세를 서술하였다. 이어 정조가 정치를 잘 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정성을 모아 절을 지으니, 천승千乘의 군자로서 불교의 성문 연각 보살 삼승三乘이 두루 보살피 주기를 기원하며 절을 짓게 되었음을 말하였다. 중간 부분의 영치기 노래(아랑위포랑동, 兎郎偉頌)에서는 ‘바다의 아침해가 붉게 물드니 마치 신령한 용이 잠에서 깨어 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노니는 것 같다’고 ‘용주龍珠’의 뜻을 풀고, 임금이 해마다 이곳을 지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짐을 노래하였다. 마지막에는 상량 이후 절을 잘 유지하여 나라에 재난이 없고 장헌세자(사도세자)의 능침을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며, 아울러 정조가 질병 없이 늘 절에 오고 현릉원에 마음대로 오르내릴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1

2

- 용주사 상량문, 2006. 문화재청
- ‘소주직조신서문’, 2006. 문화재청



## 전적수사본

典籍手寫本

조선시대(1795년)  
2책  
68×45cm  
종이(단종이)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전적수사본』은 1795년(정조19)에 정조가 친히 지어 화산의 용주사에 내려준 기복계祈福偈, 곧 복을 기원하며 지은 계송偈頌과 해설이다. 정조는 1789년에 아버지 장헌세자莊獻世子の 능을 양주 배봉산에서 화산으로 옮겨 현릉원顯隆園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듬해에는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용주사를 창건하면서 이것을 지어 용주사에 내려주었던 것이다.

구름무늬의 표지에 변철邊鐵을 대어 놓았는데, 변철에는 다섯 개의 연꽃무늬판이 고정되어 있고 변철의 가운데에는 둥근 고리를 달아 놓았다. 책머리에 있는 명칭은 『어제화산용주사봉불기복계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이다. 한 면을 5행으로 인찰한 뒤 해서체의 글씨로 쓴 대행본이다.

전체 내용은 정조의 서문·서분序分·정종분正宗分·결계분結偈分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절은 현릉원의 제사를 위해 지었고, 삼가 게어偈語를 지어 삼업공양(몸·입·뜻의 세 가지 업으로 드리는 공양)을 드린다’는 내용이다. 이어 서분은 「보고인천普告人天」, 1조목, 정종분은 「대지숙인大地宿因」, 「공양칠보供養七寶」, 「장엄만계壯嚴萬偈」, 「응운발상應運發祥」, 「복덕무량福德無量」, 「제불호우諸佛護佑」, 「보살원력菩薩願力」 등 7조목, 결계분은 「정토극락淨土極樂」, 「항사보록恒沙寶錄」 등 2조목이 있다.

수록된 내용은 정조의 저작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권55, 잡저)에도 수록되어 있다.

## 용주사 병풍

龍珠寺 屏風

조선시대  
2폭  
232×347cm  
종이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용주사 병풍>은 오동나무, 괴석을 중심으로 매화, 모란, 단풍나무 등의 화훼수목을 함께 배치해 그린 그림이다. 각 폭에는 성군을 기다리는 신하에 빗대 정원에 심으면 재상이 난다는 오동나무와 장수를 상징하는 괴석에 군자의 지조를 의미하는 매화나 부귀를 대표하는 모란 등을 결합했는데, 길상의 의미를 중첩해 상징성을 강조한 병풍 제작은 상업이 발달하고 물질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19세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각 폭들은 ‘중심 주제는 강하게’ 주변의 부차적인 ‘경물들은 맑게’ 채색해 시각적 대비 효과를 얻고 있다. 오동나무 그림에서 나무기둥은 진한 갈색으로, 나뭇잎과 모란은 가늘고 부드러운 필선으로 형태를 그리고 채색을 얹게 하였다. 괴석은 구불구불한 선으로 기괴하게 그리고 진한 청색이나 갈색으로 거칠게 표현한 반면 괴석 주변의 국화, 매화, 모란 등은 단정하고 깔끔한 필치로 그려 대비시켰다. 주요 경물은 강하게 표현하고 주변 경물들은 필선 위주로 형태를 그려 얹게 채색하는 것은 19세기 궁중회화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오랜 풍파를 견뎌낸 괴석과 나무의 줄기 표현을 위해 짙은 청록 태점에서 테두리를 마치 흰 꽃을 찍은 것처럼 그린 것 역시 궁중회화인 고궁 박물관소장 일월오봉병日月五峰屏 등의 나무 표현에서 보인다.

이 작품은 용주사가 창건될 때 정조가 하사한 김홍도金弘道(1745~?)의 그림으로 전해지나 소재와 화풍 등에서 김홍도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길상적 의미가 결합하여 상징성을 강조한 병풍 형식이란 점과 도식적인 형태로 가기 전인 바위의 표현 등에서 19세기 전반기 작품으로 여겨진다.

1 2 3

1. 전적수사본 표지, 2006\_ 문화재청  
2·3. 전적수사본 1책 서문, 2006\_ 문화재청





# 용주사 대웅전 후불탱화

龍珠寺 大雄殿 後佛幀畫

1910년대  
1폭  
440×350cm  
비단  
화성시 용주로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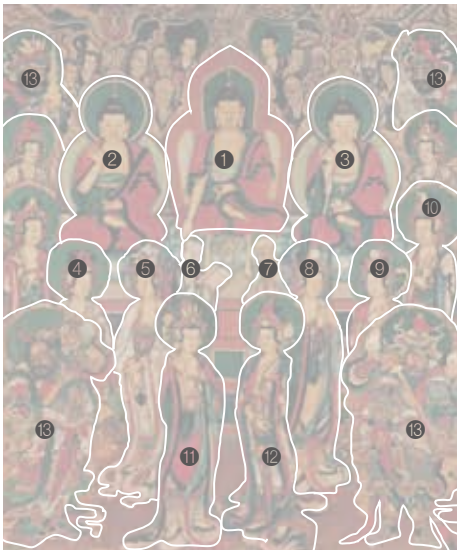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용주사 대웅전 후불탱화>는 1790년(정조14)에 김홍도金弘道가 그렸다고 알려져 있다. 하단부에 일부 오염된 부분이 관찰되나,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이 불화는 중앙에 석가모니부처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아미타부처, 왼쪽에 약사부처 등 세 부처의 회상會上을 한 화면에 그린 삼불회도三佛會圖이다. 삼불회도는 17세기부터 등장하여 18세기, 19세기에 유행하였으며, 20세기에도 꾸준히 조성되었다. 삼불회도 형식은 용주사 대웅전후불화와 같은 1폭 형식과 각 회상의 장면이 각각 한 폭씩에 그려지는 3폭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에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하고 있는 석가모니불은 키형 광배를 하고 있으며, 무릎 아래에는 아난阿難과 가섭존자迦葉尊者가 서있고, 그 아래에 문수와 보현보살이 연꽃을 들고 마주보고 있다. 오른쪽에 증품중생인中品中生印을 결하고 있는 아미타불은 원형 두광과 신광을 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백의관음과 세지보살이 서 있다. 왼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약기藥器를 잡고 있는 약사불은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하고 있고, 그 아래에 일광과 월광보살이 서 있다. 세 부처의 뒤에는 제자들과 동자 등 권속들을 배치하였으며, 화면 네 귀퉁이의 가장자리에는 사천왕을 배치하여 세 부처의 설법회를 수호守護하고 있다.

색채는 붉은색과 녹색을 조화롭게 사용하였으며, 원근법, 군집형 구도, 균형 잡힌 신체 비례, 명암법明暗法 등 서양화법이 화면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 경기도 지역에서 유행하였던 새로운 불화 양식이다. 따라서 이 불화는 1910년대 용주사가 중창되었을 당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① 석가모니불
- ② 아미타불
- ③ 약사불
- ④ 대세지보살
- ⑤ 관음보살
- ⑥ 아난존자
- ⑦ 가섭존자
- ⑧ 월광보살
- ⑨ 일광보살
- ⑩ 금강장보살
- ⑪ 보현보살
- ⑫ 문수보살
- ⑬ 사천왕



용주사 대웅전 후불탱화, 촬영임미상. 성보문화재연구원



## 강한사

江漢祠

조선시대(1785년)  
1동  
사당 3×2칸  
강당 6×4칸  
대로사비각 1×1칸  
추양재 5×3칸  
목재  
여주시 청심로 113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대로사유회

<강한사>는 조선중기 학자이자 정치가인 우암 송시열(尤庵宋時烈, 1607~1689)의 뜻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사당이다. 사당은 1785년(정조9) 송시열에 대한 존칭으로 ‘대로大老’의 명칭을 붙여 ‘대로사大老祠’로 사액되었고, 이후 1873년(고종10) ‘강한사江漢祠’라 개칭되었다. 이 사당은 1871년(고종8)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에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국 47개 서원 및 사당 중 하나로 제향은 매년 춘추 2월과 8월 하정下丁에 지내고 있다.

주요 건물배치는 주축 상에 사당과 내삼문, 외삼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 직교되는 위치에 강당과 담장 밖에 대로사비각이 별도로 자리하고 있다. 이외의 건물로 추양재秋陽齋, 고직사, 홍살문 등이 있다. 사당의 경우 특이하게 서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영릉寧陵(효종과 인선왕후 능)을 바라보기 위한 것으로 군신君臣간의 우의友誼를 나타낸 것이라 전해진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초익공初翼工 형식의 건물로 겹처마의 맞배지붕이다. 정면 각 칸에는 사분합 띠살문을 달았으며, 측면과 후면은 화방벽으로, 전면은 개방된 퇴칸으로 되어있다. 강당은 정면 6칸, 측면 4칸의 규모를 가진 민도리 형식의 건물로 홑처마의 팔작지붕이다. 강당 동측에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이 있으며, 대청과 온돌방 주변에 툇마루가 있다. 대로사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추양재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두 건물 모두 팔작지붕이다.



	2	3
1	4	5
	6	7

1. 외삼문·내삼문,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강한사 전경, 1987. 여주시
3. 강한사 전경, 1982. 여주시
4. 사당(후면), 1986. 여주시
5. 사당(전면),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6. 강당, 1972. 여주시
7. 강당,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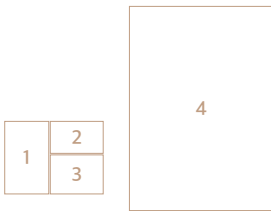


## 지지대비

遲遲臺碑

조선시대(1807년)  
1기  
150×60cm  
석재(화강암)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58번길 84

지정일 : 1972.05.04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수원시



1. 지지대비, 1950년대. 수원박물관
2. 지지대비, 1920년대. 수원박물관
3. '지지대' 각자가 있는 계단·하마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지지대비, 2015. 수원시

<지지대비>는 정조의 지극한 효성을 추모하기 위해 1807년(순조7) 12월에 화성어사 신현申絪(1764~1827)의 건의로 건립되었다.

『정종대왕실록正宗大王實錄』에 따르면 정조는 생부 장헌세자莊憲世子的 능인 현릉원顯隆園(현재 화성시 용릉) 참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매번 미륵현彌勒峴(후에 지지현遲遲峴으로 변경)에서 행차를 멈추고 현릉원을 바라보며 아쉬워하였고, 미륵현 위쪽 평평한 곳을 지지대라고 명명한 뒤 아래쪽 축대에 '遲遲臺(지지대)'라는 세 글자를 새기도록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문에는 “우리 전하께서 능원을 살피시고 해마다 이 대臺를 지나며 슬퍼하시고 느낌이 있어 마치 선왕을 뵈는 듯 효심을 나타내시어 여기에 새기게 하시니, 선왕께서 조상의 근본에 보답하고 너그러운 교훈을 내리시는 정성과 우리 전하께서 선대의 뜻과 일을 이어 받으시는 아름다움을 여기에 상고했도다.”라고 적어 비문을 통해 장헌세자에 대한 사모의 정을 나타냈다. 비의 비문은 서영보徐榮輔가 짓고 윤사국尹師國이 글씨를 썼으며, 화성유수 홍명호洪明浩가 소전小篆으로 ‘遲遲臺碑銘(지지대비명)’이라는 전액篆額을 썼다.

『화성지華城誌』(1831), 『한글본 덩니의궤整理儀軌』,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 따르면 지지대고개 마루에는 ‘지지현 표석’, ‘장승’, ‘지지대 표석’이 있었고, 지지대고개 서쪽 10여보 아래에는 ‘지지대가 새겨진 축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지지대 각자가 있는 축대와 1807년 세워진 하마비, 지지대비만 남아있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5호

## 포초골 미륵좌불

포초골 彌勒坐佛

고려시대  
1구  
170×90cm  
석재(화강암)  
여주시 금사면 발림길 89-47

지정일 : 1973.07.1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여주시

<포초골 미륵좌불>은 고려전기의 새로운 석불양식 성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는 고려전기의 불상이다. 불상은 대좌와 광배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약 20년 전의 산사태로 인해 광배와 대좌석에 손상이 있어 이를 보수하였다.

대좌의 하대와 중대는 팔각, 상대는 원형이다. 하대에는 아래로 향한 연꽃무늬를 새겼으며, 중대에는 각 면마다 안상을 두고 그 안에 보살 입상을 돌을새김 하였다. 상대에는 위로 향한 연꽃무늬가 이중으로 돌려져 있고 각 꽃잎 안에는 꽃무늬가 있다.

불상은 소발의 머리에 사각형 보개寶蓋를 쓰고 있다. 이러한 보개는 통일신라시대에는 볼 수 없는 양식으로, 10세기에 조성된 충남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을 비롯한 충청도와 경기 남부의 불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고려시대 전기의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괴체감塊體感이 큰 불상은 하관이 발달한 이중 턱에 크고 둥근 얼굴로 눈썹은 둥글고 크게 자리하였으며 눈에 비해 코와 입은 작은 편이다. 목은 굽고 짧은 편이며 삼도를 뚜렷하게 표현하였다. 대의는 양 어깨를 덮고 흘러내리며, 양 팔을 감싸고 바깥쪽으로 흘러 내린 대의의 옷주름은 도톰하게 표현하였다. 가슴에는 승가지僧祇支가 표현되고, 가로의 이중 띠를 가슴 중앙에서 묶었다. 뒷면에는 선각으로 옷주름의 흐름을 표현하였다. 괴체감이 크고 높은 무릎은 상체에 비해 큰 편이다.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에,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여 오른발 위에 올려 놓고 있는 항마촉지인의 손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좌의 구성이나 형식, 넓고 당당한 어깨, 안정감 있게 앉아 있는 자세, 매듭이나 주름의 흐름이 선명하고 유연한 세부 표현 기법 등은 통일신라 하대 불상양식을 잇고 있으나 머리의 사각형 보개와 괴체감이 강한 신체 표현, 그리고 대좌의 연꽃무늬를 새긴 수법 등에서 고려 전기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936년(고려 태조19) 경 고려 태조의 왕명으로 조성된 논산 개태사 석조삼존불상에는 이전에 볼 수 없던 기둥과 같은 괴체미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양식의 원류로 파악되기도 한다.



1	3	4	5
2	6		

1. 미륵좌불 측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포초골 미륵좌불 원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미륵좌불 정면, 2005. 여주박물관
4. 미륵좌불 정면, 2007. 여주박물관
5. 미륵좌불 정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6. 미륵좌불 대좌,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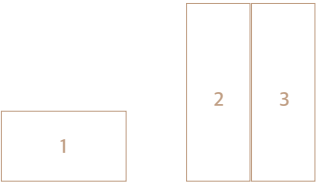


# 기슬리 석불입상

基率里 石佛立像

고려시대  
2구  
남미륵불 740×400cm  
여미륵불 626×300cm  
석재(화강암)  
안성시 삼죽면 텃골길 105

지정일 : 1973.07.1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성시



- 1. 기슬리 석불입상 전경,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2. 여미륵으로 불리는 서쪽 불상,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3. 남미륵으로 불리는 동쪽 불상,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기슬리 석불입상>은 안성 쌍미륵사 경내에 세워진 2구의 석불로서 커다란 돌기둥을 세워둔 것 같은 형태에 머리에는 동그란 형태의 보개寶蓋를 쓰고 있다. 하나의 돌로 조각한 다음 머리에는 보개를 따로 만들어 씌워 놓은 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불상의 하반신 일부는 묻혀있는 상태이다. 2구 상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어깨는 좁게 표현되었으며, 착의법은 양 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通肩의 대의를 입고 있다. 수인은 신체에 붙어 조각되었는데 동일하게 시무외施無畏 여원인興願印을 결하고 있다. 2구의 상은 수인만이 아니라 크기나 비례, 신체와 양감, 얼굴의 표현 등이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이는 점에서 함께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머리에 쓴 보개나 길쭉한 돌기둥 조각 양식은 고려전기 불상의 특징으로, 논산 관촉사, 안성 매산리, 이천 어석리, 이천 갈산동, 충주 미륵리사지, 당진 안국사지 등 비슷한 형태의 석불이 남아있다. 마을에서는 구전口傳으로 머리가 큰 동쪽의 석불은 남미륵男彌勒, 머리가 작은 서쪽의 석불은 여미륵女彌勒으로 부르고 신앙하고 있다. 안성 지방에서는 기슬리 석불입상과 같이 고려전기 대형의 석불을 조성하고 미륵으로 신앙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 시기 유행한 미륵하생신앙彌勒下生信仰과 관련되며 지역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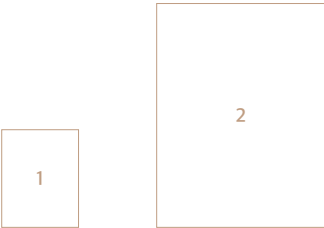


# 매산리 석불입상

梅山里 石佛立像

고려시대  
1구  
390×250cm  
석재(화강암)  
안성시 죽산면 미륵당길 32-2

지정일 : 1973.07.1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성시



1. 매산리 석불 얼굴과 보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매산리 석불입상 전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매산리 석불입상>은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미륵당 안에 봉안되어 있다. 이 상은 사각 모자를 제외하고 모두 하나의 돌로 조각되어 있는데 머리가 높고 커서 신체는 4등신에 가까운 비례를 갖고 있으며, 제3·4·5지를 구부린 오른손은 손바닥을 바깥으로 하여 가슴 앞에 두고, 왼손은 손등을 바깥으로 하여 배 위에 둔 모습이다. 얼굴은 턱을 수평으로 깎아 네모지고 넓적한 편이며 좁은 이마, 눈꼬리가 올라간 긴 눈, 콧날이 오뚝한 삼각형의 코, 짝 다문 작은 입술 등 전체적인 인상이 독특하지만 위엄 있다. 머리에는 꽃이 장식된 장식판을 중심으로 양측에 입식 장식판을 겹쳐 세운 듯한 높은 원통형 보관을 쓰고 있으며, 그 위에 다시 사각 모자를 얹었다. 사각 모자 안쪽 중앙에는 홈을 파서 높은 보관을 끼워 고정할 수 있는 형태이며, 그 가장자리는 연화로 장식된 연화좌가 마련되어 있다. 목에는 선각의 삼도가 있으며, 머리 뒤쪽으로 바깥 붙인 귀가 길게 어깨선까지 내려와 있다.

굴곡이 없는 원통형 신체에 대의는 편단우견(僧脚墻)으로 돌려 입었다.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로 내려가는 옷자락의 끝단은 구불거리는 곡선을 이루며, 가슴으로부터 내려가는 층단식 옷주름은 다시 양측 다리로 갈라져 U자형 주름을 이루면서 흘러내린다. 다리 사이에는 승각기 혹은 군의를 묶은 띠로 보이는 띠 자락이 다리 사이 길게 내려와 있다.

팔목이 지나치게 가늘고 가슴과 팔의 구분이 모호하며, 손이 크게 조성된 신체표현, 다리 사이에 띠 자락이 다른 옷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 등은 기운생동의 미감은 찾아 볼 수 있으나 표현기법이 서툴고 세련되지 못하다.

<매산리 석불입상>은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등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의 거불 조성 의의와 같은 일환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은 왕건이 후삼국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사찰과 함께 조성하였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왕실의 권위를 보이기 위해 고려 광종시기 조성이 이루어졌다.

이 석불입상은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과 비교할 때 보관 안쪽의 연화와 장식, 통일신라 불상의 우전왕식(優填王式)(가슴 위에서 내려온 옷 주름이 허리부분에서 양쪽으로 나뉘어 두 다리 위에 표현된 형식) 대의 옷주름 등에서 양식적으로 친연성이 엿보이지만, 돌의 중량감이나 덩어리 감이 덜하고 신체묘사, 보계(寶髻)장식에 섬세함이 남아있는 점으로 보아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보다 앞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만안교

萬安橋

조선시대(1795년)  
1점  
600×3,000×800cm  
석재(화강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79

지정일：1973.07.10  
소유자：안양시  
관리자：안양시

<만안교>는 조선 정조가 현릉원顯隆園 참배 행차시 사용하였던 시흥로의 안양구간에 가설한 다리이다.

1795년(정조19)에 경기도 관찰사 서유방徐有防이 왕명으로 3개월의 공사 끝에 건립하였다. 원래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는 길은 용산에서 동작과 과천을 거치는 길이었는데 이 길은 교량이 많고 남태령 고갯길이 있어서 길을 닦고 행차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사도세자 思悼世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 김상노金尙魯의 형인 김약로金若魯의 묘를 지나게 되므로 정조가 이를 바꾸어 다른 길을 개척하였는데 이 길이 시흥로이다.

시흥로는 1794년(정조18)에 개설되어 첫해에는 교량구간에 임시 나무다리를 놓아 사용한 후 철거하였는데, 평상시 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 항구적恒久的인 돌다리를 놓았다. 만안교의 원위치는 남쪽으로 약 460m 떨어진 석수로 교차지점에 있었는데 1980년 국도확장 때 현재 위치로 이전 복원되었다.

다리규모는 길이 15장(약 30m), 폭 4장(약 8m), 높이 3장(약 6m)으로 축조양식은 매우 정교하여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홍예석교로 평가된다. 만안교 비문에 따르면 홍예수문虹蜺水門이 5개가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있는데, 현재는 7개인 것으로 보아 시공 당시에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홍예는 정교하게 다듬은 자연석 장대석長臺石을 써서 반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위에 다시 장대석을 깔아 노면을 형성했다. 상판은 일반 평석교와는 달리 멩에돌과 귀틀석 없이 상판석 만으로 구성되었으며 난간도 설치되지 않았다.

다리 남쪽 측면에는 만안교의 연혁이 기록되어 있는 만안교비萬安橋碑가 있다. 비의 비문은 서유방이 짓고, 조윤형曹允亨이 글씨를 썼으며, 유한지俞漢芝가 예서체로 ‘萬安橋(만안교)’라는 전액篆額을 썼다. 만안교는 지금도 다리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만안교 다리밧기’라는 민속놀이가 행해진다.



1

2

3

1. 만안교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만안교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만안교 상판,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칠장사 당간

七長寺 幢竿

고려시대  
1기  
당간 1,150×40cm  
지주 300cm  
금속(철) 및 석재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801-1

지정일 : 1973.07.1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성시

안성 칠장사는 신라시대 창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고려시대 들어와 혜소국사 정현慧炤國師鼎賢(972~1054)이 머물며 가람의 면모를 일신하면서 번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현은 1014년(고려 현종 5) 칠장사를 중창하기도 했으며, 1054년(고려 문종8)에는 봉은사奉恩寺에서 국사國師로 책봉된 다음 칠장사로 하산하였다. 칠장사는 1383년(고려 우왕9) 왜구의 침입으로 개천사開天寺에 있던 『고려역조실록高麗歷朝實錄』을 옮겨 보관하는 등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이 지역의 중심적인 사찰이었다. 지금도 당간이 서 있는 주변에서 초석과 기와조각이 발견되고 있어 고려시대 칠장사의 사역이 상당히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칠장사 당간>은 당간지주와 철로 제작된 당간이 남아 있는데, 현재 경내로 들어가는 진입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즉, 칠장사 입구에 위치하여 가람의 위상을 드러내고, 멀리서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했음을 알 수 있다. 당간지주의 기단부는 매몰되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판석형 석재를 결구하여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대석은 3매의 판석형 석재를 바닥에 깔아 마련했는데, 가운데 지대석은 간대竿臺 역할을 겸하고 있다. 두 지주는 지대석 상면 가운데에 사각형 홈을 마련하여 끼우도록 하였다. 간대석은 당간이 놓여있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철통을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원좌와 원공을 시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두 지주는 동서로 마주 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박한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다. 지주부는 평면 사각 석주형으로 각 면을 고르게 치석하였으며, 외곽 모서리를 깎지 않고 직각으로 처리하였다. 지주 정상부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평평하다가 외면과 이어지는 모서리 부분에서 짧게 호선을 그리고 있다. 지주 안쪽 면에 간공은 시공하지 않았으며, 꼭대기에 간구를 시공하여 당간을 고정하는 간을 끼우도록 하였다. 당간은 현재 철통鐵筒 15단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원래는 30단이었다고 하여 지금보다 2배 정도의 높이였음을 알 수 있다. 철통은 상부로 올라가면서 지름이 좁아지도록 주조하였으며, 하부에 철 띠를 마련하고 아래 철통을 위에서 아래로 끼워 연결하였다. 즉, 각 철통의 상부에 끼움 축을 마련하여 서로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연결 부위에는 철 띠를 돌려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철통의 연결 방법은 갑사 철당간과 상통하고 있다.

칠장사 당간은 지주부의 규모가 작고, 지주부의 너비와 폭도 다른 지주에 비하여 좁은 편이다. 그리고 각 면이 고르게 치석되었지만 장식적인 의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주부의 치석과 기단부 결구 수법 등으로 보아 고려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칠장사가 정현이 주석한 1014년경을 전후하여 크게 중창되었던 것으로 보아 칠장사 당간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칠장사 당간 전경, 2017. 경기도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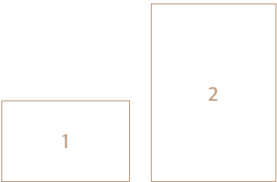


# 대동법시행 기념비

大同法施行 記念碑

조선시대(1659년)  
1기  
300×85×24cm  
석재(화강암, 대리석)  
평택시 소사동 140-1

지정일 : 1973.07.1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평택시



1. 대동법시행기념비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대동법시행기념비 정면,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대동법시행 기념비>의 원이름은 ‘金堦大同均役萬世不忘碑(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 또는 ‘湖西宣惠碑(호서선혜비)’이다.

대동법大同法은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조세제도로 1608년(광해군1)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대동법시행 이전에는 각 지방에서 특산물로 내던 공물貢物의 납부 시기가 국가 소요 시기와 백성의 납부 시기가 맞지 않는 등의 폐단이 많았다. 이에 각 지방 대소 구분없이 토지 결수結數에 기준하여 쌀로 환산·납부하고 산간·해안지역에서는 무명으로 납부하게 한 조세제도이다. 대동법을 시행한 후부터는 공부貢賦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이 없어지고, 민간의 상거래까지 원활해졌다.

1651년(효종2) 영의정 김육金堦(1580~1658)이 충청도에도 대동법을 시행토록 상소하고 효종의 운허를 얻어 실시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정비하고 민폐를 덜게 하였다. 김육이 충청감사로 있을 때 호서지방에서 실시한 대동법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대동법 시행을 만민에게 알리고, 백성을 생각하는 그 덕을 기념하게 위해 김육 사후 1659년(효종10)에 세운 것이다. 원래 현재 마을보다 100m 아래 옛 소사원 터에 있던 것을 1970년대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대동법시행기념비는 귀부龜趺·비신碑身·이수螭獸를 갖춘 비로, 비문은 홍문관부제학 이민구李敏求가 짓고 의정부우참찬 오준吳竣이 글을 썼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41호

## 명성황후 탄강구리비

明成皇后 誕降舊里碑

1904년  
1기  
268×64×46cm  
석재(화강암)  
여주시 능현동 250-1

지정일 : 1973.07.1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여주시

<명성황후 탄강구리비>는 1904년(고종41)에 건립된 석비로, 비 앞면에 ‘명성황후가 태어나신 옛 마을(明成皇后誕降舊里)’, 뒷면에 ‘광무 8년 갑진 오월 어느 날 엎드려 눈물을 머금고 공경히 쓰다(光武八年甲辰五月日拜手飲涕敬書)’라고 새겼다.

명성태황후 민씨明成太皇后 閔氏(1851~1895)는 조선의 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 왕비이자 추존황후이다. 명성왕후의 생부는 민치록, 어머니는 감고당 한산이씨이다. 아명은 자영玆暎, 본관은 여흥, 출신지는 경기 여흥이며, 여주 나들목 인근에 생가 공원이 있다.

고종의 정비正妃로 최익현 등과 함께 흥선대원군의 간섭을 물리치고 고종의 친정을 유도하였다. 민씨 척족을 기용하여 세도정권을 부활시키고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청나라의 지원에 의존하였으나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후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였다. 처음에는 개항에 미온적이었으나 점진적인 개화시책을 통해 친일성향을 띤 급진개화파의 개화정책에 반대하였다. 이에 흥선대원군과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의 공모로 1895년(고종32) 경복궁에서 일본인 병사와 낭인들에 의해 시해(을미사변, 1895)당하였다.

사후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황후로 추봉되었다. 정식 시호는 ‘효자원성정화합천홍공성덕제휘열목명성태황후孝慈元聖正化合天洪功誠德齊儼烈穆明成太皇后’이다.

1 3  
2

1. 명성황후 탄강구리비와 비각, 1970\_ 여주시  
2. 명성황후 탄강구리비와 비각,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명성황후 탄강구리비 정면, 2006\_ 여주박물관



경기도유형문화재 제46호

## 명성황후 생가

明成皇后 生家

조선시대(1687년)  
1동  
사랑채, 안채 총 14칸  
별당채 3×2칸  
행랑채 6×1칸  
목재  
여주시 능현동 250-2

지정일 : 1973.07.10  
소유자 : 여주시  
관리자 : 여주시

1. 명성황후 생가 보수해제, 1986\_ 여주시  
2. 안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명성황후 생가 전경, 2012\_ 여주시



1  
2  
3

<명성황후 생가>는 대한제국 고종황제(1863~1907)의 황후로 개화기 국정에 참여하였으나 을미사변乙未事變(1895)으로 시해된 명성황후가 태어난 곳이다.

이 가옥은 본래 숙종(1661~1720)의 계비繼妃였던 인현왕후仁顯王后(1667~1701)의 부친이자 명성황후의 6대 조부인 민유중閔維重(1630~1687)의 묘막墓幕으로 1687년(숙종13)에 처음 건립된 것이다. 살림집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명성황후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정 당시에는 살림ㄱ자형 안채만 있던 것을, 1985년에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1996년에는 안채에 사랑채를 이어 뜬ㄷ자형 살림채를 만들고 행랑채와 별당 등을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가옥 뒤쪽 언덕에는 민유중의 묘가 있으며 동편에는 명성황후탄강구리비가 위치해있다. 복원된 생가는 전체적으로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가 마주보는 뜬ㄷ자형 살림채로 앞쪽에 ㅡ자형 행랑채를 두고 살림채 동편에 ㅡ자형 초당이 살림채를 향해 놓인 배치를 하고 있다. 안채는 14칸 규모

로 장식이 없는 민도리집이다.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이 배치되어 있고, 안방 앞쪽으로 부엌과 부엌광이 있다. 안채의 지붕은 본체가 5량가五梁架에 팔작지붕이고, 부엌 부분은 3량가에 맞배지붕이었으나 사랑채를 덧붙여 지으면서 변형되었다. 사랑채는 안채에 이어 중문을 내고 우측으로 대청-사랑방-부엌을 배치하였으며 다시 안채 쪽으로 꺾어 3칸 방을 시설하였다. 가구는 3량으로 맞배지붕을 얹었다. 별당은 전면 퇴를 둔 3칸 건물로, 방 1칸, 마루 2칸을 만들고 초가지붕을 얹은 집으로 복원되었다. 별도의 담장을 둘러 일곽으로 이루고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협문 또는 행랑채 동편에 위치한 중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 명성황후 생가터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묘막이 살림집이 되고 그 집에서 황후가 태어나서 성역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이 집의 가치는 건축적인 부분보다 역사적·상징적인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공선사 부도 및 석등

指空禪師 浮屠 및 石燈

고려시대  
부도 1기, 석등 1기  
부도 350×200×200cm  
석등 높이 270cm  
석재(화강암)  
양주시 회암동 산8-1

지정일 : 1974.09.26  
소유자 : 회암사  
관리자 : 회암사

<지공선사 부도 및 석등>은 회암사 옆 동쪽 능선에 위치해 있다. 지공(?~1363)은 인도의 승려로 법명은 디야나바드라(Dhyana-bhadra, 提納薄陀, 禪賢)이며, 13세기말 원나라에서 활동하였다. 2년 7개월간 고려를 방문한 이후 고려불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지공은 1361년(고려 공민왕10) 입적入寂하였으며 그의 입적 소식은 1367년 고려에 알려졌다. 1370년(공민왕19) 지공의 유골이 고려에 오자 왕이 직접 유골을 머리에 이고 궁중으로 옮겼다고 한다. 1372년(공민왕21) 왕명王命으로 회암사에 부도를 세웠다.

지공선사 부도는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구조이다. 부도는 기단부基壇部·탑신부塔身部·상륜부上輪部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기단부는 지대석과 3단의 기단으로 구성되었다. 지대석과 기단 하대석은 판석을 이용하여 팔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다. 기단 중대석은 팔각으로 각 면이 나누어져 있으나 전체적인 형태는 압축된 원구圓球모양이다. 상대석은 평면 팔각이나 측면을 부드럽게 가공하였다. 지붕돌은 두텁고 경사가 급하며 지붕 합각부合閣部에는 우동선隅棟線이 굽게 조성되었다. 상륜부는 보륜寶輪과 보주寶珠로 구성되어 있다.

석등은 지공선사 부도 앞에 세워져 있으며 평면 방형의 사각석등이다. 하대석下臺石·간주석竿柱石·상대석上臺石 모두 방형이며 각각 한 돌로 조성되었다. 화사석火舍石은 두 매의 판석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화창火窓은 두 개가 조성되었다. 지붕돌 역시 방형이며 합각부에는 우동선이 굽게 조각되어 있다. 상륜부는 보주와 연봉으로 장식되어 있다. 우리나라 석등은 평면 팔각 석등이 주로 조성되었다. 사각 석등은 고려초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앞에 처음 등장하며 고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무덤인 현정릉에서도 제작되었다. 지공선사 부도 앞 사각 석등은 고려초에 조성된 사각 석등 제작 전통이 고려 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지공선사 부도 및 석등 전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지공선사 석등,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지공선사 부도,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 나옹선사 부도 및 석등

懶翁禪師 浮屠 및 石燈

고려시대  
부도 1기, 석등 1기  
부도 360×115×115cm  
석등 높이 249.7cm  
석재(화강암)  
양주시 회암동 산8-1

지정일 : 1974.09.26  
소유자 : 회암사  
관리자 : 회암사

<나옹선사 부도 및 석등>은 회암사 옆 동쪽 능선, 지공선사 부도비 앞에 위치해 있다. 부도는 고승들의 사리나 유골을 봉안하기 위해 조성한 묘탑墓塔으로 승탑이라고도 부른다.

나옹혜근懶翁惠勤(1320~1376)은 고려 말 불교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성은 아씨牙氏이며 이름은 원혜이다. 고향은 경북 영해이다. 혜근은 법명이며 나옹은 법호이다. 나옹은 태고 보우太古普愚(1301~1382), 백운 경한白雲景閑(1297~1375)과 더불어 여말 삼사麗末三師로 불리고 있다. 또한 지공 화상指空和尚(?~1363), 무학 자초無學自超(1327~1430)와 더불어 증명삼화상證明三和尚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나옹은 민간에 있어서 석가모니의 후신불로서 추앙받았던 인물이다.

나옹선사 부도는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구조이다. 이 부도는 우왕의 명을 받들어 밀양 영원사로 가던 도중 여주 신륵사에서 1376년 입적한 나옹선사의 묘탑이다. 부도는 기단부·탑신부·상륜부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기단부는 지대석과 3단의 기단으로 구성되었다. 지대석과 기단 하대석은 판석을 이용하여 팔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다. 기단 중대석은 팔각으로 각 면이 나누어져 있으나 전체적인 형태는 압축된 원구모양이다. 상대석은 평면 팔각이나 측면을 부드럽게 가공하였다. 지붕돌은 두텁고 경사가 급하며 지붕 합각부에는 우동선이 굽게 조성되었다. 상륜부는 보륜과 보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지공선사 부도와 동일한 모습이나 팔각지붕의 평면 지름이 지공선사 부도에 비해 작게 만들어졌다.



석등은 나옹선사 부도 앞에 세워져 있으며 평면 방형의 사각 석등이다. 하대석, 간주석, 상대석 모두 방형이며 각각 한 돌로 조성되었다. 화사석은 두 개의 판석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화창은 두 개가 조성되었다. 지붕돌 역시 방형이며 합각부에는 우동선이 굽게 조각되어 있다. 지붕돌 끝 부분은 살짝 반전을 하고 있어 지공선사 부도 앞 석등과 차이를 보인다. 상륜부는 보주와 연봉으로 장식되어 있다. 우리나라 석등은 평면 팔각 석등이 주로 조성되었다. 사각 석등은 고려초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앞에 처음 등장하며 고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무덤인 현정릉에서도 제작되었다. 나옹선사 부도 앞 사각 석등은 고려 초에 조성된 사각 석등 제작 전통이 지공선사 부도 앞 석등과 더불어 고려 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나옹선사 부도 및 석등 전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나옹선사 석등,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나옹선사 부도,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 무학대사비

無學大師碑

조선시대  
1기  
높이 370cm  
비신 240×27cm  
석재(화강암, 대리석)  
양주시 회암동 산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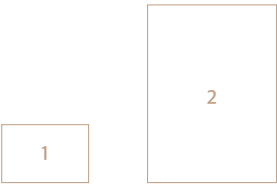
지정일 : 1974.09.26  
소유자 : 회암사  
관리자 : 회암사

<무학대사비>는 무학대사 자초無學大師自超(1327~1405)의 비로, 양주 회암사지 북서쪽 능선의 남쪽 끝에 세워져 있다.

무학은 그의 스승 나옹 혜근, 지공 선현과 함께 고려말 삼화상三和尚으로 불리던 고승이다. 그는 18세 때인 1344년(고려 충혜왕5) 출가하여 소지小止 선사의 제자가 되었으며, 혜명慧明 국사로부터 불법을 배웠다. 1353년(공민왕2) 원나라 연도燕都로 가서 인도 승려 지공指空과 그곳에 와있던 나옹懶翁에게 각각 깨달음을 인가받은 후, 1356년 귀국하였다. 1371년 나옹이 왕사로 책봉되어 송광사에 머물 때 전법의 상징인 의발衣鉢을 전해 받았으며, 이후 나옹과 함께 회암사를 크게 중창하였다. 회암사 중창 과정인 1373년 9월 무학은 나옹을 도와 회암사에 지공의 부도를 세우고 유골을 봉안하였다. 1376년(우왕2) 나옹이 입적하자 그는 전국의 명산을 돌아다녔으며, 이 무렵 공양왕이 왕사로 삼고자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무학은 1380년대부터 태조 이성계와 만남을 가져왔으며, 일설에는 그가 태조의 신왕조 건국을 예언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무학은 조선 건국 직후 왕사에 책봉되었으며, 한양으로의 국도 선정 및 궁궐의 조성 과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는 1398년(태조7) 왕사의 직에서 물러난 이후 금강산 진불암에 머물다가 1405년(태종5) 봄 금장암이라는 암자에서 나이 78세, 법랍 62세로 입적하였다.

무학의 입적入寂 이후 1407년(태종7) 부도탑(보물 제388호)을 먼저 세웠으며, 비는 1410년(태종10) 건립되었다. 비문은 무학의 제자가 올린 행장을 토대로 변계량卞季良이 지었으며, 글씨는 공부孔俯가 해서체로 썼다. 이 비는 중도에 파괴되는 수난을 겪었다. 1821년(순조21) 봄 이응준李膺峻이라는 선비가 술사術士의 말을 듣고 삼화상과 연계된 석조물 5점을 파괴하는 일을 저질렀는데, 다행히 원래 비의 글씨를 모각模刻하여 1828년(순조28) 이 비를 다시 세웠다. 이 비는 방형대좌에 옥개석을 갖춘 전형적인 조선시대 양식으로, 비신에 비해 받침이 크고, 지붕은 낮고 작은 편이다.



1. 무학대사비 후면,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무학대사비,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 회암사지 부도탑

檜岩寺址 浮屠塔

조선시대  
1기  
높이 600cm  
석재(화강암)  
양주시 회암동 산14-3

지정일 : 1974.09.26  
소유자 : 양주시  
관리자 : 양주시

<회암사지 부도탑>은 회암사지 8단 석축 동쪽 끝 대지에 세워져 있다. 이 부도탑은 높이 6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도탑이다. 이 은 적심석 위에 오각형으로 다듬은 판석을 여러 매 깔아 팔각 지대석을 만들었다. 지대석 위로는 평면 팔각 기단을 조성한 후 그 위에 탑신부와 상륜부를 만들었다. 기단은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조선시대 불화에 등장하는 불상 대좌와 유사한 형태이다. 하층기단 하대석은 팔각이며 각 면마다 용과 기린이 번갈아 조각 되어있다. 8각의 하층기단 중대석은 각 면마다 액額을 조성한 후 그 안에 연잎당초문을 시문하였다. 하층기단 갑석 측면에는 넝쿨무늬가 각 면마다 조각되었으며 갑석 상면에는 복련문이 조성되었다. 하층기단 갑석 상면에는 중대석 모양의 상층기단 면석이 있다. 상층기단 면석은 팔각이며 한 돌로 만들어졌다.

1999년 이루어진 부도탑 해체 시 상층기단 면석 상면에서 반구형 사리공이 확인되었다. 상대갑석은 크기만 조금 작아진 형태로 하대갑석과 유사한 형태이다. 상대갑석 위에는 3단의 탑신받침이 있으며 그 위에 장식이 없는 원구형의 탑신이 올려있다. 원구형 탑신 상면에는 둥근 사리공이 있다. 일제강점기 이 사리공에서 동전 146개, 각종 은비녀, 은반지, 청동그릇 등이 수습되었으나 조사 후 다시 납입되었다. 부도탑의 지붕돌은 낙수면의 경사가 길고 가파르다. 8각의 합각 부에는 굵은 우동마루가 조각되어 있다. 상륜부는 양화(仰花)·보륜(寶輪)·보개(寶蓋)·보주(寶珠)로 구성되어 있다.

이 탑은 15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1464년(세조10) 세조와 효령대군의 불교 중흥책에 의해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1. 회암사지 전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회암사지 부도탑 해체복원, 1999. 경기문화재연구원
3. 부도탑 복원, 2003. 경기문화재연구원
4. 부도탑 상대석 팔부신중, 2003. 경기문화재연구원
5. 회암사지 부도탑,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불암사 경판

佛岩寺 經板

조선시대  
375판  
대형 34.5×64cm  
소형 23×47cm  
목재(자작나무)  
남양주시 불암산로 190

지정일 : 1974.09.26  
소유자 : 불암사  
관리자 : 불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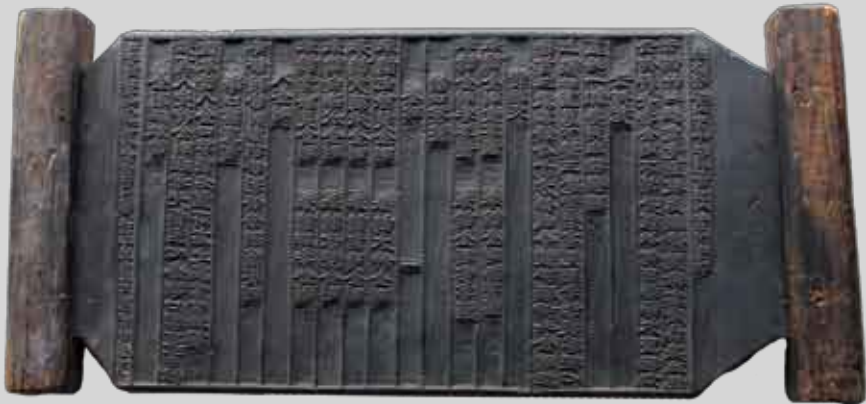
		3
		4
1		5
2		6

1. 묘법연화경(변상),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묘법연화경 서,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금강반야바라밀경 1장,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금강반야바라밀경(변상),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1, 17),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6.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8, 21),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남양주시 불암사佛岩寺에는 보물 제591호 『석씨원류응화사적釋氏源流應化事蹟』의 31종 591매의 불교경판이 소장되어 있다.

책판은 『대승경전大乘經典』, 『위경류偽經類』, 「선종서禪宗書」, 「진언다라니경류眞言陀羅尼經類」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5종을 비롯하여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등의 대승경전, 『불설천지पाल양신주경佛說天地八陽神呪經』·『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불설산왕경佛說山王經』 등의 위경류,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등의 진언다라니류, 『천지명양수륙재의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와 같은 의식류, 『지경영험전持經靈驗傳』·「참선곡」·「수선곡」 등의 선종서이다.

<불암사 경판>은 1687년(『불설대보부모은중경』)부터 1881년(『불설산왕경』) 사이에 불암사에서 간행되었다. 판목은 부드러운 자작나무를 사용하였고, 양단에 나무를 끼워서 판목이 뒤틀리지 않게 하였다. 경판에 새겨진 글씨는 늠름하고 정교하며 새김 또한 매우 섬세하여 조선시대 판본의 우수함을 보여준다. 불암사 경판은 전국적으로 흠어져서 다양하게 남아있는 사찰간행 목판 중에서 그 유형이 31종이나 되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다양한 종류의 불경판을 통해서 당시 불암사의 종교적 역할과 성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조선중기 이후의 불교문화와 목판인쇄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화석정

花石亭

조선시대  
1동  
3×2칸  
목재  
파주시 파평면 화석정로 152-72

지정일 : 1974.09.2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파주시

임진강을 굽어보는 강안의 벼랑위에 세워진 <화석정>은 조선중기의 학자·정치가인 울곡 이이栗谷李珥(1536~1584)가 제자들과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던 곳이다. 원래는 고려 말의 문신인 야은 길재治隱吉再의 유지였던 자리에 울곡의 5대 조부였던 강평공 이명신康平公李明晨이 1443년(세종25)에 정자를 건립하였다. 이후 1478년(성종9) 울곡의 증조부 이의석李宜碩이 증수하고 몽암 이숙함夢菴李淑臧이 ‘화석정’이라 이름지었다. ‘화석’은 중국 당나라 때 재상이던유李德裕의 별장인 평천장平泉莊의 기록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73년(현종14)에 울곡의 종중손들이 복원하였으며, 한국전쟁 때 다시 소실되었던 것을 1966년 파주의 유림들이 성금을 모아 복원하였다. 1973년 정부에 의해 주도된 울곡선생 및 신사임당 유적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단청이 이루어지고 주변 정화가 이루어졌다.

현존하는 건물은 1966년에 건립된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장방형 평면을 하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를 두른 팔작지붕 양식으로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장이다. 공포拱包는 초익공初翼工이며 단청은 모로단청毛老丹青으로 마감되었다. 화강석 방형 초석 위에 방형 기둥이 놓였으며 기둥은 주두柱頭없이 대들보를 받친다. 창방 위에 화려하게 조각된 화반을 3개씩 배열하여 장식을 하였다. 내부 화반 위에는 ‘화석정중건상량문化石亭重建上樑文’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편액이 걸려있으며, 정자 내부 뒤편에는 울곡의 8세 때 시를 새긴 현판이 걸려있다. 정면 중앙의 현판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이다.

1. 화석정, 1937. 『京畿地方の名勝史蹟』
2. 화석정 복원이전, 촬영일 미상. 문화재청
3. 화석정 정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화석정 내부 현판(울곡 8세 때 지은 시),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5. 화석정 내부 화석정 중건 상량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6. 화석정 내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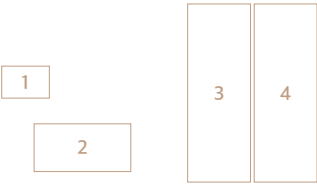


# 궐리사 성적도

關里祠 聖蹟圖

대한제국시대(1904년)  
60판  
32×70×1.5~2.0cm  
목재(피나무)  
오산시 매홀로 3

지정일 : 1974.09.26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궐리사(신종삼)



1. 궐리사 성적도 전시모습,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3. 궐리사 성적도,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궐리사 성적도 탁본, 촬영일미상. 문화재청



<궐리사 성적도>는 오산시 궐동 궐리사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으로, 공자孔子의 행적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목판에 새긴 것이다.

목판은 공자의 76대손인 공재현孔在憲이 궐리사 도약장都約長 조병식趙秉式(1832~1907), 송병선宋秉璿(1836~1905) 등과 1904년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성적도를 가져와 목판에 새긴 것이다. 판목은 피나무를 사용하였고, 모두 60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은 양면으로 108도圖가 새겨져 있는데, 배경은 간략하게 하였고 인물의 행적을 위주로 표현하였다. 글씨의 새김은 정교하지 못하나 공자의 성적도는 비교적 섬세한 편이다.

이 성적도는 공자의 생애를 판화로 새긴 것으로 공자와 공자 주변 인물, 공자의 제자들에 대한 행적을 새겨 넣었다. 그림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장에는 공자와 안연의 모습을 그렸고, 다음으로 공자의 탄생과 관련한 일화, 유소년기의 행적, 노자를 찾아가 예를 묻는 모습, 직무를 하는 모습, 교육자의 모습, 공자의 가르침에 대한 것, 노나라 대법관시절 사대부 소정묘를 사형시키는 모습, 상자襄子로부터 거문고를 배우는 모습, 살구나무 아래서 예와 악을 가르치는 모습, 수양하는 모습, 제자들의 섬김과 덕행, 한나라 고조 유방이 공자의 제를 올리는 모습 등을 그린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 오산 궐리사는 충청도 노성魯城의 궐리사와 함께 우리나라 2대 궐리사 중 하나로, 1792년(정조16)에 착공하여 1793년(정조17)에 완공되었다. 당시 정조는 현판을 직접 써서 내리는 등 궐리사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궐리사에 소장된 공자의 성적도는 목판의 새김이 비교적 섬세한 편이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공자의 성적도이므로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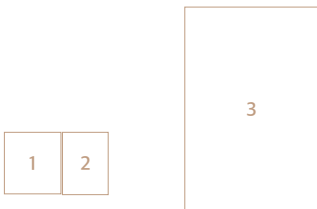


# 현등사 삼층석탑

懸燈寺 三層石塔

조선시대  
1기  
높이 370cm  
석재(화강암)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34

지정일 : 1974.09.26  
소유자 : 현등사  
관리자 : 현등사



- 1. 현등사 전경, 1910~1940. 국립중앙박물관
- 2. 현등사 삼층석탑, 1910~1940. 국립중앙박물관
- 3. 현등사 삼층석탑, 2013. 금강문화유산연구원



<현등사 삼층석탑>은 가평 현등사 마당에 세워져 있다. 이 석탑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부는 일반적인 석탑의 기단부와는 다른 형태로서 마치 하대석·중대석·상대석 모양으로 이루어진 불상의 대좌와 같은 형태이다. 하층기단 하대석 하단부에는 각 면마다 2구의 안상이 조각되어 있다. 하층기단 면석에 해당하는 중대석에는 양 측면 기둥인 우주隅柱와 가운데 기둥인 탕주撐柱가 보주형 원주로 입체감 있게 각 면마다 조성되어 있다. 하층기단 갑석으로 볼 수 있는 하층기단 상대석은 양련仰蓮의 연화문 위로 각 면에 3구씩 방형의 액額을 구성하였다. 상대석 위에 또 다시 정사각형의 면석이 조성되었는데 상층기단 갑석에 해당된다. 각 면석의 사이에 2구씩의 장방형 액을 조각하였다. 정사각형 면석 위에는 석탑 갑석이 올려있다. 갑석은 양 끝 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 마치 석탑의 지붕돌과 같은 모양이다. 갑석 상면에는 연화문이 조성되어 있다.

이 석탑의 탑신은 현재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봉선사본말지奉先寺本末誌』 「현등사지」에 칠층석탑이 뜰 안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석탑 기단이 여러 단으로 되어 있으며 갑석이 지붕돌 모양인 점등을 고려했을 때 현등사 석탑은 원래 5층 석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륜부에는 보주가 올려져 있다. 이 석탑은 탑신부에서는 고려시대 석탑 양식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나 기단부에서는 장명등과 같은 조선시대 능묘 석조물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조선전기 석조미술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현등사는 조선초기에 활발한 불사가 있는데 1411년(태종11) 중창되었으며 1470년(성종1)에는 현등사 석탑이 중수되면서 중수 사리가 봉안되었다. 현등사 석탑의 조성 시기는 현등사가 중창되는 1411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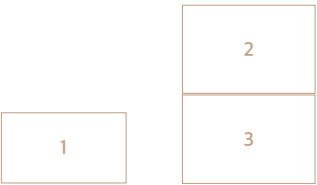


# 청성사

淸城祠

미상  
1동  
사당 3×2칸  
목재  
포천시 신북면 청성사길 99

지정일 : 1975.09.05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최종규



1. 청성사 전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청성사 삼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청성사 사당,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청성사>는 통일신라 말기 관료이자 문장이었던 고운 최치원孤雲崔致遠(857~?)의 신위神位를 모신 사당이다. 최치원은 868년(신라 경문왕8) 12세에 중국 당나라 유학을 떠났으며, 18세에 관직에 올랐다. 879년(헌강왕5)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지어 붓으로 적을 물리친 뛰어난 글 솜씨로 중국에 널리 알려졌다. 885년(헌강왕11) 귀국하여 아찬阿飡(육두품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관직)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고, 894년(진성여왕8) ‘시무십여조時務十餘條’를 올려 이를 시행하게 했으나, 난세를 비판하여 관직을 버리고 해인사에서 여생을 마쳤다. 최치원은 1020년(고려 현종11)에 내사령內史令에 추증追贈, 다음 해에 문창후文昌候에 추시追諡되어 유교의 성인들을 모신 문묘에 배향配享되었다.

청성사는 현재 사당과 삼문으로만 구성된 간단한 규모의 배치이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초익공初翼工 형식의 건물로 겹처마의 맞배지붕이다. 건물 정면에는 사분합 띠살문을 양쪽에는 이분합 띠살문을 달았다. 측면과 후면은 화방벽으로, 전면은 개방된 퇴칸으로 되어있다. 사당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로 그 중앙에 최치원의 신위가 봉안되어 있다. 대문은 솟을삼문으로 문 위에는 홍살이 되어있으며, 사당과 삼문을 중심으로 담장이 둘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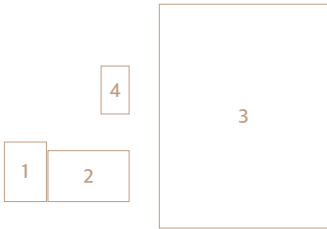


## 팔달문 동종

八達門 銅鐘

조선시대(1687년)  
1구  
122.8×76.1×8cm  
금속(청동)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지정일 : 1976.08.27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수원시



1. 팔달문 누각에 있었던 팔달문 동종, 촬영일 미상. 국립문화재연구소
2. 수원박물관에 이전 전시되고 있는 팔달문 동종, 2016  
\_ 경기도문화재연구원
3. 팔달문 동종, 2014. 수원박물관
4. 팔달문 동종 세부, 2014. 수원박물관



<팔달문 동종>은 조선후기 범종 중에서는 비교적 대형에 속한다. 명문銘文에 의하면 원래 1687년(숙종13)에 화성군 만의사萬義寺 범종으로 주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화성행궁 종각鐘閣, 팔달문 누상樓上을 거쳐 현재는 종의 보호를 위해 수원박물관으로 이전 전시되고 있다.

전체 종신鐘身은 상부가 좁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져 풍만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완만한 천판天板 위의 용뉴龍紐는 한 마리의 용이 머리를 당당히 치켜들고 음통音筒을 역동적으로 휘감고 있다. 음통의 정상에는 만개한 연꽃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천판 아래에 접한 상대上帶는 2단의 범자원문梵字圓文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과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이다. 상대 아래 사방에는 4개의 연곽蓮廓과 그 사이 여백에는 4구의 보살입상菩薩立像을 배치했다. 연곽 내부에는 9개의 연뢰蓮蕾를 표현하고 독특하게 가운데 연뢰 하나만 자방子房이 돌출되어 있다. 동일한 형태의 보살입상 4구는 모두 보관寶冠과 두광頭光을 갖추고, 구름 위에 서서 두 손으로 연꽃을 단아하게 들고 있는 모습이다.

종신 중앙부에는 양각으로 장문長文의 명문을 새겨 종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하단에는 연꽃과 보상화寶相華 등 다양한 꽃문양들로 채워진 하대下帶를 배치했다. 명문에 제작 장인은 등장하지 않지만 양식적으로 동시기 승려장인으로 유명한 사인思印 비구의 대표작인 수타사종(1670), 통도사종(1686)과 밀접한 영향 관계가 보여 동일 계열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종신의 형태, 섬세한 용뉴의 조형성, 양호한 주조상태 등으로 볼 때 17세기 말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 용연서원

龍淵書院

조선시대(1691년 창건)

일원

사당 3×3칸

강당 3×2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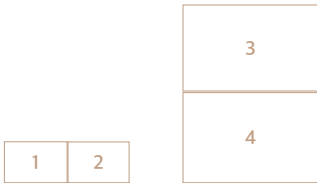
목재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72번길 1-5

지정일 : 1976.08.27

소유자 : 포천시

관리자 : 용연서원 원장(양기성)



1. 용연서원 전경, 1990년대. 경기도
2. 홍살문과 외삼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용연서원 전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4. 사당,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용연서원>은 1691년(숙종17)에 이사상李師相 등의 남인계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이곳에서 은거하며 만년을 보낸 이덕형李德馨(1561~1613)과 조경趙綱(1586~1669)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신 곳이다. 남인 집권기인 1692년(숙종18)에 ‘용연龍淵’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경기도 내 남인세력의 유력한 근거지로 향촌교화의 일익을 담당해 왔다. ‘용연’이라는 이름은 포천에 있는 연못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덕형이 세운 공로가 인정되어, 홍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때 훼손되지 않고 존속하였다.

이덕형의 본관은 광주, 자는 명보明甫, 호는 한음漢陰·쌍송雙松·포옹산인抱擁散人이다. 1580년 별시문과에 급제해 이조정랑·대사간·대제학 등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 정주까지 왕을 호종했고, 청원사請援使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파병을 성취시켰다. 1597년(선조30)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명나라 어사 양호楊鎬를 설복해 서울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이어 명나라 제독 유정劉綎과 함께 순천에 이르러 통제사 이순신李舜臣과 함께 적장 고니시(小西)의 군사를 대파하였다. 1613년(광해군5) 이이첨의 사주를 받은 삼사에서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처형과 폐모론을 들고 나오자, 이항복과 함께 이를 적극 반대하다가 관직삭탈 후 용진龍津으로 물러가 국사를 걱정하다 병사하였다.

조경의 본관은 한양, 자는 일장日章, 호는 용주龍洲·주봉柱峯이다. 1626년(인조4) 정시문과에 장원하여 청요직을 지내고, 1636년(인조14)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사간으로 척화를 주장하였다. 이어 대사간·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뒤 1650년(효종1) 청나라가 사문사査問使의 척화신에 대한 처벌 요구로 영의정 이경석李景奭과 함께 의주 백마산성에 안치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와, 1653년(효종4) 회양부사를 지내고 포천에 은퇴하였다. 1661년(현종2) 판증추부사로 윤선도尹善道の 상소를 변호하다가 대간의 논박을 받고 파직되었고, 숙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경내 건물로는 사당·내삼문·강당·외삼문·홍살문 등이 있다. 본래 한국전쟁 때 사당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소실되어 1986년 이후 복원하였으나 동재와 서재는 복원되지 않았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각 칸에 이분합의 띠살문을 달았다. 사당 내부의 중앙에는 이덕형과 조경의 위패를, 배면벽의 협칸 양측에는 영정을 봉안하였으며 ‘용연서원’이란 편액이 걸려 있다. 매년 봄·가을에 향사鄉祠를 지내고 있다.





## 홍계남장군 고루비

洪季男將軍 古壘碑

조선시대  
1기  
비신 170×58×45cm  
옥개석 높이 35cm  
기단석 86×110cm  
석재(화강암, 오석)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산 87-1

지정일 : 1977.10.13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성시

<홍계남장군 고루비>는 임진왜란 때의 명장 홍계남洪季男(1564~1597)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745년(영조21) 안성 주민들이 세운 비이다.

홍계남의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임진왜란 때 순변사 이일李鎰·신립申硬의 막하에서 활동하였고, 신립장군과 탄금대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이일과 신립이 전사한 후 안성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의병장이 되어 부친 홍자수洪自修와 네 명의 형들과 함께 왜적을 물리쳤다. 조정에서는 그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수원관관 겸 기호양도조방장을 제수했다. 영천군수 겸 경상도조방장 재임시 안강현에 들어온 왜적을 추격 포로 5,000여 명을 구하기도 했다. 34살의 나이로 사망하자, 선조는 그의 충절을 기려 마을에 정문을 세우고 판돈녕부사에 추증되었다.

비석은 그가 쌓은 진지였던 목촌木村 야산 중턱에 세워졌고, 1977년에 비석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각을 세웠다. 비문은 좌참찬 이재李穰가 짓고, 민우수閔遇洙가 썼으며, 유척기兪拓基가 두전을 썼다. 옥개석과 비대는 화강암, 비신은 오석이다.



1 2

1. 홍계남장군 고루비 비각,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홍계남장군 고루비,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 사나사 원증국사 탑

舍那寺 圓證國師 塔

고려시대(1383년)  
1기  
높이 175.5cm  
석재(화강암)  
양평군 옥천면 사나사길 329

지정일 : 1978.10.10  
소유자 : 사나사  
관리자 : 사나사



1  
2

1. 사나사 원증국사 탑, 촬영일미상\_ 양평군
2. 사나사 원증국사 탑,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사나사 원증국사 탑>은 태고화상 보우太古和尚普愚(1330~1382)의 사리탑이다. 보우의 본관은 홍주洪州, 속성은 홍씨洪氏, 첫 법명은 보허普虛, 호는 태고太古로 홍주(현재 홍성) 출신이다. 보우는 13세에 출가해 회암사 광지廣智의 제자가 되었고, 가지산迦智山에서 수행하였다. 26세에 화엄선華嚴選에 합격한 뒤, 선禪 수행에 몰두하였다. 1341년(고려 충혜왕복위2) 중흥사重興寺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중흥사 동쪽에 태고암太古庵을 창건하여 5년 동안 머물 때 『태고암가』 1편을 지었다. 1346년(충목왕2) 원나라 연경燕京 대관사大觀寺에 머물 때, 궁중에서 『반야경』을 강설하였다. 1347년 7월 호주湖州 천호암天湖庵에서 석옥石屋에게 도를 인정받고, 「태고암가」의 발문과 가사를 받았다. 1356년(공민왕5) 왕의 청으로 봉은사에서 설법하였고, 그 해 4월 왕사로 책봉되어 광명사에 머물렀다. 1368년(공민왕17) 신돈의 참언讒言으로 속리산에 금고禁錮되었는데, 이듬해 3월 왕이 이를 뉘우치고 다시 소설산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1371년 공민왕은 스님을 국사로 봉한 뒤 영원사營原寺에 머물기를 청하였으나 사양하였다. 1381년 양산사陽山寺로 옮겼는데, 우왕은 다시 국사로 봉하였다. 1382년 소설산으로 돌아와서 12월 17일 입적하였다. 나이 82세, 법랍法臘 69세였다.

이 탑은 보우의 입적 다음 해인 1383년(우왕9) 건립되었다. 방형 기단과 종형 탑신으로 구성된 부도로, 기단 상면에는 복련覆蓮 연판을 표현해 탑신받침 역할을 하고 있다. 석종형 탑신 표면은 문양 없이 간결하게 치석했고, 정상부에는 주변을 평평하게 한 후 중앙에 높은 연봉형 보주를 갖추었다. 주변에 세워진 탑비에는 스님 입적 이듬해 문인 달심門人達心이 주도한 부도와 탑비 건립내용이 있다.



## 사나사 원증국사 석종비

舍那寺 圓證國師 石鐘碑

고려시대(1386년)  
1기  
높이 167cm  
석재(화강암, 오석)  
양평군 옥천면 사나사길 329

지정일 : 1978.10.10  
소유자 : 사나사  
관리자 : 사나사



<사나사 원증국사 석종비>는 태고화상 보우太古和尚普愚(1330~1382)의 비로, 양평군 옥천면 사나사 경내에 세워져 있다. 보우는 한 국불교 전체를 통해서도 손꼽히는 고승으로 평가된다. 그는 고려후기 이후 한국 선불교의 중심 수행법으로 자리한 간화선 수행자로 유명하며, 이 시기 불교계와 사회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개혁운동가로서의 위상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는 13세에 회암사 광지廣智에게 출가하여 26세에 화엄선에 합격하였으며, 1338년(고려 충숙왕복위6) 1월 송도 전단원栴檀園에서 무자 화두를 참구하던 중, 크게 깨달았다. 46세가 되던 1346년 원나라에 들어갔으며, 이듬해 호주 천호암에서 중국 임제종 제18대 법손인 석옥청공石屋淸珙으로부터 법을 인가받고 1348년 귀국하였다. 이후 공민왕의 요청으로 개경에 올라와 머물다가 1356년(공민왕5) 4월 왕사로 책봉되어 광명사에 머물렀다. 보우는 한때 신돈과의 갈등으로 인해 속리산에 금고되는 일을 겪기도 하였는데, 공민왕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 1371년 국사로 책봉되었다. 1381년(우왕7) 우왕에 의해 다시 국사로 봉해졌으며, 1382년 소설산으로 돌아와 머물다가 나이 82세, 법랍 69세로 입적하였다. 보우의 입적 이후 영골은 북한산 중흥사에 봉안하였으며, 사리는 사나사, 양산사, 청송사, 태고암 등에 나누어 봉안하였다. 그의 시호는 원증圓證이다.

이 비는 보우의 입적 4년 후인 1386년(우왕12) 세워졌다. 정도전鄭道傳(1342~1398)이 글을 짓고, 의문諶聞이 해서로 썼으며, 훈곡薰谷과 명호明昊가 글을 새겼다. 사나사가 자리한 양근楊根, 즉 현재의 양평군은 보우국사 어머니의 고향이다. 이로 인해 보우가 국사로 책봉된 이후 양근은 군으로 승격되는 등 지역 전체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이 비에는 특히 보우와 양근 지역의 연고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실려 있다. 이 비는 장방형의 비좌 위에 비신이 놓이고 비신 양 옆에 장방형 돌기둥을 세워 비를 고정하고 위에 덮개돌을 얹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1
2
3
4

5
---

1. 사나사 원증국사 석종비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원증국사 석종비,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원증국사 석종비, 1916. 국립중앙박물관
4. 원증국사 석종비, 촬영일미상. 양평군
5. 원증국사 석종비 비문,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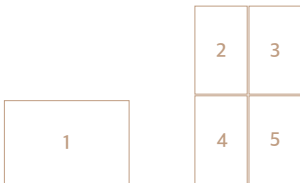


## 행주대첩비

幸州大捷碑

조선시대  
2기  
구비 높이 178cm  
중건비 높이 238cm  
석재(대리석, 화강암)  
초건비-고양시 덕양구 행주로15번길 89  
중건비-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127-17

지정일 : 1978.10.1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고양시



1. 구비 원경,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구비 전면,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구비 후면,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중건비 전면,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중건비 후면,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행주대첩비>는 현재 2기가 전하는데 하나는 처음 세워진 구비舊碑이고, 다른 하나는 옛 비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새로 세운 중건비이다. 1593년(선조26) 권율權慄(1537~1599)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602년(선조35)에 건립하였다. 오랜시간 풍화되어 비석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되자 1845년(헌종11)에 원문을 그대로 옮겨 다시 세웠다.

비문에는 권율의 가문과 같이 좋은 가문에서 비롯된 인격과 덕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밖에 없었으며, 참모와 사병들이 그의 공적을 사모하여 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건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어 권율이 1593년 2월 정예군 2,300명과 행주산성에 주둔하여, 일본군의 공격에 맞서 승리하고, 적군의 깃발과 투구·갑옷·무기 등을 노획한 전과를 기록하였다.

행주대첩비 초건비는 비개가 없는 원수형 석비로 비문은 최립崔岌이 짓고, 글씨는 한호韓濩가 썼으며, 두전頭篆은 김상용金尙容이 ‘元帥權公幸州大捷碑(원수권공행주대첩비)’라고 소전小篆으로 썼다. 비음碑陰은 사위인 이항복李恒福이 짓고, 김현성金玄成이 썼다. 전체적으로 마멸이 매우 심하여 부분적으로 수 십자 밖에는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행주대첩비 중건비는 비대碑臺 위에 비신碑身을 세우고 지붕 모양의 비수碑首를 얹은 모습으로, 비문은 대체로 초건비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지만, 뒷면에 누락된 장군의 사적과 행주기공사중창기幸州紀功祠中創記를 추가 하였다. 조인영趙寅永이 글을 짓고 이유원李裕元이 글씨를 썼다. 행주서원 내에 건립되었던 중건비는 1970년대 충장사 앞으로 옮겨졌다가 2011년 행주서원 내 원자리로 이전되었다.





## 인평대군 치제문비

麟平大君 致祭文碑

조선시대  
2기  
1비 200×88×34cm  
2비 204×87×38cm  
석재(화강암, 오석)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222번길 12-48

지정일 : 1978.10.10  
소유자 : 전주이씨 인평대군파 증중  
관리자 : 이씨증중(이춘남)



<인평대군 치제문비>는 인조의 셋째 아들이자 효종의 아우인 인평대군 이요李潯(1622~1658)의 죽음을 애도하며 5명의 임금이 지은 제문을 새긴 비석 2기를 가리킨다.

인평대군의 자는 용합用翊, 호는 송계松溪, 시호는 충경忠敬이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까지 인조를 호종扈從하였고, 1640년(인조18)에는 볼모로 심양瀋陽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왔다. 이후 사은사謝恩使로 네 차례나 청나라에 다녀왔지만 병으로 37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그는 학문에도 뛰어났고 서화에도 능했다. 저서로는 『송계집松溪集』이 있는데 영조의 명으로 1774년(영조50)에 간행되었다.

그의 묘는 광주廣州에 있었지만 1693년(숙종19)에 포천 왕방산旺方山으로 이장되었고, 묘소 왼쪽에는 2기의 비가 전하고 있다.

하나는 묘를 이장할 때 세운 것으로 전면에는 효종이 지은 제문을 효종 어찰에서 집자集字하여 새겼고 두전頭篆 비석 머리 부분에 전서로 새긴 비석의 명칭은 ‘효묘어제어필孝廟御製御筆’이다. 뒷면엔 숙종의 친필 제문을 새겼으며 두전은 ‘숙묘어제어필肅廟御製御筆’이다. 비문 말미에는 대군의 손자 양원군 이환陽原君李煥의 추기追記가 있다. 이에 따르면 1693년에 비석을 준비했지만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1724년(경종4) 서평군 이요西平君李撓가 쓴 두전을 더해 세운 것이다.

또 하나의 비석은 영조·정조·순조의 친필 제문을 새긴 것이다. 이 비석은 독특하게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에는 1762년(영조38)과 1765년(영조41)의 영조 제문, 중단에는 1792년(정조16)의 정조 제문, 하단에 1825년(순조25)의 순조 제문이 각각 새겨져 있다. 정조는 1792년에 인평대군 묘정墓庭에 영조와 정조의 제문을 새긴 비를 세우라는 명을 내렸다. 아울러 호조에게는 물자를 공급케 하였고, 경기감영에는 비각을 한 칸 지어 두 비석을 보호하도록 했다. 특이한 점은 비석 전면을 3등분하여 위에는 영조의 제문을, 중간에는 자신의 비문을 새기게 했는데, 하단과 뒷면은 비워두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후 순조가 친필 제문을 내리자 비어있던 하단에 새겼다. 영조 제문의 두전이 ‘영묘어제어필英廟御製御筆’인데 반해, 정조와 순조 제문의 두전은 모두 ‘당저어제어필當宁御製御筆’로 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순조의 제문을 새길 때 정조의 두전 앞에는 ‘정묘正廟’라는 글자를 해서楷書로 작게 새겨 ‘당저當宁(현재 임금의 뜻)’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했다. 인평대군 치제문비는 한 인물의 묘소에 다섯 임금의 친필 제문이 새겨진 비석으로 조선시대의 유일한 사례다.

1

2

3

4

5

6

1. 인평대군 치제문비 비각, 2017. 경기도문화재연구원
2. 비각 내 인평대군 치제문비, 2017. 경기도문화재연구원
3. 효묘어제어필, 2017. 경기도문화재연구원
4. 숙묘어제어필, 2017. 경기도문화재연구원
5. 영묘어제어필, 당저어제어필, 2017. 경기도문화재연구원
6. 영묘어제어필 비석 후면, 2017. 경기도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76호

## 정조어제 채제공선생 뇌문비

正祖 御製 蔡濟恭先生 誄文碑

조선시대(1799년)  
1기  
높이 243cm  
석재(화강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산3-12

지정일 : 1978.10.10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채씨종중(조성기)

<정조어제 채제공선생 뇌문비>는 1799년(정조23) 1월 18일에 채제공蔡濟恭(1720~1799)이 사망하자 정조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어 보낸 뇌문을 새긴 비석이다. 뇌문誄文이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긴 공적을 기리는 글이다. 제문祭文이 주로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글이라면, 뇌문은 죽은 사람의 생전의 공적을 서술함으로써 추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글이다. 정조의 이 글은 4언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500자가 넘는 장문이다.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에는 ‘문숙공채제공 장일치제문文肅公蔡濟恭葬日致祭文’이란 이름으로, 채제공의 문집 『번암집槃巖集』에는 ‘사제뇌문賜祭誄文’이란 이름으로 각각 실려 있다. 특히 ‘사제뇌문’이란 제목 아래쪽에 작은 글자로 ‘명수비묘도命暨碑墓道(무덤길에 비를 세우도록 명했다)’란 문구가 있는데, 이를 통해 정조의 명으로 비석이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

1. 정조 어제 채제공선생 뇌문비 전경, 2017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정조 어제 채제공선생 뇌문비 정면 세부, 2017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채제공의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槃巖,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1743년(영조19) 문과에 급제하였다. 1748년에 영조의 탕평을 표방한 특명으로 선발되어 청요직淸要職인 예문관사관직을 거쳤으며, 1753년에는 충청도 암행어사로 균역법均役法 실시 과 정상의 폐단과 백성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올렸다. 그는 1758년(영조34) 사도세자와 영조의 사이가 악화되어 세자 폐위가 논의되자 죽음을 무릅쓰고 막아 이를 철회시켰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후일 영조는 채제공을 가리켜 “진실로 나의 사심 없는 신하이고 충신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는 탕평정치를 표방한 영·정조를 적극 보좌해 당쟁을 억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1777년(정조1)에 왕을 살해하려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왕의 신변이 위태로워지자 수궁대장守宮大將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음모를 적발하였고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왕을 충실하게 보필하였다. 특히 10여 년을 재상으로 있는 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 왕을 보필하면서 정조의 신임이 두터웠다. 말년에 수원성역을 담당하다가 사직하였다.

저서로 『번암집』이 있는데, 정조는 채제공의 문집 간행에 관심이 아주 많아서 ‘어정범례御定凡例’를 친필로 써서 내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조 사후 1801년에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으로 추탈관작 되었다가 1823년 영남만인소로 관작이 회복되었다. 비석은 묘소의 오른쪽에 건립된 비각 안에 있으며, 네모난 받침돌 위에 비신碑身을 세우고, 팔작지붕돌을 얹었다. 앞면 상단에는 ‘어제뇌문御製誄文’이란 두전頭篆이 있는데 미수전眉叟篆으로 불리는 허목의 서체다. 미수전은 허목의 학통을 이은 영남 남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는데, 채제공 또한 허목의 학통을 이었기 때문에 미수전을 두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전이 ‘어제어필뇌문’이 아닌 ‘어제뇌문’인 걸로 보아 뇌문이 정조의 친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채제공의 장례일인 1799년 3월 20일에 제문을 내리고 각신閣臣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러자 검교대교檢校待敎 이존수李存秀(1772~1829)가 3월 25일에 장지인 용인으로 출발했고, 제사를 마친 후 3월 27일에 돌아왔다. 따라서 비문 끝에 ‘기미삼월이십육일己未三月二十六日’이라 한 것은 제사를 지낸 날짜인 것으로 보인다. 비석이 제사를 지낸 날에 세워진 것인지, 그 이후에 세워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78호

##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安城 竹山里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320cm  
석재(화강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240-2

지정일 : 1978.10.1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성시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은 단층기단 위에 삼층탑신을 올린 일반형 석탑으로 봉업사지奉業寺址의 뒷편 비봉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4매의 판석으로 조성된 지대석 상면에 단층기단을 구축했다. 기단은 4매의 판석으로 조립되었는데, 각 면에는 양 우주隅柱가 모각되어 있다. 1매의 판석으로 구성된 갑석甲石의 하면에는 부연副椽이 있고, 상면에는 각 면 3구씩, 모서리에 각 1구씩 모두 16판의 복련伏蓮이 조식되어 탑신을 받고 있다.

탑신석塔身石과 옥개석屋蓋石은 각각 하나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다. 탑신석에는 양 우주가 정연히 모각되었고, 1층 탑신이 2층에 비해 유난히 높게 조성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옥개석의 너비에 비해 탑신의 폭이 좁게 제작된 느낌을 주고 있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매층 각형 4단의 받침이 조출되었고,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며 합각선이 두툼하다. 처마는 얇게 조성되었는데,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轉角에 이르러 살짝 반전反轉되어 경쾌한 일면을 보이고 있다. 2004년에 진행한 석탑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석탑의 지대석 하면에서 탕주가 새겨진 기단부재가 확인되었다. 석재로 구축된 판축층 상면에 기단이 놓인 점으로 볼 때, 기왕에 건립된 석탑이 파손되면서 현재의 석탑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석탑은 기단갑석 상면의 연화문, 옥개석에서 보이는 안정감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 초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  
2 3

1.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전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삼층석탑 하부 상태, 2004. 경기도박물관
3. 삼층석탑,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79호

## 오명항선생 토적송공비

吳命恒先生 討賊頌功碑

조선시대(1744년)  
1기  
비신 225×98×36cm  
기단 88×170×115cm  
석재(화강암)  
안성시 정기로91번길 22

지정일 : 1978.10.10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성시

1 2 3

1. 오명항선생 토적송공비 전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토적송공비 측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토적송공비 후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오명항선생 토적송공비>는 1728년(영조4)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평정하는 데에 공을 세운 오명항吳命恒(1673~1728)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사후 16년이 지난 1744년(영조20)에 세운 비석이다. 오명항은 영의정 오윤겸吳允謙의 현손이며, 소론의 영수인 윤증尹拯을 옹호한 소론계의 중진이다. 영조 즉위 후 호조판서가 되어 압록강 지역의 유민을 안정시켰고, 1727년(영조3)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소론이 등용될 때 지중추부사, 이조와 병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1728년 병조판서 재직 시절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서울로 진격해오던 반란군을 안음安陰과 죽산竹山에서 진압하였다. 이때의 공로가 인정되어 분무공신奮武功臣 1등으로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에 봉해졌다. 우찬성에 승진되었으나, 자신이 이인좌와 같은 소론이라는 것을 자책하고 상소하여 사퇴를 청하였다.

비문 앞면은 이인좌의 난 토벌 당시 그의 종사관이었던 우의정 조현명趙顯明이 글을 짓고, 글씨는 병조판서 박문수朴文秀, 두전頭篆은 대제학 이광덕李匡德이 썼다. 두전에는 ‘朝鮮國四路都巡撫使吳公安城討賊頌德功碑(조선국사로도순무사오공안성토적송덕공비)’, 비음碑陰에는 토벌에 참가했던 장수와 군졸 등의 인적사항을 김시경金始炯이 썼다. 측면에는 군수 민제장閔濟章을 비롯하여 공을 세운 안성관원의 명단이 있다.

1744년(영조20)에 안성의 군관민들이 안성읍 동본동東本洞에 세운 것을 1969년 지금의 안성공원으로 옮겼다. 비개가 없는 원수형圓首形비신으로 무문방형대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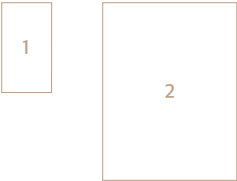


# 이원익선생 영정

李元翼先生 影幀

조선시대  
1점  
150×70cm  
비단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5

지정일 : 1978.11.10  
소유자 : 이승규  
관리자 : 충현박물관



1. 이원익선생 영정,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이원익선생 영정 상반신,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이원익李元翼(1547~1634)은 선조와 광해군, 인조 대에 모두 영의정을 지낸 명재상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태종의 아들인 익녕군益寧君 이치李穆의 4세손이며, 임진왜란 때의 공으로 호성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청빈한 삶을 살았으며, 고령의 나이까지 조정의 중신을 자임하였다. 선조 때에는 청백리에 녹선되었고, 인조 때에는 궤장几杖을 받았다. 이 초상은 평양의 서리들이 이원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웠던 생사당에 봉안된 초상으로 알려져 있다. 『오리집梧里集』 부록 권5의 「평양 생사당 제문平壤生祠堂祭文」에 실린 원주에 따르면, ‘임진년(1592)에 공이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을미년(1595)에 정승이 되어 조정에 돌아가자 서도西都, 평양의 백성들이 그 추사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壬辰 公爲平安道觀察使 乙未 卜相還 朝 西民追思立祠以祭之)’라고 하여 평양에 있던 이원익의 생사당과 초상에 대한 연원을 확인할 수 있다. 평양은 화적이 높은 화원이 많이 배출된 지역으로 이 초상 역시 높은 수준의 묘사력을 지니고 있다. 초상의 구도는 조선시대 초상의 전형인 좌안이 아닌 우안7분면이며, 오른손에는 부채를 들고, 왼손으로는 대를 잡고 있다. 이는 승상僧像의 영향으로 볼 수 있어 화승畫僧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면은 세밀하게 묘사되었고, 눈동자 주위에는 금니가 남아 있다. 풍성한 수염과 맑은 피부를 통해 48세였던 이원익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약 10년 후에 그려진 호성공신초상과 비교된다.



# 효령대군 영정

孝寧大君 影幀

조선시대  
1점  
102×74cm  
모시  
과천시 자하동길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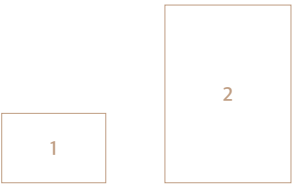
지정일 : 1978.11.10  
소유자 : 연주암  
관리자 : 연주암

<효령대군 영정>은 관악산冠岳山 연주암戀主庵에 봉안된 초상으로 구성과 화풍에서 불화佛畵와의 연관성이 많은 작품이다.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孝寧大君(1396~1486)은 독실한 불교신자로 알려졌으며, 관악사冠岳寺·무위사無爲寺·백련사白蓮寺·회암사檜巖寺 등의 중창불사에 깊이 관여하였다. 초상이 봉안된 연주암은 현존하는 고려 후기 양식의 석탑 등을 통해 여말선초에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하는 설화에 따르면, 태종이 충녕대군忠寧大君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양녕대군讓寧大君과 효령대군은 궁을 떠나 관악사冠岳寺에 머물렀고, 후대 사람들이 이곳을 연주암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영정은 옷이 굵고 조직이 치밀하지 못한 모시를 사용하여 중채를 한 부분에서도 바탕 재질을 확인할 수 있다. 얼굴은 호분을 바탕으로 삼아 선묘로 묘사되어 입체감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의복 또한 마찬가지로 색의 박락이 심하여 보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효령대군은 익선관翼蟬冠에 곤룡포袞龍袍의 차림으로, 지물持物을 손에 들고 용교의龍交椅(용의 형상을 새긴 임금이 앉는 의자)와 어탁御榻(임금이 앉는 상)이 혼용된 듯한 특이한 의자에 정면으로 앉은 전신정면상으로 그려졌다. 세부묘사에서 불화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있다. 먼저 대군의 신분으로 왕을 상징하는 의복과 우산과 같은 기물이 사용된 점 등은 불화인 시왕도十王圖와 비교할 수 있다. 신체 표현에 있어서도 귀를 길게 늘이고 지물을 잡은 손의 엄지를 세운 점 등도 불화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이 영정은 지역 화승에 의해 조선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유교 중심 사회에서 불교를 숭상한 왕실인물의 초상이란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1. 효령대군 영정 봉안 효령각, 2016  
\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효령대군 영정, 2016\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어사대비

御射臺碑

조선시대(1792년)  
1기  
귀부 45×80×140cm  
비신 137×54.4×23cm  
석재(화강암, 대리석)  
양주시 유양동 산33-2

지정일 : 1978.10.10  
소유자 : 양주시  
관리자 : 양주시

1792년(정조16) 정조는 광릉光陵에 행차하던 길에 양주목사가 있던 유양리에서 3일간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백성을 시무하고 민정을 살피고, 근교의 사대射臺에서 신하들과 함께 활을 쏜 뒤 잔치를 베풀었다.

<어사대비>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원수형圓首形 비석이다. 비신은 간략하게 조각한 화강암 귀부 위에 세워져 있다. 앞면에는 임금 활을 쏘았던 곳이라 하여 ‘御射臺(어사대)’라는 큰 글자의 제목이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정조가 활을 쏘았던 내용을 비롯하여 왕이 지은 시, 왕이 내린 말씀을 관아의 오른쪽 벽에 걸어두고 찬양한다는 내용, 그 사실을 석비에 새기고 읍지邑誌에 기록한다는 내용 등이 새겨져 있다.

뒷면의 비문 끝부분에 ‘崇禎三壬子 十二月日立(승정삼임자 십이월 일립)’이라는 연기年記가 있어 비의 건립연대를 알 수 있다. 비문은 당시의 양주목사 이민채李敏采가 짓고 썼다. 6·25전쟁 때 생긴 탄흔彈痕으로 몇 군데가 박락剝落되어 있는 상태이다.





## 보광사 대웅보전

普光寺 大雄寶殿

조선시대  
1동  
3×3칸  
목재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474번길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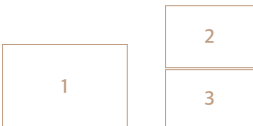
지정일 : 1979.09.03  
소유자 : 보광사  
관리자 : 보광사

<보광사 대웅보전>은 파주 고령산에 위치한 보광사의 주불전 중 하나이다. 이 사찰은 신라 도선국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며 현재의 모습은 조선후기에 여러 차례 중창을 거쳐 갖춰진 것이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조선전기에는 고령사高靈寺로 불렸으며, 임진왜란 이후 보광사普光寺로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 보광사라는 사명은 대웅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승정7년명 동종(1634,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58호)의 명문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동종의 명문에는 사찰의 창건 내력과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1622년(광해군14)에 설미雪眉·덕인德仁 두 스님이 함께 중건한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1901년에 작성된 『고령산보광사법전중창명단확서古靈山普光寺法殿重并丹序』에는 그 이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1667년(현종8) 지간智侃·석련釋蓮 두 스님이 대웅보전과 관음전 등을 재건하였고, 1740년(영조16)에는 숙빈 최씨의 묘인 소령원昭寧園의 원찰이 되어 다시 한 번 중수가 진행되고 만세루가 건립되었다. 이후 1898년(고종35)에는 대웅보전 안에 영산후불탱화 등 여러 불화가 조성되어 봉안되었고, 1901년에도 왕실의 후원으로 대대적인 중창이 진행되었다. 이후 한국전쟁 당시 사찰의 일부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재건과 중창을 거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대웅보전은 광무연간의 중수를 거쳐 지금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광사의 사역은 북쪽으로 크게 확장되어 있으나, 조선시대 사역은 현재의 대웅보전과 만세루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웅보전은 커다란 장대석을 쌓아 기단을 조성하고 그 위에 거칠게 다듬은 초석을 사용하여 정면 3칸에 측면 3칸 규모로 조성하였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지붕아래에는 공포를 기둥 위와 그 사이에도 배치한 다포형식으로 사면에 둘러 배치하였다. 건물의 전면에는 세살로 짠 4짝의 분합문을 들어열개문으로 설치하였고, 측면은 나무널판을 짜서 판벽을 구성하고 벽화를 그려 넣었다. 건물을 바라보고 좌측면에는 1짝의 문을 설치하여 신도의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내부에는 우물마루가 깔려있으며, 고주 앞쪽으로 불단을 설치하고 석가모니불을 본존으로 삼존불을 봉안하였다. 건물 전면을 보면 측면과 후면에서는 볼 수 없는 용두 조각이 기둥의 머리 부분에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용두조각은 내부까지 하나의 부재로 조각되어 강한 장식성을 보여주면서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는 불단을 외호外護하는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용두조각과 공포의 화려한 연꽃 장식에서 보광사 대웅보전이 가지고 있는 조선후기 불전 건축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1. 보광사 대웅보전 정면,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대웅보전 좌측면, 2008. 파주시
3. 대웅보전 우측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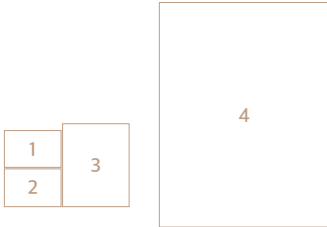


## 대로스비

大老祠碑

조선시대(1787년)  
1기  
377×66×66cm  
석재(화강암, 애석)  
여주시 청심로 113

지정일 : 1979.09.03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신정자



1. 대로스비 전경, 1972. 여주시
2. 대로스비 전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대로스비 전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대로스비 측면·후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대로스비>는 우암 송시열尤庵宋時烈(1607~1689)의 영제사를 모시는 대로스의 내력을 기록한 비로, 1787년(정조11) 건립되었다. 송시열은 1633년(인조11) 사마시에 합격하여 경릉참봉을 지냈으며, 봉림대군(후의 효종)의 스승이다. 1785년(정조9) 정조가 영릉寧陵(효종의 능) 참배길에 옛날 송시열이 능을 향해 통곡하며 후진에게 북벌北伐의 대의를 주장했다는 말을 듣고, 김양행金亮行 등의 유신에게 명하여 사당을 건립하도록 하고 ‘大老祠(대로스)’로 사액賜額하였다.

대로사는 간단한 규모이나 배치가 특이하다. 출입문인 장인문이 서쪽으로 나있으며 사묘 또한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영릉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다. 1871년(고종8)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전국의 서원을 철거할 때 송시열을 모시던 44개의 서원이 모두 헐렸으나 대로사는 ‘강한사江漢祠’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남게 되었다.

대로스비는 화강암의 방형비석 위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모양을 개석을 엮었다. 비의 앞면에는 ‘大老祠碑(대로스비)’, 뒷면에는 ‘御製御筆(어제어필)’이라는 전액篆額이 있어 정조가 친히 짓고 썼음을 알 수 있고, 비문 끝에 ‘황명송정기원후삼정미동십일월皇明崇禎紀元後三丁未冬十一月’이라는 기록이 있어 1787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 윤계선생 순절비

尹槩先生 殉節碑

조선시대(1668년)  
1기  
총 높이 198cm  
비신 178×75×23cm  
기단 20×127×92cm  
석재(화강암, 대리석)  
화성시 남양동 1392-1

지정일 : 1979.09.03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화성시

<윤계선생 순절비>는 인조 대 문신인 윤계尹槩(1603~1636)의 순절비殉節碑이다. 윤계의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신백信伯, 호는 신곡薪谷이다. 1627년(인조5) 문과 급제 후 홍문관교리와 이조좌랑을 역임하였다. 1636년(인조14) 남양부사 재직 시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군병들을 소집하여 항전을 준비하였고, 군병들이 청병淸兵에 의해 모두 궤멸되자 남양부 청사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순절하였다.

1668년(현종9) 읍민들이 윤계의 충의를 기리고자 남양부 중앙에 방부개석方趺蓋石 양식의 순절비를 건립하였다. 비문은 우의정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 짓고 글씨는 좌참찬 송준길宋浚吉(1606~1672)이 썼으며 전액은 평안도관찰사 민유중閔維重(1630~1687)이 올렸다. 세 사람 모두 당대의 명사들이어서 윤계의 역사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대리석으로 만든 비신 앞면이 약간 파손되었으나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하다. 화강암으로 조성한 방부 윗면은 복련覆蓮을 장식하였다.

병자호란과 관련한 유적으로는 남한산성과 삼전도비三田渡碑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윤계선생 순절비는 수원 광고산에서 청나라 군사를 물리쳤던 김준룡金俊龍(1586~1642) 장군의 전승지 및 비(경기도 기념물 제38호)와 함께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 북한산성 금위영 이건기비

北漢山城 禁衛營 移建記碑

조선시대(1715년)  
1기  
전체높이 141cm  
비신 108×225cm  
석재(화강암)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32

지정일 : 1979.09.03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고양시

<북한산성 금위영 이건기비>는 1715년(숙종41) 금위영을 옮긴 기념으로 세운 비이다. 금위영은 원래 동소문 안에 있었으나 지대가 높아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현재 금위영 이건기비가 있는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비는 화강암으로 조성하였으며, 뒷면은 땅에 묻혀있고 옥개는 장대석 앞면에만 낙수면을 새긴 와비臥碑형식이다. 금위영 이건기비에는 금위영을 북한산성으로 이건하면서 새롭게 만든 금위영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금위영이 이건하게 된 이유 등을 담고 있어 당시 수도 방위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이명李頤命이 지은 비문의 전반부는 ‘1711년(숙종37) 4월에 훈련도감訓練都監,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으로 하여금 백제의 고성古城인 북한산성을 나누어 개축하게 하고 각 군영을 설치하도록 하여 유사시에 대응하게 하였다.’는 내용이고, 비문의 후반부에는 ‘용암봉 동남쪽에서 보현봉普賢峯 아래까지 2,821보步를 쌓았고, 1,065개의 성가퀴와 2개의 성문(대성문, 소동문) 위에 우각을 설치하였다.’는 내용과 ‘태고太古 외 4개의 사찰이 성내에 있고 군영의 막사와 창고 90여 칸은 3월에 4개의 사찰 중 하나인 보국사로 옮겼다.’는 금위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  
2

1. 북한산성 금위영 이건기비 전경, 2016. 경기도문화재연구원  
2. 금위영 이건기비, 2016. 경기도문화재연구원





## 광주 유정리 석불좌상

廣州 柳井里 石佛坐像

조선시대  
1구  
높이 198cm  
석재(화강암)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699번길 47-8

지정일 : 1979.09.03  
소유자 : 부락민  
관리자 : 유정부락(유한근)



1 2

1. 광주 유정리 석불좌상 전경, 2017\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석불좌상, 2017\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광주 유정리 석불좌상>은 현재는 보호각에 봉안되어 있지만 어디에서 옮겨온 것인지 그 유래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화강암제 조각상으로 호분을 두껍게 바른 불신과 붉은 입술의 채색 등에서 무속적인 분위기가 다소 생경하게 느껴진다.

원통형의 왜소한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며, 지나치게 작은 양손을 다리 위에 포개어 놓은 선정인禪定印의 수인이다. 작은 나발이 조각된 머리는 육계와의 경계가 분명하며, 경계에는 중간계주, 정상에는 정상계주를 각각 두었는데 전체적인 모습이 라마식 불상 머리와 닮았다. 얼굴은 장방형으로 길고 이마가 넓으며, 양측의 귀도 길게 어깨까지 닿아 있다. 둥근 눈썹선과 이어지는 작은 삼각형 코, 불룩하게 올라온 인중과 작은 입 등을 특징으로 세속적이면서도 친근함이 느껴지는 인상이다.

둥글고 좁은 어깨에 법의를 통견식通肩式으로 입었다. 목으로부터 가슴 아래로 규칙적인 반원형의 주름이 흘러내리며, 양손 위에도 서로 대칭되게 층단식의 옷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조각기법이 전체적으로 서툰고 세련되지 못한 승유역불의 조선시대에 제작된 불상으로 추정되며, 불상의 모습에서 오는 친밀감으로 인해 오랫동안 유정리의 민간신앙 대상으로서 수호신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 안성 죽산리 당간지주

安城 竹山里 幢竿支株

고려시대  
1기  
470×80×50cm  
석재(화강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28

지정일 : 1979.09.03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성시

<안성 죽산리 당간지주>가 서 있는 사지는 봉업사지로 알려져 있다. 봉업사는 화차사華次寺라는 이름으로 신라시대 창건되었는데, 고려 시대에 들어와 태조의 진영이 봉안된 진전사원眞殿寺院으로 가람의 규모가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봉업사는 고려시대 대찰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주요 교통로 상에 있어 숙박시설이 있는 원院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간지주는 봉업사지 오층석탑과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 원래는 1주가 넘어져 있어 1980년에 보호철책을 설치하면서 지금처럼 세운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당간지주는 석탑과의 거리와 사역의 범위 등으로 보아 원위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간지주가 원위치라면 오층석탑이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

당간지주의 기단부는 현재 매몰되었거나 결실되어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지주 하단부의 치석 수법으로 보아 정연한 기단부가 원래부터 마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두 지주는 동서로 마주 서있는데, 현재 서쪽지주 상단부가 일부 파손되어 있다. 따라서 1980년에 넘어져 세운 지주가 서쪽지주로 보인다. 두 지주는 동일한 수법으로 치석되었는데, 면의 치석 수법이 정교하지 못하여 정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 다만 바깥면 외곽 모서리는 모를 깎아 다소나마 부드럽게 하였다. 지주부의 꼭대기는 안쪽 면에서 바깥 면으로 나가면서 부드럽게 호선을 그리도록 치석하였고, 간구는 내면 꼭대기에 긴 사각형의 홈을 파서 마련하였다.

이 당간지주는 봉업사에 소속되었던 것으로 지주의 너비와 폭이 전체 높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점, 지주부에 별 다른 장식이 없는 점, 간결한 치석 수법 등 전형적인 고려시대 양식을 보이고 있다. 봉업사가 대대적으로 중창될 때 오층석탑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성 죽산리 당간지주,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조헌선생 유허추모비

趙憲先生 遺墟追慕碑

조선시대(1617년)  
1기  
비신 140×62×24cm  
기단 35×96×61cm  
석재(화강암, 대리석)  
김포시 중봉로25번길 90

지정일 : 1979.09.03  
소유자 : 우저서원  
관리자 : 우저서원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조헌趙憲(1544~1592)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조헌은 경기도 김포 출생으로 본관은 배천白川,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이다. 율곡 이이栗谷李珥(1536~1584)와 우계 성혼牛溪成渾(1535~1598)의 문인이다. 1567년(명종22) 문과급제 후 언관言官과 지방수령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후학을 가르치던 충북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청주성 수복에 공을 세웠으나 금산전투에서 휘하의 의병 700명과 함께 전사하였다. 1604년(선조37)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에 책록되고, 1734년(영조10)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1883년(고종20)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1617년(광해군9) 김포가 조헌의 고택故宅이라 하여 많은 선비들이 그 유허遺墟에다 방부원수方趺圓首양식을 갖춘 비석을 세우고 조헌의 평생 언행과 의병을 일으킨 사적을 기록하였다. 비문은 판증추부사 월사 이정구月沙李廷龜(1564~1635)가 글을 짓고 동지돈령부사 남창 김현성南窓金玄成(1542~1621)이 글씨를 썼다. 전액은 ‘重峯趙公遺墟追慕之碑(중봉조공유허추모지비)’라 되어 있으나 쓴 사람은 새기지 않았다. 1648년(인조26) 지방 유림이 주도하여 조헌의 유허에 서원을 건립하자 추모비도 서원 경내로 자리잡게 되었다.



1 2

1. 조헌선생 유허추모비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조헌선생 유허추모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 및 비

文殊寺 楓潭大師 浮屠 및 碑

조선시대(1668년)  
2기  
부도 높이 282cm  
비 186×72×18cm  
석재(화강암)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212-13

지정일 : 1979.09.03  
소유자 : 문수사  
관리자 : 문수사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 및 비>는 문수산 정상에 위치한 풍담대사 의심楓潭大師義諡(1592~1665)의 묘탑이다. 스님의 성은 유씨, 호는 풍담으로 김포 출신이다. 14세에 출가해 묘향산 성순性淳 문하에서 구족계를 받은 후, 천관산 원철圓澈을 찾아가 『서장書狀』·『도서都序』·『절요節要』·『선요禪要』 등 사집四集을 배웠다. 묘향산 언기彦機 문하에서 묘지妙旨를 깨친 후, 기암奇巖·소요逍遙·호연浩然·벽암碧巖 등을 찾아 선지禪旨를 검증받고 금강산에 머물렀다. 1644년(인조22) 묘향산에서 언기의 병시중을 들었다. 언기는 『화엄경』·『원각경圓覺經』 등의 제소諸疏가 방치되어 잔결殘缺된 부분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정리 중에 병이 들었기에 의심에게 완성을 부탁했다. 이후 백수십 권에 이르는 『화엄경』·『원각경』 등의 제소를 면밀하게 살펴 6년 만에 그 잘못을 바로잡은 음석音釋을 지어 여러 총림에 전달했다. 풍담대사 부도는 방형 지대석 위에 팔각형 기단부를 설치한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이다. 기단은 통일신라 때부터 유행한 불상대좌 형식으로 하대석은 상하 2단이며 복엽 16판의 복련과 안상을 조각했다. 중대석에는 우주를 모각했고, 상하 2단으로 구획된 상대석은 하단 각 면에 2구의 안상을 상단에는 연판을 표현했다. 원구형 탑신석 위로 팔각형 옥개석을 올렸다. 옥개석 하단에는 3단 받침을 조식했고, 낙수면 합각선을 도드라지게 표현했다. 정상부에는 3단의 원통형 보륜 위에 연봉형 보주를 올렸다. 탑비는 방형 비좌 위에 구름문양을 조각한 이수螭首와 한 몸으로 제작된 비신을 세웠으며, 비신 상단에 ‘楓潭大師碑(풍담대사비)’를 음각했다.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 및 비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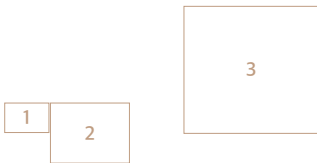


## 석수동 마애종

石水洞 磨崖鐘

고려시대  
1개  
244×266cm  
석재(화강암)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산32

지정일 : 1980.06.02  
소유자 : 안양시  
관리자 : 안양시



1. 석수동 마애종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마애종,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마애종 세부,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석수동 마애종>에는 바위에 낮은 부조浮彫로 새겨진 조각으로 사찰에서 사용하는 의식용 범종梵鐘을 스님이 타종하는 모습을 새긴 것이다. 건축물을 간략하게 표현한 구조물에 범종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적인 모습은 위가 좁고 배 부분이 볼록한데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좁아지는 형태로 마치 장독을 얹어놓은 모양이다. 범종은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한국종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종의 고리부분인 용뉴龍鈕에 용 한 마리와 음통音筒이 함께 표현된 점, 사각형의 광廓 내부에 종 꼭지인 종뉴鐘乳가 9개인 점 등은 전형적인 한국종의 특징이자 통일신라시대 범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종 중앙부의 당좌撞座는 12개의 잎을 가진 연꽃의 형태로 3곳이 표현되었다. 중앙의 당좌는 원형인데 비해 양 끝의 당좌는 반원으로 종의 뒷부분에 당좌가 표현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범종이 2곳의 당좌로 구성된 것에 비해 고려시대부터는 4곳의 당좌 표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이 마애종의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 전기로 짐작된다. 종에는 천인天人이나 불·보살과 같은 별도의 장식조각이 보이지 않는데, 조각이 어려운 화강암의 특성상 좀 더 간략하게 조각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종의 왼쪽에서 종을 치는 인물은 민머리에 가사를 걸친 스님으로 추정된다. 종을 치는 역할을 하는 당목撞木은 앞부분이 넓고 뒷부분이 길게 표현되어 있어 고대 당목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바위에 새긴 범종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례가 없는 유일한 작품인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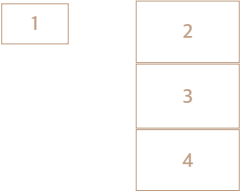


# 안양사 귀부

安養寺 龜趺

고려시대  
1기  
100×300×218cm  
석재(화강암)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31번길 103

지정일 : 1980.06.02  
소유자 : 안양시  
관리자 : 안양시



1. 안양사 귀부 우측면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귀부 평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귀부 정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귀부 배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안양사 귀부>는 안양사 뒷산의 일명 거북골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을 안양사 대웅전 앞에 이전한 것으로 비신碑身과 이수螭首는 결실되고 귀부만 남아있다. 엎드려 있는 자세에 고개를 치켜드는 형태의 표현으로 인해 목이 짧아 거의 보이지 않으며 긴 수염이 달려있다. 양 발은 가지런히 놓여 있으며 앞발은 3조, 뒷발의 2조의 발톱을 조각하였다. 비늘이 표현되어 있고 등에는 육각형 2개가 중첩된 모습의 귀갑문龜甲文이 촘촘하며 등의 가운데에 장방형의 비좌碑座가 마련되어 있다. 비좌의 측면에는 구름 무늬가, 뒷면에는 24엽의 복련이 조각되었다. 전반적인 형태가 1111년(예종6)에 조성된 금산사 혜덕왕사진응탑비慧德王師眞應塔碑와 형식적으로 친연성이 보여 제작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의 뒷산에서 현재의 안양사로 이운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여지도서輿地圖書』 등의 문헌기록에 안양사 경내에 김부식金富軾(1075~1151)이 찬한 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귀부의 제작시기가 이와 비슷한 시기이고, 안양사安養寺 명문 기와가 출토된 중초사지中初寺址가 직선거리로 700여 미터 떨어진 위치에 있어 원래 안양사에 있었던 귀부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 삼막사 마애삼존불

三幕寺 磨崖三尊佛

조선시대(1763년)  
1구  
본존불 150×66cm  
좌우협시 129×118×42cm  
석재(화강암)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80

지정일 : 1980.06.02  
소유자 : 삼막사  
관리자 : 삼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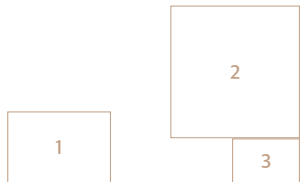
<삼막사 마애삼존불>은 사찰 입구에서 오른쪽 계단을 따라 200m 올라가 남녀근석 뒤편 칠성각 내에 봉안되어 있다. 산등성이에 형성된 암벽에 얇게 감실을 파고, 중앙에 앉아있는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를 중심으로 일광日光과 월광보살月光菩薩이 좌우에 배치되었다. 치성광여래는 북극성이 불교에 결합한 것으로, 일월성수日月星宿를 권속으로 거느리며 재앙을 없애고 자손번성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부처이다.

본존은 둥근 얼굴에 머리는 소발素髮로 타원형의 정상계주와 반달 모양의 중앙계주가 크게 표현되었다. 가늘게 뜬 눈, 삼각형 코, 작은 입, 어깨까지 길게 늘어진 귀의 표현 등은 전형적인 조선 후기 불상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특히 목이 거의 없으며, 불신佛身에 비하여 유난히 얼굴을 크게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양손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가지런히 모아 둥근 보주를 들고 있다.

착의법은 대의와 편삼을 걸친 변형편단우견으로,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올라가 등으로 넘어간다. 대의 안쪽에 가슴을 덮은 승각기를 입고, 띠로 묶은 매듭이 새겨져 있다. 결가부좌한 다리에 늘어진 대의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목조불상보다 평면적인 느낌이 강하다.

양쪽의 협시보살은 일광과 월광보살로 본존을 향하여 몸을 약간 틀고, 양손을 가지런히 합장하고 있다. 머리에는 높은 삼산관三山冠을 쓰고, 이목구비는 본존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얼굴이 본존에 비하여 가늘고 길어 인체의 비례가 적당한 편이다. 보살의 밑에는 커다란 연잎으로 이루어진 연화대좌를 깔고 있다.

감실 밑에 있는 명문에 ‘乾隆二十八年癸未八月日化主悟心(건륭28년 계미8월일화주오심)’, ‘首施主徐世俊(수시주서세준)’이라 음각으로 적혀 있어 1763년(영조39)에 승려 오심이 발원하고 서세준이 시주하여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 삼막사 마애삼존불 전경,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삼막사 마애삼존불,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감실 밑 명문,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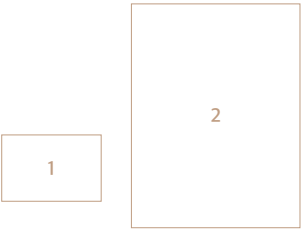


# 안성 죽산리 석불입상

安城 竹山里 石佛立像

고려시대  
1구  
400×100cm  
석재(화강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산 6-1

지정일 : 1980.06.02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성시



1. 안성 죽산리 석불입상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죽산리 석불입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안성 죽산리 석불입상>은 죽주산성竹州山城 주변에 쓰러져 있던 것을 현재의 위치에 세운 것이다. 머리와 신체는 파손되었던 것을 접합하였고, 발은 완전히 결실된 것을 최근에 다시 복원하였다. 불상은 복련의 대좌 위에 서 있는데, 그 앞에는 대좌 부재로 보이는 비슷한 크기의 석재가 남아있어 불상과의 연관성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 불상은 전반적으로 어깨가 좁고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게 표현된 비례와 부드럽게 흘러내린 옷주름이 특징이다. 큰 얼굴에 이목구비가 선명하며 육계도 크고 높은 편이다. 수인은 오른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보이고 왼손은 밑으로 내린 형식으로 신체에 비해 크게 조각되어 있다. 착의법着衣法은 양 어깨를 다 덮은 통견식通肩式이며, 양 다리에서 Y자로 갈라져 다시 양 대퇴부에서 대칭으로 U자형 주름을 형성하면서 밑으로 흘러 내린다. 이와 같은 형식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 불입상에 많이 보인다. 앞면에는 옷주름이 잘 표현되어 있으나 뒷면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상은 허리를 기준으로 상체가 뒤로 살짝 젖혀져 있는데 이러한 자세는 9세기에 제작된 통일신라시대의 작은 금동불에서 흔히 보이는 것으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봉안 금동여래입상과 비슷하게 통일신라시대 여래상의 전통적인 양식을 충실히 계승한 고려전기 여래상으로 추정된다. 크기라든지 부드러운 조각 수법에서 고려전기 석불에서는 우수한 사례에 해당된다. 안성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형 석불이 다수 조성되는데, 이는 이 시기에 유행한 미륵하생신앙彌勒下生信仰과 연관된다. 한편, 봉업사지奉業寺址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봉업사지에 봉안되었던 불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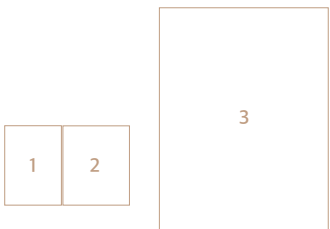
경기도유형문화재 제98호

## 여주 계신리 마애여래입상

驪州 桂信里 磨崖如來立像

고려시대  
1구  
223×46cm  
석재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9

지정일 : 1980.06.02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여주시



1. 여주 계신리 마애여래입상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마애여래입상 근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마애여래입상 세부,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여주 계신리 마애여래입상>은 남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암자인 석불암石佛庵 부근에 위치해 있다. 원형의 광배光背와 연화문 대좌臺座를 모두 갖추서 양각陽刻되어 있다. 광배는 3엽의 원형두광頭光이고 그 두광의 가장자리에 화염문이 선각으로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연화문 대좌는 선각으로 새겼으며 위에 양쪽으로 넓게 벌린 발이 낮은 부조浮彫로 표현되어 있다.

마애여래입상의 머리는 소발素髮이며 위로 육계肉髻가 큼직하게 솟아있다. 넓직한 방형方形의 얼굴 양볼에는 살이 많이 올라있다. 얼굴의 이목구비가 비교적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귀가 길어 거의 어깨에 닿을 정도이다. 짧고 두툼한 목에는 삼도三道가 새겨져 있다. 착의법을 살펴보면 양 어깨를 덮은 통견通肩으로 대의를 걸치고, 양쪽 팔을 감아 유려하게 흘러내리고 있다. 그 사이의 U자형 주름과 내의 띠 매듭, 왼쪽 어깨 부분의 대의를 고정시키는 고리 등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올라 손바닥을 안쪽으로 향하고, 왼손은 옆으로 내려 손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 마애여래입상은 양감 있는 얼굴, 당당한 신체, 대의 안쪽의 띠 매듭, 왼쪽 어깨 위에 대의자락을 묶은 고리 장식 등의 표현이 여주 포초굴 미륵좌불(경기도유형문화재 제35호)과 유사하다. 통일신라시대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고려전기의 작품으로 추측된다.



## 온온사

穩穩舍

조선시대(1649년)  
1동  
9×2칸  
목재  
과천시 관악산길 58

지정일 : 1980.06.02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과천시

- 1 2 1. 과천면사무소 전경, 1960년대\_과천시  
3 2. 온온사에 남아있는 석부재, 2014\_과천시  
3. 온온사 전경, 2014\_과천시



<온온사>는 조선시대 과천현의 객사客舍 건물이다. 객사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유숙하며 접대 받는 공간인 동시에 국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봉안하고 행례行禮하던 시설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각 지방 읍치에서 객사는 관아와 함께 읍치의 중앙을 차지하는 주요한 건물이었으며 격식을 갖추어 지었다. ‘온온穩穩’은 경관이 아름답고 몸이 편안하다는 뜻인데, 1790년(정조14) 수원에 있는 현릉원顯隆園에 참배하고 돌아오던 정조가 이곳에 머무르면서 과천동헌을 ‘부림軒富林軒’, 내사內舍를 ‘온온사’라고 이름 짓고 친히 편액을 썼던 것에서 유래한다.

1699년(숙종25)에 작성된 『과천현신수읍지果川縣新修邑誌』에 의하면 객사 동헌은 1649년(인조27) 현감 여이홍呂爾弘이 창건하였고, 객사 서헌은 1666년(현종7) 임금이 온천에 행차할 때 현감 남창조南昌祖가 창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 과천현 공해公廨조에는 객사 동헌이 12칸, 서헌이 10칸으로 규모가 기록되어 있다. 1895년(고종32) 행정 개편 후 과천군 청사로 활용되었다. 1912년 과천공립보통학교가 세워지며 교사, 교무실 등으로 사용되다가 1914년부터는 과천면사무소로 이용되었다. 1932년 기존 건물이 헐리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져서 사용되다가 1986년 12월에 이미 원형을 알 수 없는 건물을 낙안객사의 양식과 구조를 참고로 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해체 복원하였다.

## 봉국사 대광명전

奉國寺 大光明殿

조선시대(1674년)  
1동  
3×3칸  
목재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79

지정일 : 1980.06.02  
소유자 : 봉국사  
관리자 : 봉국사

성남시 영장산靈長山에 위치한 봉국사는 1028년(고려 현종19)에 창건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나, 현재의 사역은 1674년(조선 현종15)에 현종(1659~1674)의 공주 명혜明惠와 명선明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금강산의 승려 일축존자로 하여금 중창토록 하여 조성된 것이다. 이후의 사찰의 역사는 전하지 않지만 속종실록에 봉국사에는 명선·명혜 두 공주의 원당이 있다는 기록과 1873년(고종10)에 조성하여 봉안한 영산회상도의 화기에 상공의 시주로 서울 흥천사에서 제작하여 봉국사에 봉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왕실의 원당으로서 지속적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쇠락하였으나 1958년 법운스님이 중수하였고, 1974년에는 대광보전을 해체 수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광명전은 자연석 기단위에 연꽃이 새겨진 고북鼓腹형태의 초석을 사용한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불전이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공포는 출목익공으로 구성하였는데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에도 포를 배치하였다. 건물의 정면에는 격자살의 4짝 분합문을 설치하였고 건물을 바라보고 우측면에는 1짝의 격자살문을 달았다. 측면과 후면의 벽체는 모두 흙을 발라 마감하고 상부에 벽화를 그려 넣었다. 내부에는 우물마루가 깔려있으며, 고주없이 불단을 건물의 후면에 붙여 조성하였다. 불단에는 아미타불을 본존으로 하고 좌우에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협시보살로 봉안하였으며, 후불탱은 영산회상도를 걸었다. 내부의 목조 가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팔각지붕을 구성할 때 사용되는 층량과 협간 측면 천장의 빗반자가 설치되어 있어 애초에는 팔각지붕의 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중수과정에서 맞배지붕으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광보전의 건립에 대한 기록이 없어 건축물의 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출목익공의 구성이나 고주없이 불단을 구성한 모습 등에서 19세기 말 중창된 불전의 특성을 볼 수 있다.

1 2

1. 봉국사 대광명전, 2017\_경기문화재연구원  
2. 대광명전 내부, 2016\_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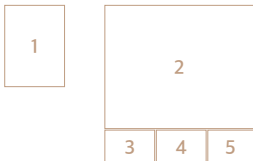


# 망경암 마애여래좌상

望京庵 磨崖如來坐像

조선시대  
1좌  
120×75cm  
석재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55번길 72

지정일 : 1980.06.02  
소유자 : 망경암  
관리자 : 망경암



1. 망경암 마애여래좌상,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망경암 마애여래좌상 전경,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고종광무원년 이규승 관련 명문,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4. 평원대군, 제안대군 관련 명문,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5. 칠성 관련 명문,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망경암은 성남시 수정구 영장산靈長山 중턱에 위치하는 곳으로, ‘망경암칠성대중수비望京庵七星臺重修碑’에 의하면 서울이 한 눈에 다 내려다 보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망경암 마애여래좌상>은 주변 자연 암벽에 방형 감실을 파고 그 안에 불상을 조각했다. 주위에도 암석면을 사각으로 다듬어 14곳에 명문을 새긴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중에서 불상 조성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1897년(고종1) 이규승李奎承이 관음상觀音像을 새기고 불사를 일으켰다는 내용이다.

감실 내의 불상 특징을 보면 머리에 나발을 조각하지 않은 소발素髮이며, 머리와 육계肉髻도 구분되지 않는다. 가름한 얼굴에 눈이 크고, 코가 오뎅한 편이며, 입술은 다 물어 무표정하다. 작은 머리에 비해 어깨가 넓은 편이며, 결가부좌의 자세에 오른손은 다리 위에 두어 땅을 가리키는 축지인을 하고, 왼손은 손등을 바깥으로 하여 가슴 앞으로 들었다. 법의를 입은 모양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목 주위의 둥글게 돌아가는 가장자리를 보면 통견의로 짐작된다. 표현기법에서 한계가 느껴지며, 여러 특징으로 보아 이규승의 관음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망경암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임금이 친히 들러 나라와 백성의 안녕과 수복을 빌었던 곳이며, 세조 때에는 평원대군平原大君과 제안대군齊安大君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칠성재七星齋를 지내는 등 주요한 칠성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마애여래좌상은 표현기법이 거칠고 세련되지 못하지만 인근의 망경암칠성대중수비 2기 등과 함께 승유역불의 사회였던 조선시대의 불교와 칠성신앙이 습합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연주암 삼층석탑

戀主菴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320cm  
석재(화강암)  
과천시 자하동길 63

지정일 : 1980.06.02  
소유자 : 연주암  
관리자 : 연주암



1. 연주암 삼층석탑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연주암 삼층석탑,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연주암 삼층석탑>은 관악산 연주암 대웅전 앞마당에 세워져 있다. 석탑의 지대석은 1매의 판석으로 만들었다. 지대석 상면, 기단부와 만나는 지점에는 호각형의 기단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기단받침 주변에는 연화문이 규칙적으로 새겨져 있으나 마모가 심하다. 석탑 지대석에 연화문을 조각하는 것은 11세기 이후 조성된 석탑의 지대석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강릉 신복사지 삼층석탑과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의 지대석을 들 수 있으며, 자연 암반위에 조성된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의 지대석에서도 연화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석탑은 단층기단이며 기단 면석에 가운데 기둥인 탱주撐柱는 표현되지 않았다. 갑석 하부에는 부연副緣이, 갑석 상면에는 탑신받침이 있다. 탑신받침은 굽형이나 일부 변형된 형태로 3단의 돌대를 조성하여 그 위에 1층 탑신석을 올렸다. 지붕돌 옥개석과 더불어 2층과 3층의 탑신석은 규칙적인 체감율을 보여준다. 지붕돌 하부에 있는 옥개받침은 1층 옥개석은 4단이며, 2·3층 옥개석은 3단으로 축소되었다. 3층 옥개석 위에는 상륜부가 조성되어 노반露盤과 양화仰花, 보주寶珠가 놓여 있다.

연주암 삼층석탑은 전체적으로 알맞은 비례감을 보여주며 정연하게 조성된 석탑으로 고려중기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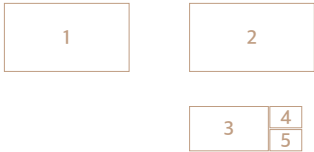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05호

## 이항로선생 생가

李恒老先生 生家

조선시대  
2동  
헛간채 5칸  
사랑채 10칸  
안채 11칸  
목재  
양평군 서종면 화서1로 239

지정일 : 1980.06.02  
소유자 : 양평군  
관리자 : 양평군



1. 이항로선생 생가 전경,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안채,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5. 사랑채,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조선말기 성리학자였던 화서 이항로(華西李恒老(1792~1868)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이항로는 구한말에 호남의 기정진(奇正鎭(1798~1876), 영남의 이진상(李震相(1818~1886)과 더불어 침체되어 가는 주리철학(主理哲學)을 재건한 사람으로 그의 심전주리론(心專主理論)은 조선말기 위정척사론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으며 민족운동의 실천적 지도이념으로 승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집이 위치해 있는 벽계(蘄溪)마을은 벽진 이씨의 동성촌으로, 이항로선생 생가 외에도 노산사(蘆山祠(경기도기념물 제43호)가 있어 선생의 높은 학식과 유학을 전승하고 있다. 이항로의 선조가 벽계마을에 입향한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조 대에 벽계마을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으며, 생가의 안채는 이항로의 부친이 약200여 년전에 건립한 것으로 전한다. 사랑채는 1994년에, 가옥 남쪽에 위치한 강당은 최근에 건립한 것이다.

가옥의 배치는 ㄱ자형의 안채와 ㄷ자형의 사랑채가 가운데 담을 두고 가로로 긴 ㄹ자형태를 취하고 있다. 안채의 경우 넓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을 배치한 다음 안방 앞쪽으로 부엌을 시설하는 전형적인 경기도 주택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안채의 가구구조 역시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평사량(平四樑) 구조로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사랑채는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새로 건립된 건물로 ㄷ자형 배치를 하고 있다. 남쪽 모서리에 2칸 마루 북쪽 모서리에 2칸 부엌을 시설한 것 외에는 모두 방을 들었다.

가옥과는 별도로 집 아래쪽에 위치한 강당은 사랑채를 짓고 난 후에 건립한 건물이다. 주택과는 다른 격식으로 장대석 기단 위에 원형 초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 지은 건물로 익공으로 기둥머리를 장식하였다.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이 집은 양헌수(梁憲洙(1816~1888), 최익현(崔益鉉(1833~1906), 김평묵(金平默(1819~1888), 유중교(柳重敎(1821~1893), 유인석(柳麟錫(1842~1915), 홍재학(洪在鶴(1848~1881) 등 많은 선비들이 이항로의 가르침을 받던 곳이어서 의미가 더 깊다.





# 이천 중리 삼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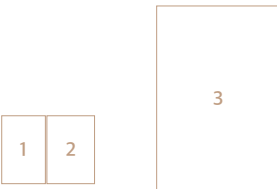
利川 中里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465cm  
석재(화강암)  
이천시 서희로 27

지정일 : 1981.07.1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이천시

<이천 중리 삼층석탑>은 이천시 중리동 종합복지타운 정문 옆에 있다. 이 탑은 이천읍 진리 마을에 도괴되어 있던 것을 1972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 복원하였다.

석탑의 가장 아래쪽에는 2매의 판석으로 조성된 지대석이 있으며, 지대석 상면에는 호각형의 기단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기단은 단층 기단으로 면석 중앙에는 탱주撐柱가 없고 면석 양끝에는 우주隅柱가 조성되어 있다. 갑석은 한 돌로 만들어졌는데 하부에는 부연副椽이 있다. 갑석의 상면은 평평하며 상면 중앙에는 굽형 탑신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굽형 탑신받침은 별석 탑신받침이 형식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갑석과 한 돌로 조성되는 굽형 탑신받침 이전에 조성된 받침은 별석 탑신받침이다. 847년 개창된 성주사 삼층석탑은 별석 탑신받침을 갖추고 있는 삼층석탑으로, 이처럼 등장 초기에는 받침 자체를 별석으로 조성하였다. 9세기 이후 탑신받침 자체를 별석으로 조성하는 방식과 갑석 상면의 조출한 받침 위에 별석의 받침을 다시 올리는 방식이 함께 등장하다가 이후 굽형받침 형식으로 변화된다. 굽형받침 위에는 갑석에 비해 단면적이 넓은 탑신석이 올려져 있다. 1층 탑신석의 단면적 비율이 갑석과 비교해 넓은 형태는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하남 춘궁동 삼층석탑 등과 같이 고려전기의 석탑에서 나타난다. 2·3층 탑신석은 탑을 이전 복원할 때 새로 보강한 부재이다. 옥개 받침은 1층과 2층이 5단이며 3층은 4단이다. 탑 자체가 비교적 크며, 갑석 상면의 굽형 탑신받침이 있고 1층 탑신석의 크기가 큰 점으로 보아 고려전기의 석탑으로 볼 수 있다.



1. 이천 중리 삼층석탑, 1981. 이천시  
2. 중리 삼층석탑, 2007. 이천시  
3. 중리 삼층석탑, 2017  
\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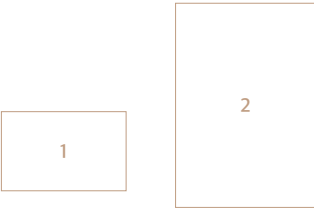


# 이천 어석리 석불입상

利川 於石里 石佛立像

고려시대  
1좌  
높이 432cm  
석재(화강암)  
이천시 어석로27번길 25

지정일 : 1981.07.1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박종길



1. 이천 어석리 석불입상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어석리 석불입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이천 어석리 석불입상>은 상하 두 매의 커다란 돌로 구성된 사각형의 돌기둥을 연상시키는 고려전기의 석주형 거석불巨石佛의 한 예이다.

머리는 민머리이고 정수리에는 낮게 육계가 표현되었으며 그 위에 별석의 갓을 올려놓았다. 얼굴은 뺨과 턱이 둥근 동안형으로 미간에 백호를 새겼다. 아래로 처진 눈썹과 윤곽만을 표현한 씨앗형의 눈, 뭉툭한 콧망울과 쭈긋한 입, 선각한 이중 턱선 등에서 동안 특유의 친근함이 느껴진다. 정면을 향한 목중한 귀는 길어서 어깨에 닿았고, 목에는 삼도를 새겼다. 통견으로 걸친 대의는 가장자리를 따라 테두리를 돌려 마치 도포를 연상하게 하며, 하단은 꽃잎 형태로 가지런히 마무리하였다. 넓게 드러난 가슴 아래로 치마의 상단 자락과 이를 묶은 O형의 넓은 매듭이 짧게 드리워져 있고 그 아래로 폭이 넓고 단순한 U자형의 층단식 옷주름이 반복된다. 팔꿈치 부분의 접혀진 옷자락은 둥근 고리 매듭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오른손은 가슴 위로 올리고 왼손은 내려 각각 시무외施無畏·여원인興願印의 수인을 맺은 것으로 보이나 손등을 밖으로 향한 모습이어서 조화롭지 못하다. 손톱 형태로 마무리된 치맛자락 아래로 겨우 발가락만 드러낸 양발도 신체에 매달린 듯 어색한 모습이다. 사각형의 측면에도 단순한 옷자락을 새겼지만 뒷면에는 조각이 없다.

머리에 팔각형의 돌갓寶蓋을 쓰고 있는 점과, 신체에 맞붙은 평면적인 수인, 입체감이 사라진 신체 조형과 간략화된 옷주름 처리 등에서 괴산 미륵대원 석불입상으로 대표되는 고려전기 충청지역 석불과의 친연성이 엿보이는 귀중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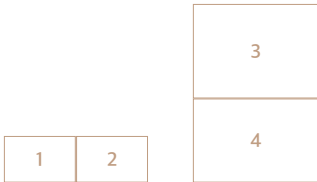


## 석남사 대웅전

石南寺 大雄殿

조선시대  
1동  
3×3칸  
목재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

지정일 : 1981.07.16  
소유자 : 석남사  
관리자 : 석남사



1. 석남사 대웅전 전경, 1983. 전국사찰현황실태조사서
2. 대웅전 측면,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대웅전 진입계단,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4. 대웅전 정면,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안성시 서운산瑞雲山에 위치한 석남사는 신라 문무왕대 창건하여 고려 광종대에 혜거국사가 중창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 태종대에 자복사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태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어 고려말 조선초에 안성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1725년(영조1)에 작성된 『석남사법당칠중창기적石南寺法堂七重創記蹟』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전각이 소실되어 1684년(숙종10)에 중창이 이루어졌고, 이후 1725년에 해원선사海源禪師가 대웅전과 영산전을 다시 중수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대웅전은 1978년 영산전 앞쪽에서 현재의 위치로 자리를 옮기기는 하였으나 건축물 자체는 1725년 중창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대웅전은 가파른 경사지에 자리하고 있어 진입계단이 급한 경사로 길게 뻗어 있으며, 별도의 기단석은 설치되지 되지 않고 건물 주위로 자연석 외벌대 기단만 두르고 있다. 다듬지 않은 자연석 주초를 사용한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이며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공포는 내외 2출목의 다포로 기둥 사이에도 포가 배치되어 있는데 정면은 2개씩, 후면은 1개씩 설치하여 다른 포배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정면에는 각 칸마다 4짝의 분합문을 설치하였고, 건물을 바라보고 좌측면은 전면쪽 협칸에 1짝의 살문을 설치하였으며, 우측면은 2곳의 협칸 모두에 1짝의 살문을 설치하였다. 측면과 후면의 벽체는 흙벽 미장 마감하고 벽화를 그려 넣었다. 내부에는 우물마루가 깔려있으며, 고주 앞쪽으로 불단을 설치하였다.

전체적으로 1725년 중수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 수리가 진행되어 다양한 시대의 모습이 혼합되어 있다. 건물 전후면의 포배치를 다르게 한 점이나 다포를 구성하면서 맞배지붕을 사용한 점, 건물규모에 비해 가는 부재를 사용한 모습은 조선후기 건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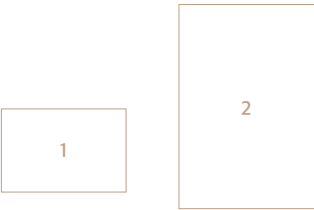


# 석남사 마애여래입상

石南寺 磨崖如來立像

고려시대  
1좌  
높이 530cm  
석재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

지정일 : 1981.07.16  
소유자 : 석남사  
관리자 : 석남사



1. 석남사 마애여래입상 전경,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마애여래입상,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석남사 마애여래입상>은 커다란 바위면에 저부조로 조각한 마애여래입상으로 광배와 대좌를 모두 갖추고 있다. 민머리에 육계가 낮으며 넓적한 얼굴에는 어깨에 닿을 듯 한 큰 귀가 늘어져 있다. 가늘게 뜬 눈은 위로 살며시 올라가 있고 입은 작게 조각되었다. 턱은 이중이며 목에는 삼도가 굽게 늘어져 있어 비대해 보인다. 머리 뒤에 세 겹으로 구성된 원형의 두광과 신광은 유난히 선명하고 굽게 표현되어 불상이 더욱 장대하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

어깨는 넓으며 옷이 양 어깨를 덮고 있어 통견처럼 보이지만 대의단이 왼쪽으로 넘어가 있어 편단우견偏斷右肩에 편삼編衫을 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의 안쪽으로 승각기와 나비모양의 띠매듭이 정교하게 표현되었다. 손은 체구에 비해 작는데, 오른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보이고 왼손은 손등을 보이며 양손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 점에서 변형된 전법륜인轉法輪印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 옷자락은 양팔에 걸쳐져 흘러 내렸는데 다리 부분에서 Y자형으로 갈라진 옷주름이 다시 타원형을 지으며 좌우대칭으로 선각되었다. 두 발은 양련仰蓮의 연화좌 위로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석남사 마애불상은 옷주름의 표현에서 통일신라적인 특징을 계승한 작품이다. 그러나 방형의 큰 얼굴과 하반신에 비해 큰 상반신의 신체 비례, 뚜렷한 광배 등의 표현에서는 고려시대 전기의 특징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전체적인 보존상태도 좋은 편이며 크기가 주는 장대함과 세밀하고 강한 조각 기법을 보이는 고려전기의 우수한 마애불이라고 할 수 있다.





## 김중만장군 공신록 및 교지

金重萬將軍 功臣錄 및 教旨

조선시대(1728~1729년)  
3매  
공신록 44x28.6cm  
교지1 95x122cm  
교지2 99x285cm  
종이(삼베, 닥종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지정일：1981.07.16  
소유자：사유  
관리자：서울역사박물관

1728년(영조4) 분무공신奮武功臣 김중만金重萬(1676~?)에게 내려진 공신록 1점과 교지 2점이다. 김중만의 본관은 언양彦陽, 자는 원중元重이다. 1712년(숙종38) 무과 급제 후 관직에 진출하였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가 난을 일으키려 병력을 모으자 이를 미리 고변告變하여 난의 평정에 큰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분무공신 2등에 녹훈되고 인성군彦城君에 봉해졌다. 여러 관직을 거쳐 충청도수군절도사를 역임하였다.

1728년 7월에 작성된 공신록에는 총 15명의 공신 명단이 등재되어 있다. 1등 공신은 오명항吳命恒 1명이고, 2등 공신은 박찬신朴讚新·박문수朴文秀·이삼李森·조문명趙文命·박필건朴弼健·김중만金重萬·이만유李萬圉 등 7명이며, 3등 공신은 이수량李遂良·이익필李益秘·김협金挾·조현명趙顯命·이보혁李普赫·권희학權喜學·박동형朴東亨 등 7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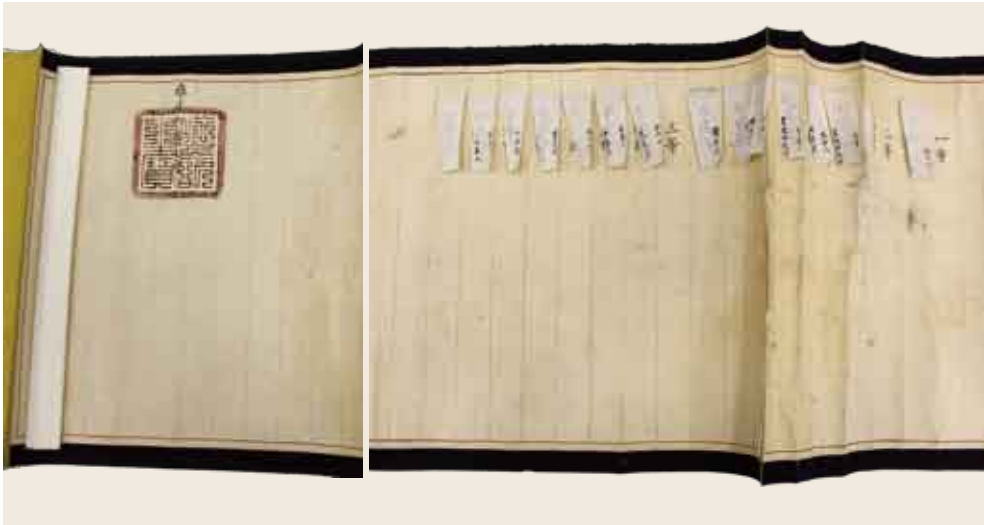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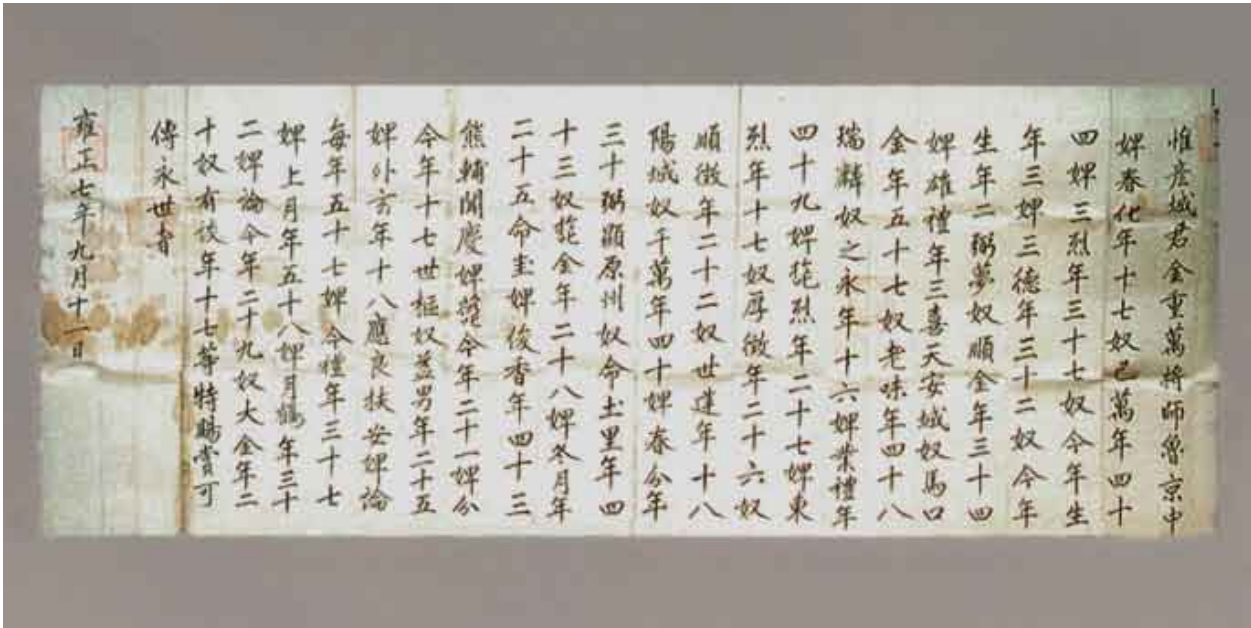
2등 공신에 녹훈된 김중만에게는 품계를 2계급 올려주고 적장자嫡長子가 그 봉록을 세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노비·전답·은자·내구마內廐馬 등도 하사하였다. 뒷면에는 ‘이선행李善行 製製 최종대崔重大 서書’라고 쓰여진 노란색 부전지附箋紙가 부착되어 있어 이선행이 글을 짓고 최종대가 글씨를 썼음을 알 수 있다.

공신록과 관련한 교지 2매는 1729년(영조5) 7월에 작성된 전답사패교지田畵賜牌敕旨와 동년 9월 11일에 작성된 노비사패교지奴婢賜牌敕旨이다. 내용에 의하면 전 14결 50부, 답 9결 20부의 전답과 노 16구, 비 18구의 노비를 김중만에게 내린다고 쓰여 있다.

현재 교지 2매는 2001년 문화재청에 도난문화재로 신고되어 있다.



1. 김중만장군 공신록,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김중만장군 교지, 촬영일미상\_ 문화재청
3. 김중만장군 공신록,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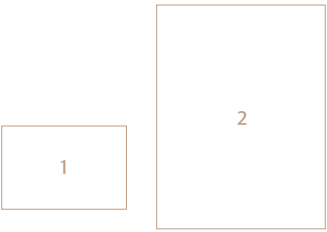


# 삼막사 삼층석탑

三幕寺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3m  
석재(화강암)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78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삼막사  
관리자 : 삼막사



1. 삼막사 삼층석탑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삼막사 삼층석탑,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삼막사 삼층석탑>은 안양시 삼막사 천불전 뒤편 축대 위에 있다. 축대 바로 위에는 한 구의 석불좌상이 있으며 석불좌상 뒤로 커다란 자연 암반위에 석탑이 세워져 있다. 삼층석탑은 지대석을 갖추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재의 자연암반 자리가 원래의 위치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삼막사 삼층석탑의 지대석은 수매의 장대석으로 만들었다. 지대석 위에 바로 하층기단 면석이 조성되었다. 그 위에는 하층기단을 덮는 갑석이 만들어졌는데 갑석 상면이 경사져 있다. 상층기단은 네 매의 면석을 엮물리게 하여 면석을 조성하였는데, 상층기단 면석 양 측면에는 모퉁이 기둥인 우주隅柱가 표현되었고 각 면석의 중앙에는 가운데 기둥인 탱주撐柱가 한 주씩 모각되었다. 상층기단 갑석은 하부에 부연이 없으며, 상면은 경사지게 조성되었다. 1층 탑신석의 경우 우주가 조성되어 있다. 2층과 3층 탑신석은 표면이 거칠게 다듬어져 있는 점으로 보아 후대에 보강한 부재로 판단된다. 옥개석은 위로 올라가면서 작아지는데 체감율이 정연하다. 상륜부는 1979년 새로 조성한 것이다. 석탑의 조성 시기는 석탑의 규모가 작은 편이고, 옥개 받침이 형식적이며, 이중기단을 갖추고 있으나 하층기단에 탱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려후기나 조선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막사 삼층석탑은 크기는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이중기단을 갖춘 평면 방형의 삼층석탑으로 통일신라 정형기 석탑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칠장사 대웅전

七長寺 大雄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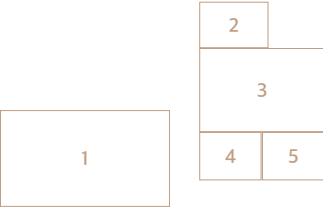
조선시대  
1동  
3×3칸  
목재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칠장사  
관리자 : 칠장사

안성시 칠장산 자락에 위치한 칠장사는 신라시대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창건하고, 고려시대 혜소국사慧炤國師가 중창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칠장사 사적비七長寺 事蹟碑(1671)’에 따르면, 원래 사명은 ‘아미산 칠장사峨眉山 漆長寺’이었으나 혜소국사가 7명의 악인을 교화시켜 현인으로 만들었다고 하여 ‘칠현산 칠장사七賢山 七長寺’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 여러 차례의 중창과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웅전은 1828년(순조28)에 다른 곳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고 중수하였다.

대웅전은 자연석과 장대석을 혼용하여 5단으로 높게 조성한 기단위에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세워져 있다. 초석은 정면의 4개와 우측의 두 번째 것은 원형으로 기둥자리를 다듬었고 고맥이까지 표현되어 있어 조선시대 이전의 것으로 보이며, 그 외는 방형의 자연석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것으로 보인다. 맞배지붕을 하고 있으며, 공포는 전면과 후면에만 다포를 두었다. 공포의 모습을 보면 내외3출목으로 외부는 연꽃이 조각되어 있다. 내부는 둥글게 조각한 운공형으로 모두 동일하게 처리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조각수법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중수와 이진으로 인해 여러 시기의 모습이 중첩된 것으로 보인다. 창호를 정면 3칸과 좌우 측면의 앞쪽 협칸 그리고 후면 중앙에 설치하였는데, 전면과 측면은 세살문을 설치하였으나 후면은 꽃살문을 설치한 점은 특이한 모습이다. 내부는 우물마루를 설치하고 고주 앞쪽으로 불단을 구성하였다. 불단이 설치된 중앙 어칸만 우물반자가 설치되어 있고 앞뒤로는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장으로 처리하였다.

칠장사 대웅전은 여러 차례의 중수와 이진으로 다양한 시기의 모습이 혼재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수법은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 조선후기 사찰에서 이뤄진 기존 건축물의 보존과 수리에 대한 접근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칠장사 대웅전,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칠장사 대웅전, 1983. 전국사찰현황실태조사서
3. 칠장사 대웅전 측면,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칠장사 대웅전 후면 꽃살문,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칠장사 대웅전 내부,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15호

## 칠장사 소조사천왕상

七長寺 塑造四天王像

조선시대  
4구  
높이 342cm  
진흙, 목재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칠장사  
관리자 : 칠장사

안성 칠장사는 636년(고구려 영류왕19)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창건하고 1014년(고려 현종5)에 혜소국사慧炤國師에 의해 크게 중창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중창이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세도가들에게 삶의 터전을 뺏겨 빈 절로 있었지만 거사 초견楚堅이 1674년(숙종1)에 다시 중수하여 현재까지 사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절의 오랜 역사는 경내에 수많은 부도탑과 현존하는 유물이 이를 증명해 주며, 천왕문 안에 장대한 크기의 소조사천왕상은 조선 후기 칠장사의 경제력과 위세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은 4구이며 나무로 뼈대를 하고 흙을 붙여 만든 것이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천왕문 안에 4구의 사천왕이 배치되어 있으며, 모두 의자椅子上에 앉아 있는 상으로 양 발 아래에는 악귀를 제압하는 조선 후기 사천왕상의 특징을 따르고 있다. 천왕문 정면 입구를 들어서면 오른편 앞쪽에 칼을 든 천왕상이 있고, 그 옆으로 비파를 든 상이 있다. 왼편에는 앞쪽 오른손에 용, 왼손에는 여의주如意珠를 쥔 천왕이 있으며, 그 옆으로는 오른손에 당幢을 세워 든 천왕이 왼손을 허리에 댄 자세로 앉아 있다. 조선 후기 사천왕상의 보편적인 배열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각각의 존명을 보면 오른쪽에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北方多聞天王, 검을 든 동방지국천왕東方持國天王, 왼쪽에 당을 든 서방광목천왕西方廣目天王,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南方增長天王이 있으며, 오른쪽 안쪽으로부터 북→동→남→서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신체는 전체적으로 가늘고 길며, 특히 상반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머리에는 높고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관 양측으로 관대장식이 날리는데 모두 같은 모습이다. 구불구불한 두꺼운 눈썹, 크게 뜯은 눈, 살포시 다문 큰 입술에 표정 없이 앞을 바라보는 시선처리 등 각 상의 표현이 거의 동일하며, 부드럽고 온순함이 느껴진다. 갑옷을 입고 그 위에 천의를 돌렸으며, 바람에 날리는 옷자락도 마치 정지된 듯한 모습으로 생동감이나 역동적인 분위기는 거의 사라졌다.

현존하는 소조사천왕상은 보은 법주사(1624)·순천 송광사(1628)·구례 화엄사(1632)·완주 송광사(1649)·김천 직지사(1665)·홍천 수타사(1679)·고창 선운사(1680)·공주 마곡사(1683) 등 17세기 전반부터 대략 10건 정도가 알려져 있으며, 대체로 17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상의 양식적 흐름을 보면 17세기 전반 사천왕은 자연스러운 자세, 위엄과 사실적인 조각 양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17세기 후반에 접어들면 자세가 경직되고 길쭉한 신체비례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1718년(숙종44)에 제작된 양산 통도사 목조사천왕상도 비슷해 재료에 관계없이 17세기 후반의 표현기법이 18세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은 1726년(영조2)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소조상이 17세기 전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18세기 소조사천왕상은 매우 이례적인 작품이다. 근엄한 모습을 갖춘 사천왕상이라기 보다 해학과 친근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조선 후기 사천왕상의 양식적 흐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1	2				
		3	4	5	6

1. 북방다문천왕,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동방지국천왕,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북방다문천왕·동방지국천왕,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4. 남방증장천왕·서방광목천왕,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5. 남방증장천왕,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6. 서방광목천왕,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 청원사 칠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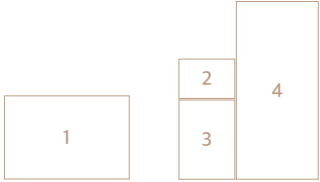
淸源寺 七層石塔

조선시대  
1기  
높이 345cm  
석재(화강암)  
안성시 원곡면 통심길 16-102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청원사  
관리자 : 청원사

<청원사 칠층석탑>은 단층기단 위에 칠층탑신을 얹은 조선시대 석탑이다. 1매의 판석으로 지복석地覆石을 삼고, 수매의 장대석으로 지대석을 조립하고 기단을 놓았다. 기단의 하대석下臺石 각 면에는 4구씩의 안상眼象을 새기고, 상면에는 복련伏蓮을 배치하였다. 연화문은 각면에 5구씩 모서리에 각 1구씩 모두 24판을 조각하였다. 기단의 면석은 4매의 석재로 구성되었는데, 각 면에는 양 우주隅柱가 조각되어 있다. 1매의 판석으로 조성된 갑석甲石의 하면에는 하대석과 동일하게 24판의 복엽양련複葉仰蓮을 조각하였고, 측면에는 각각 4구씩의 안상을 새겼다.

탑신석塔身石과 옥개석屋蓋石은 각각 하나의 석재로 구성되었는데, 칠층은 탑신석과 옥개석이 한 돌로 조성되었다. 탑신석의 네 모서리는 등글게 처리하였고, 각 면에는 양 우주가 선각線刻되어 있다. 옥개석의 하단에는 얇은 받침이 조출되었고, 이로부터 처마에 이르는 구간은 경사지게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상면으로 들려진 함각부의 정면에는 풍경공이 조성되었다. 낙수면의 경사는 1층은 완만하지만, 상층으로 갈수록 급하다.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轉角에서 약간의 반전反轉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상층으로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정상에는 보주寶株가 놓여 있다. 이 석탑의 가장 큰 특징은 기단부와 옥개석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불좌형佛座形의 기단부에 새겨진 연화문과 안상과 각부의 양식 등을 볼 때 조선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 청원사 칠층석탑 전경,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청원사 칠층석탑 전경, 1983. 전국사찰현황실태조사서
3. 청원사 칠층석탑, 1983. 전국사찰현황실태조사서
4. 청원사 칠층석탑,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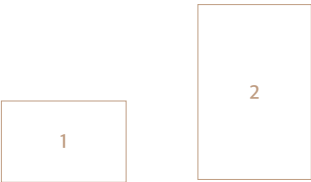


#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所古里 磨崖如來坐像

고려시대  
1구  
470×270cm  
석재  
이천시 공원로218번길 158-48

지정일 : 1984.09.12  
소유자 : 명지대학교  
관리자 : 이천시



1.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전경,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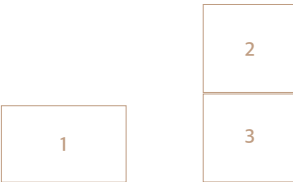


# 문수산 마애보살상

文殊山 磨崖菩薩像

고려시대  
2구  
270×85cm  
석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산25

지정일 : 1984.09.12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오준환



1. 문수산 마애보살상 전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좌측 보살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우측 보살상, 2014. A&A문화연구소



용인 문수산 정상 가까이에 인접한 절터에서 능선을 따라 50m 가량 더 올라가면 마애보살상 2구가 있다.

<문수산 마애보살상>은 높이가 약 3.5m 정도되는 두 개의 암벽에 양각으로 새겨서 대청을 이룬다. 왼쪽의 보살상은 오른쪽 보살상에 비해 크기가 약간 작은 편이고 선각線刻으로 표현하여 형태도 희미한 편이다.

왼쪽 보살상은 머리에 보관寶冠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네모난 얼굴에 긴 눈과 코, 입이 비교적 단정한 편이다. 목은 거의 표현되지 않고 굽은 삼도三道가 표현되었으며, 직각에 가까운 어깨 위에는 얇은 옷을 입고 있다. 오른손은 옆으로 내려 자연스럽게 펴고 있으며, 왼손은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가슴까지 올리고 있다. 양 팔목에는 팔찌가 있으며 잘록한 허리에는 군의裙衣의 띠 매듭이 보인다.

오른쪽 보살상은 얼굴이 왼쪽의 것에 비해 높게 부조浮彫되어 있어 양감量感이 돋보이고, 보관을 쓰지 않고 소발素髮로 표현되어 있다. 부은 듯한 눈은 귀에 닿을 듯이 양옆으로 길고, 눈썹부터 코까지 활모양의 선으로 이어져 있으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 상반신에는 얇은 옷을 입고, 군의는 좌측 보살상과 동일하게 표현되었다.

두 보살상은 정감 어린 얼굴과 굴곡진 허리 등의 표현이 잘 되었지만, 신체에 비해 머리와 손·발이 다소 크고, 신체 각 부분이 도식화되어 고려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주존主尊 없이 보살상 2구 만을 서로 대청으로 새기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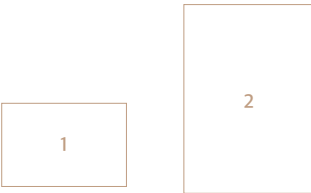


# 이회선생 신도비

李懷先生 神道碑

조선시대(1587년)  
1등  
252×77×22cm  
석재(대리석)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산20-1

지정일 : 1984.09.12  
소유자 : 전주이씨 익양군파 종중  
관리자 : 전주이씨 익양군파 종중



1. 이회선생 묘역,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이회선생 신도비,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이회선생 신도비>는 조선전기의 문신이자 종실인사인 이회의 행적을 기록한 비로 1587년(선조20) 건립되었다. 이회李懷(1488~1552)는 성종과 숙의홍씨淑儀洪氏 사이에서 태어난 성종의 일곱째 아들로 자는 순지順之이다. 1496년(연산군2) 익양군益陽君에 봉해졌다. 연산군의 실정이 계속되자 두문불출하고 행동을 신중히 하여 화를 면하였다. 1506년(중종1)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성공하자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 문소전·연은전·종부시·사옹원司饔院의 도제조都提調와 종친부宗親府의 유사당상有司堂上을 겸하다가, 65세 때 별세하였다. 왕이 부음을 듣고 애도하며 3일 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다. 시호는 순평順平이다.

이회의 신도비는 방부이수方趺螭首 양식을 갖추고 있다. 장방형의 대리석 하나를 다듬어 이수와 비신碑身을 마련하고, 비신을 꽃은 방부는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이수螭首에는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정교하게 조각하였다. 비문은 좌의정 동원 김귀영東園金貴榮(1520~1593)이 짓고, 글씨는 북부주부北部主簿 석봉 한호石峯韓濩(1543~1605)가 썼으며, 전액篆額은 도승지 두암 김응남斗巖金應南(1546~1598)이 올렸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명필 한석봉의 글씨가 새겨져 있어 한국 서예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망월사 혜거국사 부도

望月寺 慧炬國寺 浮屠

조선시대  
1기  
대좌 31x134x86cm  
비신 189x73x31cm  
옥개석 50cm  
석재(화강암)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211-500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망월사  
관리자 : 망월사

<망월사 혜거국사 부도>는 혜거국사 묘탑으로 의정부 망월사 경내에 있다.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 「신수망월사기新修望月寺記」에는 당나라 정관貞觀(627~649) 때 해호대사海浩大師가 창건하고 송나라 영종 때 혜거국사慧炬國師가 중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 「망월사적기望月寺 事蹟記」에는 영종 3년, 1066년(고려 문종20) 중창주 혜거국사가 중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혜거국사는 고려 때 활동한 승려로 추정되지만 현존하는 부도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 건립된 부도양식을 따르고 있어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

혜거국사 부도는 각형 2단의 팔각형 지대석 위에 팔각형 기단을 설치했다. 지대석은 하단의 정면을 제외하면 자연석에 가깝게 치석하고, 주위 자연석으로 보강했는데 탑구塔區 시설로 추정된다. 지대석 상단 위로 기단 하대석을 만들고, 윗면 외곽부분 주위는 1조의 음각 선을 표현했다. 팔각형 중대석은 상대석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윗면에서 아래로 크기를 감소시켜 치석했다. 상대석 외곽으로는 하대석과 같이 1조의 음각 선을 새겼고, 탑신과 연결되는 중앙부에는 1단의 호형 층급을 표현했다.

원구형 탑신부 하면에는 16엽의 복엽을 앙련仰蓮으로 조각했는데, 연판 사이에는 간엽間葉을 표현했다. 옥개석은 상륜부까지 하나의 석재로 만들었다. 옥개석 하면에는 원형의 2단 받침과 1단의 팔각형 받침을 표현하였고, 합각선에는 부연附椽을 조각하였다. 옥개석 상면에는 낙수면을 완만하게 표현하였고, 합각선 상면에는 귀꽃을 조각하였다. 복엽 8판의 연화문 위에 연주문을 새기고 3단 보주를 상륜으로 만들었다. 부도 앞에는 상석 형태의 배례석을 설치했는데, 전면에 '慧炬塔(혜거탑)'을 음각했다. 조선 초 부도나 왕릉의 석등 옥개석 등과 세부수법에서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조선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망월사 혜거국사 부도, 2017  
\_ 경기문화재연구원



## 청룡사 사적비

靑龍寺 事蹟碑

조선시대(1721년)  
1기  
대좌 31x134x86cm  
비신 189x73x31cm  
옥개석 50cm  
석재(화강암)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140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청룡사  
관리자 : 청룡사

청룡사 사적비,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청룡사 사적비>는 1720년(숙종46) 청룡사 중수 불사를 마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로, 직사각형 대좌 위에 세운 비신과 그 위에 덮은 옥개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제는 ‘조선국 경기도안성 서운산청룡사 중수사적비朝鮮國京畿道安城瑞雲山靑龍寺重修事蹟碑’이며 비문은 동헌거사 나준羅浚이 최치원의 진감선사 비문을 참고하여 지었다. 전 직산현감 황하민黃夏民이 글씨를 썼으며, 전액篆額은 사헌부 지평 김진상金鎭商이 썼다.

청룡사 사적비의 내용에 따르면, 청룡사는 원나라 세조 지원至元 연간(1264~1294)에 ‘대장암大藏庵’이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고, 원나라 순제 지정至正 연간(1341~1367)에 나옹혜근懶翁惠勤(1320~1376)에 의해 중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서운’이라는 산명과 ‘청룡’이라는 사찰이름이 혜근의 중창 때 지어진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절이 광해군 대에 이어 인평대군麟坪大君(1622~1658)의 원당願堂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청룡사는 17세기 전반기 무렵 왕실 원찰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20년 중수 불사를 주도한 인물은 사간思侃도인 ‘원혜元惠’라는 이름의 승려로 불사와 관계된 노덕질老德秩·불량답시주길佛糧畓施主秩·철물대시주鐵物大施主·연화질緣化秩 등 인물들의 명단을 수록하여 불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사찰의 사적비는 해당 사찰의 역사 뿐 아니라, 비가 세워진 무렵의 불교사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 삼막사 사적비

三幕寺 事蹟碑

조선시대(1707년)  
1기  
243×73×22.5cm  
석재(화강암)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78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삼막사  
관리자 : 삼막사

<삼막사 사적비>는 삼막사에 곡식佛糧을 시주한 시주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비로, 1707년(숙종33)에 건립되었다. 이 비는 소박하고 평범한 조선시대 석비 양식을 갖추고 있다. 장방형의 대좌는 윗부분을 모깍이 형식으로 다듬었고, 그 위에 비신을 끼웠다. 비신 위에는 팔작지붕의 형태의 지붕돌이 씌워져 있으며, 네 귀의 추녀 끝은 반전하여 위로 들려 있다.

지금까지 이 비를 소개한 각종 자료에서는 삼막사의 역사와 관련한 내용이 실려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이 비에는 삼막사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일부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도 있지만, 비의 앞부분에서 ‘불량을 시주한 사람들의 이름을 돌에 새긴다(佛糧施主之名 刊銘于石)’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이 비는 곡식을 시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일종의 불량비佛糧碑로 보아야 한다. 언제부터 이 비를 <삼막사 사적비>로 칭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삼막사의 역사는 설암雪庵이라는 승려가 건륭乾隆 신묘년(1771)에 작성한 「삼성산삼막사사적三聖山三幕寺事蹟」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조선불교통사』 상권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원효·의상·윤필 등의 성인과 관련된 창건연기, 이후 도선국사의 중창과 관음사라는 이름으로의 개칭, 지공·나옹·무학 등 삼화상의 주석, 그리고 조선 태조 때의 중창과 관련한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 사적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삼막사는 한양의 남쪽을 지키는 비보도량裨補道場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삼막사 사적비 전경, 2016. 경기도문화재연구원  
2. 삼막사 사적비, 2016. 경기도문화재연구원





## 나만갑선생 신도비

羅萬甲先生 神道碑

조선시대(1658년)  
1기  
355×104×29cm  
석재(대리석)  
구리시 사노동 산163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안정나씨 종중  
관리자 : 안정나씨 종중

<나만갑선생 신도비>는 조선시대 문신인 나만갑의 행적을 기록한 비이다. 나만갑羅萬甲(1592~1642)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정안定, 자는 몽뢰夢賚, 호는 구포鷗浦이며 나주 출신이다. 할아버지는 나운침羅允枕이고, 아버지는 세자시강원보덕 나급羅級, 어머니는 한성참군漢城參軍 김호선金好善의 딸이다. 정엽鄭曄의 문인이자 사위이다. 1613년(광해군5) 진사시에 수석으로 합격해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나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서궁유폐사건西宮幽閉事件이 일어나자 벼슬을 버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귀향했다. 1636년(인조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단신으로 남한산성에 들어가 왕을 모시고 공조참의·병조참지로서 관향사가 되어 군량 공급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강화 후 무고를 받아 영해로 귀양갔다가 1639년(인조17) 풀려나와 영천榮川(지금의 榮州)에서 여생을 보냈다. 저서로는 『병자록丙子錄』과 『구포집鷗浦集』이 있다. 비는 네모난 받침돌 위에 비신을 세우고 옥개석을 올렸다. 비문은 좌의정 김상헌이 글을 짓고, 송준길이 글씨를 썼으며, 비의 명칭은 김수항이 새겼다. 비문의 내용은 나만갑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그의 청년시절, 관직생활, 병자호란 당시 부인과 자손들에 대한 공적을 적었다. 1658년(효종9)에 세웠으며, 1683년(숙종9) 그의 둘째 손자 나양좌羅良佐가 지금 자리로 묘를 옮긴 사실 등을 첨가하여 새겼다.

1
2
3

4
---

1. 나만갑선생 묘역,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나만갑선생 신도비 전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나만갑선생 신도비,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4. 나만갑선생 신도비 탁본,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 한확선생 신도비

韓確先生 神道碑

조선시대(1495년)  
1기  
370×117×35cm  
석재(대리석)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551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청주한씨 종중  
관리자 : 청주한씨 종중



1. 한확선생 신도비 전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한확선생 신도비,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한확선생 신도비>는 조선시대 문신인 한확의 행적을 기록한 비이다. 한확韓確(1400~1456)은 세조 대의 문신이자 덕종德宗의 비妃인 소혜왕후昭惠王后的 아버지이며 성종成宗의 외할아버지이다.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자유子柔, 호는 간이재簡易齋이다. 누나와 누이 동생이 명나라 성조成祖와 선종宣宗의 후궁으로 책봉되어 명나라 관직인 광록시소경光祿寺少卿을 제수받았다. 명나라 황실과의 유대 관계가 깊어 여러 번 사신으로 파견되어 외교에 큰 공을 세웠다. 1455년(세조1) 좌의정이 되고 좌익공신佐翼功臣 1등에 올라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456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세조 즉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귀국하다가 요양遼陽의 사하포沙河鋪에서 사망하였다. 시호는 양절襄節이다.

한확의 묘역 아래에 방부이수方趺螭首양식을 갖춘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1494년(성종25)부터 1495년(연산군1)까지 왕명에 의해 건립이 추진되었다. 왕명에 따라 최고 솜씨의 장인들이 참여한 만큼 이수의 쌍룡쟁주雙龍爭珠 모습과 방부의 복련覆蓮 및 안상眼象문양이 매우 사실적이고 정교하여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신도비의 하나로 평가된다. 장방형의 대리석 하나를 다듬어 이수와 비신을 만들었고 비신을 꽃은 방부는 화강암으로 제작하였다. 방부 밑에는 2단의 기단基壇을 마련하였다. 한확의 생애를 기록한 비문은 왕명을 받들어 서천 어세겸西川魚世謙(1430~1500)이 짓고, 글씨는 성종과 사돈이자 송설체松雪體에 능했던 임사홍任士洪(1449~1506)이 왕명을 받들어 썼다. 그러나 글씨가 오랜 세월 비바람에 마모되어 육안으로 살펴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 신록사 극락보전

神勒寺 極樂寶殿

조선시대(1678년)

1동

3×2칸

목재

여주시 천송동 신록사길 73

지정일 : 1985.0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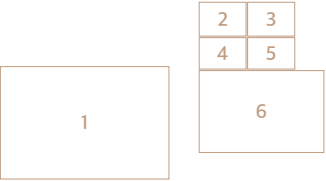
소유자 : 신록사

관리자 : 여주시

신록사는 여주시 한강변에 위치한 사찰로,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며, 고려 말 나옹선사 혜근懶翁禪師惠勤이 입적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이 입적하신 1376년(우왕2)에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졌다. 1382년에는 대장경의 일부를 봉안한 중층의 대장각이 건립되었으나, 현재로서는 그 위치와 모습은 알 수 없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 세종의 영릉이 여주로 이장되면서 영릉의 원찰로 지정되어 1472년(성종3)에 대대적인 중창이 있었고 임진왜란 이후 다시 한 번 대규모의 중창이 진행되면서 1678년(숙종4)에 극락보전이 중건되었다. 이후 1797년(정조21)부터 1800년(정조24)까지 다시 한번 중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극락보전은 평지에 장대석으로 3단의 기단을 쌓고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은 초석을 사용하여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건립되었다. 건물의 네면에 다포를 배치하였고, 팔작지붕을 올렸으며, 네 모서리의 추녀 밑을 활주로 받치고 있다. 건물의 규모는 작지만 공포는 내4출목 외3출목으로 크고 화려하게 구성하였고, 전면에는 연봉과 연꽃을 조각하여 화려함을 강조한 반면, 후면은 조각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창호는 정면과 양측면 협칸, 후면 중앙에 만살 분합문을 설치하였고, 벽체는 흙벽으로 미장마감을 하고 벽화를 그려 넣었다. 내부에는 우물마루를 설치하고 어칸 고주 앞쪽으로 불단을 구성하였다. 고주의 위치는 건물의 기둥위치와 다르게 뒤로 물러나 있는데 건축물 자체의 구조적인 이유로 설치되었다기보다는 불단의 후불벽 구성을 위하여 세운 것이다. 내부 천장은 모두 우물반자와 빗반자를 설치하여 화려하게 단청하였다.

신록사 극락보전은 규모는 작지만 공포를 높고 화려하게 사용하고 그에 따라 지붕도 크게 만들었으며, 내부는 서까래가 보이지 않도록 우물반자와 빗반자를 설치하는 등 상당히 높은 격식과 장엄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극락보전은 조선후기 왕실 원찰의 격식과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신록사 극락보전,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극락보전, 1910~1932. 국립중앙박물관
3. 극락보전, 1965. 여주시
4. 극락보전, 1984. 여주시
5. 극락보전, 1997. 여주시
6. 극락보전, 2006. 여주박물관





## 신창리 삼층석탑

新倉里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218cm  
석재(화강암)  
안성시 고삼면 신창리 293-6

지정일 : 1986.05.07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성시

<신창리 삼층석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고려시대 석탑으로, 봉국사지奉國寺址로 전하는 폐사지에 무너진 채로 있던 것을 1991년에 복원하였다. 현재 4매의 판석으로 조성된 하층기단의 각 면에는 양 우주와 한 주柱의 탱주가 모각되어 있다. 하층기단 갑석은 2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었는데, 상면에는 호각형 2단의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4매의 판석으로 조립된 상층기단의 각 면에는 면석에 비해 좁은 우주가 모각되어 있고, 탱주는 생략되었다. 상층기단 갑석은 1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면에는 호각형 2단의 탑신 괴임대를 각출하고 있다.

탑신석에는 면석에 비해 좁은 우주가 각출되었는데, 1층 탑신의 높이가 2층에 비해 월등히 높게 조성되어 통일신라시대 이래의 양식을 지니고 있다. 복원되기 전의 형상을 보면 1층 탑신에 원형의 사리공이 뚫려 있어 사리가 봉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옥개석의 하단에는 4단의 옥개받침이 정연히 조출되어 있고, 상면에는 2단의 탑신 괴임대가 마련되어 있다.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추녀는 전각에 이르러 살짝 반전되어 안정감을 주고 있다. 3층 옥개석의 상면에는 상륜부를 구성했던 원형의 찰주공이 마련되어 있다.

이 석탑은 비록 탑신부에서 부조화를 보이고 있지만, 기단부와 옥개석에서 신라석탑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양식을 볼 때 고려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 2

1. 신창리 삼층석탑 복원 전, 촬영일미상\_문화재청
2. 신창리 삼층석탑, 2017\_경기문화재연구원



## 오봉사지 부도

五奉寺址 浮屠

조선시대  
1기  
206×330cm  
석재(응회암)  
연천군 연천읍 교문리 산 78

지정일 : 1986.05.07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연천군

<오봉사지 부도>는 연천 오봉사五奉寺터의 대웅전이 있던 축대 서쪽에 남아 있는 석종형 부도이다. 『봉선본말사지奉先本末寺誌』 오봉사五峰寺조에는 1677년(숙종3) 정축丁丑·화주化主·경열敬悅이 중수했다고 한다. 오봉사는 1407년(태종7) 자복사資福寺로 지정된 전국 88개 사찰의 하나로 연천지역을 대표하는 유력사찰로 추정된다.

고려 말부터 유행한 석종형 부도는 팔각원당형 부도의 탑신부가 간략화되면서 등장했는데, 임진왜란 이후 사승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런 양식의 부도가 일반화되었다. 오봉사지 부도의 석제는 응회암으로, 표면의 풍화가 심하고 포탄흔이 있다. 자연석을 거칠게 치석한 지대석 상면에는 1단의 받침을 조출하고 탑신을 올렸다. 탑신은 하나의 석재로 만들었는데 상부에 굽은 선으로 돌대, 그 위로 보주를 표현하였다. 돌대 아래 탑신에는 단엽 12판의 복련覆蓮을 가는 선각으로 표현하였다. 정상부 보주에도 단엽 6판의 앙련仰蓮을 선각으로 표현하였다. 석종형 부도 상부에 연판을 표현한 사례는 드문 편인데, 연판의 표현기법과 형식은 18세기 말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석종형 탑신 표면에는 일반적으로 승려의 법명을 음각하는데, 오봉사지 부도에는 별도의 명문이 없다.

부도 주변에는 비신을 망실한 비좌가 남아있는데, 방형의 비신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지면 아래 매몰되어 세부형식을 확인할 수 없다. 1982년 건립된 사적비에 ‘전불등탁적산문오봉대선사지비傳佛燈托蹟山門五峰大禪師之碑’라는 명문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오봉대선사의 부도로 추정되지만, 단순히 오봉사의 중창주를 지칭하는 것인지 실존 인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건립시기는 석종의 형식 등을 고려했을 때 조선 말로 추정된다.

오봉사지 부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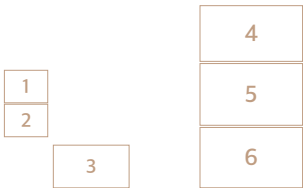


## 삼봉집 목판

三峰集 木版

조선시대(1791년)  
14권 228판  
21×56×3.6cm 내외  
목재(배나무)  
평택시 진위면 은산길 80-15

지정일 : 1986.05.07  
소유자 : 봉화정씨 증중  
관리자 : 봉화정씨 문헌공파 종회



1. 삼봉집 목판 보관실,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삼봉집 목판,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삼봉집 목판 서문 1,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삼봉집 목판 권6 경제문감下 1,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삼봉집 목판 권7 조선경국전上1,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6. 삼봉집 목판 권9 불씨잡변1,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삼봉집 목판>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며 개국공신인 삼봉 정도전鄭道傳(1342~1398)의 문집 『삼봉집』을 간행하기 위해 1791년(정조15)에 경상감사 정대용鄭大容(1749~1805)이 경상감영에서 만든 책판이다.

본래 『삼봉집』은 14권, 228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복본 제작으로 인해 현재 평택 삼봉기념관에 266판, 경기도박물관에 2판이 소장되어 있다. 이 책판은 대구 용연사龍淵寺에 보관되다가 정도전의 18대 손 정종인鄭鍾實이 평택으로 옮겨온 것이다. 대구 용연사의 판고가 거의 무너지자 묘정廟庭으로 이운移運의 허락을 받아 옮긴 것이다.

『삼봉집』은 1397년(태조6) 8월 정도전의 아들 정진鄭津(1361~1427)이 부친의 시문詩文을 모아 2권으로 처음 간행하였다. 이후 1465년(세조11)에 정도전의 증손 정문형鄭文炯(1427~1501)이 경상도 안동 부에서 6권 6책으로 중간하였고, 다시 1486년(성종17)에 강원도에서 8권 8책으로 증보하였다. 그 후 300여 년이 지난 1791년(정조15) 정조의 명에 따라 이전 『삼봉집』 간본에 누락된 자료를 모아 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을 거쳐 14권 7책으로 간행하였다. 이 때 보완된 자료는 진법陳法, 정도전의 생애와 경력에 관한 사실事實, 정도전에 대한 후세 사람들의 평을 적은 것 등이다. 본 책판의 내용을 통해 보면 제작 시기는 정조 대에 새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삼봉집』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권1~2는 시詩·부賦·악장樂章 등이 수록되어 있고, 권3~4는 소疏·전箋·계啓·서序·기記·설說 등이 실려 있다. 권5~6은 「경제문감經濟文鑑」, 권7~8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권9~10에는 「불씨잡변佛氏雜辨」, 「심기리편心氣理篇」, 「심문心問」 「천답天答」 등이 실려 있고, 권11~12에는 고려 역대왕의 치적을 실은 「경제문감별집經濟文鑑別集」이 수록되어 있다. 권13에는 「진법陳法」과 「습유拾遺」가 실려있고, 권14에는 부록으로 「제현서술諸賢敍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삼봉집』 책판은 글자 새김이 정교하여 인쇄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초기 간본과의 비교도 가능하다. 인쇄본의 원형을 알 수 있는 목판자료이고 삼봉 정도전의 정치·경제·철학 사상이 총망라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더욱 높다.





## 월사집 목판

月沙集 木板

조선시대(원집 1688년, 별집 1720년)  
939판  
책판 28×53×3cm  
나무  
가평군 상면 태봉리 산115-1

지정일 : 1988.03.22  
소유자 : 연안이씨 월사공파 중증  
관리자 : 연안이씨 월사공파 중증



		4
1		5
2		6
	3	

1. 장판각 내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월사집 목판,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월사집 목판 권12-1,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월사집 목판 권22-1,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5. 월사집 목판 권46-1,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6. 월사집 목판 권58-1,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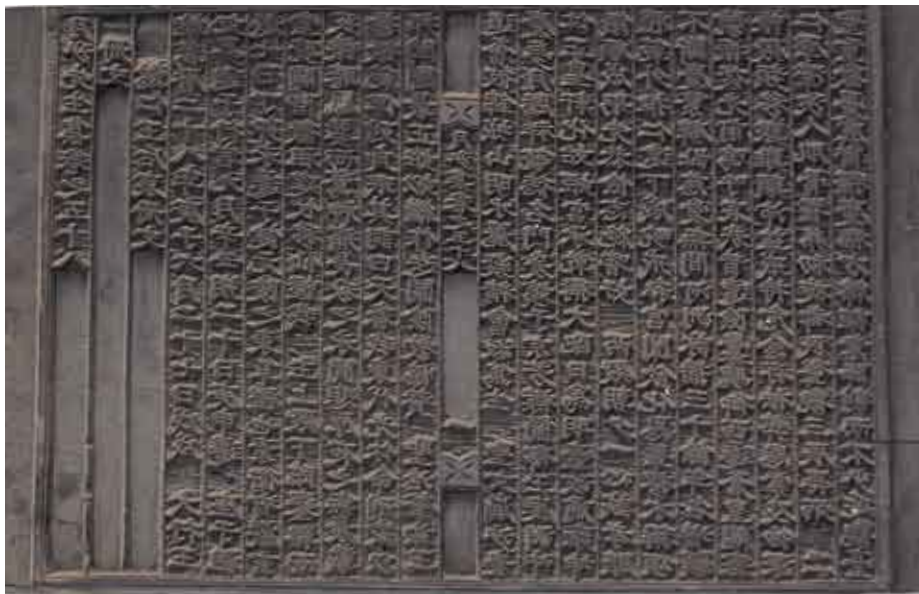
<월사집 목판>은 조선중기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의 한 사람인 월사 이정구李廷龜(1564~1635)의 문집 『월사집 月沙集』을 간행하기 위해 만든 책판이다. 현재 가평군 상면 태봉리에 있는 장판각藏板閣에 소장되어 있다.

『월사집』 책판은 원집原集 799판, 별집別集 79판, 연보 61판 총 939판으로 구성되어있다. 책판의 양 끝에 나무를 끼워 평평하게 하였다. 책판의 광곽은 사주단변四周單邊, 반엽半葉 10행行 10자字이다.

『월사집』은 최유해崔有海(1588~1641)에 의하여 1636년(인조14) 공주에서 처음 간행되었으나 병자호란을 겪으며 소실되었다. 이후 1688년(숙종14) 이정구의 손자 이익상李翊相(1625~1691)이 경상감영에서 원집과 부록을 간행하였고, 1720년에는 증손 이희조李禧朝(1655~1724)가 별집을 간행하였다. 연보 책판은 1930년에 새겨졌다. 월사집 책판은 원래 대구 용연사龍淵寺에 보관되었다가, 1928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로 옮겨오면서 소실되었던 300여 판을 다시 새겼다.

『월사집』은 원집 63권, 부록 5권, 별집 7권으로 총 75권의 방대한 분량이다. 그 중 시집은 18권이며 약 1800여 수의 작품이 실려 있고, 사행을 하며 지은 기행시·주奏·자참·책문冊文·서序·신도비명·묘갈명·행장 등이 실려 있다.

월사 이정구는 어려서부터 문장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정통적인 사대부문학의 모범을 보인 대가였다. 『월사집』은 시·상소문·외교문서·신도비명 등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총집으로 월사의 문학관뿐만 아니라 조선중기의 정치·외교 등 사회 전반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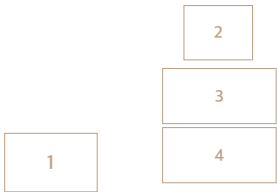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34호

연행일록부·연행별장 외  
명현간찰

燕行日錄附·燕行別章 外 名賢簡札

조선시대(1719년)  
1책 64장  
1책 15장  
1책 35장  
연행일록 26.7×18.8cm  
연행별장 47.5×51.5cm  
명현간찰 40×33.4cm  
종이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1988.12.02  
소유자 : 경기도박물관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1. 연행일록부·연행별장 표지, 2010. 경기도박물관
2. 연행일록부 내지, 2008. 경기도박물관
3. 연행별장 내지, 2010. 경기도박물관
4. 명현간찰 내지, 2010. 경기도박물관



『연행일록』은 조선 숙종 대의 문신인 조영복趙榮福(1672~1728)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쓴 친필 일기이고, 『연행별장』은 출국하기 전에 동료 및 지인들이 지어 준 송별시를 엮은 책며, 『명현간찰』은 평생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것이다. 조영복의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석오錫五, 호는 이지당二知堂이다. 1705년(숙종31) 사마시에 합격한 뒤 관직에 진출하였고, 1714년 증광문과에 급제한 뒤 지평과 헌납 등을 거쳐 1719년(숙종45) 승지가 되었으며,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27년 개성유수에 재직 시 정미환국丁未換局이 일어나자 왕에게 극언하다가 파직당하고 낙향하였다. 이듬해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한성부우윤이 되었다가 난이 평정된 뒤 사직하였다.

『연행일록』은 조영복이 동지부사가 되어 1719년 11월 4일부터 다음해 3월 26일까지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쓴 친필 일기체 여행기로 1책 64장으로 편집되어있다. 사신들의 필요한 몸가짐과 절차 그리고 청나라와의 외교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연행 도중의 노정路程에서 일어난 일들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인정人情과 풍속 등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연행별장』은 조영복이 청나라에 가게 되자 동료와 지인들이 석별의 정을 담아 써준 송별시를 모아 엮은 것으로, 1책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기는 1719년 10월말부터 11월 초순이며 참여자는 몽와 김창집夢窩金昌集(1648~1722)을 비롯하여 소재 이이명疎齋李頤命(1658~1722), 장암 정호丈巖鄭濤(1648~1736), 지재 민진후趾齋閔鎭厚(1659~1720) 등 당대의 노론 명사들이다. 겹표지의 표제가 ‘燕行別章乾(연행별장 건)’이라 쓰여 있어 원래는 건乾과 곤坤으로 구성된 2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명현간찰』은 조영복이 노론 사대신四大臣으로 불리는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李健命(1663~1722), 조태채趙泰采(1660~1722) 등과 주고받은 편지 등을 모은 서첩으로 1책 35장으로 구성되었다. 주로 1717년(숙종43)과 1718년(숙종44)에 쓰여진 편지들이다. 조영복의 정치 활동과 교유 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편지 쓴 인물들의 필적筆跡도 감상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 청계사 소장 목판

淸溪寺 所藏 木板

조선시대(1485~1902년)  
14종 464판  
묘법연화경 18.9×29.7cm  
고봉화상선요 19.2×44×1.8cm  
대장경목록 23.3×61×1.5cm  
계초심학인문 17.7×64.3×2~5cm  
법계성범수륙승회수제의괘 26×36.8×3.7cm  
수구대명왕대다라니 33×57×2.2cm  
목재  
의왕시 청계로 475

지정일 : 1988.12.02  
소유자 : 청계사  
관리자 : 청계사



<청계사 소장 목판>은 의왕시 청계사淸溪寺에 소장되어 있는 총 14종 464판의 목판을 말한다. 1622년(광해군14)에 판각한 『묘법연화경姓法蓮華經』부터 1902년(고종39)에 판각한 『수구대명왕대다라니隨求大明王陀羅尼』까지 모두 청계사에서 판각하였다.

청계사 소장 목판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책판은 1622년(광해군14) 3월에 개판開板한 『묘법연화경』으로, 총 211판이다. 사주단변四周單邊에 10행 20자이며 판심에 어미魚尾는 없다. 크기가 가장 큰 것은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자경서自警序·몽산화상법어약목蒙山和尚法語略錄』 책판으로, 4편의 저술을 합본으로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구성은 주로 불교 문헌과 관련한 경판이지만, 『천자문千字文』 같은 교재용 책판도 포함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22년(광해군14)에 판각한 『묘법연화경』, 1623년(인조1)에 판각한 『고봉화상선요高峯和尚禪要』가 있다. 『계초심학인문·발심수행장·자경서·몽산화상법어약목』,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제의괘法界聖凡水陸勝會修齊儀軌』,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 『예수시왕생칠경豫修十王生七經』, 『오대진언五大眞言』은 제작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에 판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1831년(순조31)에 새긴 『천지팔양신주경판天地八陽神呪經板』, 1834년(순조34)에 제작된 『대장경목록大藏經目錄』, 1902년에 판각한 『수구대명왕대다라니』가 있으며, 『천자문』과 부적판도 포함되어 있다.

17~20세기 초에 이르는 오랜 시기 동안 판각된 다양한 종류의 목판을 통해 당시 청계사의 역할과 성격을 살펴볼 수 있으며, 불교문화와 조선후기 사찰 인쇄문화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1. 청계사 소장목판,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묘법연화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묘법연화경 탁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선원제전집도서 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5. 오대진언(17),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6. 천자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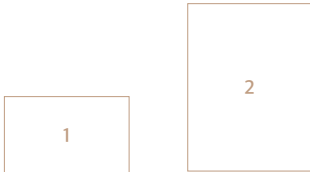


## 서거정선생 묘지석

徐居正先生 墓誌石

조선시대(1488년)  
19판  
대형 20×31×2.5cm  
소형 17.5×28×2.5cm  
도자기(백자)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1989.06.01  
소유자 : 경기도박물관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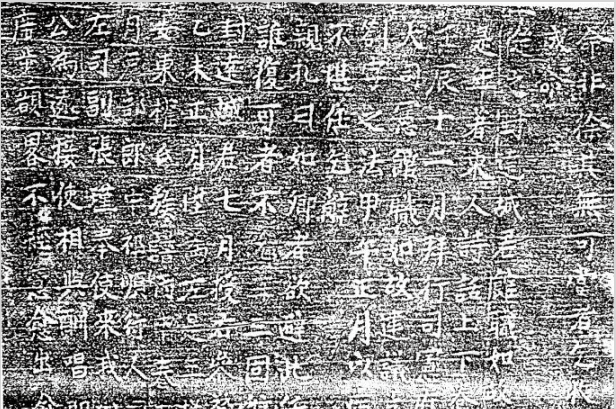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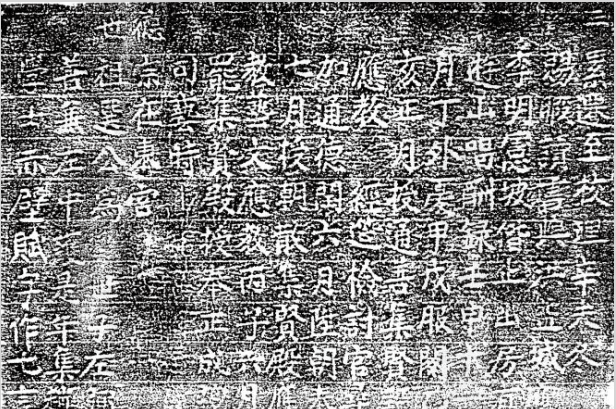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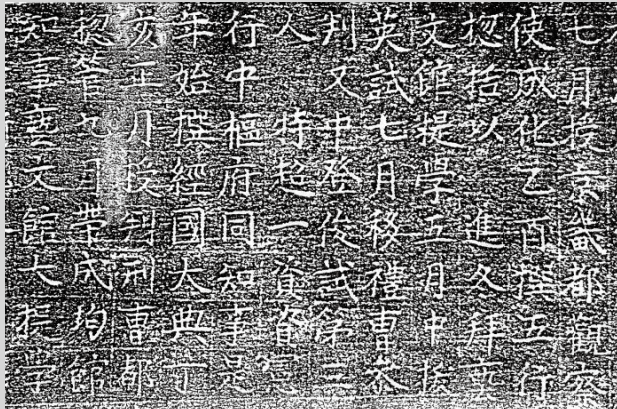


1. 서거정선생 묘지석 일괄, 2015. 경기도박물관  
2. 서거정선생 묘지석 탁본, 촬영임미상. 경기도



<서거정선생 묘지석>은 조선전기의 대학자 서거정徐居正(1420~1488)의 묘에서 출토된 묘지석이다. 서거정은 조선시대 통치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편찬된 『경국대전經國大典』,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등의 편찬사업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향약집성郷藥集成』을 국역하는 등 천문, 지리, 의학, 풍수에 이르기까지 박학하여 문장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특히 시에 능하여 시문의 백미를 모은 『동인시화東人詩話』와 『동문선東文選』을 엮고,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문인들의 우수한 시문을 골라 한문학을 집대성하기도 하였다.

서거정선생 묘지석은 서울시 강동구 방이동의 서거정 묘역이 도시계획으로 1975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로 이장되는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이후 문중의 재실齋室에 소장되다가 현재는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묘지석은 백자이며, 형태는 장방형의 판형이고,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모두 19매가 보존되고 있는데, 지석의 우측면 상단에 번호를 부여해 전체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매의 지석번호 중 16·17·19가 멸실된 것으로 보아 본래 총 22매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1장의 묘지석만 청화靑畵로 쓰였으며, 나머지는 백자에 10행 16자로 정사각형의 칸을 긋고 그 안에 음각으로 글자를 새겨 넣었다. 지석문誌石文은 서거정과 함께 『신편동국통감新編東國通鑑』을 편찬한 이숙함李淑瑱이 지었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37호

# 팽성읍 객사

彭城邑 客舍

조선시대  
일곽  
정청 3×2칸  
동·서익헌 3×2칸  
문간채 10칸  
목재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101-3

지정일 : 1989.06.01  
소유자 : 평택시(방호대)  
관리자 : 평택시

<팽성읍 객사>는 부용산 남쪽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팽성현彭城縣의 객사이다. 1488년(성종19) 현감 송윤경宋胤卿이 중건하고, 1662년(현종3) 현감 심익선沈益善이 규모를 넓혀 정청正廳과 동·서익헌을 다시 중건하였으며, 또 다시 무너지고 훼손된 것을 1700년(숙종26) 현감 이순영李舜英이 부임한 후 중수했다고 한다. 지붕에 명문銘文 기와가 남아있어 1801년(순조1)에도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양조장과 주택으로도 사용되었는데, 1994년 해체수리하여 옛 모습을 되찾았다.

팽성읍 객사는 정청 및 동·서익헌의 一자형 본채와 ㄱ자형의 문간채가 중정中庭을 중심으로 튼ㄷ자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정청은 정면 3칸의 익공계翼工系 맞배집으로 전면에 개방된 퇴칸이 있다. 내부 바닥에는 전돌을 깔았는데 복원 시 정청 기둥에 마루를 설치했던 흔적이 없었던 점에 따른 것이다. 동·서익헌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민도리집인데 정청 쪽에는 툇마루가 달린 1칸 반 온돌방이 있고 그 옆에는 대청이 있다. 문간채는 10칸 규모의 민도리집으로 지붕 용마루 양 끝에 용두龍頭를 놓은 솟을대문, 그 좌우에 온돌방과 부엌이 있다. 팽성읍 객사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객사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2
3	5
4	6

1. 정청, 동·서익헌 정면,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정청, 동·서익헌 후면,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팽성읍 객사 전경, 촬영일미상. 문화재청
4. 정청, 촬영일미상. 문화재청
5. 문간채 정면,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6. 문간채 후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연천군 심원사지 부도군

漣川郡 深源寺址 浮屠群

조선시대  
부도 12기, 비석 3기  
제월당대사비 278×164×90cm  
취운당대사비 192×70×24cm  
풍담당부도 높이 213cm  
청하당부도 높이 178cm  
호연당부도 높이 130cm  
청심당부도 높이 153cm  
연월당부도 135×315cm  
석재(화강암)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342-1

지정일 : 1991.04.12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연천군

심원사는 유점사楡岾寺 말사로 석대암石臺庵·성주암聖住庵·지장암地藏庵·남암南庵 등 4개 암자를 관할했던 대찰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범우고梵宇攷』 등에 보개산寶蓋山에 있으며 홍림사興林寺라고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유점사본말사지楡岾寺本末寺誌』에는 647년(신라 진덕여왕1) 영원조사靈源祖師가 홍림사로 개창 후, 859년(헌안왕3) 범일국사梵日國師가 중창하였고 1393년(태조2) 화재로 손실된 것을 1396년(태조5) 무학대사가 삼창하면서 심원사로 명명한 후 1595년(선조28) 승려 인송印崇과 정인正印이 중건하였다. 1907년(순조1) 250여 칸의 건물과 1,620위의 불상이 화재로 소실되어 1910년 일부 복구하였고, 1931년 중수했다.

<연천군 심원사지 부도군>은 현존하는 2기의 탑비塔碑와 부도 12기로 구성되어 있다. 현 위치 동쪽 구릉에 있던 것을 1925년 옮겨 왔는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파손, 반출되면서 원형을 상실하였다.

심원사 부도군은 제월당霽月堂·취운당翠雲堂·풍담당楓潭堂·호연당浩然堂·청하당靑霞堂·청심당淸心堂 등 당대 명승들의 부도를 모아둔 것이다. 부도의 형태는 팔각원당형과 석종형이 혼재해 있는데, 팔각원당형은 옥개석 폭이 좁고 낙수면이 급경사를 이루는 등 시대적인 변화가 뚜렷하다. 기단은 대좌형식을 유지하면서 상하대석에 연판을 조식하고 중대에는 기둥을 모각해 공간을 구획하는 전통양식을 고수하고 있다. 석종형 부도는 단층기단 위에 탑신을 세우는 등 단순한 형식으로, 임진왜란 이후 양식을 보여준다.

제월당 경헌敬軒(1542~1632)의 탑비는 측면 안상문과 상부 인동문양을 표현한 기단 위에 생동감 넘치는 운룡문이 조각된 사각형 이수를 갖추었다. 1636년(인조14) 신익성이 비문을 짓고 이광이 글씨와 전액을 썼다. 취운당대사비는 1652년(효종3) 윤두경이 비문을 지었는데 자연석을 비좌로 삼았다.

					3
1	2	4	5	6	7
		8	9	10	11

- 제월당대사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취운당대사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부도군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풍담당 부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청하당 부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호연당 부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불명부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불명부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연월당 부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청심당 부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불명부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여산송씨 족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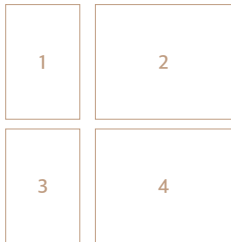
礪山宋氏 族譜

조선시대  
2책(상·하)  
25.5×35cm  
종이(닥종이)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028

지정일: 1991.04.12  
소유자: 여산송씨 중회  
관리자: 여산송씨 중회

<여산송씨 족보>는 1653년(효종4) 송희업宋熙業이 간행한 상·하 2책으로 구성된 족보이다. 『여산송씨 족보』는 1606년(선조39)에 송언신宋言愼이 처음으로 편찬하여 1610년(광해군2)에 송일宋駟이 청주에서 1책으로 간행하였고, 그 뒤에 이를 송희업이 보완하여 상하 2책 226장으로 편찬하고 1653년(효종4)에 간행하였다. 간행 당시 여산의 월봉사에 일부를 내려 보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때 간행된 족보가 더 있을 가능성이 많다.

현전하는 족보 중 17세기 이전 족보가 별로 없는 상태라는 것을 고려하면 1600년대에 간행된 이 족보는 희귀본으로서 귀중한 자료이다. 시조 송유익宋惟翊 이하 19세까지 기록하고 있고, 본편 외에 추록 2권이 추가되어있다. 기재방식을 보면 적서嫡庶는 구분하였으나 남녀는 구분하지 않았다. 딸의 후손처럼 다른 성씨의 경우에는 4대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14세까지는 양자를 입양한 사실이 거의 보이지 않고 14세 이후에야 양자 입양이 기록되고 있다. 기재 양식의 이러한 특징은 당시 여산송씨 문중의 가족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출생 순서에 의한 기록은 조선초기 족보에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17세기 중엽까지도 장자 상속제도가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딸의 후손을 4대까지 기록하는 것 역시 18세기 이후의 족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남녀 차별이 덜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족보를 통해 17세기 이후에야 양자 제도가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1. 여산송씨 족보 상권 표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여산송씨 족보 상권 내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여산송씨 족보 하권 표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여산송씨 족보 하권 표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장만선생 영정 및 공신록권

張晩先生 影幀 및 功臣錄券

조선시대(1625년)  
3점(영정 2, 례권 1)  
관복본 240×113cm  
유복본 253×113cm  
공신록권 198×375cm  
비단, 종이  
영정 :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공신록권 : 김포시 소재(추정)

지정일 : 1991.10.19  
소유자 : 인동장씨 태상경공파 충정공 종친회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장만선생 영정 및 공신록권>은 장만張晩(1566~1629)이 1624년 (인조2)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진무공신振武功臣 1등에 녹훈되어 옥성부원군玉城府院君에 봉해질 때 그려진 것이다. 장만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호고好古, 호는 낙서洛西이다. 이조판서를 지낸 장철견張哲堅의 증손이며, 1591년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전라도와 함경도의 관찰사, 형조판서 등의 벼슬을 지냈다. 초상화는 2점이며, 관복본官服本과 유복본儒服本 각 1점이 전한다.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은 장만의 관복본 초상은 진무공신에 녹훈될 때 충훈부에서 그려준 공신도상으로 추정되며 오른쪽 상단에 ‘玉城府院君 贈諡忠定張公晩畫像’이라는 글씨는 사후 ‘충정忠定’의 시호를 받은 뒤에 써넣은 것이다. 장만의 행장에는 이괄의 난 때 병든 몸을 수레에 싣고 야전에서 지내다 한쪽 눈을 잃었다고 한다. 왼쪽 눈에 안대를 댄 모습으로 그려진 이유이다. 수두 자국이 두드러진 얼굴의 눈동자는 정면, 코는 측면, 입은 좌우대칭이다. 17세기 공신도상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흉배에는 쌍공작과 모란문이 곁들여져 있고, 1품이 매는 서대犀帶를 착용했다. 유복본 초상은 당건唐巾에 심의를 입고 의자에 앉은 전신좌상이며, 한 손은 무릎 위에 놓고 다른 한 손엔 부채를 들었다. 이 초상처럼 심의深衣를 입고 지물持物을 든 모습은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형식이다. 유복본은 안대를 하지 않아 관복본 보다 앞서 그려졌을 수 있지만, 그림의 크기와 화법이 유사하여 공신도상을 그릴 때 함께 그린 것으로 추측된다. 장만은 조선중기의 문무文武를 겸비한 인물로 국방과 정권 수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관복본은 그의 충직하고 엄정한 관료적인 삶의 모습을, 유복본은 관직을 떠나 재야에 머물기를 바라는 은사隱士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장만이 받은 진무공신교서振武功臣敎書는 장만을 진무공신 1등에 봉한다는 내용이며, 1625년에 내려졌다. 여기에는 모두 32명의 공신이 기록되었는데, 1등에 장만 등 3인, 2등에 이수일 등 9인, 3등에 남이웅 등 20인을 녹훈하였다.



1. 장만선생 공신록권, 촬영일미상. 문화재청
2. 장만선생 추모제, 2015. 김포시
3. 장만선생 영정(관복본), 2013. 경기도박물관
4. 장만선생 영정(유복본), 2013. 경기도박물관





# 고양 흥국사 극락구품도

高陽 興國寺 極樂九品圖

조선시대  
1폭  
146×205cm  
비단  
고양시 덕양구 흥국사길 82

지정일 : 1991.10.19  
소유자 : 흥국사  
관리자 : 흥국사

<고양 흥국사 극락구품도>는 고양 노고산老姑山 흥국사 미타전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전체를 가로, 세로로 9등분하여 극락정토의 아미타 회상 장면과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극락왕생 장면을 묘사한 불화이다. 극락구품도는 관경변상도觀經變相圖에서 파생된 불화로 외로운 영혼이 아미타부처가 살고 있는 극락에 환생하는 방법을 언급한 경전인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을 그림으로 표현한 불화이다.

이 불화는 수평과 수직으로 각각 3등분하여 상품상생上品上生에서 하품하생下品下生에 이르는 9품을 그렸다. 맨 위단 상품삼생上品三生の 중앙에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성증들을 그린 아미타극락회상도阿彌陀極樂會上圖가 주축을 이룬다. 그 왼쪽에는 상품하생과 오른쪽에는 상품하생의 극락정토를 그렸다. 중단의 중품삼생中品三生 중앙에는 ‘수마제須摩提’라 적힌 현판의 전각이 있다는 중품상생을, 그 좌우에는 연지蓮池에서 왕생하는 동자童子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왼쪽의 중품중생은 연화화생蓮華化生한 왕생자往生者들에게 아미타부처가 모습을 나타내고, 오른쪽의 중품하생은 관음·대세지보살이 왕생자에게 빛을 비추는 모습을 그렸다. 맨 아랫단에는 하품삼생을 설명하고 있는데 중앙의 하품상생은 속인俗人의 왕생을 묘사하고, 왼쪽의 하품중생은 상체가 연못에서 빠져 나오는 왕생자의 모습이고, 오른쪽의 하품하생은 근기根機가 알아 봉우리만 맺은 연꽃들로 채워져 있다.

색채는 황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붉은색과 청색을 보조색으로 하여 화면 전체가 부드러우며, 세필로 섬세하게 그렸다. 이 불화는 화기畵記가 없어 조성시기나 불화를 그린 화승畵僧은 알 수 없으나, 흥천사 극락구품도(1885), 봉원사 극락구품도(1905), 수국사 극락구품도(1907)와 화면구성·내용전개·색채사용 등에서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19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 ① 상품하생
- ② 아미타극락회상도
- ③ 상품중생
- ④ 중품하생
- ⑤ 중품상생
- ⑥ 중품중생
- ⑦ 하품하생
- ⑧ 하품상생
- ⑨ 하품중생



고양 흥국사 극락구품도, 촬영일미상. 성보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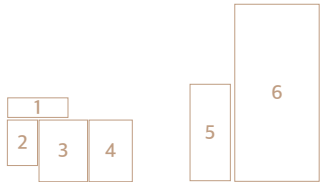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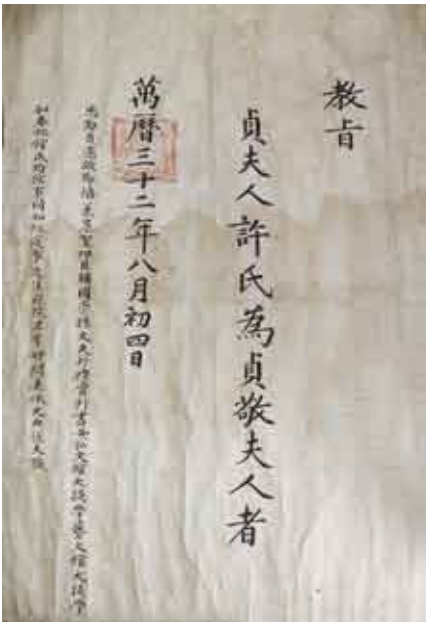
## 이호민 영정 외 일괄유물

李好閔 影幀 外 一括遺物

조선시대  
6점  
영정 163.5×91cm  
영정함 14×121×17cm  
교지함 9×48.5×11cm  
비단, 목재(배나무)  
서울시 종랑구 중화동 179-12

지정일 : 1992.12.31  
소유자 : 연안이씨 부사공파 종중  
관리자 : 연안이씨 부사공파 종중

이호민李好閔(1553~1634)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효언孝彦, 호는 오봉五峯·남곽南郭·수와睡窩이다. 임진왜란 당시 왕을 호종扈從한 공으로 1604년에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연릉군延陵君에 봉해졌다. 그 뒤에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가 됐으며 부원군府院君에 진봉됐다. 교서와 시 등 문장을 쓰는 것에 매우 뛰어났다고 알려졌으며,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이호민 영정 외 일괄유물>은 공신책록 당시 제작된 초상과 초상함, 교지와 교지함, 시호가 적힌 족자 등이 함께 보존되어 사료가치가 매우 높다. 초상은 화면이 6면으로 깎인 흔적이 있고, 일부 손상된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작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초상화는 사모를 쓰고 단령을 입고, 채전 위 교의에 앉은 7분면상의 모습으로 17세기 공신초상의 전형을 보여준다. 한 쌍의 공작이 그려진 흉배와 서대로 1품에 해당하는 직위를 알아볼 수 있다. 안면은 가는 필선으로 얼굴의 구획과 주름을 묘사하였고, 열은 채색으로 입체감을 더하였다. 수염은 섬세하게 묘사되었으며 드문드문 보이는 흰 수염을 통해 50대 초반 이호민의 모습을 잘 살리고 있다. 교지는 총 3건으로 1604년(선조37) 호성공신扈聖功臣 책봉 당시 함께 받은 것으로 보이는 윤尹부인과 허許부인에 대한 2건과 이호민 사후 1635년(인조13)에 수여된 시호에 대한 교지 1건이다. 시호족자 역시 이때 함께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초상함과 교지함은 배나무에 두껍게 옷칠이 되어 있으며, 여의두 모양의 경첩과 국화문 장식으로 꾸며졌다. 이호민 초상과 교지를 비롯한 일괄 유물은 조선시대 공신 문화에서 목가구까지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1. 교지함,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오봉집 권5,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시호에 대한 교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허부인 교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5. 시호 족자,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6. 이호민 공신 초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1. 경수연도,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인물배치내용,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45호

## 여주군 경수연도

驪州郡 慶壽宴圖

조선시대(1691년)  
1축  
서폭 55×620cm  
경수연도 55×154cm  
찬문 53×38cm 내외  
종이  
여주시 강천면 운무실길 21

지정일 : 1992.12.31  
소유자 : 이성욱  
관리자 : 이성욱

충효가 국가운영의 기초였던 조선시대에는 부모의 장수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연회를 연 뒤, 이를 그림으로 남기고 당대 명유들의 시문을 받아 장첩하는 전통이 일찍부터 형성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인 1601년(선조34)에 신중엄申仲淹(1522~1604)의 80세를 축하하기 위해 6차례 경수연을 열고 『경수연첩慶壽宴帖』을 제작했던 것은 사적인 행사였지만 이후 국가가 쌀과 비단 등을 내려주는 사연 성격의 경수연 정착과 유행에 영향을 주었다.

<여주군 경수연도>는 1605년에 선조의 명령으로 거행되었던 칠태부인경수연七太夫人慶壽宴의 전례에 따라 1691년(숙종17)에 숙종이 신하들 중 70세 이상 모친을 모신 7명의 대부인大夫人·자손부子孫婦·재신宰臣·사대부를 초청하여 연회를 열고 이를 기념한 그림이다. 이 작품은 조선초·중기 계축契軸과 조선후기의 계첩契帖 양식과 달리 횡권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대부인들과 며느리들의 좌석 배치도, 연회장면, 권해權諧(1639~1704)의 찬문과 그림의 내력을 알려주는 발문 등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현재는 그림과 글씨부분이 분리되어 따로 개장된 상태이다.

연회장면들은 맨 오른쪽 크고 위풍당당한 소나무부터 시작되어 단풍나무와 오동나무 등의 활엽수나무들을 기준으로 나뉘어있다. 첫 번째 건물에는 산수도병풍을 배경으로 주인공인 대부인과 며느리들이 앉아있으나 모습들은 그려지지 않고 소반과 방석만으로 표시되었다. 이곳에는 노모의 만수무강을 기뻐하거나 춤사위를 올리는 자손들이 묘사되었다. 두 번째 건물에는 사모와 단령 차림의 정좌한 대신들이 각자의 소반을 받고 있으며, 세 번째 실외의 차일遮日 아래에는 흑립에 두루마기를 갖춘 사대부들이 연회 장면을 즐기고 있다. 숙종이 하사한 악공들은 건물 사이와 두 번째 건물 앞에서 연주하며 연회의 흥을 돋우고 있다.

정면부 감시로 포착한 건물과 연회장면들은 화면을 수평과 수직선들로 구획해 질서정연하고 안정감을 준다. 필선 위주의 인물 표현에서 의습선은 다소 형식적이나 얼굴은 비교적 상세하고 자세들은 다양하고 자연스럽다. 화면은 청과 홍색을 입은 여인과 붉은 색의 소반, 청록색의 지붕과 소나무, 흰색의 차양 등으로 산뜻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준다. 이 작품은 연회가 열렸던 1691년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며, 권해의 찬문 등을 써넣은 소망小望의 기록에 의해 1711년에 장황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 경수연의 개최와 경수연도 제작에 있어서 국가의 후원과 제작과정, 장황상태 등을 알려줄 뿐 아니라 숙종시대 화풍을 잘 보여주는 기록화로서 자료적·회화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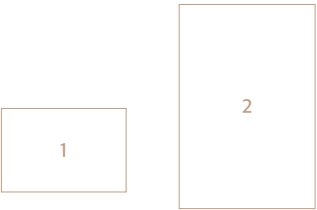


# 심연원 신도비

沈連源 神道碑

조선시대(1560년)  
1기  
개석 110×125×45cm  
비신 217×120×36cm  
석재(화강암, 대리석)  
김포시 통진읍 웅정리 58-12

지정일 : 1992.12.31  
소유자 : 청송심씨 대종회  
관리자 : 청송심씨 대종회



1. 심연원 신도비 전경, 2015\_ 김포시  
2. 심연원 신도비, 2015\_ 김포시



<심연원 신도비>는 조선전기의 문신인 심연원을 기리기 위해 1560년(명종15)에 건립한 비이다. 심연원沈連源(1491~1558)의 본관 청송青松, 자는 맹용孟容, 호는 보암保庵이다. 1516년(중종11) 생원이 되고, 1526년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하였다. 1539년 예조참판으로 진향사進香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을사사화乙巳土禍가 일어나 위사공신衛社功臣 2등에 녹훈되고 청천군靑川君에 봉해졌다. 1551년 영의정에 올랐으며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에 진봉되었다. 중국과 조선의 지리에 밝았으며 탐라목사에 재직 시 탐라의 지도를 제작하였다. 1555년 왜구가 침입했을 때 이 지도를 활용하여 왜구를 물리쳤으므로 백성들이 심연원의 선견지명에 감복했다고 전한다. 명종의 묘정廟廷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충혜忠惠이다.

심연원 신도비는 묘역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귀부이수龜趺螭首 양식을 갖추고 있다. 귀부의 귀갑龜甲과 그 위에 얹은 연잎모양의 복련覆蓮은 양감이 있게 조각한 반면, 귀두龜頭는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이수는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하였다. 비문은 판중추부사 호음 정사룡湖陰鄭士龍(1491~1570)이 짓고, 당대의 명필로 송설체松雪體에 능하였던 여성위 송인礪城尉宋寅(1517~1584)이 썼으며, ‘충혜공신도비명忠惠公神道碑銘’이라는 전액篆額은 심연원의 조카인 심전沈鉉(1496~1589)이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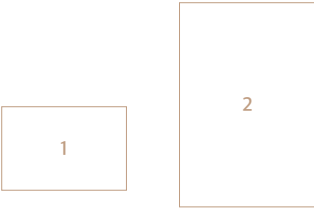


# 심강 신도비

沈綱 神道碑

조선시대(1596년)  
1기  
개석 70×115×30cm  
비신 170×90×32cm  
비좌 폭 210cm  
석재(화강암, 대리석)  
김포시 통진읍 웅정리 58-12

지정일 : 1992.12.31  
소유자 : 청송심씨 대종회  
관리자 : 청송심씨 대종회



1 심강 신도비 전경, 2015. 김포시  
2 심강 신도비, 2015. 김포시



<심강 신도비>는 조선전기의 문신이며 명종의 장인이었던 심강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596년(선조29)에 건립한 비이다. 심강沈綱(1514~1567)의 본관은 청송青松, 자는 백유伯柔이다. 1543년(중종38) 진사시에 합격하고 음보蔭補로 활인서별제活人署別提가 되었다. 명종이 대군으로 있을 때에 큰 딸과 혼인하였다. 1546년 명종이 즉위하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임명되고,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에 봉해졌다. 1548년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도총관都總管이 되었다. 1563년 기대항奇大恒(1519~1564) 등과 함께 권신 이량李樑(1519~1582)의 세력을 제거하고 신진사류新進士類를 구하였다. 시호는 익효翼孝이다.

심강 신도비는 묘역의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귀부이수龜趺螭首 양식을 갖추고 있다. 용머리처럼 생긴 귀두龜頭의 얼굴은 우측으로 고개를 길게 빼서 뒤를 돌아보고 있고, 앞발은 땅을 헤치고 곧장 뛰쳐나갈 것처럼 역동적인 형상을 하고 있다. 이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독특한 형상으로 주목되는 부분이다. 귀갑龜甲 위를 덮은 연잎모양의 복련覆蓮은 양감이 있게 조각하였다. 이수는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하였다. 비신은 이색적으로 귀부의 등에 횡橫으로 세우지 않고 종從으로 세웠다. 비문은 영종추부사 청천당 심수경聽天堂沈守慶(1516~1599)이 짓고 손자인 남파 심열南坡沈悅(1569~1646)이 글씨를 썼다.





## 정대년 신도비

鄭大年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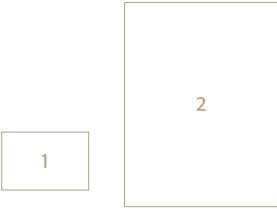
조선시대(1640년)  
1기  
개석 90×70×45cm  
비신 185×77×33cm  
비좌 55×135×77cm  
석재(화강암 및 대리석)  
여주시 점동면 장여로 561

지정일 : 1993.06.03  
소유자 : 동래정씨 사암공파 종중  
관리자 : 동래정씨 사암공파 종중

<정대년 신도비>는 조선전기 문신인 정대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640년(인조18)에 건립한 비이다. 정대년鄭大年(1507~1578)의 자는 경노景老, 호는 사암思菴, 본관은 동래東萊이다. 1532년(중종27)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권신 윤원형이 첩을 정부인으로 삼은 것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히려는 왕명을 받들어 조사하던 정대년은 윤원형이 뇌물로 이를 무마하려 하자 완강히 거절하기도 하였으며, 선조 초에 육조六曹의 장을 추천하라는 왕명이 있자 모두가 서슴없이 그를 추천할 만큼 명망이 있었다고 한다. 1578년(선조11)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정대년 신도비는 묘역의 아래 혁림사赫臨祠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부이수方趺螭首 양식을 갖추고 있다. 방부에는 복련覆蓮과 영지무늬를 조각하였고, 이수에는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하였다.

비문은 정대년의 성장과정과 관직생활, 그리고 간소한 생활 등이 적혀 있으며 부인의 집안과 성품,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본래 영의정 노수신盧守愼이 지은 것을 새기려 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뒤에 병조참판 오준吳竣의 글씨와 홍문관부제학 김광현金光炫이 쓴 전액을 받아 건립하였다. 비 뒷면에는 증손인 충청도관찰사 정양필鄭良弼이 신도비 건립과 관련된 사실과 자손 170명의 명단을 기록하였고, 예조정랑 유시영柳時英이 글씨를 썼다. 정대년을 비롯한 동래정씨 사암공파의 선산은 광주(현 성남시 신흥동)에 있었으나,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1986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1. 정대년 신도비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정대년 신도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49호

## 유영수양관 연명지도

留營首陽館 延命之圖

조선시대(1581년)  
2매  
149.3×57.8cm  
147×61cm  
종이  
안양시 동안구

지정일：1994.10.29  
소유자：윤택진  
관리자：윤택진

- 1**

**2**

**3**

1. 유영수양관 연명지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연명지도 세부(남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연명지도 세부(행렬),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 
- 
- <유영수양관 연명지도>는 오음 윤두수윤陰尹斗壽(1533~1601)가 1571년(선조4) 황해도관찰사로 부임했던 때를 회상하여 1581년(선조14)에 그린 그림이다. 수양관은 황해도 감영인 선화당宣化堂의 별칭이며 해주읍성에 위치하였다.
- 그림의 맨 위에는 윤두수의 동생 윤근수尹根壽(1537~1616)가 전서체로 쓴 제목이 있고, 아래에 해주읍성의 수양관 등 관아 전경과 관찰사의 행렬 의식 등이 수묵담채로 그려져 있다. 하단에는 당시 수행했던 아전衙前 24명의 이름·관직·본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전서체의 제목과 행사장면, 그리고 좌목을 넣는 형식은 조선시대 계획도契會圖에서 살필 수 있는데, 산수배경보다 장면이나 관청의 건물들을 화면 중심에 크게 배치했던 것은 16세기 후반의 특징이다.
- 진산인 용수산龍首山 아래 수양관 등의 관아는 누각형태의 남문과 사선으로 그려진 동문을 함께 그렸으나 자욱한 안개에 싸인 건물의 지붕과 튀어나온 나무들만이 간략히 표현되었다. 정면의 남문 밖에는 울창한 숲에 싸인 마을과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관찰사의 행렬이 그려져 있다. 진산과 관아, 행렬장면은 정면부 감시로, 동문은 평행사선 투시로 표현하여 넓은 공간감을 드러냈는데, 특히 평행으로 표현된 지붕들과 성곽 등은 안정감을 주면서 질서정연함을 느끼게 한다.
- 이 작품은 화면 왼쪽에 윤두수의 칠언시와 제작연대 등을 알려주는 관지가 있으나 화풍은 당시와 후대 양식이 공존한다. 안개에 싸여 지붕만을 강조한 관아 장면, 진산인 용수산의 원산을 실루엣처럼 처리한 것 등에서 16세기 후반기 화풍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맨 아래 선으로 그려진 언덕과 관아 등지에 서있는 나무와 가로로 넓은 미점으로 처리한 나뭇잎 등에서는 후대 화풍이 보인다.
- 이 작품은 후대에 모사되었다고 여겨지나 조선중기 기록화의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1737년에 황해도관찰사로 부임했던 윤두수의 6대손인 윤득화尹得和(1688~1759)와 1814년까지 그의 후손들이 이 그림과 글씨를 보고 감격해 지은 시문 등이 함께 있어 회화적·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50호
- ## 건륭오십구년오월삼일군호재가문서
- 乾隆五十九年五月三日軍號裁可文書
- 조선시대(1794년)  
1매  
82.2×62.4cm  
종이  
군포시 고산로
- 지정일：1994.10.29  
소유자：윤택진  
관리자：윤택진
- <건륭오십구년오월삼일 군호재가문서>는 건륭乾隆59년 5월 3일 병조兵曹에서 야간 순찰에 사용할 군호軍號를 동궁東宮 시절의 순조純祖에게 재가裁可받은 희귀한 문서이다. 건륭 59년은 정조 18년 즉 1794년이다. 당시 순조의 나이 5세였다.
- 군호는 병사들의 야간 순찰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약속해 두었다가 자기 편이 식별이나 비밀의 보장을 위해 쓰는 일종의 암호暗號이다. 조선시대에는 매일 신시(申時:오후3~5시)에 입직入直한 병조의 참의參議나 참지參知가 세 글자 이내의 군호를 만들어 밀봉하고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은 다음 병조를 거쳐 병사들이 밤에 근무하는 경수소警守所로 내려 보내 시행케 하였다. 하지만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하여 부재중이면 동궁東宮에게 재가를 받게 되어 있었다. 이 문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다.
- 1794년(정조18) 5월 3일 병조에서 입직하던 병조참의 윤장렬尹長烈(1765~?)이 ‘장양長養’ 두 글자를 써서 동궁에게 보고하자 동궁이 그 옆에 ‘태평太平’이란 두 글자를 쓴 후 자신의 수결手決을 하고 ‘가可’자를 써서 재가하였다. 윤장렬의 입직 사실은 해당 날짜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도 확인된다. 문서에는 병조 관인官印이 총 7군데 날인되어 있다. 문서 하단에는 윤장렬의 손자인 진사進士 윤만선尹萬善(1791~?)이 1821년(순조21) 6월에 지은 발문跋文이 첨부되어 있다. 발문에는 윤장렬이 문서를 소장하게 된 경위와 아들인 윤치영尹致永(1764~?)이 족자로 만들어 보관해 오던 과정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 
- 건륭오십구년오월삼일군호재가문서,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190 경기도문화재총람\_도지정편 1
- 유형문화재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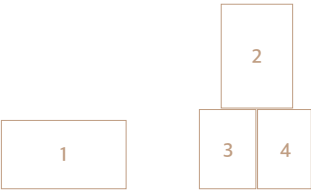


# 수원 봉녕사 석조삼존불

水原市 奉寧寺 石造三尊佛

고려시대  
3기  
본존불 높이 190cm  
우협시보살 높이 159cm  
좌협시보살 높이 155cm  
석재(화강암)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지정일 : 1994.10.29  
소유자 : 봉녕사  
관리자 : 봉녕사



1. 수원 봉녕사 석조삼존불,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봉녕사 여래좌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4. 봉녕사 협시보살입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수원 봉녕사 석조삼존불>은 본존불인 석조여래좌상과 그 좌·우에 서 있는 협시보살입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을 짓기 위해 대웅전 뒤편의 터를 닦던 도중에 출토된 것으로 전한다.

여래좌상은 반형의 구조를 보이는 상으로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무릎이 신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좁은 편이다. 머리에는 육계가 거의 표현되지 않았으며 방형의 얼굴에 눈·코·입의 위치는 확인되지만 마모가 심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다. 착의법着衣法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偏袒右肩이다. 석조 대좌 위에 안치되었으나 상대석에 비해 하대석이 작게 제작되었고 양련仰蓮은 간격을 띄우면서 조각하여 어색한 모습이다. 오른손은 무릎 부분에 두고 왼손은 가슴에 댄 형태로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는 형식이다.

협시는 입상이며 상의 마모가 심해 현상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여래좌상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게 표현되었으며 수인 역시 비슷한데 오른손은 입상에 맞게 밀으로 내린 모습이다. 마모가 심하여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방형의 얼굴에 큰 코가 사각형으로 길게 표현되었다. 머리는 보살의 특징인 머리카락이나 보관을 쓴 흔적은 확인할 수 없고 편평한 정수리만 확인된다. 다만, 우협시의 경우 머리 부분이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어 별도의 보개寶蓋가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착의법은 희미하게만 구별되는데 양 어깨에 옷의 흔적이 있어 통견通肩을 입은 듯 하며, 다리의 옷주름은 대칭을 이루며 U자형으로 흘러내린 것으로 보인다.

남아있는 상태로는 양식적인 특징과 제작시기는 파악하기 어렵고 다만 지방화된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수원시 봉녕사 불화 (신중탱화·현왕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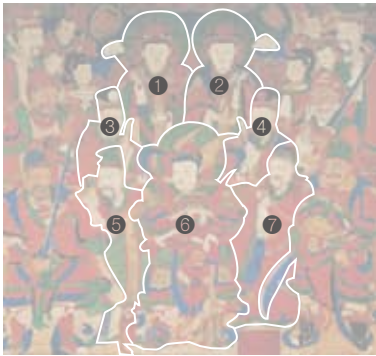
水原 奉寧寺 佛畵(神衆幀畵·現王幀畵)

조선시대(신중탱화 1891년, 현왕탱화 1878년)  
2폭  
신중탱화 168×178cm  
현왕탱화 104×131cm  
비단  
수원시 팔달구 창릉대로 236-54

지정일 : 1994.10.29  
소유자 : 봉녕사  
관리자 : 봉녕사

<수원시 봉녕사 불화(신중탱화·현왕탱화)>는 봉녕사의 주불전인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화로, 우측벽에는 신중탱화, 좌측벽에는 현왕탱화가 걸려 있다. 신중탱화의 상단부에는 제석과 범천이 천부중 天部衆을 거느리고 있고, 하단에는 위태천을 중심으로 팔부신장과 용왕, 금강상 등이 그려져 있어 19세기의 일반적인 구성형식을 보여 준다. 화기에는 '1891년(光緒17, 辛卯年) 2월 일 수원부水原府 광고산 봉녕사에 신중탱 한 점을 봉안하고, 금어 비구 현조現照·수조須照가 그렸다고 쓰여 있다. 붉은 색을 주요 색상으로 흰색의 청색을 사용하여 두 색감이 대비가 심하다. 무구나 복식에는 금박으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는데, 금박을 써서 무구를 표현하는 것은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경기도 일대의 불화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여백이 없는 화면구성, 과감한 흰색과 금박장식 등은 조선말기 불교 회화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수원 봉녕사 신중탱화, 촬영임미상\_성보문화재연구원



- ① 제석천
- ② 대법천
- ③ 월궁천자
- ④ 일궁천자
- ⑤ 조왕신
- ⑥ 위태천(동진보살)
- ⑦ 산신

현왕탱화는 비단 바탕에 현왕을 중심으로 판관 및 지옥사자, 동자 등을 그린 것으로 1878년(고종15)에 완선完善이 그렸다. 현왕은 중국 당나라 말기 찬술된 불교경전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에서 내세에 성불할 것을 수기받은 염라대왕閻羅大王的 미래불인 보현왕여래普賢王如來를 지칭한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죽은 후 3일 만에 현왕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믿게 됨에 따라 현왕재가 널리 행해지기 시작하면서 현왕탱화가 제작되었다. 현왕재는 조선시대 시왕 십재의 형식에 사후 3일이라는 단위와 시왕 중 염라대왕과 관련이 있는 보현왕여래를 삽입하여 탄생한 새로운 불교 천도제이다. 명부전에는 지장보살과 시왕·사자도를 봉안하여 사후 세계를 심판하지만 19세기 이후에는 대웅전과 같은 주 법당에 지옥 장면을 표현되지 않은 현왕도를 봉안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지장보살과 시왕 대신에 사후 세계를 심판하는 염라대왕을 단독으로 봉안된 것은 일반인들 사이에 염라대왕의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원 봉녕사 현왕탱화, 촬영임미상\_성보문화재연구원



- ① 현왕(보현왕여래)
- ② 동자
- ③ 전륜성왕
- ④ 대륜성왕
- ⑤ 판관·녹사·사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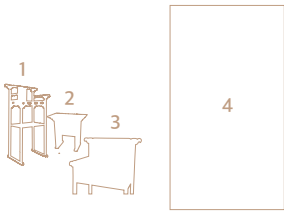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53호

한응인 영정 및  
재실유물 일괄

韓應寅 影幀 및 齋室遺物 一括

조선시대(1642년)  
10점  
영정 1점 164×91.5cm  
교의 2점, 향로상 1점, 주독 1점, 신주 1점, 제상 2점, 모사상 2점  
목재, 비단  
안산시 상록구 충정공길 59

지정일 : 1995.04.24  
소유자 : 청주한씨 충정공파 종중  
관리자 : 청주한씨 충정공파 종중



1. 교의, 2017\_ 경기문화재 연구원  
2. 모사상, 2017\_ 경기문화재 연구원  
3. 주독과 신주, 2017\_ 경기문화재 연구원  
4. 한응인 영정, 2017\_ 경기문화재 연구원

한응인韓應寅(1554~1614)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춘경春卿, 호는 백졸재百拙齋·한유촌韓柳村이며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그는 1589년(선조22)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을 적발한 공로로 정3품 호조참의로 승진하고 이어 승정원 승지가 되었다. 이후 1590년(선조21) 종계변무의 공으로 광국공신光國功臣 2등에 오르고, 정여립 모반을 평정한 공으로는 평난공신平難功臣 1등에 책록되었으며, 청평군淸平君에 봉해졌다.

<한응인 영정>은 높은 사모의 형태, 정면에 가까운 자세 등이 특징이며, 선묘를 통한 뚜렷한 안면묘사와 형식화된 단령묘사 등에서 17세기에 이모移摸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안면은 정면과 측면이 명확히 구분되고, 채색을 통한 입체감 강조가 아닌 선묘를 중심으로 한 세부묘사는 17세기 전반의 초상양식을 잘 보여준다. 종2품을 의미하는 운안흉배雲雁胸背와 학정금대鶴頂金帶를 착용하고 있어 평난공신의 모습을 담은 것을 알 수 있다. 운안흉배는 파도와 구름, 괴석과 대나무를 배경으로 기러기를 배치하여 회화적 구도가 돋보이는데 이러한 구도는 조선중기·후기 관복과 흉배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시대의 사모는 각지고 낮은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응인 영정에서 표현된 높은 사모는 공신초상 중에서 매우 드문 예이다. 화면의 우측상단에는 ‘光國平難功臣右議政淸平君諡忠靖百拙韓公之像’의 화제가 있다. 화제의 내용이 한응인의 공신명과 관직, 시호와 호 등을 담고 있어 그의 사후인 1614년 이후에 추가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한응인의 영정과 함께 재실에 함께 전해져 온 여러 제구들 역시 영정이 이모된 17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의交椅(위패를 모시는 의자) 2점, 주독主櫛(위패를 넣어두는 궤) 1점, 신주神主(위패) 1점, 제상祭床 2점, 향로상香爐床 1점, 모사상茅砂床 2점 등으로 구성된 이 제구들은 조선후기 제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 안성객사

安城客舍

조선시대(1695년 중수)  
1동  
정청 3×2칸  
동익헌 4×3칸  
서익헌 3×2칸  
목재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3

지정일 : 1995.08.07  
소유자 : 안성시  
관리자 : 안성시

1  
2

1. 안성객사 전경, 1995년 이전. 문화재청  
2. 안성객사 정청과 동·서익헌,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안성객사>는 안성시 보개면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안성군安城郡의 객사이다. 조선초기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록이 없어 확실하지 않다. 지붕에 명문銘文 막새기와가 남아있어 1695년(숙종 21)에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읍내의 관아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통감부의 보통학교령 이후 상당수 객사가 학교로 전용되었던 것과 같이 1908년 6월 객사와 동·서익헌이 공립안성보통학교의 교사校舍로 사용되었고, 1909년 11월에는 정청의 객사 제도마저 폐지되었다. 이후 1932년 이건移建되어 군郡 도서관으로 사용되다가 1946년부터는 안성 명륜여자중학교 교사로 이용되었다. 본 건물은 1995년 전면 해체 수리되어 현재 위치에 옮겨 복원된 것이다.

중앙의 정청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주심포계柱心包系 맞배집으로 내부 바닥에는 전돌을 깔았다. 좌우의 동·서익헌은 익공계翼工系인데 한단 낮은 지붕에 정청과는 구조적으로 분리된 일반적인 객사 본채 형태를 취하였다. 동익헌은 정면 4칸, 동측면 3칸이며, 서익헌은 정면 3칸, 서측면 2칸인데 변형 축소되었던 것을 읍지 등 문헌에 기록된 칸수를 참조해 복원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객사가 부여받았던 권위와 상징성이 국권상실기를 거치며 해체되는 과정을 안성객사를 통해 알 수 있음은 물론이고, 특히 곡선 굽을 가진 주두柱頭, 헛첨차와 사다리꼴 보머리, 향아리형 단면의 보 등을 갖춘 정청은 고려시대 주심포계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몇 동 남아 있지 않은 고려시대 주심포계 건축이라는 점에서 건축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 포천 석조여래입상

抱川 石造如來立像

고려시대  
1구  
높이 254cm  
석재(화강암)  
포천시 어룡동 산19

지정일 : 1995.08.07  
소유자 : 포천시  
관리자 : 포천시

자연스러운 자세와 비교적 조화로운 신체 비례, 옷주름 표현 등에서 통일신라시대 불상 양식을 보이나 양감이 줄어들고 세부표현이 정교하지 못한 점 등에서 통일신라 양식을 이은 고려시대의 불상으로 평가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여지도서輿地圖書』 등을 통해 이 부근에 해룡사海龍寺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해룡사와 관련된 불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1 2 3  
4

1. 포천 석조여래입상, 1990년대. 경기도  
2. 석조여래입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석조여래입상 세부, 1990년대. 경기도  
4. 석조여래입상 세부,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포천 석조여래입상>은 포천 해룡산海龍山の 정상 부근에 동남향으로 서 있는 석조여래입상으로, 불상과 광배와 한 돌로 조성되었다. 광배는 배모양의 거신광으로 두광과 신광은 별도로 표현하지 않았고,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았다. 무릎 이하는 땅에 묻혀 있어 대좌는 확인할 수 없다. 불상은 환조에 가까운 고부조의 상이나 풍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마모되었으며, 표면의 박리박락이 심하다.

불상은 비교적 높고 큰 육계를 갖추었으며 등굄고 큰 얼굴에 눈이 크고, 귀가 길게 늘어져 있다. 법의는 양 어깨를 걸쳐 내려오며 가슴에서부터 U자형 주름을 형성하면서 무릎까지 이어지고 양 팔에는 계단식 주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통일신라시대 불입상의 전형적인 옷주름 표현 가운데 하나로 통일신라 석불양식을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손은 비교적 크게 표현되었으며, 오른손은 가슴높이로 들어 시무외인을 취하고, 왼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펴고 있는 여원인興願印의 손 모양이다.

자연스러운 자세와 비교적 조화로운 신체 비례, 옷주름 표현 등에서 통일신라시대 불상 양식을 보이나 양감이 줄어들고 세부표현이 정교하지 못한 점 등에서 통일신라 양식을 이은 고려시대의 불상으로 평가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여지도서輿地圖書』 등을 통해 이 부근에 해룡사海龍寺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해룡사와 관련된 불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 파주 마애사면석불

坡州 磨崖四面石佛

고려시대

1구

전체높이 195cm

등 163×90cm

서 140×70cm

남 130×62cm

북 207×87cm

석재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산31-1

지정일 : 1995.0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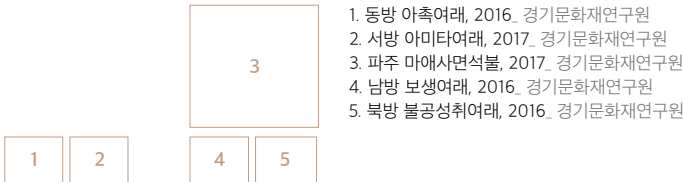
소유자 : 파주시

관리자 : 파주시

<파주 마애사면석불>은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인 일월봉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자연석 화강암을 다듬어 동서남북 네 방위를 따라 음각선으로 여래좌상을 새긴 마애 사방불四方佛이다. 음각선만으로 도상을 표현하여 마치 암각불화를 보는 듯하다. 전반적으로 마멸이 심한 편이나 세부 특징을 확인할 수는 있다. 네 면의 여래좌상은 수월관음도의 월륜月輪을 연상시키는 둥근 거신광擧身光 속에 서로 다른 수인을 맺고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동쪽 마애불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偏袒右肩의 착의법에 오른손을 가부좌한 무릎 아래로 곧게 펴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수인을 맺었다. 옷주름은 힘이 빠져 해이한 모습이지만 대좌의 연꽃잎은 끝이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서쪽 마애불은 마멸이 심해 세부 특징이 불분명하며 양 손은 가부좌한 다리 위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남쪽 마애불은 얼굴과 왼손은 마멸이 심하지만 머리 광배와 몸 광배의 윤곽선, 층단식의 법의 옷주름, 중첩된 대좌의 연꽃잎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손은 손가락을 모두 펴고 가부좌한 무릎 바깥으로 곧게 내렸다. 바위면 상단에 표현된 북쪽 마애불은 양 손을 안쪽으로 모은 듯한 모습이며, 뚜렷한 이중의 원광과 가부좌한 양 발 사이로 드리워진 두 겹의 옷자락, 비교적 입체적인 연꽃잎이 표현되었다.

이 사방불은 밀교密敎의 금강계金剛界 사방불로 보고 동방 아촉여래, 서방 아미타여래, 남방 보생여래, 북방 불공성취여래를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사방불의 형식은 통일신라 후기의 것을 계승하였지만 느슨한 윤곽선과 활짝 핀 연꽃잎의 회화적 표현 등에서 조성 시기는 고려전기로 추정된다.





## 남양주 수종사 부도

南楊州 水鍾寺 浮屠

조선시대(1439년)  
1기  
230×146cm  
석재(화강암)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433번길 186

지정일 : 1995.08.07  
소유자 : 수종사  
관리자 : 수종사



1. 남양주 수종사 부도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수종사 부도, 1910~1940. 국립중앙박물관  
3. 수종사 부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수종사는 『가람고伽藍考』와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에 세조가 행차하면서 땅을 파보니 우물과 종을 얻었기 때문에 수종사로 명명했다고 한다. 수종사 부도의 건립시기를 고려하면 세종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보이며, 1458년(세조4) 왕실 원찰로 중창되었다. 1890년(고종27) 풍계楓溪가 재차 중창한 후 한국전쟁 기간 소실되었다가 1974년 당우를 신축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남양주 수종사 부도>는 전체적으로 뛰어난 조각솜씨를 보여주는 팔각원당형 부도로 4매로 구성된 사각형 지대석 측면에는 탑신표면에 조각된 구름문양과 동일한 표현의 구름문양을 역동적으로 시문했다. 기단부는 팔각형 석재 2매로 상대와 하대만 구성했다. 하대에는 상하에 윤곽선 및 앙련과 복련 등 연판을 소형으로 돌을새김 했으며 상면 모서리마다 귀꽃을 조각했다. 측면 모서리에는 동자주 형식의 기둥을 모각하고 내부에 연주문 등을 시문했다. 상대석은 모서리에 기둥을 모각 후 각 면을 상하 2단으로 구획했는데 내부에는 식물문양을 양각했다.

상하로 긴 원구형 탑신석 표면에는 구름과 바람 속에서 유영하는 용을 조각했다. 조선시대 왕실원찰 불교미술에서 흔히 발견되는 용문양 사용을 통해 왕실의 후원으로 조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탑신석 정상에는 원형의 받침을 탑신석과 한 몸으로 표현했는데, 모서리마다 기둥을 모각 후 각 면에 사각형 공간을 표현했다. 옥개석은 낙수면이 급경사를 이르며 우동隅棟을 표현했으며 15cm 두께의 처마면에 ‘태종 태후정○옹주사리탑시주○○유씨금성대군정통사년기미십월일입太宗太后貞○翁主舍利塔施主○○柳氏錦城大君正統四年己未十月日立’이라는 명문이 있어 1439년(세종21) 태종태후가 발원하고 유씨와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錦城大君(1426~1457)이 시주자가 되어 조성한 정○옹주의 부도였음을 알려준다. 상륜부는 복발, 보주, 보련을 설치했다.

수종사 부도에서는 1939년 부도 수리 때 고려시대 청자호·금동구층소탑金銅九層小塔·은제도금육각감銀製鍍金六角龕(보물 제259호) 등이 출토되었다.





## 파주 보광사 승정칠년명 동종

坡州 普光寺 崇禎七年銘 銅鐘

조선시대(1634년)  
1구  
98.5×63cm  
금속(청동)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474번길 87

지정일 : 1995.08.07  
소유자 : 보광사  
관리자 : 보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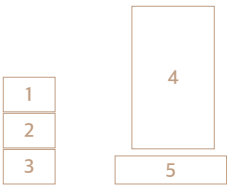


<파주 보광사 승정칠년명 동종>은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범종 가운데 중국종 양식을 보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종신에 기록된 명문에 의해 승정崇禎 7년(1634)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명문에도 보이듯이 ‘주성도대장설봉자鑄成圖大匠雪峯子’의 ‘설봉자’라는 장인은 그의 이름과 조역의 내용으로 보아 승려장인僧匠이라고 추정된다. 특히 이 장인은 1630년에 만들어진 고견사종古見寺鐘의 ‘기대장설봉사문器大匠雪峰沙門’과 동일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푸른 색조를 질게 띠고 있는 파주 보광사 승정칠년명 동종은 밑으로 가면서 밖으로 벌어져 있다. 불룩하게 솟아오른 천판 위에는 음통 없이 두 마리의 역동적인 쌍룡으로 구성된 용뉴가 네 발로 천판을 딛고 있다. 그 외연에는 복잡하게 시문된 사각의 복판연화문이 상대上帶처럼 주회되었다. 종신은 중단과 하단을 돌아가는 3줄의 용기선 횡대橫帶로 3단 구획하여 상단에는 방형의 연곽대蓮廓帶와 보살입상을, 중단 부분에는 운룡문雲龍文과 양각명문을 새겼고, 종구鐘口 위에 하단 문양대에는 용문과 파도문을 번갈아가며 유려하게 시문하였다.

사다리꼴로 표현된 연곽대에는 연당초문을 시문하고, 유곽 내부에는 연화좌蓮花座 중앙에 연뢰蓮蕾를 9개씩 배치하였다. 연곽과 연곽 사이의 여백 면에는 보살입상을 중심으로 그 좌·우측에 범자문梵字文을 양각하였다. 일반적인 17세기 범종의 범자문과 달리 원권없이 종서縱書로 이루어진 점이 색다르다. 두터우면서 경직된 양각의 범자문 앞에는 각각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 ‘육자광명진언六字光明眞言’이라고 쓴 범자문의 의미와 명칭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4구의 보살입상은 원형두광에 통견의 법의를 걸치고 합장한 모습으로서 연화좌 위에 선 채 몸을 우측으로 돌린 유려한 자세를 하고 있다. 종신 중단의 용기선 횡대 아래에는 유려한 모습의 운룡문雲龍文을 고부조하였으며, 운룡문으로 이루어진 문양판 사이로 양각명이 새겨져 있다. 아래 단에는 1줄의 용기선을 돌리고, 하대처럼 표현된 종구의 윗부분에는 파도문과 운룡문을 번갈아 가며 빼곡히 시문하였다.

쌍룡의 용뉴, 종신 전면에 시문된 용문과 파도문 등 중국종의 특징이 많이 반영된 작품으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명문과 종신 전면에 장식된 다채로운 문양은 17세기 범종 가운데서도 수작으로 평가된다.



1. 용뉴 세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종신 세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종신 하단 세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파주 보광사 승정칠년명 동종, 2006. 파주시
5. 승정칠년명 동종 탁본, 2010. 경기문화재연구원





## 여주 도곡리 석불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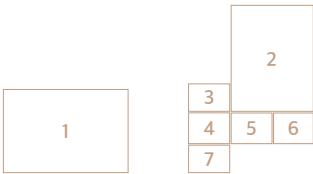
驪州 道谷里 石佛坐像

고려시대  
1구  
불상 193×165cm  
대좌 138cm  
석재(화강암)  
여주시 금사면 도곡리 산7

지정일 : 1996.01.18  
소유자 : 여주시  
관리자 : 여주시

<여주 도곡리 석불좌상>은 원적산의 산비탈에 북동쪽을 향하여 팔각대좌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다. 광배는 남아있지 않지만, 불상은 전체적으로 큰 손상없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상·중·하대로 구성되어 있는 대좌는 불상에 비하여 작은 편이다. 상대석에는 아래로 향한 연꽃잎을 표현하였는데 꽃잎마다 두광과 신광을 갖춘 선정인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다. 하대석에는 위로 향한 연꽃잎을 표현하였고, 중대석 8면 중 6면에는 신장상을 배치하였다. 나발의 머리에 육계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크게 네모진 얼굴에 코는 두툼하며 가늘고 긴 눈에는 눈동자를 새겼다. 귀는 어깨까지 늘어졌고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다. 왼손은 무릎 위에 펼치고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부근에서 손가락을 왼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한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양 어깨를 덮으며 내려오는 법의는 왼쪽 어깨에서 고리로 고정시켜 삼각형 주름을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수법은 9세기 통일신라 불상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손목에 걸쳐진 옷자락이 무릎 위에 나뭇잎 모양으로 걸쳐져 있는 것은 표현은 고려시대 목조불상에서 보이는 양식이다.

전체적으로 괴체감이 큰 신체 표현과 특히 높고 큰 무릎, 그리고 대좌의 형식 등에서 부근에 있는 여주 포초골미륵좌불(경기도유형문화재 제35호)과 유사한 양식이다. 통일신라 말기의 조각양식을 잇고 있으며, 고려시대 전기 여주에서 유행한 불상의 양식을 전하고 있는 상이라 할 수 있다.



1. 여주 도곡리 석불좌상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도곡리 석불좌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대좌 상대석 불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대좌 중대석 팔신장,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5. 대좌 중대석 팔신장,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6. 대좌 중대석 팔신장,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7. 대좌 하대석,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오리 이원익 영우

梧里 李元翼 影宇

조선시대(1693년)  
1동  
1×2칸  
목재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5

지정일 : 1996.12.24  
소유자 : 충현박물관  
관리자 : 충현박물관

<오리 이원익 영우>는 조선중기 문신으로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여러 차례 영의정을 지낸 오리 이원익梧里李元翼(1547~1634)의 영정이 봉안된 사당이다. 사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패를 모시지만 이곳은 사당 내부에 감실龕室을 따로 두고 영정을 모신 영우이다. 이원익의 4대손인 이존도李存道(1659~1745)가 이원익 서거 60주년을 기념하여 1694년(숙종20) 관감당을 중건하면서 함께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현판에는 이관징李觀徵(1618~1695)이 ‘오리영우梧里影宇’라는 글자와 함께 ‘1693년(숙종19) 인조가 하사한 관감당觀感堂 옛터에 이 사우를 건립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오리영우는 현재 이원익 종택(안채와 문간채가 뜰ㅊ자형)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오리영우의 건물배치는 사당과 내삼문, 관감당(一자형 사랑채)을 중심으로 축을 이루고 있다. 사당은 정면 1칸 측면 2칸인 초익공初翼工 형식의 건물이며 겹처마의 맞배지붕이다. 건물 정면에는 사분합 띠살문을 달았으며, 측면과 후면은 화방벽으로, 전면은 개방된 퇴칸으로 되어있다. 사당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영정이 봉안된 감실이 있다. 내삼문은 정면 3칸의 평삼문 형식이다. 장대석 기단과 초석은 17세기 것으로 추정되지만 익공, 화방벽 등은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리 이원익 영우, 촬영일미상\_충현박물관



## 보광사 목조여래좌상

普光寺 木造如來坐像

조선시대  
1구  
164×100cm  
목재  
과천시 교목원로 41

지정일 : 1996.12.24  
소유자 : 보광사  
관리자 : 보광사

<보광사 목조여래좌상>은 입가에 얇은 미소를 머금었지만 전체적으로 무표정한 사각형의 얼굴과 신체 구성, 굴곡이 무시된 평면적인 신체 조형, 가슴을 가로지르는 치마 상단의 도식적인 주름 등 조선후기에 제작된 불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목조불상이다.

머리는 나발이 뚜렷하지만 육계의 윤곽이 불분명하며, 나발 사이에는 큼직한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둥근 형태의 정상계주를 나타내고 있다. 법의는 통견의로, 부드럽고 간결한 선으로 넓은 주름을 표현하였다. 넓게 트인 가슴을 가로지르는 치마 자락 상단을 꽃잎 형태로 가지런히 정형화한 표현은 조선후기의 특징 중 하나이다. 가부좌한 무릎 상단을 수평으로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블록적인 느낌을 주지만 양 어깨에서 흘러내려 한번 접혀진 옷자락과 가부좌한 무릎 좌우로 활처럼 휘 옷주름은 비교적 부드럽고 입체적으로 처리하여 활력을 느끼게 한다. 특히 가부좌한 왼쪽 정강이 부근에 드리워진 나뭇잎 모양의 옷자락 표현은 조선전기 불상의 특징을 이어받은 것이다. 오른손은 무릎 아래로 내렸으며, 따로 만들어 끼운 왼손은 중지와 약지를 맞대었다.

조선 후기 양식의 불상이지만 당당한 자세와 입체적인 옷주름 표현 등에 조선전기 불상의 여운이 남아있어 조성시기는 17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보광사 목조여래좌상, 2016\_경기문화재단연구원





## 남계 박세채 영정

南溪 朴世采 影幀

조선시대  
2폭  
관복본 175×93cm  
유복본 180×104cm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1996.12.24  
소유자 : 박찬혁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남계 박세채 영정>은 조선후기의 문신 박세채를 그린 초상 2점이며 관복본과 유복본이 있다. 박세채의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玄石·남계南溪이다. 증조부 박응복朴應福은 대사헌, 할아버지 박동량朴東亮은 형조판서를 지냈다. 김상헌金尙憲과 김집金集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관복본은 높은 사모에 단령을 입고 있으며 정면을 향한 당당한 유학자의 풍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 관복본은 후대에 다시 그린 이모본이며, 이를 그린 화가의 기량이 뛰어나지 못해 원본을 꼼꼼히 옮겨 그리지 못한 부분이 많다. 수염의 표현은 흰수염이 검은 수염을 감싼 매우 특이한 형태이다. 단령은 아청색 운문단이며 목깃이 넓다. 조선중기 초상화의 한 특징인 삼각형 무武가 사라졌으며, 옷을 표현하는 선이 부드럽고 가늘다. 의자에는 표범가죽을 깔았는데 17세기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형식이다. 박세채는 정1품 좌의정까지 지냈으므로 공작흉배에 서대犀帶를 착용해야 하는데, 운학흉배를 착용하고 있다. 발 받침대 아래에 표범가죽의 머리를 둔 것은 실학박물관 소장 김석주金錫胄 초상과 같은 양식이다. 17세기 후반 초상화의 양식을 공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복본은 동파관東坡冠을 쓰고 두 손을 소매 안에 맞잡은 정면형의 입상이다. 과장하여 그린 듯 상당히 여유로운 편복 위로 검은색 끈을 매어 늘어뜨렸다. 큰 옷 속에서 정면을 응시하는 얼굴은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여 생동감을 주었다. 옷 색깔은 갈회색이며, 초록색 신발은 직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좌우로 벌린 자세의 신발에는 녹색과 흰색의 점을 찍은 점묘법을 사용하였다. 얼굴과 옷의 일부에는 색감이 변색되었다.

인물의 개성을 한껏 살린 17세기 후반의 관복본과 유복본 초상화이다. 박세채의 외손자인 신경申暲(1696~1766)의 문집에는 박세채의 관복본과 유복본 초상의 초본草本을 그린 화가가 평양출신의 조세걸曹世傑이라 하였는데 면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1. 박세채 영정 관복본 안면부, 2008. 경기도박물관
2. 박세채 영정 관복본, 2008. 경기도박물관
3. 박세채 영정 유복본, 2008. 경기도박물관
4. 박세채 영정 유복본 안면부, 2008. 경기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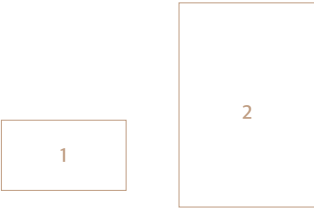


#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安養 中初寺址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222cm  
석재(화강암)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

지정일 : 1998.01.12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안양시



1.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전경,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중초사지 삼층석탑,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은 안양시 김중업 박물관 정문 옆에 위치하며 석탑과 인접해서 보물 제4호인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있다. 중초사지 삼층석탑의 원래 자리는 현재의 위치에서 북동쪽으로 80m 떨어진 곳인데, 원래의 자리에 공장이 건설됨에 따라 1960년 12월 현재의 자리로 옮겨 복원하였다.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이 있던 곳은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의 명문을 통해 9세기 전반 중초사가 창건된 곳임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고려의 태조 왕건이 중초사 터에 7층 전탑과 더불어 안양사를 새롭게 조성하였다는 기록이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중초사는 9세기 후반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기에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초사지 삼층석탑은 수매의 장대석으로 지대석을 조성하였다. 지대석 위에는 갑석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형태의 기단 받침을 조성하였다. 기단은 단층기단이며 면석에는 가운데 기둥인 탱주檀柱를 조각하지 않았다. 갑석은 2매의 돌로 만들었다. 갑석 하면에는 부연이 있고 상면은 평평하고 한 단의 탑신괴임이 조출되어 있다. 탑신괴임 위에는 갑석에 비해 넓이가 작은 탑신석이 올려져 있으며 2층과 3층 탑신석은 결실되어 있다. 옥개석은 매우 두꺼우며 비교적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 양 끝에서 살짝 들린다. 옥개받침은 1·2층은 4단이며, 3층은 3단으로 간략화되었다. 기단 면석에 탱주가 표현되지 않은 점과 세장한 1층 탑신석에 비해 둔중한 형태의 옥개석을 지니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성시기는 고려중기로 추정된다.





## 신재 한상경 영정

信齋 韓尙敬 影幀

조선시대  
1폭  
162.5×92cm  
비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지정일 : 1998.04.13  
소유자 : 청주한씨 문상공파 종회(한정석)  
관리자 : 국립중앙박물관



1. 신재 한상경 영정 찬문,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신재 한상경 영정,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한상경韓尙敬(1360~1423)은 고려말·조선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숙경叔敬·경중敬仲, 호는 신재信齋이며, 서원군西原君에 봉해졌고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그는 조선 건국에 참여한 공으로 개국공신開國功臣 3등에 추록되었다.

한상경의 초상은 개국공신 당시 제작된 모본을 다시 이모한 작품이다. 사모와 담홍포淡紅袍를 입고 공수한 자세로 교의에 앉은 좌안8분면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화면 좌측에 ‘推忠翊戴同德開國功臣大光輔國崇綠大夫領議政府事西原府院君增諡文簡公韓尙敬字叔(추충익대동덕개국공신대광보국승록대부령의정부사서원부원군증시문간공한상경자숙 경호신재)’란 표제가 적혀있으며, 상단에 덧댄 비단에는 이경석李景奭의 화상찬과 그의 호인 ‘白軒(백헌)’의 주문방인이 적혀있다. 찬문의 내용 중 ‘遶工重摸 倣寫于眞(인공중모 방사우진)’과 ‘朝衣燕服 一則半身(조의연복 일칙반신)’을 통해 한상경의 초상이 본래 조복과 평상복 각 1점씩 존재하였으며, 17세기 후반에 한 차례 이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초상은 조선후기의 화풍으로 그려진 이모본이지만, 고려말과 조선초기의 의복과 초상문화를 살필 수 있어 주목된다. 담홍포와 뿔이 작은 사모의 구성은 보물 제1215호 ‘이색李穡 초상’과, 등받이가 없고 좌우로 긴 교의交椅는 같은 개국공신 초상인 ‘이제李濟 초상’과 같아 조선전기의 의복과 가구 문화를 잘 보여준다. 안면은 정면에 가까운 8분면으로 모본이 지녔던 간략한 선묘 중심의 묘사가 잘 드러난다. 특히 간략히 표현된 오른편 귀의 표현은 이색과 이천우李天祐의 초상에서도 나타나는 조선전기의 초상 특징이다. 의복은 날렵한 필선으로 주름을 잡고 열은 음영으로 입체감을 살려 조선후기 이모작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초상은 모본이 지녔던 특징을 잘 담고 있으며, 화상찬 등을 통해 초상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어 그리 많지 않은 조선전기의 초상 문화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 송암 이충원 영정

松菴 李忠元 影幀

조선시대(1604년)  
1폭  
164×89cm  
비단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1998.04.13  
소유자 : 전주이씨 덕천군파 회진군 중회(이용선)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1

2

1. 송암 이충원 영정 공작흉배, 201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 송암 이충원 영정, 201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이충원李忠元(1537~1605)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원보元甫·원포圓圃, 호는 송암松菴·여수驢叟이며,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호송한 공으로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었고, 완양부원군完陽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송암 이충원 영정>은 전형적인 17세기 공신초상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제작 당시의 섬세한 표현과 화려한 색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조선시대 초상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화면 우측의 ‘完陽府院君六十八歲時容(완양부원군육십팔세시용)’이란 표제는 이 작품이 공신으로 녹훈되던 1604년, 당시 68세였던 이충원의 모습을 담고 있음을 말해준다.

가슴에는 1품을 상징하는 한 쌍의 공작흉배와 서대가 매우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서대의 중앙장식이 다른 초상에서 보이는 사각이 아닌 원형인 것이 특징이다. 사모의 뿔과 단령에도 구름문양이 매우 세밀하게 표현되었다.

안면표현은 섬세하고 담백한 조선중기 초상기법의 정수를 보여준다. 7분면의 구도에 가는 필선으로 얼굴을 구획하고 열린 채색을 더하였다. 특히 눈 주변과 양 뺨, 입 주변에 붉은 채색을 더하여 인물에 생동감을 주는 동시에 입체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68세 노인의 노화를 매우 정밀하게 표현하여, 눈을 중심으로 열린 주름을 중첩되게 배치하고, 반점과 잔털, 검버섯 등 사실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모든 호성공신 초상들이 이충원 초상의 예처럼 발군의 묘사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당시 이 초상을 제작한 화원의 뛰어난 기량을 짐작할 수 있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69호**

## 현수제승법수

賢首諸乘法數

<span></span>
조선시대(1500년)
11권 1책
26×16cm
종이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span></span>
지정일 <span> </span> : 1998.12.31
소유자 <span> </span> : 경기도
관리자 <span> </span> : 경기도박물관

<현수제승법수>는 여러 법문法文에서 3법인三法印, 4성제聖諦, 6바라밀六波羅蜜, 8정도八正道 등과 같이 숫자數字가 들어있는 용어를 모아서 숫자 순서별로 정리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엮어놓은 일종의 불교 용어사전이다. 권 제1에서 10까지는 각 숫자에 해당하는 명수를 배열하여 설명하고 권 제11에는 그 이상의 숫자에 해당하는 것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당나라 현수가 불조의 설법을 숫자로서 표시하여 만든 것을 명나라 행심行深이 다시 편집한 것이다.

이 책의 서지사항으로는 사주쌍변의 판식에 판심의 위 아래에 대흑구大黑口가 있고, 어미는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 행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비록 표지를 개장하였으나, 책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인쇄도 먹이 진하고 정교한 편이다.

권수에는 1427년(세종9) 미상의 작자가 쓴 현수제승법수서賢首諸乘法數序 와 1387년(고려 우왕13)에 천태종 범고梵翹가 쓴 중편현수법수서重編賢首法數序 등 2편의 서문이 수록되어있다.

권말에 ‘팔식심왕제문요간八識心王諸門料簡’을 붙이고 있고 해인사 등곡燈谷의 발문이 실려 있다. 이어서 간기刊記와 시주施主와 각수刻手·연판鍊板·공양주供養主·알선幹善비구의 이름이 실려 있다. 경기도박물관 소장 현수제승법수는 1500년(연산군6) 명나라에서 구한 판본을 해인사 등곡의 주관으로 경상남도 합천의 봉서사鳳栖寺에서 번각한 것으로, 흔치 않은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이라는 점에서 보존가치가 높다. 지금도 해인사에는 이 책의 목판이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 1 2 3 4

- 현수제승법수 표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현수제승법수 서, 2016. 경기도박물관
- 중편현수법수 서,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본서 간기,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70호**

##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安城 靑龍寺 金銅觀音菩薩坐像

<span></span>
조선시대
1구
91×54cm
금속(금동)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140
<span></span>
지정일 <span> </span> : 2000.03.24
소유자 <span> </span> : 청룡사
관리자 <span> </span> : 청룡사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후기에 유행했던 이른바 ‘단아한’ 조형미의 조각양식을 계승한 조선초기의 유례가 드문 금동 불이다. 특히 조선전기 경북 지역에서는 화려한 보관과 도포식의 착의, 네모진 얼굴과 굴곡 없는 원통형의 신체를 특징으로 하는 보살상들이 전해오는데, 청룡사 금동보살상 역시 이와 같은 양식의 작품이다.

통통한 얼굴은 눈썹과 콧날 선이 굵고 딱딱해져 근엄한 표정을 자아내며, 미간의 백호와 목의 삼도三道도 굵고 선명하다. 머리 중앙에 상투 형태로 틀어 올린 높은 보계寶髻가 솟아 있고 보발은 결발한 뒤 양 어깨 아래에 다섯 가닥으로 길게 드리웠다. 장대한 신체는 다소 앞으로 숙였으며, 넓게 트인 옷자락 사이로 불륜감 있는 가슴의 윤곽과 영락 장식, 그리고 두툼한 군의裙衣 상단 자락과 여러 가닥으로 꼬아 단정히 묶어 입체감을 살린 띠매듭이 드러나 있다. 오른손은 위로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외장하였으며, 왼손은 배 부분에 내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중품중생인中品中生印의 수인을 맺었다. 대의는 양 어깨에서 깃처럼 한번 접혀진 채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는데, 오른쪽 어깨 위에서 복부로 내려가는 옷주름에는 시원한 흐름

이 남아 있고 섬세한 손은 미묘한 율동을 그린다.

양 무릎의 부드러운 곡선형 옷주름과 발목 사이로 부채꼴 형태로 마무리된 옷자락 처리도 자연스럽다. 이러한 세부 특징은 문경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영천 은혜사 운부암 금동관음보살좌상과 유사하며 제작 시기는 15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보살상은 고려 후기 조각양식을 계승하여 변모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기 지역에서는 유례가 드문 조선초기 금동제 보살상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양평 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

楊平 上紫浦里 磨崖如來立像

고려시대  
1구  
550×130cm  
석재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산36-1

지정일：2000.03.24  
소유자：국유  
관리자：양평군

<양평 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은 양평군과 여주시의 경계인 파사산 정상 능선을 따라 수축된 파사성(사적 제251호)의 서북쪽 옆산 아래 조성된 대형 마애불이다.

거대한 암벽을 세로로 깎아 수직면을 만들고 선각으로 여래입상을 조각하였다. 사각형의 얼굴은 이목구비가 크고 뚜렷하며, 길게 찢어진 눈과 꼭다문 입으로 인해 경직된 표정을 자아낸다. 머리는 소발이며 중앙에 넓적한 육계가 솟아 있다. 힘없이 아래로 길게 처진 귀는 머리와 맞붙어 경계가 불분명하며 목의 삼도三道는 생략되었다. 얼굴 뒷편의 이중 원광은 무문이며 지나치게 크고, 사각형의 신체는 길쭉한 돌기둥 형태이며 세부는 도식적으로 표현하였다. 오른손은 팔꿈치가 각이 진 채 복부에 대었고 왼손은 마멸이 심해 확인이 어렵지만 결실 흔적에 비추어 가슴 위로 들고 있는 듯하다. 법의는 편단우견식으로 착용하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었는데, 옷주름은 마치 좌우를 구획하는 듯한 수직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허리 쪽으로 모이는 둥근 옷주름이 층단식으로, 왼쪽은 왼쪽 손목을 감싸고 길게 드리워져 있다.

전체적으로 삼국시대 신라 지역에서 유행했던 편단우견 여래입상을 연상케 하지만 사각형의 굳은 얼굴과 석주형의 신체, 각이 진 팔꿈치 표현, 힘이 빠진 듯한 선각 등에서 고려시대 전기 석주형 거석불巨石佛과 맥을 같이하는 마애불이다.

1 3  
2

1. 양평 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 원경,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 전경,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안성 청원사 대웅전

安城 淸源寺 大雄殿

조선시대  
1동  
3×3칸  
목재  
안성시 원곡면 통심길 16-102

지정일：2000.03.24  
소유자：청원사  
관리자：청원사

안성시 천덕산天德山에 위치한 청원사는 창건과 관련된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대웅전에 봉안된 아미타불좌상의 복장유물을 통하여 고려시대부터 사격을 갖추고 있었으며, 당시 사명은 ‘청원사淸願寺’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청원사淸源寺’라는 사명으로 여러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어 고려시대부터 법맥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웅전은 2001년 수리 당시 상량문이 발견되어 1740년(영조16)과 1854년(철종5)에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웅전은 1단의 자연석 기단위에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건립되었다. 축대와 초석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사용하였으며,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건물의 공포는 전면과 후면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전면은 내외2출목의 다포로, 후면은 출목익공으로 되어 있다. 건물의 전면에는 각 칸마다 3짝의 분합문을 설치하였고 양측면은 흙벽에 미장마감을 한 반면, 후면에는 화방벽을 설치하여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에는 우물마루를 깔았고 불단을 고주와 후불벽 없이 건물 후면에 붙여 설치하였다.

청원사 대웅전의 큰 특징은 전면과 후면의 공포가 다른 양식을 취하고 있는 점인데 이는 1854년 중수 당시 옛 부재를 적극 재활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전면에 설치된 다포는 외관상 보머리처럼 가공된 제3제공이 실제로는 보머리가 아니라 보머리처럼 가공한 살미부재라는 점은 조선전기 다포건축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건물의 연원이 임진왜란 이전까지 소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2

1. 안성 청원사 대웅전, 1983. 전국사찰현황실태조사서  
2. 청원사 대웅전,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안성 정무공 오정방 고택

安城 貞武公 吳定邦 古宅

조선시대  
일곽  
사랑채·안채 총 16칸  
문간채 4×1칸  
사당 3×1칸  
목재  
안성시 양성면 덕봉길 68-14

지정일 : 2000.04.17  
소유자 : 해주오씨 정무공파 종중  
관리자 : 해주오씨 정무공파 종중



안성 정무공 오정방 고택, 2017\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안성 정무공 오정방 고택>은 해주 오씨 문중의 종택으로 조선중기의 정무공 오정방吳定邦(1552~1625), 천파공 오상吳祥(1512~1573), 충정공 오두인吳斗寅(1624~1689)에 이르기까지 해주 오씨 명현들이 배출된 유서 깊은 곳이다. 오정방은 조선중기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도총부도사로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이괄의 난(1624) 때 왕을 궁주까지 호송하는 공을 세웠다. 이후 병조판서에 추증되고 정무貞武시호가 내려졌다. 고택은 원래 1510년(중종5)에 덕봉리 252번지에 세워졌다가 1650년(효종원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되었다고 한다. 고택은 전면에 문간채와 안채 겹 사랑채가 일곽을 형성하고 사랑채 뒤편에 사당이 별도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안채 영역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사랑채 영역은 경계가 없이 노출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연속하여 단일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문간채에서 이어진 담장을 통해 각각의 영역이 구분된다. 이렇게 ㄱ자형 본채에서 일자一字 부분의 몸채를 길게 연장하여 사랑채를 만들고, 중간에 사잇담을 두어 영역을 구분한 것은 창덕궁 연경당과 유사하다.

안채는 대청 2칸을 중심으로 사랑 쪽으로 건넌방을 두고, ㄱ자로 꺾이는 부분에는 안방, 날개 부분에는 부엌과 광을 두었다. 부엌과 광은 홑집 맞걸이구조로 지붕은 낮으며, 전면을 창호와 벽면 위주로 매끈하게 구성하여 맞은 편 담장과의 사이에 세로로 긴 장방형의 엄격한 공간을 구성하였다. 사랑 부분은 전면과 측면에 툇마루를 만들고 기단을 높게 하여 개방감을 확장하면서 장중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사랑 전면의 기둥은 모를 깎아 팔각으로 만들었으며 난간은 정교하게 ‘뽕자’로 만들었다.

안채 건너방 앞의 툇마루, 부엌 날개부의 다락과 창호, 뒤편 쪽 찬장 구성 등은 전체적인 치목 상태와 함께 높은 수준의 목조건축 기술을 보여준다.

## 의정부 약수선원 목재보살입상

議政府 藥水禪院 木造菩薩立像

조선시대  
1구  
87×21cm  
목재  
의정부시 망월로 58

지정일 : 2001.09.17  
소유자 : 약수선원  
관리자 : 약수선원

<의정부 약수선원 목조보살입상>은 의정부 도봉산 자락에 위치한 약수선원에 봉안되어 있다. 목조보살입상은 연화좌 위에 서 있으며 통견通肩의 대의를 입고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머리에 비해 큰 보관은 여러 가지 꽃문양을 투각으로 새겨 장식한 화관花冠이다. 정수리에는 머리카락을 묶은 보계寶髻가 있으며,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정리하였다. 옆머리는 귀 앞으로 흘러내린 두 가닥의 머리카락이 귓볼을 가로질러 귀 뒤에서 내려오는 머리카락과 하나가 되어 꼬인 다음 어깨 앞쪽에서 두 가닥으로 펼쳐진다. 몸에 비해 머리가 크고, 상체가 짧은 편이다. 얼굴은 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뚜렷하지 않은 눈썹과 부은 듯한 눈두덩, 양끝으로 치켜 올라간 작은 눈, 큰 물방울 같이 생긴 코, 짧고 넓은 인중, 살포시 다문 작은 입을 가지고 있다. 오른손은 가슴 옆까지 들어 올려 엄지와 중지를 교차하여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손바닥을 오른쪽 사선으로 향하게 한 뒤 엄지와 중지를 살짝 교차하였다. 가슴에는 대의 양옆에 고정시킨 꽃문양의 가슴장식이 있으며, 양 팔목에 팔찌를 착용하였다. 법의는 대의大衣·군의裙衣·천의天衣를 걸치고, 가슴을 덮은 승각기僧脚崎를 입고 있다. 대좌는 복판複瓣 연화문으로 된 앙련좌仰蓮座이며, 연꽃 사이에 간엽間葉을 새겼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에는 의정부 약수선원 목재보살입상과 같은 크기·형식으로 만든 목조보살입상(1620년 제작)이 소장되어 있는데, 보살상 내에서 발견된 1897년 개금한 기록에 따르면 약수선원 목조보살입상과 같이 협시상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 2

1. 약수선원 목조보살입상 보관, 2016\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의정부 약수선원 목조보살입상, 2015\_ 의정부시





## 하석 박정 영정

瑕石 朴正 影幀

조선시대

2폭

청관복본 153×82cm

녹관복본 169×90cm

비단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01.09.17

소유자 : 반남박씨 서계공파 종중, 서계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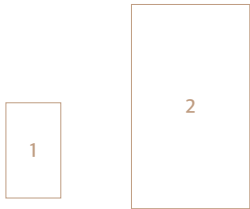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하석 박정 영정>은 박정朴烜(1596~1623)이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 3등에 녹훈된 후 그려진 공신초상화와 이모본移模本 등 2점이 전한다. 한 점은 사모에 청색 단령團領을 입은 전신의좌상全身椅坐像이고, 나머지 한 점은 구름무늬가 들어간 녹색 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은 모습이다. 두 점 모두 사모를 쓰고 단령을 입은 전형적인 공신초상의 구성을 지니고 있다.

청관복본의 백학白鶴과 모란이 그려진 흉배와 삼은대鍬銀帶를 통해 그가 당시 정3품에 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신교서에 ‘通訓大夫 行議政府舍人知製教兼春秋館編修官(통훈대부 행의정부사인지제교겸춘추관편수관)’이라 기록된 박정의 품계 및 관직과도 일치하여, 이 초상이 공신교서가 내려진 1625년에 제작되어 당시 30세였던 박정의 모습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초상의 얼굴과 신체의 2/3정도는 공신초상 제작 당시에 그려졌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 비단을 어어 추가로 그려졌다. 전체적인 화법은 정사공신으로 함께 책록된 ‘이중로李重老 초상’과 매우 유사하다. 얼굴은 일체의 음영법없이 선묘를 중심으로 세부를 묘사하고, 뺨과 코의 열은 붉은 선염을 통해 생동감을 주었다. 낮은 사모형태와 한쪽이 비스듬히 기운 상체 표현, 세부 문양없이 표현된 단령 등은 이 두 초상의 공통된 특징이다. 초상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이 온전히 남아있어 17세기 공신초상의 유형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녹관복본은 청관복본과 얼굴의 형태와 화법이 비슷하여 청관복본의 이모본으로 추측된다. 단령의 옆트임이 양쪽에서 동시에 보이는 점은 18세기 이후 나타나는 특징으로, 얼굴은 원본의 것을 이모하고 복식은 18세기 당시 초상화의 형식을 대입하여 그렸다. 학정금대鶴頂金帶를 착용한 모습은 그가 당시 종2품에 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훼손이 심하지만, 이모본 초상화의 다양한 사례를 살피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1. 하석 박정 영정 녹관복본(이모본), 201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수록사진은 보존처리 전의 모습으로, 2018년 3월 보존처리 완료예정
2. 하석 박정 영정 청관복본(공신초상), 201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인재 홍진 영정

認齋 洪進 影幀

조선시대(1604년)  
1폭  
161×91cm  
비단  
여주시 대신면 대신2로 367-2

지정일 : 2001.09.17  
소유자 : 남양홍씨예사공파중회  
관리자 : 홍연호

홍진洪進(1541~1616)의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자는 희고希古, 호는 인재認齋·퇴촌退村, 시호는 단민端敏이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호종한 공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당흥부원군唐興府院君에 봉해졌다.

<인재 홍진 영정>은 사모와 단령을 입은 모습으로 모란문양이 선명한 사모와 무의 처리가 도식적인 단령, 화면의 1/3을 차지하는 채전 등 전형적인 17세기 공신초상 양식을 지니고 있다. 가슴에는 1품에 해당하는 한 쌍의 공작홍배와 서대를 하고 있으며, 단령의 왼편에는 병부 주머니를 차고 있어 이 초상이 호성공신에 책록되고 판의금부사에 제작하였던 1604년 이후에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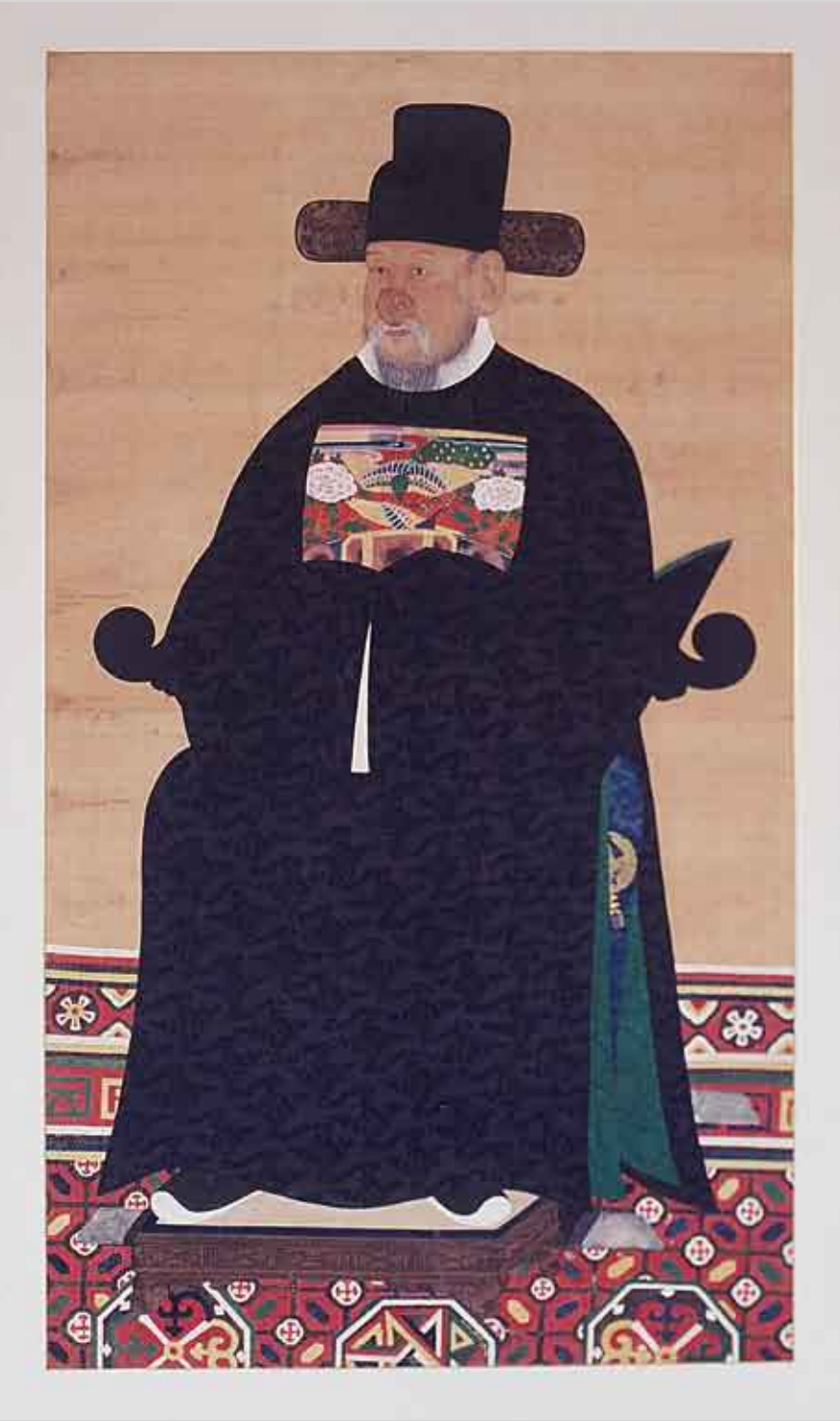
이 초상은 17세기 공신 초상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화법을 보여준다. 특히 안면은 섬세한 선묘를 통해 윤곽과 주름을 표현하였으며, 열은 선염을 능숙하게 구사하여 입체감과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눈의 홍채 주변을 흰색으로 칠하여 인물의 눈빛이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조선시대 초상화의 절정기였던 18~19세기의 표현을 미리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인물에 대한 정직한 사실성 또한 이 초상의 특징이다. 홍진은 평소 술을 좋아하여 코에 주독으로 인한 질병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초상에서 종양이 자란 듯한 코를 묘사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 초상은 17세기 초상의 뛰어난 화법과 정직한 사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볼 수 있다.

1

2

1. 인재 홍진 영정 안면부, 촬영일미상. 경기도  
2. 인재 홍진 영정, 촬영일미상. 경기도





## 안성 죽림리 삼층석탑

安城 竹林里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363cm  
석재(화강암)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지정일 : 2002.04.08  
소유자 : 강성원  
관리자 : 칠장사

1  
2 3

1. 성원목장 내 안성 죽림리 삼층석탑, 2005년 이전, 문화재청
2. 죽림리 삼층석탑 1층 탑신,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죽림리 삼층석탑,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안성 죽림리 삼층석탑>은 단층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일반형 석탑이다. 이 석탑은 성원목장 안에 건립되어 있던 것을 2005년 11월 28일에 칠장사 대웅전 앞에 이전 복원하였다.

4매의 판석으로 조성된 지대석 상면에 높직한 호각형 2단의 받침을 조출하고 기단을 구축했다. 기단 역시 4매의 판석으로 조성했는데, 양 우주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기단 면석의 내면은 배불림을 크게 주어 속채움재와 더불어 탑신에서 전달되는 수직하중을 분산시키도록 치석했다. 1매의 판석으로 조성된 기단 갑석의 상면에는 높직한 호각형 2단의 받침을 조출해 1층 탑신을 받고 있다. 탑신부는 1층 탑신석을 제외하고 탑신석과 옥개석은 1매이다. 1층 탑신석은 2매의 석재로 만들었는데, 일면에는 좌·우에 원형의 문고리가 조식된 문비門扉가 조각되어 있다. 탑신석의 각 면에는 탑신석에 비해 좁게 조출된 양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3층 탑신은 비례로 볼 때 새로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1층은 4단, 2·3층은 각각 3단의 받침이 조출되었다.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는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에 이르러 낮은 반전을 보이고 있다. 낙수면 길이는 처마에 비해 짧게 조성되었고, 경사는 완만하다. 정상에는 판석이 놓여있는데, 노반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석탑은 2매로 조성된 1층 탑신에 문비가 조각되고, 옥개석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

楊平 砥平理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251cm  
석재(화강암)  
양평군 지평면 역말4길 58

지정일 : 2002.04.08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양평군

1 2 3  
4 5

1.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동(아촉불),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서(보생불),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남(불공성취불),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5. 북(아미타불),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은 1945년 현재의 위치(지평초등학교)로 옮겨져 2001년 복원되었다. 원래 지평리 야산에 있었다고 전하나 원위치는 알 수 없다. 석탑은 기단부가 결실되어 있으며 탑신부와 상륜부 일부가 남아있다. 1층 탑신석 사면에는 불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2층과 3층 탑신석은 최근에 새로 만든 것이다. 옥개석은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안정적인 체감율을 보이며 상륜부는 노반으로 추정되는 방향의 돌과 보개가 있다.

이 석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1층 탑신석 4면에 조각된 불상이다. 1층 탑신석 면석에 불교의 방위불인 사방불을 조각한 것은 탑의 중심인 비로자나불을 상징적으로 포함하는 오방불의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놓인 위치에서 볼 때 동면에는 아촉불, 서면에는 오른손을 무릎 끝부분에 대고 있는 보생불, 남면에는 시무외인을 결한 불공성취불, 북면에는 전법륜인을 결한 아미타불이 자리하고 있다. 사방불의 배치는 방위와 존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나 동면 아촉불을 중심으로 왼쪽 방향으로 돌리면 아미타불, 보생불, 불공성취불이 동서남북의 순으로 배열되었다.

석탑의 조성시기는 1층 탑신의 불상 부조가 9세기 후반 조성된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의 불상 부조보다 양감이 적고, 손가락의 표현의 형식적으로 표현된 점과 옥개받침이 5단인 통일신라 석탑과 달리 4단으로 조성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통일신라 전종을 계승한 고려시대 초기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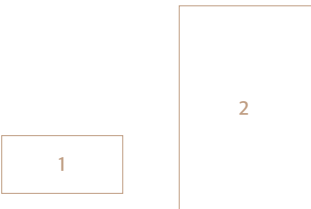


# 쌍계사 목조여래좌상

雙溪寺 木造如來坐像

조선시대  
1구  
122×52.5cm  
목재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길로 1171

지정일 : 2002.08.16  
소유자 : 쌍계사  
관리자 : 쌍계사



1. 쌍계사 목조여래좌상,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쌍계사 목조여래좌상 좌측면,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쌍계사 목조여래좌상>은 대부도 대금산大金山 동쪽에 위치한 쌍계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다. 쌍계사는 「정수암성조기淨水庵成造記」의 현판에 의하면 1689년(숙종15)에 죽헌竹軒이 정수암淨水庵을 창건하였고, 1722년에 폐사되었다가 1745년(영조21)에 이 절터에 다시 절을 세워 쌍계사라고 한다. 경내에서 1576년(선조9) 기와가 발견되어 오래전부터 이곳에 절이 경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목조여래좌상은 불신에 비해 머리가 큰 조선후기 불상의 특징을 따르고 있으며, 어깨와 다리가 이루는 신체비례가 적당하여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결가부좌한 자세에 왼손을 가슴 앞으로 들고, 오른손은 다리 위에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데 원래 아미타인의 손모양과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어 삼존상의 좌협시일 가능성이 있다. 나발을 불인 머리는 위로 솟아 높고 육계와의 경계에 둥근 중간계주, 정수리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각각 두었다. 네모진 얼굴은 양 볼에 살집이 지나쳐 볼록해 보이며, 수평으로 그눈 눈썹선과 이어지는 오뚝한 코, 넓은 인중선과 입가를 파내어 둥근 턱을 표현하는 등 전체적인 인상이 생경하면서도 독특하다. 법의는 오른쪽 어깨에 복견의覆肩衣 걸치고 그 위에 대의를 돌려 입은 형식으로 오른쪽 어깨의 대의자락 끝단은 너울거림이 돋보이며, 오른쪽 어깨에서 내려오는 복견의의 옷주름도 구불거림이 강하다. 가슴아래의 입은 승각기는 작은 5개의 연잎으로 접어 단순하게 모양을 내고 양 다리 사이에 옷주름은 깊고 두꺼운 편으로 가운데 자락의 끝이 대담하게 S자를 그리며 흘러내린다. 전체적으로 강약 대비가 강한 옷주름 표현으로 율동감과 생동감을 주었으며, 마치 소조불상처럼 자유자재로 나무를 다루어 회화적인 조각 솜씨가 돋보인다. 이 목조여래좌상은 독특한 인상, 요철이 심한 옷주름 등의 표현이 생동감 있고, 회화적이며, 현재 조사된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불상특징과는 차이가 있다. 조성자 등을 알 수 없지만 조선후기 불교조각 양식, 조각승의 유파 등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라 생각된다.





## 쌍계사 현왕도

雙溪寺 現王圖

조선시대(1803년)  
1폭  
109.3×77.5cm  
비단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171

지정일 : 2002.09.16  
소유자 : 쌍계사  
관리자 : 쌍계사



- ① 현왕(보현왕여래)
- ② 일산을 든 동자
- ③ 파초선을 든 동자
- ④ 전륜성왕
- ⑤ 판관과 녹사
- ⑥ 대륜성왕
- ⑦ 어피인궤합

<쌍계사 현왕도>는 안산 쌍계사에 봉안된 조선후기의 현왕도이다. 1803년(가경8) 도성암道成庵 노전燼殿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화승 유선有善이 조성하였다.

현왕은 보현왕여래普賢王如來를 일컫는 말로서, 시왕이 죽은 후 7일부터 망자를 심판하는데 비하여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를 심판하는 왕이다. 『석문의범釋門儀範』 현왕청現王請에 의하면 현왕은 명부회주인 보현왕여래로서 대범천왕大梵天王·제석천왕帝釋天王·대륜성왕大輪聖王·전륜성왕轉輪聖王·사천왕四天王·선악동자善惡童子·판관判官·녹사錄事·감재직부사자監齋直符使者 등을 권속으로 두고 있다. 또 『권공제반문勸功諸般文』 등 의식집에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위해 사후 3일 만에 지내는 천도재薦度齋인 현왕재現王齋의 주존으로 등장한다.

쌍계사 현왕도는 직사각형의 화면에 팔곡병八曲屏을 배경으로 현왕과 그를 보좌하는 인물들이 표현되어 있다. 현왕은 오른쪽으로 몸을 돌린채 경책經冊이 올려진 관을 쓰고 붉은 도포를 입고 있으며, 호랑이 가죽을 덮은 의자에 앉아있다. 두 손으로는 홀을 잡고 있는데, 현왕 앞 책상에는 벼루와 연적, 필기구 등 문방도구와 어피인궤합魚皮印櫃盒 등의 다양한 물건들이 놓여 있다. 질고 긴 눈썹과 구불구불한 코, 꼭 다문 입, 눈두덩이가 강하게 묘사된 눈, 덩수룩한 턱수염 등에서 재판관으로서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현왕의 어깨 양 옆에는 일산日傘과 파초선芭蕉扇을 쓴 동자가 배치되었고, 그 아래로 대륜성왕과 전륜성왕, 좌의 기록을 적은 두루마리와 장책粧冊을 든 판관과 녹사가 표현되어 있다.

채색은 붉은색과 녹색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두 색의 강한 대비가 돋보인다. 각 단 원편과 오른편 인물들이 걸친 의복에는 붉은색과 녹색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였다. 얼굴과 손을 백색으로 칠한 것은 18세기 후반 불화의 채색법을 따르고 있으며, 현왕의 관과 탁자 위의 합 등에 부분적으로 금니를 칠하였다.

유선은 18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경기도에서 활동한 화승畫僧으로, 이 불화에 증명으로 참여한 용봉당 경환龍峰堂敬煥과 함께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공장조工匠條에 수원부水原府의 화승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존하는 현왕도 중 1718년에 제작된 기림사 현왕도가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인 것으로 보아 현왕도는 18세기 이후 망자천도亡者薦度의식이 성행함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불화로 생각된다. 이 현왕도는 서울, 경기지역에 현존하는 현왕도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서울·경기지역 현왕도 도상의 성립과정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쌍계사 현왕도, 2017\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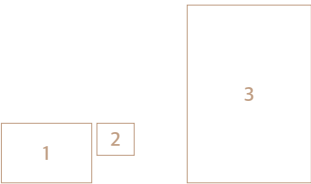


## 현등사 목조아미타좌상

懸燈寺 木造阿彌陀坐像

조선시대  
1구  
138.5×78cm  
목재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34

지정일: 2002.09.16  
소유자: 현등사  
관리자: 현등사



1. 현등사 목조아미타좌상, 2013.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 아미타좌상 바닥면 개금발원문, 2013. 금강문화유산연구원
3. 현등사 목조아미타좌상 우측면,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현등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운악산 현등사 극락전極樂殿에 봉안된 중대형의 불상으로, 어깨를 펴고 고개를 약간 숙인 전형적인 조선 후기 불상 양식을 따르고 있다. 머리에는 소라 모양의 촘촘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肉髻가 낮게 솟아 있다. 이마 위에는 타원형의 중앙계주中央髻珠가, 정수리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가 표현되어 있다. 얼굴은 타원형으로 가늘게 뜬 눈에 코는 원통형이며 입에는 약간의 미소를 머금고 있다. 두툼한 눈두덩이와 넓은 인중은 이 시기에 제작된 다른 목조불상과 차이가 느껴져 주목된다.

두꺼운 대의자락은 오른쪽 어깨를 짧게 덮고 반달모양으로 접힌 후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왼쪽 어깨의 대의자락은 수직으로 내려와 배에서 편삼偏衫과 겹쳐져 U자형을 이루고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중앙에서 수직으로 흘러내린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여러 겹 접혀있다. 대의 안쪽에 오른쪽 어깨를 덮은 편삼을 입고, 가슴을 가린 승각기僧脚崎를 수평으로 착용하고 있다. 불상의 뒷면은 목 주위에 대의를 두르고, 왼쪽 어깨 앞에서 넘어온 대의 자락이 연판형蓮瓣形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양손은 별도로 제작하여 손목에 끼웠는데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고 있으며 왼손은 무릎 위에 놓았다. 양손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결하고 있다. 대좌는 앙련仰蓮으로 이루어진 연화좌蓮華座와 삼단三段으로 이루어진 팔각대좌八角臺座가 쌍을 이룬다.

불상의 바닥면에 둥근 구멍이 뚫려있는데, 뚜껑과 복장물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후불탱으로 걸려 있던 아미타회상도(현재 寶光殿 보관)에 “1759년(영조35)에 아미타불阿彌陀佛을 개금改金하고, 미타회상도彌陀會上圖 1부를 조성하였다”는 화기畵記가 남아있어 1759년 이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등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기년명 불상에서 볼 수 있는 당당한 신체와 자연스러운 대의 처리 등이 유사하여 수연守衍스님이나 그 계보에 속한 작가가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 현등사 청동지장보살좌상

懸燈寺 靑銅地藏菩薩坐像

조선시대  
1구  
54.5×32.5cm  
금속(청동)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34

지정일 : 2002.09.16  
소유자 : 현등사  
관리자 : 현등사

<현등사 청동지장보살좌상>은 운악산 현등사 지장전에 봉안되어 있는 청동제 지장보살상으로, 전체적인 신체비례가 좋아 안정감이 있다. 머리는 앞으로 숙이고 결가부좌의 자세에 오른손에는 둥근 보주를 쥐고 있으며, 왼손은 손등을 위로 하여 다리 위에 살포시 두었다.

머리에는 두건의 가장 자리를 한 번 접어 쓰고 이를 묶은 끈과 두건 자락이 어깨까지 길게 내려와 있다. 양 볼이 통통한 방형 얼굴에 곡선을 그리는 눈썹선과 이어지는 삼각형의 코, 볼룩한 눈꺼풀과 가늘게 뜬 눈,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도톰한 입술을 특징으로 전체적인 인상이 차분하면서도 인자해 보인다. 두건 밖으로 드러난 양쪽 귀는 귓불에 큰 꽃모양의 귀걸이를 하고 있다.

법의는 오른쪽 어깨에 복건의覆肩衣를 걸치고 그 위에 다시 대의를 둘러 입었으며, 오른쪽 어깨에 대의 끝단이 지그재그형을 이루는 것은 새로운 특징으로 주목된다. 가슴 아래로 내려입은 승각기僧脚崎는 수평이며, 배 앞의 복건의와 대의는 서로 대칭되게 교차하였다. 다리 사이에 옷주름은 가운데 굽은 주름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왼쪽 다리 위에 옷자락은 크고 대담하게 접어 끝단을 힘있게 지그재그형으로 표현한 것은 오른쪽 어깨의 끝단처리와 더불어 매우 개성 있게 표현했다. 대좌는 양련과 복련을 서로 맞댄 이중대좌이며, 연잎은 중판복엽重瓣複葉으로 연잎 사이에 간엽間葉이 있는 모양이다.

불상 바닥면에 음각된 조성기造成記에 따르면 1790년(정조14) 지장암地藏庵에 봉안하기 위해 관허당 설훈觀虛堂雪訓과 용봉당 경환龍峰堂敬還이 제작한 것이라 한다. 이 상이 조선후기 다른 불상과 달리 대담하면서도 독특한 옷주름 표현 등이 가능한 것은 이 상을 조성한 설훈과 경환이 모두 불상과 불화를 다룰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753년(영조29) 간행된 「숙빈상시봉원도감의궤淑嬪上諡封園都監儀軌」을 보면 설훈은 남한산성 화승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758년(영조34) 여주신록사 극락보전 삼장보살도와 경북 의성 고운사 사천왕도를 그렸고, 1765년(영조41) 서울 봉은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과 1773년(영조49) 합천 해인사 법조전 본존상을 개금했다. 또한 1784년(정조8) 김천 직지사 천불전 불상 제작 등 불상과 불화 제작에 참여했다. 용봉당 경환 역시 1764년(영조40) 건원릉 정자각 중수와 1776년(영조52) 영조 원릉 조성소 화승으로 참여했으며, 1780년(정조4)에는 설훈과 남양주 봉선사 대웅전 불상을 중수·개금했다. 『불사성공록佛事成功錄』에는 경환도 경성양공京城良工으로 기록되어 두 화승 모두 서울·경기지역의 양공으로 활동 범위가 전국적이었다.

현등사 지장보살상은 피건형의 지장보살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비례감, 머리의 두건, 지그재그형 옷주름 표현 등 표현기법이 대담하고 세련되며, 조선후기 전형적인 특징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불화·불상의 장르를 불문하고 능숙한 솜씨를 발휘한 두 화승의 조각적 역량이 뛰어난을 짐작케 하며, 금속이라는 재료적인 면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로 당시 주조기술을 알 수 매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5			
1	2	3	4

1. 현등사 청동지장보살좌상, 2013.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 우측면,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정면,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좌측면,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바닥면 조성기, 2013. 금강문화유산연구원





# 현등사 아미타회상도

懸燈寺 阿彌陀會上圖

조선시대(1759년)  
1폭  
265×298cm  
비단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34

지정일 : 2002.09.12  
소유자 : 현등사  
관리자 : 현등사

<현등사 아미타회상도>는 운악산 현등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화이다. 두루마리 형태로 상단부는 변색되었고 부분적인 안료박락顔料剝落이 관찰된다.

정방형正方形에 가까운 화면의 중앙에는 아미타부처가 연화대좌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하고 있으며, 하단 좌우에는 백의관음白衣觀音과 청색 가사袈裟를 걸친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을 비롯한 보살들을 화면중단까지 사선으로 배치하였고, 그 옆으로 사천왕을 상하로 배치하였다. 키형 광배 주변에 십대제자와 성중 등을, 그 위로 용왕龍王·아수라阿修羅·가루라迦樓羅·건달바乾闥婆 등 팔부신장八部神將을 배치하여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군집구도群集構圖를 보여준다.

키형 광배를 배경으로 연화좌에 결가부좌한 아미타부처는 가름한턱에 작은 이목구비耳目口鼻가 간격이 넓다. 원무늬가 장식된 붉은 대의를 걸친 아미타부처는 양 어깨가 넓어 안정감을 준다.

비단위에 붉은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청색과 황색, 호분을 사용하여 화면이 밝고 따듯하다.

화면 하단 중앙에 기록된 화기畵記에 의하면 1759년 현등사에 봉안하기 위해 아미타불상을 개금蓋金할 때 조성하였고, 오관悟寬·혜관惠寬·민오敏悟·사계師戒·원계垣桂·송식松湜·홍정弘淨·오징梧澄·봉원鵬垣 등 9명의 화원이 그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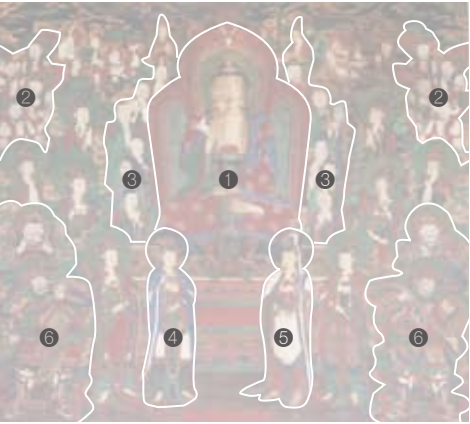
1

2

1. 현등사 아미타회상도 세부, 2013.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 현등사 아미타회상도, 2013. 금강문화유산연구원



① 아미타불  
② 팔부신장  
③ 10대 제자  
④ 대세지보살  
⑤ 관음보살  
⑥ 사천왕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86호

## 의정부 회룡사 오층석탑

議政府 回龍寺 五層石塔

조선시대  
17기  
높이 330cm  
석재(화강암)  
의정부시 전좌로155번길 262

지정일：2003.04.21  
소유자：회룡사  
관리자：회룡사

<의정부 회룡사 오층석탑>은 단층기단 위에 오층탑신을 조성한 석탑이다. 지대석 상면에는 높은 단을 조성하고 각 면에는 5구씩의 안상을 새겼다. 기단은 하대석·중대석·상대석으로 구성되어 불상의 대좌형식을 보이고 있다. 하대석의 각 면에는 4개의 장방형 구획을 나눈 후 내부에는 각각 안상을 새기고 상면에는 복엽복관複葉覆瓣 연화문을 각 면에 5구씩, 측면에 1구씩 모두 24판의 복련伏蓮을 조각하였다. 중대석에는 각 면을 3개소의 장방형으로 구획하였는데, 내부에 조각장식은 없다. 상대석의 하면에는 하대석과 같은 형식의 24판 양련仰蓮을 조각하였고, 측면에는 각각 4개소의 장방형으로 구획하고, 내부에 안상을 새겼다. 상면에는 3단의 받침을 두고 중단에 연화문을 조각하였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하나의 돌로 만들었으며 탑신석은 하단이 상단에 비해 넓게 조성되었는데, 각 면에는 3개소의 장방형 구획을 새겼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낮은 각형 받침을 조출하였다. 추녀는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며 원형을 보이고 있는데, 전각에 이르러 경쾌한 반전을 보이고 있다. 낙수면의 경사는 비교적 완만하며 합각부를 두툼하게 조성해 지붕의 내림마루를 구현하였다. 옥개석의 상면에는 각형 2단의 받침을 마련해 상층의 탑신석을 받고 있다. 1층 옥개석은 파손된 부분을 복원하였고, 2층 탑신석은 새로 제작하였다.

이 석탑은 기단부가 불상의 대좌형식을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회룡사는 무학대사와 연관이 있는 사찰로서, 석탑의 전체적인 양식과 각 부에 새겨진 연화문과 안상 등의 특징으로 볼 때 조선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정부 회룡사 오층석탑,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87호

## 계갑일록 및 관련문서

癸甲日錄 및 關聯文書

조선시대(1583~1584년)  
5점  
계갑일록 31×22cm  
우성전 증직교지 65.5×102.2cm, 68×92cm, 57×101.5cm  
우성전 증시서경단자 51.3×72.2cm  
종이(닥종이)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96

지정일：2003.04.21  
소유자：우철희  
관리자：화성시향토박물관(위탁)



1  
2 3

1. 계갑일록 표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계갑일록 내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시호서경완의,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계갑일록』은 조선 선조대의 문신이자 의병장인 추연秋淵 우성전禹性傳(1542~1593)이 기록한 일기이다. 관련문서로는 우성전 사후에 관직을 추증받은 교지 2점과 시호를 하사받은 교지 1점 그리고 사간원에서 발급한 우성전의 시호서경완의諡號署經完議 1점이 있다. 우성전의 본관은 단양丹陽이고, 자는 경선景善이며, 호는 추연秋淵 또는 연암淵庵이다. 예문관검열과 수찬修撰 등을 거쳐 수원현감을 지냈으며, 동인東人과 남인南人으로 활약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고 난민을 구제하였으며 강화도에서 김천일金千鎰(1537~1593)과 합세해 전공을 세웠다. 권율權慄(1537~1599)이 수원 독성산성秀城山城에서 고양 행주산성에 이르자 의병을 지원한 공로로 대사성에 제수되었으며 사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계갑일록』은 우성전이 1583년(선조16) 6월 1일부터 1584년 8월 30일까지 약 15개월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겪은 사실을 일기체 형식으로 기술한 책이다. 1583년 계미년癸未年과 1584년 갑신년甲申年の 앞 글자를 하나씩 따와 『계갑일록』이라 하였다. 이 시기 정국은 동인과 서인 간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동시에 남인과 북인의 분당 조짐이 보이던 당시 상황을 가장 상세히 기술한 대표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원래 서명은 『추연일기秋淵日記』이나 개장하면서 『추연선생일기秋淵先生日記』로 바뀌었다. 일기의 말미에는 1600년 서에 류성룡西厓柳成龍(1542~1607)이 지은 발문跋文과 달천 윤국형達川尹國馨(1543~1611)의 「문소만록聞韶漫錄」 기사 그리고 성호 이익星湖李瀾(1681~1763)의 후서後序가 첨부되어 있다.

교지 3점은 우성전을 이조참판에 추증하는 1788년(정조12) 4월의 교지와 이조판서에 추증하는 1791년 정월의 교지 그리고 1793년 12월 ‘문강文康’이라는 시호를 내린 교지이다. 이 밖에 1793년 12월 사간원司諫院에서 우성전에게 시호를 내려도 좋을지 그 자격을 심사하고 동의한 시호서경완의諡號署經完議 1점도 남아 있다.





고양 봉성암  
전성능대사 부도  
高陽 奉聖庵 傳性能大師 浮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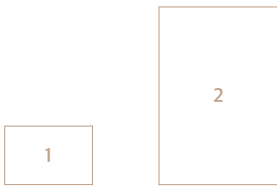
조선시대  
1기  
높이 313cm  
석재(화강암)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204

지정일 : 2003.09.08  
소유자 : 봉성암  
관리자 : 봉성암

<고양 봉성암 전성능대사 부도>는 북한산성을 축조하고 중흥사에 주석한 성능대사의 것으로 전해지는 부도이다. 봉성암은 1713년(숙종39) 북한산성 축성과 수비를 위해 건립된 12개 사찰 중 하나이다. 부도의 주인공인 성능聖能은 성능性能으로도 문헌에 등장하며, 호는 계파桂坡이다. 화엄사華嚴寺 각성覺性 문하에서 3년 동안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고 장육전丈六殿 공사를 1699년(숙종25)에 시작하여 3년 만에 완공하였다.

성능은 1711년(숙종37) 팔도도총섭八道都總攝의 직위를 받고 한양 수비의 요충인 북한산성을 축성하였는데 9개월 만에 완료하였다. 다시 화엄사로 돌아온 그는 『산성기사山城紀事』를 집필하였고, 『북한지北漢誌』를 편각하여 1745년(영조21) 신임 도총섭인 서봉瑞鳳에게 인계하였다. 그 뒤에도 화엄사에서 『화엄경華嚴經』 판각 불사를 주도했으며, 통도사로 옮겨 통도사 석가여래영골사리탑비를 세우고 계단탑戒壇塔을 증축하였다.

부도는 서향으로 배치됐는데, 고려시대 여러 고승의 탑비에 사찰 서쪽 300보에 장사지냈다는 기록을 통해 서방극락정토를 상징하는 장소에 건립한 것으로 추측된다. 팔각원당형 부도로 지대석은 거칠게 치석한 석재 4매로 만들고 그 위에 상대·중대·하대 기단을 놓았다. 하대석 측면에는 구획선을, 상면 모서리에는 합각선을 표현하였으며 중앙에는 원형으로 2단 받침을 조각한 후 납작한 원구형 탑신석을 올렸다. 팔각형 상대석은 하부에 낮은 각형 2단 받침을 표현하고, 측면에 음각선을 새겼다. 상면에는 팔각의 낮은 탑신석 받침이 있다. 탑신석은 팔각이며 옥개석은 하부에 각호각각형角弧角角形 4단의 받침과 호형으로 넓은 1단 받침을 이용해 층급을 표현하였다. 각 모서리마다 부연副椽을 새기고, 낙수면은 좁고 깊게 표현하였으며 합각부에는 우동을 크게 표현한 후 처마면에 꽃문양을 음각하였다. 상륜부는 원형 북받 위로 보륜과 연화문이 조각된 보주를 올렸다.



1. 고양 봉성암 전성능대사 부도 전경, 2016  
\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봉성암 전성능대사 부도, 2016  
\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고양 흥국사 괘불

高陽 興國寺 掛佛

1902년

1폭

괘불 598×359cm

괘불함 37×389×3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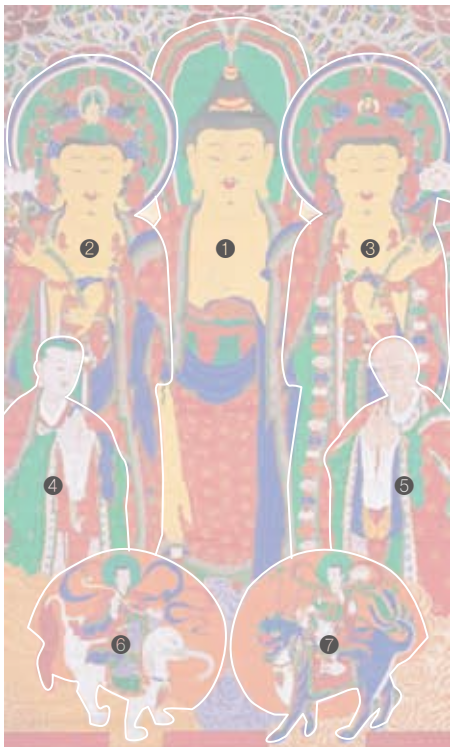
비단, 목재

고양시 덕양구 흥국사길 82

지정일 : 2003.09.08

소유자 : 흥국사

관리자 : 흥국사



- ① 아미타불
- ② 대세지보살
- ③ 관음보살
- ④ 아난존자
- ⑤ 가섭존자
- ⑥ 보현보살
- ⑦ 문수보살

<고양 흥국사 괘불>은 1902년에 경기도 일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경선 응석慶船應釋과 12명의 화승畫僧들이 그렸다. 화기畵記에 고종의 후궁인 순비 엄씨淳妃嚴氏가 발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만 고종, 그리고 황태자 내외, 아들 영친왕英親王과 자신의 안녕을 위한 축원 내용이 있어 엄비嚴妃가 발원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양 흥국사에서 이 괘불 조성이 끝나고 엄씨의 후원으로 영친왕의 안녕을 위한 만일염불회萬日念佛會가 이루어졌던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괘불은 아미타불과 관음·대세지보살의 아미타삼존을 화면 중심에 크게 배치하였고, 가섭과 아난존자를 화면 중반 아래쪽에 작게 표현하였다. 화면 하단의 큰 원 안에 청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과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을 동자형의 모습으로 그렸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울·경기지역에는 아미타정토신앙이 유행하여 아미타불을 주 도상으로 그린 괘불이 다수 조성되었다. 이는 20세기 초반 역사와 정치의 격변기에 사회적 불안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염원했던 당대의 불교 신앙을 반영한다.

흥국사 괘불은 석가모니불의 제자인 가섭과 아난존자, 문수와 보현보살을 주존불의 도상과 관계없이 아미타계 불화에 삽입하였으며 문수와 보현보살은 머리를 두 갈래로 묶은 동자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아미타불이 오른손을 길게 내려 내영인來迎印을 취하고 왼손은 중품하생인中品下生印을 취하고 있는 도상은 1853년 삼각산 내원암에서 중봉 혜호中峰慧皓가 판각하여 간행된 『아미타경요해阿彌陀經要解』의 권두卷頭 변상에서 같은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 이 도상의 전거典據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아미타칠존을 묘사한 아미타괘불은 고양 흥국사 괘불을 비롯하여 20세기 초반 이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다수 조성되어 이 시기 아미타괘불의 전형적인 도상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괘불의 바탕천은 수입산 면을 사용하였는데, 개항 이후 구매력있는 왕실이나 경제적 상류층 등이 수입산 면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던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고양 흥국사 괘불, 촬영일미상\_정보문화재연구원



##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

高陽 祥雲寺 木造阿彌陀三尊佛

조선시대(1713년)

3구

아미타불좌상 57×40cm

대세지보살좌상 55.4×33cm

관음보살좌상 40.5×25.5cm

목재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197-22

지정일 : 2003.09.08

소유자 : 상운사

관리자 : 상운사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상운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다. 본존상인 아미타여래와 좌협시인 관음보살상은 조각기법이 동일한 반면 우협시인 대세지보살상은 크기와 조각기법이 달라 다른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존인 아미타여래좌상은 불신에 비해 머리가 크며, 방형의 상반신에 적당한 다리 폭으로 신체비례가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결가부좌한 자세에 손모양은 양다리 위에 살짝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댄 아미타인을 하고 있다.

머리는 육계와 경계가 없이 가운데에 중간계주, 정수리에는 정상계주를 각각 두었다. 둥근 얼굴에 수평으로 가늘게 그은 눈, 콧등이 둥근 큼직한 코, 가늘고 긴 입술에 희미한 미소로 단정하면서도 인자한 인상을 느끼게 한다.

법의는 오른쪽 어깨에 복건의覆肩衣를 걸치고 그 위에 다시 대의를 둘러 입었는데 오른쪽 어깨에 물방울 모양의 대의주름 하나가 크게 강조되어 있으며, 가슴 아래에 입은 승각기僧脚崎는 가운데를 수평으로 접어 아래쪽을 굽고 도드라지게 조각하여 모양을 내었다. 배 앞의 복건의의와 대의는 대칭으로 서로 교차되어 있다. 다리사이 부채모양의 옷 주름 표현, 왼쪽 다리 위에 무릎을 감싼 넓적한 옷자락 표현은 이 불상에서 주목되는 특징이다.



좌협시의 관음보살상은 본존상에 비해 작은 규모로 협시상을 작게 하여 격을 달리 표현하는 조선 후기 특징을 따르고 있다. 머리에는 높고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고, 오른손은 다리 위에 두고 왼손은 가슴 앞으로 연가지를 받쳐 들고 있다.

우협시인 대세지보살상은 두 상에 비해 16cm 이상 작고, 얼굴·법의 등 표현기법에 차이가 있다. 머리와 가슴을 앞으로 숙인 상반신에 양손으로 연가지를 받쳐 든 모습으로 좌협시와 대칭을 이룬다. 옆으로 벌어진 낮은 보관을 쓰고 보관 위로 쌍계형의 보개가 드러나는 것은 관음보살상의 높고 화려한 보관과는 차이가 있다. 턱이 가름한 얼굴에 사선으로 올라간 눈, 작고 뭉툭한 코, 입 끝이 살짝 올라간 작은 입술을 특징으로 하며 아이 같은 귀여운 인상이다. 끝이 뽀족해진 배 앞 복건의의 옷자락과 다리 사이로 길게 좌대 바닥까지 내려온 옷주름은 두 상과는 또 다른 특징이다.

삼존상에 대한 기록은 본존과 좌협시인 관음보살상에서 확인되었는데 관음보살상 대좌 뒷면의 묵서 조성기에는 강희 52년(1713) 노적사露積寺 별실에서 조성해 극락보전에 좌보처 관음을 봉안했으며, 진열進悅·영희靈熙·태원太元·처림處林·청휘淸徽가 조성했다는 내용이 있다. 본존인 아미타상의 대좌 명문은 개금증수에 관한 것으로 옹정 8년(1730)에 아미타삼존상을 백기白基·현특玄特이 개금해 상운사祥雲寺에 봉안했다는 것이다. 조성기에 보이는 노적사는 상운사와 같은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운사는 1745년 『북한지北漢誌』에 북한산성 축조 후 건립된 11개의 사찰 중 하나로 1722년에 창건되었다고 하고, 1813년 ‘상운사극락전중창기祥雲寺極樂殿重創記’와 1943년 안진호의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에도 노적사로 출발하여 1722년 회수懷秀가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한국사찰전서韓國寺刹全書』에도 노적사露積寺는 곧 삼각산 상운사祥雲寺로 기록되어 있어 노적사는 1722년에 상운사로 다시 개창되었으며, 삼존상도 함께 조성하여 봉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2 3 4

1.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우협시 대세지보살상,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아미타여래좌상,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좌협시 관음보살상,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이인엽 영정

李仁燁 影幀

조선시대  
2폭  
관복본 150.7×86.3cm  
유복본 81.0×60.5cm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03.09.08  
소유자 : 경기도박물관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이인엽 영정>은 조선후기의 문신 이인엽李寅(1656~1710)을 그린 초상 2점이다. 이인엽의 자는 계장季章, 호는 회와晦窩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좌의정을 지낸 이경억李慶億의 아들로 30세가 되던 1686년(숙종22) 정시문과에 급제한 이후 좌의정과 이조판서, 홍문관 대제학까지 두루 지냈다. 이인엽의 초상은 관복본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과 유복本儒服本 반신초상화이다. 이 두 점은 복식은 다르지만 얼굴의 형태는 거의 차이가 없다. 하나의 얼굴 모본을 두고서 여러 점을 베껴 그린 것으로 추측된다. 관복본은 사모에 아청색 단령團領을 입고 의자에 앉은 전신교의좌상이다. 두 손을 길게 늘어진 소매 안에서 맞잡았다. 흉배는 정2품의 쌍학흉배雙鶴胸背에 삼금대鍬金帶를 매었고, 녹색조가 강한 단령은 구름무늬를 정교하게 그렸으나 신체의 굴곡에 따른 입체감이 전혀 없는 평면적인 경향이 강하다. 의자에는 호랑이가죽이 깔렸다. 얼굴은 오른쪽으로 약간 돌린 상태이며, 세선細線으로 이목구비의 윤곽을 잡고 채색하였다. 눈가의 쌍꺼풀과 주름 등에 음영을 넣은 점은 부분적이지만 서양화법이 반영되었음을 알려주는 특징이다. 그림의 오른쪽 위에 ‘監賑御使李公寅燁(감진어사이공인엽)’이라 적혀 있다. 이인엽은 42세 때인 1697년(숙종23) 평안도의 기근을 살피기 위해 감진어사로 파견된 적이 있다. 유복본 반신상은 방건方巾에 직령포를 갖추었고, 허리에는 당상관용인 홍색의 세조대細條帶를 매었다. 얼굴의 형태와 표정은 관복본과 유사하지만, 음영처리, 간결한 선묘, 수염과 눈동자의 생기 있는 표현 등이 인물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오른쪽 윗부분에 보이는 예서체의 글씨는 별지에 써서 그림에 붙인 것이다. 이인엽 초상은 1700년을 전후하여 나타난 음영법 등 새로운 화법과 전통적인 초상양식이 반영된 과도기적인 특징을 지녔다. 18세기 이전의 초상화가 지닌 모정帽頂이 높은 사모, 선묘에 의한 얼굴의 형태 묘사, 바닥에 채전彩氈을 그리지 않은 점 등이 주요 특징이다.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선비 초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

2

1. 이인엽 영정 유복본, 촬영일미상. 경기도박물관  
2. 이인엽 영정 관복본, 촬영일미상.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92호

## 요지연도 瑤池宴圖

조선시대  
8폭  
각폭 134.2×47.2cm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03.09.08  
소유자 : 경기도박물관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요지연도〉는 곤륜산崑崙山 요지瑤池에 거처했던 서왕모西王母가 자신을 방문한 주나라 목왕周穆王을 위해 열었던 연회 장면의 그림이다. 서왕모는 『산해경山海經』에 ‘표범의 꼬리에 호랑이 이빨’을 한 반인반수의 신적인 존재로 묘사되었으나 위진남북조시대의 『한무고사漢武故事』, 『한무제내전漢武帝內傳』 등 도교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여신전의 모습으로 확고해졌다. 주나라 목왕과의 연회 장면은 목왕의 여행기인 『목천자전穆天子傳』 등에서 기인하였다. 연회 장면에 초대된 여러 신선들은 원나라 이후부터 등장하는데, 명나라 초기 주유돈朱有敦(1397~1439)의 「요지회팔선경수瑤池會八仙慶壽」, 「군선경수반도회君仙慶壽蟠桃會」 등에 팔선八仙을 비롯한 많은 신선들이 초대받아 함께 즐기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서왕모나 요지 등은 최치원崔致遠(857~?)의 글에서 확인되듯이 일찍부터 인지되었으며 조선시대까지 많은 시문을 통해 축수祝壽의 상징을 지닌 길상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요지연도는 정문부鄭文孚(1565~1624)의 시문을 통해 조선 17세기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숙종이 요지대회도瑤池大會圖를 감상했던 사실과 요지연도를 1800년 왕세자 책봉을 기념한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正廟祖王世子冊禮契屏과 1812년 원자



요지연도(우로부터 1폭), 촬영일미상\_경기도박물관

탄생을 축하한 왕세자탄강계병王世子誕降契屏으로 그렸던 것에서 왕실의 번영과 장수 등을 기원하는 주제로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서왕모와 주목왕의 연회는 울창한 오동나무, 소나무 그리고 질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넓고 깊은 장소에서 열리고 있다(4·5폭). 그리고 사슴을 타고 험준한 산을 건너는 소선공蘇仙公(1폭), 청우를 탄 노자老子(6폭), 학을 탄 수성노인壽星老人(7폭), 바다 위 딱따기를 든 조국구曹國舅(7폭), 호리병을 든 이철과李鐵拐(7폭), 개를 동반한 마고麻姑(8폭) 등 여러 신선들은 하늘과 바다를 건너 연회장소로 향하고 있다. 화면을 가득 채운 확실적인 모양의 상서로운 구름들과 주렁주렁 열린 장수의 상징인 복숭아仙桃 등은 이곳이 신성한 장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적·황·청·흑·백색을 주로 사용한 것과 붉고 푸른 색을 대비시킨 여인들의 옷, 청록의 강렬한 산 표현, 도식적으로 일렁이는 파도와 부서지는 하얀 포말, 흰색 천을 오려붙인 듯한 폭포 등은 조선후기 궁중에서 선호했던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 십장생도十長生圖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 표현들이다. 이 병풍은 서왕모와 여러 신선들을 구름·폭포·바위·소나무·학·영지 등의 동식물과 결합하여 왕실의 번영과 장수 등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왕실에서 축수용으로 제작되었던 요지연도는 유득공柳得恭(1748~1807)의 『경도잡지京都雜誌』의 기록처럼 광고통 개천변에서 매매될 정도로 민간에 전파되어 민화 등으로 확대·제작되었다.



## 가평 현등사 신중도

加平懸燈寺神重圖

조선시대(1790년)  
1폭  
123×122cm  
비단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34

지정일 : 2003.09.08  
소유자 : 현등사  
관리자 : 현등사

<가평 현등사 신중도>는 1790년 현등사 지장암에서 관허당 설훈寬虛堂雪訓, 용봉당 경환龍峰堂敬煥이 함께 조성하여 극락전에 봉안하였다.

화면은 2단 구도로서 범천·제석천과 위태천을 비롯하여 천룡팔부天龍八部로 보이는 무장한 권속들을 묘사한 비교적 간단한 구도를 취하고 있다. 상단에는 오른쪽에 범천·제석천을 중심으로 일월천자日月天子, 복숭아·병을 든 동자, 왼쪽에 새날개짓 모양의 투구를 쓴 위태천韋馱天을 배치하였고, 하단에는 천룡팔부와 함께 산신山神과 조왕신龍王神을 배치하였다. 신중도에 산신과 조왕신을 배치하는 것은 19세기 중엽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 형식으로 이 신중도는 산신과 조왕신 도상이 등장하는 비교적 이른 예로 주목할 만하다. 위태천은 얼굴에 비해 이목구비耳目口鼻가 작게 그려진 점이 특이하며, 투구에는 물감을 찍어 요철凹凸을 주는 고분질기법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채색은 녹색과 적색, 황토색을 주로 사용하고 짙은 청색을 보조색으로 칠하여 18세기 후반 불화의 설채법을 따르고 있다.



이 신중도에서처럼 범천과 제석천, 위태천을 함께 배치하는 형식은 조선 후기 신중도에서 가장 애용된 형식 가운데 하나로, 봉은사 대웅전 신중도(1844), 남양주 홍국사 신중도(1868), 사자암 신중도(1880), 홍국사 신중도(1892), 성동구 미타사 칠성전 신중도(1899), 진관사 신중도(1910) 등 19세기 서울·경기지역의 신중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화기에 의하면 1790년 현등사 지장암에 봉안하기 위하여 청동지장보살좌상(경기도유형문화재 제184호)과 함께 제작되었다고 한다. 화승 관허당 설훈과 용봉당 경환은 18세기 후반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승려로, 설훈은 1758년 여주 신록사 극락보전 삼장보살도를 비롯하여 1790년 용주사 관음보살상을 제작하였으며, 경환은 안산 쌍계사 현왕도(경기도유형문화재 제182호)에 증명證明으로 참여하였다. 설훈과 경환은 이 신중도와 함께 조성된 청동지장보살좌상의 제작에도 관여하였는데, 이처럼 동일한 화승이 불상과 불화를 같이 제작한 예는 드문 편으로 18세기 후반 불교미술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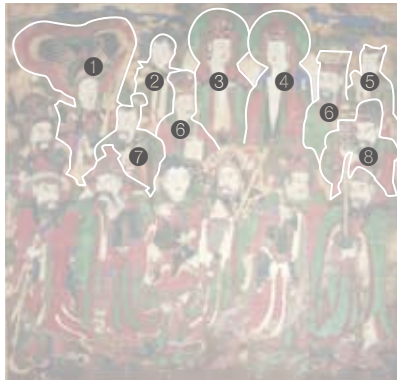


1

2

1. 범천과 제석천,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가평 현등사 신중도, 2013. 금강문화유산연구원

① 위태천(동진보살)  
② 복숭아를 든 동자  
③ 제석천  
④ 대범천  
⑤ 병을 든 동자  
⑥ 일월천자  
⑦ 산신  
⑧ 조왕신





#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龍仁 魚肥里 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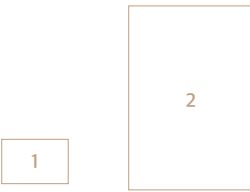
고려시대  
1기  
높이 325cm  
석재(화강암)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진로 842

지정일 : 2004.11.29  
소유자 : 동도사  
관리자 : 동도사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은 동도사東度寺 경내에 세워져 있는데, 1963년 이동저수지 공사로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석불과 함께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석탑과 석불이 있었던 사찰은 금단사金丹寺로 전해지고 있으나, 알려진 연혁은 없으며 산중턱에 사지의 흔적이 확인된다. 석탑은 2층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상륜부는 결실되었다.

지대석은 4매의 장대석을 결구한 전형적인 2층 기단으로 하층기단은 면석의 좌우에 우주를 세우고 한가운데에는 탱주를 세웠는데 낮게 모각되어 간략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하대갑석 하부에는 낮은 부연이 있다. 상층기단은 면석의 좌우에 우주를 세우고 한가운데 탱주를 마련하였다. 상대갑석의 하부에는 낮은 부연이 있다. 상면에는 호각형 2단의 탑신괴임을 마련하였고 탑신부는 3층을 유지하고 있는데, 1층 탑신석 하부에 별석別石괴임을 한 점이 주목된다. 별석은 한 돌로 치석되었는데, 하부를 내곡內曲되게 다듬었으며, 상부에는 호각형 2단의 괴임을 두었다. 각 층의 탑신석 좌우에는 우주를 낮게 모각하였으며,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일정한 체감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이다. 각 층의 옥개석은 하부에 4단으로 옥개받침을 마련하였고, 처마부에는 일정한 너비로 낙수홈대를 시공하였다. 옥개석의 낙수면은 곡선을 이루고 있어 유려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삼층석탑은 기단부와 탑신부의 조영 기법이 통일신라시대 전형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지역 석탑에서 보기 드문 1층 탑신석 하부의 별석괴임은 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1층 탑신석 하부에 별석은 통일신라 말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다가 고려초기 이후에 성행하는데, 주로 중부 이남과 남부지방의 석탑에서 많이 채용된 결구 수법이다. 따라서 이 탑의 제작시기는 통일신라말기의 양식을 충실히 계승한 고려전기로 추정된다.



1.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전경, 2017  
\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어비리 삼층석탑, 2015  
\_ A&A문화연구소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95호

여주 신륵사 팔각원당형  
석조부도

驪州 神勒寺 八角圓堂形石造浮屠

조선시대 추정  
1기  
높이 232cm  
석재(화강암)  
여주시 신록사길 73  
지정일 : 2004.11.29  
소유자 : 신록사  
관리자 : 신록사

<여주 신륵사 필각원당형석조부도>는 현재 신륵사 서쪽에 있는 명부전의 뒤에 원구형 부도와 앞뒤로 나란히 세워져 있다. 원래는 조사당 북쪽 구릉 너머에 있었는데 1966년 11월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고 한다. 부도를 옮길 당시 상대석 상면과 탑신석 하면에서 사리함이 발견되었다.

부도는 사각형의 지대석을 마련하고 그 위에 평면 팔각의 낮은 괴임을 두었다. 지대석 상면에는 넓은 연화문을 수평으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중대석은 낮은 원형으로 마련되었으며, 상대석은 모서리마다 넓은 1엽의 앙련문을 두고 그 사이에 좁은 간엽을 장식하였다. 상면의 가운데에는 1단의 탑신괴임을 두고 그 안에 평면 팔각의 홈을 마련하여 탑신석이 홈에 끼워져 견고하게 고정되게 하였다. 탑신석은 각 면에 우주를 모각하여 사각형으로 구획한 후 그 안에 범자와 자물쇠를 번갈아 새겼다. 탑신석 2면에는 자물쇠가 있고, 2면은 민무늬이며, 다른 4면에는 범자가 1자씩 새겨져 있다. 범자는 사천왕종자로 수호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새긴 것으로 보인다. 옥개석은 하부에 1단의 넓은 받침을 두고 낙수홈을 마련하였으며, 낙수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였다. 낙수면의 합각부에 반원형의 마루부를 두었는데, 처마 쪽으로 내려가면서 굽고 높아지도록 하였다. 마루 끝에는 좌우로 대칭을 이룬 귀꽃이 높게 장식되었다. 상륜부는 원형의 복발과 보주가 올려져 있다. 부도는 전체적으로 팔각당형의 양식이 채용되었다.



이 부도를 옮길 당시 수습된 사리합은 몸체와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면에 국화문을 백상감白象嵌하고 그 주위에 연주와 연화 등을 흑상감黑象嵌하였으며, 연회색에 가까운 유약을 시유하였다. 부도의 주인공이나 건립시기 등을 알 수 있는 명문이나 자료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부도의 전체적인 양식과 사리합의 표면에 미세한 방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 신록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입적한 승려의 부도로 추측된다.



여주 신륵사 팔각원당형 석조부도, 2017\_경기문화재연구원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96호

## 의정부 원효사 묘법연화경

議政府 元曉寺 妙法蓮華經

조선시대(1626년)  
2권 1책  
37.5×25.9cm  
종이(단종이)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356

지정일 : 2004.11.29  
소유자 : 원효사  
관리자 : 원효사

<의정부 원효사 표법연화경>은 1626년 3월에 상궁최씨의 발원으로 사서寫聲된 한글불경으로, 전7권 중에서 권1~2의 1책이다.

구름무늬가 있는 녹색 비단표지는 누습의 흔적이 있고, 본문의 위아래 부분에도 흔적이 제법 남아 있다. 제침題簽이나 표제表題는 없으며, 권수제는 『묘법연화경』이다. 한 면은 10행, 1행은 18자이다. 멀리서 보면 인쇄본으로 보일 정도로 흐트러짐 없이 정성껏 필사되었다. 한글로 필사되어 있으나 국역이 아니고 한문을 한글로 음역한 것이다. 서문까지는 현토懸吐되어 있고, 이후 본문부터는 구두점만 표시되어 있다.

본문이 끝난 뒤에는 ‘이 공덕으로 마땅히 다음 생에는 남자가 되어 불도를 닦는 곳에 들어가서 미륵보살에게 참례參禮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보지 못한 것도 보아 영원히 번뇌의 뿌리에서 벗어나 마침내 부처의 경지를 이루고자 한다.’는 천계天啓 6년(1626) 3월에 쓴 발원문이 있다. 발원한 사람은 상궁 최씨 혜원慧遠이며, 이 발원문은 한자로 써 놓았다. 표지 내부에 들어 있던 낱장의 별지에는 상궁 최씨에 관하여 ‘상궁 최씨 혜원은 을축년(1565) 태생으로 『법화경』·『참경懺經』·『약사경』·『장수경』·『지장경』 등은 각 1권, 『금강경』은 3권을 봉헌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상궁 최씨는 당시 공덕을 위해 여러 종류의 불경들을 바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경은 사성된 시기와 목적이 밝혀져 있으므로 당대 궁인들의 종교관을 살필 수 있고, 또 17세기 전반기의 한글 표음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 1  
2 3 4 5

1. 구름무늬가 있는 녹색비단표지, 2006. 문화재청
2. 현토되어 있는 서문, 2006. 문화재청
3. 구두점이 표시된 본문, 2006. 문화재청
4. 발원문, 2006. 문화재청
5. 낱장의 별지,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남양주 내원암 괘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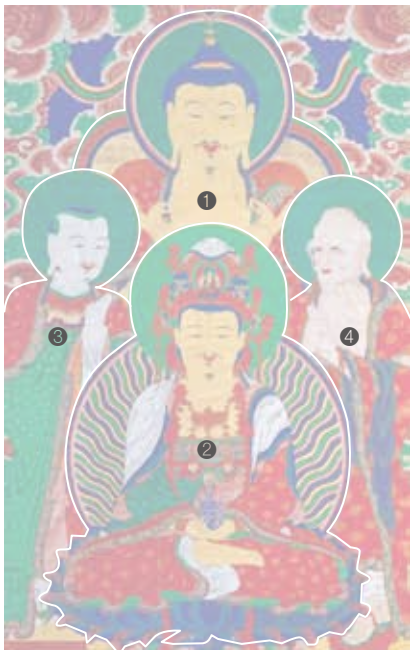
南楊州 內阮庵 掛佛圖

조선시대(1885년)  
1폭  
괘불 544x353.5cm  
괘불함 32x383x32.5cm  
비단, 목재  
남양주시 별내면 순화궁로909번길 104

지정일 : 2004.11.27  
소유자 : 내원암  
관리자 : 내원암



1. 관음수병 세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남양주 내원암 괘불도, 촬영임미상. 성보문화재연구원



❶ (구성)석가모니불 (수인)노사나불 ❷ 관음보살 ❸ 아난존자 ❹ 가섭존자



〈남양주 내원암 괘불도〉는 1885년 11월에 만파 정탁萬波定濯·동호 진철東昊震徹·학허 석운鶴虛石雲·석암 두열石庵斗列·인형仁亨·현조玄照·종현宗現·묘흠妙治·혜조慧照·운제運齊 등 총 10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조성하였다. 작은 규모의 괘불도이며 석가삼존도의 구성을 취하면서 하단에 관음보살을 도해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과 도상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사찰에서 제작되었는데 다만 금색의 광배를 배경으로 도해진 본존이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 올려 설법인說法印을 하고 있어 석가모니불이 아닌 여래형 노사나불盧舍那佛의 도상을 취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구도 속에 인물을 배치했으며 상단의 여백에는 군청·적색·녹색·백색을 사용하여 오색 채운彩雲을 그렸다. 인물은 비교적 과체감있게 표현되었는데, 안면과 육신부, 신광의 금박 안료 역시 이러한 효과를 가중시킨다. 이에 비해 상단에 묘사된 채운의 규칙적인 배치와 인물의 복식을 장엄하는 다양한 문양 패턴은 화면의 장식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이 괘불도와 같은 구성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불화는 서울 삼각산 개운사 괘불도(1879)이다. 큰 화면에 본존은 흰 연꽃을 들고 있는 석가모니불로 표현되어 있고, 하단에는 관음이 연꽃줄기에서 솟아난 대좌에 앉아 있으며 사천왕 2구가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내원암 괘불도는 개운사 괘불도의 구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화폭의 규모에 맞게 관음보살의 연꽃대좌와 사천왕 도상을 생략하고 하단의 공간에 관음보살을 비중있게 표현하였다. 더욱이 주존은 통상적으로 표현되는 연꽃을 든 석가모니불 대신 설법인의 노사나불로 배치한 점은 내원암 괘불도의 특징적 요소이다. 이는 조선후기 삼신불三身佛에 대한 이해에서 법신法身·보신報身·화신化身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었으며 석가모니불은 보신이자 법신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점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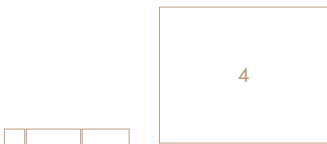


## 가평 현등사 수월관음도

加平 懸燈寺 水月觀音圖

조선시대  
1폭  
180×240cm  
비단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34

지정일 : 2004.11.29  
소유자 : 현등사  
관리자 : 현등사



1. 관음보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천녀와 공양자·선재동자, 2013. 금강문화유산연구원
3. 용왕과 합장한 여인, 2013. 금강문화유산연구원
4. 가평 현등사 수월관음도, 2013. 금강문화유산연구원

<가평 현등사 수월관음도>는 현등사 보광전普光殿에 봉안되어 있는 불화로, 색을 덧칠한 흔적과 변색된 부분이 일부 확인된다. 이 수월관음도는 『화엄경華嚴經』의 「입법계품入法界品」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53선지식善知識을 찾아 구도 여행을 떠난 선재동자善財童子가 보타락가산補陀洛迦山에 살고 있는 28번째 선지식인 관음보살을 방문하여 대자비의 가르침을 받는 장면이다.

이 불화는 화면 중앙에 금니로 칠해진 커다란 둥근 달을 배경으로 관음보살이 앉아 있고, 좌우에 대나무와 정병淨瓶을 그렸다. 달 바깥의 상단에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백의관음白衣觀音을 좌우에 각 5명씩, 중단에는 신장神將을 좌우에 각 2명, 그리고 수파묘水波描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하단의 해수면 왼쪽에는 양손으로 용을 모아 잡은 용왕과 합장한 여인, 오른쪽에는 선재동자를 비롯한 천녀, 공양자 상 등을 그렸다. 화면 중앙의 보타락가산 바위에 왼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있는 관음보살은 작고 두툼한 입술, 초승달 같은 눈썹, 반개한 눈 등 온화한 모습으로 선재동자를 맞이하고 있다. 붉은색 대의와 분홍색 치마에는 꽃무늬를 그렸다. 왼쪽에는 기암괴석과 그 위로 곧게 뻗은 대나무를, 오른쪽에는 목이 긴 정병에 버드나무 가지가 꽃혀있으며, 새 2마리가 날아드는 모습을 그렸다. 정병의 긴 목에는 세로로 ‘관심수觀心水’라 새겼다.

색채는 청색 바탕에 녹색과 붉은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금니와 흰색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화기畵記가 없어 조성시기나 제작자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전체적인 화면구성·인물묘사·착의법着衣法 등에서 19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관음보살초본觀音菩薩草本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19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① 관음보살
- ② 정병(관심수)
- ③ 대나무
- ④ 공양자
- ⑤ 선재동자
- ⑥ 천녀
- ⑦ 용왕
- ⑧ 합장한 여인
- ⑨ 신장
- ⑩ 백의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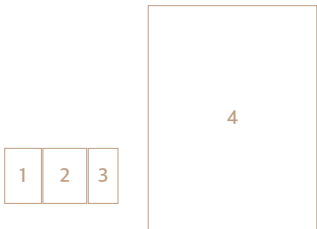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99호

## 가평 현등사 함허당 득통탑 및 석등

加平 懸燈寺 涵虛堂 得通塔 및 石燈

조선시대  
2기  
부도 높이 266cm  
석등 높이 120cm  
석재(화강암)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34

지정일 : 2004.11.29  
소유자 : 현등사  
관리자 : 현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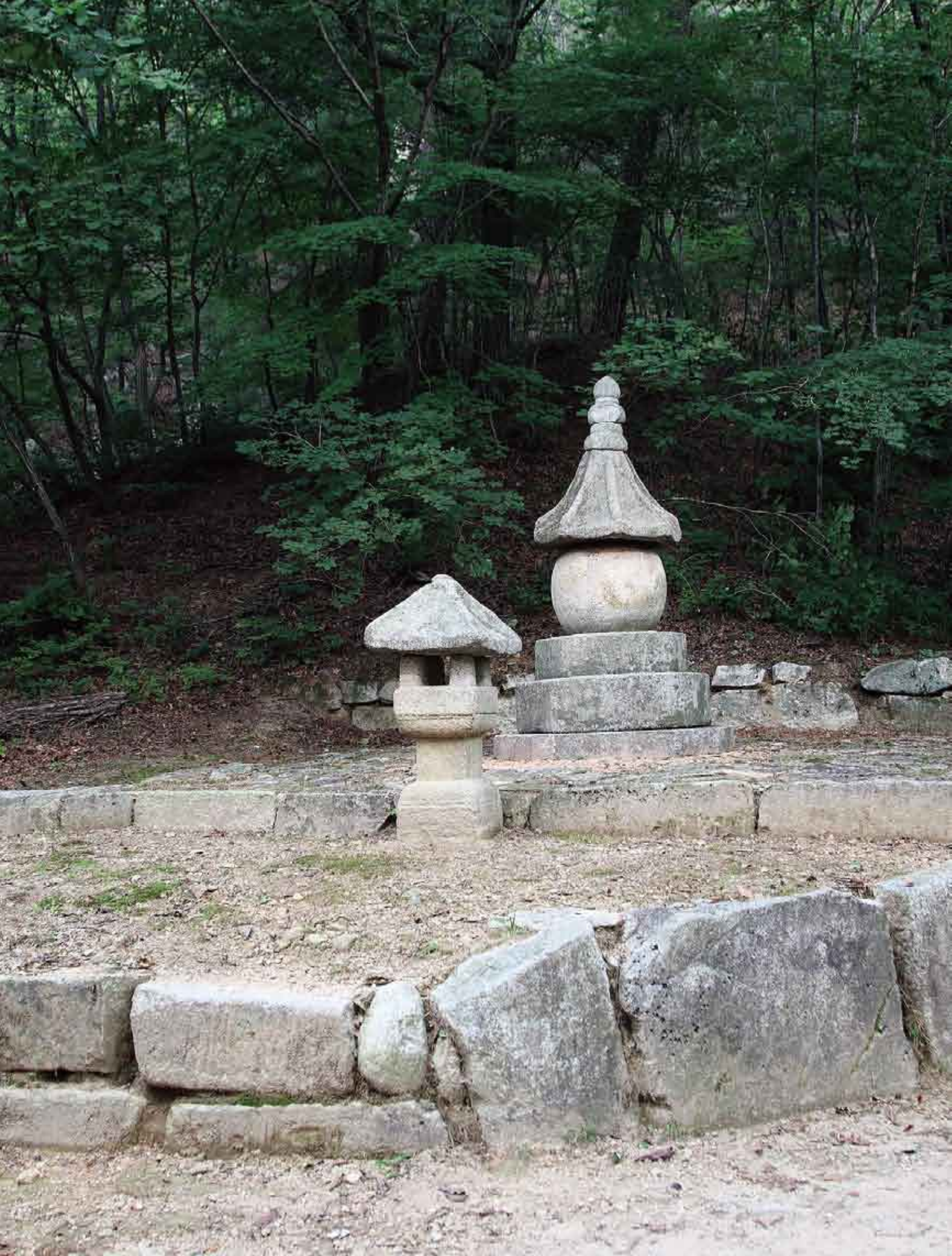
1. 현등사 석등, 2013.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 현등사 함허당 득통탑, 2013. 금강문화유산연구원
3. 현등사 함허당 득통탑 명문, 2013. 금강문화유산연구원
4. 가평 현등사 함허당 득통탑 및 석등 전경, 2013. 금강문화유산연구원



<가평 현등사 함허당 득통탑 및 석등>은 현등사 경내에서 서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능선 자락에 앞뒤로 나란히 세워져 있다. 이러한 배치법은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 이후 고려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석등은 평면이 사각형이지만 사리탑은 팔각당형 양식이다. 사리탑은 평면 팔각형 지대석 위에 2단의 팔각 대석을 올렸다. 팔각당형 부도에서 기단부를 전형적인 하·중·상대석으로 구성하지 않고 간략화된 판석형 대석을 결구한 것은 고려후기부터 순천 송광사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상단 대석의 상면에는 팔각으로 돌을대를 마련하고, 그 안쪽으로 원형의 홈을 파서 원구형 탑신석이 끼워져 단단히 고정되게 하였다. 탑신석은 가운데가 볼록한 원구형으로 남면에 ‘함허당득통 涵虛堂得通’이라고 새겨져 있어 사리탑의 주인공과 조성 시기를 알 수 있게 한다. 옥개석은 하부에 넓은 1단의 받침을 두고 합각부 모서리 끝에서 안쪽으로 낙수홈을 마련하였다. 상륜부는 복발과 보륜, 보주를 올려 마무리하였다.

이 사리탑의 주인공인 기화대사 함허당己和大師涵虛堂(1376~1433)은 조선초기 억불정책 때 불교계를 수호하고, 전국 주요 사찰에 주석하면서 중창 불사를 주도하였다. 1396년 관악산 의상암에 출가하여 1397년 회암사로 무학대사 자초를 찾아가 법요法要를 들은 후 주요 산사를 다니면서 수행에 전념하였다. 1421년(세종3)에는 세종의 부탁으로 개성 대자사大慈寺에 머물며 선비대비先妣大妃의 명복을 빌고 왕과 신하들에게 설법을 펼치기도 하였다. 1433년(세종15) 4월 입적하자 연봉사烟峯寺, 가평 현등사, 강화 정수사, 문경 봉암사 등에 사리탑이 세워지게 되는데, 함허당 득통탑은 이 중 가평 현등사에 조성된 1기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함허당 득통탑은 그가 입적한 1433년 직후에 건립되었으며, 양주 회암사 등 조선 초기 경기도 지역에서 성행한 부도의 양식을 채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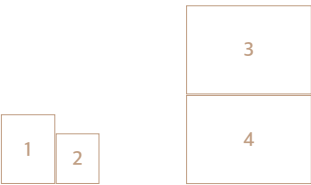


# 용인 화운사 목조여래(아미타·약사)좌상

龍仁 華雲寺 木造如來(阿彌陀·藥師)坐像

조선시대  
1구  
아미타 95.5×67.0cm  
약사 96.0×69.5cm  
목재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111-114

지정일 : 2006.06.19  
소유자 : 화운사  
관리자 : 화운사



1. 용인 화운사 아미타불 좌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화운사 약사불 좌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화운사 아미타불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화운사 약사불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용인 화운사 목조여래(아미타·약사)좌상>은 용인 처인구 화운사 대웅전과 선방禪房에 각각 봉안되어 있다. 대웅전에 모셔진 목조여래좌상은 중형불상으로, 무릎의 너비가 다소 좁지만 신체는 안정감 있는 당당한 형태이다. 얼굴은 앞으로 약간 내민 자세이고 머리에는 나발이 촘촘하게 새겨져 있으며 정수리의 정상계주頂上髻珠는 원통형으로, 이마 위의 중앙계주中央髻珠는 타원형으로 표현하였다. 얼굴은 풍만하고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다. 코는 원통형에 가까우며 입에는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착의법은 대의 안쪽에 편삼을 입은 변형편단우견으로, 대의 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덮고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며, 반대쪽 대의가 어깨를 완전히 덮고 수직으로 떨어져 복부에서 편삼 자락과 만나 U자형을 이루면서 하반신을 완전히 덮고 있다. 가슴을 덮은 승각기僧脚崎는 중간을 끈으로 묶었으며 후면은 목 주위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오른쪽 어깨에서 넘어온 대의 자락이 엉덩이까지 연판형蓮瓣形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별도로 제작한 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바닥에는 사각형의 복장구腹藏口가 있는데 그 옆에 ‘서방불西方佛’이란 목서가 있어 삼세불三世佛의 협시불인 아미타불로 볼 수 있다. 선방에 봉안된 목조약사여래좌상은 아미타여래좌상과 크기·인상·형태·의습 등이 동일하여 삼세불의 협시불임을 알 수 있는데 바닥에는 ‘동방불東方佛’이라 목서가 적혀 있어 약사불로 볼 수 있다. 이 불상들은 1960년대 금산사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목조여래좌상은 1990년대 중반과 2002년에 두 차례 걸쳐 개금改金되어 상태가 좋은 편인데, 불상 개금 시에 대웅전 불상 내에서는 시주자만 적힌 발원문發願文 1매와 경전經典이, 선원에 봉안된 불상 내에서는 경전과 비단에 쓴 향과 오곡 뭉치가 발견되었다. 용인 화운사 목조여래(아미타·약사)좌상은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착의법 등에서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광주 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

廣州 極樂寺 石造地藏菩薩坐像

조선시대  
1구  
46.2×34.5cm  
석재(화강암)  
광주시 오포읍 양촌길 268-1

지정일 : 2006.06.19  
소유자 : 극락사  
관리자 : 극락사



<광주 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은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이며, 좁은 어깨에 다리도 높은 편이다.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허리를 세워 결가부좌의 자세로 앉아 있으며, 양손은 다리 위에 포개어 선정인의 수인을 하고 있다. 손바닥 위에 둥근 보주는 수법이 치졸하여 후보된 것으로 보인다. 선정인을 한 지장보살상은 매우 드문 편으로, 고려 후기 제작품으로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아미타삼존상의 우협시인 지장보살상이 알려져 있는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달걀형을 이루는 머리는 원정형(圓頂形)의 민머리이다. 얼굴은 턱을 깎아 둥글게 보이며 양 볼은 통통하다. 눈꼬리가 살짝 처진 긴 눈, 둥근 눈썹선과 이어지는 오뚝한 코, 좁은 인중선, 살포시 다문 도톰한 입술 등의 특징은 독특하고 개성있는 인상을 준다. 법의는 오른쪽 어깨에 복견의(覆肩衣)를 입고 그 위에 오른쪽 어깨를 살짝 걸쳐 대의를 돌려 입은 형식이다. 뒷면 대의는 편단우견이며 돌려 입은 모양으로 앞과 뒤의 착의법 표현이 어색하다. 왼팔 앞에는 맞주름의 대의자락 끝단이 요형을 이루는데, 이 형식은 1458년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등 조선전기에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가슴 아래 수평으로 승각기(僧脚崎)를 입고 띠로 묶어 자락을 양측으로 벌려놓았는데 조선전기 불상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하반신의 옷자락은 양측 무릎으로부터 발목으로 균등한 옷주름이 올라가고 그 위로 삼각형 모양의 옷자락이 길게 흘러내려와 있다. 이는 익산 태봉사 석조삼존상의 본존이나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아미타삼존상의 지장보살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역시 고려 후기 이후에 제작된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표현기법이다. 상 저부에는 지름 15cm 정도의 둥근 구멍을 머리까지 파내어 복장공을 만들었으나 내부 복장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상은 민머리, 가슴 아래의 띠 매듭, 다리 위 삼각형의 옷자락 등 고려시대 후기 이후 조성된 불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복장물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제작시기 등은 알 수 없다.

광주 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 안성 운수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安城 雲水庵 石造毘盧舍那佛坐像

통일신라~고려시대  
1구  
109×80.4cm  
석재(화강암)  
안성시 양성면 성하길 80-63

지정일 : 2006.06.19  
소유자 : 운수암  
관리자 : 운수암

<안성 운수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서운산 기슭에서 현재의 위치에 옮겨진 것으로 전하나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광배 없이 불신과 대좌가 함께 남아 있고, 전체적으로 열은 호분이 확인된다. 비로자나불상은 결가부좌한 자세에 무릎이 넓고 당당한 점이 특징이며 머리에는 나발(螺髮)과 육계(肉髻)가 있고 얼굴은 동그란 모습으로 상호가 원만하게 표현되었다. 코와 목 부분에는 후대에 보수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 대의는 통견식(通肩式)으로 규칙적으로 흘러 내린 층단식의 옷주름이 특징인데 다소 도식화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옷주름은 9세기 통일신라시대 불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까지 유행한다. 수인은 왼손 검지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싼 지권인(智拳印)이다.

이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신체비례나 제작 기법 등에서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전기의 특징이 반영된 불상으로 동그란 얼굴, 도식화된 옷주름, 신체에 비해 얼굴이 크고 어깨가 좁은 점 등에서 여말선초(10~11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9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비로자나불의 유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



1  
2

1. 운수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세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안성 운수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 남양주 흥국사 성임당탑

南楊州 興國寺 聖任堂塔

조선시대  
1기  
전체높이 346cm  
석재(화강암)  
남양주시 덕릉로1071번길 58

지정일 : 2006.07.03  
소유자 : 흥국사  
관리자 : 흥국사

흥국사는 599년(고구려 영양왕10) 원광圓光에 의해 수락사水落寺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서거정徐居正(1420~1488)이 수락사에 내왕하여 시를 짓기도 했고, 1568년(선조1)에는 이 곳에 덕흥대군德興大君의 원당이 지어지면서 흥덕사興德寺라는 편액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1626년 대규모 중건 이후 흥국사興國寺로 사액 받았으며,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중창되면서 법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성임당탑은 흥국사 경내의 동북쪽 낮은 능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 지대석에서부터 상륜부까지 원형이 잘 남아있다. 지대석은 사각형의 판석형 석재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위에 팔각의 대석을 놓았다. 하대석과 중대석은 1석으로 조성되었는데, 하대석은 대석위에 낮은 1단 받침을 두고 단판 16열의 연화문을 동그랗게 장식하였다. 상대석은 하대석과 상하로 대칭하게 단판 16열의 연화문을 장식하였으며 상면에는 탑신괴임을 마련하였다. 탑신석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정연한 인상을 주고 있는 전형적인 원구형으로 상면에 좌서로 ‘성임당축존지탑聖任堂竺尊之塔’이라고 새겨져 있어 주인공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옥개석은 하부에 별다른 치석은 없으며, 다만 처마를 합각부에서 살짝 들어 올려 다소 경쾌한 인상을 주고 있다. 옥개석의 낙수면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합각부에는 돌을대를 반원형으로 마련하여 내림마루를 표현하였다. 상륜부는 원형의 복발·보륜·보주를 올렸으며, 보륜의 위아래에는 연주문을 장식하였다.

성임당탑의 기단부 양식은 조선왕릉의 장명등과 비슷하고, 연화문이나 안상의 표현기법은 조선시대의 석물들과 닮았다. 이러한 양식은 조선후기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한 것으로, 성임당탑 역시 조선후기에 건립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대구 동화사에 흥국사 성임당탑과 주인공의 당호堂號가 같은 성임당축존대사탑性任堂竺尊大師塔 남아있다. 두 부도의 각자가 ‘聖任堂(성임당)’과 ‘性任堂(성임당)’으로 첫 번째 한자가 다르긴 하지만 음이 같아 동일 승려로 추측되며, 흥국사 성임당탑도 성임당축존대사탑이 조성된 1700년(숙종20)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 남양주 흥국사 성임당탑,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흥국사 성임당탑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부천 석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富川 釋王寺 木造觀音菩薩坐像

조선시대(1755년)  
1구  
48×31cm  
목재  
부천시 소사로 367

지정일: 2007.09.03  
소유자: 석왕사  
관리자: 석왕사



1. 부천 석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우측면,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목조관음보살좌상 배면,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목조관음보살좌상 좌측면,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4. 목조관음보살좌상 정면,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부천 석왕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원미산(보운산) 중턱에 자리 잡은 석왕사의 요사채에 봉안되어 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화염문火焰文과 화문花文이 화려하게 장식된 커다란 보관을 쓰고 있다. 타원형의 얼굴에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간 반쯤 뜬 눈과 원통형의 코, 그리고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별도로 만든 손을 손목에 끼워 넣었으며,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댄 수인을 하고 있다. 착의법은 변형우견편단變形右肩偏袒으로 바깥쪽에 걸친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 대의자락이 가슴까지 내려와 U자형을 이룬다. 나머지 대의자락은 팔꿈치와 복부腹部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편삼과 자연스럽게 접혀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배 부분에서 늘어진 중앙의 옷자락이 S자형을 이루고, 옆으로 다섯 가닥으로 대좌까지 길게 펼쳐져 마치 끝자락 사이사이에 연봉오리가 튀어나온 것 같이 표현하였다. 승각기僧脚崎는 가슴에서 수평으로 묶어 상단 중앙에 안상眼象과 비슷한 마름모꼴 주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좌우대칭을 이룬다. 보살상의 측면은 어깨선을 따라 두 가닥의 옷주름이 수직으로 내려와 끝자락이 U자형을 이루고, 그 밑으로 한 가닥의 주름이 접혀있다. 보살상의 뒷면은 목 주위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오른쪽 대의 끝자락이 엉덩이까지 늘어져 있다.

목조여래좌상의 복장에서 황초복자에 쌓인 후령통과 발원문 2장이 발견되었다. 발원문에 의하면 관음상은 1755년 4월 용화암에 봉안하기 위하여 금어 상정金魚尙淨·칭숙稱淑·화사 색민畫師色敏·정인定印·보심普心이 참여하여 제작하였다고 한다. 상정은 18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조각승이며, 색민은 18세기 중반의 대표적인 불화승이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05호

##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

九里 峨且山 三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390cm  
석재(화강암)  
구리시 아천동 산54

지정일：2007.09.03  
소유자：국유(서울시)  
관리자：구리시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은 아차산 대성암에서 북동쪽 25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단층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석탑으로, 1952년에 붕괴된 것을 1996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석탑은 한강과 천호동 일대가 조망되는 해발 180m의 지점에 건립되어 있다.

석탑은 자연암반에 단층기단을 조성했는데, 탑신부에 비해 낮다. 기단은 상·중·하대석으로 구성되어 불상대좌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각각 하나의 돌로 조성되었다. 하대석은 표면을 정교하게 치석하지 않았으며, 중대석에는 양 우주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상대석은 하단에 비해 상단이 넓게 조성되어 역사다리꼴의 형상을 보인다. 갑석의 하면은 경사지게 처리하였고, 상면에는 낮은 각형 1단 받침 위에 높은 각형 받침을 조출해 1층 탑신석을 받고 있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하나의 돌로 조성되었다. 탑신석은 다른 석탑에서와는 달리 2층에 비해 1층 탑신이 높지 않다. 2층과 3층 탑신은 비슷한 크기로 탑신의 너비에 비해 우주가 좁게 표현되었다. 옥개석은 탑신석에 비해 넓게 조성되었으며, 하면에는 1층 3단, 2층 이상은 2단의 옥개받침이 조출되었다. 낙수면의 경사는 완만하고,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에 이르러 반전한다.

이 석탑은 높은 위치에 조성되었고, 자연 암반을 지대석으로 삼아 건립한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유행한 산천비보사상山川裨補思想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성 시기는 각부의 조성 수법으로 볼 때 고려시대 후기로 추정된다.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 2017\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06호

## 양주 회암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물

楊州 檜巖寺 木造如來坐像 및 腹藏物

조선시대(1755년)  
일괄  
50.2×36.0cm  
목재  
양주시 회암동 산8-1

지정일：2007.09.03  
소유자：회암사  
관리자：회암사

<양주 회암사 목조여래좌상>은 양주 회암동 천보산天寶山 남쪽 기슭에 위치한 회암사 영성전 주불로 봉안되어 있는 조선후기의 중소 형불상이다. 불상은 상체를 약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으나, 얼굴과 신체의 비례는 적당한 편이다. 머리에는 뽕족한 나발螺髮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肉髻가 표현되어 있다. 육계 아래 머리 정상부에는 반원형의 중앙계주中央髻珠가 있고, 정수리 부위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가 있다. 타원형의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콧날이 뽕족하며,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다. 따로 제작된 오른손과 왼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엄지와 중지를 등글게 맞댄 수인을 취하고 있다.

보살상은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에 가슴까지 내려와 긴 U자형을 이룬다. 나머지 대의자락은 팔꿈치와 복부腹部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편삼과 자연스럽게 접혀있다. 특히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배 부분에서 늘어진 중앙의 옷자락이 S자형을 이루고, 옆으로 4~5겹으로 펼쳐져 대좌까지 길게 늘어진 옷자락 사이는 연봉오리처럼 표현하였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屨는 가슴까지 올려 끈으로 묶고 상단 주름을 안상眼象과 비슷하게 표현하였다.

측면은 어깨선을 따라 두 가닥의 옷주름이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앞자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한 가닥의 옷주름이 늘어져 人자형으로 접혀있다. 불상 뒷면의 처리는 목둘레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옷자락이 대좌 위까지 길게 늘어져 있는데, 가운데 두 가닥의 주름이 도식적으로 표현되었다. 불상의 바닥 면에 사각형의 복장구가 있으며, 이곳에서 2종의 분철된 묘법연화경과 다라니, 황초복자에 쌓인 후령통 등의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1755년(영조31) 3월 창평 용흥사 상선암에 봉안하기 위하여 상정尙淨,·유순有淳·우학宇學, 칭숙稱淑 참여하여 제작하였다고 한다. 불상을 제작한 상정은 담양에 거주하던 18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1 2

- 양주 회암사 목조여래좌상,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복장물 일괄,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07호

동두천 광주정씨가 소장 고문서

東豆川 光州鄭氏家 所藏 古文書

조선시대

4종 61점

명문문기류(본제기) 3점 40~67.5×38.5~62cm

첩관통보류(시호) 1점 52×67.5cm

교령류(고신) 16점 50×69cm

소차계장류(호적) 41점 32.5~119×23~89cm

종이

동두천시 신천로231번길

지정일：2007.09.03

소유자：정기호

관리자：정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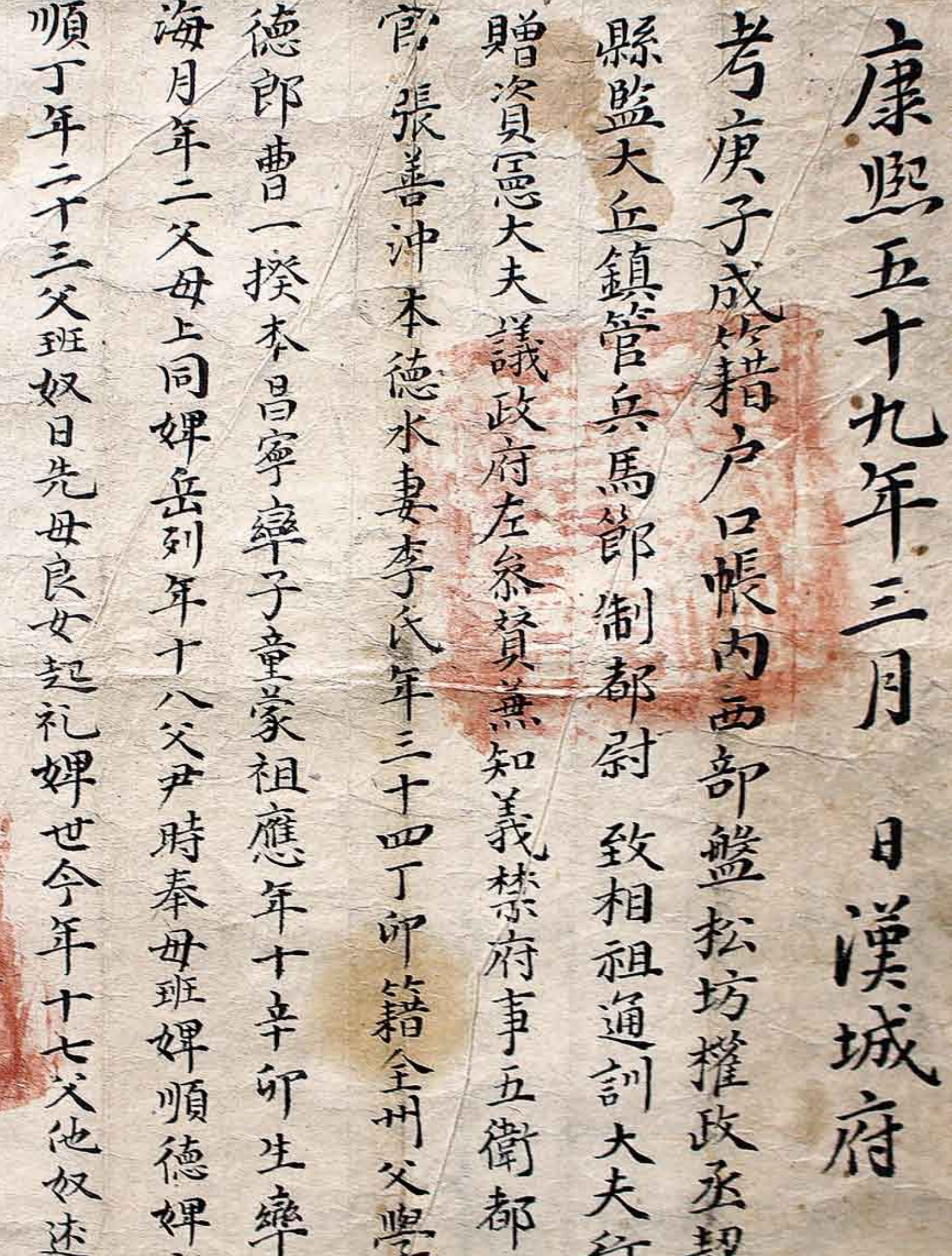
동두천 광주정씨 성제공과 문중은 고려후기에 특관한 이래 조선후기까지 다수의 문신과 학자들을 배출한 전형적인 양반가문으로 문 중에는 고문서가 다수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동두천 광주정씨가 소장 고문서>는 ‘교령류敎令類’·‘소차계장류疏筭啓狀類’·‘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 등 4종 6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고문서는 광주정씨 성제공과 정수상 계열에서 생산된 자료로 특히 ‘소차계장류’의 호적戶籍자료와 ‘명문문기류’에 속하는 분제기分財記 자료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광주정씨가 소장 분제기는 가문의 재산상속과 증여에 관한 기록으로서 이들 자료는 당대의 경제적 실상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역사자료가 많이 부족한 동두천시의 과거 경제·생활상을 알려주는 자료로써 사료적 가치가 높다.

1 2 5

3 4

- 호적(1717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호적(1902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분제기(1685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시호(1762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호적(1721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임방 초상

任陞肖像

조선시대(1720년)

1점

75.5×45.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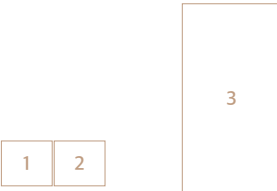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09.03.11

소유자 : 경기도박물관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1. 임방 초상 안면부, 촬영일미상. 경기도박물관
2. 임방 초상 흉배, 촬영일미상. 경기도박물관
3. 임방 초상, 촬영일미상. 경기도박물관



<임방초상>은 조선후기의 문신 임방任陞(1640~1724)을 그린 초상화이다. 임방의 본관은 풍천豐川, 자는 대중大仲, 호는 수촌水村이다. 좌승지 임연任堧의 손자이고, 평안도관찰사를 지낸 임의백任義伯의 아들이다. 송시열·송준길에게서 학문을 익혔으며, 1702년(숙종 28) 알성문과에 합격하였고, 호조정랑, 승지, 공조판서 등을 지냈다. 초상은 사모에 단령을 입고 두 손을 맞잡은 반신상이다. 쌍학흉배가 붙은 단령을 입었으며, 삼금대鍍金帶를 착용한 채 오른쪽으로 몸을 약간 돌린 자세이다. 높은 오사모와 넓은 양각, 다소 길게 패인 단령의 깃, 넓은 소매 등 18세기 전반기의 초상화에 보이는 주요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얼굴은 굵기와 농담의 차이가 많은 갈색 필선으로 규정하여 질게 채색하였고, 살색 담채로 된 채색,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명암 표현, 이목구비와 주름은 명암차가 있는 갈색선으로 그렸다. 특히 이마, 눈 가장자리, 입가, 양 볼에는 갈색 주름선을 그린 뒤 보다 어둡게 음영을 넣었다. 즉, 밝은 부분을 두고 움푹 들어간 부분을 질게 처리하여 골상의 특징을 강조하였다. 녹색조의 단령에는 옷보다 다소 연한 색으로 운보문雲寶文을 그려 넣었고, 단령의 옷주름도 사실적이고 자연스럽게 처리했으며, 주름진 부분에는 음영을 넣어 조선중기의 선묘 처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화면 오른쪽 위에 ‘水村先生 耆社帖餘本, 甲子冬粧’이라 적혀 있다. 이는 기사첩耆社帖에서 남은 것을 1744년(영조20)에 표장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첩은 1719년(숙종45)에 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열렸던 행사와 이에 참석했던 기로대신을 그려 1720년(숙종46)에 완성한 『기사계첩耆社契帖』을 가리킨다. 임방은 여기에 80세의 나이로 참여하였다. 임방 초상은 『기사계첩』의 ‘임방 80세 반신상’과 도상과 화법이 유사하여 같은 초본을 토대로 제작된 듯하다. 다만, 이 초상은 세로 길이가 75.5cm로 세로 길이가 43.5cm인 『기사계첩』보다 크다. 이는 임방 초상이 『기사계첩』의 초본을 본떠 그린 것으로 『기사계첩』의 임방 초상을 눈으로 보고 똑같이 베껴 그린 것이 된다. 이 초상은 집안에서 사적으로 그려서 보관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 유순정 초상 및 함

柳順汀 肖像 및 函

조선시대  
초상 1점, 함 1점  
188×99.8cm  
비단, 목재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09.03.11  
소유자 : 경기도박물관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1. 유순정 초상함 세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유순정 초상함, 2008. 경기도박물관  
3. 유순정 초상, 2008. 경기도박물관



<유순정 초상 및 함>은 조선중기의 문신인 유순정柳順(1459~1512)의 정국공신靖國功臣 초상을 1720년경에 베껴 그린 이모본과 초상을 보관한 나무 함이다. 유순정의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지옹智翁, 호는 청천靑川이다. 관직은 평안도관찰사,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김종직에게 수학하였고, 문신이지만 무인으로서의 기개가 뛰어났다. 이 초상은 1506년(중종1) 중종반정에 참여한 공으로 정국 1등 공신에 책록되었을 때 그린 공신도상을 18세기 전반기에 후손들이 베껴 그린 것이다. 화면 상단에는 전서체로 ‘靖國功臣領議政柳順汀遺像’이라 적었고, 그 오른쪽에 유순정에 관한 신상 기록, 그림의 왼쪽 위에는 김상헌金尙憲(1570~1657)이 지은 찬시가 적혀있다. 그 아래쪽에는 김상헌의 시를 1720년(숙종46)에 유순정의 9대손인 유수柳綬(1678~1756)가 다시 적었음을 밝혀놓았다. 따라서 원본에 근거하여 18세기경에 이모한 초상임을 알 수 있다. 1476년(성종7)에 그린 적개공신상과 비교해 보면, 의자에 묶인 끈이나 단령의 옆트임 모양, 흉배의 표현 등이 매우 흡사하다. 그림 속의 유순정은 두 손을 맞잡아 소매 속에 넣고 의자에 단정하게 앉았다. 오른쪽으로 돌린 얼굴에는 홍조를 띠었지만, 밝고 연하게 얼굴의 굴곡을 나타내었고, 양 볼과 콧등에는 천연두를 앓은 자국까지 그렸다. 너비가 넓은 각이 달린 오사모에 짙은 푸른색의 단령團領을 입었다. 단령의 구름문양은 바탕색보다 짙게 하여 구분하였으나 옷주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들어가 있다. 가슴에는 쌍공작의 흉배를 붙였고, 허리에는 정1품이 착용하는 서대犀帶를 매었다. 바닥에 깔린 채전은 색깔별로 작은 점을 반복하여 찍어 카펫트의 질감을 잘 나타내었다. 이 초상화를 넣어 보관했던 나무함이 함께 전하고 있다. 유순정의 이 초상화는 후대의 이모본이지만 16세기 초상화의 형식과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주요 사례이다. 특히 1476년(성종7) 적개공신 초상의 형식이 약간 남아 있으면서도 1625년(인조3)의 정사공신 초상의 특징도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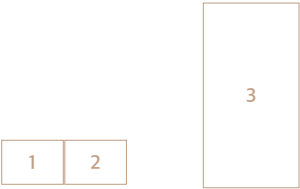


# 황성원 초상

黃性元 肖像

조선시대  
1점  
184.5×104.5cm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09.03.11  
소유자 : 경기도박물관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1. 학정금대를 두른 흉배, 촬영일미상. 경기도박물관  
2. 교의 하단의 금속장식, 촬영일미상. 경기도박물관  
3. 황성원 초상, 촬영일미상. 경기도박물관



<황성원 초상>은 조선중기의 문신인 황성원黃性元(?~1667)이 영사공신寧社功臣에 녹훈되었을 때 그린 공신도상이다. 황성원의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1627년(인조5) 유효립柳孝立의 모반을 고변한 공으로 영사공신 2등에 녹훈되었다.

초상에 그려진 높이가 낮은 사모, 좁은 단령의 목 부분 등은 17세기 공신 도상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얼굴은 짙은 회갈색으로 바탕을 칠했는데 붉은 선묘로 윤곽과 주름을 묘사하고 있으며, 수두로 얇은 흔적을 마치 물방울이 번지듯이 크게 표현하였다. 눈동자의 동공은 짙고 검은 점으로 표현하였고, 수염은 등성 등성 그렸다. 안색은 어둡게 토황색으로 채색하였고, 얼굴의 외곽선은 갈색선이다. 이목구비도 짙은 갈색으로 선묘했다. 귀의 움푹한 부위, 코와 관골 부위에 곱보 자국은 어둡게 음영기를 넣었다. 족자대 위에 팔자형의 흑피화가 보이고, 바닥에는 화려한 문양의 채전이 깔려 있다. 녹색 단령은 채색이 짙고 두텁게 덮였으며 커다란 운문은 약간 옅은 초록색을 칠했고, 옷주름선은 검은 선으로 간략하게 그렸다. 단령의 주름을 따라 옷자락의 굴곡이 나타나지만, 운문은 평면적으로 처리하였다. 단령의 트임 사이로 청색 안감과 분홍색 첩리가 보인다. 학정금대鶴頂金帶를 두른 흉배는 크게 그렸고, 배경에는 수평 금색선을 촘촘하게 그렸으며, 한 쌍의 백한과 모란꽃을 화려하게 그려 넣었다. 교의 하단의 양쪽 발에는 금속 장식이 흰 선의 인당초문과 함께 그려져 있다. 이 초상은 높고 화려한 채전을 배경으로 녹색의 단령과 백한 흉배를 그려 초상화의 화려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낮은 사모, 팔자형으로 벌어진 발, 넓은 면적의 채전은 조선중기 초상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황성원 초상은 17세기 전반기 공신도상의 전형적 양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625년(영조31)의 정사공신상과 진무공신상과 양식적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인물 형태의 합리적인 표현을 위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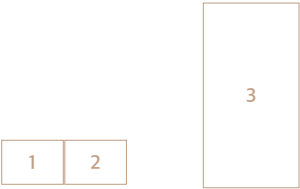


# 황진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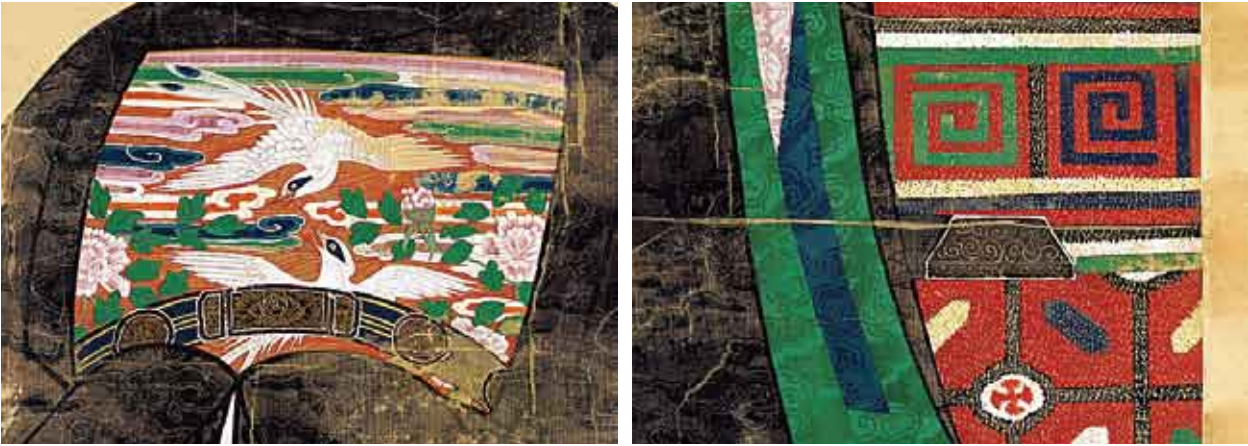
黃進 肖像

조선시대  
1점  
172×105cm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09.03.11  
소유자 : 경기도박물관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1. 삼금대, 촬영일미상. 경기도박물관
2. 교의 하단 금속장식, 촬영일미상. 경기도박물관
3. 황진초상, 촬영일미상. 경기도박물관



<황진 초상>은 조선중기의 무신인 황진黃縉이 영사공신寧社功臣에 녹훈되었을 때 그린 공신도상이다. 황진의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판관을 지낸 바 있다. 1627년(인조6) 아버지 황성원黃性元(?~1667)과 함께 유효립柳孝立의 반란 모의를 고발한 공으로 영사공신寧社功臣 2등에 봉해졌다.

이 초상화는 두 손을 소매 안에서 맞잡은 공수拱手 자세이며, 오른편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 교의자에 앉은 좌상이다. 사모의 높이가 낮고, 오른쪽 옆구리 뒤로 빠져 나온 삼각형 무의 표현, 단령의 양쪽 옆트임과 그 사이로 직령이 노출된 것이 특징인데, 이는 17세기의 공신도상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얼굴의 윤곽과 이목구비는 가는 갈색선으로 윤곽을 잡았고, 돌출 된 코와 광대뼈 부분에는 갈색을 덧칠하여 골상의 특징을 강조하였다. 수두를 얇은 흔적들이 코와 볼 주변에 밀집되어 있다. 눈동자의 동공은 짙고 검은 점으로 처리하였고, 수염은 듬성듬성 성글게 그렸다. 입은 좌우 대칭인데, 코는 단조로운 측면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코의 도톰한 두께를 입체감 있게 그려낼 화법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는 화가 개인의 미숙함이라기 보다 17세기 초상화가 지닌 표현상의 한계이다. 또한 흑색 단령에 표현된 윤곽과 옷주름선은 검은 선으로 선명하게 표현하였으며, 구름문양이 큼직하게 들어가 있다. 하지만 문양은 옷주름과 굴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렸다. 홍배는 유난히 큰 면적을 차지하는데, 한 쌍의 백한과 모란꽃이 오색구름을 배경으로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다. 관대는 삼금대鍔金帶를 착용하였다. 바닥의 채전은 화려한 색상과 함께 고유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점묘를 반복하여 찍듯이 묘사하였다.

도상의 특징으로 볼 때, 인조대 정사공신상의 특징과 비슷한 면이 많다. 황진의 아버지인 황성원의 초상과 세부 묘사가 흡사하여 같은 시기에 동일한 화가가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 족자의 상·하회장上·下回裝에는 국화를 비롯한 꽃 문양이 직조되어 있는데, 상태로 보아 당시의 장황형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12호

##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

華城 龍珠寺 五層石塔

고려시대  
1기  
높이 450cm  
석재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2009.03.11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은 단층기단 위에 5층 탑신을 올린 석탑이다. 기단은 하·중·상대석으로 구성되어 불상대좌의 양식을 지니고 있다. 기단을 구성하는 부재는 각각 하나의 돌로 조성되었는데, 중대석의 각 면에는 여의두문如意頭紋 형태의 안상眼象이 3구씩 조각되어 있다. 중대석의 한면에는 위패位牌형태의 조각이 부조되어 있어 이채롭다. 상대석의 하면은 경사지게 처리하였고, 상면에는 낮은 각형 1단의 받침을 조출해 탑신부를 받고 있다.

탑신과 옥개석은 각각 하나의 돌로 조성했는데, 5층 탑신석은 새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1층 탑신의 앞·뒷면에는 자물쇠가 양각된 문비가 표현되었고, 각각의 탑신석에는 양 우주가 모각되었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1~3층은 4단, 4층은 3단의 받침을 조출하였다. 5층 옥개석은 받침석을 생략하고, 목조건축의 지붕 하면을 소략하게 양각했다. 낙수면의 경사는 완만하고,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 전각에 이르러 반전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며, 정면에는 풍경공이 조성되어 있다. 5층 옥개석과 하나의 돌로 이루어진 상륜부에는 화문이 표현된 원구형의 복발위에 보주를 놓았다.

이 석탑은 기단부의 구조와 옥개석 등의 양식으로 볼 때 고려시대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 2

3

1.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 전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자물쇠가 양각된 문비 조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위패형 조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13호

## 안성 칠장사 대웅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

安城 七長寺 大雄殿 木造釋迦三尊佛坐像

조선시대(1685년)  
3구  
석가불 132×94cm  
미륵보살 127×83cm  
제화갈라보살 117×81cm  
목재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지정일 : 2009.03.11  
소유자 : 칠장사  
관리자 : 칠장사

<안성 칠장사 대웅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은 칠장사 대웅전에 봉안된 조선후기의 중형 불상이다. 뽕족한 나발을 가진 머리 육계肉髻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정상과 중앙에 원형과 반원형의 계주髻珠가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얼굴은 각진 방형에 가까우며, 눈꼬리가 약간 올라가 반쯤 뜬 눈, 콧등이 편평한 삼각형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얇은 입은 전체적으로 엄숙한 인상을 준다.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등글게 맞대고 있으며, 오른손은 손바닥과 손가락을 펴서 바닥을 가리키는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취하였다. 불신에 두텁게 걸친 대의大衣는 오른쪽 어깨를 살짝 드리운 변형우견편단으로, 대의 끝단에 오른쪽 어깨를 비스듬히 걸쳐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으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하반신에 S자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석가여래의 좌·우에 있는 미륵보살彌勒菩薩과 제화갈라보살提和竭羅菩薩은 구름과 불꽃무늬가 장식된 높은 보관을 쓰고, 정수리 부분에는 보계가 높이 솟아 있다. 보계에서 이어진 두 가닥의 보발寶髮이 두 귀를 지나 어깨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보살상 두 점 모두 상호 표현이나 조각 기법, 착의법着衣法等은 동일하고, 연꽃을 들고 있는 손의 위치와 크기가 다를 뿐이다. 불상 내부에서 수습된 발원문에 의하면 1685년(숙종11)에 마일摩日, 천기天機 등 조각승이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미륵보살·제화갈라보살로 이루어진 수기삼존불授記三尊佛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이 삼존불은 주로 응진전應眞殿과 나한전羅漢殿 등에 봉안되던 불상이지만, 여수 흥국사와 범어사 대웅전 등의 주불전에도 봉안된 예도 있다. 이 불상을 만든 조각승 마일, 천기 등은 17세기 중반에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혜희慧熙스님의 계보에 속한 조각승이다.

1

2

1. 발원문, 촬영일미상. 경기도청
2. 안성 칠장사 대웅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삼세불좌상

華城 龍珠寺 大雄寶殿 木造三世佛坐像

조선시대(1790년)  
3구  
석가불 106.5cm  
약사불(좌) 103.5cm  
아미타불(우) 103.3cm  
목재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2009.03.11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2

1

1.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삼세불좌상,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삼세불좌상 전경,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삼세불좌상>은 본존상인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우측에 아미타여래, 좌측에 약사여래가 봉안되어 있는데, 석가여래상을 양측의 협시와 격을 달리하여 크게 조성하는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따르고 있다. 세 존상은 표현은 대동소이하나 『본사제반서화조작등제인방함寺諸般書畫造作等諸人芳聊』에 적힌 바와 같이 석가여래는 계초戒初, 아미타상은 봉현奉玆, 약사상은 상식尙植이 맡아 조성하여 얼굴, 신체 비례 등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삼존상은 넓은 어깨에 다리 너비와 무릎 높이 등 신체비례는 안정감이 있다. 석가여래는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결가부좌의 자세에 왼손은 다리 위에 두고 오른손은 손끝이 땅을 향하는 향마촉지인을 하고 있다. 우협시인 아미타상은 양손을 다리 위에 살짝 들어 올려놓았는데 오른손은 손등을 위로 하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댄 아미타인을 하고 있다. 좌협시인 약사여래는 손의 위치를 반대로 하여 오른손에 약함을 들었다. 육계는 높은 편이며, 머리와의 경계에 중간계주, 정상에는 정상계주를 각각 두었다. 석가여래상은 방형의 얼굴에 가늘고 긴 눈, 콧망울이 둥글고 긴 코를 가지고 있으며, 양 입술 끝이 올라가 미소를 짓고 있다. 아미타상은 턱을 수평으로 깎아 석가여래보다 네모지게 보이고, 약사상의 얼굴은 다른 두 존상에 비해 둥글고, 눈은 수평적이며, 삼각형의 코와 살포시 다문 입술로 인상이 차분하다. 석가여래상의 법의는 오른쪽 어깨를 가린 변형된 편단우견을 입고 있고, 양 협시는 오른쪽에 걸친 복건의 위에 대의를 돌려 입은 모습이다. 오른쪽 어깨의 대의는 가장 안쪽의 옷주름이 뾰족하게 강조되어 있으며, 배 앞의 승각기僧脚崎와 대의가 서로 대칭되게 교차되어 있다. 가슴아래 입은 승각기는 연잎형으로 접어 모양을 내었으며, 다리 앞의 옷주름은 두껍고 가운데 자락의 끝단은 S자형을 이룬다. 약사상의 배 앞 옷자락은 작고 여러 개의 옷주름이 잡혀 있으며, 가슴아래 입은 승각기는 가운데 넓은 주름을 중심으로 작은 주름을 잡아 포개 놓은 듯하다. 또한 다리 앞 옷주름도 크게 잡아 다른 석가여래상과 아미타상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석가여래상을 조성한 계초는 1754년(영조30) 곡성 오관음사 무진암 목조관음보살상 조성, 1757년(영조33) 구례 화엄사 대웅전 삼존상을 개금했으며, 아미타상을 조성한 봉현은 1780년(정조4)에 장흥 보림사 천왕·금강·문수보살상은 중수, 1787년(정조11) 정읍 선운사 대웅전 장륙전·팔상전 불상을 개금하였다. 1790년(정조14)에 이르러 두 조각승이 용주사 대웅보전 불상을 함께 조성하였다. 이전에 공동으로 작업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상정尙淨·계심戒心 등과 함께 작업하여 서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약사상을 조성한 상식尙植은 강원도에서 활동한 조각승으로 활동영역이 다르고 다른 조각승과의 관련 사례도 없어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이라 짐작된다. 이 들 세 조각승은 왕실후원 불사에 참여한 것을 보면, 18세기 후반에 상당히 명성이 높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조선시대(1484년)  
1책  
28.8×17.2cm  
종이(탁종이)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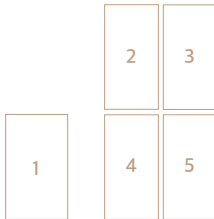
지정일 : 2009.02.09  
소유자 : 원각사  
관리자 : 원각사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은 불력佛力이나 수행을 통해 죄악을 없애고, 장수멸죄하는 방법과 악귀들로부터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을 적은 경전이다. 경명經名과는 달리 다라니 부분은 일부이고, 대부분은 교훈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장수경長壽經』으로 약칭한다. 현재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은 고려본이 여럿 전하며, 조선시대의 판본은 10여종이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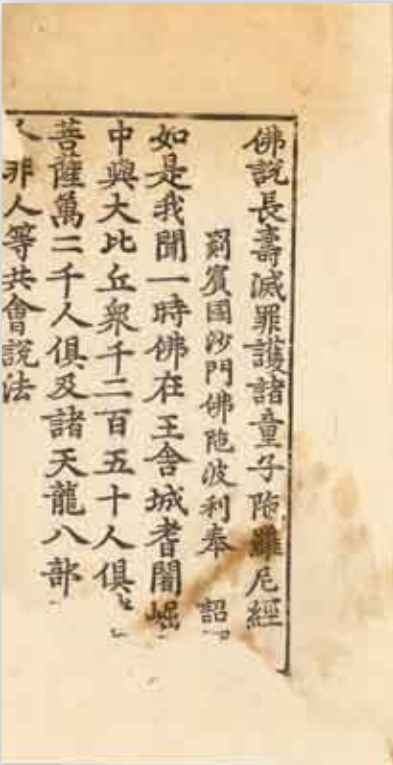
원각사 소장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은 1484년 6월에 전라도 불명산 화암사花岩寺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화암사에서는 이보다 앞선 1443년에 간행한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 와서 거듭 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계선界線없이 한 면에 7행, 1행은 15자로 되어 있다. 위아래에 누습의 흔적이 약간 보이며, 첫 장은 손상되어 있다.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이 끝난 뒤에는 대선사 혜조惠照를 비롯한 참여자와 시주자 명단이 있고, ‘전라도불명산화암사개판’, ‘성화이십년(1484) 갑진유월일’이라는 간행기록과 함께 위태천 변상이 있다.

이 책은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에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이 합철되어 있는데, 근자에 개장되었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에 수록된 변상도變相圖는 1443년에 화암사에서 간행된 판본의 변상도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도 ‘성화이십년갑진월 일지’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해에 간행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두 책은 처음부터 합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개장된 표지,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첫장,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시주자 명단 및 간행기록,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4. 5. 본문,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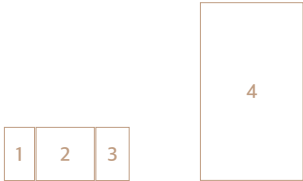


## 육경합부

六經合部

조선시대(1424년)  
1책  
26.5×16.5cm  
종이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지정일：2009.02.09  
소유자：원각사  
관리자：원각사



1. 육경합부 표지,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간행기록,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4. 육경합부 변상도,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육경합부』는 조선초기에 널리 독송되었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대불정수릉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관세음보살에문觀世音菩薩禮文』,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등 여섯 가지 경전을 간행한 책이다. 이 육경합부는 대부분 15세기에 성달생成達生(1376~1444)의 안심사본을 저본으로 삼아 번각되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현재까지 1440년(세조22) 영제암, 1445년(세종27) 청원사, 1460년(세조6) 선종, 1462년(세조8) 고산 화암사 등 20여 차례 번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육경합부 역시 1424년(세종6) 완주군 안심사에서 성달생이 필사한 판하본을 새긴 목판본 육경합부이다. 판식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계선이 없고, 반엽半葉에 8행 17자씩 배열되어 있으며, 판심에 어미魚尾가 없다.

성달생은 1402년(태종2) 조선시대 처음으로 실시된 무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무인으로 당시 명필로 소문난 사람이며 사육신 성삼문成三問(1418~1456)의 조부이다. 그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육경합부 이외에도 법화경을 필사한 것도 전래되고 있다.

이 판본의 권수卷首에는 영축산에서 석가가 설법하는 모습을 표현한 변상도變相圖가 붙어 있는데, 왼쪽의 변상도에는 ‘변상도는 경전의 관각의도와 다르게 고려 우왕의 극락왕생을 위해 정씨가 시주하여 변상도를 판각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이는 육경합부의 변상도가 아니고 안심사에 있던 다른 경판의 변상도를 찍어 함께 제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은 보존상태는 불량하지만, 조선 초기 명필가인 성달생이 서사한 것을 바탕으로 안심사에서 처음 편찬하여 1424년(세종6)에 최초로 간행한 목판본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17호

## 조상경

造像經

조선시대(1575년)  
1책  
29.1×19.1cm  
종이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지정일 : 2009.02.09  
소유자 : 원각사  
관리자 : 원각사

『조상경』은 조선초기 승려인 용허(聳虛)가 여러 경전에 산재해 있는 불·보살상의 조성에 대한 제반 의식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모아 편찬한 불교의식집이다. 이 판본은 불보살상 조상에 대해 「대장일람집(大藏一覽集)」 등에서 불상 조성 연원 및 공덕에 대해서 인용하여 실고 있다. 이 판본은 1575년(선조8) 전라도 담양 추월산(秋月山) 용전사(龍泉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판식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계선이 있으며 반엽(半葉)에 9행 20자씩 배열되어 있고 판심에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가 있다.

“대장일람집大藏 覽集” 제4권 「조상품」의 내용이 핵심인데, 불상 조성에 따른 공덕에 대해 여러 경전의 교리를 인용하여 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상공덕경造像功德經에서 부처가 제석천帝釋天의 청으로 도리천에 올라가 여름 석 달 동안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하여 설법하느라 계시지 않으므로, 우전왕優填王이 부처를 흠모한 나머지 부처와 똑같은 등상을 조성하여 경배한 것이 불상의 시조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불상을 조성하면 그 공덕으로 모두 성불하며,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제왕이나 훌륭한 신하, 장자의 집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육상경浴像經에는 불상에 향수나 물을 부어 묵욕시키는 방법과 그 공덕에 대한 내용 등이 있다.

마지막에 「제불보살복장단의식諸佛菩薩腹藏壇儀式」에서는 「단壇」의 의미를 「모임」의 뜻이라 밝히고, 단을 설치하는 뜻을 여러 경문에서 인용 설명하였다. 불상은 상호가 원만해야 모든 중생이 큰 복과 이익을 얻는다고 밝히며, 불상에 복장물을 넣게 되는 취지와 복장에 들어갈 물품의 목록, 그 크기와 개수, 넣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이 조상경은 현존하는 『조상경』 판본 중 연대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사용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18호

## 조상경

造像經

조선시대(1824년)  
1책  
32.3×20.9cm  
종이(탁종이)  
남양주시 천마로 115-13

지정일 : 2009.02.09  
소유자 : 수진사  
관리자 : 수진사

남양주 수진사 소장 『조상경』은 조선초기 승려인 용허(聳虛)가 편찬한 것을 조선후기 지탁(智濯)이 증보한 것으로, 1824년에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에서 개판한 목판본이다.

판식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계선이 있고, 반엽(半葉)에 10항 20자씩 배열되어 있으며, 판심에 내향2엽화문어미(內向2葉花紋魚尾)가 있다. 『대장일람집(大藏一覽集)』 제4권 「조상품」에는 여러 경전의 교리를 인용하여 불상 조성에 따른 공덕에 대해 설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조상경은 1575년(선조8) 간행한 추월산秋月山 용천사본龍泉寺本을 비롯하여 1677년 팔영산八影山 능가사본楞伽寺本, 1720년(숙종46) 화장사본華藏寺本, 1746년의 김룡사본金龍寺本 등이 전해지고 있다. 1824년(순조24)에 간행한 유점사본楡岾寺本은 시기는 다소 뒤이지만 조선후기 각 사찰에서 불상을 조성하고 불단에 모시는 절차 및 복장을 일정한 법식으로 정착시킨 귀중한 자료이다. 그동안 사찰마다 주관에 따라 불상을 조성하고 의식절차를 행하였으나 이 판본이 간행된 이후에는 예전에 비해서 일정한 법식에 따라 의식을 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 1  
2 3 4

1. 조상경 표지,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조상경 서문,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독송하는 진언 범어·한문·한글 병기,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간행기록,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1  
2 3

1. 조상경 표지, 2017\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간행기록, 2017\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조상품, 2017\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19호

현수제승법수

賢首諸乘法數

조선시대(1500년)
1책
27.1×16.2cm
종이(단종이)
남양주시 천마로 115-13
지정일：2009.02.09
소유자：수진사
관리자：수진사




1	2	3	4
1. 현수제승법수 표지,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현수제승법수 서,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중편현수법수 서,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간행기록,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현수제승법수』는 여러 법문에서 3법인三法印·4성제四聖諦·6바라밀六波羅蜜·8정도八正道 등과 같이 숫자가 들어있는 용어를 모아서 숫자 순서별로 정리한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엮어놓은 일종의 불교 용어사전이다.

당나라 승려 현수賢首(643~712)가 저술한 것을, 명나라 승려 행심行深이 보충하여 다시 편찬하였고, 1427년(세종9)에 간행한 명나라 판본을 구하여 해인사 등곡燈谷의 주관 아래 1500년(연산군6)에 합천 가야산 봉서사鳳栖寺에서 간행하였다. 현재 해인사에 목판이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판식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계선은 없고, 행자수는 일정하지 않으며, 행자수는 일정하지 않으며, 판심에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가 있다. 현재 보존상태는 불량한 편이며, 판심의 하단 부분이 훼손되어 보수한 흔적이 뚜렷하다.

권수券首에 1427년(세종9)에 작자 미상이 쓴 『현수제승법수서賢首諸乘法數序』와 1387년(고려 우왕13)에 천태종 범고梵耑가 쓴 『중편현수법수서重編賢首法數序』 등 2편의 서문이 수록되어있다. 서문 다음에는 부처님의 계보를 도표로 그린 기교불조起敎佛祖가 있고 권수제, 편찬자가 등장하고 이어서 본문으로 연결된다. 권말에는 등곡燈谷의 발문이 실려 있고 이어서 간행기록과 법총法聰·계은戒恩 등의 시주施主·각수刻手·연판鍊板·공양주供養主·알선幹善비구 이름이 실려있다.

이 판본은 흔치 않은 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 충분히 보존가치가 높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20호

포천 동화사 목조불좌상

抱川 東和寺 木造佛坐像

조선시대
1점
101.5×62.0cm
목재
포천시 이동면 성장로1289번길 29
지정일：2009.02.09
소유자：동화사
관리자：동화사


<포천 동화사 목조불좌상>은 포천 동면의 동화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목조불좌상은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려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하고, 왼손을 무릎 위에 수평으로 놓아 가운데 두 손가락을 구부린 전형적인 조선후기 석가불의 수인을 하고 있다. 불상은 상체를 약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이지만, 얼굴과 신체의 비례는 알맞은 편이다. 머리에는 뽕족한 나발螺髮이 촘촘하고, 이마에 반원형 중앙계주中央髻珠 정수리에 원통형 정상계주頂上髻珠가 장식되어 있다. 얼굴은 작고 가름하며 입은 끝을 살짝 올려 미소를 지은 듯 표현하였다. 두 귀는 옆으로 벌어지고 귓볼이 두툼하여 커 보인다. 착의법은 오른쪽 어깨에 살짝 걸쳐지면서 밑으로 무겁게 흘러 내려 왼쪽 어깨로 넘어간 변형 편단우견이다. 오른쪽 어깨의 일부를 덮으면서 흘러내린 대의 옷자락은 윤곽선을 둥글리면서 층지게 내려 장식적인 느낌이 강하다. 이러한 장식성은 무릎 사이에 사선으로 물결치듯 흘러내린 대의자락 표현에서도 두드러진다. 왼쪽 무릎에는 소매자락이 연판형으로 늘어져 있다.

- 1 2
- 

- 포천 동화사 목조불좌상,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동화사 목조불좌상 세부,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21호

## 수원 청련암 영산회상도

水原 靑蓮庵 靈山會上圖

조선시대(1891년)  
1점  
124.5×449cm  
비단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335

지정일 : 2009.06.24  
소유자 : 청련암  
관리자 : 청련암

<수원 청련암 영산회상도>는 청련암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영산회상도는 인도 영취산靈鷲山에서 석가모니부처가 『법화경法華經』을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이 불화는 가로로 길어진 직사각형의 중앙에는 청련화좌靑蓮華坐에 앉은 석가삼존을 배치하고 좌우에는 각 7명의 나한羅漢을 2단으로 나란히 배치하였다. 석가모니부처와 협시보살 사이에는 아난과 가섭존자를, 상단 가장자리 좌우에는 사천왕 2명과 합장한 인물 1명을 배치하였다.

원형의 두광과 신광에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하고 있는 석가모니부처는 가름한 턱에 이목구비가 작게 표현되었다. 신체는 하체가 다소 빈약해 보이며, 오른팔이 길어 보이나, 전체적으로 비례와 균형이 잘 잡혔다. 붉은색 대의의 깃은 녹색이고 흰색으로 둥근 연꽃문양을 그렸다. 석가모니부처의 두광은 녹색, 신광은 흰색·청색·황색·녹색의 띠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두드러져 보인다. 녹색의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연화좌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좌우의 협시보살은 붉은색의 보관과 목걸이를 하고 있다. 석가삼존 좌우에는 14명의 나한이 배치되어 있는데,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 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인물들의 표정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 불화는 녹색과 붉은 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청색·백색·황색 등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화면의 빈 공간과 인물들의 의습에 사용된 청색은 매우 두드러진다.

화면 하단 좌우의 화기畵記에 따르면 1891년(고종28) 3월 29일에 영산탱靈山幀을 조성하여 경기좌도 수원부 광교산光敎山 청련암靑蓮庵에 봉안하였고, 의암 현조犧庵炫眺·창수昌秀·경림敬林 등의 불화승佛畵僧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19세기 후반에 서울과 경기에서 활동했던 불화승들이다.

수원 청련암 영산회상도, 촬영일미상, 성보문화재연구원



- ① 석가모니불
- ② 보현보살
- ③ 문수보살
- ④ 십육나한
- ⑤ 사천왕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22호

## 화성 용주사 목조감실

華城 龍珠寺 木造龕室

조선시대  
1점  
높이 217cm  
목재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2009.06.24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화성 용주사 목조감실>은 용주사 창건 시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공예품이다. 목조 감실은 두 점이 남아있는데, 상륜부가 남아 있는 감실의 전체 높이가 217cm이다. 1점은 상륜부가 세 단으로 이루어진 연판 위에 호리병 모양의 상륜相輪이 남아있고, 나머지 목조 감실은 상륜부가 결실되었다. 지붕은 급한 경사로 내려오다가 처마 끝에서 이루고 있다. 처마 끝 공포栱包는 건축물과 같이 세밀하고 견고하며 모서리에 여섯 개의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다. 감실의 기둥 중간에는 난간을 둘러 두 단으로 나누어 2층의 누각처럼 보인다. 기둥 사이에는 막힘이 없어 6면에서 모두 감실 내부의 봉안물이 보이도록 되어 있다. 기둥 사이에는 막힘이 없어 6면에서 모두 감실 내부의 봉안물이 보이도록 되어 있다. 하단의 바닥 면은 여러 조각을 서로 끼워 맞추었고, 바닥과 기둥을 서로 연결하는 금속 장식이 달려 있다.

원래 목조감실은 축성전祝聖殿에 있었다가 지장전과 대웅전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축성전이라는 명칭은 군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던 곳으로, 용주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던 사도세자思悼世子와 그의 비인 혜경궁 홍씨의 위패가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  
2 3

- 1. 화성 용주사 목조감실,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2.3. 용주사 목조감실 세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화성 용주사 지장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일괄

華城 龍珠寺 地藏殿 木造地藏菩薩坐像과 十王像 一括

조선시대  
1점  
지장보살 104×75cm  
시왕상 150~177cm  
목재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2009.06.24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①진광대왕 ③송제대왕 ⑤염라대왕 ⑦태산대왕 ⑨도시대왕  
②초강대왕 ④오관대왕 ⑥변성대왕 ⑧평등대왕 ⑩전륜대왕



<용주사 지장전 목조지장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은 용주사 말사였던 화성시 동탄면 만의사萬儀寺 지장전에 봉안되어 있었던 것인데 1894년(고종31) 지장전이 허물어지자 용주사로 옮겨 온 것이다. 만의사는 사명당 유정惟政의 제자 선화禪華가 오랫동안 주석駐錫했던 곳이 우암 송시열宋時烈 묘의 이장지로 선정되면서 원래 위치인 신리에서 중리로 옮긴 뒤 사명을 만의사萬義寺에서 만의사萬儀寺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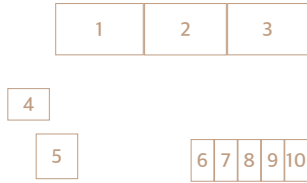
지장삼존상과 시왕상 등 일괄의 불상은 총 31구가 지장전에 봉안되어 있고 동자상 10구는 용주사 효행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지장상은 상반신을 앞으로 숙이고 결가부좌한 자세이며,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들어 석장錫杖을 쥐고 왼손은 다리 위에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취하였다. 머리는 원정형圓頂形의 민머리이며, 둥근 넓적한 얼굴, 가는 눈에 오목한 삼각형의 코, 작은 입이 특징이며 단정하고 인자한 인상이다. 법의는 통견식으로 입었는데 오른쪽 어깨에 복견의를 걸치고 그 위에 대의를 돌려 입었다. 오른쪽 어깨의 대의는 주름끝단이 층단을 이루고, 배 앞의 복견의와 대의가 서로 대칭되게 교차해 있다. 가슴 아래 승각기僧脚崎는 대각선으로 접어 모양을 내었으며, 다리 위에 옷자락은 가운데부터 맞주름을 잡아 정리했다. 또한 왼쪽 다리 위에는 작고 끝이 뾰족한 나뭇잎 같은 옷자락이 덮혀 있다. 전체적으로 표현이 간략하고 단정함을 느끼게 한다.

좌측의 도명존자道明尊者의 얼굴은 본존인 지장상과 닮았으며, 우측의 무독귀왕無毒鬼王은 시왕상의 얼굴과 대동소이하다. 시왕상은 의자상椅子像의 자세로 1(진광대왕)·3(송제대왕)·5(염라대왕)·7(태산대왕)·9(도시대왕)·2(초강대왕)·4(오관대왕)·6(변성대왕)·8(평등대왕)·10(전륜대왕)의 대왕이 좌우에 번갈아가며 배치

되어 있다. 복장은 단령에 관대를 하고 가죽신인 화靴를 신고 있으며, 원유관遠遊冠에 홀을 들거나 명부를 펼쳐 든 자세이다. 입술은 살포시 다물어 무표정하거나 앞니를 드러내고 있는 다소 해학적인 표정도 보인다. 그 외 귀왕은 시왕과 표정과 복장이 유사하며, 판판은 사모관대의 복장을 하고, 사자는 복두幞頭와 가죽신을 신고 있다. 문 입구 양측의 금강역사는 주먹 진 한 손을 높이 들고 다른 손에는 육모방망이와 칼을 든 채 눈을 부릅뜨고 이들 존상을 외호하는 모습이다. 지장전 불상은 조성기 등 복장물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만의사에서 용주사 지장전으로 옮겨온 시기 등을 고려해 보면 17세기 초를 전후해 조성된 상으로 추정된다.

용주사 지장전에는 지장삼존상·시왕 등 일괄의 조각상이 모두 남아 있으며, 표현의 생략·단순화로 각각의 존상에서는 단정함과 위엄이 느껴진다. 이것이 곧 조각승의 미감과 조각적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1. 화성 용주사 지장전 우측 시왕상 일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화성 용주사 지장전 목조지장보살좌상 전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지장전 좌측 시왕상 일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용주사 효행박물관 소장 동자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5. 지장전 목조지장보살좌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6. 지장전 우측 금강역사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7. 지장전 무독귀왕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8. 지장전 도명존자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9. 지장전 우측 사자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10. 지장전 좌측 금강역사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광명 이원익 초상화

光明 李元翼 肖像畵

조선시대  
1점  
156×82.5cm  
종이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5

지정일 : 2009.06.24  
소유자 : 이승규  
관리자 : 충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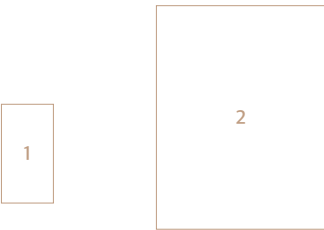


<광명 이원익 초상화>는 조선중기 문신인 오리 이원익(梧里李元翼, 1547~1634)의 초상화이다. 이원익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태종의 아들인 익녕군(益寧君) 이치(李祔)의 4세손으로, 선조·광해군·인조 대에 모두 영의정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의 공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이괄의 난 때에는 77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왕을 공주까지 호종하였다. 매우 청빈한 삶을 살았으며 선조 때에는 청백리에 녹선(錄選)되었고, 인조 때에는 궤장(几杖)을 받았다.

이 초상화 외에 유형문화재 제80호 등 다수의 초상이 전해진다. 이 초상은 사모에서 얼굴, 흉배 윗부분까지와 나머지 부분이 서로 다른 종이에 그려져 정교하게 붙어 있으며, 뒷면에는 1604년(선조3)에 그린 초상의 초본이라는 글이 있다. 이를 통해 상단의 부분은 이원익의 호성공신초상인 보물 제1435호를 그리는 과정에서 제작된 초본임을 알 수 있으며, 후대에 바탕을 덧붙이고 나머지 몸을 그려 한 벌의 초상으로 만들어 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얼굴은 매우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가는 선묘로 이목구비와 주름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붉은 기가 도는 열은 선염으로 코 등 주요 부위에 가하여 인물에 생동감을 주었다. 보물 제1435호와 비교해보았을 때, 바탕의 채전(彩氎)이 화문석(花紋席)으로 바뀐 정도의 차이 외에는 표현과 구성이 거의 유사하나 흉배와 서대, 단령과 화문석의 문양 등의 표현이 다소 떨어져 후대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광명 이원익 초상화는 얼굴은 공신초상의 초본이면서도, 몸은 공신초상을 이모(移模)하여 제작한 특수한 경우로 조선시대 초상 제작문화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1. 이원익 초상화, 2004. 충현박물관  
2. 이원익 초상화 안면부,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화성 용주사 삼장보살도

華城 龍珠寺 三藏菩薩圖

조선시대  
1점  
173×318cm  
비단  
화성시 용주로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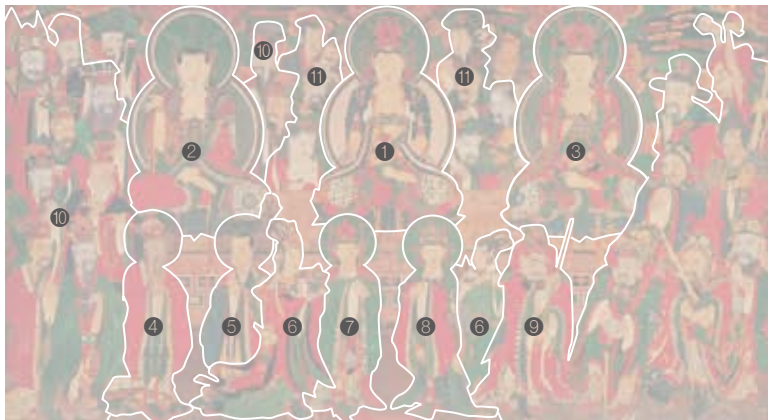
지정일 : 2009.06.24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화성 용주사 삼장보살도>는 1790년(정조14) 용주사 대웅전이 완성되고 일시에 조성된 탱화 가운데 하나이다.

삼장보살도는 수륙재水陸齋의 중단의례용中壇儀禮用 불화로, 천장보살天藏菩薩·지지보살持地菩薩·지장보살地藏菩薩을 주존으로 하고 각각의 권속들이 둘러싼 모습을 그린 불화이다. 세 보살은 한 폭에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두폭이나 세 폭에 나누어 그려지기도 한다. 이 삼장보살도는 가운데에 천장보살, 오른쪽에 지지보살, 왼쪽에 지장보살을 배치하였으며 하나의 긴 수미단 위에 세 보살이 나란히 걸가부좌하고 있다. 양 손으로 경책經冊을 쥐고 있는 천장보살의 아래에는 범천과 제석천, 복숭아와 석류 혹은 책과 병 등이 올려진 쟁반을 든 천녀가 표현되어 있고, 양 옆에는 선인, 동자 등 천부중天部衆이 배치되어 있다. 왼손에 경책을 쥐 지지보살의 아래에는 용머리 장식 판을 쓰고 칼을 아래로 내린 용龍, 붉은 머리털과 용왕의 흰 수염을 달고 칼을 위로 올린 야차夜叉를 비롯한 천룡팔부天龍八部가 배치되어 있다. 투명한 두건을 쓴 지장보살의 대좌 아래에는 도명존자道明尊者和 무독귀왕無毒鬼王이 좌우로 협시하고 있으며, 시왕과 판관이 보살을 둘러싸고 있다. 세 보살의 보낭寶囊이 아름다운 꽃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 특히 보낭에 매듭장식을 단 표현은 흔치 않다.

색채는 적색과 녹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그 외 다양한 색이 골고루 사용되었다. 성중들의 얼굴색은 갈색기 있는 황색과 흰색에 가까운 색 두 가지를 번갈아 사용하였고, 간혹 음영을 넣기도 하였다. 보살과 천天은 황색으로, 동자와 천녀들은 옅은 황색으로 채색하였다. 전체적으로 색감이 강하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

이 불화는 민관旻官을 수화승首畵個으로 하여 총 8명의 화승이 조성하였는데, 민관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으로 화성 축성 및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신록사 삼장보살도(1758)와 더불어 현존하는 18세기 경기지역 삼장탱 중 보기 드문 예로서, 조선후기 삼장탱 가운데서도 높은 완성도를 갖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① 천장보살
- ② 지장보살
- ③ 지지보살
- ④ 무독귀왕
- ⑤ 도명존자
- ⑥ 천녀
- ⑦ 제석천
- ⑧ 대범천
- ⑨ 천룡팔부
- ⑩ 시왕
- ⑪ 천부중



- 1. 화성 용주사 삼장보살도, 촬영일미상. 성보문화재연구원
- 2. 제석천과 대범천, 촬영일미상. 성보문화재연구원



# 화성 용주사 중종

華城 龍珠寺 中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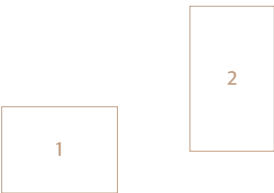
조선시대(1790년)  
1구  
86.8cm  
금속(청동)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2009.06.24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화성 용주사 중종>은 명문銘文에 의해 정조가 사도세자의 원찰願刹로 용주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하던 1790년(정조14)에 주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종은 크기상으로는 중형 종에 속한다.

종의 상부에는 쌍용雙龍의 용뉴龍紐가 완만히 솟은 천판天板 위에서 입을 크게 벌려 당당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천판 주변에는 고려시대 범종에서 처음 등장한 입상화문대立狀花文帶 장식이 둘러져 있다. 종신鐘身은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상이며, 상·하대上·下帶의 폭을 크게 줄여 충분한 여백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범자문梵字文·연곽蓮廓·연뢰蓮蕾·보살입상菩薩立像·위패형位牌形 장식·명문 등 다양한 장식문양을 여유롭게 배치하였다. 상대는 2단으로 구성하고 상대는 연화당초문, 하단은 여의두문如意頭文으로 장식하였다. 상대 아래 원권圓圈의 범자문의 내용은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과 파괴옥진언破地獄眞言들이다. 그 아래 사방에는 4개의 연곽이 자리하였는데 내부엔 연뢰를 9개씩 표현하였으며 모두 자방子房이 돌출된 형상이다. 연곽 사이 공간에는 합장한 보살입상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문을 쓴 위패 장식을 배치하였다. 종신 하부에는 종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명문과 연화당초문으로 표현된 하대가 있다.

이 종의 제작 장인은 윤덕칭尹德稱, 윤덕흥尹德興, 윤계원尹啓元으로 18세기 전반부터 전라도 지역(장흥·해남·순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주종장鑄鐘匠 일파로 알려져 있다. 범종 제작의 총감독격인 감역監役은 당시 용주사 중창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사일獅駟스님인데 사일 스님이 장흥 보림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윤씨 일파와 이 종의 주성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윤씨 일파 계열의 작품에는 단룡單龍의 용뉴, 음통音筒, 입상화문대 장식 등 전통적인 한국 범종의 특징을 많이 보이는데 이 종은 쌍룡의 용뉴, 위패형 장식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구조상태와 당시 장인들의 주종 활동 및 계보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1. 화성 용주사 중종 용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화성 용주사 중종,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 안성 칠장사 목조지장삼존상과 시왕상 일괄

安城 七長寺 木造地藏三尊像과 十王像 一括

조선시대  
21구  
지장보살 높이 120.7cm  
시왕상 높이 150cm 내외  
목재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지정일 : 2009.06.24  
소유자 : 칠장사  
관리자 : 칠장사



①진광대왕 ③송제대왕 ⑤염라대왕 ⑦태산대왕 ⑨도시대왕  
②초강대왕 ④오관대왕 ⑥변성대왕 ⑧평등대왕 ⑩전륜대왕



1. 안성 칠장사 지장전 우측 시왕상 일괄,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안성 칠장사 지장전 목조지장삼존상 전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지장전 좌측 시왕상 일괄,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4. 지장전 목조지장보살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5-6. 지장전 판관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7-8. 지장전 녹사,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안성 칠장사 목조지장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은 칠현산七賢山에  
위치한 칠장사 지장전에 봉안되어 있다.

지장보살좌상은 중대형의 크기로 얼굴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머리는 민머리의 성문비구형聲聞比丘形이며  
신체에 비하여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큰 편이다. 타원형의 얼  
굴에는 반쯤 뜯은 눈에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삼각형을  
이루며, 입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특히 콧등이 다른 불상에 비  
하여 유난히 평평하여 특이하다.

따로 제작된 왼손은 어깨 높이까지 올려 가느다란 엄지와 중지를 맞  
대고, 오른손은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手印을 하고 있다. 두꺼운 대의大衣는 변형우견편단으로,  
바깥에 걸친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서 대의자락이 가슴까지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늘어져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  
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  
와 복부에서 펼쳐져 있다.

특히, 왼손 손목에 늘어진 옷자락의 끝단이 거치문鋸  
齒紋으로 접혀 길게 늘어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  
락은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복부에서 바닥으로 펼쳐  
진 끝자락의 끝단이 S자형으로 접혀있다. 대의 안쪽  
오른쪽 어깨에는 편삼扁衫을 걸치고 있고, 윗부분이  
양련형仰蓮形으로 처리된 승각기僧脚崎를 입고  
있다. 불상 뒷면은 목둘레에 대의를 두르고, 왼  
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자락을 길게 늘  
어뜨려 처리하였다.



도명존자道明尊者和 무독귀왕無毒鬼王은 본존의 적절한 신체비례에 비하여 얼굴이 무척 강조되  
었다. 도명존자는 민머리에 합장을 하고, 각이 진 얼굴에 가느다란 눈썹, 오목한 코, 작은 입 등이  
표현되었다. 청색 장삼 위에 붉은 색 가사를 왼쪽 어깨에서 대각선으로 자연스럽게 걸쳐고 있다.  
시왕은 옷깃에 화려한 꽃문양이 있는 문관복文官服을 입고 대부분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있지만,  
염라대왕과 오관대왕은 책관冊冠을 쓰고 있다. 손에는 홀笏 또는 경전經典을 들고 있거나 자연스  
럽게 손을 올리고 있다. 적색의 포 밑으로 치마를 입고, 앞은 무릎 사이에 내부에 꽃문양이 장식된  
광다회廣多繪가 길게 늘어져 있다.

지장보살상 연화대와 하단의 목서 및 시왕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서 1713년 시왕상을 칠장사  
전각에 봉안하기 위하여 화원 금문金文·청윤淸允 등이 2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금문은 1640년(인조18) 전후에 태어나 1650년대 혜희惠熙 밑에서 보조화승補助畫僧  
으로 활약한 후, 1675년(숙종1)에 김제 금산사 대장전 불상제작 때는 부화승副畫僧으로, 1680년대  
에는 수화승首畫僧으로 활약하였다.





## 계해사궐장연첩

癸亥賜几杖宴貼

조선시대(1623년)  
1책  
48×35.5cm  
종이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5

지정일 : 2009.10.16  
소유자 : 이승규  
관리자 : 충현박물관

1623년(계해년, 인조1) 9월 6일, 오리 이원익梧里李元翼(1547~1634)이 77세의 나이로 관직에서 물러나자, 예법에 따라 궁중에서는 기로소耆老所에서 기로연耆老宴을 베풀어 주었고, 임금은 안석(筵, 几)과 지팡이(杖, 杖)를 하사하였다. 이 연회는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기로연으로, 임진왜란과 인조반정의 혼란을 겪은 뒤 국가의 문물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의미가 담긴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계해사궐장연첩』은 당시 기로연에 참석한 빈객賓客 등이 주고받은 축시를 모은 시첩詩帖으로, 첫 장에는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 유근柳根(1549~1627)이 소서小序를 곁들여 지은 시 서문이 있고, 이어 그의 오언배율五言排律 십운시十韻詩와 여기에 차운次韻한 참석자들의 시 21편, 연회 후에 보내온 시 11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시들은 모두 오리 이원익의 덕행을 칭송하고 궐장을 하사받은 영예를 축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계해사궐장연첩』의 제작에는 당대 저명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서 이원익의 교우관계를 엿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당일에 참여한 인물이 윤방尹昉·신희申欽·이호민李好閔·이광정李光庭·이정귀李廷龜·한준겸韓浚謙·이준李準·이귀李貴·이덕형李德炯·김류金瑬, 이시언李時彦·이시발李時發·오윤겸吳允謙·민인백閔仁伯·오백령吳百齡·이홍주李弘胄·이경함李慶涵·이성구李聖求·이준李竣·이원익李元翼 등 22명이고, 당일에 참석하지 못하고 뒷날에 수창酬唱한 이는 이수광李睟光·정광적鄭光績·김상헌金尙憲·조익趙翼·이민구李敏求·이식李植·목장흠睦長欽·목대흠睦大欽·홍방洪霧·김세렴金世謙·오준吳竣 등 11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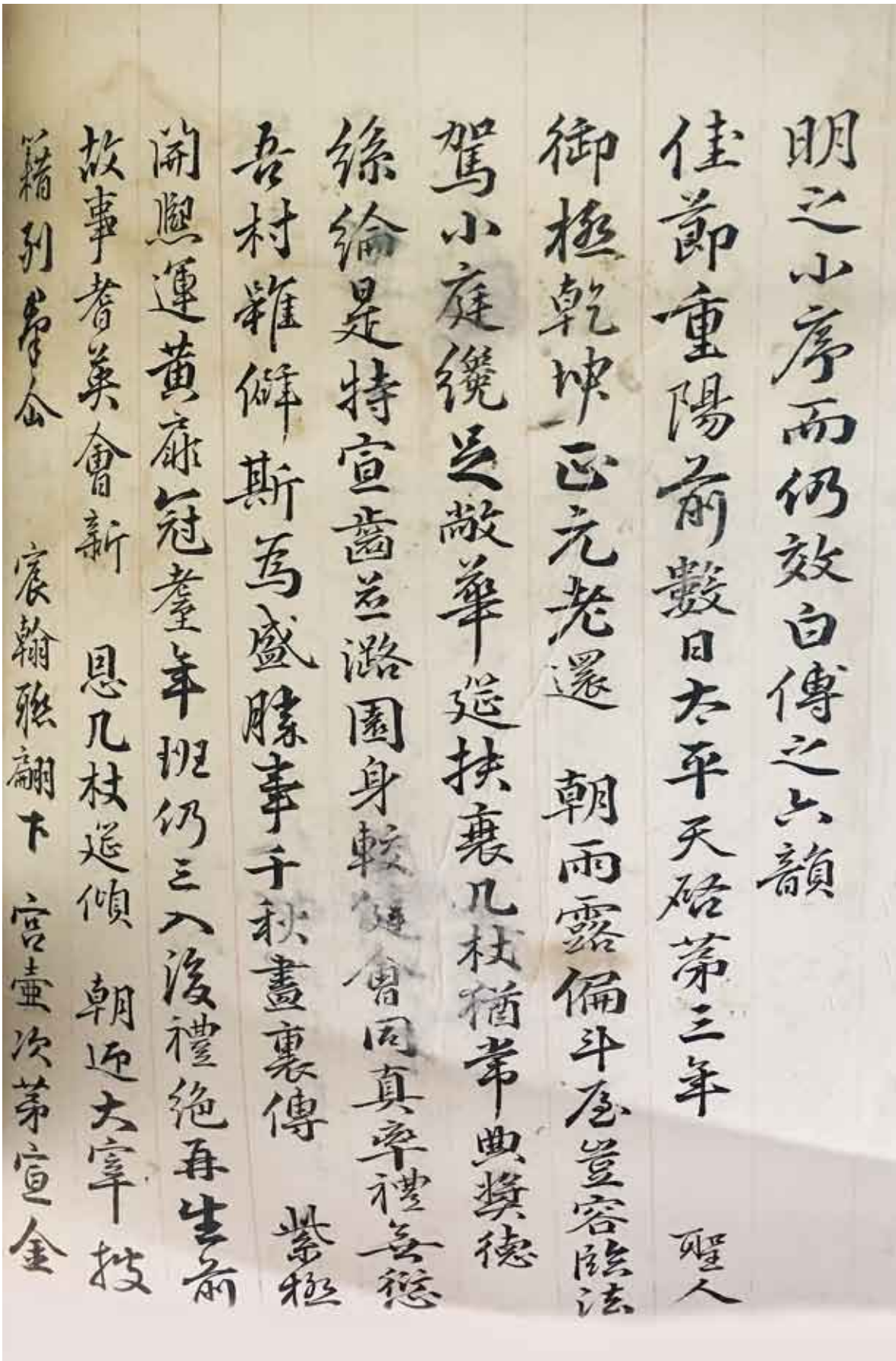
이렇게 다수의 빈객이 참여하여 축시를 지었지만 모두 같은 사람의 필체로 정서精書한 것으로 보아 이 시첩은 원본을 바탕으로 필서한 전사본轉寫本으로 판단된다. 연회도가 포함된 원본 시첩詩帖 「사궐장연겸기로회도賜几杖宴兼耆老會圖」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계해사궐장연첩』은 연회도가 빠진 사본이기는 하지만 궐장연시첩의 전래본이 많지 않고 또 본서도 당시에 편찬된 것으로서 원본을 보완하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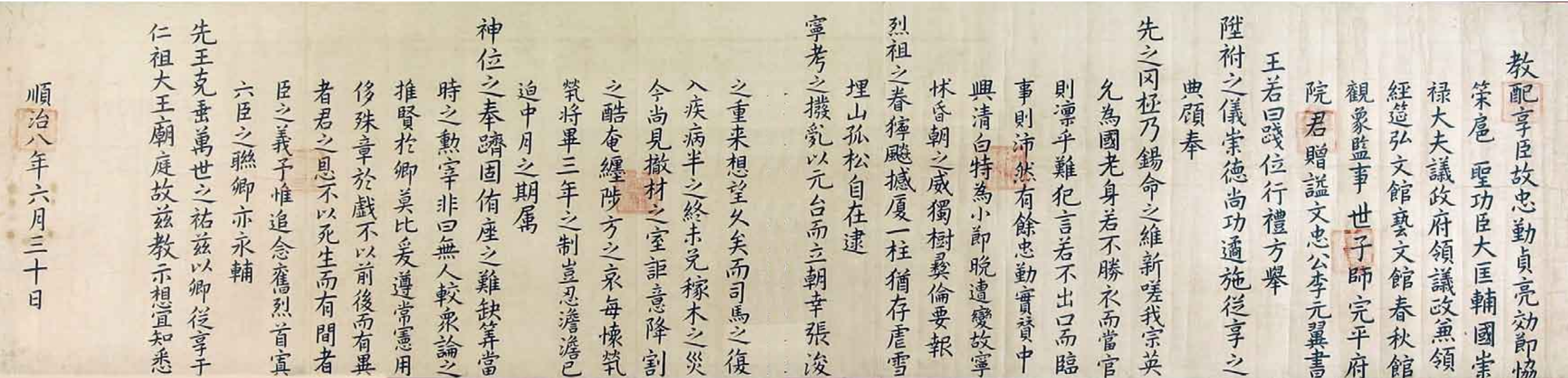
1

1. 계해사궐장연첩, 2004. 충현박물관  
2. 계해사궐장연첩 내지,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이원익 인조묘정배향교서, 2004. 충현박물관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29호

## 이원익 인조묘정배향교서

李元翼 仁祖廟廷配享敎書

조선시대(1651년)  
1권  
88×364cm  
종이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5

지정일 : 2009.10.16  
소유자 : 이승규  
관리자 : 충현박물관

<이원익 인조묘정배향교서>는 1651년(효종2) 6월 인조임금의 묘정에 이원익李元翼(1547~1634)을 배향한다는 교서로, 글은 채유후蔡裕後가 짓고, 글씨는 민유중閔維重이 썼다. 교서의 전문은 모두 34행 381자로 이루어져있으며 내용에 따라 세 부분(제1행에서 제6행, 제7행에서 제33행, 제34행)으로 나뉜다. 제1행에서 제6행은 서두書頭부분으로 이 교서가 배향교서配享敎書라는 점과 배향대상자의 직함과 성명을 밝히고 있다. 제7행에서 제33행은 이 교서의 본문으로 이원익의 인품과 공적을 송나라의 명재상인 사마광司馬光과 장준張浚에 비유하면서 찬양하고, 인조 묘정에 배향된 6명(이원익·신희申欽·김류金瑬·이귀李貴·신경진申景禎·이서李曙)의 공신 중 첫 번째 자리에 배향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제34행에서는 이 교서가 시행된 것이 조선 효종 2년 6월 30일임을 밝히고 있다.

敎配享臣故忠勤貞亮効節協  
策扈聖功臣大匡輔國崇  
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  
觀象監事世子師完平府  
院君贈謚文忠公李元翼書  
王若曰踐位行禮方舉  
陞祔之儀崇德尚功適施從享之  
典願奉  
先之罔極乃錫命之維新嗟我宗英  
允為國老身若不勝衣而當官  
則凜乎難犯言若不出口而臨  
事則沛然有餘忠勤實賢中  
興清白特為小節晚遭變故寧  
休昏朝之威獨樹彛倫要報  
烈祖之眷惇飈撼厦一柱猶存虐雪  
埋山孤松自在逮  
寧考之撥亂以元台而立朝幸張浚  
之重来想望久矣而司馬之復  
入疾病半之終未免稼木之災  
今尚見撤材之室詎意降割  
之酷奄纏陟方之哀每懷筑  
筑將畢三年之制豈忍澹澹已  
迫中月之期属  
神位之奉躋固侑座之難缺筭當  
時之勲宰非曰無人較衆論之  
推賢於卿莫比爰遵常憲用  
侈殊章於戲不以前後而有異  
者君之恩不以死生而有間者  
臣之義予惟追念舊烈首寘  
六臣之聯卿亦永輔  
先王克垂萬世之祐茲以卿從享于  
仁祖大王廟庭故茲敎示想宜知悉

順治八年六月三十日

이원익은 자손들에게 시호諡號를 청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길 만큼 자신을 낮추었으며, 그가 세상을 뜬지 10년 후인 1644년(인조22)에 윤휘尹暉의 발의로, 배향교서와 같은 시기인 1651년(효종2) 6월에 시호를 받게 되었다. 인조 묘정에 배향된 공신 중 이원익이 첫 번째로 선정되었다는 점과 배향교서의 내용을 통해 이원익에 대한 사후의 평가가 어떠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원익 인조묘정배향교서는 제진자製進者和 필서자筆書者가 밝혀져 있는 점, 교서의 정확한 시기가 파악된다는 점, 종묘에 배향된 공신이 극히 적어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는 배향교서의 완전한 형식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30호

## 이원의 유서

李元翼 遺書

<span></span>
조선시대(1630년)
1매
72.6×87cm
종이(닥종이)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5
<span></span>
지정일：2009.10.16
소유자：이승규
관리자：충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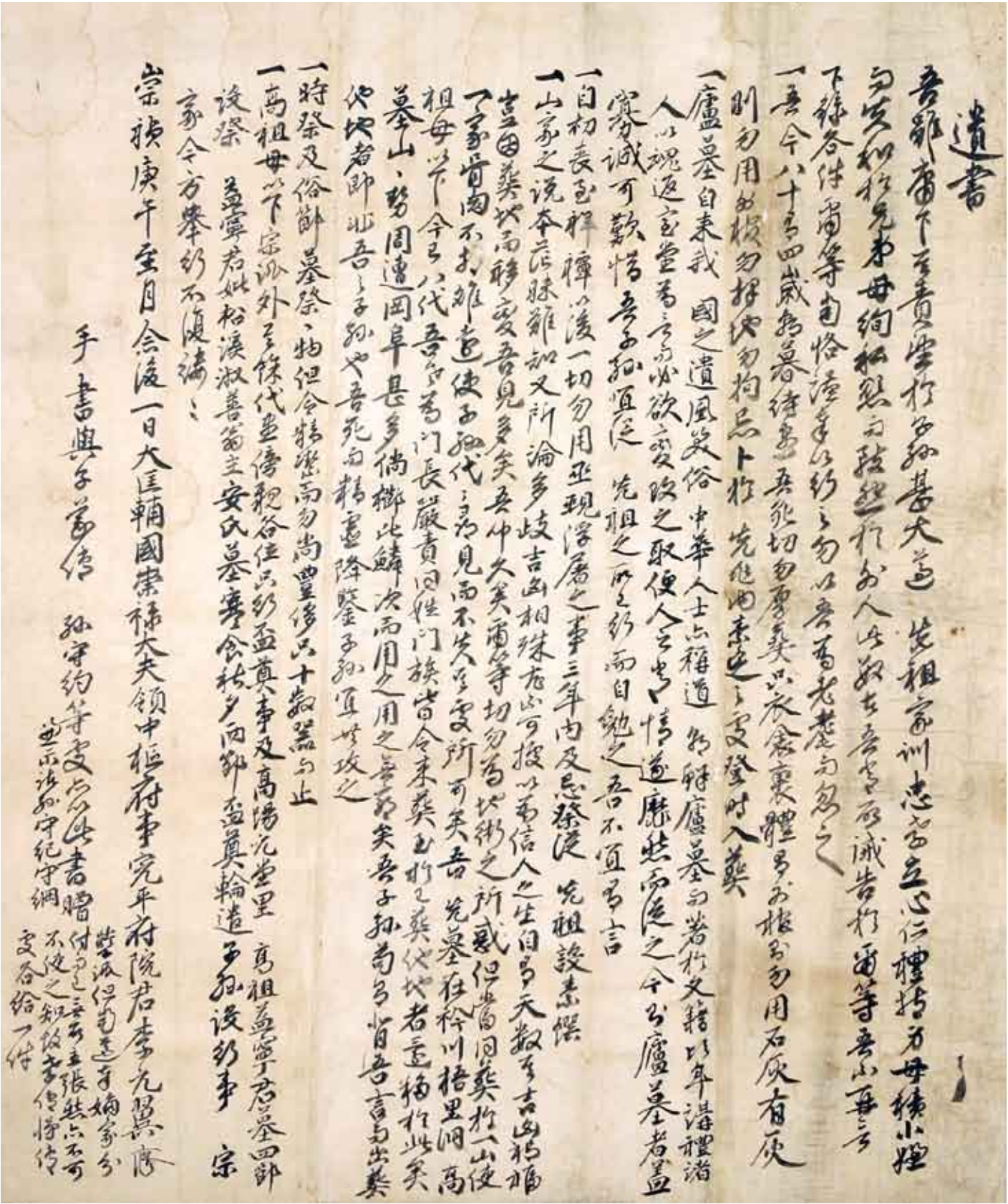
이원익李元翼(1547~1634)이 세상을 뜨기 4년 전인 1630년(인조8) 84세의 나이에 직접 작성한 유언장이다. 아들 의전義傳과 손자 수약守葯·수기守紀·수강守綱 등 후손에게 전할 목적으로 본인 사후에 지켜야할 사항을 6개조로 나누어 적었다.

그 내용은 첫째, 절대 후하게 장사지내지 말 것, 둘째, 여묘살이는 행하는 이가 적어지고 있으나 아름다운 풍속으로 힘써 지킬 것, 셋째, 초상을 치를 때부터 상제祥祭와 담제禫祭, 기제忌祭를 지낼 때에는 무당이나 불가佛家의 행사를 열지 말고, 검소하게 지낼 것, 넷째, 풍수지리에 현혹되지 말고, 일가의 묘소를 선묘先墓가 있는 금천衿川 오리동五里洞에 모아 관리할 것, 다섯째, 시제時祭 및 속절俗節 등 묘제의 제물들은 10여 점시로 간소하게 할 것, 여섯째, 고조모 이하 종파 외에 방계 종친의 각 신위는 잔만 올리도록 할 것. 고양 원당리 에 있는 고조부 익령군 묘소에 대해서는 네 절기(한식, 단오, 추석, 동지)에 제사를 지내고, 익령군의 어머니인 숙선옹주淑善翁主 안씨 묘소에는 한식과 추석 두 절기에만 잔을 올리도록 할 것 등이다.

이원익은 임진왜란과 인조반정이라는 대내외적 최고의 격변기에 국가의 요직을 역임한 배향공신으로 청백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유서에 나타난 내용들은 그가 난세를 살면서 체득한 지혜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그가 어떻게 청백리가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아울러 조선시대 중부지역 사족士族의 가풍을 보여주는 자료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인 사후의 장례와 제례, 묘지 관리 등의 내용이 주가 되고 재산 상속등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유교의식에 따라 검소하게 행할 것을 강조한 점과 일가의 묘소를 촘촘하게 쓰로 공동묘지처럼 관리한 점이 주목된다.

유서의 말미에는 적은 수신자는 적자嫡子 뿐만아니라 서자庶子 효전孝傳·제전悌傳도 포함하고 있으며 서자들은 적자손들에게 순종해야 할 도리도 적었다.



이원의 유서, 2004. 충현박물관



## 이원익 도망시

李元翼 悼亡詩

조선시대(1604년)  
1매  
120×30cm  
종이(닥종이)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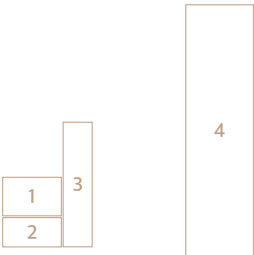
지정일：2009.10.16  
소유자：이승규  
관리자：충현박물관

<이원익 도망시>는 이원익李元翼(1547~1634)이 1604년(선조37) 먼  
저 세상을 뜬 아내 영일정씨迎日鄭氏를 애도하며 쓴 만시輓詩이다.  
만시는 죽은 이의 덕행을 드러내고 추모하는 글로, 장사를 지낸 후  
내용은 베껴 보관하고 태우는 것이 관례여서 원본이 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이원익 도망시는 이원익이 손수 쓴 것이라 특별한 의미  
가 있다고 생각되어 보존해온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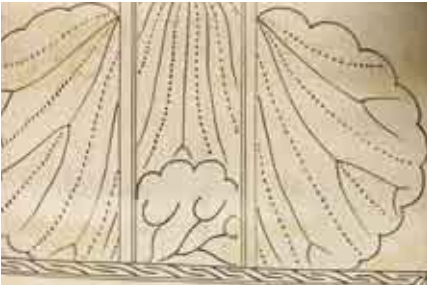
상단에는 연잎을, 하단에는 연꽃을 그려 넣었고, 가운데에는 만시를  
행초서行草書로 6행을 썼다.

따로 제목은 없으나 이원익의 문집 『오리집』에 ‘도망悼亡’이라는 제  
목으로 같은 내용의 만시가 수록되어 있다. 원본과 문집에 수록된 도  
망시를 비교해보면 글자의 출입이 몇 군데 있으나 내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본을 저자가 생전에 다시 다듬었거나 간행시기  
에 수정하여 문집에 실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원익 도망시에는 결혼 후 외지의 관직 생활로 자주 곁을 떠나 살  
았던 것에서 비롯된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운 심정, 아내의 순  
박한 품성에 대한 찬미, 그리고 자신도 저승에가 부부의 인연을 이어  
가겠다는 애뜻한 심경을 담고 있다. 만시는 원본으로 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조선시대 상장喪葬 예속禮俗 및 한문학 연구에 중요한 자  
료로 평가된다.



1. 이원익 도망시 상단 연잎,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이원익 도망시 하단 연꽃,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이원익 도망시,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이원익 도망시, 2004. 충현박물관



結髮爲夫妻 于今歲屢閱

상투를 틀고 쪽을 지고 부부가 된지 지금에 와서 몇 해나 지났을꼬.

宦遊出四方 怨曠何多日

벼슬하러 사방을 나다녔으니 독수공방했던 날이 얼마나 많았꼬

同室曾幾何 又遭難醫疾

같은 방에 함께한 날이 며칠이나 되겠소. 게다가 전란도 겪고 병도 앓지 않았소.

沉迷十載餘 昧昧恩情絕

십여 년 동안을 혼미하게 보냈으니 캄캄해져 은정이 끊어져 버린 것

賦性本淳朴 平生不爲惡

천성이 본래 순박하였으니 평생에 악한 짓을 하지 않았소.

何辜于蒼天 斯人有斯厄

저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이런 액을 만났을꼬.

兵塵奔竄時 幸不委溝壑

전쟁 중에 분주히 피난할 때에도 다행히 죽어 땅에 묻히지 않았소.

此日返故山 又何傷感感

이제야 겨우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또 이 어찌 슬픔에 서러워야 하는가.

幽明兩無憾 子女俱在側

이승과 저승 양쪽에 유감은 없으니 자녀들이 모두 곁에 있구려.

而我病不死 支離存視息

나는 병에 시달리면서도 아직 죽지 않고 지루하게 숨만 쉬고 있을 따름이요.

撫柩送君歸 羨君事乃了

관을 어루만지며 당신을 떠나보내니 당신의 할 일을 다 마친 것이 부럽다요.

苦願從此逝 不願在世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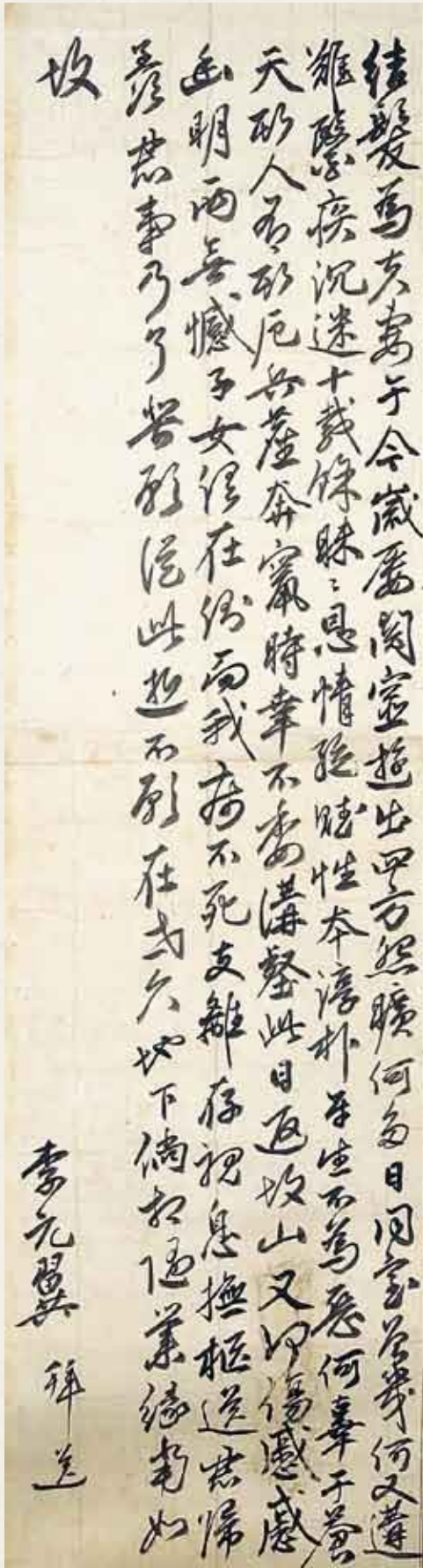
당신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으니

地下倘相隨 業緣當如故

지하에서 혹여 서로 이어져 있으면 업보의 인연은 마땅히 이전과 같으리오.

李元翼 拜 送

이원익 배 송





## 이원익 계자손서

李元翼 戒子孫書

1599년, 1628년  
2매  
서시자손 73×53cm  
서여손수약부연풍현 77.5×47cm  
종이(닥종이)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5

지정일 : 2009.10.16  
소유자 : 이승규  
관리자 : 충현박물관



<이원익 계자손서>는 이원익李元翼(1547~1634)이 자손에게 친필로 써서 준 훈계서로 2장이 전해진다. 한 장은 ‘동호초당東湖草堂에서 아들과 손자 및 후손에게 내린 훈계서’이고, 다른 하나는 ‘연풍현감延豐縣監으로 부임하는 손자 수약守約에게 써 준 훈계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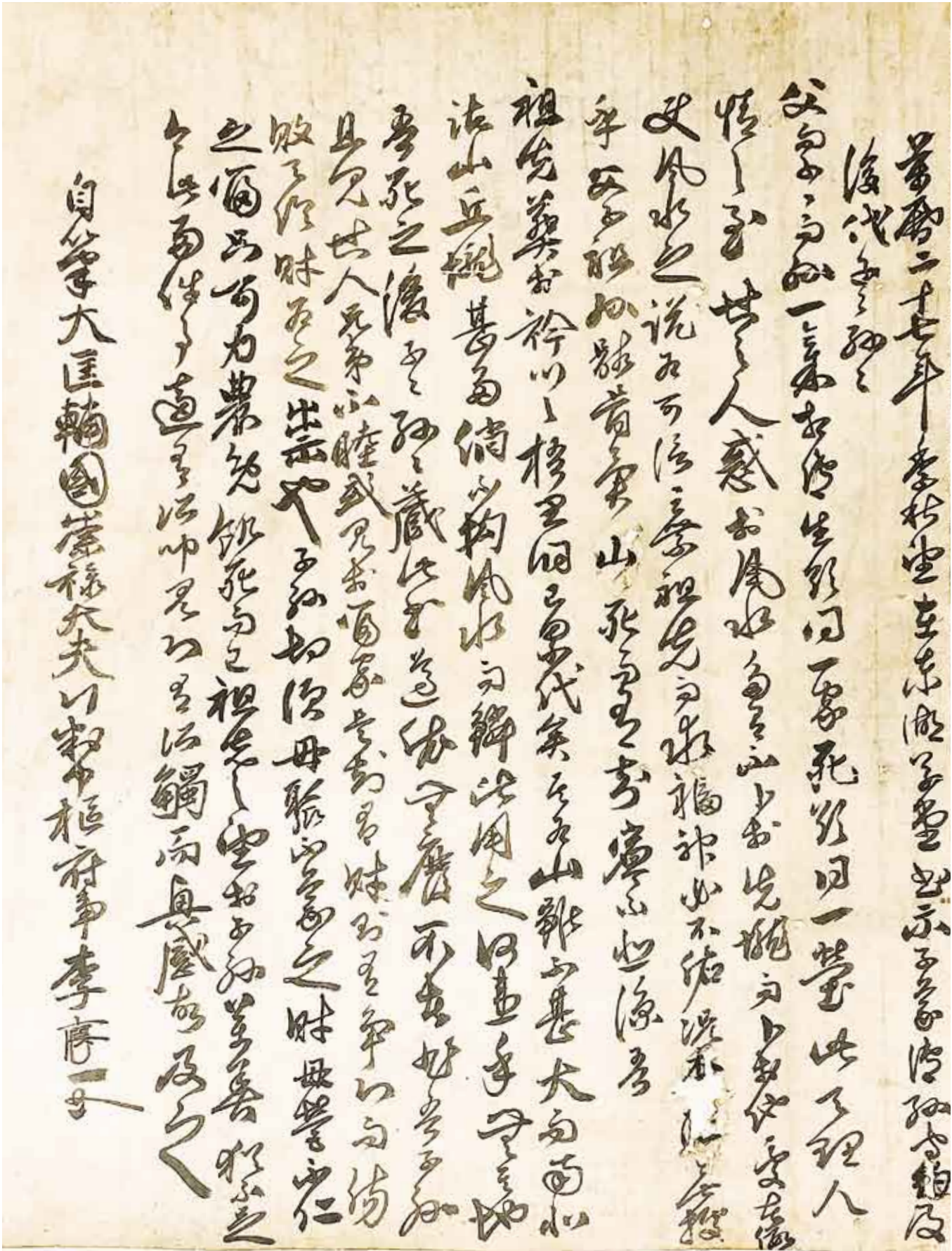
‘동호초당에서 아들과 손자 및 후손에게 내린 훈계서’는 1599년(선조32) 이원익이 53세에 영의정을 사임하고 판중추判中樞에 임명되어 동호초당에 기거하던 때에 자손들에게 써준 훈계서이다. 그가 생전에 중시 여겼던 풍수설에 구애 받지 말고 선산에 묘를 쓸 것과 형제간 재물을 탐하지 말고 화목하게 지낼 것을 강조한 내용으로 일부 내용은 이원익이 84세에 쓴 유서에도 포함되어 있다. 따로 제목은 없으나 『오리선생문집梧里先生文集』 보유편補遺篇에 실린 같은 글의 제목은 ‘서시자손書示子孫’이다.

‘연풍현감延豐縣監으로 부임하는 손자 수약에게 써 준 훈계서’는 손자 수약이 연풍(지금의 충북 괴산)에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자, 목민관牧民官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때 유념해야 할 덕목을 당부하는 글이다. 과거 여러 차례 지방관으로 부임하였던 이원익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이치들을 소상히 적었다. 이원익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현명한 목민관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이 담겨있어 지금까지도 귀감이 되는 글이다. 연기年紀가 없이 본문만 기록되어 있으나 『오리선생문집』 보유편에 이 글이 ‘서여손수약부연풍현書與孫守約赴延豐縣’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고, 작은 글자로 무진戊辰이라는 주를 달고 있어서 1628년(인조6) 이원익이 82세에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원익이 자손들에게 친필로 써서 준 훈계서는 조선중기 사대부 가문의 가풍家風을 보여주는 것이며, 조선시대 청백리 정신을 이해하는 기본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1. 연풍현감으로 부임하는 손자 수약에게 써 준 훈계서,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동호초당에서 아들과 손자 및 후손에게 내린 훈계서,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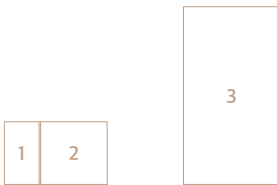


## 류상운 초상

柳尙運 肖像

조선시대  
2점  
평양본 176.7×104cm  
이모본 180.7×86.4cm  
비단  
양평군 옥천면 용천로 463

지정일 : 2009.10.16  
소유자 : 류민성  
관리자 : 류민성



1. 류상운 초상 평양 생사당 봉안본, 2008. 경기도
2. 류상운 초상 봉안본 안면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류상운 초상 모사본,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류상운 초상>은 조선중기의 문신인 류상운柳尙運(1636~1707)의 초상화이다. 류상운의 본관은 문화文化이고, 자는 유구悠久, 호는 약재約齋이다. 좌참찬 박동량朴東亮의 외손이며, 우의정 이행원李行遠의 사위이다. 1666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典籍, 사헌부 지평持平, 강계 부사府事 등을 거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으며, 1680년대에 평안도관찰사를 두 차례 지냈다. 평안도관찰사 재직 시에 선정善政을 베풀어 백성들이 생사당生祠堂을 만들고 초상화를 그려서 봉안했다고 한다. 현존하는 초상화 2점 가운데 한 점은 평양에 봉안했던 것(녹색단령)으로 추측되고, 나머지 한 점은 후대에 원본을 베껴 그린 이모본移模本(청색단령)이다.

평양의 생사당에 봉안되었던 초상은 그림 상단에 ‘觀察使兼巡察使柳公尙運畫像(관찰사겸순찰사류공상운화상)’이라 적혀 있다. 비단 3폭을 연이어 화본을 만들었으며, 녹색단령 하단부 가운데에서 오른 쪽 소매 자락까지 표면이 박락된 상태이다. 사모와 관대, 얼굴 부분, 복식의 전체 형상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체적인 묘사의 수준은 소략한 감이 있다. 전문 화원畫員이 아닌 지방 화사畫史의 솜씨로 추측되며, 이 그림이 17세기 후반기 당시의 원본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다른 한 점인 이모본은 생사당에 봉안된 초상을 모본으로 하여 18세기경에 베껴 그린 것으로 추측된다. 이모본 초상은 정면상에 청색단령을 입은 채 두 손을 소매 안에서 맞잡고, 호피가 깔린 의자에 앉은 모습이다. 문관 2품을 나타내는 운안雲雁 흉배가 붙어 있다. 얼굴은 분명한 선묘로 이목구비를 규정하였다. 교의자에 앉은 형상의 두 초상은 기본 형식이 유사하다.

조선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초상화 양식의 변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평양 생사당 봉안본은 족자를 펼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이모본 역시 채색의 박락과 꺾임 등이 심하다.





## 광명 번역 징비록

光明 翻譯 懲毖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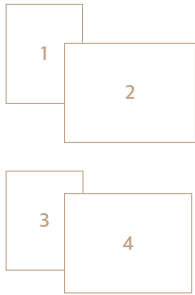
조선시대  
2책  
24.9×19.0cm  
종이(닥종이)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5

지정일 : 2010.03.23  
소유자 : 이승규  
관리자 : 충현박물관

<광명 번역 징비록>은 유성룡의 징비록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징비록』은 유성룡이 임진왜란이 끝난 후 탄핵을 받고 벼슬에서 물러나 하회河回마을에서 은거할 때인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에 걸쳤던 임진왜란의 원인 및 전황 등을 기록한 책이다. 서명의 「징비懲毖」는 『시경詩經』 소비편小毖篇의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豫其懲而毖役患’는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본인이 난중亂中에 경험한 일을 후세들이 참고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

충현박물관 소장 이 징비록은 가장 뒤에 나온 2권본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건乾, 곤坤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자와 번역시기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제2책 말미에 ‘무신戊申 7월 초3일 번역’이라고 번역시점이 기록되어있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권두卷頭에 ‘선백모주先伯母主의 수적이 완전하시나…’라고 쓰고, 이어서 두 누이와 남매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읽으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필사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징비록은 한글로 번역하여 여성들이 읽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과 한글 번역본으로 알려진 책으로 유일하다는 점에서 국어사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며, 이원의 선생과 가까이 교류했던 유성룡의 저술 중 국역본이 종가에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1. 권1(간) 표지, 2016\_경기문화재연구원
2. 권1 본문, 2015\_충현박물관
3. 권2(곤) 표지, 2015\_충현박물관
4. 권2 말미 '무신 7월 초3일 번역', 2016\_경기문화재연구원





## 광명 이원익 친필유묵

光明 李元翼 親筆遺墨

조선시대  
13점  
약 65×133cm  
종이(닥종이)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5

지정일 : 2010.03.23  
소유자 : 이승규  
관리자 : 충현박물관

<광명 이원익 친필유묵>은 조선중기의 문신 이원익李元翼(1547~1634)이 포은 정몽주圃隱鄭夢周(1337~1392) 등의 시를 초서로 쓴 서에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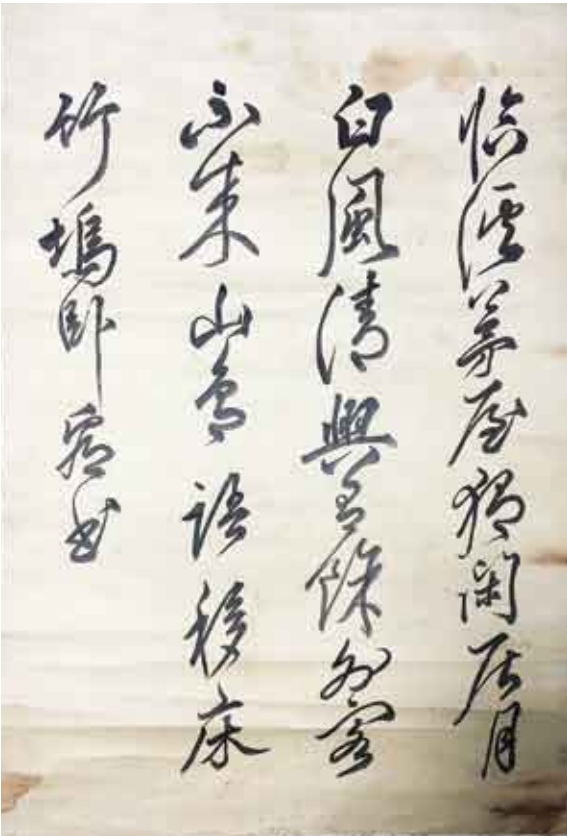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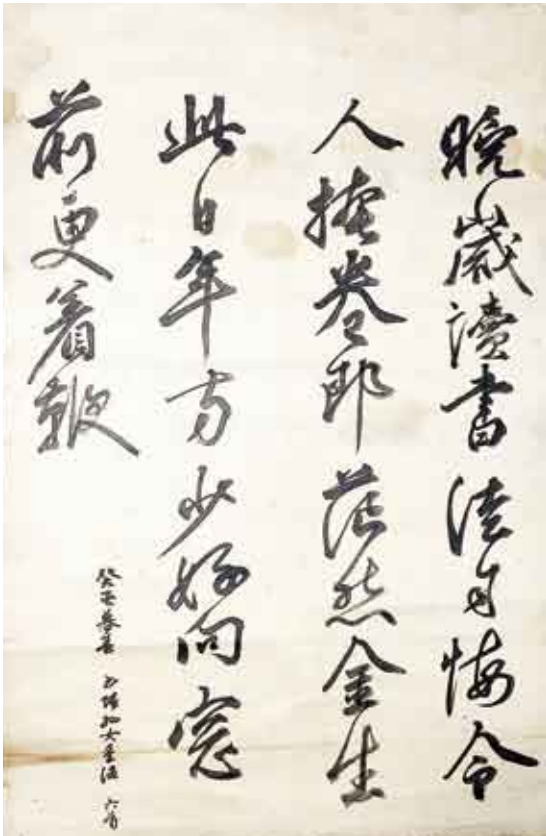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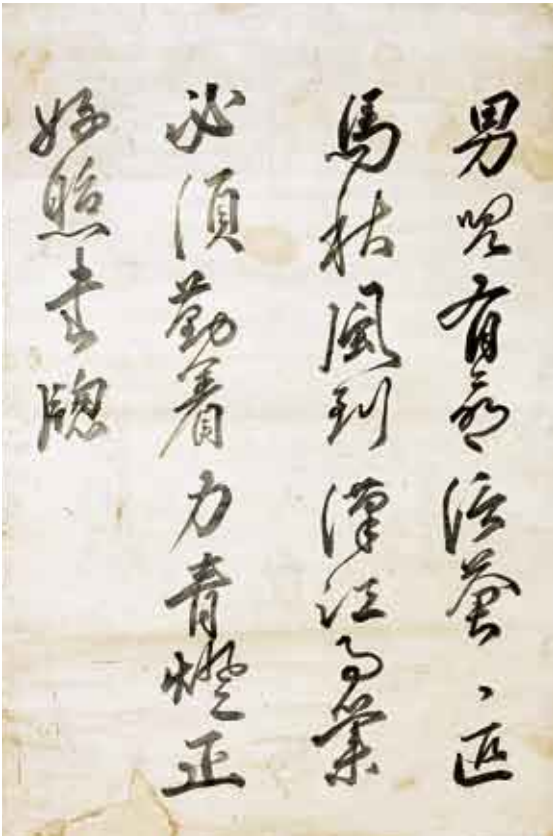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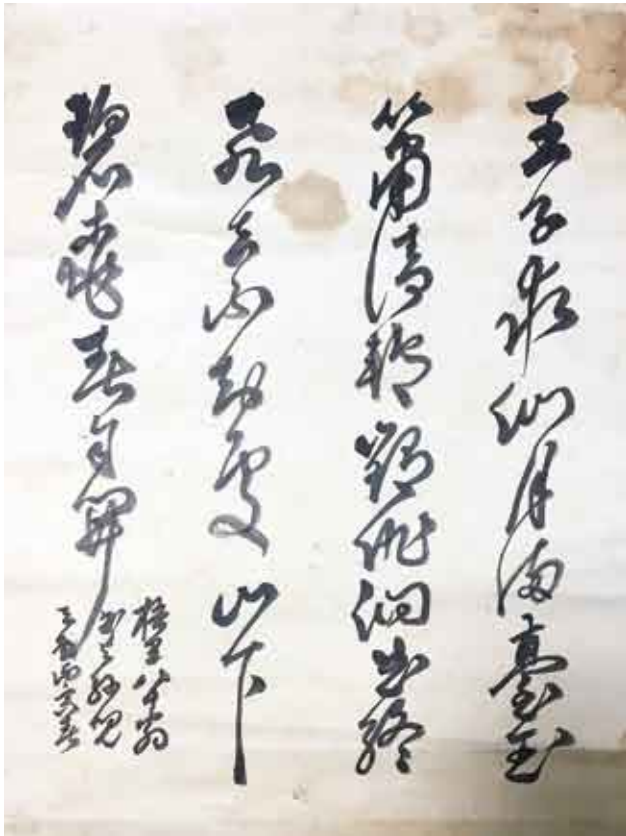
이원익은 조선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이다. 그는 키 작은 재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성품이 담백하여 과장이나 과시할 줄 모르고, 소임에 충실하여 임금의 잘못된 일에 대해 직언하는 인물이었다. 선조에서 인조에 걸쳐 다섯 차례나 영의정을 지냈으나 집은 두어 칸에 불과한 오막살이었으며, 벼슬에서 물러난 후에는 조석거리가 없을 정도로 청빈했다 한다. 특히 그는 지방관으로 나간 생질甥姪 이덕기李德沂(1573~1613)를 위해 지방관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는 이후 지방관들의 사송詞訟, 민사소송 지침서인 『청송지남聽訟指南』에 ‘이상국오리게 기생이덕기서李相國梧里戒其甥李德沂書’란 이름으로 실렸다. 이 글은 또 조선후기 대표적인 목민서중의 하나인 『선각先覺』에도 실려 조선후기 지방관들의 지침이 되었다. 그가 조선후기 관리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친필 유묵은 이원익이 손자와 손녀를 위해 고려의 충신 포은 정몽주의 시와 당시唐詩, 그리고 야은 길재治隱吉再(1353~1419)의 시를 초서로 쓴 것이다. 여기에는 ‘포은선생시 사수圃隱先生詩 四首’, ‘계유모춘서증손녀계은 옥수癸酉暮春書贈孫女季溫 六首’(1613), ‘오리팔십옹서여손아 천계병인춘梧里八十翁書與孫兒 天啓丙寅春’(1626), ‘임신하서여손 오리노부壬申夏書與孫 梧里老夫’(1632) 등의 관지款識가 남아 있다. 이 중에서 1626년(인조4)과 1632년(인조10)에 손자에게 써준 2수는 당시唐詩이고, 1613년에 손녀 계은季溫에게 써준 6수와, 포은 선생의 시로 표기된 4수는 모두 정몽주의 시이며 나머지 1수는 길재의 시이다. 모두 후손가에 전해오던 작품들이다.

이원익의 친필 유묵은 전문적으로 글씨를 쓰는 서예가의 기풍과는 달리 평생 강직하고 청빈한 생활을 영위하였던 그의 품성이 드러나 있는 듯하다. 유묵의 대부분은 전문 초서가의 활달한 풍조보다는 오히려 행초서行草書에 가까운 준경峻勁하고 둔중한 서풍書風을 보이고 있다. 이들 유묵은 그가 죽기 직전인 팔십대 후반까지 쓰였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생 동안 흐트러짐이 없이 살았던 그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 이 친필 유묵은 말년에 고려의 충신과 명신의 한시 작품을 행초서로 써서 후손들이 이들의 성리학적 전통을 배워 나가길 바랐던 마음에서 쓴 이원익의 작품으로, 명문 사대부가의 가학家學 정신을 살필 수 있는 데에 자료적 가치가 있다.

1	2	3	4
---	---	---	---

1. 1626년(인조4) 봄에 손자에게 써준 시, 2006. 충현박물관
2. 정몽주의 시 '송인'(17세기초),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1633년(인조11) 손녀 계은에게 써준 시,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야은 길재의 시 '한거'(17세기초),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유형문화재 325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37호

## 화성 용주사 대성인로왕보살번

華城 龍珠寺 大聖引路王菩薩幡

조선시대  
1점  
길이 206cm  
비단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2010.03.23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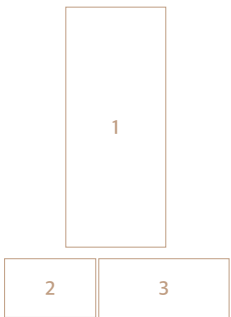
<화성 용주사 대성인로왕보살번>은 불교에서 부처와 보살의 위덕을 나타내고, 도량道場을 장엄하게 공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깃발과 같은 형태이다. 번幡은 불전 내의 기둥이나 법회가 진행될 때 당간幢竿에 매달아 뜰 가운데 세우거나 천개天蓋, 탑의 상륜부에 매단다. 이렇게 번을 높은 곳에 나부끼게 하여 사람들을 불교에 귀의하게 하는 효능을 지닌다.

현재 남아있는 유물은 조선후기 것이 대부분이다. 번의 형태는 번두幡頭와 번신幡身, 번미幡尾, 번수幡手로 구성 되어있다. 맨 윗부분에는 삼각형의 번두가 있으며, 그 아래 중앙에는 상하가 긴 직사각형의 번신이 달려있다. 번미와 번수는 간략화되어 번신과 분리되지 않고 마치 선을 돌린 것처럼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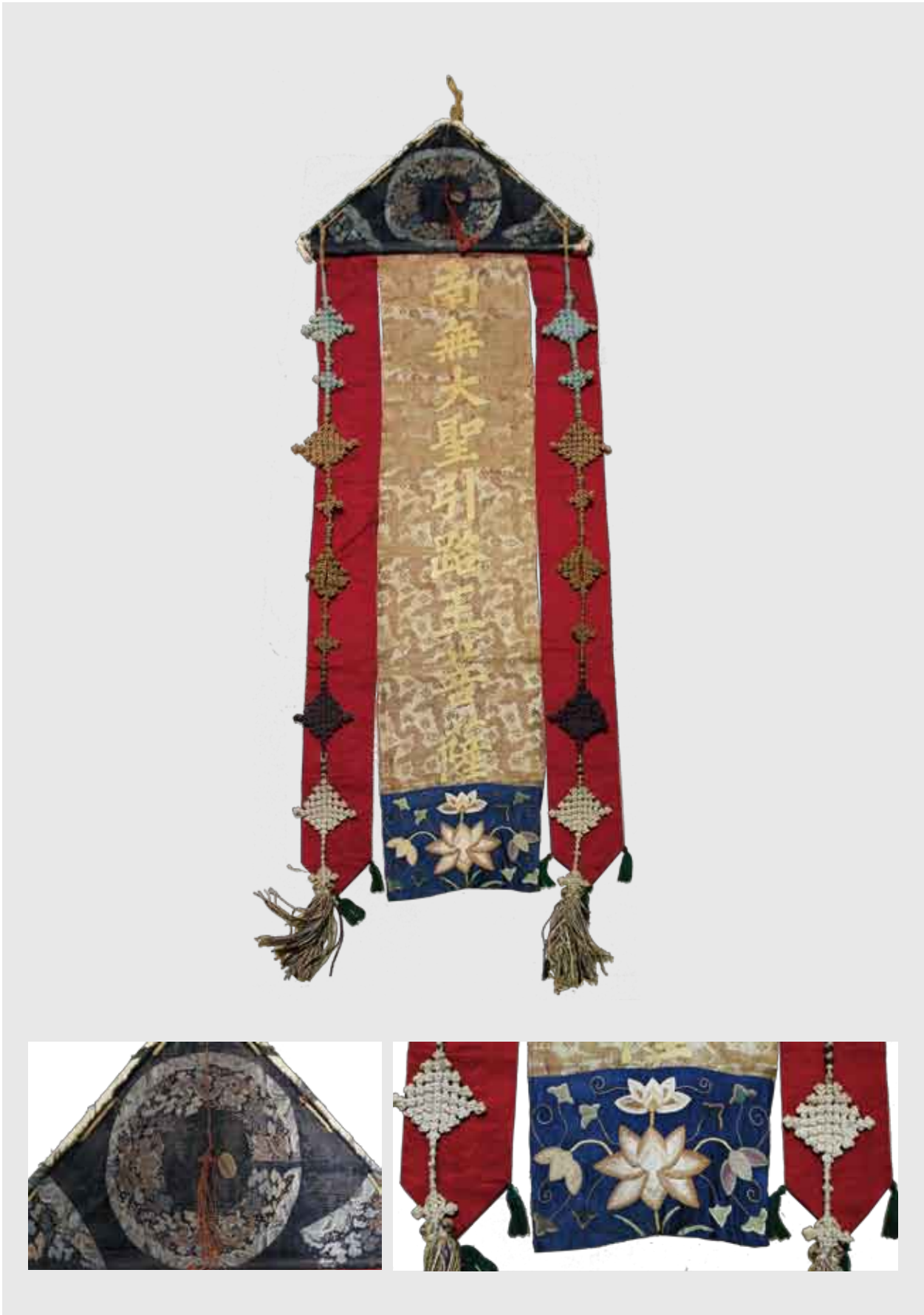
용주사 효행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번은 사찰에서 의식을 행할 때 도량장엄용으로 조성된 나무대성인로왕보살번南無大聖引路王菩薩幡이다. 인로왕보살은 망자의 영혼을 맞이하여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보살로서, 사찰에서는 망자의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에서 인로왕보살번을 사용하였다.

번두는 검은색의 변형 이등변삼각형으로 오조룡五爪龍·운문雲紋·파도문·박쥐문 등이 있으며, 다라니 주머니는 남아있지 않지만 묶었던 끈이 길게 늘어져 있다. 번신의 직물은 운보문단雲寶紋緞이며, 번미에는 청색 바탕에 연꽃이 수 놓아져 있다. 번신의 좌우에는 붉은 비단으로 된 번수가 달려있으며, 번수 위에는 번수와 나란히 각각 1개의 오색 가지방석 매듭이 일렬로 매달려 있다.

이 번은 형태와 세부문양, 기법 등에서 최고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번두의 용문이나 번신의 운보문을 통하여 1790년(정조14) 용주사가 창건되었던 시기에 왕실에서 하사한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 화성 용주사 대성인로왕보살번,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번두,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번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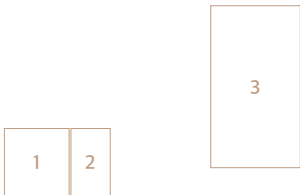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38호

## 안성 칠장사 범종

安城 七長寺 梵鐘

조선시대(1782년)  
1점  
120×75cm  
금속(청동)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지정일 : 2010.03.23  
소유자 : 칠장사  
관리자 : 칠장사



1. 칠장사 범종 하부 명문, 2017. 경기도문화재연구원  
2. 칠장사 범종 보살입상, 2017. 경기도문화재연구원  
3. 안성 칠장사 범종, 2017. 경기도문화재연구원

<안성 칠장사 범종>은 조선후기 범종 중에서는 비교적 대형에 속한다. 명문銘文에 의하면 1782년(정조6)에 주성되었으며, 봉안 사찰은 명기되지 않았다. 죽산도호부사竹山都護府使 이언충李彦忠이 제1시주자로 등장하고, 칠장사가 죽산면 칠장리에 소재하고 있어 원래부터 칠장사 종으로 주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체 종신鐘身은 위가 좁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데 중앙부에서 거의 직선으로 내려오는 형상이다. 상부에는 쌍용의 용뉴龍鈕가 다소 높게 솟은 천판天板 위에서 여의주를 물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상·하대가 생략되어 넓어진 종신 면面은 중앙의 횡선橫線을 기준으로 상하로 구분한 뒤 상부에는 범자원문梵字圓文·연곽蓮廓·보살입상菩薩立像을 두고, 하부에는 명문들을 비교적 여유롭게 배치하였다. 천판 아래 8개의 범자원문 아래로 사방 4곳에 연곽이 자리하고 그 사이에 4구의 보살입상을 표현하였다. 각 연곽 내부엔 9개의 연뢰蓮蕾가 있는데 중심부는 마치 연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처럼 솟아 있다. 보살입상은 다소 크게 표현되었는데, 두광頭光을 갖추고 합장한 자세로 연꽃 위에 서 있는 모습이다.

종신 하부에는 틀로 찍어서 주조한 명문들이 둘러져있어 종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종을 제작한 장인으로는 신몽태申夢泰·이영태李永泰·이영희李永希·이수성李守成·이영준李永俊 등이 등장한다. 그 중 이영희는 18세기 후반 경상도 출신으로 전국적으로 주종활동을 펼쳤던 이만돌李萬鈞·이만숙李萬淑을 잇는 계보로 알려져 있으며 이 종 외에도 망월사명 범종(1786)과 현존하지 않지만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심복사 금고金鼓(1783)를 제작하였음이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종신의 형태 및 문양의 배치 등이 조선후기 범종의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18세기 장인들의 활동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안성 칠장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安城 七長寺 大雄殿 靈山會上圖

조선시대(1886년)  
1점  
259×268cm  
비단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지정일 : 2010.03.23  
 소유자 : 칠장사  
 관리자 : 칠장사

<안성 칠장사 대웅전 영산회상도>는 칠현산 칠장사 대웅전에 봉안된 정방형正方形에 가까운 불화이다. 영산회상도는 인도의 영취산靈鷲山에서 석가모니부처가 『법화경法華經』을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이 불화는 상하 2단 구도로 상단에 석가삼존釋迦三尊을 비롯한 권속들을 배치하였고, 상단과 하단의 중간 가장자리에는 준제準提와 지장보살地藏菩薩을, 하단에는 관음觀音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그리고 사천왕四天王을 나란히 배치하였다. 석가삼존의 광배 뒤에는 부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벽지불辟支佛을 비롯하여 좌우에 5명씩 십대제자와 동자 등을 좌우대칭으로 배치하였다.

화면 중앙의 청련화좌靑蓮華坐에 결가부좌한 석가모니부처의 광배는 기형 광배인데 비해 좌우 문수文殊와 보현보살普賢菩薩은 두광頭光과 신광身光 모두 원형으로 표현되어 위계位階를 달리했다. 삼존의 두광은 녹색이며, 신광에는 흰색·녹색·황색·청색 등이 도식화圖式化된 구불구불한 화염문火焰文을 반복배치 하였다. 가름한 턱에 작은 이목구비의 석가모니부처는 원형 꽃무늬가 그려진 붉은색 대의大衣를 걸쳤다. 좌우의 협시보살은 붉은색 보관寶冠과 가사를 걸치고 있으며, 손에 연蓮과 여의如意를 잡고 있다.

미단 바탕에 녹색과 붉은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청색·백색·황색 등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에 화면의 빈 공간이나 인물들의 의습에 부분적으로 청색을 사용하여 19세기에 유행하였던 설채법設彩法을 잘 보여준다.

하단 중앙의 화기書記에 의하면, 이 불화는 1886년에 금곡 영환金谷永環·한봉 창업漢峰昌燁·완오翫悟·봉순奉順·성전性典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 ① 석가모니불
- ② 보현보살
- ③ 문수보살
- ④ 지장보살
- ⑤ 준제보살
- ⑥ 사천왕
- ⑦ 대세지보살
- ⑧ 관음보살
- ⑨ 10대제자
- ⑩ 복덕대신
- ⑪ 호계대신



안성 칠장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촬영일미상\_성보문화재연구원



## 고양 원각사 수륙무차 평등재의 찰요

高陽 元覺寺 水陸無遮 平等齋儀撮要

조선시대(1490년)

1책

31x17.2cm

종이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지정일 : 2010.03.23

소유자 : 원각사

관리자 : 원각사

고양 원각사 『수륙무차 평등재의 찰요』는 물과 물에서 살다 죽은 무주고혼無主孤魂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의식집으로 설회인유편設會因由篇 등 3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마다 수인도手印圖를 그려 넣어 ‘결수문結手文’이라고도 한다. 1490년(성종21)에 서흥瑞興 자비령사慈悲嶺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판식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계선이 없으며 반엽半葉 6行 15字씩 배열되어 있고, 어미魚尾가 없다.

권말에 ‘홍치弘治 3년 경술庚戌(1490) 7월 서흥지자비산자비령사개판瑞興地慈悲山慈悲嶺寺開板’이란 간기가 있다.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서 해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들에게 법식法食을 평등하게 공양하여 구제하는 의식이다. 우리나라는 수륙에서 고통받는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공덕 가운데 으뜸이라 하여 가장 널리 시행한 불교의식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조선초기에는 왕실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행사로 빈번하게 수륙재가 열렸는데, 고려 왕족의 천도薦度を 위하고 부역을 통해 희생당한 영혼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판본은 1490년(성종21)에 황해도 서흥 자비령사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조선시대 널리 유통되었으나 흔치않은 조선전기 판본이다. 이 책의 곳곳에 의식시 범패梵唄를 창창할 때의 음음의 굴곡을 표시한 창패구결창唄口訣이 남아있어 범패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2
1	3

1. 고양 원각사 수륙무차 평등재의 찰요 권수, 2015. 불교학술원
2. 본문, 2015. 불교학술원
3. 권말 간행기록, 2015. 불교학술원





## 고양 원각사 치문경훈

高陽 元覺寺 緇門警訓

조선시대(1525년)  
2책  
24.5×15.3cm  
종이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지정일 : 2010.03.23  
소유자 : 원각사  
관리자 : 원각사

『치문경훈』은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중국의 역대 고승들의 글을 모아 엮은 책으로 치문緇門에 들어 온 승려들에게 내리는 경책과 훈계 등의 법어집이다. 사미과沙彌科의 교재로 책정되어 승단에 입문한 사미승沙彌僧이 제일 먼저 배우는 교재이기도 하다. 치문이란 검푸른 옷을 입은 승려를 뜻하는 승가의 대명사이다.

중국 북송의 승려 택현은제擇賢蘊齊(?~1130) 선사가 지은 『치문보훈』을 바탕으로 1313년(고려 충선왕5)에 지현智賢이 내용을 보완하여 9권으로 간행하였는데, 이후 명나라의 여근如楨(1425~?)이 속집 1권을 증보하여 10권으로 간행함으로써 널리 유포되었다.

『고양 원각사 치문경훈』은 2권(권상·하) 2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판식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계선이 없으며 반엽半葉 11행 20자씩 배열되었고, 판심에는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 대흑구大黑口가 있다. 권말에 송암松庵의 발문과 간기 ‘가정4년 을유맹하 순천지 모후산 대광사 개간嘉靖 四年 乙酉孟夏 順天地 母後山 大光寺開刊’이 있어, 1525년(중종20) 순천 대광사에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권하의 표지는 연초록의 비단으로 되었는데 권수는 거의 탈락되고 뒷표지만 남아 전하는데 아마도 왕실에서 사용하던 책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은 치문경훈 가운데 가장 연대가 오래된 판본으로 의미가 크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42호**

## 고양 원각사 달마대사관심론

高陽 元覺寺 達磨大師觀心論

<span></span>
조선시대(1538년)
1책
25×15.2cm
종이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span></span>
지정일 <span> </span> : 2010.03.23
소유자 <span> </span> : 원각사
관리자 <span> </span> : 원각사

『달마대사관심론』은 중국 당나라의 선승 대통 신수大通 神秀(606~706)가 지은 책으로, 마음의 본성을 관조觀照하는 선종禪宗의 지침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음은 일체의 근본이고, 오직 마음의 발현이므로 마음을 깨달으면 일체를 갖추게 된다는 것, 그리고 관심觀心으로 청정한 자신의 본래 성품을 자각하면 무명無明이 제거되어 해탈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마음'을 살피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선종의 초조初祖 보리달마菩提達摩(?~528)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1932년에 가미오 이치하루神尾弴春가 돈황 출토 본과 비교하고, 중국 당나라 승려 혜림慧琳의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밝혀 바로 잡았다.

판식은 8행 17자로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 무계無界, 간혹 어미 아래에 대흑구大黑口가 보인다.

권수의 서문에는 '박이성朴移成'이란 사람에 의해 '천순계미天順癸未'에 서문이 쓰여졌다는 기록이 있어 1463년(세조9)에 처음 만들어 졌고, 본문의 끝에 '가정십칠년 무술嘉靖十七年 戊戌 전라도 고창 문수사 중침重鉞'이란 표현이 있어 1538년(중종33) 고창의 문수사에서 또 다시 번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행기록 아래에 '성화性和, 조행祖行' 등 2인의 이름이 판각되어 있고, '화사化士, 정옥淨玉, 처순處淳' 등의 이름이 목서로 기록되어 있어 간행에 동참했던 인물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현재까지 알려진 『관심론觀心論』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전래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라 그 가치가 매우 높다.

- 2 3

- 달마대사관심론 표지, 2015. 불교학술원
- 서문, 2015. 불교학술원
- 간행기록, 2015. 불교학술원



<span></span>
조선시대(1400년)
1종
22.7×14.3cm
종이(닥종이)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54번길 65
<span></span>
지정일 <span> </span> : 2010.09.08
소유자 <span> </span> : 지장사
관리자 <span> </span> : 지장사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43호**

## 목우자수심결

牧牛子修心訣

<span></span>
조선시대(1400년)
1종
22.7×14.3cm
종이(닥종이)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54번길 65
<span></span>
지정일 <span> </span> : 2010.09.08
소유자 <span> </span> : 지장사
관리자 <span> </span> : 지장사

『목우자수심결』은 지눌知訥(1158~1210)의 선禪 이론서로서 선종과 교종의 대립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밝히고자 지어졌다. 선을 수행하는 입문자에게 필요한 수행의 요체 ‘마음 닦음’을 간추려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수심결」 외에 지눌의 다른 저술인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이 합철合綴되어 있다.

판식은 좌우쌍변左右雙邊에 계선이 없고, 반엽半葉에 행자수는 9행 16~17자씩 배열되어 있다. 판심에는 윗쪽에 조그만 흑어미黑魚尾가 아래로 향하고 있고, 상어미上魚尾 아래에는 ‘心(심)’이라는 판심제가 있다.

본문 말미에는 원간본原刊本과 중간본重刊本の 간행일자와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되어 있다. 원간본에는 ‘대덕구년을사(1305) 칠월일지大德九年乙巳七月日誌’, ‘동량도인 조운·동원도인 신둔·사내도인 행명’이라는 간행일자와 간행참여자들이 기록되어 있고, 중간본에는 ‘第十代開 建文二年 八月 日誌 智異山 德奇庵 重刊(제십대개관 건문이년(1400) 팔월 일지 지리산 덕기암 중간)’, ‘간선도인幹善道人 지봉志峯·각서覺西·축범竺梵·신전信全·지신志信·보장寶莊’ 등의 간행일자와 간행참여자들의 기록이 남아 있어 1305년 7월 간행된 판본을 바탕으로 1400년 8월 지리산 덕기암德奇庵에서 중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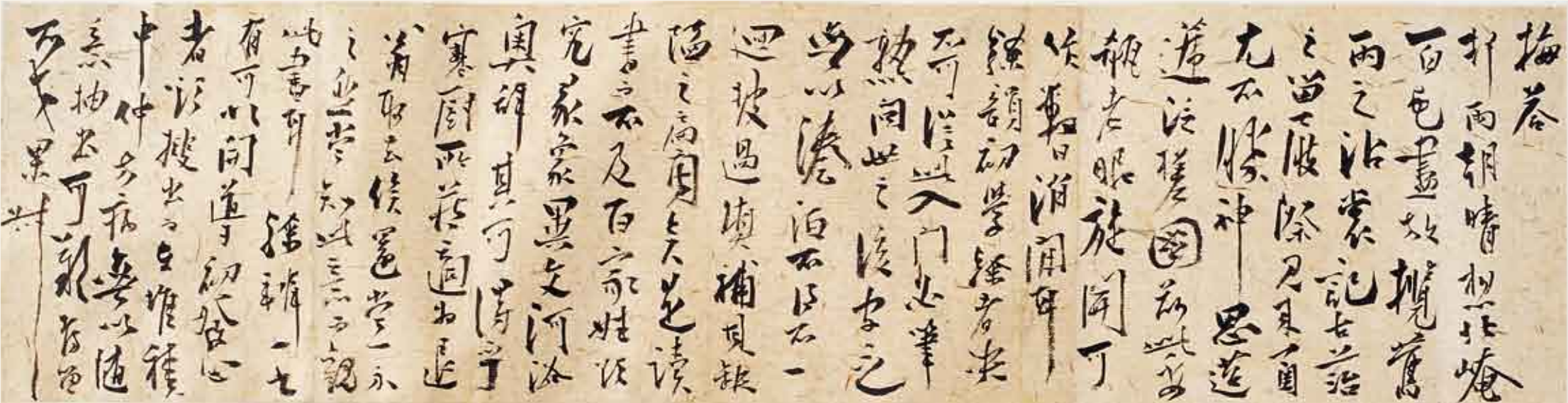
이 『목우자수심결』은 인쇄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아 후인本後印本으로 추정되며, 근자에 4침으로 장책하고,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이라는 제첩도 새로 붙여 놓았다. 전본이 희귀한 판본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2 3

- 목우자수심결 표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원간본 간행기록,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권두,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44호

## 추사 김정희 서신

秋史 金正喜 書信

조선시대  
3종 23통  
두 동생에게 보낸 편지 모음 13점 630×22cm  
김항진 22×38cm  
일립자 22×38cm  
항진 22×38cm  
권돈인과 민태호에게 보낸 편지 모음 6점 27.5×383cm  
종이  
과천시 추사로 78

지정일 : 2010.09.08  
소유자 : 과천시  
관리자 : 과천시

<추사 김정희 서신>은 일제강점기 추사 김정희 연구의 대가였던 후지즈카 지카시藤塚隣(1879~1948)가 수집하고 아들인 후지즈카 아키나오藤塚明直(1912~2006)가 기증한 추사 김정희秋史金正喜(1786~1856)의 간찰 23점이다. 간찰은 동생들에게 보낸 13점과 그와 교류한 주변 인물에게 보낸 10점으로 구분된다.

두 동생에게 보낸 편지는 후지즈카 지카시가 13통을 두루마리 형태로 표구해 놓은 상태이다. 이 간찰은 추사의 일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던 40대 전반기에 쓴 편지인데, 주로 가족의 안부와 건강에 관한 내용이다. 부친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지 병세와 처방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막내아우의 아들 출생을 축하하기도 하고 친척 중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도 언급되어 있다. 그 밖에 추사 본인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관직 생활의 긴장감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이들 간찰에는 가족 구성원의 여러 정황을 군데군데 밝히고 있어 김정희의 40대 전반 추사가秋史家の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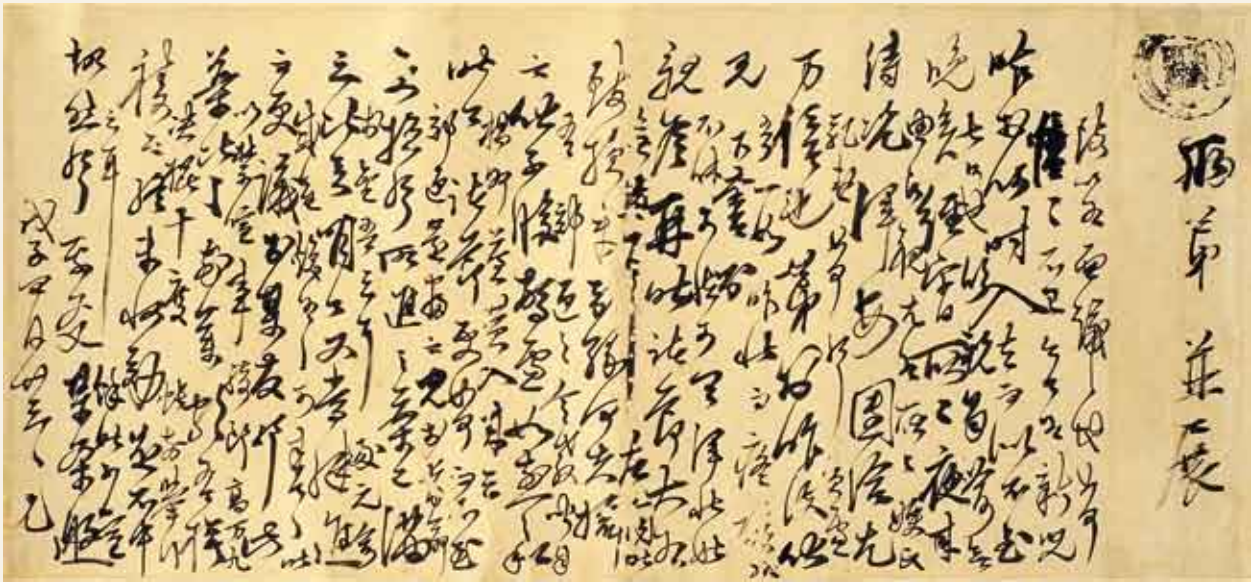
고모의 손자인 민태호閔台鎬(1834~1884) 등에게 보낸 간찰은 5점으로 북청에서 돌아와 말년을 보냈던 과천에서 쓴 것이다. 공부의 순서를 일러주며 『예운隸韻』은 쉽게 덤벼들려고 해서는 안 되니, 이는 마치 백가성百家姓도 익히지 못한 자가 『주역周易』을 읽으려 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타이른다. 이처럼 그와 고종간으로 조금은 먼 친척의 조카이지만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주변 친척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사 말년 과천 시절에 교류한 사람들과 자신의 심리적 정서 상태 등이 차분하고도 완숙한 표현들이 글 속에 자연스레 녹아 있다.

우선 이상적藕船李尙迪(1804~1865)에게 보낸 간찰 4통은 추사 말년 과천시절에 쓴 것으로 문장의 완성도가 높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상적과의 만남을 두루 엿볼수 있어 중요하다. 이 밖에도 권돈인權敦仁(1783~1859)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되는 편지도 한통 포함되어 있다. 김정희는 말년에 두 번에 걸쳐 자신의 저술을 불태웠다고 한다. 이 때문에 김정희의 제자들은 그의 간찰들을 모아 『완당척독阮堂尺牘』이라는 문집을 만들었다. 후지즈카 기증 간찰들은 이 문집에 누락된 것들로, 더욱이 간찰들에 일자가 나와있어 그 가치가 더욱 크다. 후지즈카 지카시 기증 추사 김정희 서신은 김정희의 서법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학문을 이해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1	2
---	---

3
---

1. 이상적에게 보낸 편지 4, 2013\_ 추사박물관
2. 민태호에게 보낸 편지4, 2008\_ 추사박물관
3. 1828년 4월 23일 두 아우에게 보낸 편지, 2013\_ 추사박물관





고려사절요(갑인자본)

高麗史節要(甲寅字本)

조선시대(1453년)  
1책  
34×21.4cm  
종이(단종이)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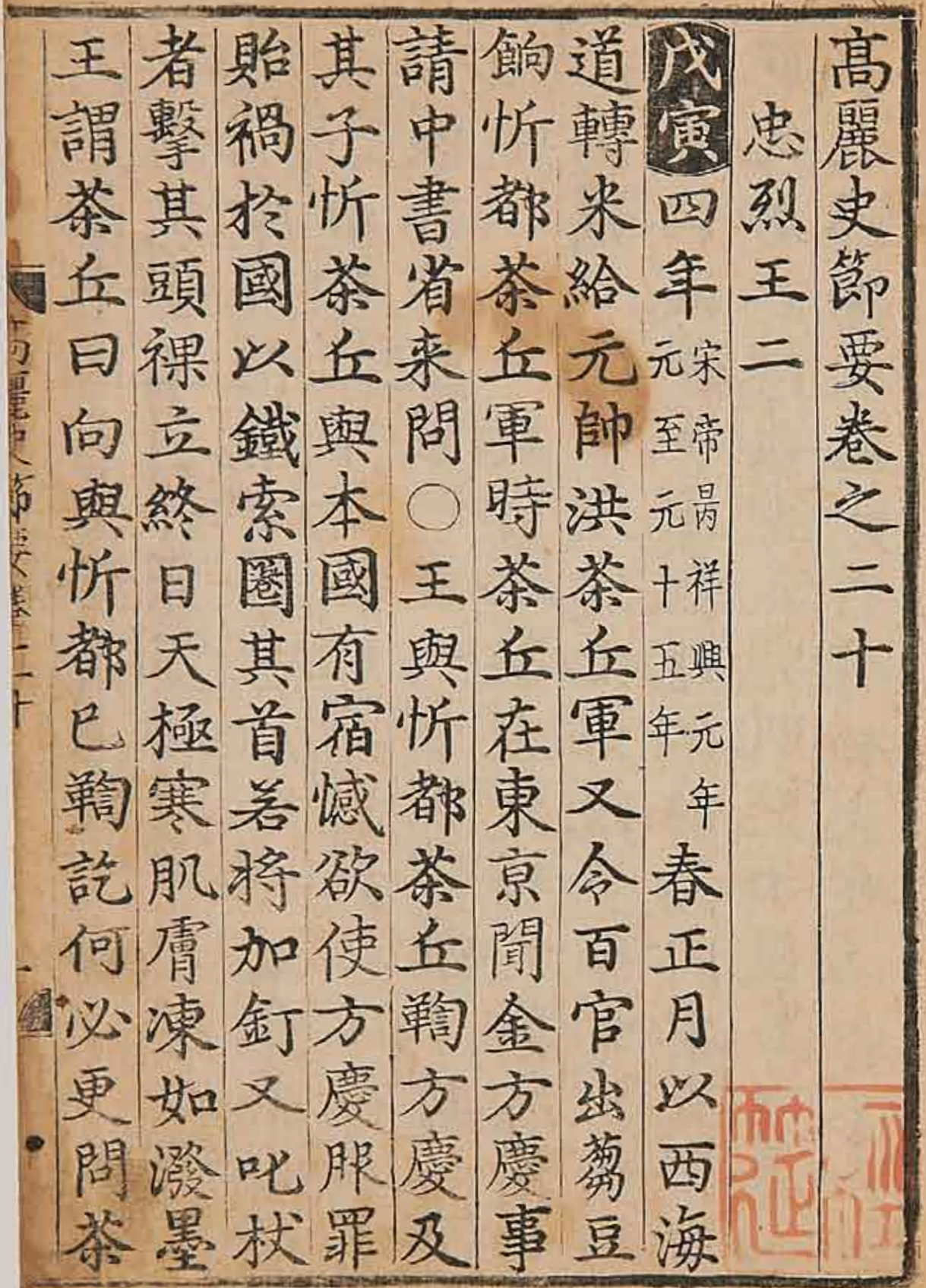
지정일: 2010.12.08  
소유자: 경기도박물관  
관리자: 경기도박물관

『고려사절요』는 918년(고려 태조1)부터 1392년(공양왕4)까지의 역사를 35권으로 편성한 사서이다. 『고려사』가 군주의 입장이라면 이 책은 신하의 입장에서 편찬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최승로 崔承老(927~989)의 상서上書는 『고려사절요』에만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고려사』에 비해 적은 분량이지만 『고려사』에 없는 사실들이 수록되어 있고, 연대가 밝혀져 있는 것도 있어서 『고려사』와 함께 고려시대의 역사서로서 서로 보완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451년(문종1)에 완성된 후 2년 뒤인 1453년(단종1) 4월에 초주 갑인자 初鑄甲寅字로 1권당 1책씩 모두 35책으로 간행되었다. 초주갑인자는 우리나라에서 주성된 금속활자 중에서 백미로 꼽히는 활자이다.

현재 동일한 판본 중의 완질完帙이 일본 나고야의 호사문고蓬左文庫에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김성일 종가 전적(보물 제905호) 등에 전하나 모두 완질에서 떨어져 나온 날권들이다. 이 책 역시 전 35권 중에서 제20권에 해당하는 한 책으로 충렬왕 4년부터 동왕 11년까지의 역사기록이다.

『고려사절요』라는 제명題名이 적힌 제첨題籤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권수제면의 오른쪽 아래에는 ‘경연經筵’ 도장이 찍혀있다. 경연은 조선시대 임금과 신하가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제도인데 ‘경연’ 인장이 찍혀 있는 것은 경연에 사용하기 위해 소장된 것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1. 고려사절요 표지, 2016. 경기도박물관
- 2. 고려사절요 본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3. 고려사절요 권20, 2016.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46호

## 덕암사 목조보살좌상 (관음보살좌상, 대세지보살좌상)

德岩寺 木造菩薩坐像

조선시대  
2구  
73.5×51.8cm, 75×49.5cm  
목재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145-63

지정일 : 2010.12.08  
소유자 : 아미타사  
관리자 : 아미타사

1  
2 3

1. 덕암사 목조보살좌상,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우협시보살,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좌협시보살,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덕암사 목조보살좌상>은 철원 심원사에 있던 삼존불좌상 가운데 협시보살 2구를 옮겨 온 것이라고 한다.

보살상은 머리를 약간 앞으로 내밀어 다소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다. 머리에 쓴 보관에는 화염문火焰文이 장식되어 있는데 일부는 보수한 것이다. 얼굴은 반원형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눈꼬리는 살짝 위로 올라갔으며, 코는 오뚝한 원통형이다. 손은 따로 제작하여 손목에 끼웠으며, 한쪽 손은 무릎 위에, 다른 손은 가슴높이 까지 올려 연화가지를 들고 있다. 착의법은 대의가 양어깨를 덮은 통견通肩으로, 오른쪽 어깨에서 하반신까지 대의 자락이 수직으로 내려오고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흘러내린 대의자락과 복부에서 자연스럽게 접혀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배 부분에서 늘어진 옷주름이 반달처럼 펼쳐지고, 나머지 두 가닥은 사선으로 늘어져 있다. 가슴을 덮은 승각기僧脚崎는 수평으로 묶어 간단히 처리하였다. 측면은 어깨선을 따라 두 가닥의 옷 주름이 수직으로 내려와 대각선으로 펼쳐지고, 앞뒤 자락 안쪽으로 삼각형의 주름이 접혀 있다. 뒷면은 목 주위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오른쪽 대의 끝자락이 엉덩이까지 길게 늘어져 있으며, 반대쪽 겨드랑이 방향으로 두 가닥의 주름이 접혀 있다. 바닥은 중앙에 사각형의 복장공이 뚫려 있는데, 내부의 복장물은 남아 있지 않다.

덕암사 목조보살좌상과 같이 조성된 본존상은 한국전쟁 후 서울 서대문 환희사歡喜寺로 옮겨져 서울시유형문화재 제217호로 지정되어 있다. 덕암사 목조보살좌상은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착의법着衣法에서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인균印均스님이나 응원應元스님과 관련된 작가가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47호

## 여주 고달사지 석조

驪州 高達寺址 石槽

고려시대  
1구  
98×321×149cm  
석재(화강암)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1-1

지정일 : 2010.12.08  
소유자 : 여주시  
관리자 : 여주시

1 3  
2 4 5

1. 여주 고달사지 석조 발굴 모습, 2003. 여주박물관  
2. 여주 고달사지 석조 전경,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석조,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석조 배수공,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석조 모서리,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여주 고달사지 석조>는 2003년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고달사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선종사원으로 764년(경덕왕23)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나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전하는 기록과 사찰 터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통해 통일신라 후기에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는 고달사지 부도(국보 제4호)를 비롯하여 고달사 원종대사혜진탑(보물 제7호)과 탑비의 귀부와 이수(보물 제6호) 등 고려시대 석조물이 상당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광종 이후 왕실의 보호 속에 번성했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석조石槽는 돌로 만든 수조를 일컫는데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로부터 사찰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다.

이 석조는 화강암의 통돌을 장방형으로 다듬고, 내부를 파내서 만든 것이다. 외부는 모서리를 제외하고는 장식없이 각면을 곱게 처리하였고, 내부는 완만한 곡선으로 다듬었다. 바닥의 중앙부에 원형배수공이 뚫려있어 물을 뺄 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단 모서리에는 화형으로 처리하여 장식성을 갖는데, 이러한 치석治石은 보기 드문 예이다.

장방형의 석조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사찰에서 장방형의 석조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여러 사찰에서 제작되었는데, 고려시대에 제작된 석조로는 보원사지(보물 102호), 조선전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정부 회룡사 석조(경기도문화재자료 제117호) 등이 있다. 이 석조는 보원사지 석조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달사지 석조는 기존 유물들과 비교해 볼 때 보원사지 석조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48호

## 파주 보광사 목조보살입상

坡州 普光寺 木造菩薩立像

조선시대(1633년)  
2구  
높이 117cm  
목재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474번길 87

지정일：2010.12.08  
소유자：보광사  
관리자：보광사

<파주 보광사 목조보살입상>은 고령산高靈山 보광사 대웅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미륵보살과 제화갈라보살이다. 이 중 목조미륵보살 입상은 조선후기에 제작된 전형적인 중형 보살상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얼굴은 약간 앞으로 내밀고 있는데 신체와 머리(보관 포함)의 비중이 1:0.3 정도로 몸에 비하여 머리가 크게 강조되었다. 머리에 쓴 보관은 화염火焰과 보주寶珠 그리고 화문花文으로 빼곡히 장식 되고, 좌우에 커다란 관대가 밑으로 늘어져 있다. 보관 아래로 흘러 내린 머리카락은 귀를 따라 두 갈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어깨 위에서 둥글게 틀어 묶은 뒤 다시 세 가닥으로 나뉘어 길게 늘어져 있다. 방형의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원통형으로 짧으며, 인중이 다른 불상에 비해 넓은 편이다. 따로 제작된 손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오른손은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왼손은 허벅지 높이로 들고 있다. 몸에 걸친 대의는 변형우견편단變形右肩偏袒으로 오른쪽 어깨에 옷깃이 사선으로 접힌 한 가닥의 끝자락이 가슴까지 늘어져 있고, 나머지 자락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있다. 대의자락이 양 손목에 길게 늘어지고, 나머지 자락이 복부에서 U자형으로 무릎까지 늘어져 있다. 보살상의 뒷면에는 목에 대의 자락이 둘러있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대의 안쪽에 승각기僧脚崎를 묶은 끈이 복부에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목조보살입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1633년(인조11) 양주 천보산 회암사에 봉안하기 위하여 화원 영색英蹟, 성근省勤 등의 조각승이 조성하였다고 한다. 영색은 조각승 청헌淸憲(1626~1643)의 계보를 이은 스님이다.

1 2

1. 미륵보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2. 제화갈라보살,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49호

## 만력기축 사마방목

萬曆己丑 司馬榜目

조선시대(1589년)  
1책  
27.3×17.8cm  
종이(단종이)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2011.03.08  
소유자：박만춘  
관리자：한국학중앙연구원

『만력기축 사마방목』은 만력 기축년(1589)에 실시한 생원과 진사시험 합격자 명부의 후대 사본이다. 조선의 건국자인 이성계의 종계宗系 기록이 잘못되어 시정해 달라는 요구에 명나라에서 이를 바로 잡아 1589년(선조22)에 통보해 주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수시시험인 증광시增廣試를 시행하고, 그 합격자 명부를 활자로 인쇄하여 반포하였다. 박동량朴東亮(1569~1635)은 당시 합격자 중 한사람이어서 명부를 받았다. 그런데 집안에 전하던 이 명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망실되자 후손인 박태만朴泰萬(1642~1689)이 원본을 다시 필사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만력기축 사마방목』이라는 표제表題가 있고, 명부의 한 면에는 대개 세 사람이 수록되어 있다. 형식은 문과방목文科榜目과 동일하게 등수별로 합격자의 출신과 성명·생년·자·본관·거주지·부친과 형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전체 수록 현황은 생원시 1등에 황근중 등 5명과 2등에 박동량 등 25인, 3등에 이경 등 75인이 수록되었다. 원본을 모사한 듯이 정서해 놓았고, 합격자의 이름 부분에 청색이나 붉은색 원점이 찍혀있기도 하다.

이 방목은 후대의 전사본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합격한 이후의 기록들을 작은 글씨로 부기하여 당대 인물들의 전기 연구 자료로서 도움이 된다.



1 2 3

1. 만력기축사마방목 표지, 촬영일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 권두, 촬영일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3. 생원시 1등 합격자 5인의 기록, 촬영일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50호

## 박동량 호성공신교서

朴東亮 扈聖功臣敎書

조선시대(1680년)  
1권  
45.5×284cm  
비단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11.03.08  
소유자 : 박만춘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동량 호성공신교서>는 박동량朴東亮(1569~1635)이 임진왜란 때 병조좌랑으로서 선조와 세자를 호종扈從하며 피난할 때의 공로로 1604년(선조37) 내려진 교서이다. 호성공신은 공로에 따라 3등으로 나누어 모두 86명을 녹훈하였는데, 1등은 이항복李恒福 등 2명, 2등은 이원익李元翼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다. 박동량은 2등공신의 열일곱번째에 책록策錄되었다.

박동량 호성공신교서는 명주에 붉은 계선界線과 변란邊欄을 긋고, 해서로 필서하였다. 내용은 박동량의 공적과 그에 따른 상사賞賜 목록, 호성공신 명록名錄과 본 교서의 시행일인 ‘만력삼십이년십월 일萬曆三十二年十月日’이 기록되어 있고, 발급 연월의 위에는 어보御寶인 ‘시명지인施命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별도의 비단에 ‘호성공신2등박동량扈聖功臣二等朴東亮’이라 써서 붙였고, 중간 배면의 침지籤紙에는 ‘이춘영제李春英製’, ‘박태만서朴泰萬書’라고 적고 있다. 이는 이 공신교서가 당시 문장으로 이름난 이춘영李春英(1563~1606)이 짓고, 후손 박태만朴泰萬(1642~1689)이 쓴 것임을 보여준다. 공신교서의 재료나 장황은 사가私家에서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당시 공신도감功臣都鑑에서 마련하고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신교서에 쓰는 글씨는 재발급을 신청한 가문에서 선서자를 골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교서의 끝에 작은 글씨로 ‘교서본축 일어병자병선 금인보사공신반축시 의구공신례 안보추금敎書本軸 佚於丙子兵燹 今因保社功臣頒軸時 依舊功臣例 安寶追給’이라고 적혀 있어 1604년(선조27)에 반급頒給한 호종공신의 교서를 병자호란에 분실하고, 1680년(숙종6) 8월 보사공신保社功臣의 공신교서축을 반급할 때에 재발급한 교서임을 알 수 있다. 재발급된 박동량 공신교서와 원래 박동량이 받은 공신교서와 비교하면 32행의 ‘元宗大王諱’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원본 호성공신교서를 보면 이 자리는 ‘定遠君 瑈’라고 적혀 있다. 정원군定遠君 부瑈(1580~1619)는 인조의 아버지로, 1587년(선조20)에 정원군이 되었고, 1604년(선조37) 호성공신 2등에 녹훈되었다. 이후, 인조반정을 계기로 대원군大院君에 추존되었다가, 1627년(인조5)에 원종元宗으로 추존되었다. 따라서 1680년 공신교서를 재발급할 때는 이전의 호성공신교서와는 달리 이름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으므로, ‘元宗大王諱’라고 쓴 것이다. 재발급하면서 그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따라 개서改書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교서는 처음에 반급된 공신교서의 원본은 아니지만 재발급된 교서의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문서 발급 및 관리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실물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1

2

- 박동량 호성공신교서, 2014  
\_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박동량 호성공신교서 배면 침지 부분, 2014  
\_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류상운 약재집 초고본

柳尙運 約齋集 草藁本

조선시대  
6책  
20.9x14.5cm  
종이(닥종이)  
양평군 옥천면 용천로 463

지정일：2011.03.08  
소유자：류민성  
관리자：류민성

류상운 柳尙運(1636~1707)은 본관이 문화文化, 자는 유구悠久, 호는 약재約齋 또는 누실陋室이다. 1660년(현종1) 25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666년(현종7)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정원 주서注書가 되었다. 이후 우참찬을 지내고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으나, 소론의 영수 최석정崔錫鼎을 변호하다가 삭직되었고, 희빈 장씨의 처리문제로 탄핵을 받아 유배되기도 하였다. 정치적으로 노론과 소론이 분리할 때 윤증尹拯·박세채朴世采 등과 입장을 같이 하였으며, 문장과 글씨에도 능하여 시문과 금석문이 남아 있다. 『약재집』본집은 18세기에 전반에 저자 류상운이 직접 작성한 초고본으로 지금까지 다른 전사본轉寫本이 없는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류상운 약재집과 약재연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약재연보 표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약재연보 본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약재집 권3 본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약재집 권4 표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류상운 약재집 초고본>은 본집인 『약재집』 5책과 『약재연보』 1책 등 필사본 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집은 10행 20자로, 별책 연보는 15행 25자로 배치되어 있는데 장차 목판인쇄를 위해 정서해 놓은 초고본草稿本이다. 저자가 직접 편집하여 후손에 전래된 유일본으로 표지 상황, 지질, 필사상태 등을 보아 18세기 전반 무렵에 성책成冊된 것으로 보인다.

『약재집』은 권차 구분없이 5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목록目錄, 서문序文, 발문跋文이 없다. 일부 권차가 매겨져 있고 부분수정을 가한 것으로 보아 후손에 의해 보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차를 비롯하여 곳곳에 수정흔적이 있으며, 또 다른 필체로 쓴 시문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 간행을 염두에 두고 해정楷正하게 정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론계老論系 집권 이후 대부분의 소론계少論系 인물들의 문집이 간행되지 못한 정황과 같은 맥락에서 조선후기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결국 『약재집』은 간행되지 못했다.

류상운 柳尙運(1636~1707)은 본관이 문화文化, 자는 유구悠久, 호는 약재約齋 또는 누실陋室이다. 1660년(현종1) 25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666년(현종7)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정원 주서注書가 되었다. 이후 우참찬을 지내고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으나, 소론의 영수 최석정崔錫鼎을 변호하다가 삭직되었고, 희빈 장씨의 처리문제로 탄핵을 받아 유배되기도 하였다. 정치적으로 노론과 소론이 분리할 때 윤증尹拯·박세채朴世采 등과 입장을 같이 하였으며, 문장과 글씨에도 능하여 시문과 금석문이 남아 있다. 『약재집』본집은 18세기에 전반에 저자 류상운이 직접 작성한 초고본으로 지금까지 다른 전사본轉寫本이 없는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52호

##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

南楊州 興國寺 大雄寶殿 木造釋迦三尊佛座像

조선시대  
3구  
석가불 79×53cm  
보현보살 높이 73cm  
문수보살 높이 71cm  
목재  
남양주시 덕릉로1071번길 58

지정일 : 2011.03.08  
소유자 : 흥국사  
관리자 : 흥국사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은 대웅전 수미단 위에 화려하게 투각된 목조광배를 배경으로 봉안되어 있다. 가운데 석가여래상을 두고 좌우에 봉안된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이다. 본존인 석가여래상은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결가부좌로 앉은 자세에 오른손은 손끝을 땅으로 왼손은 다리 위에 둔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다. 머리가 신체에 비해 큰 편이지만 신체비례가 적당하여 균형 잡힌 모습이다.

머리는 육계와 구분없이 경계에 중간계주를, 정상에는 정상계주를 두었다. 방형 얼굴에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작은 눈, 콧방울이 선명한 큼직한 코, 입술 양끝을 올린 큰 입과 두꺼운 귀에 귓불이 바깥으로 벌어진 모양 등의 특징과 전체적인 모습이 1755년(영조31) 상정(尙淨)이 조성한 양주 회암사(檜巖寺) 목조여래좌상과 매우 유사하다. 대의는 오른쪽 어깨를 덮어 돌려 입은 변형된 편단우견식이며, 가장 안쪽의 옷주름 하나가 깃처럼 길게 내려와 있고, 가슴 아래 승각기(僧脚崎)는 연잎형으로 접혀 있다. 다리 앞에 가운데 S자형 옷주름 끝단은 물방울형으로 이어지며, 왼쪽 다리 위로 연잎모양의 넓적한 옷자락이 흘러내려 있다. 이러한 법의의 특징은 곡성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1706) 등 18세기 초를 전후하여 활동한 진열(進悅)의 조각적 특징과 관련된다.



1.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 전경, 2017 \_경기문화재연구원
2. 석가여래상 중앙 화불,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석가여래상 우측면 화불,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4. 문수보살 좌측면 사자를 타고 있는 동자상, 2017 \_경기문화재연구원
5. 보현보살 우측면 코끼리를 타고 있는 동자상, 2017 \_경기문화재연구원



좌우 협시인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은 불꽃문, 화문, 용문이 장식된 높고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얼굴 측면으로 가는 두 가닥의 머리카락이 귓불을 지나 어깨에서 모아져 둥근 원형을 만들고 다시 구불구불한 3개의 가닥으로 나뉘어 흘러내린다. 그 외에 얼굴, 옷주름 등의 법의 표현은 본존상과 대동소이하다. 좌측의 문수보살상은 보현보살상과는 손의 위치가 반대로 오른손을 가슴 앞으로 들고 왼손은 다리 위에 두어 연(蓮)가지를 받쳐 든 모습이다. 두 보살상 모두 얼굴, 법의 등의 표현이 역시 상정이 1755년에 조성한 부천 석왕사 목조관음보살상과 닮았다. 즉 대웅전의 삼존상은 얼굴, 법의 표현 등으로 보아 상정 혹은 상정계 조각승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남양 흥국사 대웅보전 삼존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삼존상 뒷면의 투조와 양각 기법으로 제작된 거신광배이다. 본존과 문수보살의 광배는 각각 3매의 판목을, 보현보살의 광배는 4매의 판목을 덧대어 못으로 고정시켜 틀에 끼웠으며, 광배 가장자리는 화려한 화염문으로 두르고, 광배 내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의 연꽃 여섯 송이를 조각하였다. 특히 따로 제작한 연화화생의 화불화(佛은 광배에 끼워 입체감이 드러나도록 했는데 얼굴, 대좌 위로 무겁게 처지는 듯한 옷주름 등 상정계 불

상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석가여래상의 광배는 3구의 화불을 배치한 반면, 좌우 협시상의 광배에는 2구의 화불과 사자와 코끼리를 타고 있는 동자상 1구씩을 배치하여 각각이 문수와 보현보살의 도상을 나타내었다.

18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조각승 중 하나인 상정은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상(1722), 고양 상운사 목조삼존불좌상(1713), 함양 도솔암 목조관음보살좌상(1707) 등을 조성한 진열의 불상양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상정과 진열이 함께 활동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진열의 부하승이었던 태원(太元)과 같이 1748년(영조24)에 장흥 보림사 신법당 불상 개금과 영광 불갑사 대웅전 삼세불 개금하여 진열계 조각승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흥국사 대웅보전 목조삼존불좌상은 18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상정 혹은 상정계 조각승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조선 후기 불상 중 광배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사례로 이들 유파 조각승의 작품성과 조각적 역량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생각된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53호

남양주 홍국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南楊州 興國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조선시대  
21구  
지장보살 높이 78.2cm  
시왕상 높이 100cm 내외  
목재  
남양주시 덕릉로1071번길 58

지정일 : 2011.03.08  
소유자 : 홍국사  
관리자 : 홍국사



1.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도명존자·무독귀왕,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우측 시왕상 일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좌측 시왕상 일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남양주 홍국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지장전에 봉안되어 있는 21구의 불상이다.

모두 비슷한 특징으로 같은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긴 타원형의 머리는 원정형圓頂形이며, 얼굴은 장방형으로 길다. 가늘게 뜬 작은 눈, 콧방울이 선명한 큼직한 코, 입술 양끝을 올린 큰 입과 귀가 양측에 두꺼운 귀가 특징이다. 법의는 오른쪽에 복견의를 걸치고 그 위에 대의를 돌려 입었으며, 오른쪽 옷주름 하나가 둥근 끝단으로 강조되어 있다. 가슴 아래에 승각기僧脚崎는 가운데 큰 연잎을 중심으로 맞주름을 잡아 모양을 내었다. 다리 위에는 옷자락을 양측으로 펼쳐 놓은 모양인데 가운데 옷주름의 끝단은 큰 S자형을 그리면서 흘러내리고 왼쪽 다리 위에는 무릎을 가릴 크기의 큼직한 옷자락이 표현되어 있다.

좌우의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의 본존상보다 작게 조성되었다. 무독귀왕은 얼굴이 길고, 도명존자의 얼굴은 방형이며 이목구비의 표현은 본존상인 지장상과 유사하다. 시왕상은 1(진광대왕)·3(송제대왕)·5(염라대왕)·7(태산대왕)·9(도시대왕)의 대왕과 2(초강대왕)·4(오관대왕)·6(변성대왕)·8(평등대왕)·10(전륜대왕)의 대왕이 좌우에 번갈아가며 배치되어 있다. 높이가 1m 내외로 의좌椅坐, 반가좌半跏坐, 한쪽 다리를 곧추 세우고 다른 한쪽 다리는 대좌 아래로 내린 유희좌遊戲坐의 자세를 하고, 한손으로 턱 아래 수염이나 코를 만지거나 홀이나 붓을 쥐기도 하며, 명부를 펼쳐 들고 있는 모습 등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복장은 단령에 관대를 하고 가죽신인 화靴를 신고 있으며, 귀왕이나 판관도 복장이 유사하다.

지장전 입구의 인왕상은 오른손은 어깨 위로 올리고 다른 손은 허리 아래로 내려 검을 쥐고 있는 모습이다. 옷을 입지 않은 상반신에 걸친 천의 자락이 위로 휘날리며, 천의의 끝자락도 구불구불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역동적인 모습이다.

제4오관대왕·제7태산대왕·제9도시대왕·사자상使者像·인왕상仁王像에서 복장물이 확인되었다. 오관대왕 복장에서는 후령통, 1792년 영인본 『일체여래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一切如來 秘密全身舍利寶篋陀羅尼』를 비롯해 다양한 다라니가 발견되었고, 태산대왕의 복장에서는 후령통,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일체여래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1792)가 발견되었다. 도시대왕의 복장에서는 조성발원문과 함께 『불설광본대장경佛說廣大藏經』, 『불설지심다라니경佛說地心陀羅尼經』, 6종의 『금강반야바라밀경』,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권10·11, 『법집법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삼신주다라니』, 2종의 『일체여래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 등이 확인되었다. 사자상과 인왕상에서도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을 비롯하여 다양한 다라니가 발견되었다. 발원문에 따르면 이 상들은 1792년 42명의 조각승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수화승의 이름은 진□震□로 앞머리의 글자만 확인될 뿐 파악하기 어렵다. 지장전 불상은 얼굴, 두꺼운 귀, 옷주름 등의 특징으로 보아 홍국사 대웅보전 석가여래삼존상을 조성한 유파에 속하는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① 진광대왕  
② 초강대왕  
③ 송제대왕  
④ 오관대왕  
⑤ 염라대왕  
⑥ 변성대왕  
⑦ 태산대왕  
⑧ 평등대왕  
⑨ 도시대왕  
⑩ 전륜대왕



## 남양주 봉영사 아미타불도

南楊州 奉永寺 阿彌陀佛圖

조선시대(1853년)  
1점  
206.8×228.6cm  
비단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77

지정일 : 2011.05.02  
소유자 : 봉영사  
관리자 : 봉영사

<남양주 봉영사 아미타불도>는 천점산泉岾山 봉영사 관음전觀音殿에 보관중이며, 화면 하단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안료박락顔料剝落이 있다. 아미타불회도는 서방극락세계西方極樂世界를 주재하는 아미타불과 여러 권속들을 함께 그린 군도형식群圖形式的 아미타후불화이다.

이 불화는 청련화좌靑蓮華坐에 앉아 결가부좌한 아미타부처를 중심으로 하단에는 협시보살挾侍菩薩인 관음觀音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을 비롯하여 금강장金剛杖과 미륵보살彌勒菩薩 등 6대보살 및 사천왕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였다. 상단에는 아미타부처 좌우에 아난과 가섭존자를 비롯한 십대제자, 산호가지를 받쳐 든 용왕과 복숭아가 담긴 쟁반을 받쳐 든 용녀, 사자탈을 쓴 호계대신大神護界과 코끼리 탈을 머리에 쓴 복덕대신福德大神을 좌우대칭으로 배치하였다.

화면 중앙의 청련화좌에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결하고 결가부좌한 아미타부처는 가름한 턱에 이목구비가 작은 편으로 특히 입술이 작고 두툼하다. 신체 비례는 균형이 잡혀 있고 안정적이다. 통견通肩의 붉은색 대의에는 원형 꽃무늬가 시문되었다. 광배는 두광과 신광 모두 원형이며 두광은 진녹색, 신광은 연녹색이다. 아미타부처의 무릎 아래에 위치한 관음과 대세지보살의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고, 그 옆에 위치한 미륵과 금강장보살은 아미타부처를 향하고 있다. 이들 좌우에는 사천왕이 상하로 서서 아미타부처 도량道場을 수호守護하고 있다. 색채는 붉은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주황과 백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하단에 기록된 화기畵記에 의하면, 이 불화는 1853년(철종4)에 본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한 ‘영산후불탱靈山後佛幀’으로 표기하였으나, 도상 내용으로 보아 오기誤記로 보인다. 책임 화승畵僧은 응성당應性堂 환익幻翼이, 현장 책임인 편수片手는 정월당淨月堂 묘연妙彦 등 8명의 비구比丘가 참여하였다.



- ① 아미타불
- ② 금강장보살
- ③ 대세지보살
- ④ 관음보살
- ⑤ 미륵보살
- ⑥ 사천왕
- ⑦ 복덕대신
- ⑧ 용녀
- ⑨ 십대제자
- ⑩ 용왕
- ⑪ 호계대신



남양주 봉영사 아미타불도, 촬영일미상, 성보문화재연구원



## 남양주 봉영사 지장시왕도

南楊州 奉永寺 地藏十王圖

조선시대(1828년)  
1점  
139.8×193.5cm  
비단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77

지정일 : 2011.05.02  
소유자 : 봉영사  
관리자 : 봉영사

<남양주 봉영사 지장시왕도>는 천점산泉岾山 봉영사 관음전觀音殿에 봉안된 조선후기의 지장시왕도이다. 가로로 긴 화면에는 수미대 좌 위에 결가부좌한 지장보살삼존地藏菩薩三尊을 중심으로 시왕·판관·옥졸·동자 등 명부의 권속이 4단으로 빼곡하게 배치되어 있다. 화면 중앙의 지장보살은 흑색 두건을 쓰고 있으며, 오른손은 위로 살짝 들고 왼손은 무릎 아래로 내려 백색의 보주를 잡고 있다. 지장보살의 좌우로는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이 합장하고 서 있으며, 그 위로 2명의 동자가 지장보살의 지물인 석장錫杖 또는 무독귀왕의 지물인 상자를 받쳐 들고 있다. 시왕은 모두 관을 쓰고 홀을 든 채 지장보살을 향하고 있으나 책관冊冠을 쓴 염라대왕만이 정면을 향하고 있다. 시왕의 위로는 판관과 우두옥졸牛頭獄卒과 마두옥졸馬頭獄卒, 양발仰髮의 옥졸, 동자와 천녀 등이 배치되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권속들의 크기를 작게 그림으로써 자연스럽게 관자觀子의 시선을 화면 위로 유도하고 있다.

채색은 적색과 녹색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금박과 금니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중앙의 본존인 지장보살의 불신佛身과 시왕의 관모 등에는 금박을 두껍게 입혔으며, 지장보살을 비롯하여 권속들의 천의 문양은 금니金泥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특히 마두옥졸과 우두옥졸 등의 얼굴에는 19세기 이후 서울·경기지역 불화의 특징인 음영기법이 반영되어 있다.

화면 하단 중앙에 남아있는 화기는 끝부분의 손상으로 인하여 완전한 판독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경기 북한이리 흥○○京畿北漢二里興○○’라는 기록으로 보아 흥국사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화의 수화승인 화담당 신선은 『의종대왕 태실가봉 석난간조배의궤翼宗大王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1836)에 용주사 수화승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으며, 1832년(순조32) 왕실에서 발원한 홍천사 비로자나삼삼괘불도 조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19세기 왕실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으로 추정된다.



- ① 지장보살
- ② 무독귀왕
- ③ 도명존자
- ④ 시왕
- ⑤ 옥졸
- ⑥ 마두옥졸
- ⑦ 판관들
- ⑧ 동자와 천녀
- ⑨ 우두옥졸
- ⑩ 양발의 옥졸



1		
2	3	

- 1. 남양주 봉영사 지장시왕도, 촬영일미상. 성보문화재연구원
- 2. 금박을 사용한 시왕의 관모와 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3. 음영기법이 반영된 우두옥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남양주 봉영사 신중도

南楊州奉永寺神衆圖

조선시대  
1점  
177×191.6cm  
면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77

지정일 : 2011.05.02  
소유자 : 봉영사  
관리자 : 봉영사

<남양주 봉영사 신중도>는 천점산泉帖山 봉영사 관음전觀音殿에 봉안된 신중도이다. 화면구성은 상·하 2단구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단에는 제석천帝釋天과 위태천韋駄天, 범천梵天을 중심으로 한 천부중天部衆, 하단에는 천룡팔부중天龍八部衆을 배치하였다. 상단은 중앙에 위태천을 배치하고 좌우에 제석천과 범천을 배치하여 마치 삼존불화와 같은 구도를 보이는데, 풍성한 모란꽃 가지를 든 제석천과 합장하고 있는 범천, 깃털이 달린 투구를 쓰고 보검寶劍을 받은 위태천을 중심으로 천신天神과 천동天童·천녀天女의 무리를 배치하였다. 천부중은 붉은색 천의를 입고 초록색 두광을 지니고 있으며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이처럼 제석천과 범천, 위태천을 나란히 배치한 구도는 통도사 옥련암 신중도(1864)를 비롯하여, 홍익대학교 소장 신중도(1883), 법주사 신중도(1896)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단은 구름으로 구획한 뒤 위태천이 이끄는 천룡팔부중을 그렸는데, 무장을 하고 활과 화살, 검 등의 무기를 든 팔부중은 호법신장護法神將으로서의 역할을 잘 나타내고 있다.

색채는 적색과 청색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상단의 여백과 옷 일부에는 호분을 섞은 청색을 사용하고, 권속들의 얼굴을 흰색으로 채색하여 전체적으로 화면이 밝다. 인물표현은 이마부분이 다소 넓고 턱 부분이 가름하며, 코와 뺨 부분에 음영을 표현하여 얼굴의 골격을 강조하였다. 특히 팔부중의 얼굴에는 강한 음영을 가하였는데, 이러한 기법은 19세기 후반 서울·경기지역에서 유행했던 음영기법 중 하나이다. 인물표현은 다소 도식화된 선으로 묘사되었으며, 인물을 둘러싼 구름 또한 도안화되어 장식적인 느낌을 준다.

화기가 남아있지 않아 조성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좌측(향우) 하단에 남아 있는 묵서명을 통해 두흙斗欵이 출초出草하고 경조敬照가 함께 그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흙은 19세기 서울·경기지역의 대표적인 화승인 경선당 응석慶船堂 應釋과 더불어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활약하였다. 이 신중도는 조선후기 신중도의 형식 가운데 가장 애용되었던 제석천과 범천, 천룡팔부중을 함께 그린 제석범천천룡도帝釋梵天天龍圖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다소 탁해진 적색과 청색계통의 색채가 많이 채용되고 있는 점, 음영기법, 두흙이 책임화를 맡아 조성한 점 등으로 보아 19세기 후반 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 ① 위태천(동진보살)
- ② 제석천
- ③ 대범천
- ④ 조왕신
- ⑤ 산신
- ⑥ 천룡팔부중



남양주 봉영사 신중도, 촬영임미상\_정보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58호

## 남양주 봉영사 산신도

南楊州 奉永寺 山神圖

1903년  
1점  
194.4×174cm  
면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77

지정일 : 2011.05.02  
소유자 : 봉영사  
관리자 : 봉영사



❶ 산신(주산신) ❷ 파도문양 병풍  
❸ 일산(해와 산의 표현) ❹ 모란꽃 ❺ 익선

남양주 봉영사 산신도, 촬영임미상  
\_ 정보문화재연구원



<남양주 봉영사 산신도>는 20세기 초에 삼각산 원흥사元興寺에서 조성한 불화이다. 면바탕에 채색을 한 작품으로 산신과 시중을 드는 동자 2인, 쭈그리고 앉은 호랑이를 한 폭의 화면에 배치하였다.

화면의 구성은 깊은 산과 골짜기를 배경으로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산신을 화면 가득 크게 그리고 시중을 드는 동자 2인을 왼쪽에 배치하였는데, 산신에 비해 동자가 상대적으로 작게 묘사되었다. 산신의 오른쪽으로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 풍채가 좋은 백발의 산신은 파도문이 그려진 병풍을 배경으로 의자에 앉아 정면을 보고 있고, 붉은 색의 옷을 입고 머리에는 검은 망건을 쓴 모습이다. 오른쪽에 흰수염을 만지며 왼손에는 익선翼扇을 들고 있다. 익선은 새와 같이 하늘을 상징하고 모란꽃은 부귀와 장생을, 일산 등은 믿음과 부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화기에 따르면, 1903년(광무7) 칠성도七星圖·독성도獨聖圖·

산신도山神圖를 동시에 조성하여 원흥사에 봉안하였다. 칠성도와 독성도는 봉선사奉先寺에, 산신도는 봉영사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산신도는 지금껏 알려진 것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시기가 명확한 작품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서울·경기 지역에서 활동한 예운 상규禮雲尙奎가 출초出草하여 그렸다. 예운당 상규는 지장암 산신도(1901)에서 같은 초본을 사용한 듯 인물, 호랑이, 동자의 표현이나 물결무늬가 있는 병풍을 두른 모양 등이 거의 일치한다. 산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의자에 앉은 초상화적인 성격을 띤 모습은 봉영사 산신도의 특징으로,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르다. 19세기 제작 산신도에 화기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산신도는 화기가 있어 제작자와 제작년월일, 봉안 장소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산신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59호

## 고양시 길상사 육경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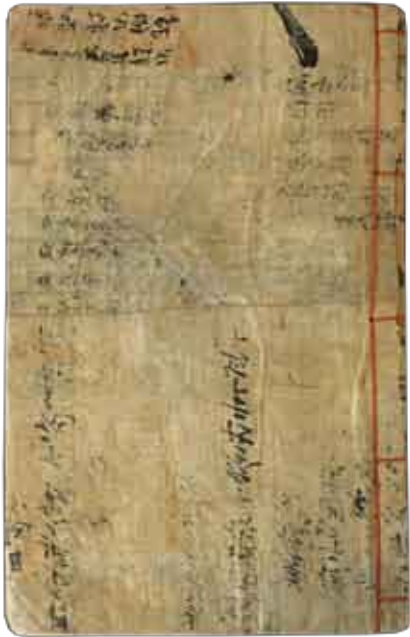
高陽市 吉祥寺 六經合部

조선시대(1491년)  
1책  
30×18cm  
종이(단종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로 36-17

지정일 : 2011.10.04  
소유자 : 길상사  
관리자 : 길상사

1 2 3

1. 표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권수,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고양시 길상사 육경합부>는 선장본線裝本 1책으로 1491년(성종22)에 낙안 징광사澄光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서지사항은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에 계선은 없고, 반엽半葉 8행 17자이다.

『육경합부』는 조선초기에 널리 독송되었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대불정수릉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관세음보살예문觀世音菩薩禮文』,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등 여섯 가지 경전을 휴대와 독송에 편리하도록 한데 모아 간행한 것이다. 책에는 ‘육경합부’라는 말이 보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육경합부로 통칭하고 있다. 후대에는 이 중에서 『금강경』, 『보문품』, 『아미타경』만을 수록한 ‘삼경합부三經合部’ 판본이 자주 간행되기도 하였다.

『육경합부』는 1424년(세종6) 전라북도 완주군 안심사에서 성달생成達生(1376~1444)이 필사한 안심사본을 저본으로 복각 간행한 판본이 많다. 길상사 『육경합부』 역시 서체가 비슷하여 안심사본을 바탕으로 판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관세음보살예문』 끝부분에는 ‘홍치사신해 유월 일 전라도낙안징광사개판弘治四辛亥 六月 日 全羅道樂安澄光寺開板’이라는 간행기록이 있어 1491년(성종22)에 낙안 징광사에서 판각된 목판본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책은 징광사본의 후쇄本後印本이다. 징광사 판본은 현재까지 다른 곳에 남아 있지 않은 유일본으로 불서 판본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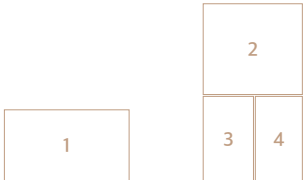


## 고양시 길상사 묘법연화경

高陽市 吉祥寺 妙法蓮華經

조선시대(1561년)  
1책(7권)  
30×18cm  
종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로 36-17

지정일 : 2011.10.04  
소유자 : 길상사  
관리자 : 길상사



1. 묘법연화경 전7권 7책,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권1 서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권3 말미 시주질명단,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권1 변상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묘법연화경』은 1책 7권의 완본으로 1561년(명종16)에 간행한 목판본이다. 서지사항은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에 계선은 없고, 반엽半葉 8행 17자이다.

『묘법연화경』은 흔히 『법화경』이라고 부르며, 대승경전의 가장 중요한 경전의 하나이다. 경전을 독송 서사 간행하는 것을 공덕으로 묘사한 내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이다. 이 책은 후진後秦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漢譯하고 송나라의 계환戒環이 풀이한 계환해본戒環解本이다. 이 책의 권1과 권4 첫머리에는 경전의 내용을 요약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변상도變相圖 판화가 삽입되어 있다. 권3의 말미에는 수십 명에 이르는 간행할 때의 시주자 명단이 있다.

이 길상사 『묘법연화경』은 성삼문의 조부인 성달생成達生(1376~1444)과 성개成概(?~1440) 형제가 독서편리를 위해 중자로 판서본板書本을 써서 1443년(세종25)에 화암사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1561년(명종16)에 전라도 장흥長興 천관사天冠寺에서 복각 간행한 판본이다. 천관사본으로는 국내에 유일한 완질본으로서 불서 판본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61호

## 성남시 대광사 영가대사 증도가남명천선사게송

城南市 大光寺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偈頌

조선시대(1482년)  
2책  
306×22.3cm  
종이(닥종이)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백자길 9

지정일：2011.10.04  
소유자：대광사  
관리자：불교천태증앙박물관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게송』은 선장본線裝本 2권 2책으로 1482년(성종13)에 간행한 금속활자본이다.

서지사항은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에 계선이 있고, 반엽半葉 9행 19자,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이다.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게송』의 정확한 이름은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게송언해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偈頌諺解』이다.

당나라의 영가永嘉 진각대사眞覺大師가 여러 전적에서 깨달음의 요체가 될만한 내용을 가려 뽑아 편찬한 선시집禪詩集 「증도가證道歌」를 송나라 남명선사南明禪師 법천法泉이 각 구절을 나누고 이어 송頌을 붙인 것이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게송」이다. 이를 세종이 한글로 일부 번역하고 학조學祖가 마저 번역하여 1482년 간행한 책이 바로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게송언해」이다.

이 책은 조선 성종 연간에 을해자와 한글 소자로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으로서, 한자음을 동국정운식東國正韻式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ㅁ, ㅍ’, ‘ㅇ’ 등이 한자음 표기에 사용된다거나, 방점이 쓰이는 등 중요한 표기법이 나타나있다. 대광사 소장본은 성종 연간에 인쇄된 완질 금속활자본으로, 서지학과 불교학, 국어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1 2 3 4

- 권상 표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권하 표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권상 서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권하 권두,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62호

## 성남시 대광사 선종영가집언해권상

城南市 大光寺 禪宗永嘉集諺解卷上

조선시대(1464년)  
1책  
30.3×20.6cm  
종이(닥종이)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백자길 9

지정일：2011.10.04  
소유자：대광사  
관리자：불교천태증앙박물관

<성남시 대광사 소장 선종영가집언해권상>은 선장본線裝本 1책으로 1464년(세조10)에 간행한 간경도감판 목판본이다.

서지사항은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에 계선이 있고, 인쇄면은 반엽半葉을 기준으로 8행이며 한자와 한글이 혼합되어 19자씩 배자되었다. 판심의 상하에는 대흑구大黑口가 있으며, 그 사이로 흑어미黑魚尾가 서로 내향하고 있다. 어미 사이에 ‘영가집永嘉集’이라는 판심제板心題가 있고, 그 아래로 장수가 표기되어 있다.

『선종영가집』은 당나라 영가永嘉 진각대사眞覺大師가 수행인의 자세와 선수행의 요결에 대한 열 가지의 내용을 찬술한 것을 송나라 행정行靖이 주를 달고, 정원淨源이 과문科文을 나누어 만든 선종의 요결서要訣書이다.

『선종영가집언해』는 『선종영가집』에 세조가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신미信眉 등이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해초海超와 효령대군孝寧大君 등이 교정하여,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책이다.

책머리에 간경도감 도제조인 황수신黃守身의 전문箋文과 도제조 이하 간행 관여자의 관직과 이름이 실려 있고, 끝에 신미와 효령대군의 발문이 있어서 간행경위를 밝혔다. 책의 체제는 간경도감의 다른 언해본과 같다. 그 후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貞顯王后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95년(연산군1)에 원각사에서 대대적으로 간행하여 널리 보급되었다. 『선종영가집언해』는 앞뒤 상당 부분 결실되어 있지만, 이 책이 보여주는 일정하게 고정지가 사용되는 점 등 여러 가지 특징들이 간경도감에서 1464년(세조10)에 판각한 후 바로 인쇄된 것으로 혼민정음과 국어 연구에 매우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1 2 3

- 표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서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권수,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63호

## 성남시 대광사 경율이상

城南市 大光寺 經律異相

조선시대  
6권 1책  
27.8×26.5cm  
종이(단종이)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백자길 9

지정일：2011.10.04  
소유자：대광사  
관리자：불교천태중앙박물관

<성남시 대광사 경율이상>은 선장본線裝本 6권 1책으로 조선전기 에 간행된 대장도감본大藏都監本 목판본이다.

서지사항은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계선은 없고, 전엽全葉 23행 14자, 무어미無魚尾이다. 각 판의 머리에는 판수제板首題가 새겨져 있는 데, 그 아래에 ‘然灯(연정)’, ‘正三(정삼)’ 등의 각수명刻手名이 표기 되어 있다.

『경율이상』은 양梁나라 보창寶唱과 승민僧旻 등이 여러 경장經藏과 율장律藏 등에서 요점을 뽑아 정리해 놓은 불교백과전서로서 극히 일부는 논서에서 뽑은 것도 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 경전을 토대 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불경의 이해에 매우 요긴한 도움을 주는 책이다. 전체 내용은 4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분마다 항목을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문 등을 인용하는 방법 으로 해석하였으며, 해석의 끝에는 인용 근거를 밝혔다.

권수에는 찬자 표기가 있고, 서문에 이어 목록이 수록되고 본문이 시작된다. 권말의 간기에 ‘계묘세고려국분사개장도감봉칙조조癸卯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라고 표기되어 있어, 1243년(고려 고종30)에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지질과 인쇄 상태로 보아 조선전기에 인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된다.

1 2 3

1. 표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권수,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권말 간행기록,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64호

## 백자청화 정부인 영광정씨 묘지 및 지석함

白磁靑畵 貞夫人 靈光丁氏 墓誌 一誌石函

조선시대(1497년)  
지석 4점, 지석함 1점  
지석 19.5×27×2.7cm  
지석함 외부 20×45×60cm  
내부 7×20×30cm  
도자기(백자, 화강암)  
화성시 향남읍 토화길 70

지정일：2011.10.04  
소유자：송헌문화재단  
관리자：송헌문화재단



<백자청화 정부인 영광정씨 묘지 및 지석함>은 2006년 김포시 운 양동에서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었 다. 묘지의 피전자被傳者는 경기수군절도사를 지낸 정극근丁克勤의 손녀이자 신숙주申叔舟의 둘째 아들 신면申漣의 부인인 영광정씨靈 光丁氏(1437~1497)이다.

묘지는 총 4매로 장방형의 판형이며, 해정한 해서체로 쓰여졌다. 묘 지명 ‘유조선정부인정씨지묘有朝鮮貞夫人丁氏之墓’를 제외하고 총3 장의 측면에는 각각 일장一張·이장二張·삼장三張 순서가 적혀있다. 전면에는 영광정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 등 가족에 대한 내용 과 묘주의 성품, 혼인, 이력사항, 자녀에 관한 내용이 가로12자, 세로 13~16자의 글자배열로 쓰여있다.

또한 출토당시에 수정구슬이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볼 때 상당한 품격 을 갖추어 매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500년 이상의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묘지는 지석함과 함께 구성되어 있어서 상태가 상당히 양 호하고 글씨의 판독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백자청화 정부인 영광정씨 묘지 및 지석함은 묘지와 지석함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유물 자체로서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전자가 여성인 묘지명이 흔치 않은 상황에서 조선전기 묘지명 연 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1. 지석함,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3. 묘지(1),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5. 묘지(2),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묘지(3),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5. 묘지(4),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65호

## 고령신씨 북백공파 고문서 85건

高靈申氏 北伯公派 古文書 85件

조선시대

85건

23~75×28~62cm

종이

화성시 향남읍 토화길 70

지정일: 2011.10.04

소유자: 송헌문화재단

관리자: 송헌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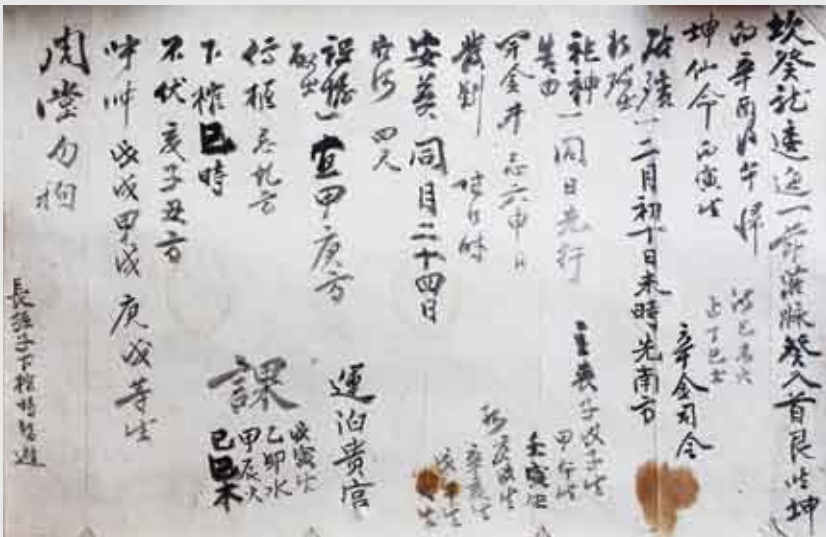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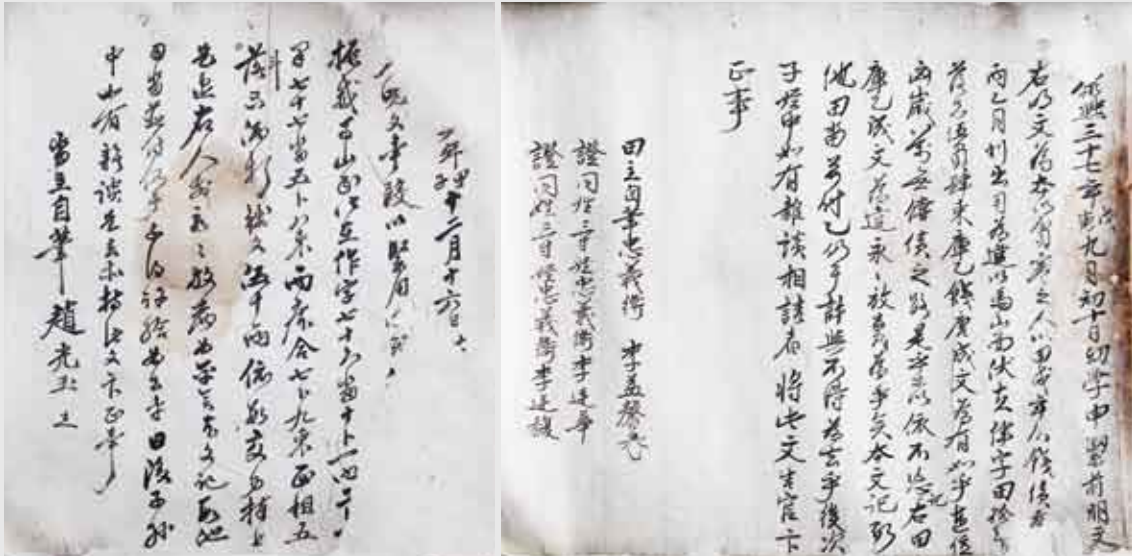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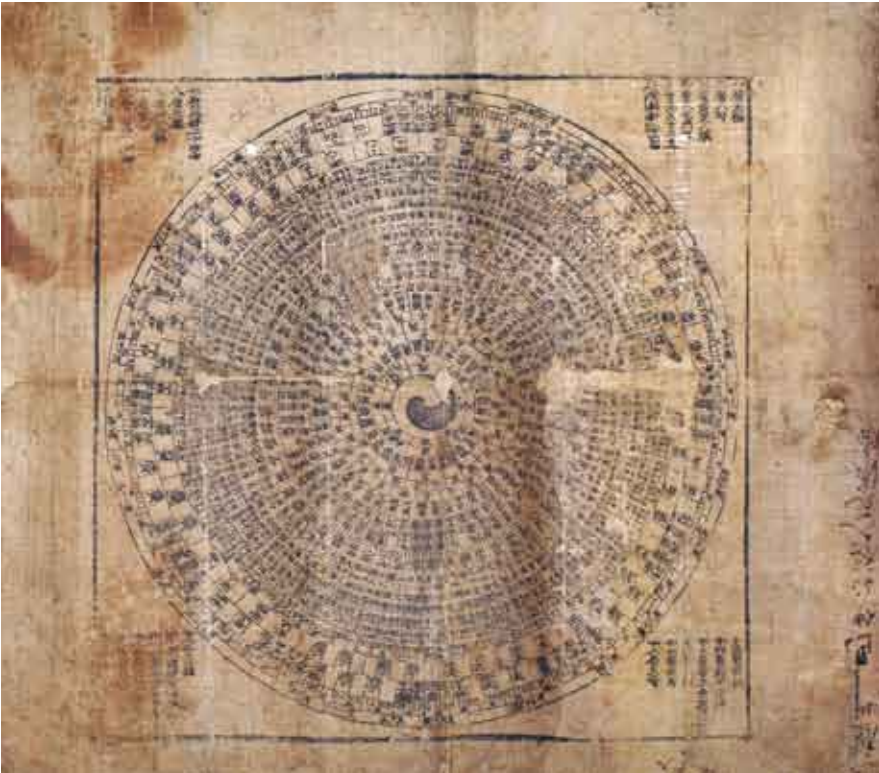
	2	3
	4	
1	5	

1. 나경도羅經圖,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토지매매명문,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채무상환명문,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판결명문,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장택기葬擇記,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고령신씨 북백공파 고문서 85건>은 고령신씨 북백공파 종손 집에 대대로 전수되어 온 조선중후기 문서들이다. 고령신씨高靈申氏는 고려 고종연간에 문과에 급제하여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이 된 신성용申成用을 시조로 하고 있다. 그의 선조는 신라의 선비로 대대로 고령에 살면서 호장을 지내왔다. 그래서 후손들이 경상북도 고령을 본관으로 삼는 성씨다. 고령신씨 북백공파는 조선중기 좌의정을 지낸 신용개申用溉(1463~1519)의 부친인 신면申沔(1437~1467)을 파조波祖로 한다.

이 고문서는 은율현감殷栗縣監을 지낸 신대식申大弼(1588~1654)을 정점으로 신결申潔(1666~1762), 신구申構(1688~?), 신맹록申孟祿(1777~1857) 등이 가업을 경영한 결과로 남은 경기도지역 세거지世居地의 토지매매와 관련한 문서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경기지역은 서울에 근접해 있어서 변동성이 많고, 전란의 피해가 많아 대부분의 고문서가 산실散失되었다. 그래서 고령신씨 북백공파 고문서와 같이 문중에 세전世傳된 것은 비교적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라 향촌鄕村에 세거한 독립적인 문중에서 순차적으로 생산된 고문서가 일관되게 세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향촌의 사회경제사社會經濟史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실증적 자료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66호

## 부천 만불선원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제5

富川 叡佛禪院 詳校正本 慈悲道場懺法 卷第5

조선시대  
1책  
38.5×15×2.8cm  
종이  
부천시 마니로24번길 41-62

지정일：2012.03.26  
소유자：만불선원  
관리자：만불선원



1  
2 3

1.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제5,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권수, 촬영일미상. 문화재청  
3. 권말,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양梁나라 무제의 명령으로 처음 편찬된 『자비도량참법』의 후대 교정본이다. 지은 사람은 ‘양조제대법사 집찬梁朝諸大法師 集撰’이라는 저자표시와 같이 양나라 승려들의 공동으로 찬술하였다. 여러 경전에 수록된 참회에 관한 내용들을 일정한 체계로 엮어 놓은 것인데, 자비도량에서의 참회의식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양나라 때 편찬된 『자비도량참법』의 내용을 원나라 때 상세히 살펴서 바로 잡은 것이 이 책이다. 모두 10권으로 정삼업淨三業, 현과보顯果報, 자경自慶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권5인 이 책은 「해원석결解冤釋結」이 수록되어 있다. 「해원석결」은 사람 간에 원한이 없어야 지옥이 없어지므로 원한을 없애는 예참 의식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316년(고려 충숙왕3)에 변산에서 간행된 판본(보물 제1543호)을 비롯하여 1352년(공민왕1) 판본 등 고려본이 공개되어 있고, 조선시대에도 10여 차례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판본은 ‘참오 일懺五 一’과 같이 작은 자로 판심제, 권수, 장수표시를 해놓았고, 권이 끝난 뒤에는 음의音義가 있다. 지질은 조선전기에 사용되던 고정지 계통이어서 간행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앞부분에 일부 오염이 있고, 절첩한 부분에 손상된 곳이 있으나 대체로 온전하다. 장책형식은 5행씩을 접은 절첩본折帖本이며, 먹으로 구결口訣과 구두점句讀點을 달아놓은 것으로 보아 학습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67호

## 부천 만불선원 십지경론 이구지·난승지2책

富川 叡佛禪院 十地經論 離垢地·難勝地2冊

조선시대  
2책  
31×21cm 내외  
종이  
부천시 마니로24번길 41-62

지정일：2012.03.26  
소유자：만불선원  
관리자：만불선원



1  
2 3 4

1. 난승지 원표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난승지 권수,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이구지 권수,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난승지 권말,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십지경론』은 『대방광불화엄경』 가운데 「십지품十地品」만을 번역한 「십주경十住經」을 해석해 놓은 것이다. ‘십주十住’는 다른 말로 ‘십지十地’라고도 하는데 보살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수행방편을 일컫는다. 십지는 보살의 수행 단계에 따라 환희지歡喜地·이구지離垢地·명지明地·염지焰地·난승지難勝地·현전지現前地·원행지遠行地·부동지不動地·선혜지善慧地·법운지法雲地 등으로 구분된다.

만불선원 소장 『십지경론』은 이 중에서 제2의 이구지(제4권)와 제5의 난승지(제7권)에 해당된다. 이구지는 보살은 계율을 지키고 열 가지 선행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난승지는 어려운 고비를 이겨 내는 경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수제 아래에 있는 「공空」이라는 천자문 합차函次번호가 새겨져 있고, 난승지 권말에는 재조본再雕本 고려대장경의 간행기록인 ‘임인세(1242) 고려국대장도감 봉칙조조壬寅歲高麗國大藏都監奉勒雕造’라는 간기가 있어 이 책들은 재조본 고려대장경의 번각本飜刻本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책에서는 간행 관련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조선후기 대장경에 편입된 경전을 별도로 분리하여 간행된 판본들이 더러 보이는 점과 여러 특징들을 볼 때 17~18세기에 지방의 사찰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68호

## 부천 만불선원 화엄경언해 38권39책 富川 叡佛禪院 華嚴經諺解 38卷39冊

1904년  
38권 39책  
34×23cm  
종이  
부천시 마니로24번길 41-62

지정일 : 2012.03.26  
소유자 : 만불선원  
관리자 : 만불선원

『화엄경(언해)』은 대한제국의 궁녀들이 왕실의 축원을 위해 1904년  
에 사성寫成한 한글 『대방광불화엄경』이다. 모두 38권 39책 1,625장  
이다.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여러 주석서가 있었는데, 송나  
라 때 정원淨源은 징관澄觀의 주석을 중심으로 자신의 주석을 달아  
120권으로 완성함으로써 『대방광불화엄경』 주석서를 결집하였다.  
만불선원 소장 『화엄경언해』는 바로 이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경문  
만을 한글로 음독하고 현토를 해놓은 것이다.

권 제114의 입법계품入法界品이 끝난 뒤에는 ‘상축 태황제폐하 성공  
안강만세만세수만세’와 같이 고종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이  
어 황태자전하, 태자비전하, 영친왕전하에 대해서도 각각 안녕과 수  
복을 기원하고 있다.

또한 ‘원컨대 이 공덕이 일체에 미쳐서 우리와 중생들이 마땅히 극  
락국에 태어나 함께 무량수불을 뵈고 함께 깨달음을 이룰지어다”라  
는 의미의 공덕계功德偈도 있다.

누런 색 표지에 『화엄경』이라는 궁체 서명과 책수가 쓰여져 있는 분  
홍색 제점이 붙어 있다. 권수제는 『대방광불화엄경소』이고, 한 면에  
는 8행, 1행에는 18자 내외를 써 놓았다. ‘광무팔년갑진칠월 일’, ‘대  
한광무팔년칠월일등서’ 등의 사성기를 통해 1904년 7월에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경을 독송하면 무량복덕과 무량공덕  
을 생전과 사후에 받는다고 하니 주야로 독송하시옵소서.’라고 적어  
놓은 점을 볼 때 대한제국의 궁녀들이 왕실에 봉헌하기 위하여 완성  
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엄경(언해) 38권 39책,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69호

## 화성 용주사 전답양안2건 華城 龍珠寺 田畝量案2件

조선시대(기미본 1799, 별본 1804년)  
2건  
기미양안 49×32cm  
별본양안 51×31cm  
종이  
화성시 용주로 136

지정일 : 2012.03.26  
소유자 : 용주사  
관리자 : 용주사

<화성 용주사 전답양안 2건>은 화성 용주사에 소장되어 있는 기미  
양안과 별본 양안 2건을 일컫는다. 기미 양안은 1799년(정조23)에  
작성된 것으로 본 이름은 ‘가경사년칠월일용주사전답양안嘉慶肆年  
七月日龍珠寺田畝量案’이고, 별본 양안은 1804년(순조4)에 작성된  
것으로 본 이름은 ‘가경구년양안嘉慶玖年量案’이다. 두 양안은 녹색  
포로 감싼 표지에 무쇠 변철을 댄 철장鐵裝으로 의례의 장황과 같은  
형태이다. 기미 양안은 1장의 공격지를 두고 본문은 39장으로, 묵선  
을 7줄 7칸으로 굿고 필사하였는데 5·6·7장과 뒤표지는 없어졌으며  
근대까지 수정하고 관리한 흔적이 있다. 별본 양안의 본문은 99장 1  
면이 남아 있으며, 앞표지와 뒤표지, 본문 1장과 2장 앞면이 없어지  
고 98·99·100장의 하단 부분이 훼손되었다.

용주사 전답양안은 면단위 토지소재지, 자호字號, 전품田品과 전형  
田形, 전답구분, 구획 수, 가로 세로 길이, 곡물 생산량 기준 토지 면  
적, 파종량 기준 면적, 동서남북 경계, 등록 명의자 등 아홉 가지 내  
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두 양안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파종량 기준 면적에서 기미 양안은  
마지기 수만 기재한 반면 별본 양안은 마지기 수와 도조賭租·세조稅  
租를 기재한 것이 다르며, 수록명의자의 경우 기미 양안은 기주起主  
를, 별본 양안은 시작時作을 기재한 것이 다르다. 본문 말미에 작성  
주체의 서압署押을 통해 기미 양안은 용주사총섭이 책임자였으며,  
별본 양안은 경기관찰사 겸 수원부유수가 책임자였음을 알 수 있다.  
기미 양안에는 결수로 23결結 40부負 3속束의 토지가 기재되어 있  
으나, 5년 뒤에 작성된 별본 양안에는 91결 94부 7속의 토지가 기재  
되어 용주사의 토지규모가 4배나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전답양안  
은 용주사가 용릉과 건릉의 조포사造泡寺로서 토지를 확보하고 운  
영한 정보가 담겨있어 지역의 사회·경제사 연구 및 조선후기 사원전  
의 운영실체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1 2 3

1. 기미 양안 표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2. 별본 양안 표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3. 기미 양안 내용,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 의정부 망월사 목조불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議政府 望月寺 木造佛三尊像 및 十六羅漢像 一括

조선시대  
28구  
중앙목조불좌상 59×39cm  
좌측목조보살좌상 50×32cm  
우측목조보살좌상 52×33cm  
소조나한상 높이 35~42cm 내외  
목재, 진흙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211-500

지정일 : 2012.06.26.  
소유자 : 망월사  
관리자 : 망월사

<의정부 망월사 목조불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은 도봉산 망월사 응진전에 봉안되어 있다. 삼존불은 주존인 석가모니불을 중앙에 두고 제화갈라보살좌상과 미륵보살좌상이 협시하고 있다. 십육나한상은 아난존자와 가섭존자를 위시로 좌우에 8구씩 배치되어 있다. 석가모니불좌상은 중소형 불상으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전형적인 불상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머리와 상반신이 크고, 하반신은 결가부좌한 자세이다. 머리에는 촘촘한 나발과 낮게 솟은 육계 위로 정상계주와 이마 위에 반달형태의 중간계주를 표현하였다. 둥근 얼굴에 눈꼬리 올라간 눈, 삼각형의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을 표현하였다. 수인은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무릎 위에 놓았다. 협시보살은 화염보주로 장엄된 보관을 쓰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존과 큰 차이가 없다. 목조의 삼존상 외에는 모두 소조로 제작되었는데, 법당의 정면 벽면에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가섭존자는 지권인과 비슷한 수인을 곁하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아난존자는 두 손을 합장하면서 얼굴과 몸을 약간 비틀고 있다. 나한상은 원형의 얼굴에 찔막한 체구를 하고 있으며, 웃고 있거나 생각에 잠겨있고 또는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있다. 손의 모양과 형태는 각각 다르고 개성있게 표현하고 있어 마치 실제 승려를 보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진다. 사자상과 인왕상이 함께 봉안된 것은 명부전 도상과 비슷하다. 인왕상은 나신이 아니라 갑옷을 차려입고 있으며, 동자상은 원래 4구가 짝을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되나 1구가 결실된 상태이다.



2				
1	3	4	5	6
	7	8	9	10

1. 의정부 망월사 목조불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전경,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의정부 망월사 목조불삼존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가섭존자,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4. 아난존자,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5. 호랑이를 들고 있는 나한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6. 용을 들고 있는 나한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7. 학을 들고 있는 나한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8. 염주를 들고 있는 나한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9. 금강저를 들고 있는 나한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10. 불자를 들고 있는 나한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71호

# 의정부 망월사 목조불삼존상

議政府 望月寺 木造佛三尊像

조선시대  
3구  
석가불 93.5×66cm  
아미타불 83.5×56cm  
약사불 84×56cm  
목재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211-500

지정일 : 2012.06.26.  
소유자 : 망월사  
관리자 : 망월사



<의정부 망월사 목조불삼존상>은 고불원古佛院에 봉안되어 있으며, 목조삼세불좌상은 중형불상으로, 석가모니불, 아미타불과 약사불로 구성되어 있다.

목조삼세불좌상은 조선후기에 조성된 불상의 전형적인 형태로,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여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다. 머리에는 뽕족한 나발螺髮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肉髻가 솟아 있으며,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앙계주中央髻珠와 정수리 부위에 낮은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를 표현하였다. 얼굴은 타원형이며 눈은 가늘게 뜨고, 입가에는 미소를 살짝 머금고 있다. 코는 원통형이며 턱은 약간 뽕족하고 목에는 삼도三道を 자연스럽게 새겼다.

석가모니불의 착의법을 살펴보면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사선으로 살짝 덮고 팔꿈치 뒤와 배 부분을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있다.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수직으로 내려와 복부腹部에서 반대쪽 대의자락과 만나 자연스럽게 접혀있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은 오른쪽 발목에서 밑으로 곡선을 이루며 펼쳐져 있고, 왼쪽 무릎 위에 소매 자락이 밑으로 늘어져 있다. 오른손은 촉지인觸地印을 결하고 있으며, 왼손은 배 높이로 들고 엄지와 중지를 맞잡고 있다.

아미타불과 약사불은 본존인 석가니불과 인상이 유사하지만 대의 안쪽에 편삼을 입고 있는 모습과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 표현에서 차이점이 있다. 아미타불은 엄지와 중지를 붙인 오른손을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약사불은 왼손을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있다.

목조삼세불좌상은 조성발원문이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조성시기와 봉안 사찰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오른쪽 어깨에 살짝 걸친 대의자락의 형태와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으로 미루어 볼 때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조각승 혜희慧熙 계보에 속하는 마일摩日과 금문金文이 제작한 안성 칠장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등과 유사점이 많아 17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정부 망월사 목조불삼존상,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72호

## 의정부 망월사 괘불도 (괘불함 및 복장낭 포함)

議政府 望月寺 掛佛圖(掛佛函 및 腹藏囊 包含)

조선시대(1887년)  
괘불도 1폭, 괘불함 1점, 복장낭 3점  
괘불도 650x354cm  
비단, 목재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21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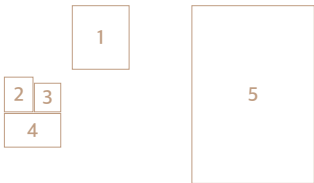
지정일 : 2012.06.26.  
소유자 : 망월사  
관리자 : 망월사



<의정부 망월사 괘불도>는 1887년(고종24) 연하계창淵荷啓昌, 학허석운學虛石雲, 혜산죽연蕙山竺衍, 석옹철유石翁喆侑 등을 비롯해 총 10명의 화승이 참여해 제작한 괘불도이다.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과 가섭존자, 아난존자를 그린 오존도 형식을 하고 있다. 본존은 엄지와 검지를 결하고 양손을 밖으로 내민 변형된 설법인을 하고 있는 아미타불이다. 왼쪽에 서 있는 보살은 화불이 있는 보관을 쓴 관음보살이고 오른쪽에 연꽃가지를 든 보살은 도상적 특징이 분명하지 않지만 관음보살과 짝을 이루는 대세지보살로 추정된다.

19세기 후반 서울과 경기도지역 일대에서는 여러 점의 괘불도가 제작되었다. 이 시기에 조성된 서울·경기지역 괘불도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에 두고 좌우에 가섭과 아난존자를 배치하고 아래에 관음보살을 배치하거나 혹은 사자와 코끼리를 탄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배치되는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의정부 망월사 괘불도의 조성을 담당했던 화승들은 지금까지의 괘불도 형식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형식의 괘불도를 제작하였다. 연꽃을 든 수인을 하던 석가모니불의 수인은 변형되었고 하단에 있던 관음보살을 좌측으로 이동하고 맞은편에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였으며, 주존인 석가모니불의 도상을 아미타불로 변화시켰다. <의정부 망월사 괘불도>의 단계적인 변화는 이후 <연화사 괘불도>(1901)처럼 석가와 아미타신앙이 혼재된 괘불도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색채는 조선후기 불화 특유의 붉은 색을 주조색으로 하면서 녹색과 청색으로 변화를 주었다. 특히 채도와 명도가 높은 코발트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가섭과 아난의 상호와 수인, 구름을 배경으로 하며, 존상 주변에 짙은 음영기법을 사용하는 등 19세기 후반에 조성된 불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괘불도에는 제작 당시 상단축에 걸었던 복장낭 3점이 걸려 있다. 이 가운데 복장낭에는 후령통이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괘불도를 보관한 괘불함도 남아 있는데 괘불함 정면에는 ‘계시주송계창橫施主宋啓昌’이 새겨져 있다.



1. 망월사 괘불도, 1987. 국립문화재연구소
2. 망월사 괘불도 복장낭,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망월사 괘불도 복장낭,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망월사 괘불도 괘불함,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망월사 괘불도, 1987. 국립문화재연구소





의정부 망월사  
건륭오십삼년명 동종  
議政府 望月寺 乾隆五十三年銘 銅鐘

조선시대(1786년)  
1구  
72.5×55.5cm  
금속(청동)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21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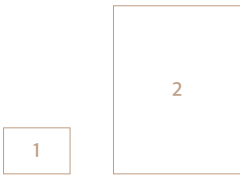
지정일 : 2012.06.26.  
소유자 : 망월사  
관리자 : 망월사

<의정부 망월사 건륭오십삼년명 동종>은 망월사에 소장된 범종이며, 기록된 명문에 의하면 건륭乾隆 51년인 조선 1786년에 300근의 중량을 들어 ‘도봉산 망월사道逢山 望月寺’용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종에 보이는 명문은 건륭 오십삼년, 또는 오십일년으로 읽힐 수 있지만 제작시기는 건륭 51년(1786)이 맞으며 그것은 함께 병기된 병오丙午 칠월七月이라는 뒤쪽 명문의 내용에 의해서 더욱 확실해진다.

이 범종은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형식이나 문양 등에 혼란이 생기고, 주조기술 또한 쇠퇴하여 지극히 도식적인 작품으로 변모되었다. 웅크린 고양이와 같은 모습의 용뉴 뒤로는 의미없는 짧은 음통이 부착되었고, 종신 상부면에는 매우 서툰 필치의 범자문이 등글게 돌아가며 배치되었다. 이 범자문 아래의 사방에는 방형의 연곽대蓮廓帶를 두었고 연곽대에는 지극히 도식적인 당초문을 장식하였다. 연곽 안에는 별 모양으로 퇴화된 화문花文과 그 가운데 작게 돌기된 연뢰蓮蕾를 9개씩 장식하였다. 연곽의 좌우편에는 각각 합장한 보살입상과 칼을 든 인왕상仁王像을 부조하였다.

조선시대 범종 가운데 이처럼 인왕상을 장식한 예는 이 종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종신 중단쯤에는 중국 종의 횡대를 흉내낸 것 같은 한줄의 용기선이 둘러져 있고 폭이 좁아진 하대에도 도식적인 당초문을 시문하였다.

이 종을 만든 장인 이영희李永熙(喜)는 이만숙李萬淑 계열의 장인집단에 속해 이만숙과 함께 1722년(경종2) 대흥사종大興寺鐘을 제작하였다. 현존하는 범종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아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장인 계열임을 알 수 있다.



1. 칼을 든 인왕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의정부 망월사 동종,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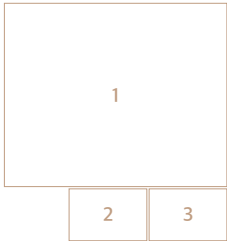


## 의왕 청계사 신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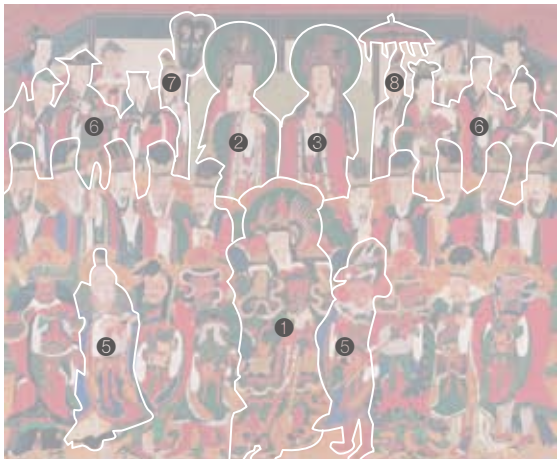
義王 清溪寺 神衆圖

조선시대(1844년)  
1폭  
159.5×194  
비단  
의왕시 청계로 475

지정일 : 2012.06.26.  
소유자 : 청계사  
관리자 : 청계사



1. 의왕 청계사 신중도, 촬영일미상, 성보문화재연구원
2. 주악천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천자들,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① 위태천(등진보살)
- ② 제석천
- ③ 대법천
- ④ 산신
- ⑤ 용왕
- ⑥ 주악천녀(박·북·생황·장구·나각·비파)
- ⑦ 당을 든 동자
- ⑧ 일산을 든 동자

<의왕 청계사 신중도>는 청계사 극락보전 신중단에 걸려있으며 1844년 상궁발원으로 중봉당 세호中峰堂勢皓, 계심戒心, 지선智宣, 상규尙奎가 그린 불화이다.

화면은 세로보다 가로가 길며 긴 화면에 맞게 상단에는 범천과 제석천을 중심으로 천부天部の 권속이 배치되고 하단에는 위태천을 중심으로 팔부중을 비롯한 신장상이 배치된 상하 이단 구조로 존상을 구성하고 있다. 상단의 배경에는 팔곡병풍八曲屏風을 둘러 천신의 세계를 현실세계처럼 표현하였다. 범천과 제석천은 합장을 한 채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하나의 신광을 배경처럼 두르고 있어 존상이 두드러져 보인다. 범천과 제석천 좌우로 일산日傘과 당幢을 든 동자, 복숭아·석류를 든 천녀와 천동, 박·장구·비파·생황·북을 연주하는 주악천녀와 천동이 있으며 구름을 경계로 밑에는 금관을 쓰고 홀을 든 천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일렬로 서 있다. 하단 중심부에 위치한 위태천은 깃털투구를 쓰고 무장을 한 채 검을 땅에 내려뜨리고 있으며, 신장상은 대부분 검을 든 무장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용머리관을 쓴 용왕과 어깨에 초의草衣를 걸치고 영지와 신령한 약초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는 산신만이 존명이 확인된다.

이 신중도와 같은 도상과 화면구성을 보여주는 예로는 봉은사 신중도(1844), 남양주 홍국사 신중도(1868) 등이 있는데 19세기 중반 이후 경성지역에서 유행하였다. 타원형의 얼굴, 길쭉한 신체 비례 등은 18세기 후반 서울·경기지역에서 활동했던 상겸尙謙·연홍演弘·민관敏寬 등 경성화파의 불화 양식이다. 이는 수화승인 세호가 1832년(순조32) 신선愼善이 주도하는 흥천사 괘불도 조성에 참여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호에 짙은 음영을 넣는 표현방법, 공양천녀와 주악천녀의 구성 비중이 커지는 점, 존상간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점, 색채에서 코발트색을 사용하는 점, 금관·칼·갑옷 등에 금니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점은 19세기 불화의 시대적 특징이다.





# 김포 금정사 석조여래좌상

金浦 金井寺 石造如來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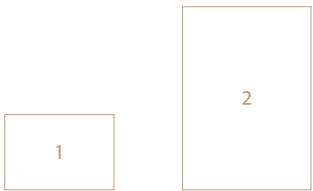
조선시대  
1구  
40×22cm  
석재(불석)  
김포시 승가로 125

지정일 : 2012.06.26  
소유자 : 금정사  
관리자 : 금정사

<김포 금정사 석조여래좌상>은 경주 일원에서 나오는 연한 돌인 불석沸石으로 제작한 소형불상이다. 석고 같은 부드러운 질감과 깔끔하게 처리된 세부 표현에서 불석 특유의 재질감을 엿볼 수 있다. 움츠린 듯 땅딸막한 신체비례와 사각형의 얼굴, 단순화된 옷자락 표현 등에서 조선 후기 조각양식을 나타낸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이며, 넓적한 얼굴은 짧은 코와 작은 입, 둥근 턱으로 인해 어린이 같은 표정을 자아낸다.

머리는 나발이 뚜렷하고 반달형의 정상계주와 중앙계주가 표현되었으며, 두툼한 귀는 활처럼 휘었다. 통건으로 걸친 법의는 오른쪽 어깨 위에서 한번 접혀졌으며, W자 형태로 드리운 가슴의 옷깃 사이로 단순한 형태의 수평적인 치마 자락과 매듭이 드러나 있다. 두 손은 마치 어루만지듯이 가지런히 무릎 위에 두었다.

굴곡이 없는 평면적인 신체 조형과 단순화된 세부 표현에서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이 완전하지만 어린이 같은 온화한 표정이 돋보인다.



1-2. 김포 금정사 석조여래좌상,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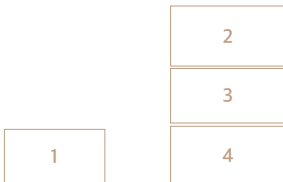


## 의정부 망월사 간행 진언집 책판 및 관련 목판 4종

議政府 望月寺 刊行 眞言集 冊版 및 關聯 木版 4種

조선시대  
진언집 60장(119판) 등  
진언집 24×36cm  
수구성취다라니 24×54cm 내외  
목재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211-500

지정일 : 2012.10.23  
소유자 : 망월사  
관리자 : 망월사



1. 수구성취다라니, 2016. 경기도문화재연구원
2. 진언집 판각 실행문자 부분, 2016. 경기도문화재연구원
3. 진언집 판각 실행문자 부분, 2016. 경기도문화재연구원
4. 진언집 판각 간기 부분, 2016. 경기도문화재연구원

<의정부 망월사 간행 진언집 책판 및 관련 목판 4종>은 망월사에서 간행한 진언집 책판 및 관련 목판이다. 진언집 책판은 1800년(정조 24)에 개판한 것으로서 화순 만연사萬淵寺에서 중간한 것을 영월대사暎月大師가 모각한 것이다.

망월사에서 간행한 책판의 구성은 진언집 60판, 금강경탑다라니판 1판, 만자문 능화판 1판, 부적판 1판, 불설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판 3판으로 되어 있다.

『진언집』은 불경에 있는 여러 주문呪文을 모아서 국문, 한문, 범문梵文의 순으로 대조하여 해석한 것이다. 진언은 자연 부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민간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금강경탑다라니판은 금강경의 내용을 가지고 7층 탑의 형태로 만들어서 서사한 것이다. 여러 개의 판을 붙여서 한 장으로 만들었으며, 안정되게 붙이기 위해 곽을 만들어서 돌렸다.

만자문 능화판은 책 표지에 무늬를 장식하기 위해 만든 목판이다. 부적판에는 부적의 모양과 그 내용을 설명하여 판각해놓았다. 대개 자신의 생년에 따라 썼으며, 뒷판에는 십성에배일과 같이 제사지내는 날과 ‘몇 월 몇 일’에 기도하면 그날에 성취되는 내용에 대해서 판각하였다.

불설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는 줄여서 ‘수구성취다라니’라고 불리며, ‘원하는 대로 성취하는 주문’이라는 뜻이다. 목판에 ‘聖上卽祚十四年戊寅閏春上澣書刻留板于道峰山望月寺’ 라는 간기가 남아있어, 1878년 망월사에서 판각하여 보관했음을 알 수 있다. 목판의 상태로 보아 금강경탑다라니판의 조성연대도 1878년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망월사 소장 진언집 책판은 이전의 진언집에 비하여 추가된 내용이 많은 뿐만 아니라, 특히 실행문자悉曇文字의 모양이 정교하고 각법이 섬세하여 조선 후기 인쇄문화와 밀교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사찰간행 목판 중에서 진언집과 다라니만 남은 망월사의 목판은 19세기 망월사의 종교적 역할과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크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77호

여주 신록사  
건륭삼십팔년명 동종  
驪州 神勒寺 乾隆三十八年銘 銅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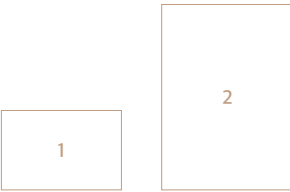
조선시대(1773년)  
1구  
93.5×63cm  
금속(청동)  
여주시 천송동 신록사길 73

지정일: 2013.11.12  
소유자: 신록사  
관리자: 신록사

<여주 신록사 건륭삼십팔년명 동종>은 우리나라 전통 종보다는 중국 종의 양식이 많이 반영된 작품으로서 종신 상부에는 하나의 몸체로 구성된 굽고 힘이 넘치는 쌍룡의 용뉴가 조각되어 있으며, 음통은 없다. 머리를 천판에서 띠어 앞을 바라보고 있는 용두는 불거진 눈과 벌려진 입 안에 날카로운 이빨과 갈기가 생동감 넘치게 묘사되었다. 종신 상부에 구획된 상대에는 촘촘한 방형 구획으로 세분하여 각 구획마다 범자문을 2단씩 빼곡히 시문하였다. 상대 아래의 4방향에 배치된 연곽대蓮廓帶에는 도식적인 당초문을 장식하였고, 연곽 안으로 별 모양의 화판 위에 얹게 돌기된 연뢰蓮蕾를 9개씩 장식하였다. 연곽과 연곽 사이의 여백 면에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고 연화 가지를 든 보살입상과 그 좌측으로는 톱니무늬의 원형 테두리를 장식한 ‘옴’자 범자문을 1자씩 네면에 양각하였다.

하대는 종구鐘口에서 조금 위로 올라온 곳에 배치하였고 그 내부에는 연당초문을 빼곡히 장식하였다. 특히 이 하대의 연곽 아래에 해당되는 위치에 보살입상 옆에 배치된 ‘옴’자의 범자문과 동일한 원형의 범자 문양을 첨가하여 마치 당좌처럼 꾸미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이 하대 위의 종신 여백을 돌아가며 곳곳에 방형의 명문곽銘文廓을 두어 양각의 명문을 새겼다.

이 종의 제작자로 기록된 도편수都片手 이만숙李萬叔, 이영길李永吉, 이영산李永山 가운데 이만숙과 이영산은 대흥사大興寺 종루종鐘樓鐘(1772)의 제작에도 함께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당시에 이처럼 집안을 중심으로 한 장인 집단이 있어 전국적으로 많은 범종을 만들었던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당시에 범종 장인에 있어서도 건축 장인에서 보이는 도편수란 명칭을 사용했음이 주목된다.



1. 여주 신록사 건륭삼십팔년명 동종 용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신록사 건륭삼십팔년명 동종,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78호

##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 삼장보살도

驪州 神勒寺 極樂寶殿 三藏菩薩圖

조선시대(1758년)  
1점  
73×280cm  
비단  
여주시 천송동 신륵사길 73

지정일 : 2013.11.12  
소유자 : 신륵사  
관리자 : 신륵사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 삼장보살도>는 비단바탕에 그려져있으며, 1758년(영조34) 수화승 각충覺聰을 비롯한 20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조성하였다. 패불도를 제외하고 현존하는 경기지역 탕화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삼장보살도는 수륙재水陸齋의 중단의례용中壇儀禮用 불화로, 천장보살天藏菩薩, 지지보살持地菩薩, 지장보살地藏菩薩을 주존으로 하고 각각의 권속들이 둘러싼 모습을 그린 것이다. 세 보살은 한 폭에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 두폭이나 세 폭에 나누어 그려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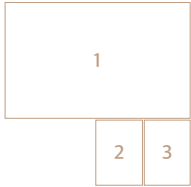
이 삼장보살도는 가운데에 천장보살, 오른쪽에 지지보살, 왼쪽에 지장보살을 배치하였는데 세 보살 모두 같은 높이의 연화대와 위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다. 천장보살은 설법인을 취하고, 지지보살은 경책經冊, 지장보살은 보주를 들고 있다. 천장보살의 주위에는 범천과 제석전을 비롯하여 보살·천녀·동자 등의 권속들, 지지보살의 주위에는 투구를 쓴 신장·귀왕鬼王·천룡팔부天龍八部 등의 권속들이 둘러싸고 있다. 지장보살은 도명존자道明尊者和 무독귀왕無毒鬼王이 좌우에 협시하고 있으며, 그 위로 시왕과 판관 등이 둘러싸고 있다.

채색은 녹색·연녹색·붉은색·황토색·청색 등 다채로운 색을 사용하였다. 수미단과 보살의 보관에는 가는 흰 선으로 장식을 표현하였고, 보살의 천의를 비롯한 성중들의 의복에는 금니로 다양한 문양을 칠하였다.

화면 맨 아랫부분에 기록된 화기에 따르면 이 삼장보살도는 1758년 수화승首畫僧 각충覺聰을 비롯하여 오관悟寬 등 20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각충은 1735년(영조11) 봉선사 패불도에 수화승으로 참여하였으며, 오관은 1759년(영조35) 가평 현등사의 아마타회상도와 지장시왕도, 치악산 영원사의 비로자나불회도와 감로도를 그리는 등 18세기 중반 경기지역과 강원지역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이 작품은 18세기 초·중기 경기지역의 불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경기지역 불화와 화승들의 화풍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① 천장보살
- ② 지장보살
- ③ 지지보살
- ④ 무독귀왕
- ⑤ 도명존자
- ⑥ 제석전
- ⑦ 대법전
- ⑧ 용수보살·다라니보살(추정)
- ⑨ 시왕



- 1.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 삼장보살도, 촬영일미상  
\_ 성보문화재연구원
- 2. 정면을 응시한 권속,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 3. 무독귀왕,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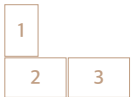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79호

# 남양주시 묘적사 팔각다층석탑

南楊州市 妙寂寺 八角多層石塔

조선시대  
1기  
높이 430cm  
석재(화강암)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661번길 174

지정일 : 2013.11.12  
소유자 : 묘적사  
관리자 : 묘적사



1. 「오가와케이키치조사문화재자료」 내 묘적사 팔각다층석탑, 일제강점기  
\_ 국립문화재연구소
2. 묘적사 팔각다층석탑 전경, 촬영일미상, 남양주시
3. 묘적사 팔각다층석탑, 2011, 남양주시
4. 묘적사 팔각다층석탑,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남양주시 묘적사 팔각다층석탑>은 와부읍 묘적사 대웅전 앞에 있다. 본래는 사원 앞에 위치해 있었으나 1971년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현재 석탑은 팔각의 단층기단위에 7층의 지붕돌이 올려져 있다. 일제강점기 오가와케이키치小川敬吉가 찍은 사진 속에는 5층 석탑이다.

지대석은 판석을 이용하여 팔각형으로 만들었으며 지대석 위에는 기단부 하대하석이 놓여있다. 하대하석은 팔각이며 각 면에 방형의 액을 만들고 안상을 조각하였다. 하대하석 위에는 하대상석과 중대석을 한 돌로 만들었다. 팔각의 하대상석은 각 면마다 3구의 안상이 장식되어 있다. 기단 중대석은 8각의 면석마다 안상을 조각하였으며 모서리마다 원기둥을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석탑의 갑석은 불상 대좌의 상대석과 같은 형태이다. 갑석 상면에는 탑신받침이 조성되어 있다. 탑신부는 7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주형태의 상륜부가 있다. 지붕돌과 탑신석은 모두 팔각이며 지붕돌 합각부 끝 부분에는 풍탁風鐸을 꽂아 넣었던 구멍이 있다.

일반적으로 석탑은 삼층석탑이 가장 정형적인 모습이다. 통일신라 시대인 8세기에 완성된 불국사 석가탑과 같은 평면방형의 삼층석탑은 고려시대까지 층수의 변화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방형의 평면은 유지되었다. 고려시대 들어와 석탑의 평면에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었다. 홍복사 육각칠층석탑, 영명사 팔각오층석탑,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광법사 팔각오층석탑 같이 평면육각이나 팔각의 석탑이 건립되었다. 묘적사 팔각다층석탑은 고려시대 건립되었던 다각형 석탑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조선전기의 석탑이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80호

## 파주 용상사 석불좌상

坡州 龍床寺 石佛坐像

조선시대(1445년)  
1구  
61×50cm  
석재  
파주시 월릉면 용상골길 403

지정일：2013.11.12  
소유자：용상사  
관리자：용상사

<파주 용상사 석불좌상>은 1445년(세종27)에 조성된 화강암의 여래좌상으로 현재 2015년 대웅전 화재로 인해 파손된 채 몸체와 불두 일부 및 수많은 파편으로 남아 있다.

파손 전의 원형은 편단우견으로 법의를 착용하고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맺은 여래좌상으로, 전체적인 비례가 맞지 않아 움츠린 듯 위축된 신체조형과 짧은 목, 굵은 팔, 큰 손 등에서 종교적인 숭고미를 찾을 수 없다.

장방형의 얼굴은 크고 긴 코와 날카로운 눈매로 인해 경직된 표정을 지었으며, 육계는 낮고 편평하고 머리의 나발에는 중앙계주가 남아 있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뚜렷하고, 가슴에는 군의 자락과 이를 묶은 띠매듭, 그리고 긴자가 표현되었다. 뒷면에도 왼쪽 어깨 뒤로 넘긴 넓적한 옷자락이 새겨져 있다.

대좌 바닥에는 ‘正統十年乙丑五月化主德松定念寺’라는 해서체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정통10년’은 세종27년인 1445년에 해당하며, 마지막의 ‘정념사’는 후대에 추가된 것이다.



1  
2 3

1. 파주 용상사 석불좌상(파손 전), 2013. 파주시
2. 석불좌상(파손 후), 2016. 경기도문화재연구원
3. 석불좌상 대좌바닥 명문, 2016  
\_ 경기도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81호

##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조선시대  
1책  
30.5×18cm  
종이  
여주시 신탄2길 132

지정일：2014.01.24  
소유자：문제봉  
관리자：여주시

『법집별행록요병입사기』는 고려중기의 선승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1158~1210)이 1209년(고려 희종5) 당나라 종밀宗密的 ‘법집法集’을 간략하게 ‘절요節要’하여 핵심적인 부분만을 뽑아 줄이고, 여러 경전과 조사祖師들의 말을 인용하여 찬술한 책이다. 여기에 지눌 자신의 선종에 대한 견해를 밝힌 ‘사기私記’를 첨가하여 사상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전체내용은 저술방향을 제시한 서론부분과 <법집별행록>을 절록節錄한 부분, 그리고 자신의 견해로 해석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책은 지눌이 1209년 전라도 규봉암圭峯菴에서 은둔하면서 찬술한 이후 제자 혜심慧謙에 의해 간행되었으나 현전하는 고려본은 없다. 조선시대에는 사집과四集科의 교재로 채택되어 강원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현재 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간본을 통해 1486년 전라도 광주의 규봉암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이후 진주 신흥사(1537), 상원 해탈사(1507) 등 전국의 주요사찰에서 28회 이상 개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 끝에 ‘萬曆己卯(1579)夏, 智異山神興寺開刊’라는 간행기록이 남아있어 1579(선조12)에 지리산 신흥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주는 성오性悟, 대시주는 인준印俊·신영信英·원감圓鑑과 함께 200여명이 넘는 시주자가 참여하였다. 권말에 ‘유정교惟政校, 의천서義天書’라는 기록으로 보아 사명당 유정惟政(1544~1610)이 교정하고, 의천義天이 판하본을 필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책 끝의 ‘萬曆十七年己丑(1589)春慶尙道慶州府恩沾山黃龍寺印出’이라는 목서를 통해 목판을 새긴 지 10년 뒤인 1589년(선조22) 봄에 경주 황룡사에서 다시 인쇄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1  
2 3 4

1. '별행록' 표지, 2016. 경기도문화재연구원
2. 법집별행록 본문, 2016. 경기도문화재연구원
3. 지리산 신흥사 간행기록, 2016. 경기도문화재연구원
4. 경주 황룡사 간행기록, 2016. 경기도문화재연구원





# 강희 21년명 장경사 동종

康熙二十一年銘 長慶寺 銅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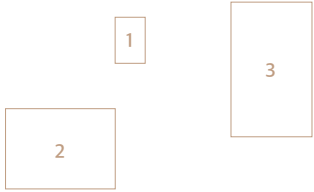
조선시대(1682년)  
1구  
81.5×53.3cm  
금속(청동)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676

지정일 : 2014.05.09  
소유자 : 장경사  
관리자 : 광주시

<강희 21년명 장경사 동종>은 우리나라 전통형 종을 따른 모습으로  
서 과장된 괴수 모양의 용뉴는 네발로 천판을 딛고 있으며 뒤에는  
죽절형의 음통이 부착되었다. 천판의 외연에는 보상화 형태의 화문  
을 얇게 시문하였고 상대는 2단으로 나누어 아래, 위 동일한 원권圓  
圈의 양각 범자문을 등글게 돌아가며 장식하였다. 상대 아래의 네 방  
향에 배치된 방형 연곽대에는 구름 모습을 한 두 겹의 당초문을 장  
식하였고 연곽 안에는 화문좌 위에 낮게 돌출된 연뢰蓮蕾를 9개씩  
표현하였다.

연곽과 연곽 사이의 여백면에는  
구름 위에서 연화가지를 든 보살  
입상이 1구씩 모두 4구가 시문되  
었는데, 당시 불화에서 나타나는  
도상을 충실히 따른 듯 하지만 보  
살상의 모습은 그다지 유연하지  
못하고 약간의 도식화가 엿보인다.  
이러한 보살상은 17세기 후기 대표  
적인 승장이었던 사인비구思印比  
丘가 만든 여러 범종의 부조상에  
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 범  
종이 사인비구와 같은 승려 장인  
계열의 작품일 가능성이 많다.

당좌는 생략되었고 대신 종신 하단부를 돌아가며 별도의 명문판으  
로 주조된 양각명문이 새겨져 있다. 종구 쪽으로는 폭이 좁아진 하대  
를 배치하고 이곳에 유려하게 굴곡진 연당초문을 장식하였다. 유곽  
과 보살입상 아래의 긴 명문대에는 종의 연원을 알 수 있는 명문과  
시주자 명단이 들어있다. 이로보면 이 종은 본래 남한산성南漢山城  
장경사長慶寺용으로 강희康熙 21년인 1682년에 300근의 중량을 들  
여 제작된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서울 봉은사奉恩寺에  
 옮겨져 소장되다가 근래 다시 원 위치인 장경사로 옮겨졌다.



1. 연화가지를 든 보살입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과장된 괴수 모양의 용뉴,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강희21년명 장경사 동종,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 이상의 영정

李尙毅 影幀

조선시대  
1점  
영정 58.5×36.2cm  
종이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31

지정일 : 2014.05.09  
소유자 : 안산시  
관리자 : 안산시



<이상의 영정>은 조선중기의 문신인 이상의李尙毅(1560~1624)가 위성공신衛聖功臣에 녹훈될 때 그린 공신도상의 안면부 초본이다. 이상의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이원而遠, 호는 소릉少陵이다. 현재 이상의의 초상화는 2점이 전한다. 종이에 그린 소상小像 1점과 『소릉간첩少陵簡帖』에 실린 견본絹本 소상 1점으로 종이 초본이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종이 초본은 이상의가 1613년(광해군5) 위성공신 3등에 녹훈되었을 때 그린 공신도상의 초본으로 추측된다. 1735년(영조11)에 윤덕희尹德熙가 이상의의 소상 한 본을 베껴 그려 『소릉간첩』에 실었는데, 당시 이모본移模本을 그릴 때 원본으로 삼았던 것이 이 종이 초본이다. 초본의 재질은 17세기의 중엽에 성행했던 죽청지竹淸紙이며, 화법 역시 17세기 전반기의 초상화에 나타난 전형과 거의 동일하다. 특히 종이 재질과 화법은 1613년에 형난공신亨難功臣 도상으로 함께 그려진 유숙柳瀟(1564~1636)의 종이 초본과도 거의 흡사하다. 유숙의 종이 초본이 1613년에 이상의의 공신도상을 제작할 때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17세기 전반기의 초상화에만 보이는 낮은 모정帽頂의 사모와 구름문양의 짙은 양각 또한 같은 모습이다. 이상의 소상은 옅은 적갈색 필선으로 얼굴의 형태와 주름을 간략히 선묘하였다. 얼굴의 이목구비 가운데 오목한 부분은 적갈색으로 어둡게 채색하여 명암을 표현하였다. 이마와 양쪽 광대뼈, 콧등, 턱 등의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위를 더 짙게 채색하여 강조하는 이중명암법을 사용하였다. 단령은 구름문양을 생략한 채 청록색의 담채를 몇 차례 반복하여 거칠게 칠하였고, 아래 쪽으로 내려갈수록 색감이 옅어지도록 변화를 주었다. 단령 안에 입은 옷의 목깃에만 흰 연백鉛白을 칠하였는데, 이러한 화법도 1613년에 그린 유숙의 형난공신도상 초본과 거의 일치하는 방식이다. 이와 유사한 재질과 화법을 지닌 또 하나의 사례가 서울대학교박물관의 <이항복 초상>이다. 이 초상도 17세기 초에 성행했던 초본草本의 가장 전형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어 동시대 초상화법의 기준을 제시해준다.

1

2

1. 이상의 영정, 2014. 성호기념관  
2. 이상의 영정, 2012. 안산문화원





## 고양 원각사 신중도

高揚 圓覺寺 神衆圖

조선시대(1778년)  
1점  
121.2×107.5cm  
비단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지정일 : 2014.05.09  
소유자 : 원각사  
관리자 : 고양시



- ❶ 제석천
- ❷ 위태천
- ❸ 일월천자
- ❹ 천룡팔부
- ❺ 천부중

〈고양 원각사 신중도〉는 1778년(정조2) 6월에 김희손金喜孫과 봉혜奉慧의 시주로, 화승 포관抱冠을 비롯하여 성잠性岑·수엄守曄·서인瑞印·행정幸澄이 함께 조성하였다.

구름으로 상하 2단으로 분리하여 상단에는 제석천을 중심으로 좌우에 천부중을, 하단에는 위태천과 천룡팔부를 배치하였다. 상단에 큼직하게 표현된 제석천은 꽃을 받쳐들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제석천 뒤에는 높은 의자가 표현되어 있다. 제석천 주위로 일월천자와 보살, 천인과 동자 등이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어 제석을 두드러져 보이게 한다. 하단에 위태천은 새 날개 모양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채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있으며 좌우에는 원유관을 쓴 인물과 용각, 용수염이 표현된 용, 역발한 붉은 머리의 야차, 새부리 모양의 가루다 등이 확인된다.

18세기 전반에는 제석천도와 천룡도가 따로 제작되었으나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한 화면에 상하의 2단 구도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화기상의 명칭도 ‘제석천룡합위帝釋天龍合位’라고 하였다. 이러한 형식은 19세기 유행하게 되는 다양한 신중도의 전형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양 원각사 신중도는 신중도형식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화기에는 조성장소와 봉안사찰 등이 적혀 있지 않아 원래 어떤 곳에 봉안되었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수화승인 포관이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을 볼 때 아마도 경상도 지역의 사찰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포관은 18세기 중반 활동한 불화승으로 1755년(영조31) 임한任閑을 수화승首畵僧하여 청도 운문사 비로자나삼신불회도(1755)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삼장보살도(1755)를 제작하였으며, 이후 1769년(영조45) 수화승 상정尙淨과 함께 경주 불국사 불사에 참여하여 대웅전 사천왕벽화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1775년 이후 수화승이 되어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1775), 은해사 백장암 대웅전 현왕도(1782)를 조성하는 등 1755년과 1782년 사이에 주로 활동하였다.

현재 조선후기 18세기 제작된 신중도 가운데 이른 시기에 속하며 인물들의 자연스러운 신체비례와 원만한 상호, 정연한 배치 등 전체적으로 구성이 뛰어나고 인물표현과 채색 등에서 신중도 가운데서도 수작에 속한다. 또한 화기에 제작연대와 조성화원 및 시주질, 연화질 등의 기록이 남아있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경상도 지역의 대표화승 가운데 하나였던 포관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1775년 이후 1782년에 이르는 그의 공백기를 메워주는 작품으로도 중요하다.



고양 원각사 신중도,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대방광불화엄경 권62

大方廣佛華嚴經 卷62

고려시대  
1책  
31.5×48.5cm  
종이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지정일：2014.05.09  
소유자：원각사  
관리자：고양시



『화엄경』은 대승불교 초기 경전으로 신라시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화엄사상이 크게 융성하였으며, 조선시대 불교 전문강원의 대교과 과정에서 학습해 왔다. 완전한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으로 그 본래 의미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의 꽃으로 만든 화환과 같은 장식’을 말하며, 이를 줄여서 ‘화엄경華嚴經’이라 부른다. 화엄경은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경전이며,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주불로 삼고 있다. 이 경전이 중국으로 전래되어 번역된 한역本漢譯本은 불타발타라의 진本晉本, 실차난타의 주本周本, 만야의 정원본貞元本 삼本三本 화엄이 동아시아에 널리 유포되어 있다.

본 화엄경은 698년 실차난타實叉難陀가 39품으로 다시 새로 번역한 80화엄이다. 이때는 측천무후則天武后가 당나라의 국호를 일시 주周나라로 바꾸었던 시기이므로 이를 흔히 주本周本 또는 주역周譯, 신역新譯 등으로 별칭하기도 한다. 이 주本 80화엄은 가장 방대하게 번역되어 내용상으로도 가장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도 수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화엄경은 삼본이 모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방대하여 고려시대에 판각된 현전본이 다른 경전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현전하는 판본 중에는 신라시대 9~10세기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진본 화엄경(권20, 33) 등이 최근 학계에 소개되어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1098년에 협주호장인 이필선李必先의 시제로 개판된 진본 권37과 증문사拯倫寺에서 주지 양춘暢春에 의해 간행된 진본 권33의 판본이 전하고 있으며, 해인사에서 진본 권45가 판각되어 현재까지 경판이 보관되고 있다.

원각사 소장의 주본화엄경 권62는 권수의 표지가 근래 새로 개장하였고 권말의 〈音義〉부분에는 훼손 상태가 심하여 임시로 배접해 놓은 상태이다. 변란은 권자나 접장에 일반적 으로 나타나는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되어 있으며, 행수는 각 장이 24행으로 매 행은 17자로 배자되어 있다. 판수제板首題는 점련하여 잘 보이지 않으나 ‘周 第六十二 二丈’로 기재되어 있으며, 간혹 그 아래에 ‘六莢’과 ‘口貞’ 등 각수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현재 고려본 주본화엄경은 80권 가운데 30여점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귀중본이다. 원각사 소장본 권62는 아직까지 해당 권수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더욱 중요한 판본이다.

1	2
	3

1. 개장된 표지,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권수,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권말,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86호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1-1, 1-2, 2-1, 2-2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1-1, 1-2, 2-1, 2-2

조선시대(1465년)  
4책  
권하1 31.9×22.8cm  
권하2 33.9×23.2cm  
종이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지정일 : 2014.05.09  
소유자 : 원각사  
관리자 : 고양시

『원각경』은 우리나라 불교의 소의경전所依經典 가운데 하나로 예로부터 불교 전문강원 사교과四教科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학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693년 복인도 계빈의 승려 불타다라佛陀多羅의 한역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없고, 경명에 화엄경의 ‘원만수다라’와 능엄경의 ‘요의’를 조합한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만든 위경僞經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내용은 1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장은 석가모니가 12보살과 문답한 것을 각각 1장으로 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 경이 널리 독송되고 여러 주석서가 만들어져서 불교수행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은 그 내용이 훌륭한 이론과 실전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체가 유려하고 사상이 심원하며,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현전본으로는 1380년(고려 우왕6)에 이색이 지은 발문이 있는 고려본을 비롯하여, 1461년(세조7)에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한 활자본, 1464년(세조10)에 함허 득통得通이 주석을 단 한문본, 1465년에 세조가 정문에 구결을 달고 이를 언해하여 개판한 간경도감 국역본, 1465년에 간경도감 언해본을 저본으로 재판을 을유자乙酉字로 찍어낸 활자본 등이 있다. 이밖에 조선시대에 간행된 사찰본으로 1570년(선조3)에 전라도 안심사에서 간경도감판을 복각한 판본을 비롯하여 대략 12종이 현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양시 원각사 소장본은 1465년에 간경도감에서 세조가 친히 경문에 한글 구결을 달고 한계희韓繼禧 등이 국역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4권 2책의 영본이다. 표지는 본래 5침으로 제본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표제는 ‘圓覺經’으로 묵서 기재되어 있다. 권두의 서명은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밑의 권수표시는 한문본과는 달리 복잡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 책은 본문의 체제가 경문 아래에 당나라 종밀宗密的 주소가 소자 쌍행으로 부기되어 있는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어 본래 종밀의 주소본을 바탕으로 국역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지사항은 반엽을 기준으로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행자수는 9행17자로 배자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로 대흑구大黑口와 흑어미黑魚尾가 보이고 있으며, 어미 사이에 있는 판심제는 위에 ‘圓覺’이란 약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로 권수 및 장수 표시가 나타나 있다. 지질은 간혹 고정지가 보이고 있어 세조대에 사용된 전형적인 인경지로 보인다. 이 책은 국역본으로 조선시대 국어학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1	2
3	4
5	6
7	8

- 1책 권1 권수, 2015. 불교학술원
- 1책 권1 권말, 2015. 불교학술원
- 1책 권2 권수, 2015. 불교학술원
- 1책 권2 권말, 2015. 불교학술원
- 2책 권1 권수, 2015. 불교학술원
- 2책 권1 권말, 2015. 불교학술원
- 2책 권2 권수, 2015. 불교학술원
- 2책 권2 권말, 2015. 불교학술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87호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1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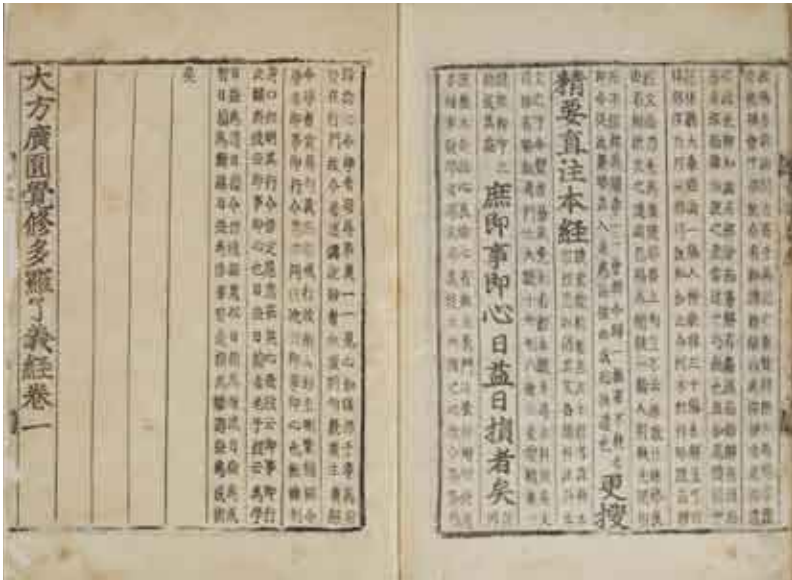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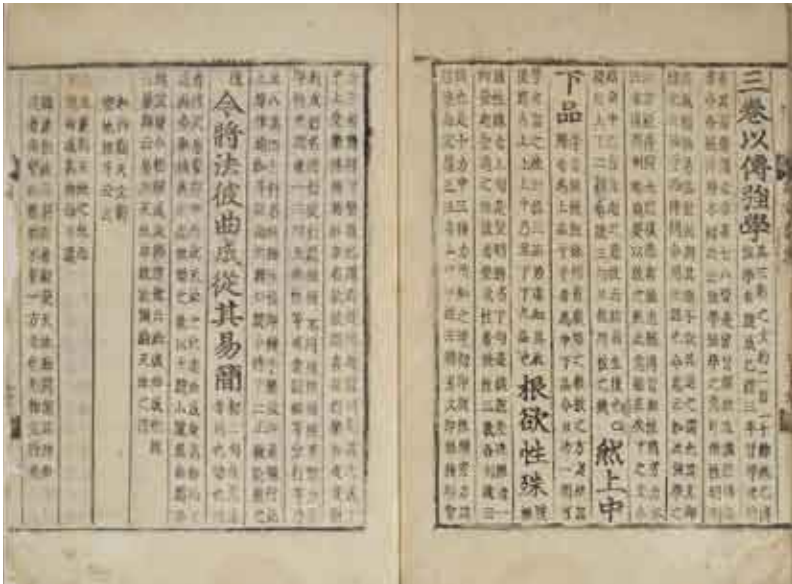
조선시대(1461년)  
1책  
35.3×25.0cm  
종이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지정일：2014.05.09  
소유자：원각사  
관리자：고양시

『원각경』은 우리나라 불교의 소의경전所依經典 가운데 하나로 예로부터 불교 전문강원 사교과四教科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학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693년 복인도 계빈의 승려 불타다라佛陀多羅의 한역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없고, 경명에 화엄경의 ‘원만수다라’와 능엄경의 ‘요의’를 조합한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만든 위경僞經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내용은 1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장은 석가모니가 12보살과 문답한 것을 각각 1장으로 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 경이 널리 독송되고 여러 주석서가 만들어져서 불교수행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은 그 내용이 훌륭한 이론과 실전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체가 유려하고 사상이 심원하며,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현존본으로는 1380년(고려 우왕6)에 이색이 지은 발문이 있는 고려본을 비롯하여, 1461년(세조7)에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한 활자본과 1464년에 합허 득통이 주석을 단 한문본과 1465년(세조11)에 세조가 정문에 구결을 달고 이를 언해하여 개판한 간경도감 국역본, 1465년에 간경도감 언해본을 저본으로 재판한 을유자乙酉字로 찍어낸 활자본 등이 전래되고 있다. 이밖에 조선시대 에 간행된 사찰본으로 1570년(선조3)에 전라도 안심사에서 간경도감판을 복각한 판본을 비롯하여 대략 12종이 현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양시 원각사 소장본은 세조연간 1461년에 주자소에서 을해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 권1의 1책으로 영본 상태이며, 서문 부문 일부가 훼손되어 있다. 표지는 본래 5침으로 제본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표제는 ‘圓覺經(원각경)’으로 목서되어 있다. 권수의 서명은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밑의 권수표시는 국역본과는 달리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본문의 체제가 경문 아래에 당나라 종밀宗密的 주소가 소자쌍행으로 부기되어 있는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어 본래 종밀의 주소본을 바탕으로 편찬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5

1

2

3

1. 표지, 촬영일미상. 불교학술원  
2:3. 서문, 촬영일미상. 불교학술원  
4. 본문, 촬영일미상. 불교학술원  
5. 권말, 촬영일미상. 불교학술원



서지사항은 반엽을 기준으로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전체 9행으로 되어 있는데, 한 행의 경문은 21자씩으로 배자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로 흑어미黑魚尾가 내향하고 있으며, 어미 사이에 있는 판심제는 위에 ‘圓覺經(원각경)’이란 약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로 권수 및 장수 표시가 나타나 있다. 지질은 저지로 만든 순백색의 전형적인 인경지로 보인다.

이와 동일본이 근래 동학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삼세불에서 수습된 복장전적에 2책(권4·6)이 포함되어 보물 제1720호로 일괄 지정되어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전본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아 희귀하다. 현전본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귀중본으로 평가되고 있어 불교학 및 금속활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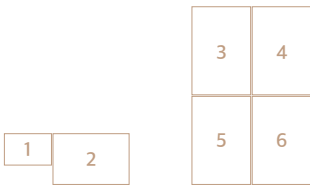


## 의왕 청계사 청계사사적기비

義王 淸溪寺 淸溪寺事蹟記碑

조선시대(1689년)  
1기  
높이 약 176cm  
석재  
의왕시 청계동 12

지정일 : 2014.05.09  
소유자 : 청계사  
관리자 : 의왕시



1·2. 청계사사적기비 전경,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청계사사적기비 전면,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청계사사적기비 후면,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청계사사적기비 측면,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6. 청계사사적기비 측면,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의왕 청계사 청계사사적기비>는 청계사의 연혁을 기록한 비석으로 1689년(숙종15)에 제작되어 청계사 입구에 세워졌다. 청계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하나, 대찰의 사격을 갖춘 것은 1284년(고려 충렬왕10)에 조인규趙仁規(1237~1308)가 사재를 들여 중창하고 원찰願刹로 삼은 이후 대찰이 되었다. 한때 이곳에는 100명이 넘는 수도승이 상주하였고, 자손들이 사원에 조인규의 사당을 짓고 전장田莊과 노비를 두어 대대로 제사를 지내며, 500여 년간 조인규 가문의 원찰로서 중창을 거듭하였다.

당시 조인규 가문 출신의 천태종계 승려들은 과천 청계사와 수원 만의사 일대에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말선초 이후 조선 불교계를 주도하게 되는 무학 자초와 그의 제자 철호 조선이 주지에 재임하였다. 조선초기 불교 사원을 정리하는 와중에도 과천현을 지키는 자복사資福寺로 지정되어 천태종에 소속되었으며, 이후 왕실과도 원당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후 1689년(숙종15) 3월에 청계사에 화재가 일어나 성희性熙가 사찰을 다시 중건하게 되었고, 이때 다시 새로운 비석을 세워 그 전말을 기록하였다.

비석의 형태는 방부개석方趺蓋石 양식으로 지붕 모양을 단순화해서 개석으로 엮었으며, 받침돌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비신은 화강암을 수마水磨하여 마련하였다. 이 사적비는 조인규의 11대손인 조운趙橿이 글을 짓고, 윤창적尹昌績이 글씨를 썼다. 청계사의 창건과정과 조선시대 이후 청계사의 재정적 사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689년 3월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6월에 중건했던 사정들이 기록되어 있다.

청계사 사적기비는 조선이 유교사회이지만 여전히 사회적 역할이 컸던 사찰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자료이다. 특히 고려에서 조선까지 한 집안의 원찰로 기능하였던 청계사의 사적을 고찰하는데도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89호

## 남양주 홍국사 영산전

南楊州 興國寺 靈山殿

조선시대  
1동  
3×2칸  
목재  
남양주시 덕릉로1071번길 58

지정일 : 2014.05.09  
소유자 : 홍국사  
관리자 : 남양주시



1. 남양주 홍국사 영산전 정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남양주 홍국사 영산전 측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남양주 홍국사 영산전 내부 용두 조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수락산에 위치한 홍국사는 선조의 부친인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원당사찰願堂寺刹로 18세기 후반부터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중창을 거듭한 사찰이다. 1626년(인조4)에 ‘홍덕사興德寺’에서 ‘홍국사興國寺’로 개칭되었으며, 19세기 초반에 화재로 전소된 후 대대적인 중창을 거쳐 현재의 사역이 이뤄졌다. 영산전은 홍국사 경내에 여러 전각이 새롭게 들어서며 사세를 키우던 시기인 1892년(고종29)에 건립되었다.

영산전은 대웅보전의 왼쪽에 자리하고 있는 부불전副佛殿으로 3별의 장대석 기단위에 방형으로 다듬은 초석을 사용하여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축조되었으며, 팔각지붕을 하고 있다. 전면에는 각 칸마다 3짝의 분합문을 달았고 좌측면에는 1짝의 세살문을 설치하였다. 벽체는 중방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판벽을 구성하고 위쪽은 흙벽에 미장마감을 하였다. 판벽과 흙벽 모두 벽화가 그려져 있다.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고 불단을 후면에 붙여 설치하였다. 불단의 닻집은 혼치얇은 중층으로 조성하였는데 아래쪽에는 ‘적멸궁寂滅宮’이라 편액하고 위쪽에는 ‘내원궁內院宮’이라 편액하여 이곳이 왕실의 내원 즉 중궁전의 원당임을 상징하고 있다.

이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은 공포의 구성에서 나타나는데 외1출목 내2출목의 다포를 구성하면서 대부분의 다포건축에서 보이는 평방과 주간포의 주두가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19세기말 불전에서도 일부 확인되는데 목재수급의 어려움으로 부재가 간소화되는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다. 어린 기둥 상부에 설치된 용두장식과 귀포의 과도하게 뻗어 나온 용두, 내부 층량머리의 용두 조각 등은 이 시기 불전건축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장식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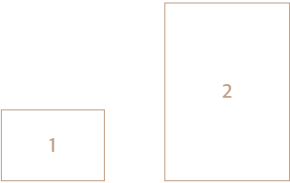


# 안성 봉덕사 목조여래좌상

安城 鳳德寺 木造如來坐像

조선시대(1666년 경)  
1구  
86.4×56.1cm  
목재  
안성시 월덕천길 44-19

지정일 : 2014.07.08  
소유자 : 봉덕사  
관리자 : 봉덕사



1. 안성 봉덕사 목조여래좌상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봉덕사 목조여래좌상,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안성 봉덕사 목조여래좌상>은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불상은 얼굴을 앞으로 약간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신체와 얼굴의 비율이 1:0.35로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상보다 신체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앞으로 숙인 머리에는 뽕족한 나발螺髮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肉髻가 표현되었고 머리 정상부에 좁고 높은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와 이마 위에 가늘고 좁은 반원형의 중간계주中間髻珠가 있다.

방형의 얼굴에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반쯤 뜬 눈, 콧등이 평평한 삼각형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을 하고 있다.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오른손은 손가락을 펴고 바닥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다. 바깥에 걸친 두꺼운 대의大衣는 변형통견으로,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거의 대각선으로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하반신에 펼쳐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은 복부에서 한 가닥이 넓게 펼쳐지고, 끝단이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다. 대의 안쪽에는 편삼偏衫을 입지 않아 맨살이 드러나 있는데, 이와 같이 편삼을 걸치지 않은 여래상의 착의법은 조선후기에 조성된 석가불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屣는 수평으로 접어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1666년(현종7) 7월에 조각승 금문金文, 법림法林, 보관普寬이 제작하였다고 한다. 이 조각승들은 17세기 중·후반에 호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 혜희慧熙의 계보를 계승한 작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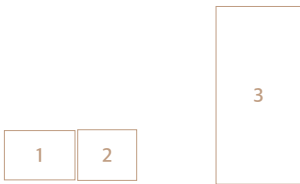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91호

김후 영정 및 영정함,  
호수·호수함 일괄

金焞 影幀 및 影幀函, 虎鬚·虎鬚函 一括

조선시대  
4건 8점  
영정 92.4×61.2cm  
영정함 86.5×15×15.3cm  
호수 36.6~40.7cm  
호수함 46.7×6.3×6.3cm  
비단, 목재, 금속 등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지정일 : 2014.07.08  
소유자 : 수원시  
관리자 : 수원화성박물관



1. 김후 호수·호수함 일괄, 2013. 수원화성박물관  
2. 김후 영정함, 2013. 수원화성박물관  
3. 김후 영정, 2013. 수원화성박물관



오사모烏紗帽에 남색 단령團領을 입은 김후金焞(1751~1805)의 반신 상 영정과 영정함이다. 김후는 화성 축성의 초기부터 참여하여 1794년(정조18)에는 독성중군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2월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병마절도사에 올랐다. 영정은 성역을 마친 뒤인 1796년(정조20)에 정조가 김후에게 숙마熟馬 1필을 하사하였는데, 이때를 기념하여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얼굴은 오른쪽으로 약간 돌린 반우향의 방향을 취했다. 사모는 이마 부분과 모정帽頂의 경계에 약간의 명암을 주어 입체감을 살렸고, 양각兩角 또한 투명하고 섬세한 문양을 표현하였다. 얼굴은 비단의 뒷면에 살색을 채색한 다음, 앞면으로 투과된 색감에 은은한 채색을 더하여 자연스러운 피부색을 나타내었다. 얼굴 부분은 선묘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피부의 질감과 음영 묘사에 치중하여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인다. 돌출한 코, 눈 주위의 윤곽과 같은 미세한 골상적骨相的인 요소를 철저히 파악하였다. 특히 눈매와 눈동자 묘사에 세필細筆을 집중하여 무관의 강인한 인상을 드러내는데 공력을 들였다. 흉배는 무관 종2품에 해당하는 쌍호흉배雙虎胸背를 매우 정교하게 그렸는데, 김후의 당시 관직이 중군中軍이므로 이에 부합된다. 중군은 조선시대 각 군영軍營에 속한 종2품관이다. 단령은 옷자락의 선묘에 따라 명암을 넣어 자연스러운 굴곡과 입체감을 강조하였다. 단령의 굴곡에 따라 문양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띠며 들어가 있다. 이처럼 얼굴과 단령 부분에는 서양화의 음영법을 적용시킴으로써 17세기 초상화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사실성을 반영하였다. 18세기 후반기에 최고 수준의 화가가 그렸음에 틀림이 없다.

김후의 영정과 함께 영정함, 호수虎鬚, 호수함이 함께 전한다. 호수는 무관들이 용복戎服 차림을 할 때 쓰는 주립朱笠에 장식으로 꽂은 호랑이 수염을 말한다. 호수 장식은 영조대 이후부터 나타나는데, 원래는 보리이삭을 꽂았으나 호수로 바뀌었다가 다시 흰털이나 세죽細竹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김후가 소유했던 나무로 만든 호수함과 호수꽃이가 함께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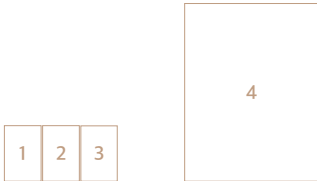


## 홍재전서

弘齋全書

조선시대(1814년)  
100책  
34.6×22.2cm  
종이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지정일 : 2014.07.08  
소유자 : 수원시  
관리자 : 수원화성박물관



1. 권두 '정종대왕어제', 2009. 수원화성박물관
2. 목차, 2009. 수원화성박물관
3. 본문, 2009. 수원화성박물관
4. 홍재전서, 2009. 수원화성박물관

『홍재전서』는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1752~1800)의 시문집詩文集이다. 홍재는 정조의 호다. 1787년(정조11) 1차 편찬과 1799년(정조 23) 2차 편찬 및 1801년(순조1) 12월의 3차 편찬을 거쳐 1814년(순조 14) 3월에 최종 편찬된 184권 100책을 정리자整理字로 인쇄·간행하였다. 구성은 세손시절의 시문을 수록한 춘저록春邸錄 4권과 시문집詩文集 180권으로 되어 있다. 현전하는 것으로는 1814년에 간행한 인본印本 184권 100책이 규장각도서관으로 6부가 있고, 장서각도서관으로 2부가 있다. 그리고 1801년에 편찬된 것은 사본寫本으로서 장서각에 전질이 있고, 서울대학교에 초집 2권, 2집, 61권 등 모두 38책이 보관되어 있다.

정조가 규장각에 자신의 문집 편찬을 지시하여 어제문집御製文集을 처음 편집해 바친 것은 1787년(정조11) 8월이다. 이 때 편집된 어제는 모두 60권으로 편집하고 2벌을 정서해 정조에게 진상했다. 이 진상본은 1787년 규장각에서 정조가 동궁 시절부터 국왕 재위기간 동안 지었던 여러 시문詩文·운음綸音·교지 및 편저 등을 모아 60권 60책으로 편집하여 정조에게 올린 어람용 문집으로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서울역사박물관에 보존 관리되고 있다. 수원화성박물관에는 1801년(순조1)에 완성한 편찬본을 바탕으로 1814년에 정리자로 간행한 금속활자본이 소장되어 있다.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홍재전서』는 184권 100책은 완전한 상태로 보존 관리되고 있어 문화재 및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 『홍재전서』는 조선시대 역대 임금의 문집 중에서 내용이 가장 방대하다. 시문뿐만 아니라 신하들과의 응답 내용, 해당 관서의 기록에 대한 최종 판결, 재위기간 중에 편찬된 서적의 해제 등 다양한 내용의 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선시대 문예부흥을 이끈 정조의 사상과 조선후기 정치·사회의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문헌자료이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93호

## 김우형 서첩 기오재 희묵

金宇亨 書帖 寄傲齋 戲墨

조선시대(1687년)  
1점  
53.5×36.4cm  
종이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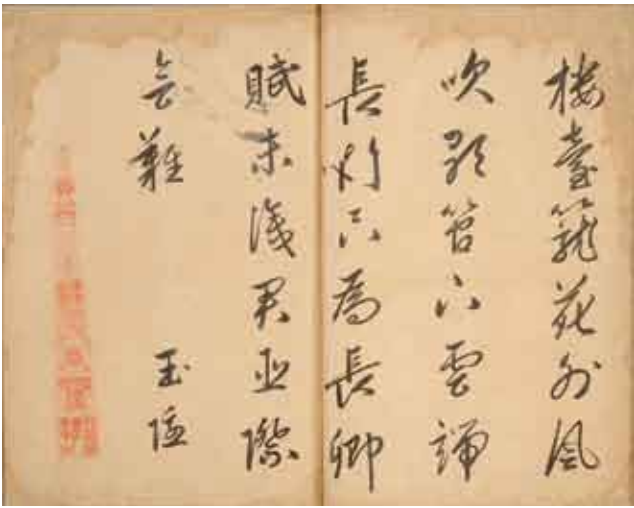
지정일 : 2014.07.08  
소유자 : 수원시  
관리자 : 수원시

<김우형 서첩 기오재 희묵>은 조선중기 17세기 문신 김우형金宇亨(1616~1694)이 1687년에 쓴 서첩이다. 김우형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도상道常, 호는 기오재寄傲齋·육은거사玉隱居士이며, 약산 김위남藥山金偉南의 손자로 1650년(효종1)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좌랑과 전남도사 등을 지냈다. 현종 때 수찬과 황해감사 등을 지냈고 승지로서 임금을 측근에서 오래 보필했으며 병조참의와 한성판윤 등을 지냈다. 숙종 때는 회양부사와 개성유수 등을 지냈으며, 사후 1788년(정조12) 정혜貞惠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가 쓴 비문으로 대구 ‘용연사송파대사비 龍淵寺松坡大師碑’ 등이 있다.

김우형의 필적은 그간 몇몇 간찰과 비문으로만 알려졌을 뿐 명필의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은 알려지지 않았다. 서첩의 앞표지에 ‘기오재희묵寄傲齋戲墨’이라 쓰여진 이 서첩은 김우형이 개성유수에 재임(1687.3.17~1689.1.17)하던 시절에 쓴 것이다. 글씨 앞뒤에 1687년(숙종13) 5월 하순에 술에 취해 쓰기 시작하여 그해 8월 하순에 삼절헌三節軒에서 마쳤다고 써놓았다. 삼절헌은 개성유수부 아사衙舍의 이름이다. 지금까지 전해진 17세기의 중요 서첩 가운데 필사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서첩이다. 한지 36장에 필사했는데 내용상 3부분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행초는 두보杜甫·왕유王維·허혼許渾·이하李賀·한악韓偓의 칠언율시 8수를 1장마다 3행 18자씩 썼고, 두 번째 행서는 두보의 칠언장시 ‘세병마행洗兵馬行’ 1편을 1장마다 3행 18자씩 썼으며, 세번째 행초는 두보의 칠언율시 3수를 1장마다 2행 8자씩 유려하게 썼다.

1 2 3

1.「기오재 희묵」 표지, 2013. 수원박물관  
2. 필사 시기 기록, 2013. 수원박물관  
3. 한악의 시 '중추금지中秋禁直' 후반부, 2013. 수원박물관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94호

## 윤증서첩 유봉필첩

尹拯書帖 酉峯筆帖

조선시대  
1점  
43.8×29cm  
종이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65

지정일 : 2014.07.08  
소유자 : 수원시  
관리자 :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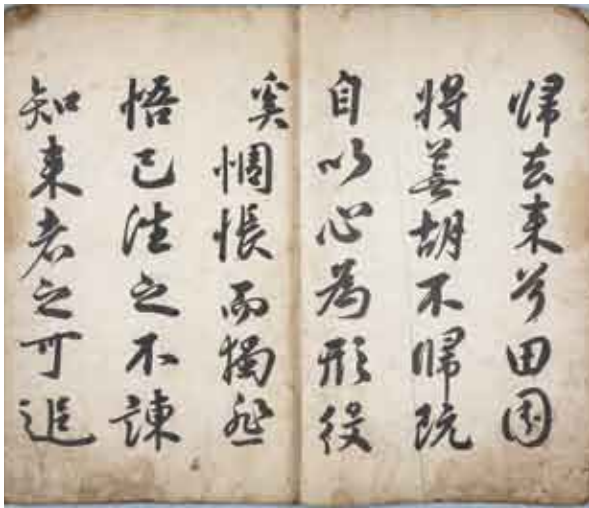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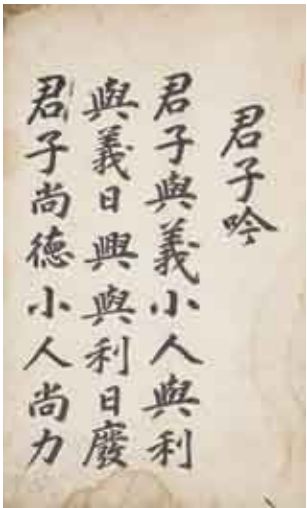
<윤증서첩 유봉필첩>은 조선 숙종대의 대학자로 유명한 윤증尹拯(1629~1714)의 서첩이다. 윤증의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자인子仁, 호는 명재明齋·유봉酉峯,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부친 동토 윤순거童土尹舜舉(1596~1668)와 그 아우 윤문거尹文舉·윤선거尹宣舉가 모두 필원筆苑에 들어갈 정도로 글씨를 잘 썼다. 윤증의 필적은 여러 간찰이 전하며 몇몇 시고詩稿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문의 서풍書風을 계승한 면모를 보여주는 서에 작품은 알려지지 않았다.

서첩의 앞표지에 ‘유봉필첩酉峯筆帖’이라 써있고 안쪽에 ‘酉峯(유봉)’이란 인장이 두 군데 찍혀 있다. 한지 19장을 접어 모두 38면에 썼는데 내용상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행서行書 소자小字는 범질范質의 오언시 ‘자제계子弟戒’ 14수를 1장마다 6행씩 썼는데 1행은 12자씩이다. 두번째 행초行草 중자中字는 도잠陶潛의 ‘귀거래사歸去來辭’ 전반부를 1장마다 3행씩 썼는데 1행은 6자씩이다. 그리고 해서楷書 중자中字는 도잠의 ‘귀거래사’ 후반부를 1장마다 3행씩 썼는데 1행은 6자씩이다. 세번째 해서楷書 중자中字는 소옹邵雍의 ‘군자음君子吟’, 주돈이周敦頤의 ‘줄부拙賦’, 장식張拭의 ‘자수명自修銘’을 1장마다 4행씩 썼는데 1행은 8자씩이다. 윤증은 부친 윤순거의 서풍을 따랐다. 또 윤순거는 명필이던 외조부 청송 성수침聽松成守琛(1493~1564)의 서풍을 따랐다. 성수침의 서풍은 명나라 문인서화가 문정明文徵明의 서풍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16세기 서예사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그의 서풍은 우계 성혼牛溪成渾 등의 자손과 후학 및 외손 파평윤씨에게 전승되었다.

이 서첩에서 범질范質의 ‘자제계’와 도잠陶潛의 ‘귀거래사’ 전반부는 윤증이 바로 성수침 서풍을 계승한 것이다. 그리고 ‘귀거래사’ 후반부와 소옹邵雍의 ‘군자음’ 등은 부친 윤순거의 서풍을 따랐다. 서첩의 정확한 필사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없으나 성수침과 윤순거의 서풍과 유사성을 많이 보여 윤증의 중년 시기 필적으로 짐작된다.

1 2 3

1.「유봉필첩」 표지, 2014. 수원박물관  
2. 소옹의 '군자음' 전반부, 2008. 수원박물관  
3. 도잠의 '귀거래사' 전반부, 2008. 수원박물관





## 파주 검단사 아미타불회도

坡州 黔丹寺 阿彌陀佛會圖

조선시대(1854년)  
1점  
118×172cm  
비단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292-33

지정일 : 2014.08.29  
소유자 : 검단사  
관리자 : 파주시

<파주 검단사 아미타불회도>는 1854년(철종5)에 찬종讚宗과 해운 일환海雲一環을 비롯해 7인의 화승이 참여하여 조성되었다. 찬종은 검단사 불화 이후 경성 금준環惲肯濬이 주도하는 삼척 영은사 영사 회괘불도(1856) 제작에 보조화원으로, 해운 일환은 신선愼善이 주관하는 서울 흥천사 삼신괘불도(1832) 제작에 보조화원으로 활동하였다. 검단사 아미타불회도 화기에 찬종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 활동시기와 화풍을 고려하면 해운 일환이 불화 제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아미타불회도는 가로로 긴 화면에 맞추어 주존을 중심으로 권속들이 횡으로 넓게 배치되어 있다. 불단 역시 화면에 맞게 가로로 긴데, 불단 상판에는 나무결무늬를 장식하여 넓은 공간을 어색하지 않게 처리하였다. 주존인 아미타불은 오른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왼손은 배위에 올려놓은 설법인說法印을 하고 연화대좌에 앉아 있다. 아미타불의 주변에는 6위의 보살과 6명의 제자, 사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아미타불을 비롯하여 보살의 존상표현을 살펴보면, 타원형의 얼굴에 허리가 긴 세장한 신체로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은 시기와 작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설훈雪訓·상겸尙謙·연홍演弘·민관旻官 등 18세기 말~19세기 초 경기지역에서 활동한 화승들이 구사했던 화풍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19세기 전반 경기 화승인 신선愼善에게 계승되었다. 파주 검단사 아미타불회도를 그린 일환이 신선이 주도하는 서울 흥천사 삼신괘불도에 보조화원으로 참여하면서 경기 화승들의 화풍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색채는 짙은 홍색을 주로 사용하면서 녹색·청색·백색 등을 이용해 변화를 주었다. 불화에는 채도가 높은 청색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코발트계의 색은 특히 19세기 후반 불화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 아미타불회도에 보이는 가로축 중심의 화면, 주존을 중심으로 횡으로 배치되는 구도, 18세기 후반의 경기 화승의 화풍 계승, 과도하게 크게 묘사된 불단 등은 안성 석남사 아미타불회도(1827), 남양주 봉영사 아미타불회도(1853) 등 19세기 전반 경기도에서 제작된 후불도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다만 앞의 두 불화에 비해 파주 검단사 아미타불회도는 제작시기 뿐 아니라 구성이 단순하고 존상 표현에서 균형과 세밀함이 떨어진다. 이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 형성되었던 경기 화풍의 특징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색감에 있어서는 19세기 후반에 유행하는 청색을 선도적으로 사용하는 등 19세기 경기 불화의 단계적인 변화양상을 보여준다.



파주 검단사 아미타불회도, 촬영이미상\_성보문화재연구원



- ① 아미타불
- ② 대세지보살
- ③ 금강장보살
- ④ 관음보살
- ⑤ 사천왕
- ⑥ 육대제자



## 고양 흥국사 영산회상도

高陽 興國寺 靈山會上圖

조선시대(1792년)

1점

152×231cm

비단

고양시 덕양구 흥국사길 82

지정일 : 2014.08.29

소유자 : 흥국사

관리자 : 고양시

<고양 흥국사 영산회상도>는 한미산漢美山 흥국사 약사전 후불벽에 봉안되어 있는데 유리액자 속에 넣어 보관되고 있어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영산회상도는 횡으로 긴 화면 중앙에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한 석가모니부처가 연화좌에 결가부좌하고 있으며, 그 좌우로 6명의 보살, 아난존자와 가섭존자를 포함한 4명의 제자, 그리고 사천왕 등이 배치되어 있다. 6명의 보살 가운데 석가모니부처의 협시보살인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보관寶冠에 화불化佛이 그려진 백의관음과 보관에 정병淨瓶이 그려진 대세지보살은 파악할 수 있으나 나머지 2보살은 불분명하다.

조선후기에 조성된 대부분의 불화에는 주존主尊과 협시보살挾侍菩薩은 좌상坐像으로 표현되고, 그 권속眷屬들은 대체로 입상立像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 불화는 모든 존상尊像이 앉은 자세로 표현되어 있는데 횡으로 길어진 화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화면 중앙의 석가모니부처는 가름한 턱에 이목구비가 작다. 석가모니부처의 신체는 얼굴에 비해 빈약해 보이나, 전체적으로 비례와 균형이 잡혔다. 양 어깨를 덮고 있는 통견의 법의는 붉은색에 흰색으로 원화문圓花紋을 그렸다.

비단 바탕에 붉은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주황색과 흰색 등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여 화면이 전반적으로 부드럽다. 화면 하단의 좌우에 남아있는 화기書記에 의하면, 1792년(정조16)에 경기도 일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상훈尙訓이 수화사首畫師가 되어 그렸다. 시주자施主者는 혜경궁惠慶宮을 비롯한 수진궁壽進宮, 선희궁宣禧宮의 대감大監 및 상궁尙宮 등 왕실 관련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 조선후기에 왕실王室의 불교후원佛教後援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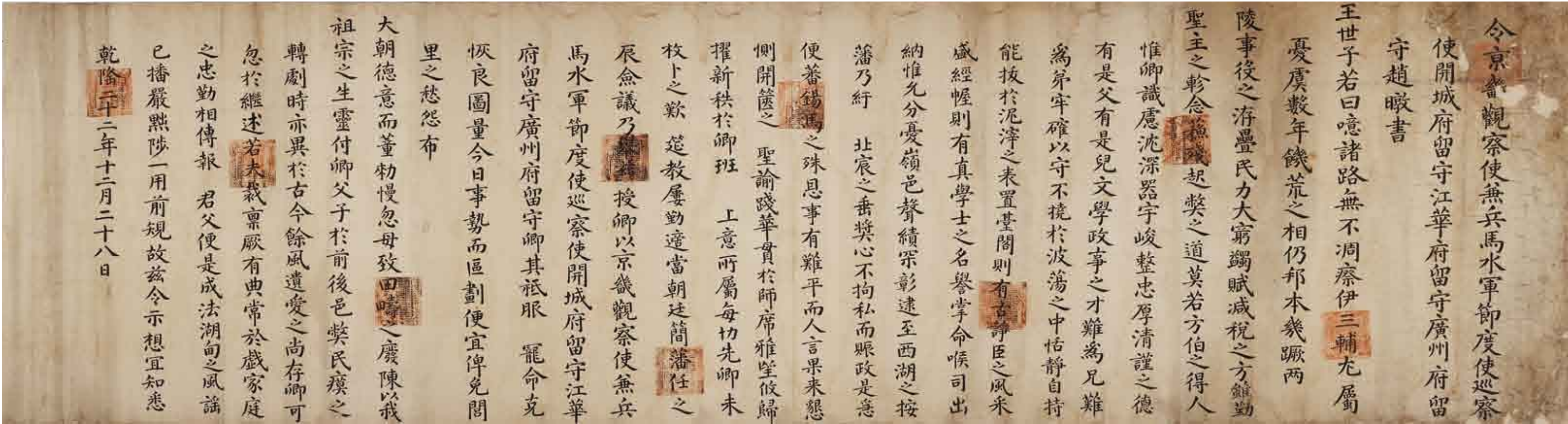


고양 흥국사 영산회상도, 촬영임미상\_정보문화재연구원



- ① 석가모니불
- ② 보현보살
- ③ 문수보살
- ④ 대세지보살
- ⑤ 관음보살
- ⑥ 아난존자
- ⑦ 가섭존자
- ⑧ 사천왕





조돈영서, 2009. 수원화성박물관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97호

## 조돈 영서

趙墩 令書

조선시대(1757년)  
1점  
90×335cm  
종이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지정일 : 2014.08.29  
소유자 : 수원시  
관리자 : 수원시

〈조돈 영서〉는 사도세자思悼世子(1735~1762)가 부왕인 영조를 대신 하여 국정을 대리청정(1749~1762)하던 1757년(영조33)에 조돈趙墩(1716~1790)을 경기도관찰사로 임명하면서 내린 명령서命書이다. 관찰사·절도사·방어사 등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리던 명령서를 유서諭書라 하는데, 대리청정代理聽政하는 왕세자가 내리면 영서書라고 지칭한다. 사도세자의 대리청정 시기에 작성된 희귀한 문서로 규모나 형식이 다른 영서에 비해 매우 뛰어나다.

조돈은 영·정조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광서光瑞, 호는 죽석竹石이다. 1740년(영조16) 문과 급제 후 관직에 나가 대사간, 대사헌, 경기도관찰사, 이조판서를 지냈으며 영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시호는 숙헌肅憲이다.

영서의 내용을 보면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에게 임지에 가서 직무를 잘 수행하라고 당부한 사명훈유使命訓諭의 내용이다. 형식은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와 같으나 발급자가 왕세자이므로 ‘王若曰(왕약왈)’ 대신에 ‘王世子若曰(왕세자약왈)’로 시작하며 결사結辭도 ‘故茲敎示想宜知悉(고자교시상의지실)’ 대신에 ‘故茲令示想宜知悉(고

자영시상의지실)’로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영서는 사도세자 대리청정 때 발급된 5건이다. 즉, 전라감사 이성중李成中(1706~1760)에게 내린 영서(1751년 1월 22일), 경기감사 정광충鄭光忠(1703~?)에게 내린 영서(1756년 8월 27일), 경상감사 이성중李成中에게 내린 영서(1756년 10월 18일), 함경감사 이명곤李命坤(1701~1758)에게 내린 영서(1756년 10월 27일), 경기감사 조돈趙墩에게 내린 영서( 1757년 12월 28일) 등이다.

이 영서는 장지壯紙 4장을 가로로 붙여 썼다. 앞쪽에 ‘경기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개성부유수 강화부유수 광주부유수 조돈에게 내리는 영서令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開城府留守江華府留守廣州府留守趙墩書’라는 제목이 있고, 이어 ‘왕세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에 영서를 보이니 마땅히 모두 알 것이다. 王世子若曰…故茲令示 想宜知悉’ 사이에 훈유내용이 있으며, 말미에 ‘건륭 22년 12월 28일乾隆二十二年十二月二十八日’이란 발급 연월일이 있다. ‘왕세자인王世子印’을 제목, 종이 연결부 3곳, 날짜, 본문 내용 5곳 모두 10군데에 찍었다.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원형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영서로서 현전하는 예가 드물고, 현전하는 영서 모두 사도세자 대리청정기에 내린 것이란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 정조 어필 비망기

正祖 御筆 備忘記

조선시대(1796년)  
1점  
63.2×152.5cm  
종이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지정일 : 2014.08.29  
소유자 : 수원시  
관리자 :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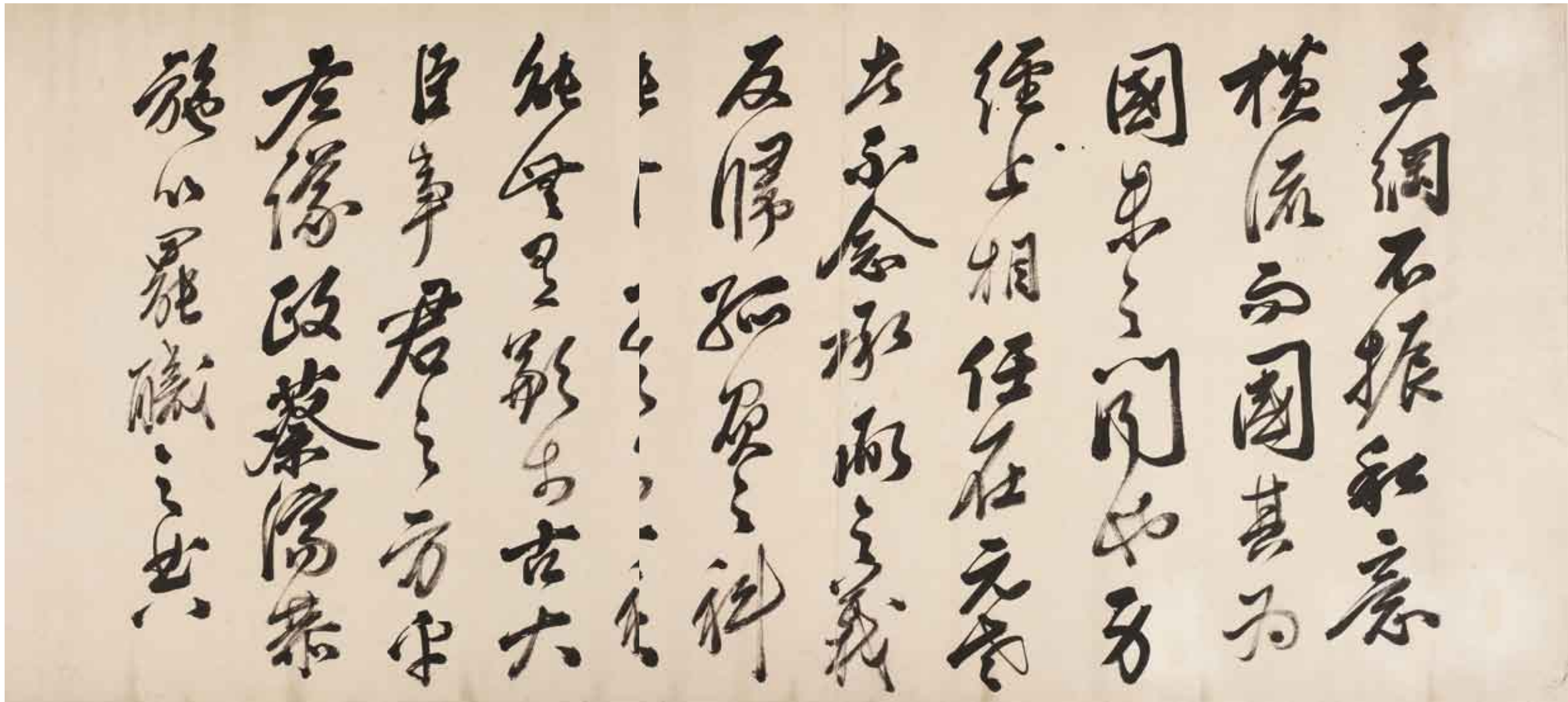
<정조 어필 비망기>는 1796년(정조20)에 정조가 좌의정 채제공蔡濟恭(1720~1799)을 파직한다는 내용으로 직접 써서 내린 비망기備忘記다. 비망기란 왕의 명령을 적어서 승정원 승지에게 전하던 문서다. 채제공은 1789년과 1790년에 좌의정이 되었고 1793년에 영의정이 되었으며, 1795년 12월에 다시 좌의정이 되었다. 이듬해 1796년 2월 12일 정조는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이주석李周奭의 일을 논의한 헌납 유하원柳河源(1747~?)을 전라도 나주목 흑산도로 유배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이에 유하원을 가르쳤던 채제공이 유하원을 두둔하자 격분한 정조가 그를 파직했다.

비망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의 기강이 진작되지 못하고 사사로운 뜻이 멋대로 행해지는데도 나라꼴이 제대로 되어간다는 것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영의정을 지냈고 원로에 있는 사람이 임금의 뜻을 받들어 보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임금을 저버리는 죄를

지었으니, 옛날의 대신大臣이 임금을 섬긴 방도에 모자라는 게 아니겠는가? 좌의정 채제공에게 파직의 법규를 시행하라.’ 며칠 뒤 채제공은 자신을 견책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정조는 평소 좌의정에 대한 돈독함과 믿음이 커 책망한 말도 지나쳤다면서 자신의 사사로운 정을 알아달라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이 비망기 내용은 『승정원일기』 1796년(정조20) 2월 12일자에 ‘비망기備忘記’란 이름으로 똑같이 실려 있다. 이 비망기가 채제공 후손가에 전해 온 것을 보면, 당시 승정원 승지를 통해 채제공에게 전달된 것으로 여겨진다. 신하를 나무라며 파직하는 뜻을 특별히 전하고자 유서諭書나 교서敎書처럼 큰 종이에 쓴 것이라 짐작된다. 정조가 직접 쓴 비망기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례이며, 정조 말년의 원숙한 필체를 살펴볼 수 있다.

정조 어필 비망기, 2009, 수원화성박물관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99호

## 정조사 조심태 어찰첩

正祖賜 趙心泰 御札帖

조선시대(1789~1798년)  
1첩 13점  
38.2×26.7cm  
종이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지정일：2014.08.29  
소유자：수원시  
관리자：수원시

〈정조사 조심태 어찰첩〉은 정조가 수원부사, 화성유수, 장용대장을 역임한 조심태趙心泰(1740~1799)에게 보낸 어찰을 모은 첩이다. 어찰은 모두 13통인데 2통은 2장의 종이에, 나머지 11통은 1장의 종이에 썼다. 조심태가 수원부사로 임명된 1789년부터 장용대장으로 활동하던 1798년 사이에 정조가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조심태는 1740년(영조16) 1월 25일에 충청수사, 경기수사, 삼도통제사 등을 역임한 조경趙敬(1677~1743)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고려후기의 문인이었던 조인규趙仁規의 후손인데, 본관은 평양平壤, 자는 집중執中, 시호는 무의武毅이다. 조심태는 병마절도사를 지낸 죽산竹山 안윤남安允福의 딸(1736~1799)과 결혼하여, 아들 조기趙岐를 두었다. 조심태는 1768년(영조44) 무과 급제하고 여러 무관직을 두루 거쳐 1789년 수원부사를 역임하였다. 이때 현릉원顯隆園을 옮겨오는 일과 수원의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일 등 어려운 임무를 차질없이 처리하였다. 이후 총융사·금위대장·어영대장 등을 지내다가 1794년 승격된 화성유수로 다시 제수되었고 수원화성 축성의 주요 직책을 겸하였다. 정조가 번암 체제공과 함께 가장 총애하던 무반계 신하였다.

어찰은 현릉원 조성, 화성 경영, 장용영 운영에 관한 것들로 조심태가 수원부사로 임명된 1789년에서 장용대장으로 활동하던 1798년 사이에 보낸 것이다. 첩장帖粧의 보존상태는 양호하고 충식蟲蝕이 전혀없이 깨끗하다. 표제없이 겉면을 갈색비단으로 썼는데, 뒷면은 거의 떨어졌다. 안쪽의 어찰은 장지를 둘러 회장回粧하였다.

어찰을 살펴보면 정조는 수원에 있던 조심태와 수시로 편지를 교환하면서 현지의 사정을 파악하고 수시로 필요한 조치를 처리해 나갔으며, 모종의 비밀 업무도 지시한 후 그 결과를 기다렸음을 알 수 있다. 조심태는 정조와 서로 밀서를 주고받던 핵심 측근 관료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조심태 관련 정조 어찰첩으로는 유일하며 수원과 관련된 정조어찰을 대표할만하다. 아울러 수원을 중심으로 요동치던 당시의 정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찰첩이다.

1	2
3	4
5	6

- 정조가 수원부유수 조심태에게 보낸 어찰(1796년 9월경), 2009\_ 수원화성박물관
- 정조가 수원부유수 조심태에게 보낸 어찰(1793년 12월경), 2009\_ 수원화성박물관
4. 정조가 수원부유수 조심태에게 보낸 어찰(1796년 8월경), 2009\_ 수원화성박물관
- 정조가 수원부유수 조심태에게 보낸 어찰(1795년 2월경), 2009\_ 수원화성박물관
- 정조가 장용대장 조심태에게 보낸 어찰(1798년경), 2009\_ 수원화성박물관





## 정조사 박종보 어찰첩

正祖賜 朴宗輔 御札帖

조선시대(1788~정조연간)  
1첩 19점  
38×24.5cm  
종이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지정일 : 2014.08.29  
소유자 : 수원시  
관리자 :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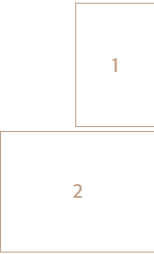
〈정조사 박종보 어찰첩〉은 정조가 처남인 박종보朴宗輔(1760~1808)에게 보낸 친필 어찰 19통을 노랑색과 분홍색의 고급 색지를 사용해 궁중 장황으로 꾸민 중요한 어찰첩이다.

내용은 정조가 박종보의 안부와 궁궐 출입 여부를 묻거나 하사한 선물의 목록이 대부분으로 처남인 박종보와 매우 친밀한 사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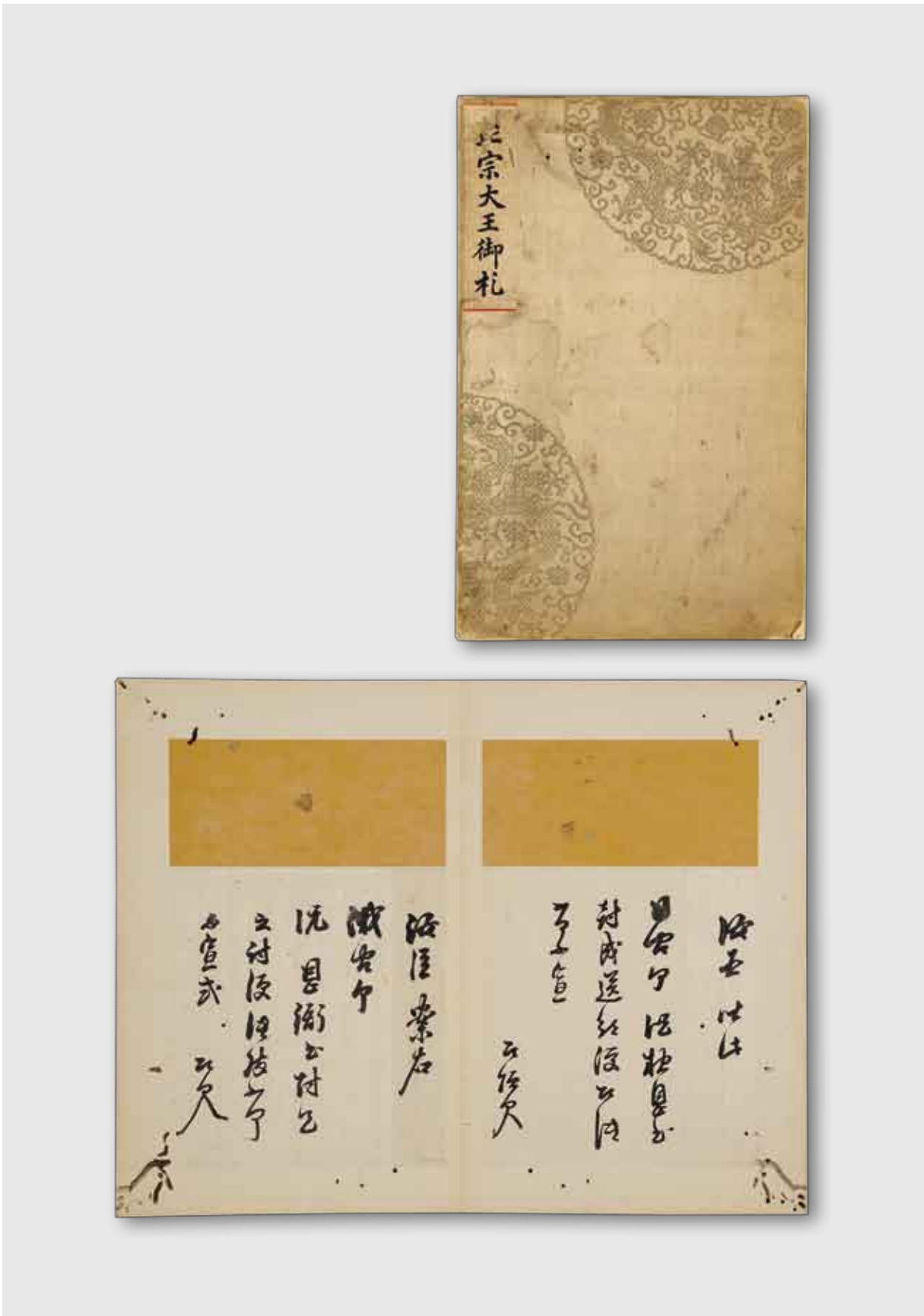
박종보는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인 수빈박씨綏嬪朴氏(1770~1822)의 큰 오라버니이다. 수빈박씨는 1787년(정조11) 2월 8일에 삼간택에서 정조의 빈嬪으로 정해졌다. 박종보의 본관은 반남潘南으로 아버지는 판돈령부사 박준원朴準源(1739~1807)이며 어머니는 증贈 이조참판 원경유元景游의 딸(1740~1783)이다. 1787년 누이동생이 빈으로 간택되자 음보蔭補로 장악원 주부에 등용되고 사옹원 주부와 의빈부·충훈부 도사를 지냈다. 1789년 생원시에 합격했고 이듬해 정조의 아들[純祖]이 태어나자 왕명에 따라 궁에서 원자元子를 보육하는 책임을 맡았다. 1800년(순조즉위) 정조 붕어崩御 후 정순왕후貞純王后가 수렴청정 할 때 가까운 친척을 임금 측근에 두어야 한다고 하여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공조참의가 되고 순조가 천연두를 앓았을 때 입직한 공로로 호조참판이 되었다. 1803년 형조참판을 거쳐 성천부사·춘천부사 등을 지냈고 1806년 내직으로 들어와 사도시 제조가 되었다. 그때 대신의 천거로 호조판서에 임명되나 ‘음관蔭官이 한 사람의 천거로 호조판서가 된 것은 유례가 없다’고 세차레 상소하며 사양했다. 비변사 당상으로 다시 임명되나 나가지 않았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어필의 작성 연대는 1788년(정조12) 이후 정조 재위 후년으로 추정된다. 표지는 오조룡五爪龍 두 마리를 직조한 원룡문단圓龍紋緞으로 썼고, 그 위로 ‘정종대왕어찰正宗大王御札’이란 제첨題簽이 있다. 안쪽 어찰은 장지로 회장했는데, 어찰이 작으면 회장과 어찰 사이를 여러 색상의 쇄금지灑金紙로 붙였다.

보존상태는 제첨의 ‘正’ 자가 벌레 먹고 걸면 비단의 일부 오염을 빼면 양호한 편이다. 안쪽 회장 부분에 위아래로 충식蟲蝕이 있으나 어찰은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 정조가 처가에 보낸 어찰을 모은 것으로 왕실의 일상을 보여주는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1. 정조사 박종보 어찰첩 표지, 2009. 수원화성박물관  
2. 정조사 박종보 어찰첩 본문, 2009. 수원화성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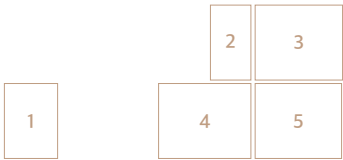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01호

## 고양 원각사 불조삼경

高陽 圓覺寺 佛祖三經

고려시대(1384년)  
1책  
27.3×17.2cm  
종이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지정일：2015.03.09  
소유자：문상련  
관리자：고양시



- 표지, 2017. 경기도문화재연구원
- 권두 서문, 2017. 경기도문화재연구원
- 권두 서문과 방형 목기, 2017. 경기도문화재연구원
- 본문, 2017. 경기도문화재연구원
- 이색과 익대의 발문, 2017. 경기도문화재연구원

고양시 원각사 소장 『불조삼경』은 원대의 고승 몽산 덕이蒙山德異가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 『불유교경佛遺教經』, 위산 영우瀉山靈祐의 「위산경책瀉山警策」을 합집合集하여 원나라에서 간행된 판본을 고려에서 1384년에 번각 간행한 목판본 1책이다. 찬자 몽산화상은 남송 이종 4년(1231)에 강서성 서양瑞陽의 고안高安에서 출생하여 만년에 주석하였던 휴휴암에서 1300년을 전후한 무렵에 입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법호는 ‘몽산蒙山’으로 널리 통칭되고 있으나, 그 외에도 ‘고균비구古筠比丘’·‘전산화상巖山和尚’·‘휴휴암休休庵’·‘절목수絶牧叟’ 등의 자호를 사용하였으며, 덕이德異는 출가 후에 얻은 법명이다.

이 책에는 불교가 인도로부터 중국에 전래된 이래 가섭마등迦葉摩騰과 축법난竺法蘭 등이 처음으로 한역한 『불설사십이장경』과 부처님의 최후 가르침인 『불유교경』, 그리고 위양종의 개조開祖인 위산 영우의 저술인 『위산경책』이 합집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앞 2종의 불경은 중국 최초의 불경이라는 점과 부처가 열반 직전에 남긴 최후의 불경이라는 시종始終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임제종의 고승인 몽산이 위양종의 개조인 위산의 어록을 수록하여 선가의 포용성을 표방하고 있다. 이 책에는 모두 송대의 대홍 수수大洪守遂 선사가 주석을 붙인 주해본이다. 수수守遂 선사는 멀리 동산洞山 조사의 9세손으로 투자 의청投子義青의 현손玄孫에 해당되며, 대홍 보은大洪報恩에게 그 법맥을 물려주었던 조동종 계열의 인물이다.

고양시 원각사 소장 『불조삼경』은 고려시대 1384년에 송판본을 저본으로 간행된 판본이다. 이 책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권수에 몽산 덕이가 지원병술至元丙戌(1286)에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서문 다음에 『불설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고, 권말에 고려의 이색李穡과 송나라의 익대益大가 쓴 발문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편성체계로 보면 전체 3권 1책에 해당되나, 실제 권수의 구분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책머리에는 원나라 몽산 덕이가 짓고 초서로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말미의 여백에 몽산화상의 호인 ‘절목수絶牧叟’, ‘몽산蒙山’이란 방형의 목기木記가 보이고 있다. 서문 다음 장에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이란 권두서명이 보이고 있으며, 권말에는 한산부원군인 이색이 1384년에 지은 발문과 원간본元刊本에 수록되어 있던 익대益大가 1286년에 짓고 쓴 발문이 복각되어 있다. 이는 몽산이 『삼경』을 합집 형태로 재편하기 이전에 각기 독립된 단행본 형태로 간행 유포되었으며, 그 후 1286년에 몽산에 의해 오종의 휴휴암에서 합집 형태로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간행된 판본은 그의 말년에 고려인과의 교류를 통해 고려에 전수되어 1314년 강원도 원주의 정각사에서 처음으로 개판되었으며, 이후에도 고려시대 1361년과 1384년에 중간되었다.



원각사 소장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邊欄은 상하단변上下單邊 좌우쌍변左右雙邊으로 고려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본문에는 계선이 있으며, 반엽을 기준으로 8행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중앙에는 판심이 보이고 있는데, 폭이 매우 좁고 어미는 매우 작은 흑어미로 상단에만 있다. 판심의 상흑어미 아래로 판심제와 장차가 새겨 있다. 자체字體는 전형적인 방형의 구양순체歐陽詢體로 중국 송원대 판본에 자주 보이는 서체이다.

이 책은 여말선초 사이에 한국불교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나 중국에서 발견되지 않고 오직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판본만이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불교학의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서지학의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판본이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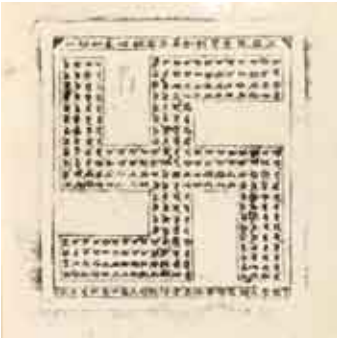
## 고양 원각사 고려시대 다라니 일괄高陽 圓覺寺 高麗時代 陀羅尼 一括

고려시대  
15종 37점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 1매 9.7×28.8cm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 1매 38.5×39cm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 2매 19.5×49cm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 1매 34×36.5cm  
대불정진언등진언합부다라니 1매 40×37cm  
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 1매 32.2×33.2cm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 2매 11.4×30.5cm  
범자원상금강계만다라 1매 38.2×40cm  
아자범자원상태장계만다라 1매 41.2×37cm  
아미타삼존다라니 1매 35×36.5cm  
금강계만다라 2매 35.7×36.5cm  
대불정심주등다라니 1매 41.3× 50.5cm  
범자원상금강계만다라 1매 38×38cm  
금강계만다라 1매 40×39.5cm  
금강계만다라 1매 33.5×35cm  
종이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지정일：2015.03.09

소유자：문상련

관리자：고양시



-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1152년),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1292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대불정진언 등 진언합부 다라니(1295년),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 범자원상금강계만다라(1301년),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1301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대비로자나성불경등 일대성교중 무상일승제경소설 일체비밀다라니(1150),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출처: 경기문화재단\_고양시 문화유산

출처: 경기문화재단\_고양시 문화유산

출처: 경기문화재단\_고양시 문화유산

출처: 경기문화재단\_고양시 문화유산

간기가 있는 것 중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

는 현재까지 알려진 『보협인다라니寶篋印陀羅尼』 중 범자梵字로 인쇄된 가장 빠른 시기의 실물자료이다. 하단에는 ‘범학대사도휘서해안사개관시천덕사년사월일기梵學大師道輝書海晏寺開板時天德四年四月日記’라는 간기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이 다라니는 범학대사 도희梵學大師道輝가 ‘천덕天德 4년(1152년)’에 개성의 현화사 인근에 있는 사찰인 해안사海晏寺에서 인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양 원각사 소장 고려 다라니 일괄 중에는 간기는 없으나 다른 자료와 비교하면 제작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5종이 된다. 그 중 『일체비밀다라니』는 전체 400여종의 각종 범자진언이 수록된 자료로, 간기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 초기 인쇄문화의 정황을 알려주는 실물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안동 보광사와 해인사 불복장에서 수습된 동일한 다라니에 기록되어 있는 ‘時庚午歲(1150) 六月卜日 海東長安廣濟鋪開板’과 ‘思遠 重校’라는 발문을 통해 1150년 평양 광제포에서 선사 사원이 중교重校해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양 원각사 고려시대 다라니 일괄은 모두 12~13세기경 제작된 것들로 고려초기 인쇄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범학梵學과 만다라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03호**

## 고양 대성암 목활자본 묘법연화경

<span></span>
조선시대(1876년) <div>7책</div> 29.0×19.0cm <div>종이</div> <div>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96-1</div>
<span></span>
지정일 <span> </span> : 2015.03.09
소유자 <span> </span> : 홍정표
관리자 <span> </span> : 대성암

<span></span>

- 
- 
- 

- 고양 대성암 목활자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목활자본 권수,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목활자본 묘법연화경 제3책 내지,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고양 대성암 소장 목활자본 『묘법연화경』은 선장본線裝本 7책으로, 1876년(고종13)에 간행된 목활자본이다.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계선이 없고, 반곽半郭에 10행 18자, 백어미白魚尾이다. 판심제板心題는 ‘법화경法華經’이고, 그 아래에 권수와 장차가 표시되어 있다.

권수에는 ‘영산대법회靈山大法會’라는 제목 아래 영산교주 석가여래 불을 비롯한 불보살을 필두로, 삼전三殿(주상·중궁·세자)을 비롯한 대왕대비·왕대비·대비 등 왕실 인사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발원문이 수록되어, 이 책이 왕실을 위해 간행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7책의 말미에 곱은橘隱 노인, 곧 영의정을 지낸 곱산橘山 이유원 李裕元이 쓴 발문과 금강산에 주석하던 호은 축잡虎隱竺岾이 쓴 발문이 수록되었다.

다음 장의 간기에는 간행 관련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증정감인證正監印 겸 화연化緣으로 팔도총섭 고경 법능古鏡法能·교정校正에 완허 응관翫虛應觀 이하 선화禪和·선덕禪德·선백禪伯 등과 인출비구 삼강三綱에 이어 화주로 이 시기 명승인 경선 응석慶船應釋이 참여하였다. 이밖에도 별좌別座, 공사供司 등 다양한 직책과 다수의 간행 인물들이 열거되고 있어 왕실불사의 규모를 알 수 있게 한다. 시주자로는 상궁 장씨張氏·월광화月光華·박씨朴氏·대덕심大德心 등 6명의 상궁이 열거되어있다.

책등에 표기된 ‘소림사少林寺’라는 사명과 제1책의 표지에 ‘관아觀我’ 소장자 기록을 통해 한동안 '관아'라는 소림사 스님이 소장했던 서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광서원년병자중하 경기양주천마산보정사인장光緒元年丙子仲夏 京畿楊州天摩山寶晶社印藏’이라는 간기가 확인되어 이 묘법연화경은 조선후기인 1876년 양주 보정사寶晶社에서 목활자로 50부만 한정으로 간행한 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묘법연화경』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유일한 목활자본 묘법연화경으로, 국내에 전 7책이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04호**

# 고양 대성암 선림보훈

高陽 大聖庵 禪林寶訓

<span></span>
고려시대(1378년) <div>1책</div> 24.5×17.1cm <div>종이</div> <div>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96-1</div>
<span></span>
지정일 <span> </span> : 2015.03.09
소유자 <span> </span> : 홍정표
관리자 <span> </span> : 대성암

<span></span>

<span></span>

<span></span>

<span></span>

<span></s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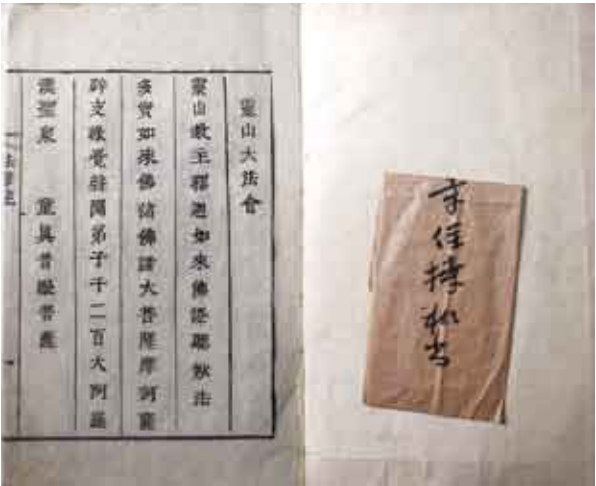
1 2 3

- 권두 부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권말 부분 환암의 간행기록,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고양 대성암 소장의 『선림보훈』은 1378년(고려 우왕4)에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간행한 목판본 1책이다. 본래 이 책은 선림의 근기가 쇠퇴해 가는 것을 우려하여 송나라의 승려 대혜 종고宗杲와 죽암 사규士珪가 학덕이 높은 스님들의 좋은 말씀이나 행적들을 모으고, 이를 남송南宋의 승려 정선淨善이 선禪을 닦는 스님들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 300여 편을 뽑아 출처를 밝혀서 상하 2권으로 편찬하였다.

이를 묘기妙機가 교증校證하여 1354년 중국 원나라의 장로선사長蘆禪寺에서 간행하였는데, 그 후 고려 말에 요암 행제了庵行齊가 원나라에서 간행된 전적을 입수하여 1378년에 충주의 청룡사에서 단월 고식기高息機와 최성연崔省緣의 조연을 받아 상위尙偉와 만회万恢가 모연하여 복각 간행된 것이다.
고양 대성암 소장 『선림보훈』은 2013년 묘사채 천장에서 발견된 이후 선장의 형태로 개장되었다. 전체적으로 내용상에 결락된 부분은 없으나, 오랫동안 천장에 보존되었던 탓에 권수 및 권말 일부에 누수로 인한 부분적인 훼손이 있다.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좌우쌍변左右雙邊에 계선界線이 있고, 반곽半郭에 10행 20자씩 배자되어 있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로 대흑구大黑口가 보이고 있고, 상하의 흑어미黑魚尾가 하향하고 있는 특이한 형식이다. 권수에는 별다른 서문이나 목차 없이 바로 권두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 행에 ‘東吳沙門 淨善重集’이란 찬자가 보이고 있어 이 책이 정선淨善이 다시 편집해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권하의 말미에는 중국의 장로선사長蘆禪寺에서 간행 시에 오문비구吳門比丘 영중永中이 쓴 후기가 그대로 복각되어 있어, 이 책이 중국본을 저본으로 고려에서 중간한 복각본覆刻本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석산 우곤錫山尤袞의 계송이 실려 있으며, 또한 중집자重集者인 정선淨善의 후서가 실려 있다. 권말 부분에는 고려 말 승려 환암幻菴이 1378년에 연회암宴晦菴에서 쓴 발문과 간행 기록이 있어 1378년에 승려 상위尙偉와 만회万恢가 우바새優婆塞(삼보에 귀의한 남자 불자) 고식기와 우바이優婆夷(삼보에 귀의한 여자 불자) 최성연의 시주로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 대성암본과 동일한 판본이 이미 보물 제700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데, 이 책 역시 판각술이 정교하고 인쇄상태가 선명하여 보물급 가치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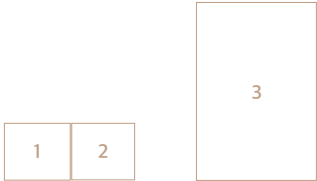


## 양주 송암사 육경합부

楊州 松巖寺 六經合部

조선시대(1460년)  
1종 1책  
26.3×17.2cm  
종이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550번길 346-11

지정일: 2015.04.27  
소유자: 송암사  
관리자: 송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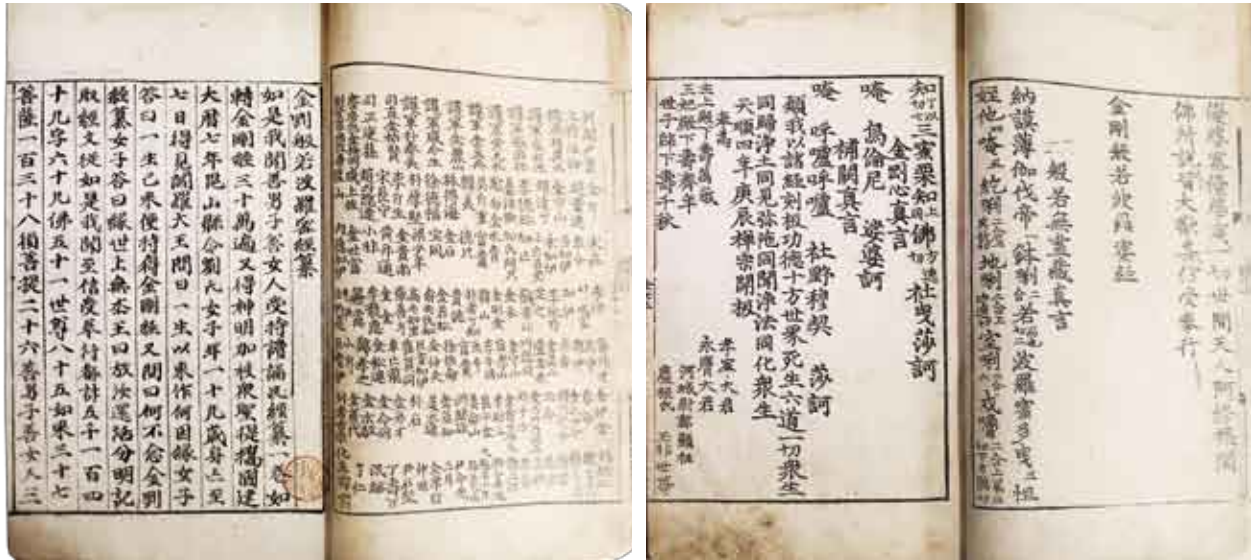
1. 금강반야바라밀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권말 간행기록,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권수 금강경 변상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육경합부』는 조선초기에 널리 독송되었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대불정수릉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관세음보살에문觀世音菩薩禮文』,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등 여섯 가지 경전을 묶어서 간행한 책이다.

『육경합부』는 15세기에 성달생成達生(1376~1444)의 안심사본을 저본으로 삼아 번각되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현재까지 1440년(세종22) 영제암, 1445년(세종27) 청원사, 1460년(세조6) 선종, 1462년(세조8) 고산 화암사 등 20여 차례 번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주 송암사 소장 육경합부 역시 1424년 완주군 안심사에서 성달생의 필사한 판하본板下本을 새긴 『육경합부』 목판본이다.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사주단변四周單邊에 계선이 없고, 반엽半葉에 8행 17자씩 배열되어 있으며, 표지는 후대에 개장하였다.

성달생은 1402년(태종2) 조선시대 처음으로 실시된 무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무인으로 당시 명필로 소문난 사람이며 사육신 성삼문의 조부이다. 그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이외에도 법화경을 필사한 것도 전래되고 있다.

양주 송암사 소장 『육경합부』는 『금강경』 권말에 ‘친순4년경진선종개관天順四年庚辰禪宗開板’이란 간기가 있어 1460년에 선종도회소禪宗都會所가 개설되어 있던 흥천사興天寺에서 개관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간기 아래부분에는 주상전하와 왕실의 안녕을 축원하는 효령대군孝寧大君과 영응대군永膺大君 그리고 세조의 둘째딸 의숙공주懿淑公主의 남편 하성위 정현조河城尉鄭顯祖 등 발원 시주자가 차례로 기록되어 있어 왕실의 지원으로 판각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권수에는 금강경 변상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새김이 정교하고 완결이 없는 상태로 보아 초간본初刊本으로 추정된다.





## 포천 대구서씨 백자묘지 및 석함

抱川 大丘徐氏 白磁墓誌 및 石函

조선시대  
6건 59점  
서고묘지석 10매 23.4×18.0×1.7cm 내외  
서성묘지석 13매 27×17.2×1.6cm 내외  
서종급묘지석 10매 19×14.×1.4cm 내외  
서명인묘지석 3매, 16.1×15×1.5cm 내외  
서매수묘지석 22매 17.7×17.8×1.5cm 내외  
석함 (지판) 43.5×53.5×17.5cm  
(천판) 46.5×56.5×11cm  
도자기(백자), 석재(화강암)  
포천시 호국로883번길 9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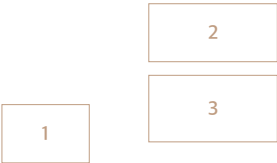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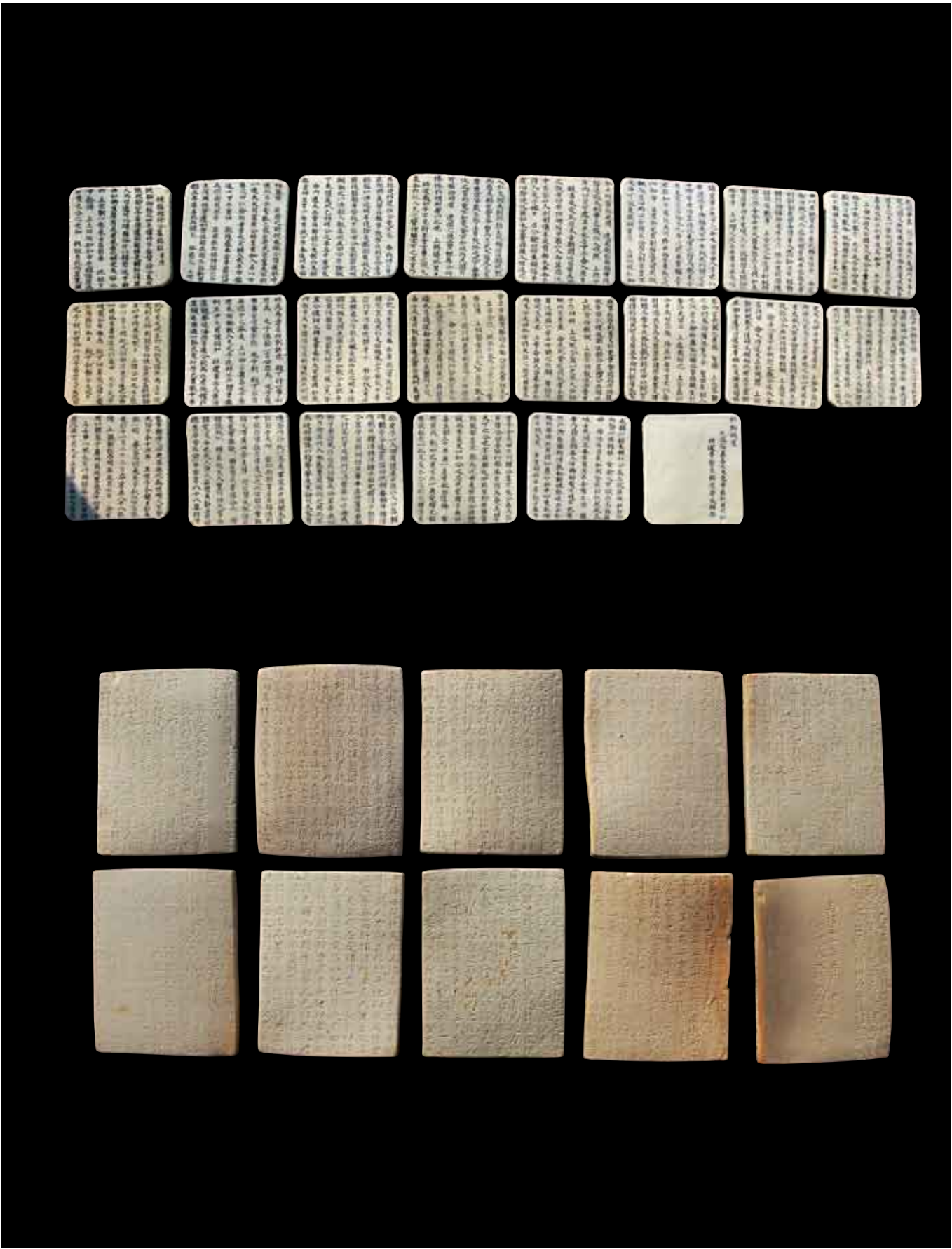
지정일 : 2015.11.25  
소유자 : 서동성  
관리자 : 서동성

<포천 대구서씨 백자묘지 및 석함> 일괄은 백자묘지 5건 58점, 석함 1점으로 구성되며, 종중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개장하는 과정에서 수습된 것이다. 묘지는 죽은 사람의 행적과 자손의 이름, 묘지墓地의 장소, 나고 죽은 때 등을 기록한 글로 사기판沙器板에 적거나 돌에 새긴 것이다.

백자묘지의 주인공은 서고徐固(1489~1550), 서성徐湑(1558~1631), 서종급徐宗偈(1668~1762), 서명인徐命仁(1707~1780), 서매수徐邁修(1731~1818) 등 5인이다. 한 집안에서 약 3세기에 이르는 시기별 묘지석이 전하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로 조선중기(명종)부터 조선후기(고종)까지 대구서씨 집안의 업적과 문화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묘지 각각의 지문誌文에는 제작연대와 찬자撰者, 서자書者, 추기자追記者가 밝혀져 있는데 그 중 서고의 백자음각묘지는 당대 명필이자 종중의 사위인 송인宋寅(1516~1584)의 필적이다. 송인은 조선중기 왕법王法으로 복귀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조선전기 이래 유행한 조선화된 송설체松雪體를 이은 인물로 당대의 필적이 비교적 희귀하다. 조선시대 서예사에서 주목되는 인물인 송인의 필적이 조선전기 백자묘지에 새겨져 있는 사례는 더욱 보기 드물다.

대구 서씨 문중의 5건의 백자묘지는 음각陰刻·철화鐵花·청화靑華로 제작되어 조선시대 16세기 중엽에서 19세기 후반까지 각 시기별 다양한 백자묘지 제작기법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도자사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대구서씨 인물 중 서고, 서명인, 서매수 등은 이 묘지 외의 문헌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1. 서고의 묘지석 석함,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서매수 백자청화묘지석(1872) 22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서고의 백자음각묘지석(1551) 10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 효명세자 예찰

孝明世子 睿札

조선시대  
8통  
33.7×47.8cm, 23.3×43.8cm  
22.3×42.9cm, 29.6×43.5cm  
31.5×43.4cm, 27×41.1cm  
32.5×43.6cm, 20.2×38.1cm  
종이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5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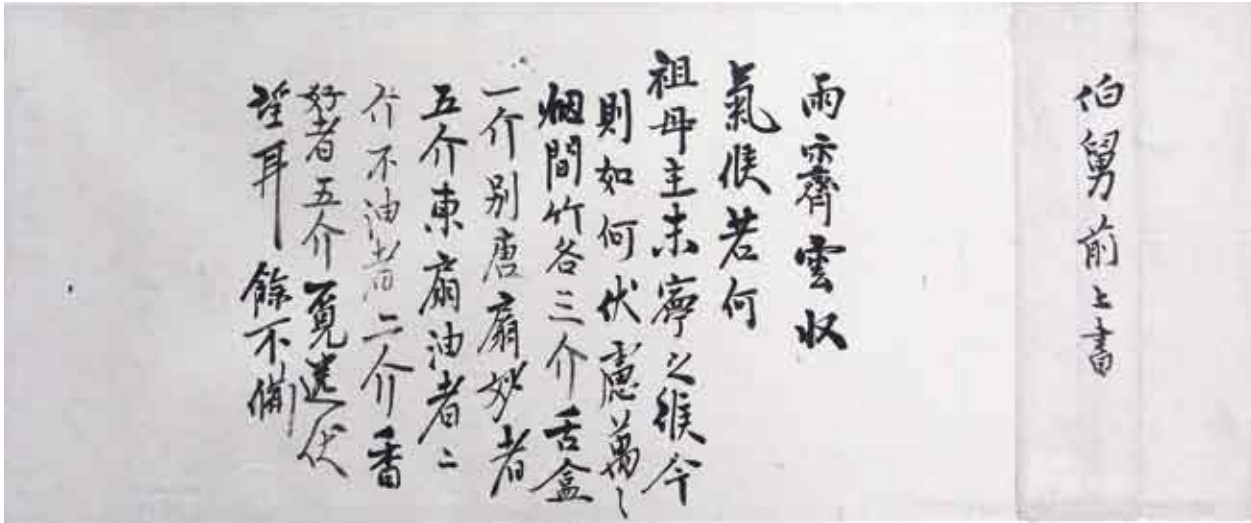
지정일 : 2016.05.04

소유자 : 양평군

관리자 : 양평군

	2
	3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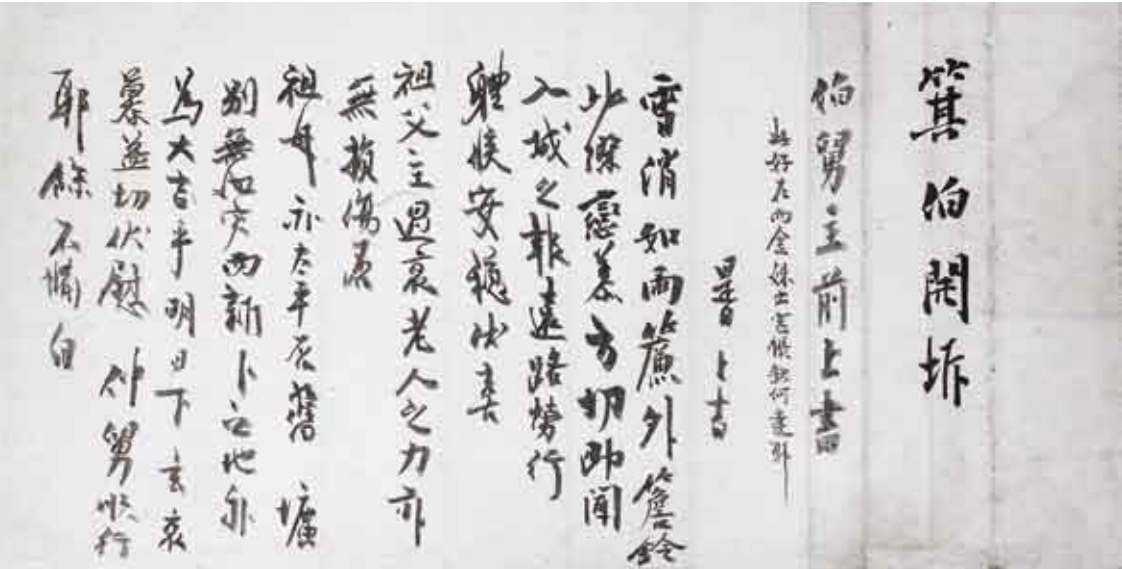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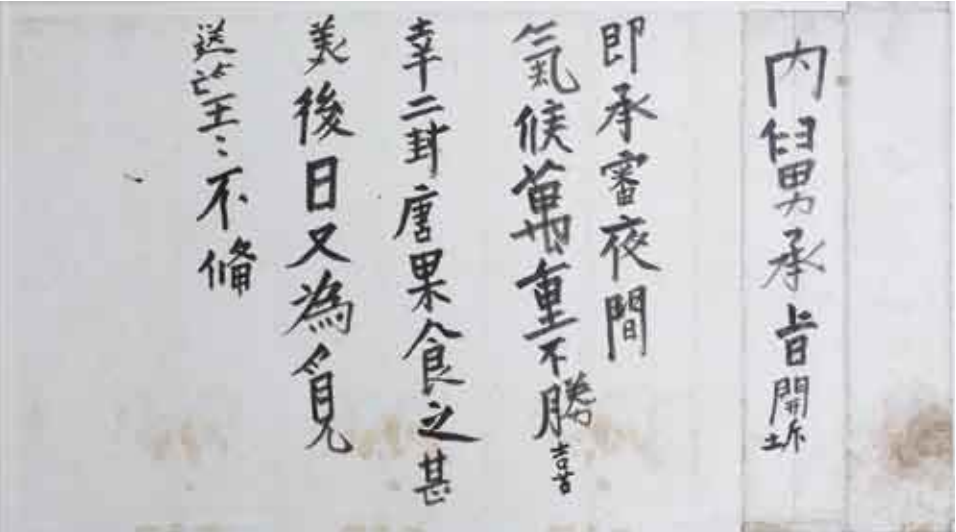
1. 효명세자 예찰(시기미상), 2015. 경기도
2. 효명세자 예찰(1814~1819), 2015. 경기도
3. 효명세자 예찰(1824.9 이후), 2015. 경기도
4. 효명세자 예찰(1827.4.27), 2015. 경기도



<효명세자 예찰>은 효명세자 이영孝明世子李甠(1809~1830)이 큰 외숙부 황산 김유근黃山金道根(1785~1840)에게 보낸 8통의 편지이다.

효명세자는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의 맏아들로 1812년(순조12) 7월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819년(순조19) 10월 풍양조씨 영돈령부사 조만영趙萬永의 딸과 가례를 치렀다. 1827년(순조27) 2월부터 왕명으로 대리청정을 하던 중 1830년(순조30) 5월 6일 묘시 병사했다. 시호는 효명孝明이며 묘호廟號는 문호文祐, 묘호墓號는 연경延慶이다. 뒤에 아들 헌종이 즉위하면서 익종翼宗으로 추존되었다.

효명세자 예찰은 2008년 양평의 안동김씨 문정공파文正公派 후손으로부터 기증된 가전家傳 유물의 일부이다. 기증 당시의 간찰簡札과 각각의 피봉皮封을 최근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 배접緝接하였다. 수신자가 큰외삼촌 황산 김유근으로 정확하게 밝혀져 있다는 점, 효명세자가 유년시절부터 청년시절까지 여러 시기 걸쳐 쓴 간찰이란 점에서 조선시대 왕세자의 간찰로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서체의 조형적 측면에서도 효명세자의 유년시절부터 청년기까지 필체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의식변화와 성장기질의 성숙과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어필 중 이런 사례는 정조가 동궁시절에 쓴 편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 광주 수도사 목조보살좌상

廣州 修道寺 木造菩薩坐像

조선시대  
1구  
72×45cm  
목재  
광주시 도척면 방도길66번길 148-77

지정일 : 2016.07.22  
소유자 : 수도사  
관리자 : 수도사



1. 광주 수도사 목조보살좌상 측면, 2016. 경기도
2. 목조보살좌상 뒷면, 2016. 경기도
3. 목조보살좌상 복장물, 2002. 경기도
4. 목조보살좌상,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광주 수도사 목조보살좌상>은 광주 수도사 대웅전 내에 있는 우협시 보살로서 양식상 전형적인 조선시대 불상이다. 목조보살좌상은 결가부좌한 자세이고, 얼굴에 비하여 신체가 약간 작은 편이다. 보살상은 오른손은 어깨까지 올려 엄지와 중지를 안쪽으로 구부리고 왼손을 배꼽 높이까지 자연스럽게 올려 뚜껑이 있는 정병淨瓶을 쥐고 있다. 보살상은 조선전기에 제작된 불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머리와 상체를 곧게 세웠다. 이는 17세기 중반 이후에 제작된 불상이 머리를 약간 앞으로 내려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머리에는 연당초문蓮唐草文을 빼곡히 새긴 금속판으로 만든 보관寶冠을 쓰고, 정수리 부분에 각이진 보발寶髻를 따로 만들어 끼웠다. 계란형의 얼굴에 눈꼬리가 많이 올라간 눈, 삼각형의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인중이 완만한 곡선이다. 끝이 뾰족한 형태는 조선전기에 만들어진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보살상은 대의 안쪽에는 편삼을 입고 있다. 오른쪽 어깨 대의자락 끝단이 거드랑이까지 짧게 늘어져있고, 나머지 대의자락이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복부에서 완만하게 펼쳐지고, 그 옆으로 옷주름이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다. 하반신의 대의 처리는 1610년에 조각승 인일仁日이 만든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791호)과 유사하다. 불상 측면은 어깨선을 따라 폭이 넓은 옷주름이 팔뚝까지 늘어져 있다. 불상 뒷면은 목둘레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옷자락이 엉덩이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가슴을 덮은 승각기僧脚崎는 수평으로 묶어 상단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접혀 있고, 묶은 끈이 간략하게 새겼다.

복장물은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지만, 2002년 불상을 개금할 때 촬영된 사진에 조성발원문, 후령통, 경전 등이 확인되는데, 조성발원문에 ‘...畫員○日比丘」處○比丘...萬曆三十...二十五日’의 내용이 보여 만력 30~39년(1602~1611)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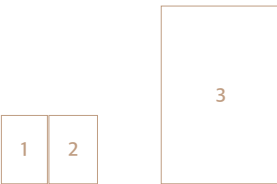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09호

## 성남 봉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城南 奉國寺 木造阿彌陀如來座像

조선시대  
1구  
112×78.5cm  
목재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79

지정일 : 2016.07.22  
소유자 : 봉국사  
관리자 : 봉국사



1. 성남 봉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측면, 2015. 성남시  
2.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배면, 2015. 성남시  
3.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정면, 2015. 성남시

<성남 봉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영장산靈長山 봉국사 대광명전에 봉안되어 있는 중형 불상이다. 결가부좌한 자세에 오른손은 어깨 높이까지, 왼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두고, 엄지와 중지를 구부린 전형적인 조선 후기 통인通印을 취하고 있다. 불상은 상체를 뒤로 하고, 얼굴은 앞으로 약간 내밀고 있다. 머리에는 뽕족한 나발螺髮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肉髻가,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앙계주中央髻珠와 정수리 부위에 낮은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가 표현되었다. 방형方形의 얼굴에 가늘게 뜬 눈, 원통형의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을 가지고 있어 전형적인 17세기 전반 불상의 인상을 준다. 착의법은 대의 안쪽에 편삼偏衫을 입고, 오른쪽 어깨에 수직으로 한 가닥의 옷자락이 가슴까지 길게 늘어져 옆으로 펼쳐져 있다. 나머지 대의자락은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복부에서 수직으로 한 가닥이 늘어져 끝부분이 역삼각형으로 처리되었다. 대의처리에는 조각승 수연이 제작한 1619년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1634년 익산 승림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 등에서 나타나는 요소이다. 불상의 측면은 어깨선을 따라 한 가닥의 옷 주름이 수직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불상 뒷면은 목둘레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옷자락이 대좌 위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가슴을 덮은 승각기僧脚崎는 수평으로 묶어 상단이 연판형蓮瓣形으로 접혀있다. 왼쪽 무릎 위에는 소매자락이 나뭇잎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제작시기와 작가를 알 수 있는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조각승 수연守衍이 제작한 불상과 유사하여 1620~1630년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성남 봉국사 아미타불회도

城南 奉國寺 阿彌陀佛會圖

조선시대(1873년)  
1점  
176×216.5cm  
비단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지정일 : 2016.07.22  
소유자 : 봉국사  
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성남 봉국사 아미타불회도>는 영장산靈長山 봉국사 대광명전 후 불화로 봉안되어 있는 불화이다. 이 아미타불회도는 횡으로 긴 화면 중앙에 증품중생인中品中生印을 결하고 불단 위에 아미타부처가 결가부좌하고 있으며, 좌우에는 각 3명씩 6명의 보살을 배치하였다. 이 중 존명尊名을 알 수 있는 보살은 민머리에 석장을 든 지장보살地藏菩薩뿐이며, 그 외에는 존상의 형상이 명확하지 않아 존명을 알 수 없다. 이처럼 불화에서 주존 혹은 협시보살의 모습이 불명확해지는 경향은 19세기 불화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 경우 화기畵記는 봉안 위치와 의례적儀禮的 용도用度만을 의미하는 상단탱上段幀으로 기록한다. 이 아미타불회도 역시 화기에 상단탱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아미타부처의 광배 뒤로는 아난존자와 가섭존자가, 그 옆으로 십대제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경전을 보거나 호랑이와 과일을 들고 있다.

불화 상단의 가장자리 왼쪽에는 코끼리관을 쓴 야차夜叉가 오른쪽에는 사자관을 쓴 건달바乾闥婆를 배치하였다. 이들 위에 빈 공간에는 청색·백색·녹색·황색 등을 반복 배치하여 구불구불한 화염문을 그렸다. 한편 화면 하단에는 검·비파·탑, 여의주 등을 든 사천왕四天王이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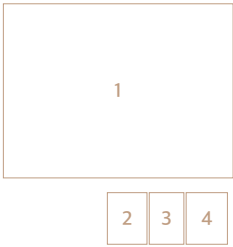
화면 중앙에 증품중생인中品中生印을 결하고 연화대좌에 결가부좌한 아미타부처는 가름한 턱에 이목구비가 작은 편이다. 녹색으로 채워진 두광과 금색으로 칠해진 신광은 이중운광이다.

비단 바탕에 붉은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백색과 황색, 그리고 채도가 높은 청색을 보조색으로 하여 화면이 탁하다.

이 불화는 하단 좌우에 기록된 화기畵記에 의하면, 1873년에 삼각산三角山 흥천사興天寺에서 만들어 봉국사에 봉안하였다. 화승畵僧은 덕운德雲巨胤·창송 초연蒼松楚演·장전壯典·보형普亨 등 12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제작하였으며, 시주자施主者는 상궁尙宮 이씨 등이 등장하고 있어 왕실후원 작품임을 알 수 있다.



- ① 아미타불
- ② 지장보살
- ③ 사천왕
- ④ 건달바
- ⑤ 야차
- ⑥ 십대제자(추정)



- 2
- 3
- 4

1. 성남 봉국사 아미타불회도, 2015. 성남시
2. 사자관을 쓴 건달바, 2015. 성남시
3. 코끼리관을 쓴 야차, 2015. 성남시
4. 지장보살, 2015. 성남시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11호

## 용인 법륜사 목불좌상

龍仁 法輪寺 木佛坐像

조선시대  
1구  
35.5×21.5cm  
목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126

지정일：2017.06.14  
소유자：법륜사  
관리자：법륜사

<용인 법륜사 목불좌상>은 불상의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 발원문에 의해 17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저명한 조각승 현진玄眞의 작품으로 밝혀져 임진왜란 직후의 소형 불상의 제작 흐름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현진은 1612년(광해군4)부터 1637년(인조15)에 걸쳐 주로 경상북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전라도, 충청도 등 전국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상은 넓적한 얼굴과 넓고 각진 턱에 순박한 표정, 당당한 어깨와 중량감 있는 신체 조형, 특징적인 대의 자락 처리 등에서 ‘현진파 불상’ 특유의 양식을 보여준다. 날카로운 나발로 덮인 머리에는 중앙계주와 정상계주가 뚜렷하지만, 육계는 매우 커서 머리와 구별되지 않는다. 특히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내린 옷자락이 복부 중앙에서 대의에 삽입되는 점, 왼쪽 어깨에서 길게 내려오다 예각으로 꺾이는 옷주름 표현은 현진파 불상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턱선이 좀 더 둥글게 변하였고 얼굴표정이 부드러워진 점, 그리고 왼쪽 어깨의 대의 주름도 뒤쪽 무늬가 간략하게 변화한 점에서 시대적인 변화상이 느껴진다. 이러한 얼굴표정과 수인, 세부 형식 등에 비추어 청도靑道 적천사磧川寺 대웅전의 목불좌상(1636)과 법륜사목불좌상은 매우 흡사하다.

1 2

1. 용인 법륜사 목불좌상 전면,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법륜사 목불좌상 후면,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12호

## 지장보살본원경 상·중·하

地藏菩薩本願經 上·中·下

조선시대(1612년)  
3권 1책  
32.0×22.1cm  
종이(단종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령로 204

지정일：2017.06.14  
소유자：백령사  
관리자：백령사

『지장보살본원경』은 부처님이 도리천切利天에서 어머니 마야부인 摩耶夫人을 위하여 설법한 것을 모은 경전으로 제1품 도리천궁신통품切利天宮神通品과 제2품 분신집회품分身集會品 등 총13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장보살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과 죄를 짓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까지도 평등하게 구제하고 해탈하게 하려는 큰 뜻을 세우는 내용, 부모나 조상들을 지옥으로부터 천도하여 극락에 왕생하도록 하는 공덕, 지옥의 여러 가지 모습 등이 있다. 이 경전은 지옥의 고통을 파하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이익적인 공덕 불경으로 왕실에서도 수차 간행되었으며, 민간을 중심으로 전국 사찰에서 30회 이상에 이르는 수많은 판본이 개판開板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나라 때의 법등法燈이 한역한 3권본이 널리 유통되고 있는데, 이 지장보살본원경 역시 법등이 한역한 것을 저본으로, 1612년 전라도 순천 조계산 송광사에서 권인勸引을 맡은 담현曇玄이 주관하여 각수刻手 정보正普가 판각한 것이다. 각권의 말미에는 석음釋音이 부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474년 왕실의 원찰인 견성사見性寺(현재 봉은사)에서 간행된 판본을 저본으로 복각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송광사판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없고 반엽을 기준으로 행자수行字數는 8행16자로 배치되어 있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흑어미黑魚尾 상하로 내향하고 있고 그 사이에 판심제 ‘지地’와 권차, 장수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표지는 새로 개장改裝하였으나 새 표지 안에 원래 상태의 표지도 들어있다. 권수에 있는 변상도는 송광사판과는 판형의 크기가 매우 다른 것으로 보아, 개장하면서 다른 불경 판본에 있었던 변상도를 가져다가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1  
2 3 4

1. 지장보살본원경 표지, 2016. 용인 백령사
2. 권상 제1품 도리천궁신통품, 2016. 용인 백령사
3. 권하 말미의 석음, 2016. 용인 백령사
4. 권수에 있는 변상도, 2016. 용인 백령사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13호

## 묘법연화경 권3~4

妙法蓮華經 卷3~4

조선시대  
1책  
33.3×21.5cm  
종이(단종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령로 204

지정일：2017.06.14  
소유자：백령사  
관리자：백령사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의 40년 설법을 집약한 경전이다. 이 판본은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계열의 번각본이다. 구결口訣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열람 또는 학습용도의 개인소장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7권 중에서 권3-4의 1책이다. 권3의 본문이 끝난 뒤(제68장)에는 간행사실, 참여자, 시주질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만력원년 계유년(선조6, 1573) 2월에 충청도 서천남면 계산雞山の 조귀창趙貴唱과 정돌시丁丕屎 집에서 간행한 뒤 목판은 인근 은진의 불명산 쌍사雙寺(双溪寺)에 옮겨 두었다고 한다. 이러한 간행방식은 이보다 4년 전인 1569년 2월에 간행되어 현재 갑사에 전하는 『월인석보목판月印釋譜木板』(보물 제582호)의 간행방식과 흡사하다. 이렇게 사찰에서 직접 간행하지 않고, 민간에 의뢰하여 간행하는 방식은 당시 이 사찰의 간행방식이었다.

간행목적은 ‘대왕대비, 왕과 세자의 만수무강과 국태민안’을 바란 것이었다. 당시 시주자는 주민으로 보이는 근 200여 부부와 승려들이 참여하였으며, 대표적인 인물은 통정대부첨절제사 김륜金輪의 처인 최씨崔氏였다. 시주질로 보아 생산 활동을 하는 지역민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간행은 승려 성희省熙의 주도아래 연판은 인정印正 등, 교정은 학경學瓊 등, 지사持寺는 상경上岡 등, 판각은 지현智軒 등이 맡았다. 그런데 권4의 말미에 목서된 인출기에 따르면, 이 판본은 경진년(1580) 5월에 화사化士 상경上岡 등의 주도로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승려 상경은 간행할 때는 지사, 인경할 때는 화사로 참여하는 등 이 판본의 간행과 인경의 주역이었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14호

## 연사일록과 한글 연행록

燕槎日錄과 한글 燕行錄

조선시대(1858년)  
연사일록 3권2책,  
한글연행록 3권2책  
연사일록 33.8×24×1.5cm  
한글연행록 35.7×23.8×2cm  
종이  
의왕시 골우물길 49

지정일：2017.06.14  
소유자：의왕시  
관리자：의왕시

『연행록』은 조선이 중국에 공식사절단인 동지사冬至使로 파견한 사신들과 수행원들이 남긴 기행문이다.

연행 당시 중국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조사한 모든 것을 담고 있어 조선시대 사람들의 중국관과 다양한 삶의 모습은 물론 역사문화를 가장 현장감 있게 전해주는 기록물이다. 연사일록과 한글 연행록은 1858년(철종9) 10월 26일부터 이듬해 3월 20일까지 동지사의 서장 관書狀官으로 동행한 품산品山 김직연金直淵(1811~1884)이 한문과 한글로 기록한 각각 3권 2책의 아주 희귀한 기행문이다. 한글 연행록으로서는 국내에서 5번째로 발견된 것이면서 현존하는 마지막 사행使行기록이다.

당시 동지사로는 정사正使인 이근우李根友(1801~1872)를 비롯해 310명으로 구성된 사신단으로 꾸려졌다. 서장관 김직연은 대궐을 떠나 중국 연경에 이르는 과정과 연경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사행목적 을 완수하고 떠나기 전날까지의 상황, 귀국해 복명復命하기까지의 과정 등을 한글과 한문으로 상세하게 기술했다. 동일한 작자가 한글 본과 한문본을 동시에 작성했다는 점에서 번역사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한글을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한글 연행록은 허목許穆의 『죽천행록』(1624~1625), 홍대용洪大容의 『을병연행록』(1765~1766), 이계호李繼祐의 『연행록』(1793), 서유문徐有聞의 『무오연행록』(1798), 김지수金芝叟의 『서형록西行錄』(1828), 서염순徐念淳의 『임자연형별곡壬子燕行別曲』(1852), 유인목柳寅睦의 『북형가北行歌』(1866), 홍순학洪淳學의 『병인연형가燕行歌』(1866) 등이 있다.

### 1 2 3

- 권3 권두,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권3말 간행기록,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권4말 목서된 인출기,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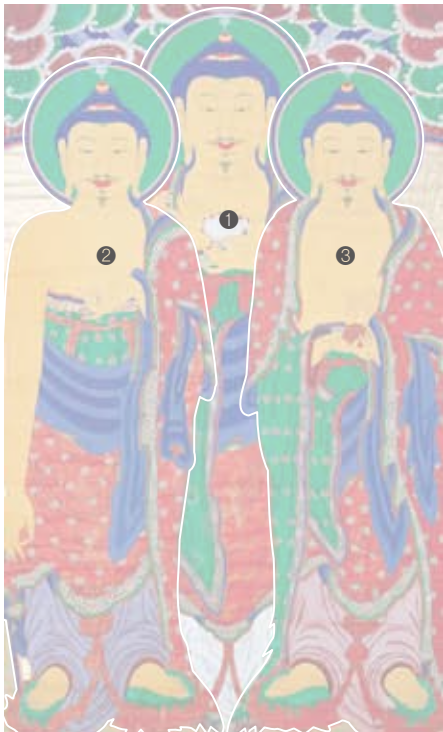


## 남양주 불암사 괘불도

南楊州 佛巖寺 掛佛圖

조선시대(1895년)  
1점  
579×346.2cm  
모시  
남양주시 불암산군 190

지정일 : 2017.06.14  
소유자 : 불암사  
관리자 : 불암사



① 석가모니불  
② 아미타불  
③ 약사불

〈남양주 불암사 괘불도〉는 1895년(고종32) 11월 25일 점안點眼하고 12월 1일 봉안된 불화로, 마본麻本 바탕 위에 석가여래, 약사여래, 아미타여래 세 분을 서 있는 자세로 그린 단순한 구성을 보여준다. 중앙에 연꽃을 들고 있는 석가여래 도상은 불법의 전승을 경전이나 교리보다 ‘불립문자不立文字’, ‘이심전신以心傳心’에 둔 염화미소拈華微笑의 가르침을 상징한다. 염화불을 중심으로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구성은 사바세계의 교주인 석가모니불, 서방극락정토의 교주인 아미타불, 동방약사유리광세계의 약사불로서 불세계佛世界를 공간적으로 인식했던 경향을 드러낸다.

이 괘불도는 금곡 영환金谷 永煥을 수화승으로 한봉 창엽, 덕월 응륜, 경선 응석, 금성 성전, 용담 규상 등 총 15인의 화승이 함께 그렸다. 영환은 왕실의 후원을 받아 1858년(철종9) 남양주 홍국사 괘불도를 비롯하여 경국사(1878), 봉국사(1892) 괘불도를 그리는 등 19세기 후반 양주와 남양주 등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경기지역 불교 화단을 대표하는 불화승이었다.

복장낭腹藏囊에 있던 발원문에 의하면 갑인생 엄씨(1903년 황귀비로 추대)와 임인생 강씨가 왕의 명을 받들어 대시주자로 참여하였다. 왕(고종)과 왕세자, 왕세자비의 안위와 장수, 대원군의 안위, 그리고 명성황후의 극락왕생을 빌고 나라의 안녕과 만민의 안락, 그리고 불법의 흥포와 더불어 속히 성불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엄씨는 영친왕을 낳고 황귀비의 지위에 이르렀던 인물로서,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등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국가적 위기 가운데 고종의 최측근이었다.

이 괘불도는 19세기 말 왕실의 후원을 받아 경기지역의 화승들에 의해 제작되어 당시 수도권 불화의 제작 경향을 잘 보여주는 의식용 불화이다. 또한 명성황후의 시해와 아관파천 등 불심에 의지하여 타개하고자 했던 왕실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어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크다. 전체적으로 안정된 구도와 적절한 비례, 선명한 색감을 보여주어 19세기 후반 경기지역 불교화단을 이끌었던 영환의 화풍을 잘 보여주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남양주 불암사 괘불도, 촬영일미상\_성보문화재연구원



## 한천두 위성공신 교서 및 초상

韓天斗 衛星功臣 敎書 및 肖像

조선시대(1613년)  
교서 1권, 초상화 1점  
초상 183.5×107.5cm  
교서 36.0×158.5cm  
비단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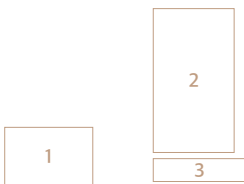
지정일 : 2017.08.08  
소유자 : 한상현  
관리자 : 한상현

한천두韓天斗(1563~1649)는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추경樞卿으로 임진왜란 당시 광해군을 호종한 공으로 위성공신衛星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자신을 호종한 신하들을 녹훈하기 위해 수차례 공신도감에 명하였지만, 선조의 거부로 수용되지 못하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후인 1613년(광해군5)에 이루어졌다. 위성공신은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광해군이 폐위되자 삭훈되어 80명에 달하는 공신지정 수에 비해 현재까지 많은 유물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 초상은 보물 제1490호인 이성운 위성공신화상李誠胤 衛星功臣畫像과 함께 위성공신의 초상을 확인 할 수 있어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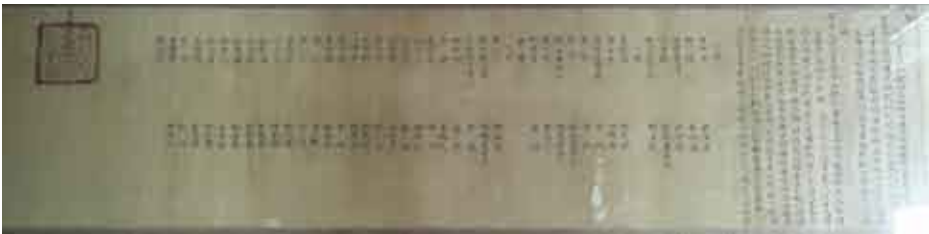
초상은 전반적으로 훼손이 심한 상태이지만, 화풍과 세부묘사를 살펴볼 수 있는 인물부분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사모와 단령은 입고 공수한 자세 및 교의와 의답椅踏, 채전의 구성과 묘사는 모두 이성운 초상과 같아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얼굴의 묘사 또한 선묘를 중심으로 담백하게 표현한 조선중기의 초상화법을 따르고 있다.

이 초상의 흉배는 회화성이 강조되어 주목된다. 소나무 아래를 걷는 모습의 호랑이를 묘사한 흉배는 기존의 도안화된 흉배 문양이 점차 회화적 요소로 변경되어가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호랑이와 소나무 등 세부표현이 명확하여 조선중기 호랑이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위성공신 교서는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위성공신의 내용과 구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리고 초상·교서와 더불어 한천두 본인과 부인 충원최씨忠原崔氏의 신주 2점도 함께 전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신주와 초상을 통한 제의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로 볼 수 있다.



1. 한천두 초상 흉배, 2016\_고양시  
2. 한천두 초상, 2016\_고양시  
3. 한천두 위성공신 교서, 2016\_고양시







— 2 —  
무형문화재



# 계명주(약계명주 포함)

鷄鳴酒(藥鷄鳴酒 包含)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로445번길 33-26

지정일 : 1987.02.12

보유자 : 최옥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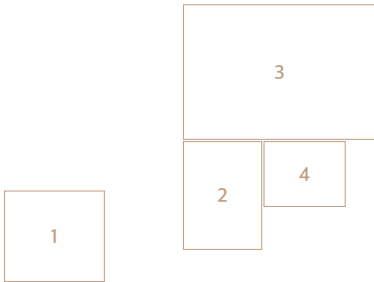
전수조교 : 이창수

<계명주>는 ‘저녁에 빚으면 다음날 새벽닭이 울 때까지는 다 익는다.’고 하여 붙여진 술 이름이다. 『동의보감』을 비롯하여 『임원십육지』에 ‘계명주’ 술 빚는 방법이 수록된 것으로 미루어, 이미 1500년대 이전부터 빚어 마셔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급하게 술을 빚을 필요가 있을 때 만들었던 속성주速成酒로 일일주一日酒, 삼일주三一酒, 계명주 등이 이에 속하고 일명 엿탁주라고도 한다.

계명주는 크게 누룩으로 빚는 일반적인 속성주법을 기본으로 엿기름이나 조청, 사탕을 넣어 당화를 촉진하는 방법과 효모를 이용한 속성주법 등 두 가지 주방문이 존재하며, 특별한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약재를 첨가한 ‘약계명주’가 빚어졌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현존하는 가양주 형태의 계명주가 남양주의 결성장씨 가문에 전해오고 있다. 전승 가양주로서 ‘남양주 계명주’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토속주로 결성장씨 집안의 11대 종손 장기항(62)씨의 모친이 1·4후퇴 때 기일록畧日錄만 품고 피난 온 후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터를 닦게 되었는데 종부인 며느리 최옥근(57)씨에게 대대로 간직해온 계명주 빚는 제법을 전수해 준 뒤 80세로 타계했다. 이후 1987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되었고, 1996년 4월에는 농림부의 명인名人 지정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계명주의 독특한 맛을 내는 제조 공정은 재료로 찹쌀이나 멥쌀을 쓰지 않고 고구려인들의 주식이었던 옥수수·수수 등 잡곡을 사용하고 은근히 끓이는데 있다. 일반 곡주가 고두밥으로 밑술을 만드는 것과 달리 조청(엿)과 엿기름을 사용, 죽을 쑀어 빚고 누룩을 조청에 담가 골고루 스며들도록 6~7일간 묵혀둔다. 그 사이에 옥수수·수수를 적절히 섞어 10~12시간 정도 불려 멧돌에 갈고 물을 3배가량 붓고 엿기름을 넣은 뒤 가마솥에서 은근히 끓이고 거른다. 자루로 걸러낸 술 원료를 차게 식힌 뒤 조청에 밴 누룩과 술잎을 배합시켜 항아리에 넣은 다음 섭씨 25~28도의 실내에서 여드레 동안 발효시켜 걸러내면 노르스름하고 맑은 알코올 함량 11%의 계명주가 제조된다.



1. 계명주\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최옥근\_보유자 제공
3. 보유자 작업 모습(누룩 준비)\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4. 보유자 작업 모습(재료 가열)\_보유자 제공



[ 계명주 빚는 순서 ]

- ① 법제한 누룩가루를 조청에 담가 불린다.
- ② 수수와 옥수수를 냉수에 침지하여 불린다.
- ③ 불린 수수와 옥수수를 멧돌에 갈아 가마솥에 넣고, 여기에 엿질금과 물을 부어 은근한 불에 죽을 써서 당화시킨다.
- ④ 식은 죽을 자루에 넣고 짜서 엿밥을 걸러낸다.
- ⑤ 차게 식힌 죽에 조청에 불린 누룩과 술잎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잘 섞은 후 술 항아리에 넣고 봉하여 약 28도 정도에서 발효시켜 거르면 약 11도의 계명주가 완성된다.



# 승무·살풀이춤

僧舞·살풀이춤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72

지정일 : 1991.10.19  
보유자 : 김복연  
전수조교 : 신현숙·최선라·이영훈

승무는 성직자의 길을 걸으며 얻게 되는 번민과 고뇌를 춤으로 승화시킨 무용으로, 불교적 색채가 강하고 가사袈裟와 장삼長衫을 걸치고 고깔을 착용한 채 춤을 추기 때문에 승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주된 춤사위가 살풀이춤과 유사하며, 춤의 형태도 완벽한 독무毒霧이다.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승무는 화성 재인청才人廳의 승무를 계승한 춤인데, 그 유래에 의하면 상좌上座가 스승의 병환을 낫게 하기 위해 승무를 추었고 스승의 병이 낫자 절을 떠났다고 한다. 그래서 재인청 류의 승무에서는 북놀이 과장을 끝내고 고깔과 장삼을 벗어 북에 걸친 후 떠나는 춤사위가 포함되어 있다.

살풀이춤은 무속음악 중 ‘살풀이’라는 남도 무악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이다. 원래 무당들이 신을 접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었으나, 훗날 광대나 기생들에 의해 교방예술로 변형되었다. 흰저고리, 흰치마, 버선 그리고 웃고름이 늘어진 의상을 입고 하얀 수건을 쥐고 춤을 추는 것이 특징적이다.

재인청 류의 승무는 정조의 행궁이었던 화녕전의 풍화당 내 재인청에서 계승된 것으로 조선 말 도대방都大房을 역임한 이동안李東安(1906~1995)의 세습무를 거쳐 옥당 정경파玉堂 鄭慶波로 이어졌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승무·살풀이춤은 1991년 정경파가 보유자로 지정되어 맥을 이어오다 2000년 작고하였고, 그에게서 재인청 기본무, 승무·살풀이품, 진쇠무, 신칼대신무 등의 기예를 20여 년간 사사하였던 김복연이 2002년 보유자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른다. 보유자 김복연은 ‘재인청 활성화’라는 스승의 유업을 받들어 2003년 재단법인 ‘화성재인청보존회’를 설립하여 재인청 관련 자료정리와 원형복원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전수조교 신현숙이 단장을 맡고 있는 ‘화성재인청무용단’은 기악, 민요, 사물 등을 전수, 보존하는 작업을 통하여 보유자의 평생 과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1. 보유자 김복연(승무), 2006. 수원시 \_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경기무형문화재 대축제 승무 공연, 2016 \_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3. 경기무형문화재 대축제 살풀이 공연, 2016 \_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4. 보유자 김복연(살풀이),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 방자유기장

方字鑪器匠

군포시 군포로 8

지정일 : 1992.06.05  
보유자 : 김문익  
전수조교 : 이춘복

방자유기는 불에 녹여낸 합금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어내는 유기를 말하며, 구리와 주석을 78:22로 합금하여 만든다. 이 비율이 0.01%라도 틀리거나 아연이나 다른 합금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두드리는 과정에서 터져버린다. 방자는 징과 팽과리 같은 타악기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며 손으로 만져도 손자국이 나지 않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식기류 전반에 쓰인다.

방자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혼자서는 제작할 수 없고 6명이 한조를 이루어야 한다. 한사람은 화로에 바람을 넣어주는 풍금을 잡고, 한사람은 쇠를 다시 불에 달군다. 한사람이 달군 쇠를 집게로 잡으면서, 세 사람이 망치를 들고 차례로 내려친다. 어떤 고정된 틀이나 보조기구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보유자 김문익은 12살 때 유기장 최두건 공방에 입문하여 13년간 기술을 연마했다. 이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이봉주가 운영하는 공예사에서 17년간 일하며 평안북도 정주의 납청방자인 양대良大(큰 놋그릇)유기 제작기법을 익혔다.

김문익의 기술은 풍물용 악기 제작에 특화되어 있다. 적정량의 합금이 악기의 소리를 만드는데 중요한데, 그는 악기를 만들 때 구리 3kg에 주석 8.25kg으로 주석의 함유량을 높이고 소량의 금金, 은銀을 섞어 사용한다. 또한 김문익은 징과 같은 타악기를 만들 때 적정소리를 잘 나오게 하는 세밀한 과정인 '울음깨기'에 탁월하다. 김문익의 작품은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이는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그가 만든 징과 팽과리를 오랫동안 사용했던 사실로 뒷받침된다.

1  
2 3

1. 세수대야,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작업 모습, 2003\_군포시
3. 보유자 김문식, 2014\_보유자 제공



## 조선장

造船匠

하남시 신장로154번길 6

지정일 : 1993.10.30  
보유자 : 김귀성

조선장은 우리 전통 배인 한선韓船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한선의 경우 큰 배는 2~3명, 작은 배는 1~2명이 배의 종류에 따라 일주일에서 한 달씩 걸려 제작한다. 조선장에게는 배의 구조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건축공학적 기술도 요구된다. 또한 수많은 부재를 짜 맞추어 견고한 목구조물인 배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필요하고 경험도 풍부해야 한다.

한선 중, 강에서 운행하는 배를 강선江船이라 한다. 강선은 바다를 운행했던 병선兵船과 조운선漕運船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강에 잘 맞게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강선은 나룻터에서 강을 건널 때 사용하는 나룻배와 거룻배이다. 나룻배나 거룻배의 공통점은 돛대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돛을 사용하면 야거리배라고 했는데, 이 배는 바다와 육지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것으로 바다를 거쳐 강을 통해 내륙으로 진입하였다. 이 배는 바닥이 평평해서 강변의 모래밭에 그대로 앉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발달한 수로가 서울로 통하는 한강 수로였기 때문에, 한선 기술자, 그중에서도 강선 기술자들 대다수가 한강 유역에 살았다. 강선 제작기술은 한강 유역에서 발달했고, 그 기술의 맥은 근근이 근래까지 이어져왔다.

그러나 최근에 전통장인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고, 기능전수자는 드물어 거의 맥이 끊어질 정도이다. 8대째 조선과 나룻터 일에 종사하고 있는 조선장 보유자 김귀성이 전통한선 제작의 정통을 잇고 있다. 그는 팔당댐 밑인 하남 배알미동에서 살면서 부친 김용운 조선장에 게서 강선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양평 두물머리의 황포돛배를 비롯하여 서울, 경기 지역의 유람용, 전시용 한선은 대부분 김귀성이 제작했다.

1  
2 3

1. 황포돛배, 2016\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작업 모습\_보유자 제공
3. 보유자 김귀성\_보유자 제공





# 군포 당정 옥로주

軍浦堂井玉露酒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257

지정일 : 1993.10.30  
보유자 : 유민자  
전수조교 : 정재식

옥로주는 민속주의 하나로 증류식 소주다. 옥로주는 1880년경부터 충남 서산 유씨인 유성근柳盛根이 그의 부친을 따라 전북 남원 산동으로 이사하여 최초로 옥로 소주를 빚게 되었으며 그 후 1947년 초에 경남 하동의 양조장에서 유양기가 알코올 농도 30% 소주를 생산하면서 ‘옥로주’라는 상표를 붙였다. 술을 증류할 때 증기가 액화되어 마치 옥구슬 같은 이슬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옥로주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옥로주는 좋은 질의 지하수와 우리나라 재래종인 백미白米와 소맥小麥에다 특이하게 울무를 사용한다. 일반 누룩과는 다르게 밀과 울무를 누룩으로 사용한다. 분쇄한 밀 2말과 분쇄한 울무를 7되를 끓여서 식힌 용수에 반죽하여 약 3~5시간 정도 두었다가 여기에 마른 약쑥을 첨가하여 다시 반죽하여 성형하고 띄운다. 백미와 울무로 만든 고두밥 1되에 끓여서 식힌 양조용수 1사발과 누룩가루 4홉의 비율로 주모를 만든다. 그리고 50% 도정한 백미 한 말과 울무 한 말을 각각 시루에 찌서 만든 고두밥에 밀술 7되와 양조용수 2말을 배합하여 술덧을 담근다. 술덧의 온도를 20~30℃로 유지하며 약 10일간 발효시킨다. 발효숙성이 끝나면 소줏고리를 사용하여 증류하는데, 처음 증류한 것은 85도 이상이고 나중 것은 점차 도수가 낮아지므로 이를 합하여 40~45도가 되도록 조절한다. 원료 5말을 담금하여 증류하면 40도 소주 약 2말이 나온다. 술의 도수가 높기 때문에 완전하게 봉해 놓으면 영구히 저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래 저장할수록 술맛이 익어 더욱 좋다.

1. 옥로주, 2016\_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작업 모습(누룩 준비)\_ 보유자 제공
3. 보유자 작업 모습(제조 과정)\_ 보유자 제공
4. 보유자 작업 모습(증류 과정), 1998. 군포문화원



군포당정옥로주라는 명칭은 당초 기능 보유자 유양기가 지정 당시 군포시 당정동 양조장에서 술을 제조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의 사후에 큰딸 유민자가 제조 비법을 전수받아 양산화하였으며, 이후 기능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현재 양조장은 안산시 단원구(대부도)에 있으며, 보유자 유민자와 아들 정재식, 손자 정도영이 같이 술을 빚고 있다. 정재식씨는 술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다.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1998년부터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한국미술협회 판화분과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미술계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그러다 2013년 학교를 떠나 지금의 예도주가를 설립했다. 옥로주는 1996년 제1회 우리농수산물 대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1999년 경기도 명주선정품 평회에서 증류주 부문 최고의 경기명주로 선정됐다.



[ 군포 당정 옥로주 빚는 순서 ]

① 누룩을 만들어 준비한다. ② 고두밥을 지어 식힌다. ③ 백미, 누룩, 용수를 사용하여 주모를 만든다. ④ 덧술을 담근다. ⑤ 발효숙성 시킨다. ⑥ 토고리 또는 동고리를 사용하여 증류한다.



## 광주 남한산성 소주

廣州 南漢山城 燒酒

광주시 곤지암읍 광어로 555-3

지정일 : 1994.12.24  
보유자 : 강석필  
전수조교 : 강환구

1  
2 3

1. 남한산성 소주\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강석필\_보유자 제공  
3. 보유자 작업 모습\_보유자 제공



광주 남한산성 소주는 남한산성에서 전승된 민속주이다. 남한산성은 ‘작은 서울’이라 불릴 정도로 숙종 때 번성했던 곳이다. 남한산성 일대는 서울에 근접해 부자가 많았으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하던 이들이 만들어 마시면서 유래되어 조선후기까지 널리 애용됐다고 한다. 최초로 빚은 시기는 남한산성을 축조한 선조(재위 1567~1608) 때로 추정되며, 그 후 임금께도 진상되었다고 한다.

양조재료는 남한산성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과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 그리고 재래종 통밀로 만든 누룩, 다른 토속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재래식 엿을 고아 사용한다. 누룩을 빚을 때 조청을 푼물로 반죽을 한다. 백미를 찌서 식힌 지예밥에 누룩과 물을 섞어 밀술을 만들 때 또 한 번, 덧술을 빚을 때 한 번 더 조청이 들어간다. 엿을 넣으면 술의 향취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술의 저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발효시킨 술의 알코올 도수는 13도 내외가 되며 증류 과정을 거쳐 40도의 증류주가 된다. 다른 약재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 맑고 깨끗한 것이 특징이다.

남한산성 소주는 이종숙李宗肅으로부터 연유한다. 이종숙은 남한산성에서 대대로 살며 술을 빚었다고 한다. 한때 그는 서울 송파구에서 양조장을 운영하여 ‘백제소주’라는 술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술을 만들었던 강신만이 그 비법을 전수받았으며 둘째 아들 강석필에게 물려주었다. 현재 강석필을 기능 보유자로, 그의 아들 강환구가 광주 남한산성 소주 종목의 전수조교로 활동하고 있다.



## 소목장(가구)

小木匠(家具)

남양주시 진접읍 주곡로 164-14

지정일 : 2006.03.20  
보유자 : 권우범  
전수조교 : 안규열

1  
2 3

1. 괴목상감머릿장\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작업 모습\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3. 보유자 권우범,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목재를 다루는 장인을 목수木手라 하고, 궁궐·사찰·집을 짓은 목수를 대목장大木匠이라 하고, 가구·창호 등을 만드는 목수를 소목장이라 한다. 소목장에게는 나무가 가진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 한국 고유의 조형미를 창출해 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즉 나무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 목구조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예술적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완성된 가주는 실용성과 함께 예술성을 갖추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기후의 변화 등에도 잘 견딜 수 있게 내구성이 강해야 한다.

목가구의 제작 과정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정교하다. 짜임기법만도 주먹장짜임, 연귀짜임, 장부짜임, 제비촉짜임 등 다양하다. 못질, 풀칠 한 번 하지 않고 튼튼한 틀을 짜낸다. 여기에 금속, 나전, 화각 등을 결합하고 옷나무의 진액인 옷을 도료로 사용해 내구성과 아름다움을 더한다. 십장생, 용문, 운문, 글씨문, 사군자 등 여러 문양을 조각하고 상감해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다. 목상감기법은 문양대로 나무를 파내고 흑단, 화류, 괴목, 자개, 백동, 은 등 다른 색깔의 나무와 재료를 끼워 넣어 다양한 색깔로 문양을 표현한다.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기능 보유자 권우범은 아버지에게 전통공예 기술을 전수받았고, 오양환 선생 문하에서 현대적인 기술을 익혔으며 김오겸 선생을 찾아가 불상·말·호랑이·용·독수리 등 입체 작품 제작을 배웠다. 1970년 스무 살에 상공부가 주최한 1회 우수공예품대회에서 스승과 함께 출품했는데, 스승은 입선을 하고 권 씨는 특선하여 청출어람이란 말을 들었다. 그는 온고지신을 강조한다. 목조가옥의 좌식생활에 알맞게 만들어진 전통가구는 이제 시멘트구조의 아파트 입식구조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통공예의 소박한 질감, 분할의 미 등 장점을 계승 발전시켜고 새로운 감각을 접목시켜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개념의 명품을 만들어야 진정한 전통의 계승이라 말한다.





## 소목장(창호)

小木匠(窓戶)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72

지정일 : 1995.08.14  
보유자 : 김순기  
전수조교 : 안규조

목재를 다루는 장인인 목수는 궁궐이나 사찰 또는 가옥을 짓는 대목장과 장롱, 문갑, 탁자, 소반 등 실내에서 사용되는 가구들과 그 외의 목공예품을 만드는 소목장으로 구분된다. 건축상 소목은 창호와 난간, 담집 등 건물에 부착되는 작은 시설물의 제작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순기는 전통 창호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소목장이다. 그는 가래나무 과인 추목 또는 춘향목을 으 뜸으로 치나 구하기 힘들때는 적송이나 육송 등을 사용한다. 그가 제작한 창호는 문양별로 완자창卍字窓, 세살문, 빗살문, 꽃살문 등이다. 창호 중 최고로 치는 꽃살문으로 완성된 꽃무늬 하나를 만들려면 여러 조각을 깎아 결합해야 한다. 모양대로 깎아 간단하게 붙이는 게 아니라 사개물림과 엇갈리게 물리는 방법으로 문살을 만들어 결합한다.

그는 경복궁을 비롯하여 수원향교, 홍천향교 등의 향교와 사찰, 사당 등 고건축 복원에 참여하였으며 화성복원 사업에서 서장대와 화홍문 등의 창호를 제작하였다.



1  
2 3

1. 소슬꽃살문(좌), 꽃교살문(우).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김순기,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3. 보유자 작업 모습. 경기도



## 소목장(백골)

小木匠(白骨)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627

지정일 : 2002.11.25  
보유자 : 김의용  
전수조교 : 김희준

1  
2 3

1. 백골 약장. 보유자 제공
2. 보유자 작업 모습. 보유자 제공
3. 보유자 김의용,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가구를 만드는 과정 중에 칠을 하거나 조각 등을 하기 전 단계인, 나무로만 제작된 상태를 백골이라 한다. 이 상태의 소반은 백골소반이라 하고, 건축에서도 단청을 입히지 않은 집은 백골집이라 부른다. 이 백골에 칠을 하고 나전이나 조각으로 장식하면 가구가 완성되는 것이다. 치장 전의 민낮과 같은 것인데, 나전장, 칠장, 화각장은 많아도 백골장은 드물다.

백골가구는 좋은 나무를 골라 켜고 다듬고 짜맞추는 과정을 거쳐 형태를 갖춘다. 가구의 겉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밀납으로 광을 내고 어피가죽으로 문지른다. 그리고 표면 전체에 들기름칠을 한다. 보유자 김의용은 열다섯에 상경해 서울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였던 민종태에게 가구 제작을 배웠고 이후 손대현 선생 공방에서 일했다. 그는 약 50여년 동안 백골 가구를 제작하였으며, 서랍을 넣고 빼는 방식이라든가, 문을 여닫는 데 현대의 기법을 전통에 가미해 더 실용적인 가구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김의용은 2000년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나전벽화 백골 작업을 했으며, 2001년에는 경기도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구리시 갈매동 도당굿

九里市 葛梅洞 都堂굿

구리시 갈매순환로 72

지정일 : 1995.08.07

보유자 : 갈매동 도당굿 보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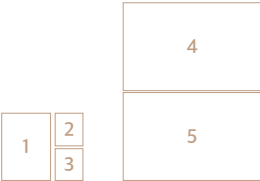
조순자(무녀), 허용업(악사)

전수조교 : 허재훈

구리시 갈매동 도당굿은 구리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유자는 악사로 허용업이 무녀로는 조순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수조교는 허재훈이다. 이 굿은 전형적인 도당굿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경기도 북부의 마을 당굿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경기도 남부의 화랭이가 하는 당굿과 다르다.

갈매동은 달리 속칭으로 ‘갈매울’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을에 전승되는 굿을 갈매동 도당굿이라고 일컫는다. 경기도 남부의 도당굿과는 다르게 경기도 북부에서 강신무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도당굿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갈매동 도당굿의 제일은 음력 3월 2일에서 3월 3일까지이므로 음력 3월의 춘경 세시 절기와 관련된다. 갈매동 도당굿은 마을의 굿이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 모두가 참석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한 특성은 두 가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새오개의 서낭에 모셔져 있는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를 모셔서 마을의 굿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오개의 도당신을 상수리 나무 또는 참나무에 모셔서 오는 대잡이 행사에 의해서 마을 곳곳을 다니는 유가 의례가 있다.

갈매동 도당굿은 두 가지 의의가 있다. 하나는 마을의 공동 축제를 제의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한다는 것이다. 마을의 신성한 신을 모시고 마을 사람 전체가 동참하여 세속적 놀이를 통해서 결속을 다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는 음력 3월에 풍농을 기원하고 마을 수호신을 빌어서 축제의례를 벌이는 것은 농경세시의례로서도 긴요한 의의가 있다.



1. 보유자 조순자,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조순자(무녀),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3. 보유자 허용업(악사),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4. 장문발기,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5. 유가돌기 중 집고사,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 지장

紙匠

가평군 청평면 작은매골길 70

지정일 : 1996.12.24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 승격(제117호)  
전수조교 : 장성우

한지는 닥나무를 베고, 찌고, 삶고, 말리고, 벗기고, 삶고, 두들기고, 고르게 뜨는 등 아흔아홉번의 고유과정을 거쳐 완성되며, 백번째 손길이 닿아 쓰임새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일컬어 닥종이를 ‘백지百紙’라고도 한다.

지장은 고유의 제조법으로 전통한지를 제조하는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한다. 제조기법으로 닥나무를 전통방식으로 가공하여 주재료인 지료를 제조하고 부재료인 닥풀을 섞어 외발로 흘려뜨기 방식을 취한다.

전통 방식은 12~2월에 닥나무 1년생을 채취 → 닥무지(찌기) → 닥나무껍질 벗기기(백피) → 씻기 → 닥섬유 삶기 → 수세와 일광표백 → 닥섬유 두드리기 → 닥섬유 분리하기 → 닥풀 만들기 → 지료와 닥풀섞기 → 물질하기 → 뜬 종이판에 붙이기 → 등글 통으로 기포 제거하기 → 습지와 발 분리하기 → 압착 탈수 → 이릿대로 떼어내기 → 일광건조 → 도침하기를 거친다.

경기도지정 기능 보유자였던 장용훈(1937~2016)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되었으나 작고한 후, 장남 장성우가 전통한지의 올바른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전수조교로 지정되었다.



1 2 3

1. 장성우 제작 한지로 만든 서책  
\_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장성우 제작 한지  
\_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3. 외발뜨기하여 종이 제작 모습  
\_ 장성우 제공



## 생칠장

生漆匠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21

지정일 : 1997.09.30  
보유자 : 송복남  
전수조교 : 송경주

생칠은 옷나무에서 얻은 수액을 나무그릇 등과 같은 물건에 칠해 광택을 내는 옷칠을 말한다. 옷액을 정제하거나 다른 것을 첨가해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칠을 한다. 옷액은 이른 봄에서 가을에 이르기까지 3일 간격으로 옷나무 껍질에 날카로운 칼자국을 내어 흘러 내리는 수액을 채취하여 얻는다. 이렇게 모은 옷액은 공기와 닿으면 굳어져 버리므로 단단히 밀봉해 보관하고, 모시나 명주천으로 걸러 불순물을 제거한다.

생칠작업은 불순물이 제거된 옷액을 총 3번에 걸쳐 여러 번 반복해서 칠하고 건조시켜 완성한다. 옷을 칠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붙으면 안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작품에 먼지가 묻으면 건조시켜 사포로 다시 벗겨내고 칠해야 한다. 이렇게 칠과 건조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 칠을 마친 후에 솜으로 문질러 광을 내준다. 이 모든 과정에 끝나야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짧게는 3달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작업도 있다.

보유자 송복남은 서울 태생으로 13세 때에 친구의 권유로 옷칠분야에 입문하여 70여년을 생칠장으로 살아왔다. 1989년 경남 칠불사 불상의 개금, 1994년 합천 해인사 불단의 옷칠작업 등 전국 사찰의 불상 개금과 불단 등 문화재 보수 옷칠도장에 참여하였고, 제4회 옷칠공예작품 공모전 특선(1994), 제21회 동아대전 입선(1993) 등을 수상했다.

1 3 2

1. 발우·찬합·칫잔·수\_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작업 모습\_ 보유자 제공
3. 보유자 송복남, 2016\_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옥장  
玉匠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48-38

지정일 : 1997.09.30 / 2005.12.07  
보유자 : 김영희(장신구)  
전수조교 : 김성운(옥장)



옥장玉匠은 여러 종류의 옥석류와 보패류를 가공하여 왕실의 기물류와 남녀 장식류 등을 금·은 세공하여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옥석 및 보패류로는 경옥·연옥·산호·호박·마노·수정·공작석·유리제옥·상아·대모·서각·흑각·진주·석옹황 등이 있다.

이러한 옥석패물은 궁중에서부터 사대부 그리고 일반 서민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그 종류로는 노리개·떨잠·뒤꽂이·비녀·귀걸이·가락지·장도·동곳·관자·선추·침낭·풍잠·단추·갓끈 등 다양하게 쓰였고 왕실의 장식물로는 왕과 왕비의 옥대, 어보, 옥류, 면류관, 패옥, 대수장신구 등에 사용되었다. 전통적인 제작공정은 채석 → 디자인 → 절단 → 성형 → 구멍 뚫기 → 흠파기 → 세부조각 → 마름질 → 광택의 과정을 거친다.

보유자 김영희는 1970년 김재환 선생 문하생으로 입문하여 기술을 사사하였다. 이후 1988년 독립하여,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대상,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전국공예품대전 산업자원부 장관상 등의 수많은 수상을 통해 그 기예를 인정받으며 전통공예부문 신지식인, 국가지정 옥석패물가공 기능전승자로 선정되었다.

남북유엔 동시 가입 기념 백옥 모란문 향합(유엔본부 한국관 소장), 영국여왕 한국방문기념 순종황후 화관(영국왕실 소장), 광복 60주년 국립고궁박물관 개관기념 궁중장신구 복제전시(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등 국내외 다양한 전시와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총 100여점 이상의 유물 복원, 복제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파주 헤이리에술마을에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된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을 개관하여 현재까지 대중들에게 전통 장신구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또 벽봉왕실문화재연구소예지방를 통해 조선시대 왕실의 옥세공 기술을 계승하고 전수하고, 한국전통의 왕실 옥공예의 맥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1
2
3



1. 영친왕비 대삼작 노리개. 보유자 제공
2. 옥투각모란화조문모자합. 보유자 제공
3. 숙종옥보. 보유자 제공
4. 보유자 김영희, 2016.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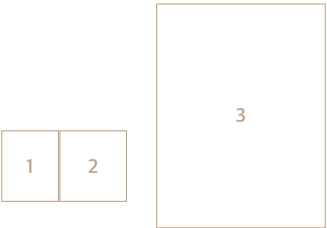


# 입사장

入絲匠

안성시 보개면 너리굴길 3

지정일 : 1997.09.30  
보유자 : 이경자



1. 연화문경대, 연화초문자.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삼라만상. 보유자 제공  
3. 보유자 이경자. 보유자 제공



바탕에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단색의 기물은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지만, 밋밋하고 지루하다. 인류는 지각이 발달하면서 민무늬의 바탕에 무언가를 표현하고 그것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그래서 문양이 탄생하였고, 인류는 다양한 재료에 장식적, 상징적 목적으로 문양이나 도상을 그리거나 새기고, 색깔을 더했다.

금속 재질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색깔을 칠하기 어렵다. 그래서 끝을 이용하여 점, 선, 면을 새긴 다음, 그래서 생긴 홈에 금은의 실이나 판을 박아 넣어 문양이나 도상을 표현했다. 이를 입사공예入絲工藝라 부르고, 그 장인을 입사장이라 한다.

입사공예는 섬세하고 아름답다. 금속성의 바탕에 금은의 광채가 더해져 화려하면서도 품격이 있다. 금속에 홈을 내고 거기에 그림을 박는 작업이기에 은근한 끈기와 단아한 정신이 요구된다. 백제가 만들어 왜국의 왕에게 선사한 칠지도(일본 국보)를 비롯하여 청동제은입사정병(국보 92호) 등 국보 3점, 청동제은입사향완(보물 778호) 등 보물 4점이 현재 국보급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입사공예를 ‘금속공예의 정화’라 부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들고 있다.

보유자 이경자는 조선시대 마지막 입사장이었던 이학응李鶴應 선생의 제자로, 스승에게서 전수받은 전통 은입사銀入絲 공예의 맥을 잇고 있다. 장신구에서부터 벽장식, 옥외 공간 장식에 이르기까지 전통 공예와 현대 금속 공예를 접목시키는 다채로운 시도로 입사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심혈을 기울여 복원·재현한 은입사 공예품 200여 점은 현재 전국 12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 광명농악

光明農樂

광명시 하안동 철망산로 42

지정일 : 1997.09.30  
보유자 : 광명 농악보존회  
임웅수

광명농악은 현재의 지리적 조건 위에서 철산동, 소하동, 학온동 등을 중심으로 광명시의 현대적 바탕에서 성립된 농악이다. 논농사, 농악, 두레 등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농사의 전통이 결과적으로 광명농악의 근간이 된다. 과거 광명시는 경기도 시흥군의 일원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들이 넓고 논이 발달하였다.

광명농악은 전형적인 옷다리 농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락이나 판제의 특징이 경기충청 일대의 농악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 출발점은 본디 토박이농악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행 광명농악은 떠놀이 연희농악의 흔적이 강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판제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명칭 등에서 연희농악의 판제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성과 정체성은 그것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두레풍장이나 정월에 하는 세시적인 농악이 과연 어떠한 면 모인지 현재의 농악으로는 거의 검증이 불가능하다. 농악의 원형이 온전하게 느껴지는 진실성과 별도로 전통문화의 꾸며진 결과를 두고 장차 후대에 전통의 재맥락화라고 하는 각도에서 재론될 수 있는 농악의 성격을 지닌다.

광명농악의 전통적 기반이 논농사의 형태와 논농사 소리의 깊은 저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하는 광명농악의 토착적 기반은 광명농악의 전통적 근원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광명농악의 근본적 이유는 광명시라고 하는 산업도시의 신생 과정에서 전통적인 문화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산업화 사회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례로 우리는 광명농악의 면모와 변화를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1

1. 농악 경연대회 개막식 공연 모습, 2016. 광명시
2. 보유자 임웅수, 2016.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安城 男寺黨 風物놀이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6-31

지정일 : 1997.09.30  
보유자 :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보존회  
전수조교 : 이상철·성광우

	2
1	3

1. 줄타기.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보존회
2. 접시돌리기.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보존회
3. 탈춤.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보존회



남사당패는 조선후기 서민층에서 생겨난 민중놀이 집단으로 풍물놀이와 함께 접시돌리기(버나)·재주넘기(살판)·탈놀이(덧뵈기)·줄타기(어름)·꼭두각시 놀음(덜미) 여섯가지 기예능을 곁들여 공연했던 전문연희 집단이다. 꼭두쇠 아래 4~5명의 뜬쇠, 가열, 빠리(초입자), 저승패와 등짐꾼을 포함해 40~50여명으로 구성된다. 안성시 서운면 산중에 자리한 청룡사가 남사당패의 본거지가 되었으며 안성남사당패의 기원은 청룡사의 후원을 받은 불당골 사당패로 볼 수 있다.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는 영기와 서낭기, 호적이 편성되고, 풍물잡이는 사물과 벽구 및 무동으로 구성된다. 풍물가락은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한다.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루 쓴다. 판국의 구성은 인사굿·돌림벽구·겹돌림벽구·당산머림·벽구놀림(양상치기)·당산놀림벽구(허튼상치기)·당산돌림벽구·오방진·무동놀림·벽구놀림(쌍줄백이)·사통백이·가새벌림·좌우치기·네줄백이·마당일채(찍찍이굿)·밀치기벽구·상쇠놀이 등 개인놀이, 무동서기(새미받기)·채상놀이 등으로 구성된다.

20세기 초에 많은 남사당패 모갑이들이 배출되었는데, 안성의 풍물은 ‘웃다리 농악’으로 불리며 경기지역 농악의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 활약하던 남사당패로 개다리패, 오명선패, 심선옥패, 안성 북만이패, 원육덕패, 이원보패 등이 있었으나 현재 남사당패의 실질적 기원은 ‘바우덕이, 김복만, 원육덕, 이원보, 김기복’ 꼭두쇠의 계보로 이어진다.

1982년 이원보패에서 상쇠수업을 받은 김기복을 주축으로 안성남사당보존회가 설립되었다. 1989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997년 김기복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지난 2015년 작고했다. 이후 보존회장 겸 전수조교인 성광우를 중심으로 공연활동 및 이 종목의 전승에 힘쓰고 있다.





# 고양 송포 호미걸이

高陽 松浦 호미걸이

고양시 덕양구 무궁화로 18

지정일 : 1998.04.13  
보유자 : 고양 송포 호미걸이 보존회  
전수조교 : 조경희·김기성

1	2
	3

1. 모내기 체험행사. 고양 송포 호미걸이 보존회  
2. 유가제. 고양 송포 호미걸이 보존회  
3. 벼베기 돌리배기. 고양 송포 호미걸이 보존회

호미걸이는 마지막 김을 매고 난 뒤 내년을 대비하여 ‘호미를 씻어 걸어둔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농기의 버릿줄에 호미를 걸어둡으로써 한해 농사를 마감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농사를 가늠할 수 있는 두별 김을 맬 때쯤 두레패들이 모여 농사가 잘 되었다고 판단될 때만 호미걸이를 하였다고 한다. 호미걸이는 음력 7월 백중 무렵 행해졌으며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와 함께 농민들이 몸을 쉬고 노는 일종의 축제였다. 이 같은 축제는 전국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호미씻이, 난알이, 공굴, 머슴놀이 라고도 불렸다.

호미걸이가 결정되면 마을 사람들은 놀이에 쓰일 악기와 깃발을 점검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등 잔치 준비를 하였다. 당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남자들이 모여 기를 앞세우고 길군악(행진풍물)을 치고 당 앞에서 상산제를 지낸 다음, 부녀자들이 대동제를 지냈다. 상산제는 한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염원을, 대동제는 마을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소망하는 기원이 담겨 있다. 대동제가 끝난 후 풍물이 시작되며 이웃마을 두레패들이 술독을 담은 수레를 끌고 당마당에 모여 든다. 기 절반기, 기 쓸기 등을 하면서 풍물을 치며 노는데, 이 때 호미걸이소리가 불려진다. 긴소리·사두여·양산도·방아타령·자진방아타령·놀놀이·자진놀놀이·상사디야·훤훤이·몸둘려 등의 김매기과정에서 부르던 농요들이 불려진다. 해질녘이 되면 이웃 두레패들이 돌아간 후 집돌이(유가제)를 하며 호미걸이를 마무리한다.

고양 송포 호미걸이는 고양시 송포면 대화리 뱀개마을에 전승되었던 두레 공동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31년 이후 전승이 단절되었으나, 1970년대 소리꾼 김현규에 의해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다. 1984년 11월 송포호미걸이보존회가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보존회장 겸 전수조교 조경희를 중심으로 호미걸이를 재현하고 있다. 1985년 제4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수상, 1999년 제12회 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김포 통진 두레놀이

金浦 通津 두레놀이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347-8

지정일 : 1998.04.06  
보유자 : 김포 통진 두레놀이 보존회  
조문연

두레는 농경사회에서 없어선 안될 공동작업형태다.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 땅을 일궜야 했던 시절, 모내기, 김매기, 벼베기 등 대부분 과정에서 동네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와 협동해야만 했다. 비록 노동을 위해 뭉쳤지만, 그 자체가 마을의 놀이요, 축제였다.

김포 통진 두레놀이는 통진지역에 전승되던 옛 농민들의 두레 작업 과정을 농사소리를 중심으로 구성한 종목이다. 농요의 가락은 농사 일에 따라 처음에는 긴 가락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빠른 가락으로 흥을 돋우며 끝맺는다. 통진 두레놀이에는 고사덕담과 모찌기소리, 김매기소리가 불려진다.

상쇠의 팽과리 소리가 울리면 마을 사람들은 통진면을 이루던 마을의 이름이 적힌 두레깃발을 들고 입장을 시작한다. 깃발입장 후 범씨 뿌리기 → 논갈이(씨레질) → 고사지내기 → 모찌기 → 모내기 → 새참 먹기 → 물고싸움이 두레싸움으로 → 김매기 → 벼 베기 → 탈곡하기 → 섬 쌀기 순으로 진행된다.



고사지내기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며 고사떡을 나누고, 모찌기에서는 모찌기노래를 메기고 받으며 흥을 돋운다. 새참먹기는 새참을 먹으며 여흥을 즐기는 등 일과 놀이가 어우러짐을 보여준다. 논이 물고시비가 붙는 물고싸움을 거쳐, 마을간 두레싸움으로 확대된다. 마을 깃발 위에 꽃힌 팽 장목을 먼저 잡는 팀이 이기게 되는데, 이긴팀이 진팀의 깃발에 팽 장목을 다시 꽃아주며 화합으로 이어진다.

통진지역의 두레는 1960년대 이후 영농환경의 변화로 단절되었으나, 윤덕현을 중심으로 옛 전통을 재현하여 1997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김포통진두레놀이의 계승을 위해 통진두레놀이 보존회가 발족되었으며, 2008년 4월 통진두레문화센터가 건립되었다. 윤덕현 작고 후, 2016년 11월 조문연이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경기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국두렛소리총회 발표회 및 각 지방 무형문화재 초청 시연, 김포통진두레놀이 자체 발표회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	3
2	4

1. 보유자 조문연, 2017. 김포 통진 두레놀이 보존회  
2-4. 실외 공연 모습.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3. 뒷풀이,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 나전칠기장(칠장)

螺鈿漆器匠(漆匠)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82-1

지정일 : 1998.0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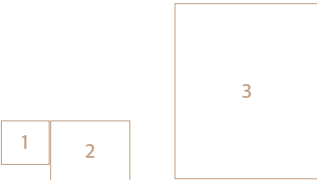
보유자 : 배금용

전수조교 : 배광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물이나 용기에 옷칠을 하면 습기와 병충해의 피해를 막아 줄 뿐만 아니라 고온에도 잘 견디게 해 준다. 이런 까닭에 선사시대부터 칠기가 널리 사용되었고, 역사시대로 들어오면서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한 칠기들이 등장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값비싼 서역의 주옥珠玉이나 거북등껍데기 등으로 장식한 칠기가 등장하였고, 홍덕왕 9년(834)에는 사치금지령이 내려진다. 그 이후로 칠기의 장식에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조개껍데기가 이용되었다. 즉 나전칠기가 우리나라 유일의 장식칠기가 된 것이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보유자 배금용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마포에 있는 나전칠기 공방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 계통에 입문하게 되었다. 이후 공립기술학교인 통영나전칠기양성소 교사 출신인 심부길(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을 비롯하여 나전칠기장 최준식에게 기술을 전수받았다.

그는 금속선으로 문양을 넣는 자신만의 기법을 창안하여 나전칠기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도 했다. 1988년에 문화재관리국 주최의 전승공예대전에서 입선, 1989년도 동아공예대전에서도 다수 입선 및 특선을 수상하였다. 그밖에 1990년도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에서 7회에 걸쳐 입선하는 등 수상경력이 있다.



1. 대모모자함.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국당초문경합.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3. 보유자 배금용. 보유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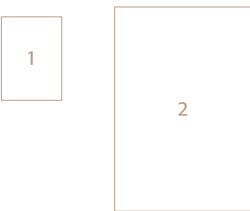


# 나전칠기장(나전장)

螺鈿漆器匠(螺鈿匠)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94

지정일 : 1998.09.21  
보유자 : 김정열  
전수조교 : 김영호



1. 나전쌍학도 보석함, 2016  
\_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김정열, 2016  
\_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우리말로 ‘자개공예’라고도 부르는 ‘나전칠기’는 목칠공예의 장식기법 중 하나로, 옷칠한 목제품의 표면에 얇게 간 조개껍데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오리고 붙여 넣어 장식한 공예품을 말한다. 조개껍데기를 붙인 방향과 빛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색을 내기 때문에,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뛰어난 보존성을 갖춰 세월이 지나도 그 빛깔이 변치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전칠기가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전복의 속껍질을 가는 전복 껍질 갈기부터 줄로 모서리를 갈아 부식시키는 줄로 썰기, 칼로 껍질을 가늘게 자르는 상사썰기, 실상사를 꿰어붙이는 꿰음질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이어 백골에 베 바르기인 마름질을 하고 백골에 생칠한 후 칠과 토분을 이겨서 고태바르기를 하고 밀그림을 그린다. 이후 활질로 자개에 구멍을 뚫고, 싯톱으로 무늬를 오리고, 종이본에 자개를 붙여 인두로 눌러 붙인다. 종이본을 떼내고 한번 더 옷칠을 해준 뒤 자개에 묻은 옷칠을 닦아 내고, 인두로 마름질과 숯과 기름으로 광내기를 해야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

보유자 김정열은 나전칠기로 유명한 경남 통영에서 기술을 익혔는데, 가장 한국적인 나전칠기를 제작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1996년 9월 대한민국 명장 ‘칠기 제96-19호’에 지정됐으며, 전통 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1998년 대한민국 명장 나전칠기 직종 중 최초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그는 나전칠기의 맥을 잇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다. 1999년 ‘제1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초대 작가는 물론, 해외 순회 전시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2011년에는 ‘천봉나전칠기체험관’을 개관해 체험관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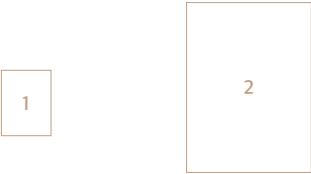


# 자수장(민수)

刺繡匠(民繡)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254번길 9

지정일 : 1998.09.21  
보유자 : 신상순



1. 예물함(위), 반짇고리(아래)\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신상순\_보유자 제공



자수는 실과 바늘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다채롭고 자유롭게 무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식수단으로 고대부터 널리 이용되어 왔다. 다양한 색상의 실을 바늘에 꿰어 여러 가지 수법을 응용하여 옷을 지어 입고 그 위에 장식을 더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어 종교적 장식 또는 의례적 행사의 복장과 함께 발달되었다.

자수에 관하여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지三國志』 위지 제30 동이전 부여편으로 ‘부여인은 외국에 나갈 때 에 증縐, 수繡, 금錦, 계屬로 지은 옷을 즐겨 입었다.’고 되어 있다. 『후한서後漢書』 동이전 고구려편에는 ‘관인들이 회의로 모일 때 수놓은 비단 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신라에서 수놓은 부채를 소도구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 자수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834년(통일신라 흥덕왕9)에 복식금령服飾禁令이 내려지는데 금제 중 수와 관련된 금제도 있다. 버선과 신발 등에 계屬과 수놓은 비단[繡錦]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였으며, 안장언치와 안장자리 및 발[簾]에도 수놓은 비단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진골과 육두품은 자수병풍刺繡屏風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자수가 복식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에까지 범위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자수가 한층 새롭게 발전하였다.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의하면 상의국尙衣局과 잡직서雜織署 등을 설치하여 수예품을 만들게 하였다. 또한 문종실록에는 왕이 돌아가신 후 각 궁 안에 수를 잘 놓는 사람을 모아 부처를 수놓은 기록이 있어 왕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수불繡佛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왕족 일가의 복식 및 기타 용품에 자수 장식을 전담했던 수방繡房이 있었다. 또한 문무관의 관복 앞과 뒤에 흉배를 착용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자수의 수요를 증진시키게 된다. 자수는 궁수宮繡와 민수民繡로 크게 구분되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면서 발전하였다. 민간에서도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필요한 노리개, 보자기, 방석 등 각종 생활 장신구와 용품에 수로 장식한 자수품을 제작 및 사용하게 되었다.

자수장 신상순은 일본 가나가와현縣 태생으로 일본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1950년대에 마산여고에서 가사 선생인 김난초金蘭草에게서 자수를 배웠다. 1971년 자수원 화린공방을 차려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자수를 일상생활에 보다 가깝게 접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작품에는 화조도花鳥圖 병풍, 백동자도百童子圖 병풍 등이 있으며 생활 감정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또한 조선시대 자수 유물을 수집하고 재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자수장(궁수)

刺繡匠(宮繡)

평택시 비전2로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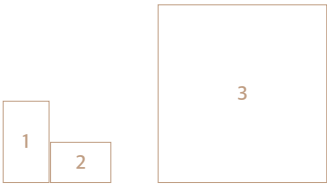
지정일 : 1998.09.21

보유자 : 황순희

자수와 관련된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신라시대 경주 황남대총 및 백제시대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단편斷片의 사슬수가 있다. 이 유물은 비록 단편으로 출토되었으나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기법인 사슬수를 삼국시대에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유물이다. 이외에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자수 사계분경도 병풍刺繡四季盆景圖屏風과 자수 아미타여래도刺繡阿彌陀如來圖 등이 있다. 아미타여래는 극락세계에 머물면서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왕생의 길로 이끌어 주는 부처로 고려시대에는 호국 신앙으로 불교가 크게 융성하여 자수불화도 번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시대 복식 중에는 구장복, 적의, 활옷, 흉배, 후수 등에 수를 놓았다. 출토복식에서는 수가 놓여 진 예는 매우 드물며 일부 수놓은 자수치마와 저고리, 향낭 등이 남아 있다. 불교 자수는 가사, 탁의, 수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선암사仙巖寺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중요민속문화재 제244호 용문자수탁의龍紋刺繡卓衣는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매우 큰 규모로 수놓은 탁의이며 특별한 기법과 다채한 색채구성으로 되어 있다.

자수장(궁수) 황순희는 1949년 전라남도 여천 출신이며 초등학교 가사 시간에 자수에 취미를 붙여 어머니에게서 전수 받았다. 20세에 서울 정릉의 자수연구소에서 동양자수를 배운 후, 한영화(현 서울시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게 사사하였다. 작품으로는 용보龍補와 흉배胸背, 일월오악도日月五嶽圖, 십장생도十長生圖, 활옷, 수 노리개 등이 있다. 이외에 궁중자수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많이 제작하였다.



1. 공모란\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작업 모습\_보유자 제공
3. 보유자 황순희\_보유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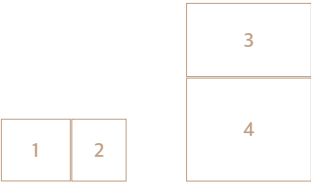


# 벼루장

벼루匠

이천시 양진로104번길

지정일 : 1998.09.21  
보유자 : 신근식  
전수조교 : 김종선



1. 보유자 신근식\_경기도
2. 보유자 작업 모습\_보유자 제공
3. 용, 심장생, 구름문 대형 벼루\_보유자 제공
4. 가지문벼루(위), 매화문벼루(아래)\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붓과 먹, 종이, 벼루는 가장 오래된 필기도구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이다. 벼루의 품격은 벼루를 만드는 원석의 질과 벼루에 새기는 조각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벼루의 원석은 경도가 낮아서 생동감 있는 조각이 불가능하다.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준 것이 벼루장 보유자 신근식이 소유하고 있는 단양의 자석紫石이다. 이 돌은 색채도 독특하고 아름답지만, 다른 벼루 원석보다 경도가 2~3도나 강해서 입체적인 조각이 가능하다.

자석을 사용한 벼루는 실용적이다. 다른 원석으로 만든 벼루는 먹이 갈릴 때 돌도 함께 갈려 돌가루 찌꺼기가 끼고, 또 돌이 물기를 먹으면 약해져서 찌꺼기가 더 많이 일어나며, 세월이 가면 돌이 터져 갈라진다. 그러나 자석은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먹이 곱게 갈리며,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며칠 동안 물을 담아두어도 물이 스며들지 않을 정도로 내수성이 강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갈라지거나 터지지 않는다.

신근식은 17살 때부터 가업을 이어 벼루제작을 시작했으며, 보통 3년은 걸리는 견습기간을 단기간에 끝냈다. 그의 작품은 크기나 모양이 매우 다양하다. 용·거북이·마패모양 등 독창적인 작품들이 다수 있다.

또한 신근식의 작품은 목각작품과 같은 느낌을 준다. 붉은 빛이 도는 색깔과 새겨진 문양이 섬세하고 부드러워서 목각으로 제작한 후 붙여 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는 점에서 다른 벼루와 구별이 된다.





# 양주 상여·회다지소리

陽州 喪輿·회다지소리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 226-24

지정일 : 1998.09.21  
보유자 : 양주 상여와 회다지소리 보존회  
황정섭(2012.09.14)  
전수조교 : 김진명·조영석

마을에 상喪이 나서 장례를 치를 때, 상여로 고인의 유해를 운구한다. 이 때 부르는 소리가 상여소리이며, 선소리꾼이 요령鐃鈴을 흔들며 앞소리를 메기면, 상여를 메고 가는 상두꾼들이 뒷소리를 받는다. 발인發靮 때에는 느리게 부르는 긴소리로 시작하여, 상여가 동구밖을 나서면 조금 빠르게 부르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갈 때는 빠르고 힘찬 소리를 부른다. 장지葬地에 도착해 하관하고 난 뒤, 봉분을 다지는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가 회다지소리이다. 선소리꾼 한사람이 소리를 메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으며 회를 다진다.

양주 상여소리는 긴소리와 자진소리로 구성되는데, 긴상여소리는 느린 굿거리장단으로 뒷소리는 ‘어허 어허 어허리 넘차어하’로 받는다. 자진상여소리는 자진 굿거리장단으로 뒷소리를 ‘오호 오호’로 짧게 받는다. 양주 지역의 상여소리 곡조는 메나리토리로 되어 있다. 회다지소리에는 다양한 소리가 포함된다. 긴달고소리는 긴 굿거리장단에 뒷소리는 ‘에허리 달구’로 받으며 발로 흙을 밟는다. 이후 자진달고소리, 경토리 곡조의 어허리 소리가 불린다. 회심곡이나 초한가는 달구소리의 가락에 올려 부르기도 한다. 이어지는 꽃방아타령이나 상사소리·몸돌여소리·새쫓는소리는 김매기 등에서 불리는 농요와 동일하다. 그 사이 소리와 함께 달구질이 끝나고 봉분이 완성된다. 상여회다지소리는 망자에 대한 애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장례의식을 치르며 행하는 노동요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양주 상여회다지 소리는 1995년 마을 청장년층이 주축이 되어 상여·회다지소리 보존회를 결성하고 국내 최초로 전수회관이 건립되면서 활성화되었다. 현재 보유자 황정섭을 주축으로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전승에 힘쓰고 있다.

1	2
	3

1. 보유자 황정섭.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상여행렬. 양주 상여와 회다지소리 보존회
3. 요여와 방상씨.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 양평 상여·회다지소리

楊平 喪輿·회다지소리

양평군 양동면 물운고갯길 689-3

지정일 : 1998.09.21

보유자 : 양평 상여·회다지소리 보존회

양평 상여·회다지소리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일대에서 전승되는 장례의식요로, 운상運喪을 하고 묘를 다지면서 부르는 노래를 이르는 말이다.

시신을 넣은 관을 상여에 싣고 집에서 장지葬地까지 운반하는 운상 과정에서 상여소리를 부른다. 출상 전날 밤 빈 상여대를 메고 상여꾼들이 노래를 부르며 놀이를 벌리기도 하는데, 이를 ‘대돌움’이라고 한다. 출상 날 아침, 발인제를 지내고 나면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두 번 절하고 나서, 긴 상여소리를 부르며 3번 왔다갔다 하는데, 이를 ‘발 맞춘다’고 한다. 상여가 나갈 때 요령鑢鈴과 함께 북을 이용했다. 선소리꾼이 요령을 흔들며 선소리를 메기면, 북잡이가 북을 치며 따라간다. 상여가 집을 나서면 긴 상여소리 ‘어넘차소리’를 부르며, 빠르게 갈 때는 자진 상여소리인 ‘어화소리’를 부른다. 이 일대에서는 상여가 가파른 산길을 오르거나 좁은 외나무다리를 건널 때 긴소리를 불렀다고 한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시신을 묻을 수 있는 구멍이인 광중曠中을 파고 하관을 한다. 이후 흙과 회를 붓고 세 번 회다지를 하는데, ‘삼쾌를 다진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부르는 소리가 회다지소리이다. 긴 달구소리를 부르고 이어 자진 달구소리를 부른다. 긴 회다지소리는 느린 굿거리장단에 맞고 뒷소리를 ‘에야하리 달구’로 받는다. 자진 달구소리는 자진 굿거리 장단에, 뒷소리를 ‘에야라 달구’로 받는다. 세 번째 끝에는 자진 굿거리장단에 메나리토리 곡조로 된 ‘새 쫓는 소리’를 부르고 마친다.

양평 상여·회다지소리는 경기도 동부지역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평 상여·회다지소리 보존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예능보유자였던 최원산이 타계한 이후, 현재 보존회장 최봉주를 주축으로 각종 행사나 대회에 참가하여 전승에 힘쓰고 있다.

1		3
2	4	

1. 상여행렬.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요여와 만장.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3-4. 경기도무형문화재 대축제 공연 모습,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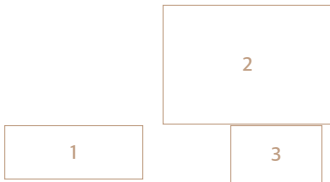
#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高陽 喪輿·회다지소리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54번길 7-20

지정일 : 2017.06.16

보유자 :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보존회



1. 독일 비스바덴 카니발 초청공연\_고양 상여·회다지소리 보존회
2. 김우규 보존회장 모친의 실제 상여 운구행렬  
\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3. 회다지\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고양 상여·회다지소리는 고양시 송포면 대화리 김녕김씨金寧金氏 집성촌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장례의식요葬禮儀式謠를 말한다. 김녕김씨의 김유봉(1725년생)이 부모님의 장례 시 행했던 상례문화가 그 기원으로, 토목 및 궁궐의 보수 공사를 담당했던 관청인 선공감繕工監의 감역을 맡았던 김성권(1867년생)이 그 맥을 복원하였다. 당시 상여의 규모가 일반상여의 3배에 달했으며, 만장기가 무려 250여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조문행렬은 5리(2km)에 달하였으며, 당시 조문객에게 대접한 양식이 쌀 열두 가마를 하고도 모자랐을 정도로 큰 규모의 상례였다고 한다.

송포면 대화리에 초상이 나면 상제들이 장지葬地로 떠나는 상여속의 망자에게 절을 올리며, 상여꾼들은 염불소리와 하직소리를 부른다. 집을 나서면 오호소리를 부르고 걸음을 빨리 하거나 언덕길을 오를 때 자진 상여소리를 부른다. 장지에 다다르면 긴염불 소리를 부른 후 상여를 내려놓는다. 시체가 놓이는 무덤의 구덩이인 광중曠中이 조성되면 하관 후 달구질을 하면서 회다지소리를 부르는데 긴소리를 부르고 이어 달구소리, 양산도, 방아타령, 놀놀이, 떼다소리, 상사소리, 훨훨이로 끝맺는다.

고양 일대에서 달구질을 할 때 광중 밖에서 밟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조선시대 왕릉 조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일대에는 왕릉이 많은데, 나라님을 밟을 수 없어 광 밖에서 밟는 것에서 유래된 풍속이라고 한다.

현재 보존회장 김우규를 주축으로 고양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를 통해 이 종목의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에는 독일 비스바덴 카니발에 초청되어 공연을 진행했으며, 2012년 이후 일본 위안부 피해자 진혼제를 매년 치루고 있다.





## 단청장

丹青匠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775번길

지정일 : 1999.10.18

보유자 : 김종욱

단청은 건물에 색을 입히는 기술이나 그 기술이 발휘된 결과를 말하며, 단청장은 단청일을 하는 장인을 일컫는다. 단청의 영역은 전통적으로 불화를 아우르는 경향이 있으며, 근래의 학습과정도 이런 인식을 뒷받침한다. 단청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의 담징曇徴, 백제의 백가白加, 신라의 솔거率居가 모두 사찰에 벽화를 그린 화승으로서 단청의 소임을 담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불교신앙과 특수한 권위를 지닌 사찰과 궁궐에 칠하는 단청은 건물의 수명을 늘리고 장엄을 겸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단청을 입히는 건물 사이에도 무늬의 선택과 치장의 정도를 다르게 하여 위격에 차등을 두었다. 가장 격이 높은 궁궐의 정전과 사찰의 대웅전에는 갓은금단청을, 이보다 격이 낮은 건물에는 수순에 따라 금단청과 모로단청, 굿기단청 등으로 점차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주로 다섯 가지의 광물성 석채안료를 기본으로 하여 화사한 무늬를 구현한다.

단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일찍이 지정받은 이치호萬奉, 김성수, 임석정, 홍창원 등이 있으며, 지방에도 여러 장인이 각기의 전승체계를 통해 기능을 잇고 있다. 경기도는 단청장 보유자로 1999년에 김종욱(1937년생)을 지정하여 활발히 전승하고 있다.

1

2 3

1. 보유자 김종욱과 신중도\_보유자 제공
2. 보유자 작업 모습\_보유자 제공
3. 수월관음도\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 화각장

華角匠

이천시 부발읍 매양로

지정일 : 1999.10.18

보유자 : 사망

전수조교 : 한기덕

화각공예는 쇠뿔을 얇게 갈아 뒷면에 무늬를 그려 장식하는 공예품이나 그 기술을 말하며, 화각 일을 하는 장인을 화각장이라 일컫는다. 화각공예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국 공예의 고유한 특질로서, 나전칠기와 더불어 한국 목공예의 특질을 잘 보여준다. 기원은 알 수 없으나 고려의 나전칠기에 성질이 유사한 거북의 등껍질을 쓴 사례를 들어 시대를 고대로 올려보기도 하며, 조선후기 이후에는 그 자취가 확연하다.

화각은 3~5년생 황소의 뿔을 삶고 반을 갈라서 펼쳐 평평한 면을 만든 다음 뒷면이 비칠 만큼 얇게 저며 뒷면에 문양을 그리는 복채기법을 쓴다. 복채된 문양은 색이 잘 보존될 뿐 아니라 발색도 한결 깊어져 공예품의 품격을 높인다. 문양을 그린 각편을 뼈대가 되는 백골위에 아교로 붙이고, 각편들 사이에는 소뿔을 깎아 경계선을 고정시켜 마무리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 본디 원추형이던 소뿔의 속성으로 돌아가려는 탄력 때문에 들뜨는 일이 빈번하여 보존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재료를 마련하는 공정부터 복잡하고 번거로울뿐더러 가격도 비싸 궁중이나 소수 지배층에서 쓰던 고급 공예품이었다.

화각장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일찍이 지정받은 고 음일천陰一千과 이재만이 있으며, 지방의 화각장 보유자로는 경기도의 고 한춘섭韓春燮(1949-2015)이 있을 뿐이었다. 한춘섭은 나전칠기에 입문하여 기술을 익힌 뒤 음일천의 문하에서 다시 화각기술을 배웠다. 현재는 아들 한기덕이 전수조교로 지정되어 기능 전승에 매진하고 있다.

1 2 3

4

1. 화조문주칠 삼층장\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예물함\_보유자 제공
3. 모란문 경대\_보유자 제공
4. 연화문 문각\_보유자 제공





## 악기장(북메우기)

樂器匠(북메우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43-13

지정일 : 1999.10.18  
보유자 : 임선빈  
전수조교 : 임동국

북메우기는 전통 북을 제작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북을 메우는 장인을 한자말로 고장鼓匠이라 하였다. 짐승 가죽을 올려 소리를 내는 북은 가장 원초적인 악기의 하나로 꼽힌다. 가죽의 울림이 다른 재료보다 인간 보편의 기본 감성을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각기 매우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북은 용도에 따라 정악용과 사찰용, 민간용 등으로 나뉘며, 그 종류가 매우 많다. 흔히 알려진 사찰의 법고나 농악용 매구북, 판소리의 소리북 외에도 정악의 좌고座鼓, 용고龍鼓, 영고靈鼓, 교방고敎坊鼓 등 14종에 이르고, 민간용으로 소고와 장고 등으로 다양하다. 장구는 본디 따로 제작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북메우기의 작업 범위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름이 다른 북은 용도별로 형태나 만드는 방법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북은 대개 소가죽을 쓰지만 장구는 채로 치는 쪽에 개가죽을 써야 제 소리를 낸다. 북메우기의 핵심 중 하나는 울림통 제작과 가죽 무두질기술이다. 생가죽을 다루는 무두질은 현재 일부만 전하고 있다. 울림통은 통나무의 안쪽을 깎아내는 방법과 나무쪽을 서로 연결하여 둥글게 울림통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가운데 나무쪽을 이어붙이는 기술이 손이 많이 가고 난이도가 높다.

북메우기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일찍이 고 박균석과 고 윤덕진을 인정하였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악기장 종목에 북메우기를 묶어 지정하고 있으며, 1999년에 임선빈(1950년생)이 기능을 인정받아 아들 임동국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활발히 전수하고 있다.

1 2

1. 보유자 임선빈.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대형북,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 악기장(현악기)

樂器匠(絃樂器)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116-3

지정일 : 1999.10.18  
보유자 : 최태순  
전수조교 : 최정욱

악기장 가운데 현악기 분야는 가야금과 거문고 등을 제작하는 장인을 일컫는다. 조선시대에는 풍류장風流匠 또는 풍물장風物匠으로도 불리었다. 현악기의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현의 거문고는 고구려의 왕산악王山岳이 발명하였고, 12줄의 가야금은 가야에서 비롯하였다. 거문고는 장중한 소리에 검은 학이 모여들었다 하여 현학금玄鶴琴, 또는 가장 근본이 되는 악기라는 뜻의 현금玄琴으로도 지칭되었다. 거문고는 여흥을 넘어 유가 정치철학의 핵심인 예악禮樂 가운데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의 상징으로서 사대부와 선비의 서재에도 놓이는 필수품이었다.

현악기는 거문고와 가야금 외에도 용도에 따라 아쟁牙箏, 해금奚琴, 대쟁大箏, 향비파鄕琵琶, 월금月琴, 와궁후臥箏篥, 수궁후手箏篥, 양금洋琴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가야금은 정악正樂용과 산조散調용으로 크게 나뉜다. 현악기의 주재료는 울림통으로 오동나무를 쓰며, 뒤판은 이보다 단단하여 음을 받쳐주는 밤나무를 주로 사용한다. 현악기를 다루는 장인은 음질의 차이가 주로 오동나무의 품질과 연관된다고 여겨 양질의 재료를 구하는데 공력을 들인다. 예부터 척박한 바위틈에서 더디 자란 오동이 소리가 여물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데, 『악학궤범樂學軌範』에 기록된 석상동石上桐이 이와 연관된다. 현악기는 국악의 성행에 힘입어 다른 공예분야에 비해 활성화된 분야에 속한다. 그동안 국가무형문화재로 고 김광주, 이영수, 고홍곤 등이 인정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제 30-2호의 악기장 종목에 현악기를 묶어 지정하고 있으며, 1999년에 최태순(1941년생)이 기능을 인정받아 아들 최정욱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게 활발히 전수하고 있다.

1 2

1. 산조가야금(위)과 산조거문고(아래).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최태순. 보유자 제공





## 경기소리(휘몰이잡가)

京畿소리(휘몰이잡가)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19

지정일 : 1999.10.18

보유자 : 김권수(2016.11.08)

휘몰이잡가는 빨리 몰아서 부르는 잡가라는 뜻이다. 긴잡가의 상대적인 의미로 휘몰이잡가라는 명칭이 붙었다. 경기의 긴잡가와 휘몰이잡가 등 앉아서 부르는 좌창계열의 악곡은 조선후기에 서울 사계축이라 불리던 만리재·청파도 소리꾼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 도성 안팎의 소리꾼들에 의해 발전된 것이다.

잡가꾼들이 노래할 때에는 먼저 가사와 시조를 부른 다음 긴잡가와 수잡가首雜歌, 휘몰이잡가를 부른 후에 통속민요로 판을 끝냈다고 한다. 즉 휘몰이잡가는 주로 끝판에 불렀던 노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끝에 불렀던 것은 휘몰이잡가의 익살스러운 가사가 분위기를 흥겹게 만드는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휘몰이잡가의 가사는 대개 장형시조의 변형인데, 이를 묶는 타령장단에 얹어 춤추히 엮어 부른다. 이러한 이유로 휘몰이잡가를 사설시조의 한 갈래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휘몰이잡가는 해학적인 가사가 특징적이다. 빠르게 가사를 나열하는 것은 가사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휘몰이잡가의 가사는 과장과 확대, 열거, 반전 등의 방법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현재 전승되는 휘몰이잡가로는 ‘곰보타령’, ‘생매잡아’, ‘만학천봉萬壑千峰’, ‘기생타령’, ‘바위타령’, ‘맹꽁이타령’, ‘병정타령’, ‘육칠월흐린날’, ‘한잔 부어라’, ‘순검타령’, ‘비단타령’ 등이 있다.

휘몰이잡가는 소리꾼이 혼자 앉아서 장구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위타령은 노래가락과 창부타령조가 섞인 소리이고, 비단타령은 책읽듯 읽어 나가다가 끝에 맹인덕담경 외는 소리조로 부른다. 또 ‘기생타령’, ‘맹꽁이타령’, ‘바위타령’ 등은 묶는 타령장단으로 되어 있다.

현재 휘몰이잡가 예능 보유자 김권수를 중심으로 국악의 향연 등 활발한 공연 및 전승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보유자 김권수\_보유자 제공



## 경기소리(긴잡가)

京畿소리(긴잡가)

과천시 문원로 40-2

지정일 : 1999.10.18

보유자 : 임정자(임정란)

전수조교 : 이윤경



1  
2

1. 보유자 임정자(임정란), 2016.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긴잡가 공연 모습.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 파주 금산리 민요

坡州 錦山里 民謠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82

지정일 : 2000.08.21  
보유자 : 파주 금산리 민요 보존회  
추교전  
전수조교 : 추교현·조흥송

파주 지역은 경기도 서북 지역에 위치하여 인접한 황해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파주 금산리 지역에는 다양한 논농사소리와 장례의식요가 전승되고 있어서 이를 묶어 파주금산리민요라는 이름으로 문화재를 지정하였다. 금산리 지역에는 논농사소리 8종과 장례의식요 3종이 전승되고 있다.

논농사를 지을 때 모판에 볍씨를 뿌려 어느 정도 크면 이를 뽑아내어 논으로 옮겨 심게 되는데, 모판에서 모를 뽑는 작업을 ‘모를 찼다’고 하므로 ‘찼네’라는 후렴구가 있는 ‘찼네소리’를 부른다. 모를 옮겨 심는 작업에는 하나 둘씩 모를 심는다는 뜻에서 ‘하나- 둘’ 숫자를 넣어 부르는 ‘하나소리’를 부른다.

논매기는 모심은 한 달 정도 후에 하는데, 첫 번째 논매기인 애깍은 호미로 했으며 두 번째인 두벌과 세 번째인 삼동은 손으로 땀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는 논매 때 경기지방의 통속민요인 ‘양산도’와 ‘방아타령’을 넣어서 논매는소리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때의 ‘양산도’는 ‘논깎 땀 때 부르는 양산도’라 하여 ‘논깎양산도’라 부른다. 이외에 의미없는 입타령인 ‘에 에헤 에허이 어허야 에헤 에이 허이 어허 어허야’로 받는 ‘헤이리소리’와 ‘넬렐렐 상사도야’로 받는 ‘상사소리’, 그리고 ‘에이여라 몸돌’로 받는 ‘몸돌소리’ 등을 부른다. ‘몸돌’은 몸을 돌려 논을 매라는 뜻을 담은 것이다. 논을 다 맨 다음에는 새를 쫓는 ‘우야소리’를 부르는데, 이는 액을 막아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장례의식요에서는 운상運喪소리인 ‘어거리넘차소리’와 ‘어허소리’가 있으며, 묘 다지는 소리로는 ‘달구소리’를 부른다. 회다지를 할 때에는 달구소리 이외에도 ‘방아타령’, ‘상사소리’, ‘우야소리’ 등 논매기소리들을 가져다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경기지역의 일반적인 전통이다.

현재 파주 금산리 농요 보존회와 파주 금산리 민요 예능 보유자 추교전을 중심으로 공연 및 전승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1 2

1. 보유자 추교전,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경기도무형문화재 대축제 실외 공연, 2015  
\_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 안성 향당무

安城 香堂舞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162

지정일 : 2000.08.21  
보유자 : 향당무 보존회  
전수조교 : 유청자

안성 향당무는 경기도 안성지역의 향당香堂이라 불리던 악가무樂歌舞 교습소에서 시작된 전통춤을 말한다. 향당무의 기원은 고려 공민왕 때 ‘홍건적의 난’을 평정한 후 승전의 기념으로 지은 극적루의 관기인 버데애기의 후예들이 그 님을 기리며 춤을 춘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설 등 여럿이 있다. 안성과 진천 지역의 마을굿, 동제, 사당패놀이, 관기와 사기들이 추던 춤이 안성 향당무로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춤꾼은 재인과 기생, 민초들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한자로 된 춤사위 용어와 지명을 비유하는 용어 등을 볼 때 재인 집단뿐만 아니라 식자識者층과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다.

안성 향당무에서 전승되는 춤들은 약 40여종으로 성격에 따라 남성적인 춤과 여성적인 춤으로 나뉜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경천배례무敬天拜禮舞, 임금의 만수무강과 왕가의 번성을 기원하는 봉황금란무鳳凰金卵舞, 그리고 장검무長劍舞·궁무사무弓武士舞·도산무령무都山武領舞 등 13종은 남성적인 화랑무 계통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흰 수건을 들고 추다가 수건을 던져 놓고 추는 학鶴춤, 여인의 애절함을 표현한 홍애紅哀수건춤, 부채 하나를 들고 다양한 기교를 부리며 산조 곡에 맞춰 변화무쌍하게 춤을 추는 채선향影扇香을 비롯해 승무僧舞, 고명鼓鳴춤 등 15종의 춤은 안성지역의 기생들에게 전수되어 온 여성적인 춤이다.

안성 향당무의 반주음악은 궁중음악, 민속음악, 산조散調, 군악軍樂 등으로 분류해서 사용하며, 춤사위가 다양하고 난이도가 높다. 무구를 사용하는 춤이 많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전승한 춤이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 춤의 내용과 예능이 달라진다.

1990년 안성문화원을 비롯한 지역민들에 의해 발굴된 향당무는 2000년에 이석동을 보유자로, 유청자를 전수조교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석동 작고 후 유청자가 보존회장을 맡아 안성향당무의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봉황금란무 공연 모습,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 포천 메나리

抱川 메나리

포천시 가산면 메나리길 72

지정일 : 2000.08.21  
보유자 : 포천 메나리 보존회  
이영재  
전수조교 : 김영오·류태균

포천메나리는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일대에서 논을 맬 때 불렀던 농업노동요이다. 포천 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노동요가 전해오고 있지만 그 중에도 논맬 때 부르는 메나리가 매우 독특하여 포천의 노동요를 묶어 포천메나리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메나리는 악곡 명으로서 강원도에서도 널리 논매는 소리로 노래되는 곡이다. 강원도에서는 보통 교환창交換唱이나 윤창輪唱, 독창獨唱으로 노래되는데, 포천의 메나리는 다섯조를 나누어 소리를 부르는 독특한 가창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메나리는 음악학에서는 한반도 동부지역의 음악 양식을 이르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

포천메나리는 농사일의 과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농사꾼들이 갈일을 꺾으러 산에 올라갈 때 부르는 자진아리와 지게에 짐을 지고 산을 내려오며 부르는 ‘지게꾼소리’가 있으며, 소를 몰아 논을 갈 때 부르는 썰레질소리로 ‘호리소리(외겨리)’가 있다. 모심기에는 ‘열소리’를 하는데 경기지역에 널리 불리는 하나소리 계열이다. 첫 번째 논매기인 ‘아이논 매기’는 호미로 하는데, 이때는 ‘긴방아타령과 곧방아타령(꽃방아타령)’을 부르고 논매기를 마무리할 때에는 ‘새쫓는 소리’를 부른다. 두 번째 논매기인 두벌 매기는 손으로 훑치는데, 이때 ‘메나리’를 부른다.

‘메나리’는 다른 지역의 메나리와는 다른 가창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매기는 소리, 지르는 소리, 받는 소리, 내는 소리, 맺는 소리의 다섯조로 편성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맡아 부르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악구를 나누는 방식을 살펴보면 ‘매기는 소리 : 이 논배미 물세 좋아 / 지르는 소리 : 이에이에 이에이에 / 받는 소리 : 이 논배미가 / 내는 소리 : 물세 / 맺는 소리 : 좋아’의 형태로 나뉘게 된다.

1. 보유자 이영재\_보유자 제공
2. 보유자 선소리하는 모습\_보유자 제공
3. 야외공연 모습\_보유자 제공
4. 경기도무형문화재 대축제 공연, 2016\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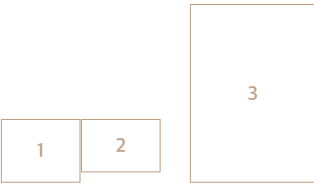


# 대목장(도편수)

大木匠(都邊首)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254-1

지정일 : 2001.11.05  
보유자 : 장효순  
전수조교 : 장원희



1. 강릉 임영관 모형,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작업 모습\_보유자 제공  
2. 보유자 장효순,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대목장은 집짓는 장인을 일컫는다. 목수 또는 목장으로도 불리었으며, 이들 가운데 전체 일을 주관하여 이끄는 장인을 도편수 또는 도대목으로 지칭하였다. 한국은 넓은 산림에서 구하기 쉬운 목재로 지은 나무집이 발달하였으며, 민가는 물론 궁궐과 사찰도 나무로 지어졌다. 따라서 나무를 다루는 목수의 소임이 매우 요긴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대목장과 소목장의 구별 없이 목장으로만 기록되었으나 고려시대에도 집을 짓고 가구를 짜는 두 분야의 영역은 따로 있었다. 목수의 일은 과정이 복잡한 만큼 소임에 따라 여러 분야로 체계화된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전체를 총괄하는 도편수 밑에 부편수와 편수를 여럿 두었으며, 공정별로 기둥과 보, 지붕구조를 맡은 정현편수, 공포를 짜는 일에 공도편수, 서까래를 깎고 거는 일에 연목편수가 조력하였다. 집을 짓는 일은 이밖에도 문틀을 짜는 소목장과 온돌을 놓는 돌장塙匠, 벽채를 마감하는 니장泥匠, 기와를 만들고 지붕을 잇는 제와장과 번와장 등이 각기의 소임대로 긴밀하게 협업하여 완성한 기술문화의 정화였다. 특히 변변한 도면이 없이 간단한 칸수와 기둥만을 표시한 양판으로 집을 완성해낸 전통 대목장의 능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대목장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일찍이 지정받은 고 배희한, 고 이광규, 고 고택영과 신응수, 전흥수, 최기영 등이 있으며, 지방에도 여러 장인이 각기의 전승체계를 통해 기능을 잇고 있다. 경기도는 대목장 보유자로 2001년에 제36호로 장효순(1939년생)을 지정하여 활발히 전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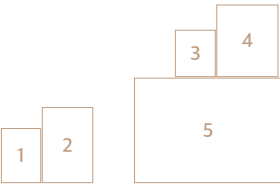


# 옹기장

甕器匠

여주시 금사면 이여로 1213-12

지정일 : 2000.11.25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 승격(제96호)  
전수조교 : 김성호·김용호



1.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김일만)\_보유자 제공
2. 시연 모습, 2015. 경기도자박물관
3. 술병과 소주독,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4. 독,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5. 건조 과정, 보유자 제공



옹기는 질그릇과 오지그릇에 대한 총칭으로 질그릇은 유약을 시유하지 않은 도기陶器이고, 오지그릇은 잿물 유약을 시유한 도기로 좁은 의미에서의 옹기에 해당한다. 고려시대까지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도기가 위주가 되었으나 조선시대 중기부터 옹기에 해당하는 약토藥土를 바른 흑갈색의 도기가 제작되면서 조선후기에는 유약을 입힌 시유도기施釉陶器가 일반화된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대 이전부터 ‘옹甕(瓮)’으로 지칭되는 대형의 도기 항아리가 술·물·장·젓갈 등 액체나 음식을 담거나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태안 마도해역에서 출토된 다량의 고려시대 도기 항아리들이 물을 저장하거나 젓갈 등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조선시대에는 도기를 만드는 장인은 옹장甕匠으로 지칭되었는데, 『경국대전』 공전工典 공장조工匠條에 의하면 104명의 옹장이 중앙관청 14곳에 소속되어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도기를 제작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옹기를 포함한 도기는 일상용 그릇으로 왕실에서부터 민간까지 폭넓은 계층에서 사용되었고, 기후나 쓰임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며 발달하였다.

2002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일만은 6대에 걸쳐 옹기를 만들어 온 집안 출신으로 조선후기부터 내려온 3기의 전통 가마를 이용하여 경기도의 전통적인 옹기의 제작에 전념해 왔다. 2010년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으로 승격이 되면서 현재는 그의 아들 김성호와 김용호가 전수자로 지정되어 경기도 옹기 제작의 전통을 잇고 있다.





## 풀피리

포천시 영북면 복원로255번길 24

지정일 : 2002.11.25  
보유자 : 오세철

풀피리는 말 그대로 풀로 피리를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나뭇잎이나 풀잎을 접어 입술에 대고 휘파람을 불듯이 소리를 내어 연주하는데 한자로 초적草賊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복숭아나 유자 나무 잎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풀피리에 대한 기록은 『수서』 「동이전東夷傳」에 등장하는 갈대피리 혹은 갈잎피리의 기록이 가장 오래 되었고, 고려시대 이규보의 ‘문가성’이라는 시의 ‘누가 숲속에서 푸른 잎 하나를 따다가, 입에 물고 불어서 맑은 소릴 내는고’라는 구절에도 초적 연주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1493년 조선 성종 때 성현 등이 편찬한 『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향악기의 하나로 풀피리의 종류, 재료와 연주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었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궁중에 초적을 연주하는 악사를 두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보인다. 또 여러 문인들의 문집에 초적이 등장하여 위로부터 임금에서부터 아래에는 평민들에게까지 초적을 즐겨 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유성기 음반에 초적 명인인 강춘섭이 산조와 같은 음악으로 ‘휘모리’, ‘굿거리’ 등의 음악을 취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풀피리는 긴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즐겨왔던 악기의 하나이며, 민간뿐 아니라 공식적인 악기로서도 인정받아 온 것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에는 ‘선생의 가르침이 필요치 않고, 먼저 악절만 다 알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소리를 내고 연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되어 있을 정도로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이며, 음악을 알 수 있으면 그 음악을 초적으로 모두 연주할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풀피리는 누구나 쉽게 배워 연주할 수 있으며, 어떤 음악이든지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 오늘날 초적으로는 민요, 청성곡, 산조 등의 전통 악곡을 비롯하여 다양한 창작곡 등을 연주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풀피리 보유자로 오세철이 지정되어 활발한 공연을 펼치며 전통을 잇고 있다.

보유자 오세철. 보유자 제공



## 조각장

彫刻匠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110-1

지정일 : 2004.01.05  
보유자 : 곽홍찬

조각장은 예전에 공조工曹 교서관校書館, 선공감膳工監에서 조각 일을 맡았던 장인을 말한다. 조각은 쇠칼로 선이나 면을 파고 표면에 무늬를 만드는 기법이다. 우리말로로는 ‘파기’인데 주금鑄金이나 단금鍛金 따위의 표면을 장식하는 기술이다. 기법으로는 평각平刻, 육각肉刻, 투각透刻, 고각高刻, 상감象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조각장 보유자 곽홍찬은 조선후기 인사동에서 ‘곽씨공방’을 운영했던 곽순복, 부친 곽상진을 이어 3대에 걸쳐 가업을 계승하였다. 곽씨 공방은 주로 궁궐에서 필요한 물품을 비롯해 양반들의 고급 생활용품, 또는 향로와 사리함과 같은 고급 사찰용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곽홍찬은 부친 외에도 두 명의 스승으로부터 전통적 방식의 조각 기술을 익혔으며, 국보급 문화재나, 중요한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복원해 널리 알리고 전승시키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백제 ‘칠지도’를 은입사 상감기법으로 원형 복원했으며 일제강점기 때 유출 돼 현재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은제도금주자 및 승반’도 복원했다. 최근에는 그의 기술과 이론을 적용한 은입사 기법으로 ‘윤도’와 ‘천상열차분야지도’ 재현에 성공했다.

1  
2 3

1. 흥왕사명 청동 은입사 용봉문 향완.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청동 은입사 인동당초 용문함.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3. 보유자 곽홍찬,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 서각장

書刻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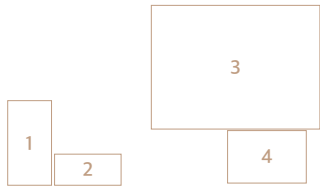
평택시 어인남로 40-18

지정일 : 2004.01.05  
보유자 : 이규남

서각은 나무나 돌에 글자를 새기는 일을 말하며, 서각장은 이 일을 하는 장인이다. 서각은 본디 책을 인출하거나 편액을 새겨 걸기 위해 글자를 새기던 각자장刻字匠의 소임과 다르지 않다. 각자가 근래 들어 벽에 걸고 감상하는 예술의 영역으로 나아가면서 붙은 별칭인 셈이다. 각자의 영역은 규모가 작은 인장이나 전각 등 신표의 기능을 가진 것에서 인출용 각자, 건물에 거는 편액 등으로 다양하다. 다만 인출용 각자는 인쇄를 위해 글자를 거꾸로 새기는 점이 다르다. 한국의 각자기술은 인쇄기술과 함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증거인 목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물로 통일신라시대(751년)에 제작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남아 있으며, 고려시대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유교목판 다수가 전하고 있다. 목판을 통해 지식이 보급되는 통로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금속활자 또한 목활자를 모자母字로 하여 제작되었음을 상기하면 각자장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알게 된다.

각자에 알맞은 나무는 보통 산벚나무나 대추나무, 박달나무, 배나무, 가래나무 등이 꼽힌다. 무늬의 요철이 적고 단단하며 질긴 목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목판에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재료의 성질을 다스리기 위한 섬세한 과정이 필요하다. 바닷물이나 개펄에 수년간 담가 두거나 솥에 삶아서 쓰는 것이 오래된 방법이었다. 다만 전통 각자에서는 칼등을 망치로 치는 대신 칼을 손으로 밀거나 당겨 새기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각자장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일찍이 지정받은 고 오옥진과 김각한이 있으며, 여러 지역에 각자장이 지정되었다. 경기도에는 제40호 서각장 이규남이 2004년에 보유자로 인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규남은 오옥진과 신학균의 문하에서 각자를 배우고, 글씨는 김충현에게 배워 그동안 편액과 목판 여러 점을 복원하였다.



1. 능화판\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경복궁 외소주방 현판(난지당)\_보유자 제공
3. 보유자 이규남,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4. 보유자 작업 모습\_보유자 제공





# 사기장(청화백자)

沙器匠(靑華白磁)

여주시 오금1길 38

지정일 : 2005.02.07

보유자 : 한상구

전수조교 : 한윤희

1	2	
	3	4

1. 보유자 한상구,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작업 모습.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3. 백자청진사운룡문 호.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4. 백자철화운룡문 호.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청화백자는 1200℃ 이상의 고온 번조를 통해 에서 번조하면 푸른색으로 발색하는 산화코발트로 문양을 장식한 백자이다. 흰 바탕과 푸른 문양이 어우러져 청신하고도 세련된 장식미를 나타내는 청화백자는 중국에서 원대(元, 1279~1368)부터 백자의 장식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명·청대까지 성행적으로 제작되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초 15세기 중반 무렵 청화백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조선후기까지 왕실을 대표하는 도자기로 경기도 광주 지역에 설치된 관요官窯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토산조土産條」에 의하면 왕실의 화원畵員이 관요로 파견되어 청화백자의 문양을 시문하였고, 그로 인해 회화적 표현이 두드러진 조선 청화백자 특유의 양식이 성립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청화백자는 안료인 회회청回回靑을 비싼 값으로 중국에서 구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수량이 제작될 수 없었다. 또한 왕실의 도자기로 신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어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의 금제조禁制條를 통해 왕실 외에는 사대부의 주기酒器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사번私燔이 활발해지면서 청화백자의 제작과 사용이 점차 확대되었고, 조선후기에는 지방의 요업이 활성화되면서 양구 칠전리·장성 수옥리·무안 피서리·충주 미륵리 등 여러 지방가마에서도 지역적 특색을 가미한 청화백자들이 제작되었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청화백자 사기장 한상구는 조선총독부 도자기 시험소에서 근무했던 조부 한상구와 부친 한호석의 뒤를 이어 3대에 걸친 가업을 계승하였는데, 전통가마를 사용하여 조선후기 백자의 색조와 청화기법을 고수하면서 백자를 제작하고 있다. 그의 목물레 성형은 매우 단아하며, 흙의 제조와 도구의 사용이 수준급으로 전통 방식의 청화백자를 가장 잘 재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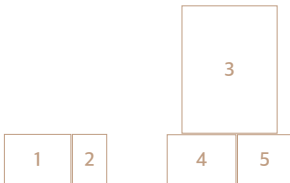
# 사기장(순백자)

沙器匠(純白磁)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133번길 161

지정일 : 2005.02.07

보유자 : 서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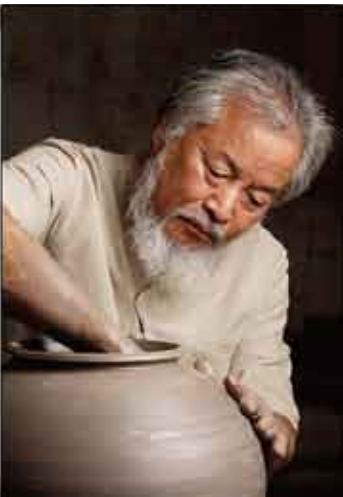
1. 보유자 서광수,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작업 모습. 보유자 제공
3. 진사백자 주전자.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4. 당초문호.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5. 달항아리.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사기沙器란 흔히 유약을 시유하지 않은 도기陶器의 상대적 개념으로 유약을 시유하여 1250℃ 이상의 고온에서 번조한 자기磁器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사기장은 바로 백자·청자·분청사기와 같은 자기를 만드는 장인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식사를 담당했던 사용원司饗院에 사기장沙器匠 360명이 소속되어 경기도 광주지역에 설치되었던 관요官窯에서 왕실용 백자의 제작을 담당하였다.

백자는 산화철 성분이 적은 백토를 태토로 사용하고 장식계의 고화도 유약을 시유하여 고온에서 번조한 것으로 자기磁器를 대표한다. 백자는 고려시대에 초기청자와 함께 제작되기 시작하였는데, 고려 백자는 소성온도나 자화磁化의 정도에서 아직 완전한 자기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연결계통으로 조형과 장식 역시 청자를 그대로 따랐다. 고화도 소성에 의한 경질백자는 조선 초부터 경기도 광주에 관요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는데,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는 왕실의 일상용 식기나 제사나 연향과 같은 국가의례에서 사용되었다. 성현成俔(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세종연간부터 어기御器로 사용되었고, 세조연간부터는 청화백자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문양을 시문하지 않은 무문백자가 주로 제작되었지만 시기에 따라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된 백자도 함께 제작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상감백자와 청화백자, 조선중기에는 철화백자가 각각 특색을 나타냈으며, 조선후기에는 양각·투각·동화銅畵·청채靑彩·철채鐵彩·동채銅彩 등 다양한 기법과 화려한 채색장식이 적용된 백자가 많이 만들어졌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순백자純白磁 사기장 서광수는 1960년대 초반 지순택(현 고려도요) 장인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도예에 입문하여 25년간 도자기 기술을 익혔으며, 1986년 독립하여 한도요韓陶窯를 열고 현재까지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2003년에는 대한민국 명장 14호로, 2005년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사기장(백자)으로 각각 지정되었다. 그는 전통적인 장작가마를 사용하여 달항아리를 비롯한 다양한 백자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특히 조선백자의 유백색 유색을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사기장(분청사기)

沙器匠(粉靑沙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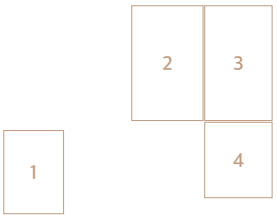
광주시 탄벌길 166-8

지정일 : 2011.06.17  
보유자 : 박상진

분청사기란 ‘분장회청사기’의 줄임말로 그릇의 표면을 백토로 바른 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문양을 장식한 것이 특징이며, 고려 말 상감청자에 연원을 두고 조선 초에 성행적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세종연간에는 인화분청이 절정을 이루며 관용官用자기로 공납貢納되어 왕실과 관청에서도 사용되었고, 지역별로 다양한 장식기법이 특색을 나타내며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15세기 후반 경기도 광주 지역에 사용원司饔院 소속의 분원分院, 즉 관요官窯가 설치되어 백자의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분청사기는 점차 백토 분장을 위주로 백자화의 경향을 나타내며 점차 쇠퇴하여 16세기 후반부터는 거의 제작되지 않게 되었다.

분청사기에 사용된 장식기법은 크게 상감象嵌·인화印花·선각線刻·박지剝地·철화鐵畫·귀얄·덤병이 대표적이는데, 시기와 지역에 따른 특색을 나타냈다. 15세기 초까지는 고려 말 상감청자의 기법과 특징을 그대로 계승한 상감분청이 주로 만들어지다가 15세기 중엽에는 고려 말부터 등장한 인화기법을 기면 전체에 적용한 도장으로 무늬를 찍은 후 백토로 상감한 인화분청이 크게 성행하였다. 15세기 후반에는 백토 분장한 표면에 문양을 깊게 새긴 선각기법과 분장한 표면에 문양을 선각한 후 배경을 긁어낸 박지기법이 전라도 지방에서, 기면을 분장한 후 산화철 성분의 안료로 특유의 문양을 붓으로 그려 표현한 철화기법이 충청도 지방에서 각각 특색있게 제작되었다. 다른 장식기법은 사용하지 않고 백토물을 붓으로 바르거나 백토물에 담귀 기면을 전체적으로 분장한 귀얄기법과 덤병기법은 백자화의 경향을 나타내며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까지 주로 제작되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분청사기 사기장인 박상진은 1971년 지순택의 ‘고려도요’(현 지순택요)에 들어가 도자기 기술을 익힌 후 1974년부터 박부원의 ‘도원요’에서 약 13년 동안 분청사기 기술을 연마하였다. 1987년 독립하여 개천요開川窯를 설립하고 분청사기 제작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2011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분청사기장으로 지정되었다. 전통적인 분청사기의 기법과 특징을 토대로 한 다양한 작품과 함께 분장기법을 대담하게 변형시킨 현대적 감각의 분청사기 작업도 시도하고 있다.



1. 보유자 박상진\_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분청사기 상감모란문 호\_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3. 분청사기 투각문 병\_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4. 분청사기 인화모란문 병\_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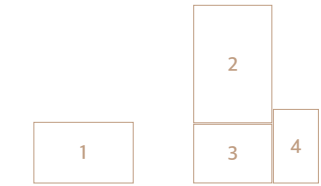
# 석장(조각)

石匠(彫刻)

광주시 곤지암읍 내선길 174-31

지정일 : 2005.02.07  
보유자 : 박찬봉  
전수조교 : 김영탁

석장이란 석조물을 제작하는 장인으로, 주로 사찰이나 궁궐 등에 남아있는 불상, 석탑, 석교 등이 이들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석조문화재가 전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석조물 제작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동양 삼국의 미술을 비교할 때 ‘중국의 벽돌, 일본의 나무, 한국의 돌’이라고들 한다. 이렇듯 양질의 석재가 각처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석조미술이 발달하였고 불교가 성행하자 돌을 다듬어 부처의 형상을 만드는 불상 조각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석공石工은 우리 전통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석불과 석탑은 대표적인 우리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런 석불조각의 맥을 잇고 있는 장인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석장石匠 조각彫刻 보유자 박찬봉이다. 그가 석공에 입문한 것은 1960년대 후반으로 마산의 석재공장에서 일하던 중 좋은 돌감을 찾아 그곳을 들렀던 한국 불교조각의 큰 스승 권정환 선생을 만나 7년간 사사하였다. 그 기간 동안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상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1981년에 단일 석재로는 국내 최대인 높이 9m의 파주 보광사 대불을 조성하였다. 그는 재주를 타고난 솜씨 좋은 석장이라 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보유자 박찬수가 그의 집안으로 예술가로서의 뼈어난 자질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그가 조성한 불상의 미소가 현존 석조불상 조각가의 작품 중 으뜸이라는 세평을 받고 있다. 그가 만든 작품은 대구 동화사 삼층석탑과 약사여래입상을 비롯하여 양산 통도사, 대구 동화사, 강화 보문사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찰에 100여 점 봉안되어 있다.



1. 보유자 박찬봉\_보유자 제공
2. 보유자 작업 모습, 2017\_경기G뉴스
3.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상\_보유자 제공
4. 대구 동화사 삼층석탑과 약사여래입상\_보유자 제공





## 석장(석구조물) 石匠(石構造物)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로

지정일 : 2013.12.31  
보유자 : 임동조

1 2  
3 4

1. 보유자 임동조\_보유자 제공
2. 창경궁 육천교\_보유자 제공
3. 광화문 육축\_보유자 제공
4. 미륵사지 석탑 벽면석\_보유자 제공



석구조물은 목조건축물이 세워지는 기단, 석축, 석단, 육축 등의 기초부를 말한다. 석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돌의 강도와 수압, 지압을 고려해야 하고 기하학적 원리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석구조물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나긴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하고, 육체적 고단함도 이겨내야 하며, 오랜 경험과 타고난 자질이 있어야 한다.

보유자 임동조는 우리나라 석구조물 축조의 전통을 잇고 있는 몇 안 되는 장인 중 한 명이다. 그는 1969년, 당시 15세 나이로 석구조물 일을 하던 매형을 따라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특히 매형의 스승인 안기호 선생은 1968년에 일제 강점기 때 손상된 광화문 복원사업에 참여했던 장인이다. 당시 복원됐던 광화문은 2006년에 광화문 제모습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동쪽으로 13m 옮겨 원래의 자리로 안착하게 되는데, 이때 보유자는 광화문의 육축을 이전 및 복원하는 작업을 지휘하였다.

임동조는 목조 건물의 기단과 육축뿐만 아니라 교각이나 난간, 석탑 등 이미 설치된 석조구조물을 해체하고 수리하는 등의 작업도 전통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이런 능력이 인정되어 서울 5대 궁궐 복원사업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복원 사업에서 석탑의 기초부를 조성하는 일을 도맡아 했다.

## 금은장 金銀匠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176번길

지정일 : 2005.02.07  
보유자 : 이효준  
전수조교 : 이은

1 2 3

1. 금도금 압형 항합\_보유자 제공
2. 은제 원앙 향로\_보유자 제공
3. 보유자 이효준\_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금은장은 금과 은을 녹여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들어 내는 장인을 말한다. 삼국시대 이래 금·은 세공기술이 크게 발달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청동에까지 이 기법을 적용하여 뛰어난 유물을 남기기도 했다. 대공방에서는 주전자, 신선로, 수저, 담배합 등 비교적 큰 그릇을 만들었고, 반디, 비녀, 노리개, 방울, 바늘집, 빗치개 등 여인들의 소품은 주로 세공방에서 만들었다.

금은 세공은 950℃의 높은 열로 금과 은을 단련하는 작업이다. 은이 식고 단단해지면 다시 가열해 부드럽게 만든 뒤 망치질을 한다. 필요한 두께의 은이 만들어지면 원하는 디자인의 작품을 만든다. 은은 밝은 회색 빛깔이지만, 약품처리를 하면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여기에 금박 등으로 장식하면 전혀 새로운 매력을 발산한다. 보유자 이효준은 1988년부터 고양시 화전동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전통제작 기법을 전수받아 금은 세공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한가지 금속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금속재료의 기계적인 성질을 높이거나 미적인 효과를 내는 목적으로 합금을 하는 경우도 많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풀잎, 나뭇잎 등 자연에서 얻는다. 금박과 은박, 노리개, 귀걸이, 목걸이, 비녀, 뒤꽂이 등 많은 공예품들이 단순한 장신구에서 예술작품을 넘어 문화재로 빛어지고 있다.

보유자는 금은 세공 분야에서 한국의 전통기법을 지키며 제작하고 있는 장인이다. 특히 그의 작품에는 전통문양이 아주 세밀하게 표현되어있고, 문양의 속성을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가장 한국스러운 멋과 정서를 금과 은에 잘 담아낸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 과천 무동 답교놀이

果川 舞童 踏橋놀이

과천시 문원로 40-1

지정일 : 2005.02.07  
보유자 : 과천 무동 답교놀이 보존회  
오은명(2010.06.08)

과천 지방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조가 억울하게 죽은 사도 세자의 무덤인 현릉원顯隆園으로 행차할 때, 과천의 부락민들이 나이 어린 소년을 뽑아 여장을 시켜 남자의 어깨 위에 태우고서 춤과 재주를 부리는 놀이, 즉 무동舞童놀이를 펼쳐 그의 효행을 찬양하고 능행길을 환송했다고 한다. 무동놀이와 정월대보름에 풍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동네 다리 위를 오가던 답교踏橋놀이가 더해진 것이 과천 무동 답교놀이이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명맥이 끊어졌으나, 1981년 이운영李允榮과 과천 지역민들이 참여한 과천민속보존회에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복원하였다. 1982년 제23회 전국민속예술공연대회에 문예진흥원 장상을 수상 하면서, 과천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후 복원된 원형에 무동춤과 농악이 보강되고, 과천의 또 다른 민속놀이인 지신밟기, 당나무고사, 선소리놀이, 우물고사, 마당놀이 등이 더해져 다채로운 내용으로 조금씩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길을 안내하는 길라잡이와 농기와 영기를 든 기수를 선두로 호적·팽파리·징·제금·장구·북·소고 등으로 편성된 농악대가 뒤따르고 그 뒤를 잡색과 무동들이 따른다. 놀이는 당나무고사, 지신밟기와 우물고사, 다리고사, 마당놀이, 선소리 답교, 무동 답교놀이, 마무리 및 소원빌기 순으로 연행된다.

과천 무동 답교놀이는 전문 국악인 오은명이 가세하며 과천 무동 답교놀이의 내용과 구성이 풍부해졌다. 2010년 놀이패의 지휘자격인 상쇠 보유자로 오은명이 지정되었으며, 그녀를 주축으로 과천 무동 답교놀이를 전수하는데 힘쓰고 있다.



1

2

3

1-2. 공연 모습, 2017\_과천시  
3. 보유자 오은명\_보유자 제공





## 주물장

鑄物匠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362-107

지정일 : 2006.03.13  
보유자 : 김종훈  
전수조교 : 김성태

주물이란 금속을 용해한 뒤 주형에 주입하여 성형한 것을 말한다. 경기도 지정 주물장은 전통방식으로 쇠를 녹이고 형틀을 짜서 가마솥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장인이다. 주물장 김종훈이 가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성주물’은 1910년 중조부 김대선이 가마솥을 때워주는 일을 하면서 시작되었고, 1924년 조부 김순성이 안성시 봉산동 물문 거리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53년 조부가 병환이 들어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현재 주물장 보유자인 김종훈이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명맥이 유지되었고, 지금은 그의 아들이자 전수자인 김성태가 운영을 맡으면서 4대째 이어지고 있다.

가마솥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알틀과 겉틀을 만드는 작업과 쇳물붓는 작업으로 구분된다. 알틀은 다른 말로 ‘중자中子’라고도 하는데 주물 중공부中空部를 만들기 위해 주형主型과는 별도로 제작된다. 가마솥의 속모양을 담당하는 알틀은 가장 고운 주물사부터 넣는다. 그 후 형틀과 분리하면 동그란 모양의 알틀이 완성된다. 만들어진 알틀은 한 쪽으로 옮겨 말려주다가 거친 표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표면을 곱게 다듬어 주고, 그 위에 흑연가루와 백연가루를 1시간가량 계속해서 발라 알틀을 다듬는다.

가마솥의 외형을 담당하는 겉틀은 흙물을 바르고 전통도구인 ‘도레’를 이용하여 모양을 만든다. 완성된 형틀은 수분을 없애기 위해 불로 달구는 과정을 거친다. 형틀에 조금이라도 수분이 남아 있으면, 쇳물과 닿아 폭발할 수 있고, 달구는 과정에서 형틀에 묻는 그을음이 실금들을 매워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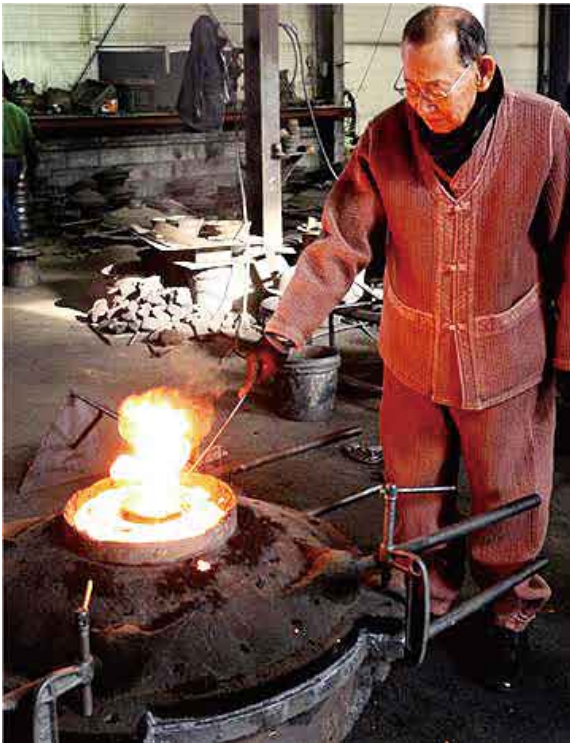
쇳물로 쓰이는 쇠는 탄소함유량이 1.7% 이상이 되는 선철을 사용하고, 쇠를 녹이는 연료로는 고체연료인 코크스를 사용한다. 연료와 쇠를 넣는 작업은 전통용해로에서 이루어지는데 1층에는 쇳물을 받는 구멍, 2층에는 재료를 넣는 화구가 있다. 코크스를 25kg를 넣고 선철80kg, 나머지 철20kg(4:1비율)을 장입하면 1층에 쇳물이 고이게 된다. 제철 작업 시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석회석을 함께 넣어 불순물을 분리해준다.

완성된 겉틀에 알틀을 끼우고 뚜껑을 덮은 뒤 쇳물을 주입할 준비를 한다. 용광로의 쇳물을 받아 거푸집에 주입하면 알틀과 속틀의 간격 사이로 쇳물이 들어가서 솟아 된다. 쇳물을 부을 때는 쇳물줄기가 주입구를 꽉 채우며 들어가야 밀도가 높아지고 두께가 일정해진다. 쇳물을 붓고 3분 뒤 쇠의 온도가 800℃ 이하로 떨어지면 거푸집을 분리한 뒤 주물가마솥에 붙은 쇳물과 주물사를 떼어낸다. 참기름으로 길들이기를 하여 마무리를 하면 표면이 매워지면서 반질반질해진다. 가마솥 뚜껑을 제작하는 방식도 가마솥을 만드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지만 가마솥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마솥 뚜껑은 가마솥 무게의 4분의 1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마솥 단면의 두께를 살펴보면 바닥면의 두께가 약 9mm인 것에 비해 옆면의 두께는 약 4~5mm로 더 얇다. 이것은 가마솥의 크기와 관계없이 바닥과 옆면의 두께차이는 2분의1로 제작된다. 불이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은 두껍고, 늦게 닿는 부분은 얇게 만들어 열이 전달될 때 내부에 고르게 전달되게 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주물기술을 이용하여 가마솥뿐만 아니라 프라이팬이나 타코야끼팬 등 현대적인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1. 보유자 김종훈\_경기G뉴스
2. 경복궁 소주방 복원작품 경식(위), 받침대 3호(가운데), 원형주물팬(아래)\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3. 보유자 작업 모습\_경기G뉴스





# 양주농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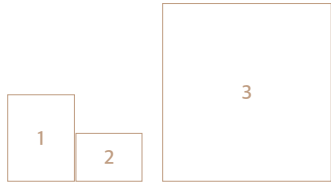
楊州農악

양주시 광적로155번길 70

지정일 : 2006.03.20  
보유자 : 양주농악 보존회  
          황상복  
전수조교 : 박인숙

양주농악은 포괄적으로 양주농악이라고 하였지만, 양주 고을 전체에 전승되는 몇 가지 농악이 기반이 되었다. 그 농악 전승의 주맥을 이루는 것은 양주지역의 광적면 석우리 박달동 농악, 광석리 농악, 덕도리 농악 등으로, 이러한 농악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양주농악에 이르렀다. 경기 북부 지역 농악의 성격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으며, 경기도의 농사풀이 농악의 전형적인 면모를 구현하고 있는 농악이다. 양주농악은 기본적 성격이 농사과정을 마치고 하는 ‘호미씨세’와 관련이 있다. 이 고장에서는 두레를 짜서 마을곳곳마다 두레가 극성스러웠다고 한다. 두레가 근간이 되어 농사일을 마칠 때에 호미씨세를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이는 전통이 있었다. 이 전통 속에서 우러난 것이 바로 양주농악이다. 또한 양주농악은 농사 경작을 하는 흥내를 내면서 농악놀이를 하는 전통인 ‘농사풀이’를 근간으로 한다. 예측적인 성격의 농악을 농사적 모방으로 재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호미씻이의 형태로 전승하면서 농사풀이를 하고 논농사소리를 하는 형태는 경기도 북부 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형태의 특징을 지닌다. 논농사소리의 구성도 일치하고, 농사풀이로 농악도 하고, 호미씻이 또는 호미걸이 등의 형태로 전승 과정을 공유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근거를 이룬다. 양주농악을 농사풀이 농악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1. 보유자 황상복, 양주시
2. 포천 예술제 공연, 2012, 양주시
3. 공연 모습, 2008, 양주시





# 주성장(불구)

鑄成匠(佛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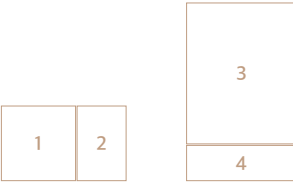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형동림로 157

지정일 : 2008.03.24  
보유자 : 이완규

주성장이란 쇠를 녹여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원하는 물품을 만드는 주물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한다. 정밀하게 유물을 복제, 복원하기 위해 밀랍(벌집)을 이용해 형상을 만드는 밀랍주형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정밀한 문양들을 섬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법으로 2400년 전 청동주물의 대표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주성장 불구佛具 보유자 이완규는 1970년대 금속 공예조각의 대가 오해익 선생의 공방에서 청동주물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불교미술의 영역에 속하는 호신불護身佛을 비롯해 촛대, 향로 등 부처 앞에 쓰는 온갖 불교용품의 제작에 매진해 왔고, 관련 분야 명장의 반열에 올랐다.

한편, 그는 청동기술 개발과 전통기법을 연구하여 한국의 7대 불가사의라는 다뉴세문경(국보 제141호)을 재현했으며, 연구를 거듭한 끝에 비파형 동검(조선검)과 다뉴세문경에 이어 나팔형 동기와 방패형 동기, 간두령 등을 재현했다. 그 결과 2007년 제32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1. 보유자 이완규. 경기G뉴스
2. 보유자 작업 모습. 보유자 제공
3. 반가사유상,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4. 다뉴세문경과 용범. 경기G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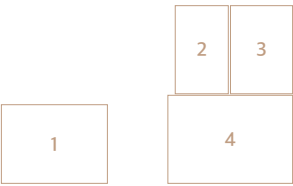


# 주성장(범종)

鑄成匠(梵鐘)

용인시 처인구 백령로 104

지정일 : 2008.03.24  
보유자 : 정동후



- 1. 보유자 정동후\_보유자 제공
- 2. 경기도무형문화재 대축제 전시 모습, 2016\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 3. LA 태고사 평화의 종\_보유자 제공
- 4. 보유자 작업 모습, 2017\_경기G뉴스



우리나라 금속 공예의 주요한 기술인 주조 기술은 불교문화와 함께 발달하였고 범종 제작이 그 주류를 이룬다. 우리나라 범종은 세부장식이 정교하고 소리가 웅장한 것이 특징이며, 전통적인 범종제작 방식은 밀랍 주조 기법이다. 먼저 밀랍으로 종의 모형을 만들고 그 위에 활석과 점토 등을 혼합해 만든 주물사를 일정한 두께로 바른 뒤 그늘에서 말린다. 그 다음 열을 가해 내부의 밀랍을 녹여내고 밀랍이 제거된 외형과 내형을 결합한 빈 공간에 쇳물을 부어 제작한다. 종체는 상하에 건대肩帶와 구대口帶로 구분되며 총 8등분으로 나뉜다. 건대 및 네 곳에 유곽乳廓이 있고 유곽 안에 9개의 유두乳頭가 있다. 유곽과 유두, 고리 역할을 하는 부전 등은 따로 만들어 붙인다. 이어 석고를 부어 틀을 만들고 주물로 외·내형 틀을 제작한다. 우리나라 범종은 우아하고 안정된 외형을 지니고 있으며 섬세하고 생동적인 조각이 새겨져 있으며, 맑고 은은한 소리를 낸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속공예로 손꼽히고 있으며, 세계의 그 어떤 종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유자 정동후는 이런 우리나라 범종을 주조기술로 만들어내는 주 성장이다. 그는 18살 때 고 신상무 장인匠人 아래에서 일을 배웠고, 자립한 이후 서울 삼성동 봉은사, 예천 용문사, 논산 관음사 등 명찰의 범종들을 제작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미국 LA 태고사에 걸려 있는 ‘평화의 종’을 들 수 있다.





## 평택민요

平澤民謠

평택시 중앙로 277

지정일 : 2009.03.19

보유자 : 평택민요 보존회(2009.06.29)

이민조(농요, 2009.03.19)

어영애(장례요, 2017.06.16)

이의근, 인원환(어업요, 2017.0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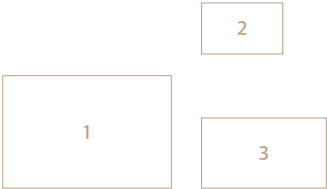
평택민요는 경기도 평택 지역에서 전승되는 노동요를 묶어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다. 평택이 서해안과 맞닿아 있고, 넓은 농토를 포함한 지역이므로 논농사에 사용되는 농요와 바닷일에 부르는 어로요, 그리고 장례의식요의 세 가지 민요들을 한데 묶어 전승하고 있다.

농요로는 모를 심을 때 부르는 모내기소리인 ‘상사소리’를 노래하는데, 이 곡은 경기도 남부에서 널리 불리는 악곡 유형이다. 논은 초벌·재벌·만물의 세 차례에 걸쳐 김을 맨다. 이 때에는 두레를 조직하여 단체로 일을 하면서 노래를 한다. 초벌(애벌)매기에서는 흙이 덩어리져 있다는 의미의 ‘얼카덩어리소리’를 노래하며, 두벌(재벌)매기에서는 ‘어화 슬슬 대허리’라고 하여 한 번 허리를 굽혀 슬슬 흙을 풀어낸다는 의미의 후렴구를 가진 ‘대허리소리’를 부른다. 세벌(만물)매기에서는 ‘어기야— 흥에—에이어허라 방계흥계가 논다’의 ‘방개타령’을 부르는데, 사당패소리 계열의 방아타령 유형에 속한다.



평택민요의 뱃소리(어업노동요)는 경기남부지역 유일의 뱃소리 민요로서 의의가 있다. 이 지역에서는 중선배를 타고 조기잡이를 하였으며, 이때 불렀던 뱃소리(어업노동요)로 ‘뒹감는 소리’, ‘큰배 노젓는 소리’, ‘뒹 내리는 소리’, ‘돌 옮기는 소리’, ‘아매/수해 내리는 소리’, ‘그물 뽑는 소리’, ‘줄 사리는 소리’, ‘그물 다는 소리’, ‘고기 되는 소리’ 등이 전승되고 있다.

장례의식요는 맨 처음 발인제를 한 후 상여를 들어올리고 출발할 때에 ‘상여 어르는 소리’, ‘발인 소리’ 등을 자유 리듬으로 느리게 부른다. 상여를 운상하며 부르는 ‘긴상여소리-어거리넙차’와 ‘자진상여소리-너화 너화’의 두 곡이 전승되고 있다. 장지에 도착한 후 회를 다지며 부르는 회다지소리로는 ‘달궁소리’가 있다. 위와 같이 평택민요에서는 농요와 어로요, 장례요 등 경기도 남부의 특색이 있는 소리들을 묶어 전승하고 있다.



1. 농요 평택민요 보존회
2. 어업요 평택민요 보존회
3. 장례요 평택민요 보존회





# 목조각장

木彫刻匠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452번길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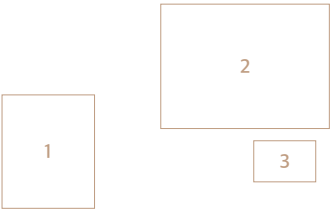
지정일 : 2010.03.02  
보유자 : 한봉석

목조각장은 나무로 불상을 깎는 일을 맡아 하는 장인이다. 불상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들어왔으며, 불상을 제작하는 기술 또한 전래 당시부터 시작되었다. 다만 나무로 만든 불상은 청동제에 비해 시대가 오랜 유물이 많지 않으나 고려시대의 유물은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비롯하여 10여점이 남아 전한다.

목조각장이 갖춰야할 기본 요건은 숙련된 기술뿐 아니라 예배대상으로서 신심을 돕는 조형적 감각과 높은 안목이 필수적이다. 일반조각과 다른 점은 불상이 감상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불상의 품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일반조각과 다르게 적용된다. 형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입체감과 비례미는 물론, 부처의 가르침에 기초한 도상, 그리고 불교도상을 충족하는 고유의 조형미, 자비로운 상호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목조불상을 제작하는 재료는 은행나무, 오동나무, 소나무, 전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이 주로 쓰였으며, 지금은 벌레에 강하고 조각도가 잘 먹는 은행나무를 즐겨 쓴다. 목조불상을 새기기 위해서는 재료의 성질을 다스리는 치밀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바닷물이나 개펄에 수년간 담가 두거나 술에 삶아서 쓰기도 했다.

경기도에는 목조각장 한봉석이 2010년에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한봉석은 허길량에게 배워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였으며, 중요한 문화재급 불상유물을 복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 남양주 흥국사 목조광배, 2017.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한봉석, 2016.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3. 보유자 작업 모습, 2016.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경기도무형문화재 제50호

## 이천 거북놀이

利川 거북놀이

이천시 사읍로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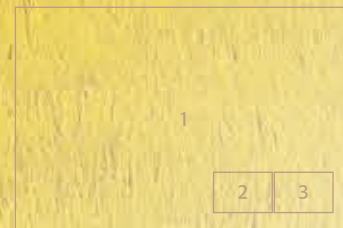
지정일 : 2010.06.08

보유자 : 이천 거북놀이 보존회

우리의 민속문화 중에서 경기도와 충청도에만 분포하는 놀이가 있으니, ‘거북놀이’가 바로 그것이다. 이 거북놀이는 추석에 수숫대를 벗겨 거북의 모양을 만들고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길놀이, 우물굿, 마을놀이, 문굿, 터주굿, 조왕굿, 대청굿, 마당놀이 등을 순서대로 펼치는 민속놀이이다.

다른 민속놀이에 비하여 추석 때에 주로 이루어지는 점, 거북을 만드는 재료가 수숫대인 점, 중부 내륙지방에만 이 놀이가 분포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또 마을을 돌며 놀이판을 펼치면서 마을의 전체와 각 가정의 재액災厄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해주는 제의적 성격이 강하며, 놀이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실제 놀이에 이르기까지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석한다는 점에서 마을의 화합을 도모하는 대동놀이이기도 하다.

이천 거북놀이는 다른 지역의 거북놀이에 비하여 그 놀이과정과 기물의 형태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이천거북놀이보존회가 있어 거북놀이에 대한 조사·연구·보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7년 제14회를 맞이한 이천거북놀이축제는 이천거북놀이의 원형을 보존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민속놀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길놀이.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우물굿.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터주굿.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 양태장

凉太匠

평택시 진위면 진위서로 92-24

지정일 : 2010.06.08

보유자 : 장정순

3

1

2

1. 보유자 개발 삼중양태\_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양태\_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3. 보유자 장정순\_ 보유자 제공



갓은 흑립黑笠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외출할 때 사용한 관모冠帽 중 하나로 신분을 반영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입笠은 원래 햇볕이나 비와 바람을 가리기 위한 실용적인 용구로서의 쓰개였으나 재료·형태·제작법이 다양해지면서 조선시대에는 패랭이에서 초립의 단계를 거치면서 흑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갓의 형태는 대우(모자)와 양태(갓의 테)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대에 따라 모자의 높이와 양태 너비의 유행이 심하였다. 갓의 종류는 마미립馬尾笠, 저모립猪毛笠, 죽사립竹絲笠, 포립布笠, 죽저모립竹猪毛笠, 음양립陰陽笠, 주립朱笠, 백립白笠 등이 있다.

갓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양태, 총모자, 양태와 총모자를 거두어 맞추는 입자笠子 일로 나뉜다. 양태는 갓의 둥근 테부분으로 대나무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개 둥근 판 위에서 한 올 한 올 엮은 것이다. 조선전기에 양태를 만드는 장인인 양태장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상의원에 2명이 소속되어 만들었으며, 조선후기에는 관청에 얹매어 있지 않고 말총과 대나무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사적인 생산을 도모하게 되었다.

양태 제작과정은 대나무 선별 및 손질, 대오리 공정, 양태 직조, 양태 꽃기 순이다. 대나무는 분죽(숨대)으로 남부지방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질기고 연하면서 마디 사이가 길고 품질 좋은 것을 선별하여 재를 넣고 푹 삶아 건조하여 보관한다. 대오리 공정은 명주실같이 가늘게 죽사竹絲를 만드는 공정으로, 용도에 따라 빗대클에 넣어 훑어 가늘기를 조절하여 날대·조를대·빗대를 만든다. 양태는 날대와 조를대를 엮어 만든 후 양태를 엮은 사이에 머럭(양태를 걷는 연장을 뜻하는 제주방언)을 사선으로 넣어가며 빗대를 꽃은 후 곱게 손질하여 양태를 완성시킨다.

양태장 장정순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송옥수(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2호 고분양태)가 가업으로 하던 갓일 중 양태 및 탕건의 제작 과정, 기법, 대나무의 선별과 관리 등의 작업과정을 보고 배우게 되었다. 이후 1986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상경하여 혼자 제작해 오다가, 1995년 과천으로 이주하여 작품 활동을 계속하였다. 기량이 우수하여 고분양태, 엉근양태 등의 작업을 수준 높은 기술로 제작하고 있다.





# 퇴계원 산대놀이

退溪院 山臺놀이

남양주시 퇴계원면 도제원로

지정일 : 2010.08.02

보유자 : 퇴계원 산대놀이 보존회

	2
1	3
	4 5

1. 경기도무형문화재 대축제 공연,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제1과장 상좌춤.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3. 제4과장 연일과 눈끔적이놀이 중 연일.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4. 제6과장 애사당놀이 중 애사당과 왜장.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5. 제7과장 팔먹중놀이 중 노장과 큰 소무, 작은 소무.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경기의 문화에는 민중의 문화를 기저로 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세련된 궁중 문화가 녹아있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문화유산이 ‘산대놀이’다.

퇴계원 산대놀이는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탈놀음을 일컫는다. 조선시대 퇴계원은 교통의 중심지로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다.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기 때문에 산대놀이 연회가 성행할 수 있었다. 놀이꾼들은 정규 공연 시기를 정해 상인과 부호들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으로 순회공연을 나서기도 했다.

퇴계원 산대놀이는 다른 가면극과 마찬가지로 음악 반주에 춤과 노래를 하는 가무와 연극으로 구성되며, 총 12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래는 경기민요에 바탕을 둔 선소리 계통의 소리이며, ‘청춘가’, ‘창부타령’, ‘백구타령’ 등이 나온다. 춤사위는 거드름춤과 깨끼춤으로 크게 나뉘며 기본 춤은 열다섯 가지이다. 춤선이 굵고 힘찬 특징이 있다. 본 산대놀이와 공통적으로 파계승, 몰락한 양반, 하인, 영감, 할미, 첩 등이 등장하여 현실 폭로와 풍자, 웃음 등을 보여준다.

양주 산대놀이 등의 탈은 바가지를 주재료로 한 데에 비하여, 퇴계원 산대놀이의 탈은 통나무를 조각하여 만든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1865년 무렵 제작된 서울대박물관 소장 산대놀이 가면 16개 중 먹중 탈 뒷면에 ‘양주군 퇴계원리 산대도감 사용 景福宮造營當時’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퇴계원 산대놀이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 경기검무

京機劍舞

구리시 아차산로405번길 5

지정일 : 2011.06.17

보유자 : 김근희

공연 형태를 갖춘 검무는 삼국시대 신라의 황창랑 설화에 기인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이는 가면을 쓴 동자가 춤을 추는 형식으로, 조선시대 초까지 처용 무와 함께 공연됐다. 조선 숙종 이후로 가면을 벗고 여기검무女妓劍舞가 등장했다.

여기검무는 정조 때 궁중정재宮中呈才로 정착되면서 궁중연향의 성격에 맞도록 연행 규모가 커졌다. 의상도 화려해지고 참여하는 여기의 숫자도 많아졌다. 조선후기 각종 연향의 공연 종목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예술적으로 한층 다듬어지고 세련되어진 여기검무는 궁중연향에 참가했던 각 지방 교방의 기녀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전파되면서 지방마다의 독특한 특색을 지니게 됐다. 현재 경기검무를 비롯해 진주검무·통영검무·호남검무·궁중검무·해주검무·평양검무 등이 전해진다.

기녀들이 전파한 교방검무는 민간의 연회에서 널리 공연됐다. 교방검무에는 한삼춤, 선 손춤, 앉은 손춤, 앉은 칼춤, 선 칼춤, 연풍대 등 다양한 유형의 춤사위로 구성돼 있으며 궁중정재의 요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민속무용인 승무, 살풀이, 입춤, 탈춤의 춤사위가 담겨 있다. 여럿이 추는 군무로 전승돼 홀춤에 비해 변형이 적어 한국 전통춤의 원형적 춤사위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검무 공연의 전반은 정적이고 칼을 들고 추는 후반부는 동적으로 음양의 이중적 요소가 조화롭게 결합돼 있다. 공간 사용에 있어서는 대지지향성과 위로 도약하는 역동성을 동시에 지니며 대형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춘다.

경기검무의 칼춤사위에 나타나는 특징은 양팔을 수평으로 펴서 칼을 돌리는 옆돌림사위가 많고 상대방과 만나 힘을 겨루는 듯한 동작이 궁중검무에 비해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한 음·양머리 뒷사위는 경기검무만의 독특한 칼춤사위이다.

경기검무의 체계적인 틀을 갖춘 한성준(1875-1941)에 이어, 태평무 보유자 강선영(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으로 전해졌으며, 그의 제자 김근희로 계승되었다. 현재 김근희가 경기검무 보유자로 지정되어 경기검무 보존회를 이끌며 공연 및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다.

1 2

1. 보유자 김근희,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경기도무형문화재 대축제 공연, 2015\_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 경기송서(송서·율창)

京機誦書(誦書·律唱)

동두천시 어수로 84

지정일 : 2011.12.06

보유자 : 한병옥

전수조교 : 이석기

송서는 말 그대로 책을 읽는 소리를 말한다. 본래 한학漢學을 공부하는 글방에서는 책읽는 소리, 즉 독서성讀書聲이 사용되었다. 독서성은 어떤 종류의 책을 읽는가에 따라 음영에 가깝기도 하고 선율적인 가창에 가깝기도 하다. 이 가운데 음악적 선율이 두드러진 몇 가지가 전문 소리꾼에게 불리기도 한다.

전문가들이 연행하는 시창이나 송서는 극히 제한된 글을 노래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현행 전통음악에서 시창으로 불리는 노래는 ‘관산용마’가 대표적이며, 송서의 경우는 서도명창 김정연이 남긴 ‘적벽부’와 ‘추풍감별곡’, 목계월이 전승한 ‘삼설기’가 있다. 이외에 김덕순이 불렀던 ‘경포대시’와 ‘십재경영’ 등의 율창 자료가 남아있기도 하다. 이들 시창은 한시의 낭송에서 유래된 것이며, 송서는 한문독서성에 바탕을 두고 전문예능인들이 음악적으로 세련되게 다듬어 만든 악곡이다.

한편 일반인들이 서당 교육을 통해 전승한 송서는 또 다른 계열로 전승되고 있다. 송서·율창은 과거 선비들이 뜻 문자인 한자 공부를 위하여 가락을 넣어 읊조렸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일반인들의 송서·율창은 한시나 명문장에 음률을 넣어 노래조로 읊조리는 것인데, 서당에서 글을 읽을 때 운율에 맞추어 부르던 것을 말한다. 오언五言이나 칠언율시七言律詩를 낭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시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송서는 계면조의 애조 띤 맛을 주는 간단한 율조律調를 넣어서 서도식으로 읽는 소리조에 가까우며, 율창은 음의 높고 낮음과 길이를 나타내는 평상거입平上去入을 달아 누구나 동일한 음을 낼 수 있다.

경기도의 문화재로 지정된 송서·율창은 전문가의 소리와 일반인의 송서를 모두 포함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현재 보유자로 한병옥이 지정되어 공연 및 전승활동에 힘쓰고 있다.

1 2

1. 보유자 한병옥, 2016\_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경기도무형문화재 대축제 공연, 2016\_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 동두천민요

東豆川民謠

동두천시 상패로 112-13

지정일 : 2013.12.31

보유자 : 동두천 민요보존회

동두천민요는 동두천 일대에 전승되는 민요를 묶어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논농사소리에 불리는 노동요와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와 장례의식에 부르던 의식요, 백중놀이에 부르던 유희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요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또한 한 마을에 전승되는 민요만이 아니라 인근 마을에 전승되던 소리를 모두 한데 묶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모를 낼 때가 되어도 날이 가물고 비가 오지 않아 모를 낼 수가 없으면 마을에 첫 아들을 낳은 아낙네들이 키를 가지고 시냇물에 나가 ‘물까부리 비나리소리’를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천지신명님께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것이다. 물까부리 비나리소리에는 복신 불러 들이는 소리와 짐승 불러 들이는 소리로 나뉘는데, 가사로 보아서는 비나리 계통의 악곡으로 생각되며 실제 노래 선율은 창부타령조에 얹어 노래하고 있다.

논농사소리로 모를 심을 때에는 모심는 소리인 ‘휩나기소리’를 부른다. 논매기는 일 년에 세 차례에 걸쳐 하는데, 첫 번째 논매기인 애벌에는 ‘긴방아타령’을 부르고 두 번째 논매기에는 ‘жат은방아타령’, 세 번째 논매기에는 ‘어러리타령’을 부른다. 논매기가 끝나는 백중 무렵이면 그동안 사용했던 호미를 씻어 보관하는 ‘호미씻이’를 한다. 마을 은행나무 아래에서 농사 풍년을 기원하며 농악에 맞추어 신명나게 놀면서 ‘니나노 방아타령’을 노래한다.

장례의식에서는 상여를 운상하는 상여소리를 부르는데, ‘옛날 상여소리’와 ‘근대 상여소리’, ‘жат은 상여소리’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 묘를 조성하기 위해 달구질이나 지경다지기를 하는데, 이때 ‘달고질소리’, ‘지경단이소리’를 부르며, 달구질이 끝날 무렵에는 ‘새쫓는소리’를 불러 액막이를 한다. 동두천민요에는 경기도 북부의 민속놀이와 민요 등 지역적 특색이 잘 살아있다.

## 경기 고깔소고춤

京畿 高峇小鼓舞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지정일 : 2015.11.20

보유자 : 정인삼

고깔을 쓰고 소고를 놀리면서 추는 경기고깔소고춤은 경기도 농악에 삽입된 소고가락을 양식화한 민속춤으로 경쾌한 농악의 일부였다. 그러나 농악이 가지는 거칠거나 흥에 겹다는 느낌보다는 동작이 부드러워 손에 든 소고마저도 마치 손의 일부인 양 아름다움이 피어난다. 발동작과 손동작이 정제되고 조용하여 남성의 춤이지만 한 폭의 춤사위를 보는 즐거움이 크다. 다른 지역과 달리 재인들이 취서 체계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춤에만 있는 동작도 있다. 거울을 보는 동작인 ‘색경복’, 다리 동작인 ‘제기복’, 실을 감는 것 같은 동작인 ‘꾸리복’ 등이다. 춤을 출 때는 전립 위에 꽃을 엮고 뛴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궁궐에서는 화려한 고깔을 쓰고 뛴다.

경기고깔소고춤의 계보는 화성 재인청의 춤꾼 김인호 선생으로 올라가는데, 한성순보에는 ‘줄도 잘 타고 판소리에 재담까지 능하며 특히 버꾸춤도 잘춘다’는 한 줄 기록이 남아 있다. 뒤를 이은 발탈 예능보유자 이동안은 김인호에게 30여 가지 전통춤과 장단을 전수받았고, 그 전통이 경기고깔소고춤 보유자 정인삼으로 이어졌다. 정인삼의 소고춤은 춤동작이 명확하고 구성이 정확한 특징이 있다.

1 2

1. 달고질 소리\_보유자 제공

2. 경기도무형문화재 대축제 공연, 2016\_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1 2

1. 보유자 정인삼\_경기G포털

2. 소고춤 교육 모습\_경기G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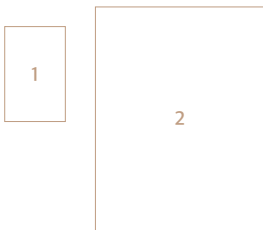
## 불화장

佛畫匠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4번길 74

지정일 : 2015.11.20

보유자 : 이연옥



1. 칠장사 오불회괘불탱화 원형모사본.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2. 보유자 이연옥, 2016.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불화’는 불교의 종교적 이념을 표현한 그림이다. 불화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문가들은 원시불교 사찰의 하나인 ‘기원정사’에 그림을 그려 넣었다는 기록을 토 대로 불교 도입 초기부터 제작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불화는 불교의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불화를 제작하는 장인을 특별히 ‘금어金魚’, ‘화승畫僧’, ‘화사畫師’, ‘화원畫員’으로 높여 부르기도 했다.

불화 제작기능은 1972년 단청장丹青匠이 국가무형문화재 제 48호로 지정된 이래, 줄곧 단청장 보유자에 의해 전승되었으나, 2006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로 분리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57호 불화장 이연옥의 불화는 1977년에는 대구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인 고故 조정우에게 배우면서 시작했다. 그 후 198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고故 덕문 스님 문하에 입문했다.

불화장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적 감각과 미술적 기예를 갖추어야 하지만,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불화는 천장이나 벽 등에 그려지며, 크기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 다

른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가 영축산에서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장면을 경전에 의거해 그린 ‘영산회상도’, 석가모니의 생애를 여덟 가지 주요 장면으로 표현한 ‘석가팔상도’ 등 종류도 실로 다양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불화 속에 그려야 하는 시왕초, 보살초, 사천왕, 금강역사, 신중초, 부처님초는 물론 용, 봉, 학, 호랑이, 비천상, 사신도 등 불화에 들어가는 전통문양을 모두 익혀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보유자 이연옥은 불화장으로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황금탱화를 그린다. 15년의 연구를 통해 독창적으로 고안한 것으로, 검은 바탕에 금선으로 그리는 ‘먹탱화’, 붉은 바탕에 금선으로 그리는 ‘홍탱화’ 등 전통탱화가 아닌, 그림에 옷칠하고 순금 위에 채색을 하는 황금탱화를 시도했다. 특히 장신구나 문양 등 주요 부분을 불록하게 처리해 금을 붙이는 ‘고분高粉 살붙임’ 방식은 2005년 특허 받은 기법이다. 그는 자신만의 기법으로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불화를 알리고 있으며, 미국 LA카운티박물관에는 그의 작품 ‘지장십왕도 모사도’ 등이 소장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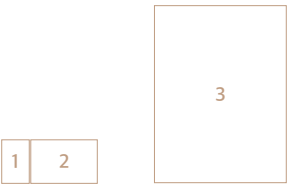
# 젯머리 성황제

젯머리 城隍祭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3길

지정일 : 2015.11.20  
보유자 : 젯머리 성황제 보존회

젯머리 성황제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젯머리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마을의 공동 제사이다. 이 마을제의는 성황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성곡동 젯머리 성황제는 젯머리마을 주민들이 마을 수호신에게 안녕과 무병·풍년을 빌기 위하여 올리는 마을 제사이다. 고려 성종 때부터 내려오는 마을신앙으로 제당에는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비妃 홍씨와 장모인 안씨를 모시고 있다. 마을굿 형태로 전승되고 있으며, 성곡동 젯머리 성황제는 매년 10월 초순에 길일을 잡아 안말·도란말·별말 등 인근의 10여 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삼현육각을 대동하고 장군놀이·신장놀이·대감놀이·대신놀이·줄타기 등을 펼친다. 고려 성종(982~997) 때 내부시랑 서희徐熙가 송나라 사신으로 가는 길에 폭풍우를 만났는데 꿈에 나타난 혼령(경순왕인 김부대왕의 비 홍씨와 친정어머니 안씨)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사당을 짓고 제를 지내준 후 무사히 임무를 수행했다는 전설이 있다. 성곡동 젯머리 성황제는 원래 1년에 두 번, 봄 성황제와 가을의 신곡맞이 성황제를 지내 왔다. 봄 성황제는 오히려 가을의 신곡맞이 성황제보다 그 규모가 훨씬 컸으며, 그 기간 또한 몇 달씩 걸리는 방대한 규모였다고 한다. 성황제의 형식으로 된 마을 농악대와 무녀가 함께 하는 공동제제라고 하는 점에서 젯머리 성황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 1. 홍씨부인(1950년대 추정), 안산문화원
- 2. 줄타기, 1984년, 안산문화원
- 3. 성황제, 2011, 안산문화원





# 시흥 군자봉 성황제

始興 君子峰 城隍祭

시흥시 황고개로327번길

지정일 : 2015.11.20  
보유자 : 군자봉 성황제 연구보존회

시흥 군자봉 성황제는 시흥시와 안산시의 경계에 위치한 군자봉 성황단城隍壇에서 김부대왕을 주신으로 모시고 행하는 곳이다. 음력 10월 3일에 본격적인 의례를 거행하며, 안산 잣머리 성황제와 성격이 유사하다.

군자봉(198.4m)은 시흥시 군자동과 안산시 선부동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며,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현재 경기도 남부 서해안 지역에서 무속인들의 발길이 가장 잦은 산으로 주위에는 여러 개의 굿당들이 들어서 있다.

군자봉에는 군자산성君子山城터와 함께 성황단이 남아 있다. 성황단은 산성이나 고을 관아의 주위에 나타나는데, 고을이나 성城 안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수령이 백성들과 더불어 위무慰撫했던 곳이다. 군자봉 성황제는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과 부인 안씨 그리고 장모 홍씨를 성황신으로 모신다고 전하는데,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시흥 군자봉 성황제는 마을 농악대와 무당일행이 마을곳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공동제의적 성격을 지니며, 안산, 수원, 평택 등의 지역까지 걸립을 다니는 판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성황제 위신을 말해주는 것이고, 널리까지 활약하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4
	1		
2	3		5

1. 성황제 유가행렬, 2017\_ 군자봉 성황제 연구보존회  
2. 성황제, 2017\_ 군자봉 성황제 연구보존회  
3. 성황제, 2016\_ 군자봉 성황제 연구보존회  
4-5. 경기도무형문화재 대축제 재연, 2016\_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 야장冶匠

안성시 별가터길 101-15

지정일 : 2016.11.08  
보유자 : 신인영

1  
2 3

1. 단조 청동 주방칼\_보유자 제공  
2. 보유자 작업 모습, 2017\_경기G뉴스  
3. 보유자 신인영, 2017\_경기G뉴스



야장은 쇠붙이를 두드려 모양을 내어 기구를 만드는 장인으로 대장간을 운영한다. 야장은 나이와 관계없이 실력에 따라 오르며 메질꾼과 풀무꾼, 심부름꾼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였다. 대장기술 습득에 오랜 숙련기간이 필요하고, 가족 외에 기술전수를 꺼리는 풍토로 인해 야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다.

야장 보유자 신인영은 ‘안성대장간’의 4대 야장 강석봉으로부터 기술을 사사했다. ‘안성대장간’은 당시 안성 시내 십여 개의 대장간 중 깊은 역사, 높은 기술력, 큰 규모로 유명했다고 한다. ‘안성대장간’의 전통을 이어받은 강석봉이 처조카인 신인영에게 1966년부터 기술을 전수했다. 신인영은 1969년부터 정식 야장이 되었고, 이후 5대 야장으로서 안성대장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는 흙을 이용한 전통접쇠를 만들어 물품을 제작할수 있는 유일한 야장으로 알려져 있다. 접쇠란 강철과 연철 등 탄소량의 차이가 있는 철을 여러 겹으로 붙여 강하면서도 탄력 있는 우수한 철을 만드는 전통기법으로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 제작물품에 따라 접는 횟수가 다르며 주로 병장기와 건축철물 등에 쓰였다.

그는 이런 전통 접쇠기법으로 승례문의 철엽을 복원했으며, 경북궁 접쇠철을 재활용하여 승례문의 엄지기둥, 동자, 둔데, 판문널 띠철과 주요 장식철물을 제작하였다. 또 미륵사지 석탑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석장용 연장도 그의 작품이다.



## 자리견이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85번길 8

지정일 : 2016.11.08  
보유자 : 정영도

1 2  
3

1. 보유자 정영도, 2017\_경기G뉴스  
2. 낚자리 확인, 경기G뉴스  
3. 저승다리 베가름, 2017\_경기문화재연구원



자리견이는 경기도 지역에서 자리가심, 방가심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용어이다. 자리견이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장례를 치른 당일 밤에 행하는 의례 중 하나로, 일종의 정화의식이다. 무속신앙에서의 ‘주검’과 주검을 둘러싼 것을 부정不淨하다고 정의하는데, 이는 산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관념이다. 부정을 정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식에서 자리견이가 행해지며, 이러한 죽음 의례 배경은 죽은 자를 위한 의례를 통해 산 자들의 길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자리견이는 소규모 의례로 절차와 내용이 복잡하지 않으며, 크게 ‘부정청배’, ‘자리견이’, ‘뒷전’으로 구성된다. 굿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춤, 노래, 반주음악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절차는 대부분 앉아서 연행하며, 고리작이나 킨을 이용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지역, 여러 사람에 의해서 자리견이가 행해지지만 정영도의 자리견이는 구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각별하게 주목되는 절차를 갖춘다. 부정한 자리와 부정한 곳을 정화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리견이 보유자 정영도는 부천지역에서 무업을 해왔으며 부천 ‘넙말 신씨네 만신’으로 불리던 김씨와 구리 ‘돌다리 권씨 만신’으로부터 자리견이를 학습하였다. 1993년에는 자리견이 보존회를 결성하여 경기도 자리견이의 전승을 위해 힘쓰고 있다.







— 3 —  
민속문화재  
—



## 회암사지 맷돌

檜岩寺址 맷돌

고려시대  
2기  
숫맷돌1 173×151×34cm  
숫맷돌2 168×140×48cm  
석재(화강암)  
양주시 회암동 산18

지정일 : 1978.10.10  
소유자 : 양주시  
관리자 : 양주시

회암사지 동쪽지역에는 사역 외곽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배수하기 위한 배수로 동편으로 ‘사’ 건물지가 위치해 있고, 건물지 내부에 2기의 맷돌이 남북으로 나란히 위치해있다. 건물지 내부에는 맷돌 뿐 만 아니라 서쪽 전면에 대형수조 2기도 분포해 있어 ‘사’ 건물지의 용도는 주로 취사와 관련된 시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암사지 맷돌 2기 모두 화강암 1매석에 매합지와 맷돌이 함께 조각되었다. 2기의 맷돌은 조각양식이 상이한데 1기는 숫맷돌과 함께 양각陽刻된 철凸자형이며, 다른 1기는 숫맷돌이 앉은 자리가 음각陰刻된 요凹자형이다. 이 2기의 맷돌 중 1기는 암맷돌이 없어졌고, 1기는 암맷돌이 남아있다. 암맷돌이 있는 맷돌의 주둥이는 서쪽으로 향해 있으며 타원형에 가까운 긴 고식이다. 이러한 부분은 주둥이가 짧은 조선시대 맷돌과는 차이가 난다. 이 맷돌에 얹혀져있는 암맷돌은 맷돌을 돌리는 맷손을 중심부 위에 꼭게 만든 것이 특이하다.

2기의 맷돌 중 숫맷돌이 매합지와 함께 조식彫飾된 1기는 거친가름을, 암·숫맷돌을 함께 올려놓게 조식된 맷돌 1기는 고운가름을 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용상에 있어서는 아마도 2인 이상이 제자리에 앉아서 마치 2인용 툽으로 나무를 자르듯이 밀고 당기고 하여 조작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회암사의 내력과 이 2기의 맷돌의 규모를 살펴볼 때 아마도 조성연대는 회암사가 가장 번화繁華했던 조선초기로 판단되며, 당시 승려와 신도들의 수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2기의 맷돌은 규모, 재료, 사용방식이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던 맷돌과는 상이한 것으로 좋은 민속자료라고 판단된다.



1  
2 3

1. 회암사지 맷돌, 1980년대\_ 양주시
2. 회암사지 맷돌, 2002\_ 양주시
3. 회암사지 맷돌,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 여주 보통리 해시계

驪州 甫通里 해시계

조선시대  
1기  
76×27.5cm  
석재(화강암)  
여주시 대신면 보통 1길 98

지정일 : 1980.06.02  
소유자 : 김영구  
관리자 : 김영구

1  
2 3 4 5

1. 여주 보통리 해시계 전경, 2017\_ 경기문화재연구원
- 2·3. 보통리 해시계, 2006\_ 여주박물관
4. 보통리 해시계,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5. 보통리 해시계 상부, 2016\_ 경기문화재연구원



우리나라의 천문학은 신라시대 이래 전통을 가진 것으로 조선시대에도 이 방면의 연구가 활발했다. 특히 세종(1397~1450)은 과학에 조예가 깊어 천문·기상학에 관련된 기기의 제작과 그것을 사용한 관측이 활발해 천문학사상 황금기를 이루었다.

세종연간 제작된 많은 과학기기 중 해시계는 1434년(세종16)에 장영실蔣英實이 만들어서 홍경각欽敬閣에 처음 설치되었고, 서울 혜정교惠政橋와 종묘 앞에도 설치되어 태양의 일주운동을 그림자의 방향에 따라 대략의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여주 보통리 해시계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26호 여주 김영구 가옥 내에 위치해있다. 본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사랑채 밖에 놓여 있다가 도난의 위험 때문에 가옥 내 안마당의 굴뚝 옆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2012년 보수공사 이후 현재의 위치인 가옥 입구 앞 마당에 위치하게 되었다. 제작연대 역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753년(영조29) 가옥의 건립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화강암 1매석을 이용하여 상부는 정사각형, 하부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으며 하부가 땅에 묻혀 있다. 상부의 정사각형의 돌 한가운데에 지름 4cm, 깊이 1cm의 구멍이 있어 여기에 간단한 영표影表를 세워 그림자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태양의 높이와 방향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만으로는 원래 어떤 해시계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장식이 없고 수평면에 2자二字 정도의 명문銘文이 있었다고 전하나, 심하게 마멸되어 판독이 불가능하다.





## 삼막사 남·녀근석

三幕寺男·女根石

미상  
2기  
남근석 높이 약 150cm  
여근석 높이 약 110cm  
석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10-1

지정일 : 1983.09.19  
소유자 : 삼막사  
관리자 : 삼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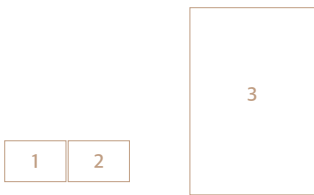
삼막사 칠성각의 서북쪽에 위치한 2개의 자연암석으로 그 모습이 남자와 여자의 성기 모양을 닮았다. 부분적으로 가장자리를 손질하였고 구멍이 뚫려 있다.

성기 숭배 신앙(phallicism)은 주로 성기를 닮은 바위나 기암 괴석 등 자연물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인위적으로 나무나 돌을 가지고 성기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다산과 풍요를 빌거나 복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민간신앙이다.

삼막사 남·녀 근석은 신라 문무왕 17년(677) 원효대사가 삼막사를 창건하기 이전부터 토속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해왔다. 또한 이 바위를 보존하면서 그 옆에 칠성각을 건축하고 18세기에 칠성불을 안치한 것은 남근석에 대한 믿음이 확대되면서 불교와 민간신앙이 함께 어우러진 대표적인 예로 이해된다.

주변 사람들에 의하면 이 바위를 만지면 다산과 출산에 효험이 있고 가문의 번영과 무병장수를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4월 초파일, 7월 칠석 등의 날이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한다. 기원을 할 때는 촛불과 과일을 차려 놓고 치성을 드리면서 동전을 바위에 문질러 붙이는 의식을 함께 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성기 숭배 신앙은 선사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미륵신앙, 무속 신앙, 풍수 신앙, 동제 등과 같이 그 전통신앙의 맥을 잇고 있다. 특히 이 삼막사 남·녀 근석은 문화 변동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1. 삼막사 여근석,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2. 삼막사 남근석,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3. 삼막사 남녀근석,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 김병호 고가

金丙浩 古家

조선시대(1893년)

1동

안채 총 14칸

행랑채 5×6칸

목재

양평군 용문면 오촌길 49번길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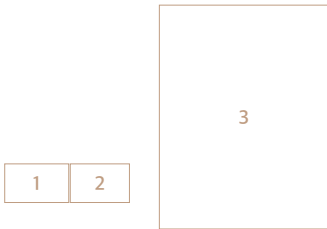
지정일 : 1984.09.12

소유자 : 김병호

관리자 : 김병호



- ① 안채
- ② 사랑채



1. 안채,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안채,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김병호 고가 전경,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김병호 고가>는 조선말기에 건립된 건물로 경기지역 주택 중에서도 규모가 큰 집에 속한다. 이 집은 현 주인의 4대 조부가 원래 연못이었던 이곳에 3년간 터를 닦아 지은 것이며, 가옥을 지은 목수는 인근의 용문사龍門寺 공사를 담당했던 대목수였던 것으로 전한다. 가옥주의 말에 의하면 원래 이집은 99칸 규모였으나 일제강점기 때 방화로 현재의 안채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사랑채는 해방 후 다시 지은 것으로 원래 초가였으나 새마을 운동 때 기와지붕으로 개량하였다.

가옥은 장방형 대지에 안마당을 중심으로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가 마주한 뜰口자형 배치다. 안채의 실구성은 전퇴가 있는 2칸 대청으로 중심으로 좌측에 건넌방, 마루방, 사당이 있고 우측에 안방이 있다. 안방 앞쪽으로 부엌이 시설되어 있다. 안채의 가구는 1고주 5량으로 기둥과 보 등 부재가 매우 견실하고 치목상태도 양호하다. 장대석 외벌대 기단에 초석은 자연석을 사용했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사랑채는 대문간을 중심으로 작은 사랑방, 큰사랑방, 창고가 연이어 구성되어 있다. 작은 사랑방과 큰 사랑방 모두 바깥마당에 면해 뒷간을 구성하였으며 각기 앞쪽으로 독립된 마당을 구성하였다. 가구는 5량으로 지붕은 시멘트기와를 올려 우진각으로 꾸몄다.

안채는 안방과 부엌이 일부 개조된 상태인데, 안방 쪽은 측면의 뒷간을 방으로 개조하였다. 개조한 후에도 뒤란 쪽으로 쪽마루를 길게 내어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였는데, 개조 이전 안방과 뒤란 영역 간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지역 민가에서는 사당을 별도의 독립채로 짓는 경우는 많지 않고 안채 마루 뒷벽에 감실 형식으로 만드는데 이 집은 안채 건넌방 왼쪽에 사당방과 이에 부속된 마루방을 별도로 마련한 점이 특이하다. 또 이 영역과 마루 사이에 위치한 1.5칸의 건넌방이 마루방을 중심으로 생활영역과 사당영역사이를 완전히 구분하여 두 영역의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이집은 상량문이 있어 건립연대도 명확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역에서도 보기 드물게 견실하게 지어진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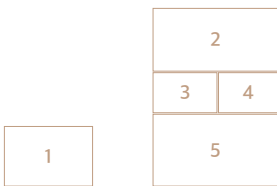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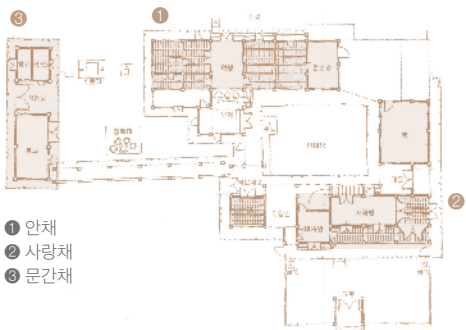


## 정원채 고가

鄭元采 古家

조선시대  
일곽  
안채 ㄱ형 평면  
사랑채 6×6칸  
문간채 4×1칸  
목재  
화성시 남양읍 송림로92번길 13

지정일 : 1984.09.12  
소유자 : 정찬홍  
관리자 : 정찬홍



1. 정원채 고가 대문,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2. 축면,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3. 안채,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4. 사랑채,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5. 정원채 고가 후면 전경,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정원채 고가>는 조선후기에 지어진 살림집으로 원래는 행랑채 등 많은 부속 건물이 있었던 큰 규모의 집이었으나, 현재는 안채와 사랑채, 문간채 등 중심 일곽만 남아 있다. 상량문에 의하면 대문간은 1904년에 지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안채는 대청중앙이 긴보 5량이며 옆부분이 1고주 5량으로 구조적인 특성상 이보다는 앞서 지어진 19세기말로 추정된다.

가옥의 배치 형태는 ㄱ자형의 안채와 사랑채가 조금 어긋나게 위치하며 그 사이에 안마당을 이루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의 평면은 쓰임새에 알맞게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안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 안방, 오른쪽에 건넌방을 두고 안방에 이어 ㄱ자로 꺾이면서 부엌을 둔 전형적인 경기도 지방의 살림채 형식을 하고 있다. 안방 왼쪽으로 작은 대청과 건넌방을 덧붙여 공간을 분리하여 주생활의 편의를 적절하게 조화시킨 평면적 특징을 갖는다.

사랑채는 바깥쪽으로 별도의 대문채와 마당을 두어 남성의 공간을 분리시키고 안마당쪽으로는 빈칸을 들이밀거나 내밀어 안채와 은밀한 연결 동선을 두고 있다.

한편 문간채와 ㄱ자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안마당으로 통하는 대문간을 두어 내외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안채 오른쪽의 마당에는 우물, 장독대, 광 등을 마련하여 부엌살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마당 앞쪽에 쌓은 담장은 한 칸 단위로 기둥을 세우고 보와 도리를 얹어 그 위에 서까래를 걸치고 지붕을 올린 것으로 매우 보기 드문 수법이다.

전체적으로 평면과 공간 구성이 기능적이고 당시의 생활편의를 고려한 독특한 평면의 살림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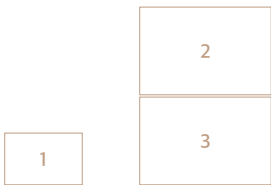


# 양평 창대리 고가

楊平 倉垓里 古家

조선시대  
2동  
안채 총 13칸  
사랑채 총 17칸  
행랑채  
목재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 333-6

지정일 : 1985.06.28  
소유자 : 이중혁  
관리자 : 김정식



1. 양평 창대리 고가 안채,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사랑채,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후면 전경,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양평 창대리 고가>는 창대리를 둘러싼 산줄기의 서쪽 사면에 동향하여 자리한 집으로, 이 마을의 가옥들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집은 조선시대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지은 집으로, 박씨 성의 사람은 창대리의 모든 논과 밭을 관리하고 조세를 거둬들이는 세력가였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소가 누운 와우형(臥牛形) 풍수형국의 중심부에 해당한다고 하여 예로부터 명당으로 인식해 왔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교당(直旨寺敎堂) 정법사(正法寺)로 이용되고 있다. 사찰로 개조된 것은 1995년의 일로, 같은 해에 문화재관리국에서 퇴락한 사랑채를 보수하는 공사를 하였다. 가옥의 배치는 가로로 긴장방형의 대지에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바깥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는 튼ㄱ자형이다. 안채는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이 배치하고 안방 앞쪽으로 부엌을 시설한 전형적인 경기지방 건물이다. 장대석 외벌대 기단에 방형으로 다듬은 초석을 사용하였다. 가구구조는 오량가(五梁架)로 맞배지붕을 올렸다.

안채와 마주하고 있는 바깥채는 6칸의 사랑채와 마당을 둘러 감싸는 행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외관상 하나로 이어진 건물로 보이지만, 구조나 간살은 독립적이다. 행랑채 일부를 제외한 바깥채의 기단은 장대석 외벌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형으로 다듬은 초석을 놓고 상부가구를 꾸몄다. 가구는 사랑채 부분 5량, 행랑채 부분이 3량이며, 지붕은 사랑채가 팔작, 행랑채가 맞배형태를 하고 있다.

이 가옥은 안채의 부엌이 입식으로 개조된 것 외에 별다른 증축이나 개수의 흔적이 없다.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재의 크기도 크고 치목상태도 잘 된 집으로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다만 현재 사찰의 기능을 하고 있어 각 공간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점은 아쉽다. 창대리 고가는 경기도 지역 중상류주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 일산 밤가시 초가

一山 밤가시 草家

조선시대  
1동  
안채 총 6칸  
행랑채 총 4칸  
목재  
고양시 일산동구 햇살로105번길 36-7

지정일 : 1991.10.19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고양시

1  
2 3  
4

1. 일산 밤가시 초가 전경, 1970년대\_고양시  
2. 일산 밤가시 초가, 2016\_경기문화재연구원  
3. 일산 밤가시 초가 마당, 2016\_경기문화재연구원  
4. 일산 밤가시 초가 내부, 2016\_경기문화재연구원



일산 신도시에 위치한 이 가옥은 ‘밤가시 초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집이다. 밤가시 초가란 이름은 과거 이 지역에 많았던 밤나무를 이용해 집을 건축했기 때문에 지어진 것이다. 주요 구조재인 기둥, 대들보, 서까래뿐만 아니라 벽선, 창호 등과 같은 수장제도 밤나무를 재료로 하였다. 건립연대는 19세기 전반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옥은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남쪽에 ㄱ자형 안채와 북쪽의 ㅡ자형 건물이 담장으로 연결되어 파리를 틀듯이 초가지붕아래 놓인 배치를 하고 있다. 초가지붕 가운데 동그란 하늘 구멍이 보이고 땅에는 이보다 조금 큰 동그란 마당이 기단아래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비나 눈이 올 때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이곳에 모여 부엌이나 다른 곳으로 흘러 넘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간을 들어서 좌측에 위치한 안채는 1칸 반 규모의 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안방, 왼쪽에 건넌방과 사랑방을 연이어 두고, 부엌은 안방의 아래쪽에 배치하였는데 부엌의 내부가 대문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별도의 벽을 설치하여 통로를 만들었다. 안채의 가구는 기둥 위에 대들보를 건너지르고 4개의 도리를 얹어 평사량平四梁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가구구조로, 용마루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초가지붕에 주로 채택되었다. 밤나무를 재료로 한 기둥에는 도끼와 자귀로 거칠게 다듬은 흔적이 보이고, 지붕에 올린 서까래도 불규칙한 배열을 하고 있어 서민 가옥의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면모를 볼 수 있다.

이 초가는 현재 일산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주변이 새롭게 정비되었는데도 원형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다. 해마다 초가지붕의 이영을 교체하고, 주변을 관리한 덕분에 인근 지역민들의 교육자료로도 잘 활용되고 있다.

## 덕릉마을 산신각

德陵마을 山神閣

조선시대  
1동  
1×2칸  
목재  
남양주시 덕릉로1071번길 18

지정일 : 1996.12.24  
소유자 : 덕릉마을주민  
관리자 : 덕릉마을주민

1 2  
3 4

1. 덕릉마을 산신각 전경, 2016\_경기문화재연구원  
2. 산신각 정면, 2016\_경기문화재연구원  
3. 산신각 내부, 2016\_경기문화재연구원  
4. 산신각 후면, 2016\_경기문화재연구원



<덕릉마을 산신각>은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덕흥대원군의 묘역 인근에 자리한 덕릉마을의 산신각 건축물이다. 덕릉마을은 마을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왕릉이나 왕실 가족의 원묘園墓 주변에 형성되는 묘지기 마을이다. 덕릉德陵은 덕흥대원군묘의 별칭이다. 산신각은 1882년에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해마다 정월과 10월 초하루에 날을 받아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산신각은 외별대 기단위에 다듬은 방형 초석을 사용한 정면 1칸, 측면 2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측면 2칸 중 전면의 1칸은 벽체 없이 퇴칸으로 구성하였고, 나머지 측면 1칸과 후면은 모두 화방벽을 돌렸다. 1칸 규모의 소규모 건축물임에도 익공을 두어 격식을 높였으며, 단청 역시 화려하게 그려 넣었다. 다듬은 석재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화려한 단청문양, 익공 구성, 원기둥을 사용한 전퇴의 구성법 등은 이 건물이 일반적인 마을의 산신각과는 다른 높은 격식의 제례건축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덕릉마을이 덕흥대원군묘의 묘지기 마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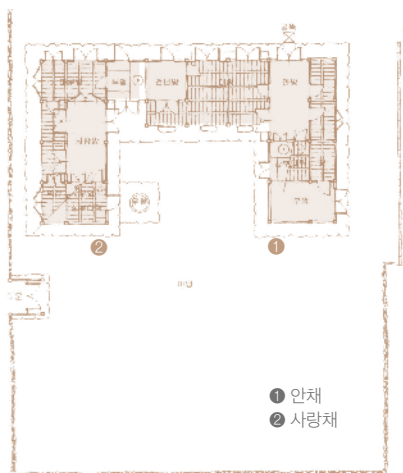


## 용인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龍仁 韓山李氏 陰崖公派 古宅

조선시대  
1동  
안채, 사랑채 총 14칸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198번길 30-4

지정일 : 1998.01.12  
소유자 : 한산이씨 음애공파 종중  
관리자 : 한산이씨 음애공파 종중



		3
		4
1	2	5

1. 사랑방 팔각기둥,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사랑채와 사당,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대문,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2016년 이전 본채 전경, 2015. A&A문화연구소

5. 수리·복원후 전경,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용인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은 조선 중종 때의 명현인 음애 이자 陰崖 李耆(1480~1533)선생의 후손이 살던 집이다. 이자 선생은 1502년(연산군8) 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우참찬의 지위에 올랐으며 1518년(중종13) 명에 사신으로 다녀온 후 한성판윤으로 증용되었다. 이듬해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조광조趙光祖(1482~1519)선생과 함께 옥에 갇혔다가 12월에 석탈관직되어 음성에 은신하고 스스로 호를 음애라 하였다. 음애선생이 살던 곳이라고 전하여 ‘전음애이자고택’으로 불리었으나 여러 차례의 중수로 음애 선생 생전의 가옥형태가 아닌 조선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2014년 2월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으로 개칭하였다.

이 집은 원래 ㄷ자형 본채의 앞쪽에 ㅡ자형 행랑채가 있어 트인 ㄷ자 형식의 배치를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행랑채는 소실되어 현재 본채만 남아있다. 본채는 사랑채와 안채가 연결되어 ㄷ자형 평면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채는 양측에 반칸 규모의 청방을 포함하여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3칸 대청, 툇마루가 딸린 1칸 건넌방과 부엌으로 몸체를 이루고 우측 날개에는 대청에 연결하여 뒤쪽에 툇마루가 있는 2칸 안방과 각각 1칸 반의 부엌, 나뭇간이 있다. 좌측 날개에는 건넌방 부엌에 연결하여 1칸 반의 청방과 전면에 툇마루가 딸린 2칸 사랑방, 1칸 반의 부엌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이 집은 한 건물 내에 내외內外의 사용 공간이 구분되는 보기드문 평면구조를 갖는다. 본채는 민도리집인데 좌측 사랑부분은 팔각지붕이고 우측 나뭇간 부분은 맞배지붕으로 지붕형태가 서로 다른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다. 본채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사당은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다른 부분과 달리 건물 외부에 단청을 칠하여 신성한 공간임을 표시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사랑방 전면 기둥으로 방주의 네 모서리를 훑어내어 팔각으로 만든 것인데 이는 인근의 안성 정무공 오정방 고택에서도 보이고 있어 당시 이 지역에서 유행된 수법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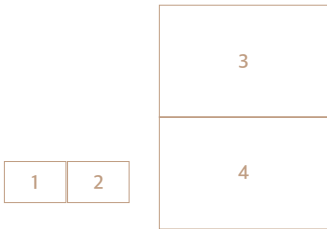


## 여주 이포리 옹기가마

驪州 梨浦里 甕器가마

조선시대  
3기  
통가마 153~175×2, 450×240~280cm  
외통가마 110~115×1,073×150cm  
단가마 115~127×700×198cm  
벽돌, 점토, 석재  
여주시 금사면 이여로 1213-12

지정일 : 2002.11.25  
소유자 : 김일만  
관리자 : 김일만



1. 외통가마, 2006. 여주박물관
2. 단가마, 2015. 경기도자박물관
3. 통가마 내부,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4. 통가마, 2017. 경기문화재연구원



<여주 이포리 옹기가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甕器匠 김일만의 작업장에 소재한 장작가마로 조선시대 말부터 전해 내려 오며 모두 3기가 있다. 가마는 작업장 오른쪽에 나란히 놓여있으며 용도에 따라서 형태와 크기가 다르다. 각각 통가마, 외통가마, 단가마로 부르는데, 통가마는 주로 큰 항아리를 소성한다. 외통가마는 소품이나 반오지그릇을 소성한다. 단가마는 셋 중에 제일 작고 시루나 푸레독을 만들 때 사용한다.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가마는 ‘대포가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략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원래 이 가마는 바닥의 길이가 40m가 넘었으나 점차 옹기 일이 줄어들면서 장작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뒷부분을 잘라내서 24.5m로 줄였다. 가마 옆 부분에는 창 불을 때는 창구멍이 나 있다.

외통가마는 통가마와 구조가 거의 비슷하지만 규모가 작아 ‘작은 대포가마’라고 부르는데, 긴 터널 형태로서 20~30° 경사진 언덕에만 들어졌다. 가마 아랫부분이나 옆부분 1, 2군데 난 문을 통해 기물을 재입하고 아래쪽에서부터 예열하여 소성을 시작한다. 천장에 있는 작은 화구, 일명 창술구멍을 통해 나무를 투입하여 가마 전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한다.

단가마는 시루를 많이 굽기 때문에 ‘시루가마’라고 부르는데 가장 원초적인 가마 형태로 아궁이를 제외하고 모두 막혀 있다. 지금은 김일만의 셋째 아들인 전수조교 김창호가 질그릇과 함께 푸레독 작업을 주로 한다.

이포리 옹기가마는 전통적인 옹기제작 방법과 소성방법을 이어가고 있고, 장작가마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 전통의 계승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규모와 특징에 맞게 용도를 달리해 3기 모두 민속자료로서 보존할 가치가 크다.





## 김좌근 고택

金左根 古宅

조선시대  
2동  
안채 총 23칸  
별당 총 15칸  
목재  
이천시 청백리로393번길 100-131

지정일 : 2003.04.21  
소유자 : 김은희  
관리자 : 김은희



<김좌근 고택>은 조선후기 안동김씨 세도기 후반의 중심인물이었던 하옥荷屋 김좌근金左根의 아들인 김병기金炳翼(1818~1875)가 부친의 묘지관리를 위한 집이자 별장으로 지은 건물이다.

김좌근은 순조 비妃 순원왕후의 오빠로 철종 때 예조판서 등 고위직을 역임하였으며 영의정을 세 번씩이나 지냈다. 이 집은 원래 99칸 규모였다고 전하는데 지금은 안채 1동과 별당 1동만 남아있다.

원래 구조는 대문간 중문간을 지나 안채로 통하는 구조였다고 한다. 중문간과 연결된 사랑채가 안채를 ㄷ자형으로 둘러싸고 그 바깥쪽에 대문간과 연결된 행랑채가 ㄱ자형으로 둘러싸고 있었으며, 안채와 오른쪽의 별당別堂 사이에 가로막힌 건물이 있었다. 또한 집 앞에는 작은 연지를 파고 섬을 만들었으며 그 위에 정자가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는 정자가 있던 곳에 마을 주민들이 콘크리트로 건립한 경로정敬老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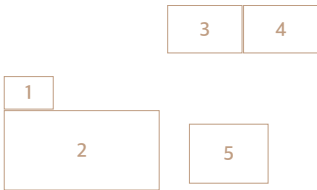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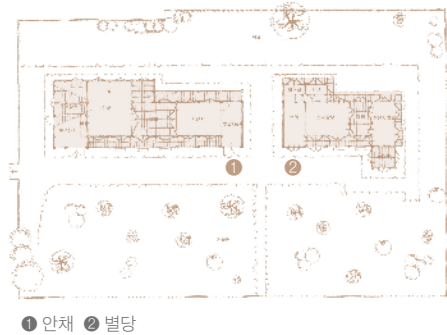
안채는 총 23칸의 일—자형 평면인데 전면에 분합문이 달린 4칸 대청 좌우에 3칸씩의 안방과 건넌방이 있고 앞 뒤쪽으로 툇마루가 가설되었다. 안채의 동서쪽 끝부분에는 건넌방과 안방에 연결되어 1칸 반 부엌과 4칸 반의 부엌이 있다. 동쪽 합각마루안방과 부엌의 북쪽 부분은 후대에 덧달아낸 것으로 판단된다. 지붕은 팔작 형식이며 기단은 잘 다듬은 장대석으로 마감하였다.

별당은 안사랑채의 기능인데 전체적으로 을자형乙字型 평면이다. 중앙에는 사분합문이 달린 3칸 대청이 있고 왼쪽에는 청방廳房이 달린 2칸 반 온돌방, 3칸 부엌이 연이어 있으며 오른쪽에는 2칸 온돌방 앞으로 1칸 누마루가 위치하였다.



누마루는 3면에 분합문을 달아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누마루아래에는 높다란 방형 석주石柱를 세웠다. 별채에서 안채로 이어지는 회랑은 없어졌지만 별채 뒷면을 돌아가며 둘러싼 쪽마루는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기둥, 대들보, 서까래는 물론이고 마루와 각종 문틀과 문살 하나에 이르기까지 잘 다듬어져서 소홀한 구석이 없다. 주춧돌과 섬돌, 건물을 둘러싼 기단석들도 반듯하게 잘 다듬어져 정갈한 인상을 준다. 별채를 둘러싼 담장 너머로 연못과 툇 터진 조망을 감상할 수 있게 한 점은 당시 권세가들의 여유와 풍류를 느끼게 한다. 이 밖에도 안사랑채인 별당을 둔 점, 대청 전면에 분합문分閤門을 갖추고 방과 마루의 앞뒤에 툇마루를 둔 방식, 칸이 넓고 치목이 정교하며 결구結構가 견고한 점 등에서 조선후기 권문세가 주택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1. 김좌근 고택 전경, 1986. 이천시
2. 김좌근 고택 전경,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안채,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별당,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평면 배치,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전 월산대군 요여

傳 月山大君 腰輿

조선시대  
1점  
80×260×65cm  
목재, 명주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지정일 : 2014.07.08  
소유자 : 고양시  
관리자 : 고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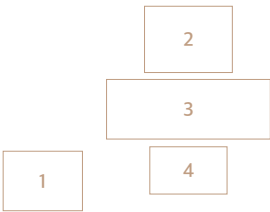
요여腰輿는 시체를 묻은 뒤에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돌아온 작은 가마를 말하여 영어靈輿라고도 한다. 요여는 조선시대 왕실용 연輦이나 여輿, 불가의 영산재 등의 의식에서 사용하는 불연佛輦의 형식과 유사하나 크기가 좀 더 작고 장식이 단조롭다는 특징이 있다.

<전 월산대군 요여>는 덕종(추존)의 장남이자 성종成宗의 친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1454~1488)의 신주를 모시던 사당에 전래된 요여로, 신주 및 부속 의물과 함께 보존되어 왔다.

월산대군 요여는 가마채와 연대, 본체와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각의 견고한 가마채 위에 상자형태의 본체를 구성하고, 본체 전면 양쪽에는 기둥을 세워 마루를 내었다. 전면에는 정교하게 만든 작은 띠살창호 여닫이문을 달았고, 문 아래와 위에 한단 3칸의 머름판을, 좌우에는 두 단 1칸의 청판을 둘러서 제작되었다. 본체 마루를 두르는 3면은 상하로 정면 한단 3칸, 양측면 한단 1칸으로 안상문眼象紋을 투각한 아랫난간과 윗난간을 달았다. 전면을 제외한 3면은 정자살창호를 달았고 창호 아래 위에 한단 3칸의 머름판을, 좌우에는 두 단 1칸의 청판을 둘러서 제작되었다. 천정은 옥개형의 처마를 두른 안쪽에 궁륭형천장을 엮었다. 안쪽에는 낙폭지落幅紙를, 바깥쪽에는 남색 명주천을 발랐는데 현재는 명주천의 색이바래 거의 남색을 찾아볼 수 없다.

월산대군 요여의 확실한 조성경위는 알 수 없으나, 사당의 건립 기록과 제작 수법으로 미루어보아 사당이 건립되던 18세기 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만 할 수 있다. 지붕 중앙의 보주형 꼭지 형태 장식, 기둥과 쇠목 등의 모서리에 쌍사를 한 점, 단순한 형태의 거멸잡이, 헛동자의 형태, 창살 가장자리를 투밀이기법으로 얇게 처리하는 창살의 형태, 축짜임 결구방식 등의 세부 목조형은 비교적 시기가 올라가고 격이 높은 전통목가구 및 전통창호에서 보이는 특성이다.

월산대군 사당에 전하는 월산대군 요여는 전통 요여의 형식과 구조를 잘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가구나 각종 부재가 매우 정교하고 세련되어 격이 높은 요여였음을 알 수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장례 및 목가구 연구에 필요한 민속공예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1. 사당 내 발견 모습, 촬영일미상\_고양시
2. 전 월산대군 요여 정면, 2014\_고양시
3. 전 월산대군 요여 측면, 2014\_고양시
4. 전 월산대군 요여 내부, 2014\_고양시







---

## 시·군별 문화재 목록

---



<b>가평군</b>		
현등사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63호	<b>70</b>
월사집 목판	유형문화재 제133호	<b>162</b>
현등사 목조아미타좌상	유형문화재 제183호	<b>234</b>
현등사 청동지장보살좌상	유형문화재 제184호	<b>236</b>
현등사 아미타회상도	유형문화재 제185호	<b>238</b>
가평 현등사 신중도	유형문화재 제193호	<b>252</b>
가평 현등사 수월관음도	유형문화재 제198호	<b>260</b>
가평 현등사 함허당 특통탑 및 석등	유형문화재 제199호	<b>262</b>
지장	무형문화재 제16호	<b>474</b>

## 고양시

행주대첩비	유형문화재 제74호	<b>82</b>
북한산성 금위영 이건기비	유형문화재 제87호	<b>101</b>
고양 흥국사 극락구품도	유형문화재 제143호	<b>178</b>
고양 봉성암 전성능대사 부도	유형문화재 제188호	<b>242</b>
고양 흥국사 괘불	유형문화재 제189호	<b>244</b>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	유형문화재 제190호	<b>246</b>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유형문화재 제215호	<b>288</b>
육경합부	유형문화재 제216호	<b>290</b>
조상경	유형문화재 제217호	<b>292</b>
고양 원각사 수륙무자 평등재의 활요	유형문화재 제240호	<b>332</b>
고양 원각사 치문경훈	유형문화재 제241호	<b>334</b>
고양 원각사 달마대사관심론	유형문화재 제242호	<b>336</b>
덕암사 목조보살좌상 (관음보살좌상, 대세지보살좌상)	유형문화재 제246호	<b>342</b>
고양시 길상사 육경합부	유형문화재 제259호	<b>361</b>
고양시 길상사 묘법연화경	유형문화재 제260호	<b>362</b>
고양 원각사 신중도	유형문화재 제284호	<b>400</b>
대방광불화엄경 권62	유형문화재 제285호	<b>402</b>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1-1, 1-2, 2-1, 2-2	유형문화재 제286호	<b>404</b>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1	유형문화재 제287호	<b>406</b>
고양 흥국사 영산회상도	유형문화재 제296호	<b>422</b>
고양 원각사 불조삼경	유형문화재 제301호	<b>432</b>
고양 원각사 고려시대 다라니 일괄	유형문화재 제302호	<b>434</b>
고양 대성암 목활자본 묘법연화경	유형문화재 제303호	<b>436</b>
고양 대성암 선림보훈	유형문화재 제304호	<b>437</b>
한천두 위성공신 교서 및 초상	유형문화재 제316호	<b>456</b>
고양 송포 호미걸이	무형문화재 제22호	<b>484</b>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무형문화재 제27-4호	<b>502</b>
경기소리(휘몰이잡가)	무형문화재 제31-1호	<b>508</b>
금은장	무형문화재 제43호	<b>531</b>
일산 밤가시 초가	민속문화재 제8호	<b>576</b>
전 월산대군 요여	민속문화재 제13호	<b>584</b>

## 과천시

효령대군 영정	유형문화재 제81호	<b>92</b>
온은사	유형문화재 제100호	<b>116</b>
연주암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104호	<b>120</b>

보광사 목조여래좌상	유형문화재 제162호	<b>209</b>
추사 김정희 서신	유형문화재 제244호	<b>338</b>
경기소리(긴잡가)	무형문화재 제31-2호	<b>509</b>
과천 무동 답교놀이	무형문화재 제44호	<b>532</b>
양태장	무형문화재 제51호	<b>548</b>

## 광명시

이원익선생 영정	유형문화재 제80호	<b>90</b>
오리 이원익 영우	유형문화재 제161호	<b>208</b>
광명 이원익 초상화	유형문화재 제224호	<b>300</b>
계해사계장연첩	유형문화재 제228호	<b>308</b>
이원익 인조묘정배향교서	유형문화재 제229호	<b>310</b>
이원익 유서	유형문화재 제230호	<b>312</b>
이원익 도망시	유형문화재 제231호	<b>314</b>
이원익 계자손서	유형문화재 제232호	<b>316</b>
광명 번역 징비록	유형문화재 제234호	<b>320</b>
광명 이원익 친필유묵	유형문화재 제235호	<b>322</b>
광명 이존도 유서	유형문화재 제236호	<b>324</b>
광명농악	무형문화재 제20호	<b>480</b>

## 광주시

수어장대	유형문화재 제1호	<b>10</b>
송혈전	유형문화재 제2호	<b>12</b>
청량당	유형문화재 제3호	<b>14</b>
현절사	유형문화재 제4호	<b>16</b>
침매정	유형문화재 제5호	<b>18</b>
연무관	유형문화재 제6호	<b>20</b>
광주 유정리 석불좌상	유형문화재 제88호	<b>102</b>
광주 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유형문화재 제201호	<b>266</b>
강희 21년명 장경사 동종	유형문화재 제282호	<b>396</b>
광주 수도사 목조보살좌상	유형문화재 제308호	<b>444</b>
광주 남한산성 소주	무형문화재 제13호	<b>468</b>
소목장(백골)	무형문화재 제14-2호	<b>471</b>
사기장(분청사기)	무형문화재 제41-2호	<b>526</b>
석장(조각)	무형문화재 제42-1호	<b>528</b>

## 구리시

나만갑선생 신도비	유형문화재 제126호	<b>152</b>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205호	<b>272</b>
구리시 갈매동 도당굿	무형문화재 제15호	<b>472</b>
석장(석구조물)	무형문화재 제42-2호	<b>530</b>
경기검무	무형문화재 제53호	<b>552</b>

## 군포시

방자유기장	무형문화재 제10호	<b>464</b>
-------	------------	------------

## 김포시

우저서원	유형문화재 제10호	<b>26</b>
조현선생 유허추모비	유형문화재 제90호	<b>104</b>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 및 비	유형문화재 제91호	<b>105</b>
장만선생 영정 및 공신록권 ※ 공신록권은 김포시, 영정은 용인시	유형문화재 제142호	<b>176</b>
심연원 신도비	유형문화재 제146호	<b>184</b>
심강 신도비	유형문화재 제147호	<b>186</b>
김포 금정사 석조여래좌상	유형문화재 제275호	<b>384</b>
김포 통진 두레놀이	무형문화재 제23호	<b>486</b>

## 남양주시

불암사 경판	유형문화재 제53호	<b>64</b>
한확선생 신도비	유형문화재 제127호	<b>154</b>
남양주 수종사 부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b>202</b>
신재 한상경 영정	유형문화재 제166호	<b>214</b>
남양주 내원암 괘불도	유형문화재 제197호	<b>258</b>
남양주 흥국사 성임당탑	유형문화재 제203호	<b>268</b>
조상경	유형문화재 제218호	<b>293</b>
현수제승법수	유형문화재 제219호	<b>294</b>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	유형문화재 제252호	<b>350</b>
남양주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유형문화재 제253호	<b>352</b>
남양주 봉영사 아미타불도	유형문화재 제255호	<b>354</b>
남양주 봉영사 지장시왕도	유형문화재 제256호	<b>356</b>
남양주 봉영사 신중도	유형문화재 제257호	<b>358</b>
남양주 봉영사 산신도	유형문화재 제258호	<b>360</b>
남양주시 묘적사 팔각다층석탑	유형문화재 제279호	<b>392</b>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유형문화재 제289호	<b>410</b>
남양주 불암사 괘불도	유형문화재 제315호	<b>454</b>
계명주(약계명주 포함)	무형문화재 제1호	<b>460</b>
소목장(가구)	무형문화재 제14호	<b>469</b>
자수장(궁수)	무형문화재 제25-1호	<b>494</b>
목조각장	무형문화재 제49호	<b>544</b>
퇴계원 산대놀이	무형문화재 제52호	<b>550</b>
덕릉마을 산신각	민속문화재 제9호	<b>577</b>

## 동두천시

동두천 광주정씨가 소장 고문서	유형문화재 제207호	<b>274</b>
경기송서(송사·율창)	무형문화재 제54호	<b>553</b>
동두천민요	무형문화재 제55호	<b>554</b>

## 부천시

부천 석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유형문화재 제204호	<b>270</b>
부천 만불선원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제5	유형문화재 제266호	<b>370</b>
부천 만불선원 십지경론 이구지·난승지2책	유형문화재 제267호	<b>371</b>
부천 만불선원 화엄경언해38권39책	유형문화재 제268호	<b>372</b>
조각장	무형문화재 제39호	<b>519</b>
자리걸이	무형문화재 제61호	<b>563</b>

## 성남시

봉국사 대광명전	유형문화재 제101호	<b>117</b>
망경암 마애여래좌상	유형문화재 제102호	<b>118</b>
만력기축 사마방목	유형문화재 제249호	<b>345</b>
박동량 호성공신교서	유형문화재 제250호	<b>346</b>

성남시 대광사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게송	유형문화재 제261호	<b>364</b>
성남시 대광사 선종영가집언해권상	유형문화재 제262호	<b>365</b>
성남시 대광사 경율이상	유형문화재 제263호	<b>366</b>
성남 봉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유형문화재 제309호	<b>446</b>
성남 봉국사 아미타불회도	유형문화재 제310호	<b>448</b>
나전철기장(철장)	무형문화재 제24-1호	<b>488</b>
대목장(도편수)	무형문화재 제36-2호	<b>514</b>

## 수원시

지지대비	유형문화재 제24호	<b>40</b>
팔달로 동종	유형문화재 제69호	<b>74</b>
수원 봉녕사 석조삼존불	유형문화재 제151호	<b>192</b>
수원시 봉녕사 불화 (신중탱화·현왕정화)	유형문화재 제152호	<b>194</b>
수원 청련암 영산회상도	유형문화재 제221호	<b>296</b>
김후 영정 및 영정함, 호수·호수함 일괄	유형문화재 제291호	<b>414</b>
홍재전서	유형문화재 제292호	<b>416</b>
김우형 서첩 기오재 회묵	유형문화재 제293호	<b>418</b>
윤증서첩 유봉필첩	유형문화재 제294호	<b>419</b>
조돈 영서	유형문화재 제297호	<b>424</b>
정조 어필 비망기	유형문화재 제298호	<b>426</b>
정조사 조심태 여찰첩	유형문화재 제299호	<b>428</b>
정조사 박종보 여찰첩	유형문화재 제300호	<b>430</b>
승무·살풀이춤	무형문화재 제8호	<b>462</b>
소목장(창호)	무형문화재 제14-1호	<b>470</b>
단청장	무형문화재 제28호	<b>504</b>
불화장	무형문화재 제57호	<b>556</b>

## 시흥시

시흥 군자봉 성황제	무형문화재 제59호	<b>560</b>
------------	------------	------------

## 안산시

한응인 영정 및 재실유물 일괄	유형문화재 제153호	<b>196</b>
쌍계사 목조여래좌상	유형문화재 제181호	<b>230</b>
쌍계사 현왕도	유형문화재 제182호	<b>232</b>
이상의 영정	유형문화재 제283호	<b>398</b>
군포 당청 옥로주	무형문화재 제12호	<b>466</b>
갯머리 성황제	무형문화재 제58호	<b>558</b>

## 안성시

덕봉서원	유형문화재 제8호	<b>22</b>
기술리 석불입상	유형문화재 제36호	<b>44</b>
매산리 석불입상	유형문화재 제37호	<b>46</b>
철정사 당간	유형문화재 제39호	<b>50</b>
흥계남장군 고루비	유형문화재 제71호	<b>78</b>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78호	<b>88</b>
오명항선생 토적송공비	유형문화재 제79호	<b>89</b>
안성 죽산리 당간지주	유형문화재 제89호	<b>103</b>
안성 죽산리 석불입상	유형문화재 제97호	<b>112</b>
석남사 대웅전	유형문화재 제108호	<b>128</b>
석남사 마애여래입상	유형문화재 제109호	<b>130</b>
김중만장군 공신록 및 교지	유형문화재 제110호	<b>132</b>



칠장사 대웅전	유형문화재 제114호	136
칠장사 소조사천왕상	유형문화재 제115호	138
청원사 칠층석탑	유형문화재 제116호	140
청룡사 사적비	유형문화재 제124호	149
신창리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130호	158
안성객사	유형문화재 제154호	198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유형문화재 제170호	219
안성 청원사 대웅전	유형문화재 제174호	221
안성 정무공 오정방 고택	유형문화재 제175호	222
안성 죽림리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179호	228
안성 운수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유형문화재 제202호	267
안성 칠장사 대웅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	유형문화재 제213호	285
안성 칠장사 목조지장삼존상과 시왕상 일괄	유형문화재 제227호	306
안성 칠장사 범종	유형문화재 제238호	328
안성 칠장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유형문화재 제239호	330
안성 봉덕사 목조여래좌상	유형문화재 제290호	412
입사장	무형문화재 제19호	478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무형문화재 제21호	482
안성 향당무	무형문화재 제34호	511
주물장	무형문화재 제45호	534
야장	무형문화재 제60호	562

## 안양시

만안교	유형문화재 제38호	48
석수동 마애종	유형문화재 제92호	106
안양사 귀부	유형문화재 제93호	108
삼막사 마애삼존불	유형문화재 제94호	110
삼막사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112호	134
삼막사 사적비	유형문화재 제125호	150
영영수양관연명지도	유형문화재 제149호	190
건릉오십구년오월삼일 군호재가문서	유형문화재 제150호	191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164호	212
목우자수심결	유형문화재 제243호	337
생칠장	무형문화재 제17호	475
악기장(북매우기)	무형문화재 제30-1호	506
삼막사 남·녀근석	민속문화재 제3호	568

## 양주시

지공선사 부도 및 석등	유형문화재 제49호	56
나옹선사 부도 및 석등	유형문화재 제50호	58
무학대사비	유형문화재 제51호	60
회암사지 부도탑	유형문화재 제52호	62
아사대비	유형문화재 제82호	94
양주 회암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물	유형문화재 제206호	273
양주 송암사 육경합부	유형문화재 제305호	438
나전칠기장(나전장)	무형문화재 제24-2호	490
양주 상여·회다지소리	무형문화재 제27-1호	498
양주농악	무형문화재 제46호	536
회암사지 맷돌	민속문화재 제1호	566

## 양평군

사나사 원증국사 탑	유형문화재 제72호	79
사나사 원증국사 석종비	유형문화재 제73호	80

이항로선생 생가	유형문화재 제105호	122
이호민 영정 외 일괄유물	유형문화재 제144호	180
양평 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	유형문화재 제171호	220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180호	229
류상운 초상	유형문화재 제233호	318
류상운 약재집 초고본	유형문화재 제251호	348
효령세자 예찰	유형문화재 제307호	442
양평 상여·회다지소리	무형문화재 제27-3호	500
김병호 고가	민속문화재 제5호	570
양평 창대리 고가	민속문화재 제7호	574

## 여주시

강한사	유형문화재 제20호	38
포초골 미륵좌불	유형문화재 제35호	42
명성황후 탄강구리비	유형문화재 제41호	54
명성황후 생가	유형문화재 제46호	55
대로사비	유형문화재 제84호	98
여주 계신리 마애여래입상	유형문화재 제98호	114
신륵사 극락보전	유형문화재 제128호	156
여산송씨 족보	유형문화재 제139호	174
여주군경수연도	유형문화재 제145호	182
정대년 신도비	유형문화재 제148호	188
여주 도곡리 석불좌상	유형문화재 제160호	206
송암 이충원 영정	유형문화재 제167호	216
인재 홍진 영정	유형문화재 제178호	226
	유형문화재 제195호	256
여주 고달사지 석조	유형문화재 제247호	343
여주 신륵사 건륭삼십팔년명 동종	유형문화재 제277호	388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 삼장보살도	유형문화재 제278호	390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유형문화재 제281호	395
웅기장	무형문화재 제37호	516
사기장(청화백자)	무형문화재 제41호	522
여주 보통리 해시계	민속문화재 제2호	567
여주 이포리 웅기가마	민속문화재 제11호	580

## 연천군

오봉사지 부도	유형문화재 제131호	159
연천군 심원사지 부도군	유형문화재 제138호	172

## 오산시

궐리사 성적도	유형문화재 제62호	68
---------	------------	----

## 용인시

충렬서원	유형문화재 제9호	24
정조어제 채제공선생 뇌문비	유형문화재 제76호	86
문수산 마애보살상	유형문화재 제120호	144
연행일록부·연행별장 외 명현간찰	유형문화재 제134호	164
서거정선생 묘지석	유형문화재 제136호	168
장만선생 영정 및 공신록권 ※공신록권은 김포시, 영정은 용인시	유형문화재 제142호	176
납계 박세채 영정	유형문화재 제163호	210
현수제승법수	유형문화재 제169호	218
이인엽 영정	유형문화재 제191호	248
요지연도	유형문화재 제192호	250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194호	254
용인 화운사 목조여래(아미타·약사)좌상	유형문화재 제200호	264
임방 초상	유형문화재 제208호	276
유순정 초상 및 함	유형문화재 제209호	278
황성원 초상	유형문화재 제210호	280
황진 초상	유형문화재 제211호	282
고려사절요(갑인자본)	유형문화재 제245호	340
용인 법륜사 목불좌상	유형문화재 제311호	450
지장보살본원경 상·중·하	유형문화재 제312호	451
묘법연화경 권3~4	유형문화재 제313호	452
자수장(민수)	무형문화재 제25호	492
악기장(현악기)	무형문화재 제30-2호	507
주성장(불구)	무형문화재 제47호	538
주성장(범종)	무형문화재 제47-1호	540
경기고갈소고춤	무형문화재 제56호	555
용인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민속문화재 제10호	578

## 의왕시

청계사 소장 목판	유형문화재 제135호	166
의왕 청계사 신중도	유형문화재 제274호	382
의왕 청계사 청계사사적기비	유형문화재 제288호	408
연사일록과 한글 연행록	유형문화재 제314호	453

## 의정부시

망월사 혜거국사 부도	유형문화재 제122호	148
의정부 약수선원 목조보살입상	유형문화재 제176호	223
하석 박정 영정	유형문화재 제177호	224
의정부 회룡사 오층석탑	유형문화재 제186호	240
의정부 원효사 묘법연화경	유형문화재 제196호	257
의정부 망월사 목조불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유형문화재 제270호	374
의정부 망월사 목조불삼존상	유형문화재 제271호	376
의정부 망월사 괘불도 (괘불함 및 복장낭 포함)	유형문화재 제272호	378
의정부 망월사 건릉오십삼년명 동종	유형문화재 제273호	380
의정부 망월사 간행 진언집 책판 및 관련 목판 4종	유형문화재 제276호	386

## 이천시

이천 중리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106호	124
이천 어석리 석불입상	유형문화재 제107호	126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유형문화재 제119호	142
버루장	무형문화재 제26호	496
화각장	무형문화재 제29호	505
사기장(순백자)	무형문화재 제41-1호	524
이천 거북놀이	무형문화재 제50호	546
김작근 고택	민속문화재 제12호	582

## 파주시

화석정	유형문화재 제61호	66
보광사 대웅보전	유형문화재 제83호	96
이회선생 신도비	유형문화재 제121호	146
파주 마애사면석불	유형문화재 제156호	200

파주 보광사 승정철년명 동종	유형문화재 제158호	204
파주 보광사 목조보살입상	유형문화재 제248호	344
파주 용상사 석불좌상	유형문화재 제280호	394
파주 검단사 아미타불회도	유형문화재 제295호	420
옥창	무형문화재 제18호	476
파주 금산리 민요	무형문화재 제33호	510

## 평택시

대동법시행 기념비	유형문화재 제40호	52
삼봉진 목판	유형문화재 제132호	160
팽성읍 객사	유형문화재 제137호	170
서각장	무형문화재 제40호	520
평택민요	무형문화재 제48호	542

## 포천시

청성사	유형문화재 제64호	72
용연서원	유형문화재 제70호	76
인평대군 치제문비	유형문화재 제75호	84
포천 석조여래입상	유형문화재 제155호	199
포천 동화사 목조불좌상	유형문화재 제220호	295
포천 대구서씨 백자묘지 및 석함	유형문화재 제306호	440
포천 메나리	무형문화재 제35호	512
풀피리	무형문화재 제38호	518

## 하남시

조선장	무형문화재 제11호	465
-----	------------	-----

## 화성시

금동향로	유형문화재 제11호	28
청동향로	유형문화재 제12호	30
용주사 상량문	유형문화재 제13호	32
전적수사본	유형문화재 제14호	34
용주사 병풍	유형문화재 제15호	35
용주사 대웅전 후불탱화	유형문화재 제16호	36
윤계선생 순절비	유형문화재 제85호	100
계갑일록 및 관련문서	유형문화재 제187호	241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	유형문화재 제212호	284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삼세불좌상	유형문화재 제214호	286
화성 용주사 목조감실	유형문화재 제222호	297
화성 용주사 지장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일괄	유형문화재 제223호	298
화성 용주사 삼장보살도	유형문화재 제225호	302
화성 용주사 중종	유형문화재 제226호	304
화성 용주사 대성인로왕보살변	유형문화재 제237호	326
백자청화 정부인 영광정씨 묘지 및 지석함	유형문화재 제264호	367
고령신씨 북백공파 고문서 85건	유형문화재 제265호	368
화성 용주사 전답양안2건	유형문화재 제269호	373
정원재 고가	민속문화재 제6호	572



총괄	김성명   경기문화재연구원장 도현선   경기도 문화유산과장
기획	김영화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장 이재복   경기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장 김선미   경기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학예연구사
진행	김영화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장 우승희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선임연구원 김다혜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연구원 손영하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연구원
사진촬영	오세운
사진협조 (가나다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도문화재돌봄사업단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경기문화재연구원 북한산성문화사업팀 경기G뉴스 고려대학교 박물관 과천추사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군포문화원 금강문화유산연구원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 백령사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문화재청 반남박씨 금계종택 반남박씨 서계종택 서울대학교 박물관 성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성보문화재연구원 성호기념관 세종대학교 박물관 수원광고박물관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 안산문화원 여주박물관 전주이씨 완양부원군 종택 중앙문화재연구원 충청대학교 박물관 충현박물관 판교박물관 평택민요보존회 한국문화유산연구원 LH토지주택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백문화재연구원 화성시향토박물관 한신대학교 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A&A문화연구소

집필 및 감수 (가나다순)	강명호   경기도자박물관 곽동석   동양대학교 문화재발굴보존학과 금종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김길식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김미경   문화재청 대구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김민규   간송미술관 김상영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김   영   서울문화유산연구원 김우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김은선   대전광역시청 김이순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김자운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김재호   한국식품연구원 우리술연구팀 김정희   원광대 고고·미술사학과 김주홍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지민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현선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혜정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학과 도윤수   동국대학교 불교건축문화연구소 박경식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 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박진재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박철상   고문헌연구가 배영일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 백난영   상지대학교 원예조경학과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손환일   대전대학교 서화문화연구소 송만영   숭실대학교 사학과 송일기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심경보   전곡선사박물관 심영신   숭실대학교 사학과 엄기표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양학부 여상진   선문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염정섭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오용섭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윤진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윤호필   동양문물연구원 윤효정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이동국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이민식   수원박물관 이순미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이순희   안산대학교 건축디자인과 이승희   한서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이유라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이현정   근대건축활용연구가 이희정   문화재청 부산항 문화재감정관실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정성권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장세웅   경기문화재연구원 정은우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정정남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최공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과 최선일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최응천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최종철   여주대학교 건축학과 하문식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홍대한   숙명여자대학교 건축환경연구센터 홍병화   주)한국건축안전센터



# 경기도 문화재 총 램

도지정편 \_\_ 1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발행일	2017년 12월 15일
발행	경기도 경기문화재연구원
편집디자인 인쇄·제작	칼라뱅크 조은문화사
ISBN	979-11-959816-9-4 (제1권) 979-11-959816-8-7 (전2권)
발간등록번호	71-6410000-000243-14

(비매품)  
이 도서의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도서에 수록된 사진자료의 사용권한은 경기도와 각 소장처에 있습니다.

